

열한일기 1

박지원 저 | 이가원 역 신흥 강국 청(淸)의 문물을 답사하여 소개한 기행문이자, 18세기 조선 최고의 문제작. 연암의 파격적 문체와 이용후생(利用厚生) 학풍의 날카로운 관찰이 빛난다. 정치·경제·사회·문화를 두루 다루면서도 리듬감과 재미를 놓치지 않았고, 《호질(虎叱)》 《허생전(許生傳)》 등 문학을 통해 현실을 비판하면서도 유머를 잃지 않았던 연암의 시선을 원로 한문학자 이가원 선생의 번역으로 만나보자.



올제일기

*본 문서에 대한 저작권은 사단법인 올재에 있으며, 이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12 Olje All Rights Reserved

올재의 꿈

올재는 지혜 나눔을 위해 2011년 9월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예술과 문화 속에 담긴 지식과 교양을 널리 소개하고 향유함으로써, 격변하는 세상의 지향점을 찾고, 올바르고 창의적인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올재의 꿈입니다. 특히 올재는 인문고전이나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지혜 나눔의 계기와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은 인문고전입니다. <올재 클래식스>는 최고 수준의 번역본을 부담 없는 가격에 보급합니다. 각 종당 5천 권을 발행하며 4천 권은 교보문고에서 6개월 간 한정 판매합니다. 미판매된 도서와 발행 부수의 20%는 복지시설, 군부대, 저소득층 등에 무료 기증합니다. 출간한 번역본은 일정 기간 후 올재 인터넷 홈페이지(www.olje.or.kr)에 게시합니다.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올재의 벗

〈올재 클래식스〉 《열하일기1》의 발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상당액은 〈올재 클래식스〉의 지혜 나눔 취지에 적극 공감한 삼성의 도움으로 마련됐습니다. 국내 최대의 서점 교보문고는 〈올재 클래식스〉의 유통 지원에 도움을 주셨고 코리아헤럴드와 헤럴드경제를 발행하는 (주)헤럴드는 출판인쇄와 교열을 도와주셨습니다. 표지 제호를 재능 기부해 주신 강병인캘리그라피연구소 술통 대표 강병인 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귀한 번역본을 남겨주신 고 이기원 선생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선친의 글을 올재에서 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이동활 님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올재 클래식스〉 출간이 전국 곳곳에 인문고전 나눔으로 뜨겁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 〈올재 클래식스〉 출간에 많은 격려와 박수를 보내주신 벗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전합니다.

정기 후원과 일반 후원으로 올재의 지혜 나눔에 참여하세요.

올재의 벗들이 심은 작은 홀씨가 전국 곳곳에 인문고전의 꽃으로 피어납니다.

올재 후원함 | 예금주 사단법인 올재

국민은행 023501-04-184681

신한은행 100-027-966986

우리은행 1005-401-996902

하나은행 162-910013-46904

농협 301-0100-8607-71

후원 문의처 | 올재 사무국

① 02)720-8278 ② www.olje.or.kr ③ olje classics@olje.or.kr

④ @olje classics ⑤ www.facebook.com/olje classics

지혜 나눔을 함께 한 벗들



《열하일기(熱河日記)》 해제(解題)

이가원(李家源)

이 《열하일기(熱河日記)》 26편은, 조선 정조(正祖) 때 수많은 실학파(實學派) 학자 중에서 특히 북학파(北學派)의 거성(鉅星)인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 선생(1737~1805)의 명저이다.

그는 정조 4년, 곧 1780년에 그의 삼종형 금성위(錦城尉) 박명원(朴明源)의 수행원(隨行員)으로, 청(淸) 고종(高宗)의 70수를 축하하기 위하여 중국에 들어가, 성경(盛京) · 북평(北平) · 열하(熱河) 등지를 역람(歷覽)하고 돌아와서 이 책을 엮은 것이다.

그는 일찍이 당시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 일계(一系)의 학자들이 존명사상(尊明思想)에 얹혀서 아무런 실천이 없는 유명무실한 북벌책(北伐策)을 부르짖음에 반하여 북학론(北學論)을 주장하였다.

그는 또 중국의 산천(山川) · 풍토(風土)와 문물(文物) · 제도(制度)에 대하여 오랫동안 염모(艷慕)하였는데, 급기야 그 숙원(宿願)이 이루어져 그들의 통도(通都) · 요새(要塞)를 신력(身歷)하고는 더욱 자신이 만만하여, 모든 역사(歷史) · 지리(地理) · 풍속(風俗) · 습상(習尚) · 고거(攷據) · 건설(建設) · 인물 · 정치 · 경제 · 사회 · 종교 · 문학 · 예술 · 고동(古董) 등에 이르기까지 이에 수록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의 관상(觀賞)은 오로지 승지(勝地) · 명찰(名刹)에 그친 것이 아니었고, 특히 이 용후생적(利用厚生的)인 면에 중점을 두어, 그 호화찬란한 재료의 구사와 용려동탕한 문장의 표현이 실로 조선의 일대를 통틀어 수많은 연행문학(燕行文學) 중에서 백미적(白眉的)인 위치를 독점하였으며, 그 가치로서는 반계(磻溪) 유형원(柳馨遠)의 《수록(隨錄)》, 성호(星湖) 이익(李灝)의 《사설(塞說)》, 초정(楚亭) 박제가(朴齊家)의 《북학의(北學議)》 등과 함께 추승(推崇)되었으나, 특히 문학적인 면에 있

어서는 결코 삼가(三家)의 추급(追及)할 바 아니었다.

그리고 본서는 애초부터 명확한 정본(定本)이 없는 동시에 당시의 판본(版本)이 없었으며, 다만 수많은 전사본(傳寫本)이 유행되었으므로, 그 편제(編制)의 이동(異同)이 없지 않음도 사실이었다. 이제 이 역주본(譯註本)은 연암의 수사본(手寫本), 또는 수택본(手澤本)을 근거로 삼고, 그 중의 누락된 부분은 몇십 종의 제본(諸本)을 상세히 대조하여 보충하되, 일일이 주석(註釋)에서 표시하였고, 또 최근에 발견된 원저(原著)의 세 편 중에서 <열하일기서(熱河日記序)>와 <양매시화(楊梅詩話)> 두 편은 적소(適所)에 추가하였으며, 다만 열하일기 보유(補遺) 한 편은 편질이 너무나 방대하여 뒷날에 정리 추가하기로 하였다.



《열하일기》의 행로

〈도강록(渡江錄)〉

압록강(鴨綠江)으로부터 요양(遼陽)에 이르기까지 15일 동안의 기록이다. 그는 책문(柵門) 안을 들어서자 곧, 그들의 이용후생적(利用厚生的)인 건설에 심취(心醉)하였다. 주로 성제(城制)와 벽돌을 쓰는 것이 실리임을 역설했다.

〈성경잡지(盛京雜識)〉

십리하(十里河)로부터 소흑산(小黑山)에 이르기까지 5일 동안의 기록이다. 그 중에는 특히 속재필담(粟齋筆談) · 상루필담(商樓筆談) · 고동록(古董錄) 등이 가장 재미있는 기사이다.

〈일신수필(駢迅隨筆)〉

신광녕(新廣寧)으로부터 산해관(山海關)에 이르기까지의 병참지(兵站地)를 달리는 9일 동안의 기록이다. 거제(車制) · 희대(戲臺) · 시사(市肆) · 점사(店舖) · 교량(橋梁) 등에 대한 서술이다. 특히 그 서문 가운데의 이용후생학(利用厚生學)에 대한 논평이 독자의 흥미를 이끌었다.

〈관내정사(關內程史)〉

산해관 안으로부터 연경(燕京)에 이르기까지 11일 동안의 기록이다. 그 중 백이(伯夷) · 숙제(叔齊)의 사당 중에서, “백이 숙채(熟菜)가 사람을 죽이네”라는 이야기와 우암(尤菴)의 화상에 절하던 이야기 등 기사도 재미있는 일이거나와, 특히 〈호질(虎叱)〉 한 편은 연암소설(燕巖小說) 중에서 〈허생전(許生傳)〉과 함께 가장 드의작(得意作)이었다. 남주인공 북곽 선생(北郭先生)과 여주인공 동리자(東里子)를 등장시켜서 당시 사회의 부패상을 여지없이 폭로하였다. 그 하나는 유학대가(儒學家)요, 또 하나는 정절부인(貞節夫人)으로 가장하여, 사회를 속이며 풍기를 문란하게 하였다. 그러한 정상을 알게 된 호랑이는 북곽 선생을 꾸짖었다. 사람이 호랑이를 꾸짖은 것이 아니고, 호랑이가 사람을 꾸짖은 것이다. 이는 곧 호랑이를 인격화함에 성공하였던 것이다.

〈막북행정록(漠北行程錄)〉

연경으로부터 열하(熱河)에 이르기까지 5일 동안의 기록이다. 열하의 요해를 역설한 것이 모두 당시 열하의 정세를 잘 관찰한 논평이었고, 열하로 떠날 때의 이별의 한을 서술한 한 토막의 문장은 특히 애처롭기 짹이 없어, 후세의 독자로 하여금 눈물짓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태학유관록(太學留館錄)〉

열하의 태학에서 묵은 6일 동안의 기록이다. 중국의 학자 윤가전(尹嘉銓) · 기풍액(奇豐額) · 왕민호(王民暉) · 학성(郝成) 등과 함께 동중(東中) 두 나라의 문물(文物) · 제도(制度)에 대한 논평을 전개하다가, 이내 월세계(月世界) · 지전(地轉) 등의 설을 토론했다. 대체 당시 태서(泰西)의 학자 중에 지구(地球)의 설을 말한 이는 있었으나 지전에 대한 설은 없었는데, 대곡(大谷) 김석문(金錫文)에 이르러서 비로소 삼환부공(三丸浮空)의 설을 주장하였으며, 연암은 그의 지우(摯友) 담현(湛軒) · 흥대용(洪大容)과 함께 대곡의 설을 부연하여 지전의 설을 주창하였던 것이었고, 그 말단(末段)에는 또 석치(石癡) 정철조(鄭喆祚)와 함께 목축(牧畜)에 대한 논평을 삽입하였으니, 자못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환연도중록(還燕道中錄)〉

열하에서 다시금 연경으로 돌아오는 도중 6일 동안의 기록이다. 주로 교량(橋梁) · 도로(道路) · 방호(防湖) · 방하(防河) · 탁타(橐駝) · 선제(船制) 등에 대한 논평이다.

〈경개록(傾蓋錄)〉

열하의 태학에서 묵던 6일 동안에 그들의 학자와 응수한 기록이다.

〈심세편(審勢編)〉

조선 사람의 오망(五妄)과 중국 사람의 삼난(三難)을 역설하였다. 역시 북학(北學)

에 대한 예리한 이론이다.

〈망양록(忘羊錄)〉

윤가전 · 왕민호 등과 함께 음악에 대한 모든 견해를 교환한 기록이다. 이 편이 다른 본에는 대체로 행재잡록(行在雜錄)의 다음에 있었고, 또 연암이 비록 이 편을 혹정필담(鵠汀筆談)의 다음에 두었으나, 심세편(審勢編)의 말단에 명확히 “망양록과 혹정필담을 열차(閱次)하였다”는 구절이 있음으로 보아서, 이것이 연암 최후의 수정임을 인정하겠다.

〈혹정필담(鵠汀筆談)〉

윤가전과 함께 전일 태학유관록 중에서 미진한 이야기를 계속한 것이다. 곧 월세계(月世界) · 지전(地轉) · 역법(曆法) · 천주(天主) 등에 대한 논평이다.

〈찰십륜포(札什倫布)〉

열하에서 반선(班禪)에 대한 기록이다. 찰십륜포는 서번어(西番語)로 ‘대승(大僧)이 살고 있는 곳’이라는 뜻이다.

〈반선시말(班禪始末)〉

청(淸) 황제가 반선에게 대한 정책(政策)을 논하였고, 또 황교(黃敎)와 불교(佛教)가 근본적으로 같지 않음을 밝혔다.

〈황교문답(黃敎問答)〉

당시 천하의 정세를 파악하여 오망(五妄) · 육불가(六不可)를 논하였다. 그것은 모두 북학(北學)의 이론이었으며, 또는 황교와 서학자(西學者) 지옥(地獄)의 설에 대한 논평이다. 말단에는 또 세계의 이민종(異民種)을 열거하였으되, 특히 몽고(蒙古)와 아라사(俄羅斯) 종족의 강맹(強猛)함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할 것을 논하였다.

〈피서록(避暑錄)〉

열하 피서산장(避暑山莊)에 있을 때의 기록이다. 주로 동중(東中) 두 나라의 시문(詩文)에 대한 논평이다. 그 말단에는 최근에 연암 후손에 의하여 발견된 〈피서록〉 수고본을 추보하였으니, 곧 ‘삼한(三韓) 부인 반발(盤髮)’ 이하의 몇 칙(則)이다.

〈양매시화(楊梅詩話)〉

양매서가(楊梅書街)에서 중국 학자들과 문답한 한시화(漢詩話)이다. 이 편은 각본(各本)에 모두 일서(逸書)로 되었었는데, 최근 연암의 후손에 의하여 발견되었으므로 이에 추보(追補)하였다. 그 책의 첫 장에 ‘원본중낙류등입차(元本中落漏墮入次)’라는 여덟 글자가 적혀 있음으로 보아서, 당시에 옮겨 써 넣으려던 것이 우연히 누락된 것인 듯싶다. 그래서 다만 다른 편 중에 거듭된 부분과 본편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넣지 않았다.

〈동란섭필(銅蘭涉筆)〉

동란재(銅蘭齋)에 머무를 때의 수필이다. 주로 가사(歌辭) · 향시(鄉試) · 서적(書籍) · 언해(諺解) · 양금(洋琴) 등에 대한 잡록(雜錄)이다.

〈옥갑야화(玉匣夜話)〉

일재본(一齋本)에는 진덕재야화(進德齋夜話)로 되어 있다. 홍순언(洪純彦) · 정세태(鄭世泰)에 대한 기록도 재미있는 일이거니와, 특히 〈허생전(許生傳)〉 한 편은 연암소설(燕巖小說) 중에서 가장 드의작(得意作)이다. 허생이 실존적인 인물인지, 또는 가상적인 인물인지는 알 수 없겠으나, 서울 묵적골에 살고 있던 한 불우한 서생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속유(俗儒)들의 위학(僞學)과는 달리하여 경세치용학(經世致用學)을 연구하였다. 그리하여 서울 재벌로 이름높은 변씨(卞氏)의 돈을 벌려, 바다 가운데 한 빈 섬을 발견하고 떠돌이 도적을 몰아넣어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한 것은, 곧 《수호전(水滸傳)》의 양산박(梁山泊)과 《홍길동전(洪吉童傳)》의 울도국(碑島國) 등 천고의 기인(奇人) · 기사(奇事)를 재연출하였다. 그리고 당시 유명무

실한 북벌책(北伐策)을 여지없이 풍자하는 동시에, 이완(李浣)에게 세 가지의 당면한 대책(大策)을 제시하였으니, 이는 실로 북벌책의 정반대인 북학(北學)의 이론이었다. 연암은 일생을 통하여 그 소매(笑罵)와 비타(悲咤)의 일체를 모두 이 한 편에 붙여서 유감없이 표현하였던 것이다.

〈행재잡록(行在雜錄)〉

청(淸) 황제의 행재소(行在所)에서 보고 들은 모든 기록이다. 특히 청(淸)의 친선정책(親鮮政策)의 까닭을 밝혔다.

〈금료소초(金蓼少鈔)〉

주로 의술(醫術)에 관한 기록이다. 연암집에서는 이 편을 ‘보유’라 하였으나, 열하일기의 제본(諸本)에는 원전의 한 편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여기서는 그를 쫓았다.

〈환희기(幻戲記)〉

광피사표페루(光被四表牌樓) 밑에서 중국 요술쟁이의 여러 가지 연기를 구경하고 그 소감을 적은 것이다.

〈산장잡기(山莊雜記)〉

열하 산장에서 여러 가지의 견문을 적은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야출고북구기(夜出古北口記)〉 · 〈일야구도하기(一夜九渡河記)〉 · 〈상기(象記)〉 등이 가장 비장(悲壯)하고도 기훌(奇譎)하다.

〈구외이문(口外異聞)〉

고북구(古北口) 밖에서의 이문을 적은 것이다. 반양(盤羊)으로부터 천불사(千佛寺)에 이른 60종의 기이한 이야기이다.

〈황도기략(黃圖紀略)〉

황성(皇城)의 구문(九門)을 비롯하여 화조포(花鳥舗)에 이르기까지 38종의 문관

(門館) · 전각(殿閣) · 도지(島池) · 점포(店舗) · 기물(器物) 등의 기록이다.

〈알성퇴술(謁聖退述)〉

순천부학(順天府學)으로부터 조선관(朝鮮館)에 이르기까지 역람한 기록이다.

〈양엽기(盞葉記)〉

홍인사(弘仁寺)로부터 이마두총(利瑪竇塚)에 이르기까지 20개의 명소를 역람한 기록이다.

이는 실로 진고(振古)에 없는 명저이요, 거작이다. 연암이 귀국하던 날 이 책을 내어 남에게 보이니, 모두 책상을 치면서 ‘기재 기재’를 부르지 않는 이가 없었다 한다. 그를 싫어하던 도배들은 이를 ‘노호지고(虧號之藁)’라 배격하였으니, 이는 곧 ‘되놈의 연호를 쓴 초고’라는 뜻이다. 이제 남공철(南公轍)이 지은 〈박산여묘지명(朴山如墓志銘)〉 중의 한 토막을 소개하기로 한다.

“내 일찍이 연암 박미중(朴美仲)과 함께 산여(山如)의 벽오동관(碧梧桐館)에 모였을 적에, 청장(靑莊) 이무관(李懋官)과 정유(貞蕤) 박차수(朴次修)가 모두 자리에 있었다. 마침 달빛이 밝았다. 연암이 긴 목소리로 자기가 지은 《열하일기》를 읽는다. 무관과 차수는 둘러앉아서 들을 뿐이었으나, 산여는 연암에게, ‘선생의 문장이 비록 잘 되었지만는, 패관기서(碑官奇書)를 좋아하였으니 아마 이제부터 고문(古文)이 진흥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옵니다’ 한다. 연암이 취한 어조로, ‘네가 무엇을 안단 말야’ 하고는, 다시금 계속했다. 산여 역시 취한 기분에 촛불을 잡고 그 초고를 불살라 버리려 하였다. 나는 급히 만류하였다. 연암은 곧 몸을 돌이켜 누워서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 무관은 거미 그림 한 폭을 그리고, 차수는 병풍에다가 초서로 음중팔선가(飲中八仙歌)를 썼다. 나는 연암에게, ‘이 글씨와 그림이 극히 묘하니, 연암이 마땅히 그 밑에 발(跋)을 써서 삼절(三絶)이 되게 하시오’ 하여 그 노염을 풀려고 하였으나, 연암은 짐짓 노하여 일어나지 않았다. 날이 새자, 연암이 술

이 깨어서 옷을 정리하고 끓어았더니, ‘산여야 이 앞으로 오라. 내 이 세상에 불우한 지 오랜지라, 문장을 빌려 불평을 토로해서 제멋대로 노니는 것이지, 내 어찌 이를 기뻐서 하겠느냐. 산여와 원평(元平) 같은 이는 모두 나이가 젊고 자질이 아름다우니, 문장을 공부하더라도 아예 나를 본받지 말고 정학(正學)을 진흥시킴으로써 임무를 삼아, 다른 날 국가에 쓸 수 있는 인물이 되기를 바라네. 내 이제 마땅히 제군을 위해서 벌을 받으련다’ 하고는, 커다란 술잔을 기울여 다시금 마시고 무관과 차수에게도 마시기를 권하여, 드디어 크게 취하고 기뻐하였다.”
이로 보아, 연암은 일시의 후배들에 대하여서도 이 글을 서슴지 않고 자랑하였던 것도 사실이었으며, 그는 또 자기의 모든 저서 중에서 이 《열하일기》만이 후세에 전할 수 있을 것이라 자부하였던 것이다.

1968년 4월 15일

일러두기

이 책은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옮겼다.

- 1 이 책은, 〈열하일기 해제〉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연암의 '수사본' 또는 '수택본'을 근거로 하고, 누락된 부분을 보충한 것을 국역 대본으로 하여, 오랫동안 연암을 연구해 온 이가원(李家源) 선생이 역주(譯註)한 것이다.
- 2 번역은 직역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직역만으로는 원저자의 뜻을 잘 나타내지 못할 경우에는 의역(意譯)을 하였다.
- 3 맞춤법과 띠어쓰기는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4 원문 전체를 번역문 다음에 실었다.
- 5 한자(漢字)는 인물, 기타 고유명사를 비롯해 넣지 않으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넣었다.
- 6 주석은 사전에 나올 만한 것은 달지 않았고, 주석을 달 경우도 간단한 주석은 본문 속에 간주(間註)로 넣고, 그렇지 않는 것은 각주(脚註)로 넣었다.
- 7 인명(人名)에 있어서는 성(姓)과 이름(名)을 붙이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름이 두 가지 음으로 발음되는 것은 통설에 따르기로 하였다.
- 8 외국의 인(人) · 지명(地名)은 원음(原音)을 알 수 있는 것은 원음으로 표기하였으나, 원음을 알 수 없는 것은 한자음으로 표기하였다.
- 9 본문에 나오는 팔호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 ① ()……음이 같은 한자(漢字)를 뚫은 것.
 - ② ()……음이 같지 않으나 뜻이 같은 한자를 뚫은 것.
 - ③ “ ”……대화체(對話體) · 인용문(引用文)을 뚫은 것.
 - ④ ‘ ’……대화체 · 인용문에서 재인용을 뚫은 것.
 - ⑤ []……《열하일기》 원주(原註)



차례

열하일기1

《열하일기 热河日記》 해제 解題	5
일러두기	14
열하일기 서 热河日記序	26
도강록 渡江錄	30
도강록 서 渡江錄序	31
6월 24일 신미 辛未	32
25일 임신 壬申	45
26일 계유 癸酉	46
27일 갑술 甲戌	48
28일 을해 乙亥	62
29일 병자 丙子	77
7월 1일 정축 丁丑	78
2일 무인 戊寅	80
3일 기묘 己卯	85
4일 경진 庚辰	93
5일 신사 辛巳	93
6일 임오 壬午	96
7일 계미 癸未	98
8일 갑신 甲申	100
구요동기 舊遼東記	102
관제묘기 關帝廟記	106
요동백탑기 遼東白塔記	108
광우사기 廣祐寺記	109
9일 을유 乙酉	112
성경잡지 盛京雜識	114
성경잡지 盛京雜識	115
4년 경자 庚子 가을 7월 10일 병술 丙戌	115

11일 정해 丁亥	127
속재필담 粟齋筆談	128
상루필담 商樓筆談	144
12일 무자 戊子	159
고동록 古董錄	161
13일 기축 己丑	165
14일 경인 庚寅	170
성경가람기 盛京伽藍記	179
산천기략 山川記略	181
 일신수필 駒汎隨筆	183
일신수필 서 駒汎隨筆序	184
가을 7월 15일 신묘	186
북진묘기 北鎮廟記	192
거제 車制	196
희대 戲臺	204
시사 市肆	204
점사 店舎	205
교량 橋梁	206
16일 임진 壬辰	207
17일 계사 癸巳	211
18일 갑오 甲午	217
19일 을미 乙未	224
20일 병신 丙申	227
21일 정유 丁酉	231
22일 무술 戊戌	237
23일 기해 己亥	240
강녀묘기 姜女廟記	242
장대기 將臺記	243
산해관기 山海關記	244
 관내정사 關內程史	246
가을 7월 24일 경자 庚子	247
25일 신축 辛丑	248
열상화보 洑上畫譜	257
26일 임인 壬寅	259
이제묘기 夷齊廟記	262
난하범주기 濁河泛舟記	265

석호석기 射虎石記	266
27일 계묘 癸卯	267
28일 갑진 甲辰	277
호질 虎叱	283
호질후지 虎叱後識	292
29일 을사 乙巳	294
30일 병오 丙午	296
8월 1일 정미 丁未	300
동악묘기 東嶽廟記	310
2일 무신 戊申	312
3일 기유 己酉	313
4일 경술 庚戌	316
 막북행정록 漢北行程錄	319
막북행정록 서 漢北行程錄序	320
가을 8월 5일 신해 辛亥	322
6일 임자 壬子	333
7일 계축 癸丑	342
8일 갑인 甲寅	348
9일 을묘 乙卯	351
 태학유관록 太學留館錄	355
가을 8월 9일 을묘 乙卯	356
10일 병진 丙辰	366
11일 정사 丁巳	382
12일 무오 戊午	393
13일 기미 己未	396
14일 경신 庚申	402
 환연도중록 還燕道中錄	416
가을 8월 15일 신유 辛酉	417
16일 임술 壬戌	419
17일 계해 癸亥	420
18일 갑자 甲子	435
19일 을축 乙丑	437
20일 병인 丙寅	440

경개록 傾蓋錄	448
경개록 서 倾蓋錄序	449
경개록 傾蓋錄	450
심세편 密勢編	459
망양록 忘羊錄	467
망양록 서 忘羊錄序	468
망양록 忘羊錄	469



차례

열하일기2

일러두기	5
혹정필담 鶴汀筆談	16
혹정필담 서 鶴汀筆談序	17
혹정필담 鶴汀筆談	18
찰십륜포 札什倫布	91
찰십륜포 札什倫布	92
중존평어 仲存評語	98
반선시말 班禪始末	99
반선시말 班禪始末	100
반선시말후지 班禪始末後識	110
중존평어 仲存評語	112
황교문답 黃敎問答	113
황교문답서 黃敎問答序	114
황교문답 黃敎問答	117
황교문답후지 黃敎問答後識	150
중존평어 仲存評語	153
피서록 避暑錄	155
피서록 서 避暑錄序	156
피서록 避暑錄	158
주곤전소지 朱昆田小識	224
피서록보 避暑錄補	227
양매시화 楊梅詩話	234
양매시화서 楊梅詩話序	235
양매시화 楊梅詩話	237

동란섭필 銅蘭涉筆	238
동란섭필서 銅蘭涉筆序	239
동란섭필 銅蘭涉筆	240
 옥갑야화 玉匣夜話	294
옥갑야화 玉匣夜話	295
허생후지 許生後識 I	317
허생후지 許生後識 II	321
차수평어 次修評語	324
 행재잡록 行在雜錄	325
행재잡록 서 行在雜錄序	326
행재잡록 行在雜錄	329
반선사후지 班禪事後識	332
동불사후지 銅佛事後識	333
행재잡록후지 行在雜錄後識	337
중존평어 仲存評語	340
 금료소초 金蓼小抄	341
금료소초서 金蓼小抄序	342
금료소초 金蓼小抄	344
 환희기 幻戲記	355
환희기서 幻戲記序	356
환희기 幻戲記	358
환희기후지 幻戲記後識	368
 산장잡기 山莊雜記	372
야출고북구기 夜出古北口記	373
야출고북구기후지 夜出古北口記後識	375
일야구도하기 一夜九渡河記	376
만국진공기 萬國進貢記	378
만국진공기후지 萬國進貢記後識	380
상기 象記	382
승귀선인행우기 乘龜仙人行雨記	385
만년춘등기 萬年春燈記	386
매화포기 梅花砲記	387
남취조기 蠟嘴鳥記	388

희본명목기 戲本名目記 389

구외이문 口外異聞	392
반양 盤羊	393
채요 彩鶴 · 호접 蝴蝶	393
고려주 高麗珠	393
승정상신 崇禎相臣	394
이상아 伊桑阿 · 서혁덕 舒赫德	395
왕진묘 王振墓	395
조조수장 曹操水葬	396
위충현 魏忠賢	396
양귀비사 楊貴妃祠	398
초사 樵史	398
주각해 墓角解	399
하란록 荷蘭鹿	400
사답 猝答	401
입정승 入定僧	402
등즙교석 簸汁膠石	403
조라치 昭羅赤	403
만어 蠻語	404
여음리 麗音離 · 동두동절 東頭登切	404
병오 · 을묘년 원조의 일식[丙午乙卯元朝日食]	405
고아마홍 古兒馬紅	408
동의보감 東醫寶鑑	408
심의 深衣	412
나약국서 羅約國書	413
불서 佛書	416
합밀왕 哈密王	419
서화담집 徐花潭集	421
장흥루판 長興鏤版	421
주한 周翰 · 주앙 朱昂	422
무열하 武烈河	424
옹노후 雍奴侯	426
사憔	427
순제묘 順濟廟	427
해인사 海印寺	428
사월팔일방등 四月八日放燈	428
오현비파 五絃琵琶	428

사자 獅子	429
강선루 降仙樓	430
이영현 李榮賢	431
신라호 新羅戶	433
애호 艾虎	434
자구 子規	435
경수사대장경비략 慶壽寺大藏經碑略	436
황랑대 讀糧臺	437
호원이학지성 胡元理學之盛	438
배형 拜荊	439
환향하 還鄉河	440
계원필경 桂苑筆耕	440
천불사 千佛寺	441
 황도기략 黃圖紀略	442
황성구문 皇城九門	443
서관 西館	445
금오교 金鼈橋	445
경화도 瓊華島	446
토원산 兔園山	446
만수산 萬壽山	447
태화전 太和殿	448
체인각 體仁閣	450
문화전 文華殿	451
문연각 文淵閣	451
무영전 武英殿	452
경천주 擎天柱	453
어구 御廄	453
오문 午門	455
묘사 廟社	455
전성문 前星門	456
오봉루 五鳳樓	457
천단 天壇	459
천주당 天主堂	460
양화 洋畫	463
상방 象房	465
황금대 黃金臺	467
황금대기 黃金臺記	468

옹화궁 雍和宮	471
대광명전 大光明殿	472
구방 狗房	473
공작포 孔雀圃	474
오룡정 五龍亭	475
구룡벽 九龍壁	476
태액지 太液池	476
자광각 紫光閣	477
만불루 萬佛樓	478
극락세계 極樂世界	478
영대瀛臺	479
남해자 南海子	479
화자관 回子館	480
유리창 琉璃廠	480
채조포 綵鳥舖	481
 알성퇴술 謂聖退述	483
순천부학 順天府學	484
태학 太學	485
학사 學舍	487
역대비 歷代碑	489
명조진사제명비 明朝進士題名碑	490
석고 石鼓	491
문승상사 文丞相祠	492
관상대 觀象臺	493
시원 試院	494
조선관 朝鮮館	495
 양엽기 盈葉記	497
양엽기 서 盈葉記序	498
홍인사 弘仁寺	499
보국사 報國寺	500
천녕사 天寧寺	501
백운관 白雲觀	503
법장사 法藏寺	503
태양궁 太陽宮	504
안국사 安國寺	505
약왕묘 藥王廟	505

천경사 天慶寺	506
두로궁 斗姥宮	507
웅복사 隆福寺	508
석조사 夕照寺	509
관제묘 關帝廟	510
명인사 明因寺	510
대릉선호국사 大隆善護國寺	511
화신묘 火神廟	512
북약양묘 北藥王廟	512
승복사 崇福寺	512
진각사 真覺寺	513
이마두총 利瑪竇塚	514



열하일기 서

열하일기 서(熱河日記序)¹⁾

글을 써서 교훈을 남기되 신명(神明)의 경지를 통하고 사물(事物)의 자연법칙을 꿰뚫은 것으로서 《역경(易經)》과 《춘추(春秋)》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을 것이다. 《역경》은 미묘하고 《춘추》는 드러내었으니, 미묘란 주로 진리를 논한 것으로서, 그것이 흘러서는 우언(寓言)²⁾이 되는 것이요, 드러냄이란 주로 사건을 기록하는 것으로, 그것이 변해서 외전(外傳)³⁾이 이룩되는 것이다. 저서(著書)하는 데는 이러한 두 갈래의 방법이 있을 뿐이다.

내 일찍이 시험삼아 논하여 보았노라. 《역경》의 육십사괘(六十四卦) 중에서 언급한 물건으로서 용이니, 말이니, 사슴이니, 돼지니, 소니, 양이니, 범이니, 여우니, 또는 쥐니, 꿩이니, 독수리니, 거북이니, 봉어니 하는 것들이 모두 다 참으로 있었던 물건이라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러하진 못할 것이다. 또 인간에 있어서는 저웃는 자, 우는 자, 부르짖는 자, 노래 부르는 자나, 또는 눈먼 자, 발 저는 자, 엉덩이에 살이 없는 자, 그 척주의 고기가 벌어진 자들을 언급하였는데, 그런 인간이 참으로 있었다고 생각되는가. 아마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초(蓍草)⁴⁾를 뽑아서 괘(卦)를 별이면, 그 참된 상(象)이 곧 나타나고 길흉(吉凶)과 회린(悔吝)⁵⁾이 메아리처럼 울리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미묘한 곳으로부터 드러내는 경지로 지향하는 까닭이었으니, 우언(寓言)을 쓰는 이가 이러한 방법을 쓴 것이다. 《춘추》중에 기록된 2백 42년 사이의 일에는, 온갖 제사와 수렵(狩獵)과 조회와 회합과 정벌(征

- 1) 열하일기 서(熱河日記序) : 다른 여러 본에는 모두 이 서(序)가 보이지 않고, 다만 최근에 발견된 ‘연암산방본(燕巖山房本)’에 실려 있으므로 이에 추가하였다.
- 2) 우언(寓言) : 말이나 글에 실제가 아닌 뜻을 의탁한 것이니, 장주(莊周)의 《남화경(南華經)》중에 <우언편(寓言篇)>이 있다.
- 3) 외전(外傳) : 정사(正史)에 싣지 않은 전기를 내전(內傳)과 구별하기 위한 서술이니, 《방경각외전(放瓊閣外傳)》이 이에 해당한다.
- 4) 시초(蓍草) : 괘(卦)를 뽑는 데 쓰는 영초(靈草).
- 5) 회린(悔吝) : 회(悔)는 괘(卦)의 상체(上體)요, 린(吝)은 인색(吝嗇)함이니, 곤괘(坤卦)에서 나타난 효상(爻象)의 하나.

伐)과 침입이, 실로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좌구명(左丘明)⁶ · 공양고(公羊高)⁷ · 곡량적(穀梁赤)⁸ · 추덕보(鄒德溥)⁹ · 협씨(夾氏) 등의 전(傳)이 제각기 같지 않을 뿐더러, 이를 논하는 자들이 남이 반박하면 나는 지키기로 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이었을까. 이는 드러난 곳에서부터 미묘한 곳으로 드는 까닭이었으니, 외전(外傳)을 쓰는 이가 이러한 방법을 이용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옛 기록에, “장주(莊周)¹⁰가 저서에 능하다”고 일렀던 것이다. 장주의 저서 중에 나타난 제왕(帝王)과 성현(聖賢)이나, 임금과 정승, 처사(處士)와 변객(辯客)들에 대한 일도, 더러는 정사(正史)에서 빠뜨린 일을 보충할 수 없지 않을 것이다. 장(匠) 석(石)¹¹이나 윤(輪) 편(扁)¹²이 반드시 그 사람이 있었을 것이며, 심지어는 부목자(副墨子)니 낙송손(洛誦孫)이니 하는 자¹³는 어떤 인물들이었던가. 또 망량(罔兩 물귀신)이니 하백(河伯 물귀신)이니 하는 귀신이 과연 말할 수 있는 존재였던가. 외전이라면 참과 거짓이 서로 섞여 있겠고, 우언이라 하더라도 미묘함과 드러냄이 잇따라 변해지곤 하여, 사람으로서는 그 원인을 측량할 수 없으므로 이를 조궤(弔詭 궤변(詭辯))라 불러 았을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학설을 결국 폐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진리에 대한 논평을 잘 전개하였기 때문이니, 그를 저서가(著書家)로서의 웅(雄)이 아니라 이르진 못할 것이다.

이제 대체로 연암씨(燕巖氏)¹⁴의 《열하일기(熱河日記)》는 알지 못하겠다. 그 어찌

6 좌구명(左丘明) : 춘추 때 노(魯)의 태사(太史). 《춘추전(春秋傳)》을 지었다.

7 공양고(公羊高) : 춘추 때 자하(子夏)의 제자. 역시 《춘추전》을 지었다.

8 곡량적(穀梁赤) : 역시 자하의 제자로서 《춘추전》을 지었다.

9 추덕보(鄒德溥) : 명(明)의 학자. 덕함(德涵)의 아우. 《춘추광해(春秋匡解)》를 지었다.

10 장주(莊周) : 춘추 시대의 철학가(哲學家). 저서에는 《남화경(南華經)》이 있다.

11 장(匠) 석(石) : 옛 장인(匠人). 석(石)은 그의 이름.

12 윤(輪) 편(扁) : 옛 수레바퀴를 만드는 공인. 편(扁)은 그의 이름.

13 부목자(副墨子)니……하는 자 : 문자(文字)에 대한 의인칭(擬人稱)이니. 《남화경》〈대종사(大宗師)〉에, “나는 부목자에게 들었고, 부목자는 또 낙송손(洛誦孫)에게 들었노라” 하였다. 낙송은 반복(反復)하여 외는 것을 이름이니, 역시 의인칭이다.

14 연암씨(燕巖氏) : 저자 연암을 일컫는 말.

한 글이었던고. 저 요동(遼東) 들을 건너서 유관(渝關)¹⁵으로 들어 황금대(黃金臺)¹⁶ 옛 터에 서성이고, 밀운성(密雲城 하북성에 있다)으로부터 고북구(古北口)¹⁷를 나서 난수(灤水)¹⁸ 가[邊]와 백단(白檀 밀운성의 현(縣))의 북녘을 마음껏 구경하였는 바 진실로 그런 땅이 있었으며, 또 그 나라의 석학(碩學) · 운사(韻士)와 함께 교제 하였는바 진실로 그런 인물이 있었으며, 사이(四夷)¹⁹가 모두 이상한 모양과 기괴 한 옷에 칼도 머금고 불도 마시며, 황교(黃教)²⁰ 반선(班禪)²¹의 난쟁이가 비록 괴이 한 듯하지마는 그가 반드시 망량이나 하백은 아닐 것이요, 진귀한 새나 기이한 짐승, 아름다운 꽃이나 이상한 나무의 그 정태(情態)를 곡진히 묘사하지 않음이 없건마는, 어찌 일찍이 그 등마루의 길이가 천 리라느니²², 그 나이가 8천 세라느니²³ 하는 따위가 있었단 말인가. 나는 이에서 비로소 장주의 외전에는 참됨도 있고 거짓됨도 없음이 아닌 반면, 연암씨의 외전에는 참됨은 있으나 거짓됨이 없음을 알았노라. 그리하여 이에는 실로 우언을 겸해서 이치를 논함에 돌아가게 되었으니, 이는 마치 패자(霸者)에 비한다면, 진 문공(晉文公)²⁴은 허황하고 제 환공(齊桓公)²⁵은 올바르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하물며 그 이치를 논함에 있어서도, 어찌 황홀히 헛된 이야기를 들어놓은 것에 그쳤을 뿐이겠는가. 그리고 풍속이나 관습이 치란(治亂)에 관계되고, 성곽(城郭)이나 건물, 경목(耕牧)이나 도야(陶冶)의 일체 이

15 유관(渝關) : 중국 사천성(四川省)에 있는 지명.

16 황금대(黃金臺) : 하북성(河北省)에 있는데, 춘추 시대 연 소왕(燕昭王)이 세웠다.

17 고북구(古北口) : 하북성에 있는 관(關) 이름. 곧 호북구(虎北口).

18 난수(灤水) : 칠합이(察哈爾)에서 발원하여 열하성(熱河省)을 거쳐 밭해(渤海)로 들어간다.

19 사이(四夷) : 중국을 중심으로 하여 동이(東夷) · 남만(南蠻) · 서옹(西戎) · 북적(北狄)을 말한다.

20 황교(黃教) : 서장(西藏) 라마교(喇嘛教)의 한파. 그 교의 중들이 누른 빛깔의 옷을 입었으므로 이름하였다.

21 반선(班禪) : 황교 즉 라마교의 교주(教主). 반(班)은 박학(博學)이요, 선(禪)은 광대(廣大)의 뜻을 가졌다.

22 그……천 리라느니 : 『남화경』에 새 위나 대봉(大鵬)의 등마루가 천 리나 된다 하였다.

23 그……8천 세라느니 : 『남화경』에 이른바 영춘(靈椿)이 8천 년을 묵었다 하였다.

24 진 문공(晉文公) : 춘추 시대 진의 임금. 문공은 시호요. 이름은 중이(重耳)니. 당시 오폐(五霸)의 하나.

25 제 환공(齊桓公) : 춘추 시대 제의 임금. 환공은 시호요. 이름은 소백(小白)이니. 역시 오폐의 하나.

용(利用) · 후생(厚生)²⁶의 방법이 모두 그 가운데 들어 있어야만, 비로소 글을 써서 교훈을 남기려는 원리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리라.

26 이용(利用) · 후생(厚生) : 정덕(正德)과 함께 《서경(書經)》〈대우모(大禹謨)〉에서 이른바 삼사(三事)가 된다. 산업을 잘 다스려서 민생의 일용에 이롭게 하며 생활을 풍족하게 하는 모든 일.



도강록

도강록(渡江錄)

6월 24일 신미(辛未)에 시작하여 7월 9일 을유(乙酉)에 그쳤다. 압록강(鴨綠江)으로부터 요양(遼陽)에 이르기까지 15일이 걸렸다.

도강록 서(渡江錄序)¹

무엇 때문에 ‘후삼경자(後三庚子)’라는 말을 이 글 첫 머리에 썼을까. 행정(行程)과 음(陰) · 정(晴)을 적으면서 해를 표준 삼고 따라서 달수와 날짜를 밝힌 것이다. 무엇 때문에 ‘후’란 말을 썼을까. 숭정(崇禎) 기원(紀元)의 뒤를 말함이다. 무엇 때문에 ‘삼경자’라 하였을까. 숭정 기원 뒤 세 돌을 맞이한 경자년을 말함이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숭정’을 바로 쓰지 않았을까. 장차 강을 건너려니 이를 잠깐 피한 것이다. 무엇 때문에 이를 피했을까. 강을 건너면 곧 청인(淸人)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천하가 모두 청의 연호(年號)를 썼으매 감히 숭정을 일컫지 못함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우리는 그대로 ‘숭정’을 쓰고 있을까. 황명(皇明)은 중화인데 우리나라가 애초에 승인을 받은 상국인 까닭이다. 숭정 17년에 의종 열황제(毅宗烈皇帝)²가 나라를 위하여 죽은 뒤 명이 망한 지 벌써 1백 30여 년이 경과되었거늘 어째서 지금까지 숭정의 연호를 쓰고 있을까. 청이 들어와 중국을 차지한 뒤에 선왕의 제도가 변해서 오랑캐가 되었으되 우리 동녘 수천 리는 강을 경계로 나라를 이룩하여 홀로 선왕의 제도를 지켰으니, 이는 명의 황실이 아직도 압록강 동쪽에 존재함을 말함이다. 우리의 힘이 비록 저 오랑캐를 쳐 몰아내고 중원(中原)을 숙청하여, 선왕의 옛 것을 광복시키지는 못할지라도 사람마다 모두 숭정의 연호(年號)라도 높여 중국을 보존하였던 것이다.

1 도강록 서(渡江錄序) : 연암의 ‘수택본(手澤本)’에는 《열하일기 (熱河日記)》 서(序)라 하여 《열하일기》 첫머리에 두었으나 그릇되었다.

2 의종열황제(毅宗烈皇帝) : 명의 최후 황제로서, 1635년 이자성(李自成)의 반란에 북경이 함락되자 자살하였다.

송정 156년 계묘에 열상외사(冽上外史)³는 쓰다. ‘후삼경자(後三庚子)’는 곧 우리 성상(聖上 정조(正祖)) 4년(1780)[청 건륭(清乾隆) 45년] 이다.

6월 24일 신미(辛未)

아침에 보슬비가 온종일 뿌리다 말다 하다.

오후에 압록강을 건너 30리를 가서 구련성(九連城)에서 한둔하다. 밤에 소나기가 퍼붓더니 이내 개다.

앞서 용만(龍灣) [의주관(義州館)]에서 묵은 지 열흘 동안에 방물(方物 선물용 지방 산물)도 다 들어왔고 떠날 날짜가 매우 촉박하였는데, 장마가 져서 두 강물이 몹시 불었다. 그동안 쾌청한 지도 벌써 나흘이나 되었는데, 물살은 더욱 거세어 나무와 돌이 함께 굴러 내리며, 탁류가 하늘과 맞닿았다. 이는 대체로 압록강의 발원(發源)이 먼 까닭이다. 《당서(唐書)》⁴를 참고해 보면,

“고려(高麗)의 마자수(馬訾水)는 말갈(靺鞨)⁵의 백산(白山)에서 나오는데, 그 물빛이 마치 오리머리처럼 푸르르매 ‘압록강’이라 불렸다.”

하였으니, 백산은 곧 장백산(長白山)을 말함이다. 《산해경(山海經)》⁶에는 이를 ‘불 함산(不咸山)’이라 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백두산(白頭山)’이라 일컫는다. 백두산은 모든 강이 발원되는 곳인데, 그 서남쪽으로 흐르는 것이 곧 압록강이다. 또 《황여고(皇輿考)》⁷에는,

“천하에 큰 물 셋이 있으니, 황하(黃河)와 장강(長江)과 압록강이다.”

하였고, 《양산묵담(兩山墨談)》[진정(陳霆)이 지었다.]에는,

“회수(淮水) 이북은 북조(北條 북쪽 가닥)라 일컬어서 모든 물이 황하로 모여들므로

3 열상외사(冽上外史) : 연암의 별호(別號). ‘주택본’에는 열상외수(冽上外叟)로 되었다.

4 당서(唐書) : 후진(後晉) 유후(劉煦)가 지은 당의 역사.

5 말갈(靺鞨) : 당에서 부르던 만주(滿洲)의 별칭. 거기에 말갈족 즉 여진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6 산해경(山海經) : 일명씨(逸名氏)의 중국 고대의 지리서(地理書).

7 황여고(皇輿考) : 명 장천복(張天復)이 지은 지리서.

로 강으로 이름지은 것이 없는데, 다만 북으로 고려에 있는 것을 압록강이라 부른다”

하였으니, 대체 이 강은 천하에 큰 물로서 그 발원하는 곳이 지금 한창 가무는지 장마인지 천 리 밖에서 예측하기 어려웠으나, 이제 이 강물이 이렇듯 넘쳐흐름을 보아 저 백두산의 장마를 가히 짐작할 수 있겠다. 하물며 이곳은 예사의 나루가 아님에랴. 그럼에도 마침 한창 장마철이어서 나룻가 배 대는 곳은 찾을 수도 없거니와, 중류(中流)의 모래톱마저 흔적 없어서 사공이 조금만 실수한다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겉잡을 수 없는 정도이다. 그리하여 일행 중 역원(譯員)⁸들은 다투어 옛 일을 끌어대어 날짜 늦추기를 굳이 청하고 의주 부윤(濟尹)[이재학(李在學)] 역시 비장(裨將 사신에게 시중드는 관원)을 보내어 며칠만 더 묵도록 만류했으나, 정사(正使)⁹는 기어이 이날 강을 건너기로 하여 장계(狀啓)에 벌써 날짜를 써 넣었다. 아침에 일어나 창을 열고 보니, 짙은 구름이 꽉 덮였고 빗기운이 산에 가득했다. 소쇄(梳灑)가 끝나자 행장을 정돈하고, 가서(家書)와 모든 곳의 답장을 손수 봉하여 파발(把撥)¹⁰ 편에 부치고 나서, 아침 죽을 조금 마시고, 천천히 관(館)에 이르렀다. 모든 비장들은 벌써 군복과 전립(戰笠)을 갖추었는데, 머리에는 은화(銀花)¹¹ · 운월(雲月)¹²을 달고 공작(孔雀)의 깃을 꽂았으며, 허리에는 남방사주(藍紡紗袖) 전대(纏帶)를 두르고 환도(環刀)를 찼으며, 손에는 짧은 채찍을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마주 보고 웃으면서,

“모양이 어떻소.”

하며 떠든다. 그 중에 노 침봉(盧參奉)[이름은 이점(以漸), 상방(上房) 비장]은 첨리(帖裏)[첨리는 방언(方言)으로 철릭(天翼)이라 한다. 비장은 우리 국경 안에서는

8 역원(譯員) : 통역관. 중국에 사행할 때에는 한학상통사(漢學上通事)와 청학상통사(淸學上通事) 이하 많은 역관이 따랐다.

9 정사(正使) : 사행의 수석. 당시의 정사는 곧 연암의 사종형(四從兄)으로, 금성위(錦城尉) 박명원(朴明源)이다.

10 파발(把撥) : 공문서를 급히 전하기 위하여 설치한 역참(驛站).

11 은화(銀花) : 정월 대보름날 밤에 등불을 다는 것. 여기에서는 그 모양을 형용하였다.

12 운월(雲月) : 물건 변두리를 구름 · 달 모양으로 곱게 꾸민 것.

철력을 입다가, 강을 건너면 협수(狹袖)로 바꿔 입는다.]를 입었을 때보다 훨씬 우람스러워 보인다. 정 진사(鄭進士)[이름은 각(玆), 상방 비장]가 웃음으로 맞으면서,

“오늘이야 정말 강을 건너게 되겠죠.”

하자, 노 참봉은 옆에서,

“이제 곧 강을 건너갈 것입니다.”

한다. 나는 그 들에게,

“옳지 옳아.”

했다. 거의 열흘 동안이나 관(館)에 묵어서 모두들 지루한 생각을 품어 훌쩍 날고 싶은 기분이다. 가뜩이나 장마에 강이 불어서 더욱 조급하던 참에 떠날 날짜가 닥치고 보니, 이제는 비록 건너지 않으려도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멀리 앞 길을 바라보니, 무더위가 사람을 찌는 듯하다. 돌이켜 고향을 생각하며 운산(雲山)이 아득하여 인정이 여기에 이르자 서글퍼서 후퇴할 의사가 짹트지 않을 수 없었다. 이른바 평생의 장유(壯遊)라고 하여 특하면,

“꼭 한번 구경을 해야지.”

하고, 평소에 벼르던 것도 이제는 실로 둘째에 속할 것이고, 그들의,

“오늘에야 강을 건넌다.”

하면서 떠드는 것도 결코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니고, 곧 어쩔 수 없는 사정에서일 뿐이다.

역관 김진하(金震夏)[2품 당상관]는 늙고 병이 위중하여 여기서 떨어져 되돌아가게 되자, 정중하게 하직하니 서글픔을 금하지 못하였다.

조반을 먹은 뒤에, 나는 혼자서 먼저 말을 타고 떠났다. 말은 자줏빛에 흰 정수리, 날씬한 정강이에 높은 발굽, 날카로운 머리에 짧은 허리, 더구나 두 귀가 쭁긋한 품이 참으로 만리를 달릴 듯싶다. 창대(昌大 연암의 마부(馬夫) 이름)는 앞에서 견마를 잡고 장복(張福 연암의 하인 이름)은 뒤에 따른다. 안장에는 주머니 한 쌍을 달되 왼쪽에는 벼루를 넣고 오른쪽에는 거울, 붓 두 자루, 먹 한 장, 조그만 공책 네 권, 이정록(里程錄) 한 축을 넣었다. 행장이 이렇듯 단출하니 짐 수색이 아무리

엄하단들 근심할 것 없었다.

성문(城門)에 못 미쳐 소나기 한 줄기가 동에서 몰려든다. 이에 말을 급히 달려 성문턱에서 내렸다. 홀로 걸어서 문루(門樓)에 올라 성 밑을 굽어 보니, 창대가 혼자 말을 잡고 섰고, 장복은 뵐지 않는다. 조금 뒤에 장복이 길 옆 한 작은 일각문(一角門)에 버티고 서서 위아래를 기웃기웃 바라보더니 이윽고 둘은 삿갓으로 비를 가리며 손에는 조그만 오지병을 들고 바람나개 걸어온다.

알고 보니 둘이서 저희들 주머니를 털어서 돈 스물 여섯 푼이 나왔는데, 우리 돈을 갖고는 국경을 넘지 못하는 터에 그렇다고 길에 버리자니 아깝고 해서 술을 샀다 한다. 나는,

“너희들 술을 얼마나 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둘은,

“입에다 대지도 못하옵죠.”

하고 대답했다. 나는,

“네놈들이 어찌 술을 할 줄 알겠니.”

하고 한바탕 꾸짖었다. 그러나 나는 한편으론 스스로 위안하는 말로,

“이도 먼 길 나그네에겐 한 도움이 되겠구나.”

하고, 혼자서 잠자코 잔 부어 마실 제 동쪽으로 용만(龍灣) · 철산(鐵山)의 모든 메를 바라보니 만첩의 구름 속에 들어 있었다. 이에 술 한 잔을 가득 부어 문루 첫 기둥에 뿌려서 스스로 이번 길에 아무 탈 없기를 빌고, 다시금 한 잔을 부어 다음 기둥에 뿌려서 장복과 창대를 위하여 빌었다. 그러고도 병을 흔들어 본즉, 오히려 몇 잔 더 남았기에 창대를 시켜 술을 땅에 뿌려서 말을 위하여 빌었다.

담에 기대어 동쪽을 바라보니, 무더운 구름이 잠깐 피어 오르고 백마산성(白馬山城) 서쪽 한 봉우리가 갑자기 그 반쪽을 드러냈는데, 그 빛이 하도 푸르러서 흡사 우리 연암서당(燕巖書堂)에서 불일산(佛日山) 뒷봉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듯싶었다.

홍분루 높은 다락 막수¹³ 아씨 여의고는 | 紅粉樓中別莫愁
 두어 기마 가을 바람에 변방을 달리었네 | 秋風數騎出邊頭
 그림배에 실은 통소 장고 어이하여 소식 없나 | 畵船簫鼓無消息
 애끓고 추억할 제 우리 청남¹⁴ 첫째 골을 | 肠斷清南第一州

이 시는 유혜풍(柳惠風)¹⁵ 영재(冷齋)가 일찍이 심양(瀋陽봉천(奉天))으로 들어갈 때 지은 것이다. 내 이제 몇 번이나 소리 내어 읊고 나서,

“이건 국경을 넘는 이가 부질없이 무료한 정서를 읊은 것이겠지. 제 이곳에서 무슨 그림배 · 통소 · 장고 따위를 얻어서 놀이를 했단 말인가.”

하고, 홀로 크게 웃었다. 옛날에 형경(荊卿)¹⁶이 바야흐로 역수(易水)를 건너려 할 때 머뭇머뭇 떠나지 않는지라, 태자(太子)¹⁷는 그의 마음이 변하지나 않았나 의심하고, 진무양(秦舞陽)¹⁸을 먼저 떠나보내고자 하였다. 형경은 이에 노하여 태자에게 꾸짖기를,

“내 이제 머뭇거리는 까닭은 나의 동지(同志) 한 분을 기다려 함께 떠나려 함이다.”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형경이 부질없이 무료한 말을 한 듯싶다. 태자가 만일 형경의 마음을 의심할진대 이는 그를 깊이 알지 못하였다고 말할 것이리라. 그러나 형경의 기다리는 사람이란 또한 진정코 한 개의 성명을 가진 실제 인물은 아닐 것이다. 대체 한 자루 비수(匕首)를 끼고 불칙한 진(秦)에 들어가려면 저 진무양 한 사람으면 족할지니 어찌 별도로 동지를 구하리오. 다만 차디찬 바람에 노래와 축

13 막수(莫愁) : 당(唐)의 석성(石城)에 살던 여인인데, 노래를 잘 불렀다.

14 청남(淸南) : 청천강(淸川江)의 남쪽 평양(平壤)을 이름.

15 유혜풍(柳惠風) 영재(冷齋) : 연암의 일계(一系)에 속하는 학자 유득공(柳得恭). 혜풍은 자요, 영재는 호이다. 다른 본에는 영재(冷齋)라는 두 글자가 없었는데, 여기에서는 연암의 '주택본'에 의거하였다.

16 형경(荊卿) : 중국 전국(戰國) 시대의 자객(刺客)인 형가(荊軻)를 말한다. 연(燕)나라에서는 '형경'으로 불렸으며, 연나라 태자 단(丹)의 식객(食客)이 되어 단의 원수를 갚기 위해 진왕(秦王)을 죽이려다 실패하고 도리어 죽임을 당하였다.

17 태자(太子) : 전국 때 연(燕)의 태자 단(丹). 진시황(秦始皇)을 죽이려 형가를 파견했으나 실패하였다.

18 진무양(秦舞陽) : 형가가 진에 들어갈 때에, 지도(地圖)를 갖고 따르던 젊은 협사의 이름.

(筑)¹⁹으로 애오라지 오늘의 즐거움을 다했을 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글을 지은 이는 그 사람²⁰이 길이 먼 탓으로 오지 못할 것이라고 변명하였으니, 그 ‘멀리’라는 말이 참 교묘한 칭탁이다. 그 사람이란 천하에 둘도 없는 절친한 벗일 것이요, 그 약속이란 천하에 다시 변하지 못할 일일 것이다. 천하에 둘도 없는 벗으로서 한 번 가면 돌아오지 못할 떠남을 당하여 어찌 날이 저물었다고 오지 않았으리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반드시 초(楚)²¹ · 오(吳)²² · 삼진(三晉)²³의 먼 곳이 아닐 것이요, 또 반드시 이 날로써 진으로 들어가기를 기약하여 손잡고 맹세한 일도 없는 듯싶다. 다만 형경이 의중(意中)에 문득 생각나는 어떤 벗을 기다린다 하였을 따름이어늘, 이 글을 적은 이는 또한 형경의 의중(意中)의 벗을 이끌어다가 그 사람하고는 부연 설명하였으나, 그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인지 알지 못함을 말함이니, 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서 막연히 먼 곳에 살고 있는 이라 하여 형경을 위로함이요, 또한 그 사람이 혹시 오지나 않을까 하고 기다릴까 저어하여 그가 오지 못할 것임을 밝혔으니, 이는 형경을 위하여 그 사람이 오지 못한 것을 다행히 여긴 것이다. 정말 천하에 그 사람이 있다 하면, 나는 이미 그를 보았을 것이다. 응당 그 사람의 키는 일곱 자 두 치, 짙은 눈썹에 검은 수염, 볼이 처지고 이마가 날카로웠을 것이다. 어째서 그럴 줄 알리오마는 이제 내 혜풍(惠風)의 이 시를 읽고 나서 안 것이다.[혜풍(惠風)의 이름은 득공(得恭)이요, 호는 영재(冷齋)다.]

정사(正使)의 전배(前排)[기치(旗幟)와 곤봉(棍棒) 따위를 앞에 세웠으므로 전배라 한다.]가 설령이면서 성을 나서니, 내원(來源)과 주 주부(周主簿)[내원(來源)은 나의 삼종제(三從弟)요, 주 주부(周主簿)의 이름은 명신(命新)인데, 모두 상방의 비장이다.]가 두 줄로 서서 간다. 채찍을 옆에 끼고 몸을 솟구어 안장에 올라 앉으매 어깨가 으쓱하고 머리가 꽂꽃한 품이 미상불 날쌔고 용맹스럽긴 하나, 부대 차림이

19 축(筑) : 형가가 역수(易水)를 건널 때, 그의 친구 고접리(高漸離)는 축(筑)을 치고, 형가는 박자 맞추어 ‘風蕭蕭兮易水寒 壯士一去兮不復還’이라는 비장한 노래를 불렀다.

20 그 사람 : 형가가 기다렸다는 그 사람.

21 초(楚) : 지금 중국의 호북성(湖北省) 지방.

22 오(吳) : 지금 중국의 강소(江蘇) · 호남(湖南) · 절강성(浙江省) 등지.

23 삼진(三晉) : 당시의 한(韓) · 위(魏) · 조(趙). 지금의 산서(山西) · 하남성(河南省) 서남부.

너무 너털거리고, 구종들의 짚신이 안장 뒤에 주렁주렁 매어달렸으며, 내원의 군복은 푸른 모시로 헌 것을 자주 빨아 입어서 몹시 더부룩하고 벼석거리는 것이 가히 지나치게 검소를 송상함이라고 말하겠다.

조금 뒤에, 부사(副使)²⁴의 행차가 성에 나감을 기다려서 말고삐를 잡고 천천히 행하여 가장 뒤떨어져 구룡정(九龍亭)에 이르니, 여기가 곧 배 떠나는 곳이다. 이때, 만윤(灣尹)은 벌써 장막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다. 언제나 서장관(書狀官)²⁵이 맑은 새벽에 먼저 나가서 만윤과 함께 합동 수사함이 전례이다. 방금 사람과 말을 사열(查閱)하는데, 사람은 성명 · 거주 · 연령 또는 수염이나 흉터 같은 것이 있나 없나, 키가 작은가 큰가를 적고, 말은 그 털빛을 적는다. 깃대 셋을 세워서 문을 삼고 금물을 뒤지니, 중요품으로 황금(黃金) · 진주(眞珠) · 인삼(人蔘) · 초피(貂皮 수달피) · 와 포(包) 이외에 남은(濫銀)²⁶이었고, 영세품(零細品)은 새 것이나 옛 것을 통틀어 수십 종에 달하므로 이루 다 헤일 수 없었다.

구종들에는 웃웃을 풀어 헤치기도 하고 바지 가랑이도 내리 훑어보며 비장이나 역관에게는 행장을 끌러 본다. 이불 보통이와 옷 꾸러미가 강 언덕에 너울거리고 가죽 상자와 종이곽이 풀밭에 어지러이 뒹군다. 사람들은 제각기 주워 담으면서 흘깃흘깃 서로 돌아다 보곤 한다. 대체 수색을 아니하면 나쁜 짓을 막을 수 없고 수색하자면 이렇듯 체모에 어긋난다. 그러나 이것도 실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 일이다. 용만의 장수들은 이 수색보다 앞서 가만히 강을 건너가는 걸 누구로서 금할 재간이 있으리오. 금물이 발견된 경우에 첫째 문에 걸린 자는 중곤(重棍)²⁷을 맞히는 한편 물건을 몰수하고 다음 문이면 귀양 보내고 마지막 문에는 목을 베어 달아서 무사람에게 보이게 되어 있다. 그 법의 마련인즉 엄하기 짜이 없다. 이번 길에는 원포(原包)조차 반도 차지 못하고 빙 포도 많으니 남은의 있고 없음이야 따질 것도 없었다.

24 부사(副使) : 차석 사신. 당시의 부사는 이조 판서 정원시(鄭元始).

25 서장관(書狀官) : 일행의 행정(行程)에 관한 통계 책임을 맡은 관원. 당시의 서장관은 장령(掌令) 조정진(趙鼎鎮).

26 남은(濫銀) : 팔포(八包) 곧 2천냥, 3천냥의 한도를 넘은 은자(銀子).

27 중곤(重棍) : 대곤(大棍)보다 더 큰 곤장.

다담상(茶啖床 교자상)은 초라하고 그나마 들어오자 곧 물려 내니 대체 강 건너기에 바빠서 젓갈을 드는 이가 없다. 배는 다섯 척뿐인데 마치 한강(漢江)의 나룻배와 비슷하되 조금 클 뿐이다. 먼저 방물(方物)과 인마를 건네고 정사의 배에는 표자문(表咨文 국서(國書))과 수역(首譯역관 중의 수석)을 비롯하여 상사의 하인들이 함께 타고 부사와 서장관과 그 하인들이 또 한 배에 탔다.

이에 용만의 이교(吏校) · 방기(房妓) · 통인(通引)과 평양에서 모시고 온 영리(營吏) · 계서(啓書)들이 모두 뱃머리에서 차례로 하직 인사를 한다. 상사 마두(馬頭) [순안(順安)의 종으로 이름은 시대(時大)다.]의 창알(唱謁) 소리가 채 마치지 못해 서 사공이 삿대를 들어 선뜻 물에 넣는다.

물살은 매우 빠른데 뱃노래가 터져 나왔다. 사공이 노력한 보람으로 살별과 번개처럼 배가 달린다. 생각이 잠시 아찔하여 하룻밤이 격한 듯싶었다. 저 통군정(統軍亭)의 기둥과 난간과 현함이 팔면으로 빙빙 도는 것 같고, 전송 나온 이들이 오히려 모랫벌에 섰는데 마치 팔알같이 까마득하게 보인다.

내가 홍군(洪君) 명복(命福)[수역(首譯)]더러,

“자네, 길을 잘 아는가.”

하니, 홍은 두 손을 마주 잡고,

“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공손히 반문한다. 나는 또,

“길이란 알기 어려운 것이 아닐세. 바로 저 강 언덕에 있는 것을.”

했다. 홍은,

“이른바, ‘먼저 저 언덕에 오른다’²⁸는 말을 지적한 말씀입니까.”

하고 묻는다. 나는,

“그런 말이 아니야. 이 강은 바로 저와 우리와의 경계로서 응당 언덕이 아니면 곧 물일 것일세. 무릇 세상 사람의 윤리(倫理)와 만물의 법칙(法則)이 마치 이 물이나 언덕이 있음과 같으니 길이란 다른 데 찾을 게 아니라, 곧 이 물과 언덕 가에 있는 것이란 말야.”

28 먼저……오른다 : 《시경(詩經)》 대아(大雅) 황의(皇矣)에서 나온 말이다.

하고 답했다. 홍은 또,

“외람히 다시 여쭈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이른 것입니까.”

하고 묻는다. 나는 또 답했다.

“옛 글에 ‘인심(人·心)은 오직 위태해지고 도심(道·心)은 오직 가늘어질 뿐’이라고 하였는데, 저 서양 사람들은 일찍이 기하학(幾何學)에 있어서 한 획의 선(線)들을 변증할 때도 선이라고만 해서는 오히려 그 세밀한 부분을 표시하지 못하였으니 곧 빛이 있고 없음의 가늠이라고 표현하였고, 이에 불씨(佛氏)는 다만 붙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다는 말로 설명하였지. 그러므로 그 즈음에 선처함은 오직 길을 아는 이라야 능할 수 있을 테니 옛날 정(鄭)의 자산(子產)²⁹ 같은 이면 능히 그러할 수 있겠지.”

이렇게 수작하는 사이에 배는 벌써 언덕에 닿았다. 갈대가 마치 짜놓은 듯 빽빽이 들어서서 땅바닥이 뵐지 않는다. 하인들이 다투어 언덕에 내려가서 갈대를 걱고 빨리 배 위에 깔았던 자리를 걷어서 평고자 하나, 갈대 한 그루가 칼날 같고, 또 검은 진흙이 질어서 어찌할 수 없었다. 정사 이하 모두가 우두커니 갈밭에 서 있을 뿐이다.

“앞서 전너간 사람과 말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도, 다들,

“모릅니다.”

하고 대답한다. 또,

“방물은 어디 있어.”

해도 역시,

“모르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한편으로 멀리 구룡정 모래톱을 가리키면서,

“우리 일행의 인마가 아직도 거지반 건너지 못하고 저기 개미처럼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이 곧 그들인 것 같습니다.”

한다. 멀리 용만쪽을 바라보며 한 조각으로는 성이 마치 한 필의 베를 펼쳐 놓은

29 정(鄭)의 자산(子產) : 자산은 전국 시대 정나라 대부 공손교(公孫僑)의 자.

듯 성문은 흡사 바늘구멍처럼 빤히 뚫려서, 그리로 찌는 햇살이 마치 한 점 샛별 같아 뻔다.

이때 커다란 뗏목이 거센 물살에 떠내려온다. 시대(時大 상사 마두(馬頭)의 이름)가 멀리서,
“웨이.”

하고 고함친다. 이는 대체 남을 부르는 소리인데, 저들을 높이는 말이다. 한 사람이 뗏목 위에 일어서서,

“당신들은 어찌 철 아닌 때에 조공(朝貢)을 바치려 중국을 가시나요. 이 더위에 먼 길을 가시려면 오죽이나 고생되겠소.”

한다. 시대는 또,

“너희들은 어느 골에 살고 있는 사람이며, 어디 가서 나무를 베어 오는 거냐.”

하고 묻는다. 그는 답하기를,

“우리들은 모두 봉황성(鳳凰城)에 사는데, 지금 장백산에서 나무를 베어 오는 거요.”

하고, 말이 미쳐 끝나기 전에 뗏목은 어느 새 까마득히 가버렸다.

이 즈음에 두 갈래 강물이 한데 어울려서 중간에 한 섬이 이루되었다. 먼저 건너간 사람과 말들은 잘못 여기에 내렸으니, 그 거리는 비록 5리밖에 되지 않으나 배가 없어서 다시 건너지 못하고 있는 순간이었다. 이에 사공에게 엄명을 내려서 배 두 척을 불러 재빨리 사람과 말을 건너게 하였으나, 사공은,

“저 거센 물살을 거슬러 배로 올라감은 아마 하루 이틀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고, 여쭙는다. 사신들이 모두 화증을 내어 배 일을 맡은 용만의 군교(軍校)를 별하고자 하였으나 딱하게도 군뢰(軍牢 군대에서 죄인을 다루는 병졸)가 없다. 알아본 즉 군뢰 역시 먼저 건너 잘못 중간 섬에 내렸기 때문이다. 부사의 비장 이서귀(李瑞龜)가 분함을 참지 못하여 마두(馬頭)를 호통하여 용만 군교를 잡아들였으나, 그 놈을 엎을 자리가 없으므로 볼기를 반만 까고 말 채찍으로 네댓 번 때리며 끌어내어서 빨리 거행하라고 호통한다. 용만 군교가 한 손으로 전립을 쥐고 또 한 손으로 고의춤을 잡으면서 연방,

“예에, 예이.”

하고, 대답한다. 그리하여 배 두 척을 내어 사공이 물에 들어서서 배를 끌었으나, 워낙 물살이 세어서 한 치만큼 전진하면 한 자 가량 후퇴하고 만다. 아무리 호통한 들 어찌할 수 없는 사정이다.

이윽고 배 한 척이 강 기슭을 타고 나는 듯이 빨리 내려오니 이는 군뢰가 서장관의 가마와 말을 거느리고 오는 건데, 장복이 창대를 보고,

“너도 오는구나.”

하니, 기뻐하는 말이다. 이에 두 놈을 시켜서 행장을 점검해 보니 모두 탈이 없으나, 다만 비장과 역관이 탔던 말이 혹은 오고 더러는 오지 않았으므로, 이에 정사가 먼저 떠나기로 했다. 군뢰 한 쌍이 말 타고 나팔 불며 길을 인도하고 또 한 쌍은 보행으로 앞을 인도하되 버스럭거리면서 갈숲을 헤치고 나아간다.

내가 말 위에서 칼을 뽑아 갈대 하나를 베어 보니, 껍질이 단단하고 속이 두꺼워서 화살을 만들 수는 없으나 붓자루를 만들기에는 알맞을 것 같았다. 이때 놀란 사슴 한 마리가 마치 보리밭 머리를 나는 새처럼 빠르게 갈대를 뛰어넘어가니 일행이 모두 놀랐다.

10리를 가서 삼강(三江)에 이르니, 강물이 비단결같이 잔잔하다. 이름은 애랄하(愛刺河)이다. 어디서 발원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압록강과의 거리는 불과 십 리 가량에 불과한데도 강물이 넘쳐 흐르지 않음을 보아 서로 근원이 다른 줄을 알겠다. 배 두 척이 보이는데, 꼴이 마치 우리나라 놀잇배와 비슷하나 길이나 넓이는 그만 못하되 제도는 꺽 틀튼하고도 치밀한 편이다. 배 부리는 이는 모두 봉황성 사람으로 사흘 동안을 여기서 기다리노라고 식량이 다하여 굶주렸다고 말한다. 대체 이 강은 너나없이 서로 나다니지 못하는 곳이나, 우리나라의 역학(譯學 역관들의 관계 사업)이나 중국 외교 문서가 불시에 교환할 일이 생기므로 봉성 장군(鳳城將軍 봉황성에 주둔한 중국측 장수)이 이에 배를 준비해 둔 것이라 한다. 배 닿는 곳이 몹시 질척질척하다. 나는,

“웨이.”

하고는 한 되놈을 불렀다. 이는 아까 시대한테서 겨우 배운 말이다. 그 자가 냉큼

상앗대를 놓고 이리로 오므로 나는 얼른 몸을 솟구쳐 그 등에 업히니, 그 자는 히
히거리고 웃으면서 배에 들여다 놓고 후유하고 긴 숨을 내뿜으면서,

“흑선풍(黑旋風)³⁰ 어머니가 이토록 무거웠다면 아마도 기풍령(沂風嶺)에 오르지
못했을 겁니다.”

한다. 주부(主簿) 조명회(趙明會)가 이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웃는다. 내가,

“저 무식한 놈이 강혁(江革)³¹은 몰라도 이규(李逵)는 어찌 알았던고.”

했더니, 조군(趙君)이,

“그 말 가운데는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애초에 이규의 어머니가 이
렇게 무겁다면 비록 이규의 신력(神力)으로도 등에 업은 채 높은 재를 넘지 못했으
리라는 의미였고, 또 이규의 어머니가 호랑이에게 물려갔는데, 그는 이렇게 살집
이 좋은 분을 만일 저 주린 호랑이에게 주었다면 오죽 좋으랴 하는 의미죠.”

하고, 설명해 준다. 나는

“제 따위들이 어찌 이처럼 유식한 문자를 쓸 줄 안단 말이오.”³²

했다. 조군은,

“옛 말에 눈을 부릅떠도 고무래정(丁) 자도 모른다는 것은 정말 저런 놈 따위를 두
고 이름이었건마는, 그는 폐관(碑官) 기서(奇書)를 입에 담아둔 상용어(常用語)로
쓰는 것이니, 그들의 이른바 관화(官話)란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고 답한다. 이 애랄하의 너비는 우리 임진강(臨津江)과 비슷하다. 여기서 곧 구
련성(九連城)으로 향한다. 우거진 숲은 푸른 장막을 둘렀고, 군데군데 호랑이 잡
는 그물을 쳐 놓았다. 의주의 칭군(鎗軍)이 가는 곳마다 나무를 찍어서 소리가 온
들판에 울려온다. 홀로 높은 언덕에 올라 사면을 바라보니, 산은 곱고 물은 맑은
데 판국이 툭 트이고, 나무가 하늘에 닿을 듯 그 속에 은은히 큰 부락들이 자리 잡
고 개와 닭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하며 땅이 기름져 개간하기에도 알맞을 것 같다.

30 흑선풍(黑旋風) : 『수호지(水滸誌)』에 나오는 역사 이규(李逵)의 별명.

31 강혁(江革) : 후한(後漢) 때 효자. 어려서 난리를 만나 홀어머니를 업고 갖은 곤란을 겪고서 마침내 어
머니를 보전하였다.

32 말이오 : ‘조군(趙君)이……말이오’ 이 부분은 다른 본에 없고, 다만 ‘일재본’과 ‘유당본(綏堂本)’에 있을
뿐이다.

패강(渾江) 서쪽과 압록강 동편에는 이와 비교할 만한 곳이 없으니, 의당히 이곳이 거진(巨鎮)이나 응부(雄府)를 설치함직하거늘, 너나없이 이를 버려두어 아직까지 공지로 남아있다. 어떤 이는 이르기를,

“고구려 때에 이곳에 도읍한 일이 있었다.”

하니, 이는 이른바 국내성(國內城)이다. 명(明) 때에 진강부(鎮江府)를 두었더니, 청이 요동(遼東)을 함락시키며 진강 사람들이 머리 깎기를 싫어하여 혹은 모문룡(毛文龍)³³에게 가고 혹은 우리나라에도 귀화하였는데, 그 뒤에 우리나라로 온 사람은 모조리 청의 요구에 의하여 돌려보냈고, 모문룡에게 간 사람들은 많이 유해(劉海 明(明)을 저버린 장수)의 난리에 죽었다. 이리하여 공지가 된 지도 벌써 백여년에 쓸쓸하게도 산 높고 물 맑은 것만 눈에 띌 따름이다.

모든 노둔(露屯) 친 곳을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한다. 역관은 혹 세 사람씩 한 막에, 또는 다섯 사람씩 장(帳) 하나를 쳤고, 역졸(驛卒)과 마부(馬夫)들은 다섯씩 또는 열씩 어울려 시냇가에 나무를 얹어매고 그 속에 들었다. 밥짓는 연기가 자욱히 서리고, 인마소리 소란한 품이 의젓한 한 마을을 이룩하였다. 용만서 온 장수들 한 패가 저희들끼리 한 곳에 모였는데, 시냇가에 닦 수십 마리를 잡아서 씻고, 한편에서는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 국을 끓이며 나물을 볶고, 밥은 낱낱이 기름기가 번지르르하니 그들의 살림이 매우 푸짐하다.

이윽고 부사와 서장관이 차례로 이르렀는데 해가 이미 황혼이다. 30여 군데에 헛불을 놓되, 모두 아름드리 큰 나무를 텁으로 찍어다 먼동이 틀 때까지 환하게 밝힌다. 군뢰가 나팔을 한 마디 불면 3백여 명이 일제히 소리를 맞추어 고함치는데 이는 호랑이를 경비함이다.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다.

군뢰란 만부(灣府)에서 가장 기운 센 자를 뽑아온 것인데, 이 일행 하인들 중에서 특히 일도 많이 하고 먹음새도 제일 세다고 한다. 그 자들 차림차림이란 몹시 우스워서 허리를 잡을 지경이다. 남색 운문단(雲紋綢)을 받쳐 댄 전립(氈笠)에 털상 투의 높은 정수리에는 운월(雲月)이나 다흥빛 상모(象毛)를 걸고, 벙거지 이마에

33 모문룡(毛文龍) : 명의 장수로, 청병에게 패하여 우리나라 서해 가도(假島)에 일시 주둔하고서 조선에 원조를 청하였다.

는 날랠용(勇) 자를 붙였으며, 쇠붙이로 오려낸 아청(鴉青)빛 삼베로 만든 소매 좁은 군복에 다홍빛 무명 배자(褙子)를 입고, 허리엔 남방사주(藍方絲綉) 전대(纏帶)를 띠고, 어깨엔 주홍빛 무명실 대용(大絨 웃옷 위에 걸치는 겉옷)을 걸고, 발에는 미투리를 신었다. 그 꿀이야 말로 어엿한 한 쌍의 사내다. 다만 그 말 탄 꿀을 보면 이른바 반부담(半駒擔)이어서 안장 없이 짐을 실었는가 하면, 타는 것도 탄다기보다는 오히려 걸터앉은 셈이다. 등에는 남빛 조그마한 영기(令旗 영(令) 자를 쓴, 군령을 전하는 기(旗))를 꽂고, 한 손엔 군령판(軍令版 군령을 적은 널빤지)을, 또 한 손에는 붓·벼루·파리채와 팔뚝만한 마가목(馬家木) 짧은 채찍을 잡고, 입으로는 나팔을 불고, 앉은 자리 밑엔 비스듬히 여남은 개의붉게 칠한 곤장(棍杖)을 꽂았다. 각방(各房)에서 약간 호령이 있을 때 문득 군를 부르면, 군뢰는 일부러 못 들은 체하다가 연거푸 10여 차례 불러야 뛰라 중얼거리며 혀를 차고 하다가는, 금시에 처음 들은 듯이 커다란 소리로 ‘예이’ 하고 곧 말에서 뛰어내려, 마치 돼지처럼 비틀걸음에 소처럼 식식거리면서 나팔·군령판·붓·벼루 등속을 모두 한 쪽 어깨에 메고 막대 하나를 끌며 나간다.

한밤중 못 되어서 소낙비가 억수로 펴부여 위로 장막이 새고 밑에선 습기가 치밀어 피할 곳이 없더니, 이내 날이 개고 하늘에 별들이 총총히 드리워 손으로 어루만지기라도 할 수 있을 듯싶었다.

25일 임신(壬申)

아침에 가랑비 내리더니 낮에 개다.

각방(各房)과 역관들이 모든 노둔(露屯)한 곳에서 이곳저곳 옷과 이불들을 내어 말린다. 간밤 비에 젖었기 때문이다. 쇄마(刷馬 관용으로 세 낸 말) 마부 중에 술을 갖고 온 자가 있어서 대종(戴宗)[선천(宣川)]의 종으로 어의(御醫) 변 주부(卞主簿)의 마두이다.] 이 한 병을 사서 바치기에 서로 이끌고 시냇가에서 잔을 기울인다. 강을 건넌 뒤로 우리 술은 아주 단념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 술을 얻어 마시게 되

니 술맛이 몹시 좋을 뿐더러 한가히 시냇가에 앉아 마시는 그 멋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마두들이 서로 다투어 낚시질을 하기에, 나도 취한 김에 낚싯줄 하나를 빌려 던지자 곧 조그만 고기 두 마리가 걸리니, 아마 이 물고기는 낚시에 단련되지 못한 까닭이리라.

방물이 미처 대어 오지 못하였으므로 또 구련성에서 노숙하다.

26일 계유(癸酉)

아침에 안개가 끼었다가 늦게야 개다.

구련성을 떠나 삼십 리를 가서 금석산(金石山) 밑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다시 삼십 리를 가서 총수(葱秀)에서 노숙하다.

날이 새자 새벽 일찍 안개를 헤치고 길을 떠났다. 상판사(上判事)³⁴의 마두 득룡(得龍)이 쇄마 구종들과 함께 강세작(康世爵)의 옛 일을 이야기한다. 안개 속으로 어슴푸레 보이는 금석산을 가리키면서,

“저기가 형주(荊州) 사람 강세작이 숨었던 곳이오.”

하고 말한다. 그 이야기가 꽤 재미있어 들을 만하다. 대략 그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러하다.

“세작의 조부 임(霖)이 양호(楊鎬)를 따라 우리나라를 구원하다가 평산(平山) 싸움에 죽고, 그 아버지 국태(國泰)는 청주 통판(清州通判)을 지내다가 만력(萬曆) 정사년(丁巳年)에 죄를 지어 요양(遼陽)으로 귀양 오게 되었다. 그때 세작의 나이는 열여덟이었는데 아버지를 따라 요양에 와 있었다. 그 이듬해에 청이 무순(撫順)을 함락하자 유격장군(游擊將軍) 이영방(李永芳)이 항복하고 말았다. 경략(經略) 양호가 여러 장수를 나눠서 파견할 제 총병(揚兵) 두송(杜松)은 개원(開原)으로, 왕상건(王尙乾)은 무순으로, 이여백(李如栢)은 청하(淸河)로 각각 나오고, 도독(都督) 유정

34 상판사(上判事) : 사행이 있을 때, 임시로 잡무의 처리를 맡은 직명.

(劉挺)은 모령(毛嶺)으로 나왔다. 이때 국태 부자는 유정의 진중에 있었는데, 청의 복병이 산골짜기에서 몰려나오자, 명의 군사 앞뒤가 연락되지 못하여 유정은 스스로 불에 타 죽고 국태도 화살을 맞은 채 쓰러졌다.

세작이 해 저문 뒤에 아버지의 시신을 찾아 산골에 묻고 돌을 모아 표를 했다. 이 때(1619) 조선의 도원수(都元帥) 강홍립(姜弘立)과 부원수(副元帥) 김경서(金景瑞)는 산 위에 진을 쳤고, 조선의 좌·우 영장(營將)은 산 밑에 진을 쳤었다. 이에 세작이 원수(元帥)의 진에 투신했다. 그 이튿날 청병(淸兵)이 조선의 좌영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으니, 산 위에 있던 군사들이 이를 바라보고 어찌 할 바를 모르고 혀동댔다. 그러자 홍립은 싸우지도 않고 항복했다. 청병이 홍립의 군사를 두어 겁이나 에워싸고 도망쳐 온 명병(明兵)을 살살이 뒤져내어 모조리 목을 베어 죽였다. 세작도 역시 청병에게 붙들려서 묶인 채 바위 아래 앉았는데, 어쩐 일인지 그를 맡은 자가 잊어버리고 가버렸다. 그러자 세작이 조선 군사에게 눈짓하여 묶인 것을 풀어 달라고 애걸했으나, 그들은 누구 할 것 없이 서로 기웃기웃 보기만 하고 손 하나도 까딱하는 이가 없었다. 세작이 할 수 없어 스스로 등을 돌 모서리에 부비적 거려 줄을 끊고 죽은 조선 군사의 옷을 바꾸어 입고 조선 군대 가운데 들어가 죽음을 면했다. 이에 요양으로 돌아갔더니, 웅정필(熊廷弼)이 요양을 지키면서, 세작을 불러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라고 하였다. 이해에 청이 잇달아 개원과 철령(鐵嶺)을 함락하니 정필이 갈리고 설국용(薛國用)이 대신 요양을 지키게 되자, 세작이 곧 설(薛)의 군중에 머물러 있었더니 심양마저 함락되매, 세작이 낮에는 숨고 밤에 걸어서 봉황성에 닿아, 광녕(廣寧) 사람 유광한(劉光漢)과 함께 요양의 패잔병을 소집하여 거기를 지켰다. 그러나 얼마 아니 되어 광한은 전사하고 세작도 십여 군데 상처를 입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고향길이 이미 끊어졌으니 차라리 동쪽나라 조선으로 나가서 저 치발(薙髮)·좌임(左衽)의 되놈을 면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하고, 드디어 싸움터를 탈출하여 금석산 속에 숨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양구(羊裘)를 불에 구워 나뭇잎에 싸서 먹고 두어 달 동안 목숨을 부지하였다. 이에 압록강을 건너 관서(關西)의 여러 고을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회령(會寧)까지 굴러 들어가서, 조선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들 둘을 낳고 나이 팔십이 넘어서 죽었다. 그

자손이 퍼져서 백여 명이나 되었으나 오히려 한 집에서 살림하고 있다.”

득룡(得龍)은 가산(嘉山) 사람인데, 열네 살부터 북경(北京)에 드나들어 이번이면 삼십여 차례에 이른다. 화어(華語)에 가장 능통하여 일행의 모든 일에 득룡이 아니면 그 책임 있게 해낼 자가 없다. 그는 이미 가산과 용천(龍川), 철산(鐵山) 등 부(府)의 중군(中軍)을 지내고 품계가 가선(嘉善 종2품 문관 품계)에까지 이르렀다. 사행이 있을 때마다 미리 가산에 통첩하여 그 차지(次知)[가속(家屬)을 차지라 한다.]를 감금(監禁)하여 그의 도피함을 막는 것으로 보아서도, 그 위인의 재간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겠다. 세작이 처음 나왔을 때, 득룡의 집에 묵고 득룡의 조부와 친하여 서로 중국말과 조선말을 배웠으며, 득룡이 화어를 그토록 잘함도 그의 가전(家傳)의 학문이라 한다.

날이 저물어 총수에 이르다. 여기는 우리나라 평산(平山)³⁵의 총수와 흡사하다. 그 제야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명 짓는 예가 생각된다. 이로 미루어서 평산의 총수도 이곳과 유사하다 해서 이름을 지은 것이나 아닐까.

27일 갑술(甲戌)

아침에 안개가 끼었다가 늦게야 걷혔다.

아침 일찍 길을 떠났다. 길에서 되놈 5~6명을 만났는데, 모두 조그만 당나귀를 탔고 병거지나 옷이 납루하며 얼굴은 지친 듯 파리하다. 이들은 모두 봉황성의 갑군(甲軍)으로 애랄하(愛刺河)에 수자리 살려 가는데, 대부분 품삯을 받고 팔려 가는 자들이라 한다. 이 일을 보니 우리나라는 염려할 것 없으나, 중국의 변비(邊備)는 너무나 허술하다고 느껴졌다.

마두와 쇄마 구종들이 나귀에서 내리라고 호통치니, 앞서 가던 둘은 곧 내려서 한쪽으로 비켜서 가는데, 뒤에 가는 셋은 내리기를 거부한다.

마두들이 일제히 소리를 높여 꾸짖으니, 그들은 눈을 부릅뜨고 똑바로 쏘아 보면

35 평산(平山) : '수택본'에는 서홍(瑞興)으로 되었다.

서,

“당신네 상전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있어.”

한다. 마두가 바짝 달려들어 그 채찍을 빼앗아 그 맨 종아리를 후려갈기면서 꾸짖는다.

“우리 상전께서 받들고 온 것이 어떤 물건이며 싸 갖고 오는 것이 어떤 문서인 줄
아느냐. 저 노란 깃발에 만세야(萬歲爺 청의 황제) 어전상용(御前上用)이라고 써
있지 않느냐. 너희 놈들이 눈깔이 성하다면 황제께서 친히 쓰실 방물인 줄 모른단
말이냐.”

하니, 그제야 그들은 곧 나귀에서 내려 땅에 엎드려서,

“그저 죽을죄를 지었소이다.”

한다. 그 중 한 녀석이 일어나더니 자문(咨文)을 지닌 마두의 허리를 껴안고 얼굴
에 웃음을 가득 띤 채,

“영감, 제발 참아 주십시오. 선네들의 죄는 죽어야 하옵니다.”

한다. 마두들이 모두 깔깔 웃으면서,

“너희들은 머리를 조아려 사죄하렷다.”

하니, 그들이 진흙 바닥에 끓어 엎드려 머리가 땅에 닿도록 조아리니, 이마가 죄다
진흙투성이가 되었다. 일행이 모두 크게 웃고,

“빨리 물러가라.”

호통한다. 나는 다 보고 나서,

“내 들키기에 너희들이 중국에 들어갈 때마다 여러 가지로 요단(鬧端)을 일으킨다더
니, 이제 내 눈으로 보건대 과연 앞서 들은 바와 틀림없구나. 아까 한 일은 대체 부
질없는 짓이니 이 담엘랑 아예 장난으로 요단을 일으키지 말려무나.”

하니, 모두들,

“이렇게라도 아니 하면 먼 길 허구한 날을 무엇으로 심심풀이를 합니까.”

한다.

멀리 봉황산(鳳凰山)을 바라보니, 전체가 돌로 깎아 세운 듯 평지에 우뚝 솟아서,
마치 손바닥 위에 손가락을 세운 듯하며, 연꽃 봉오리가 반쯤 피어난 듯도 하고,

하늘가에 뭉게뭉게 떠도는 여름 구름의 기이한 자태와도 같아서 뭐라 형용기는 어려우나, 다만 맑고 윤택한 기운이 모자라는 것이 흄이다.

내가 일찍이 우리 서울의 도봉(道峯)과 삼각산(三角山)이 금강산(金剛山)보다 낫다고 한 일이 있다. 왜냐하면 금강산은 그 동부(洞府)를 엿보면 이른바 1만 2천 봉이 그 어느 것이나 기이하고 높고 웅장하고 깊지 않음이 없어서, 짐승이 끄는 듯, 새가 날아가는 듯, 신선이 공중에 솟는 듯, 부처가 도사리고 앉은 듯, 음산하고 그윽함이 마치 귀신의 글 속에 들어간 것 같다. 내 일찍이 신원발(申元發)과 함께 단발령(斷髮嶺)에 올라 금강산을 바라본 일이 있다.

때마침 가없이 파란 가을 하늘에 석양이 비쳤으나, 다만 창공에 닿을 듯한 빼어난 빛과 제 몸에서 우리난 윤기와 자태가 없음을 느낀 나는 미상불 금강산을 위해서 한 번 긴 탄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뒤에 배를 타고 상류에서 저어내려 오면서 두미강(頭尾江) 어귀에서 서쪽의 한양(漢陽)을 바라보니, 삼각산의 모든 봉우리가 깎은 듯 파랗게 하늘에 솟구쳤다. 얇은 내와 같은 구름 속에 밝고 곱게 아리따운 자태가 나타나고, 또 일찍이 남한산성(南漢山城)의 남문에 앉아서 북으로 한양을 바라보니 마치 물 위의 꽃, 거울 속의 달과 같았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초목의 윤기 나는 기운이 공중에 어림은 왕기(旺氣)라고 하였으니, 왕기(旺氣)는 곧 왕기(王氣)인즉, 이는 우리 서울은 실로 억만 년을 누릴 용이 서리고 범이 걸터 앉은 형세였으니, 그 신령스럽고 밝은 기운이야말로 당연히 범상한 산세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제 이 봉황산 형세의 기이하고 뾰족하고 높고 빼어남이 비록 도봉·삼각보다 지나침이 있건마는, 어린 빛깔은 한양의 모든 산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넓은 들판이 질편한데 비록 개간은 안 되었지만, 가는 곳마다 나무 찍어 낸 조각들이 흩어져 있고, 소 발자국과 수레바퀴 자리가 풀섶에 섞여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미 책문(柵門)이 여기서 가깝고, 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무시로 이곳에 드나들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말을 빨리 몰아 7~8리를 가서 책문 밖에 닿았다. 양과 돼지가 산에 질편하고 아침연기는 푸른빛으로 둘러 있다. 나무 쪽으로 목책(木柵)을 세워서 겨우 경계(經界)

를 밝혔으니, 이른바 벼들을 꺾어서 울타리를 만든다는 말이 곧 이것인 듯싶다. 책문에는 이엉이 덮이었고 널판자 문이 굳게 닫혔다.

목책에서 수십 보 떨어져서 삼사(三使)의 막을 치고 조금 쉬려니까 방물이 다 이르렀으므로 책문 밖에 쌓아 두었다. 못 되놈들이 목책 안에 늘어서서 구경을 하는데, 대부분 민머리 바람에 담뱃대를 물고 부채를 부치고 있다. 혹은 검은 공단(貢綵) 옷을 입고, 또는 수화주(秀花紬) · 생포(生布) · 생저(生苧) · 석새삼베[三升布] · 야견사(野繭絲) 옷들을 입었으며 바지들도 역시 그러하다.

허리에는 찬 것이 주렁주렁하게 많았는데, 수놓은 주머니 서너 개씩과 조그만 패도에 모두 쌍아저(雙牙箸)를 꽂았고, 담배쌈지는 호로병(胡蘆瓶)처럼 생겼는데 거기에다 꽃 · 풀 · 새 또는 옛사람의 이름난 글귀를 수놓았다. 역관과 모든 마두들이 다투어 목책 가에 나서서 그들과 손을 잡고 반가이 인사를 교환한다. 되놈들은,

“당신은 언제쯤 한성을 떠났으며, 길에서 비나 겪지 않았나요. 댁에선 모두들 안녕하시고요. 포은(包銀) 돈도 넉넉히 갖고 오셨습니까.”

하고, 사람마다 수작이 거의 한 입에서 나오는 것 같다. 또 다투어 묻되,
“한 상공(韓相公)과 안 상공(安相公)도 오시나요.”

한다. 이들은 모두 의주 사는 장사꾼들로서, 해마다 연경으로 장사 다녀서 수단이 매우 능란하고 또 저쪽 사정을 익히 아는 자들이라 한다. 그리고 ‘상공’이란 장사꾼들끼리 서로 존대하는 말이다. 사행이 갈 때에는 으레 정관(正官)에게 팔포를 내리는 법이다. 정관은 비장 · 역관까지 모두 서른 명이고, 팔포(八包)란 이전부터 나라에서 정관에게 인삼(人蔘) 몇 근씩을 주었었는데, 이를 팔포라 일렀다. 지금은 이것을 나라에서 주지 않고 제각기 은을 갖고 가게 하되, 단지 그 포 수를 제한하여 당상관(堂上官)은 3천냥, 당하관(堂下官)은 2천냥인데, 이것을 지니고 연경에 가서 여러 가지 물건을 바꾸어 이문을 남기게 하는 것이다. 가난하여 스스로 갖고 갈 수 없으면, 그 포의 권리를 파는데 송도 · 평양 · 안주(安州) 등의 장사꾼들이 사서 대신 은을 넣어 간다. 그러나 이들은 스스로 연경에 들어가지 못하는 법이므로, 이 포의 권리를 의주 장수들에게 넘겨주어서 물건을 바꿔 오는 것이다. 한(韓)이나 임(林) 같은 장사꾼들은 해마다 연경에 드나들어서 연경을 제집 뜰처럼 여기며, 저쪽

장수들과 서로 뜻이 맞아서 물건 값의 오르내리는 것이 모두 그들의 손아귀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물건 값이 날로 오르는 것은 실로 이 무리들 때문이 거늘 온 나라가 도대체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역관만 나무란다. 그러나 역관도 이들 장사꾼에게 권리를 빼앗기고는 어쩔 도리가 없을 뿐이다. 다른 곳 장사꾼들도 이것이 의주 장사꾼놈들의 농락인 줄을 모르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 눈으로 직접 본 것이 아니므로 골은 낼 수 있겠으나 뭐라 말을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 요즘 의주 장사꾼들이 잠깐 은신하고 나타나지 않는 것도 역시 흥정하는 술책의 하나다.

책문 밖에서 아침밥을 먹다. 행장을 정돈한즉, 양편 주머니 중 원편 열쇠가 간 곳이 없다. 살갗이 풀밭을 뒤졌으나, 끝내 찾지 못했다. 장복을 보고,

“너는 행장에 유의하지 않고 늘 한눈만 팔더니, 겨우 책문에 이르러서 벌써 이런 일이 생겼구나. 속담에 사흘 길을 하루도 못 가서 늘어진다는 격으로, 앞으로 2천리를 가서 연경에 이를 즈음이면 네 오장인들 어디 남겠느냐. 내 듣건대, 구요동(舊遼東)과 동악묘(東岳廟)엔 본시 좀도둑이 드나드는 곳이라 하니, 네가 또 한눈을 팔다가는 무엇을 잃어버릴지 모르겠구나.”

하고 꾸짖으니, 장복은 민망하여 머리를 긁으며,

“쇤네가 인제야 알겠습니다. 그 두 곳을 구경할 적엔 제 두 손으로 눈깔을 꼭 붙들고 있으면, 어느 놈이 빼어갈 수 있으리까.”

한다. 나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옳아.”

하고 응락하였다. 대체 장복이란 녀석은 아직 나이 어리고 또 처음 길이며 바탕이 몹시 명청해서, 동행하는 마두들이 흔히 장난으로 놀리면, 그는 곧잘 참말로 골이 듣고 그러려니 한다. 매사가 다 이러하니 앞으로 먼 길을 데리고 갈 일을 생각하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책문 밖에서 다시 책문 안을 바라보니, 수많은 민가(民家)들은 대체로 들보 다섯이 높이 솟아 있고 땡이 엉을 덮었는데, 등마루가 훤히하고 문호가 가지런하고 네거리가 쭉 골아서 양쪽이 마치 먹줄 친 것 같다. 담은 모두 벽돌로 쌓았고, 사람 탄

수레와 화물 실은 차들이 길에 질편하며 벌여 놓은 기명들은 모두 그림 그린 자기(瓷器)들이다. 그 제도가 어디로 보나 시골터라고는 조금도 없다. 앞서 나의 벗 흥덕보(洪德保)가,

“그 규모는 크되, 그 심법(心法)은 세밀하다.”

고 충고하더니, 이 책문은 중국의 동쪽 변두리임에도 오히려 이러한 거리를 앞으로 더욱 변화할 것을 생각하니, 갑자기 한풀 꺾여서 여기서 그만 발길을 돌릴까보다 하는 생각에 온 몸이 화끈해진다. 그럴 순간에 나는 깊이 반성하되,

“이는 하나의 시기하는 마음이다. 내 본시 성미가 담박(淡泊)하여 남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던 것이 이제 한번 다른 나라에 발을 들여놓자, 아직 그 만분의 일도 보지 못하고 벌써 이런 망령된 마음이 일어남은 어인 까닭일까. 이는 곧 견문이 좁은 탓이리라. 만일 여래(如來)의 밝은 눈으로 시방 세계(十方世界)를 두루 살핀다면, 어느 것이나 평등하지 않은 것이 없을 것이니, 모든 것이 평등하면, 저절로 시기와 부러움이란 없어질 것이다.”

하고 장복을 돌아보며,

“네가 만일 중국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겠느냐?”

하고 물으니 그는,

“중국은 되놈의 나라이옵기 쇠네는 싫사와요.”

하고 대답한다. 때마침 한 소경이 어깨에 비단 주머니를 걸고 손으로 월금(月琴)을 뜯으면서 지나간다. 나는 크게 깨달아,

“저야말로 평등의 눈을 가진 이가 아니겠느냐.”

하였다.

조금 뒤에 책문이 활짝 열린다. 봉성장군과 책문어사(柵門御史)가 방금 와서 점방(店房)에 앉아 있다 한다. 여러 되놈들이 책문이 메이개 나오며, 다투어 방물과 사복(私卜 개인이 가진 짐작들)의 무게를 가늠해 본다.

대체 이곳에 이르러서는 으레 되놈의 수레를 세내어서 짐을 운반하기 마련³⁶이다.

36 이곳에……마련 : 봉성에서부터 청인들에게 짐삯을 주고 짐을 실린다. 청인들 중에는 이를 독점하는 조합(組合) 같은 것이 있어서, 오랫동안 여러 가지의 폐해가 많았다.

그들은 사신이 앉은 곳에 와 보고서는 담뱃대를 물고 헐끗힐끗 쳐다보더니,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희들끼리,

“저이가 왕자(王子)인가.”

하고, 중얼거린다. ‘왕자’란 종반(宗班 임금의 가까운 집안)으로서 정사가 된 이를 이름이다. 그 중에 잘 아는 자가,

“아니야, 저 머리가 희끗희끗한 이가 부마(駙馬 임금의 사위) 어른인데, 지난해에도 왔던 이야.”

하고 부사를 가리키면서,

“저 수염 좋고 쌍학(雙鶴) 무늬 놓은 관복 입은 이가 얼대인(乙大人)이지.”

하고 서장관을 보고는,

“산대인(山大人)인데, 모두 한림(翰林)³⁷ 출신이오.”

한다. 얼(乙)은 이(二 둘째)요, 산(山)은 삼(三 셋째)이요, 한림 출신이란 문관(文官)을 이름이다.

때마침 시냇가에서 왁자지껄하며 무엇을 다투는 소리가 있는데, 말 소리가 새 지저귀는 듯하여, 한 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 급히 가 보니, 득룡이 방금 못 되놈들과 더불어 예물(禮物)이 많고 적음을 다투고 있다. 대체 예단(禮單)³⁸을 나눠 줄 때면 반드시 전례를 좇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 봉황성의 교활한 청인들이 반드시 명목(名目)을 덧붙여서 그 가지 수를 채워주기를 강요한다. 이에 대한 처리의 잘하고 잘못함은 전혀 상판사(上判事)의 마두에게 달린 것이다. 만일 그가 일에 서투른 뜻내기라든지, 또는 중국말이 시원찮다든지 하면, 그 자들과 시비를 따지지 못하고 달라는 그대로 줄 수밖에 없다.

올해에 이렇게 하면, 내년에는 벌써 전례가 되기 때문에 기어코 아귀다툼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사신들은 이 묘리를 모르고 다만 책문에 들어가기만 급하여, 반드시 역관을 재촉하고 역관은 또 마두를 재촉하여 그 폐단의 유래가 오랜 것이다.

37 한림(翰林) : 예문관(藝文館)봉교(奉教) · 대교(待教) · 검열(檢閱)에 대한 통칭으로서, 사관(史館)인 검열을 가리킨다. 문벌이 좋고 글을 잘하는 이들로 충원된다.

38 예단(禮單) : 선물의 목록, 또는 선물. 여기서는 사행이 연로(沿路)의 청국 관원에게 선사하는 선물을 말한다.

상삼(象三)[상판사의 마두이다.]이 방금 예단을 나눠 주려 한다. 되놈 백여 명이 뻥 둘러섰다. 그 중 한 청인이 갑자기 커다란 소리로 상삼을 욕한다. 득룡이 수염을 쑥 쓰다듬고 눈을 부릅뜬 채 내달아서 그 앙가슴을 웁켜잡고 주먹을 휘두르며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못 청인을 둘러보고,

“이 뺀뺀스럽고 무례한 놈 봐. 지난해에는 대담하게도 어른의 쥐털 목도리를 훔쳐 가고, 또 그 다음해엔 어른께서 주무시는 틈을 타서 나의 허리에 찼던 칼을 뽑아 어른의 칼집에 달린 술[綬]을 끊어 가지고 다시 나의 찬 주머니를 훔치려다가 내게 들켜서는 주먹 한 대에 톡톡히 경을 치지 않았나. 그 때는 아주 만단으로 애걸복걸하면서 나더러 목숨을 살려 주신 부모 같은 은인이라 하던 놈이 이번엔 오랜만에 오니까 도리어 어른께서 네 놈의 꼴을 몰라보실 줄 믿고 함부로 떠들고 야단이야. 이런 쥐새끼 같은 놈은 어디 봉성장군에게 끌고 가야지.”

하고 야단한다. 여러 되놈은 모두 용서해 줄 것을 권한다. 그 중에서도 수염이 아름답고 옷을 깨끗이 입은 한 노인이 앞으로 나서더니, 득룡의 허리를 껴안고,

“형님, 제발 좀 참으시오.”

하고 사정한다. 득룡이 그제야 노여움을 풀고 빙그레 웃으면서,

“내가 만일 동생의 안면을 보지 않는다면, 이놈의 콧잔등이를 한 주먹 갈겨서 저 봉황산 밖에 던지고 말 것을.”

하며 으르댄다. 그의 날뛰는 거조는 참으로 우습다. 판사(判事) 조달동(趙達東)이 마침 내 곁에 와 섯기에 아까 그 광경을 이야기하고 혼자서만 보기에 아깝더라 하니, 조군이 웃으면서,

“그야말로 살위봉법(殺威棒法)³⁹이군요.”

한다. 조군이 득룡더러,

“사또께서 이제 곧 책문으로 들어가실 테니, 예단(禮單)을 지체 말고 나눠 주렷다.”

하고 재촉한다. 득룡이 연방,

“예에, 예이.”

39 살위봉법(殺威棒法) : 중국 무술(武術) 십팔기(十八技)의 하나. 곧 도둑의 덜미를 먼저 잡는 방법.

하며, 짐짓 바쁜 척하고 서둔다. 나는 일부러 그 곳에 머물러 서서 그 나눠주는 물건의 명목(名目)을 상세히 보았다. 매우 괴잡(怪雜)스러운 일들이다.

예단물목(禮單物目)⁴⁰

책문수직보고(柵門守直甫古)⁴¹ 2명(二名)과 갑군(甲軍) 8명(八名)에겐 각각 백지(白紙)⁴² 10권(十卷), 소연죽(小煙竹) 10개(十箇), 화도(火刀) 10개, 봉초(封草) 10봉(十封)씩이고, 봉성장군 2원(二員)⁴³, 주객사(主客司) 1원, 세관(稅官) 1원, 어사(御史) 1원, 만주장경(滿洲章京)⁴⁴ 8명, 가출장경(加出章京) 2명, 몽고장경(蒙古章京) 2명, 영송관(迎送官) 3명, 대자(帶子)⁴⁵ 8명, 박씨(博氏)⁴⁶ 8명, 가출박씨(加出博氏) 1명, 세관박씨(稅官博氏) 1명, 외랑(外郎) 1명, 아역(衙譯) 2명, 필첩식(筆帖式)⁴⁷ 2명, 보고(甫古) 17명, 가출보고(加出甫古) 7명, 세관보고(稅官甫古) 2명, 분두보고(分頭甫古) 9명, 갑군 50명, 가출갑군(加出甲軍) 36명, 세관갑군(稅官甲軍) 16명 등 도합 1백 2명⁴⁸에게는 장지(壯紙) 1백 56권, 백지 4백 69권, 청서피(靑黍皮) 1백 20장, 소갑초(小匣草) 5백 80갑, 봉초 8백 봉, 세연죽(細煙竹) 74개, 팔면은항연죽(八面銀項煙竹) 74개, 석장도(錫粧刀) 37자루[三十七柄], 초도(鞘刀) 2백 84자루, 선자(扇子) 2백 88자루, 대구어(大口魚) 74마리[七十四尾], 다래[月乃][가죽장니(障泥)다.] 7부(七部), 환도(環刀) 7파(七把), 은장도(銀粧刀) 7자루, 은연죽(銀煙竹) 7개, 석장연죽(錫長煙竹) 42개, 필(筆) 40지(枝), 묵(墨) 40정(丁), 화도 2백 62

40 예단물목(禮單物目) : 제본(諸本)에 애초에는 이 예단물목을 독립시킨 것이 없었다. 다만 내가 몇해 전에 어디에서 독립된 본을 보고서 잘 된 것이라 생각하였던 것이므로 이에 적용(適用)한다.

41 책문수직보고(柵門守直甫古) : 보십구(甫十口)의 오사(誤寫)였으나, 이제 그대로 둔다. 청의 구실 이름. 그들의 기록에는 밤허고(撥什庫)로 되었다.

42 백지(白紙)……10봉(十封)씩이고 : 《통문관지(通文館志)》에는, '백지 한 권, 소연죽 한 개, 화도 한 개, 봉초 한 봉'으로 되어 있다.

43 봉성장군 2원 : 청인과 한인 각기 한 사람씩이다.

44 만주장경(滿洲章京) : 청의 구실 이름.

45 대자(帶子) : 청의 구실 이름.

46 박씨(博氏) : 청의 구실 이름.

47 필첩식(筆帖式) : 청의 구실 이름.

48 1백 2명 : 1백 80명의 오산인 듯하다.

개, 청청다래[青青月乃] 2부, 별연죽(別煙竹) 45개, 유둔(油菴)⁴⁹ 2부씩이다.

뭇 되놈은 깍소리 없이 받아 가지고 가버린다. 조군이,

“득릉의 수단이 참으로 농하단 말이오. 그는 지난해에 휘항이며 칼이며 주머니며
잃어버린 일이 도시 없답니다. 공연히 트집을 만들어서 그 중 한 놈을 꺾어놓으면,
그 나머지는 저절로 수그러져 서로 돌아보고는 무료히 물러서곤 하더군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던들, 사흘이 가도 끝이 나지 않아 좀처럼 책문 안으로 들어갈 가
망이 없으리다.”

한다. 이윽고, 군뢰가 와 엎드리어,

“문상어사(門上御史)와 봉성장군이 수세청(收稅廳 세관)에 나와 계십니다.”

하고 아뢴다. 이에 삼사(三使)가 차례로 책문으로 들어간다. 장계(狀啓)는 전례대
로 의주의 창군(鎗軍)에게 부치고 돌아오다.

한번 이 문을 들어서면 중국 땅이다. 고국의 소식은 이로부터 끊어지는 것이다. 섭
섭한 마음에 동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섰다가 이윽고 몸을 돌려 천천히 책문 안으
로 향했다.

길 오른편에 초청(草廳) 세 칸이 있어서 어사·장군으로부터 아역(衙譯)에 이르기
까지 반열을 나눠 의자에 걸터앉고, 수역(首譯) 이하는 그 앞에 팔짱을 낀 채 서 있
었다.

사신이 이에 이르면 마두가 하인을 호통하여 가마를 머무르고 잠시 말을 쉬어 마
치 행차를 중지하려는 듯하다가 이내 재빨리 달려서 그곳을 지나가 버린다. 부
사·서장관도 이같이 하여 마치 서로 구원하는 듯한 모양이 하도 우스꽝스러워 허
리를 잡을 지경이다. 비장·역관들은 모두 말에서 내려 걸어 지나가는데, 다만 변
계함(卞季涵)만이 말 탄 채 그냥 지나간다. 말석에 앉은 한 청인이 갑자기 조선말
로,

“여보 잘못이에요. 어른들 몇 분이 여기 앉아 계신데, 외국의 수행원이 어찌 이렇

49 유둔(油菴) : 비를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어 붙인 두꺼운 기름종이. ‘주설루본(朱雪樓本)’에는 ‘유단(油單)’으로 되었다.

게 당돌하단 말이오. 사신께 빨리 고해서 볼기를 침이 마땅하지.”

하고 고함친다. 그 소리는 비록 거세고 크나 혀가 굳고 목이 깍깍하여 마치 어린아이의 어리광 부리듯 하며 주정꾼이 노닥거리는 것 같다. 이건 곧 호행통관(護行通官)⁵⁰ 쌍림(雙林)이라 한다. 수역(首譯)이 얼른 대답하여,

“이는 우리나라 태의관(太醫官 어의(御醫))인데 처음 길이라 실정을 몰라서 그랬으며, 태의관은 국명(國命)을 받자와 정사를 보호하는 직분이므로, 정사께서도 마음대로는 할 수 없는 처지예요. 여러 어른께서는 위로 황제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체득하시와 깊이 따지지 마시면 더욱 대국의 너그러운 도량을 잘들 인식하겠습니다.”

하매, 그들은 모두 머리를 끄덕이고 빙그레 웃으면서,

“그렇소, 그래.”

한다. 다만 쌍림은 눈을 부라리고 소리 지르는 것이 사나워서 노여움이 아직 덜 풀린 모양이다. 수역이 나를 보고 그만 가자고 눈짓한다. 길에서 변군(卞君)을 만났다. 변군이,

“큰 욕을 보았어.”

한다. 나는,

“볼기둔(臀) 자를 잘 생각해 봐.”

하고는 한바탕 웃었다. 이에 그와 나란히 가면서 구경하는데 가끔 감탄의 소리가 저절로 나왔다.

책문 안의 인기는 20~30호에 지나지 않으나 모두 웅장하고 깊고 높고 통창하다. 짙은 벼들 그늘 속에 푸른 주기(酒旗)가 공중에 솟은 채 나부낀다. 변군과 함께 들 어가니 웬걸 조선 사람들이 그 속에 그득하다. 맨종아리며 때 낀 살찌에 결상을 가로 타고 앓아 떠들던 그들은 우리를 보고 모두 피하여 밖으로 빠져버린다. 주인이 성을 내어서 변군을 가리키면서,

“눈치 없는 저 관인(官人)이 남의 영업을 방해하는군.”

하고 투덜거린다. 대종(戴宗)이 주인의 등을 두드리며,

50 호행통관(護行通官) : 사행을 호송하는 통관. 통관은 청의 구실 이름이다.

“형님, 잔소리 할 것 없어. 두 어른은 한두 잔만 자시면 곧 나가실 텐데 그 망나니들이 어찌 제멋대로 걸상을 타고 앉았을 수 있겠소. 잠시 피한 것이니 곧 돌아와서, 이미 먹었으면 술값을 치를 것이고, 아직 덜 먹었으면 흥금을 터놓고 즐거이 마실 테니 형님은 마음놓고 우선 넉 냥 술이나 부으시오.”

한즉, 주인은 그제야 웃는 얼굴로,

“동생, 지난해도 보지 않았소. 이 망나니들이 야로하는 바람에 모두 먹기만 하고는 뿔뿔이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니 술값을 어디 가 받겠소.”

한다. 대종은 다시금,

“형님, 염려마오. 이 어른들이 자시고 곧 일어나시면, 내 다 그들을 이리로 몰고 와서 술을 사게 할 테니.”

한즉, 주인은,

“그러시오. 두 분이 함께 넉 냥으로 하실까. 각기 넉 냥으로 하실까.”

한다. 대종은,

“파로파로 넉 냥씩 부으시오.”

하자, 변군이 나무라면서,

“넉 냥 술을 누가 다 먹는단 말이냐.”

하매, 대종이 웃으면서,

“넉 냥이란 돈이 아닙니다. 술 무게 말씀입니다.”

한다.

탁자 위에 벌여놓은 술잔이 한 냥으로부터 열 냥까지 제각기 그 그릇이 다르다. 모두 놋쇠와 주석으로 만들어서 빛깔을 내어 은과 같다. 넉 냥 술을 청하면 넉 냥들이 이 잔으로 부어준다. 술을 사는 이는 그 많고 적음을 계교할 필요가 없다. 대체 그 간편함이 이와 같다. 술은 모두 백소로(白燒露)인데, 맛이 그리 좋지 못하고 취하자마자 금방 깬다.

그 주위의 포치(鋪置)를 둘러보니, 모든 것이 고르고 단정하여, 한 가지 일이라도 구차스럽게 미봉해 놓은 법이 없고, 한 물건도 허투루 어지럽혀 놓은 것이 없었다. 심지어 소 외양간이나 돼지우리까지 모두 법도 있게 제자리에 놓였으며 나무 더미

나 거름 무더기까지도 유달리 깨끗하고 맵시 있는 품이 그런 듯싶다. 아아, 이러한 연후에야 비로소 이용(利用)이라 이를 수 있겠다. 이용이 있은 연후에야 후생(厚生)이 될 것이요, 후생이 된 연후에야 정덕(正德)이 될 것이다. 대체 이용이 되지 않고서는 후생할 수 있는 이는 드물지니, 생활이 이미 제각기 넉넉하지 못하다면, 어찌 그 마음을 바로 지닐 수 있으리오.

정사의 행차가 이미 악(鄂)의 성을 가진 사람의 집을 사처로 들였다. 주인은 신장이 일곱 척이요, 기개가 호장하고 성격이 매서운 분이다. 그 어머니는 나이 70세에 가까우나 머리에 가득히 꽃을 꽂고, 눈매가 아직도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젊었을 때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자손이 앞에 가득한 원만한 가정이라 한다. 점심 뒤에, 내원 및 정 진사와 함께 구경을 나섰다. 봉황산은 이곳에서 6~7리쯤밖에 되지 않는다. 그 전면을 보니 더욱 기이하고 뾰족해 보인다. 산속에는 안시성(安市城)⁵¹의 옛 터가 있어서 성첩(城堞)이 지금껏 남아 있다 하나 그릇된 말이다. 삼면이 모두 깎아지른 듯하여, 나는 새라도 오를 수 없을 성싶고 오직 정남의 한 쪽만이 좀 편평하나 주위가 수백 보에 지나지 않음을 보아서, 이런 탄탈만한 작은 성에 그 때의 큰 군사가 오랫동안 머물 곳이 아닐 테니, 이는 아마 고구려 때의 조그마한 보루(堡壘)가 있었던가 싶다.

셋이 함께 큰 버드나무 밑에서 땀을 들이고 있었다. 옆에 벽돌로 쌓은 우물이 있다. 위는 넓고 돌을 다듬어서 떻고, 양쪽에는 구멍을 뚫어서 겨우 두레박만 드나들게 되었다. 이는 사람이 빠지는 것과 먼지가 들어감을 막기 위함이었고, 또 물의 본성이 음(陰)하기 때문에 태양을 가려서 활수(活水)를 기르는 것이다. 우물 뚜껑 위엔 녹로(輶轤 활차(滑車))를 만들어 양쪽으로 줄 두 개를 드리워져 있고, 벼들가지를 걸어서 둥근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모양이 바가지 같으나 비교적 깊어서 한 편이 오르면 한 편이 내려가서 종일토록 물을 길어도 사람 힘을 허비하지 않게 된다. 물통은 모두 쇠로 테를 두르고 조그마한 못을 촘촘히 박은 것이다. 대나무로 만든 것은 오래 지나면 썩어서 끊어지기도 하려니와 통이 마르면 대나무 테가 저절로 헐거워서 벗겨지므로 이렇게 쇠 테로 메우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물을

51 안시성(安市城) : 당 태종(唐太宗)이 고구려를 치다가 패하여 돌아간 곳.

길어가지고는 모두 어깨에 메고 다닌다. 이것을 편담(扁擔)이라 한다. 그 법은 팔뚝만큼 굵은 나무를 길이가 한 길쯤 되게 다듬어서 그 양쪽 끝에 물통을 걸되 물통이 땅 위에서 한 자 넉넉히 떨어지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물이 출렁거려도 넘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는 오직 평양에서만 이 법이 있기는 하나, 그것도 어깨에 메지 않고 등에 지고 다니기 때문에 고샅길 좁은 골목에서는 여간 거추장스럽지 않다. 이렇게 어깨에 메는 법이 훨씬 편리할 것이다. 옛날에 포선(鮑宣)⁵²의 아내가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었다 하는 대목을 읽다가 왜 머리에 이지 않고 손에 들었을까 하고 나는 일찍 의심하였더니, 이제 보니 이 나라 부인들은 쪽진 머리가 모두 높아서 물건을 일 수 없음을 알겠다.

서남쪽은 탁 트여서 대체 평원한 산과 질편한 물이었다. 우거진 버들에 그늘은 짙고, 띠지붕과 성긴 울타리가 숲 사이로 은은히 보이며, 가없이 푸른 방축 위에 소와 양이 여기저기서 풀을 뜯고 있다. 면 강다리에 행인들이 혹은 짐 지고 혹은 이끌고 가는 것을 나는 바라보고 있노라니, 자못 요사이 행역(行役) 중의 고단함을 잊어버릴 듯싶다.

동행 두 사람은 저 새로 지은 불당(佛堂)을 구경하기 위하여 나를 버리고 가버렸다. 때마침 말 탄 사람 10여 명이 채찍을 휘두르며 달리는데 모두 수놓은 안장에 재빠른 말이어서 자못 의기가 양양하다. 그들은 내가 홀로 서있음을 보고 고삐를 돌려 말에서 내려 서로 다투어 내 손을 잡고 정답게 인사를 한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름다운 청년이었다. 내가 땅에 글자를 써서 필담(筆談)을 시작했으나, 그들은 모두 머리를 숙이고 가만히 들여다보고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다.

비석 둘이 있는데 모두 푸른 돌이다. 하나는 문상어사(門上御史)의 선정비(善政碑)요, 또 하나는 세관(稅官)아무의 선정비다. 둘은 다 만주 사람이요 넉 자 이름이다. 비문을 지은 이도 역시 만주인이어서 글이나 글씨가 모두 옹졸하다. 다만 비의 제도가 매우 아름다우면서도 공력과 경비가 절약된 것이 본받음직하다. 비석의 양쪽은 갈지 않고, 벽돌로 담을 쌓아 올리되 비 머리가 묻히게 하고, 위에 기와를 얹어서 지붕을 만들었다. 비석은 그 속에서 비바람을 피하게 되었으니, 일부러 비각을

52 포선(鮑宣) : 한(漢)의 강직한 관리. 왕망(王莽)에게 따르지 않았다가 피살되었다.

세워서 비바람을 가리는 것보다 월등 낫겠다.

비부(碑趺)에 놓인 비희(赑屭 용의 새끼)나 비문의 양쪽 변두리에 새긴 패하(霸夏 동물 이름)가 다 그 털끝을 셀 수 있으리만큼 정교하다. 이는 한갓 궁벽한 시골 백성들이 세운 것에 지나지 않지만, 그 정미로움과 아담스러운 품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저녁때가 될수록 더위가 한결 더 기승을 부린다. 급히 사관으로 돌아와서 북쪽 들창을 높이 떠 괴고 옷을 벗고 누웠다. 뒤틀이 꽤 넓은데, 파 이랑과 마늘 두둑이 금을 그은 듯 곧고 방정하다. 오이 덕 · 박 덩굴을 올린 시렁이 착잡(錯雜)하게 뜰을 덮고, 올타리 가에 붉고 흰 촉규화(蜀葵花)와 옥잠화(玉簪花)가 방금 한창으로 피었고, 처마 끝엔 석류(石榴) 몇 분(盆), 수구(繡毬 팔선화(八仙花)) 한 분, 추해당(秋海棠) 두 분이 심어져 있다. 주인 악군(鄂君)의 아내가 손에 대바구니를 들고 나와서 차례로 꽃을 짬다. 아마 저녁 화장(化粧)에 쓰기 위해서이리라.

창대가 술 한 그릇과 초란(炒卵) 한 쟁반을 가지고 와 드리면서,

“어딜 가셨습니까. 저는 기다리느라고 죽을 뻔했습니다.”

한다. 그 어리광을 짐짓 떨어 제 충성을 나타내려 하는 양은 밉살스럽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나, 술은 내 본시 즐기는 바요, 하물며 달걀 지진 것 역시 먹고 싶던 것임에랴.

이날 30리를 행하였다. 압록강에서 여기가 1백 20리다. 여기를 우리나라 사람은 ‘책문’이라 하고, 이곳 사람은 ‘가자문(架子門)’이라 하며, 중국 사람들은 ‘변문(邊門)’이라고 한다.

28일 을해(乙亥)

아침에 안개 끼었다가 늦게 개었다.

아침 일찍이 변군과 함께 먼저 길을 떠났다. 대종이 멀리 한 군데 큰 장원을 가리키면서,

“저것은 통관(通官) 서종맹(徐宗孟)의 집입니다. 황성(皇城)에는 저보다 더 큰 건물이 있었답니다. 종맹은 본래 탐관으로서 불법적인 행위가 많고 조선 사람의 고혈을 뺏아서 큰 부자가 되더니, 늘그막에 예부(禮部)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황성에 있던 집은 몰수당하고, 이것만 그대로 남아 있답니다.”

하고, 또 한 군데를 가리키면서,

“저것은 쌍림(雙林)의 집이옵고, 그 맞은편 대문은 문통관(文通官)의 집이라 하옵니다.”

한다. 대종은 말솜씨가 극히 예리하고 능숙하여, 마치 오래 익혀 둔 글을 외듯 하였다. 그는 선천(宣川)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벌써 예닐곱 번이나 연경을 드나들었다 한다.

봉황성에 이르기까지 30리쯤 된다. 옷이 품 젓고 길 가는 사람들의 수염에는 이슬진 것이 마치 벗모[秧針]에 구슬을 끼어 놓은 것 같다.

서쪽 하늘가에 짙은 안개가 문득 트이며 한 조각 파란 하늘이 살포시 나타난다. 영롱하게 구멍으로 비치는 것이 마치 작은 창에 끼어 놓은 유리알 같다. 잠시 올 안에 안개는 모두 아롱진 구름으로 화하여 그 무한한 광경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돌이켜 동쪽을 바라보니, 이글이글 타는 듯한 한 덩이 붉은 해가 벌써 세 발을 올라왔다.

강영태(康永太)의 집에서 점심을 먹었다. 영태의 나이는 스물셋인데, 제 말로 민가(民家)[한인(漢人)은 ‘민가’라 하고 만주족은 ‘기하(旗下)’라 한다.]라 한다. 희고 아름다운 얼굴에 서양금(西洋琴)을 잘 친다.

“글을 읽었느냐?”

고 물으니, 그는,

“벌써 사서(四書)를 외기는 하였지만 아직 강의(講義)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한다. 그들에게는 이른바, ‘글 외기’와 ‘강의하는 것’과는 두 길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처럼 처음부터 음과 뜻을 배우는 것과는 다르다. 그들의 처음 배우는 이는 그저 사서의 장구(章句)만 배워서 입으로 월 따름이요, 외는 것이 능숙해진 연후에 다시 스승께 그 뜻을 배우는 것을 ‘강의’라 한다. 설령 죽을 때까지 강의하지 못하

였더라도 입으로 익힌 장구가 곧 날로 상용하는 관화(官話)가 되므로, 세계 여러 나라 말 중에서도 중국말이 가장 쉽다는 것이 또한 일리 있는 말이다.

영태가 살고 있는 집은 정쇄하고 화려하여 여러 가지 기구가 모두 처음 눈에 뜨이는 것이다. 구들 위에 깔아 놓은 것은 모두 용봉을 그린 담이고, 걸상이나 탁자에도 역시 비단 요를 펴 놓았다. 뜰에는 시렁을 메고 가는 삿자리로 햇볕을 가렸으며, 그 사면에는 누른 밭을 드리웠다. 앞에 석류대 여섯 분이 벌여 놓였는데, 그 중에서 흰 석류꽃이 활짝 피었다. 또 이상한 나무 한 분이 있는데 잎은 동백(冬柏) 같고 열매는 행자 비슷하다. 그 이름을 물은즉, ‘무화과(無花果)’라 한다. 열매가 모두 두 개씩 나란히 꼭지가 잇되어 달리었고, 꽃이 없이 열매가 맺는 때문에 이렇게 이름지은 것이라 한다.

서장관(書狀官)[조정진(趙鼎鎮)]이 찾아와서 서로 나이를 대어 보니, 그가 나보다 다섯 해나 많았다. 이어서 부사[정원시(鄭元始)]도 찾아와서 면 길에 괴로움을 같이한 정분을 말한다. 김자인(金子仁)[문순(文淳)]은,

“형이 이 길을 떠나신 줄 알고도 우리나라 지경에서는 몹시 분요해서 미처 찾지 못했소.”

하고 사과한다. 나는,

“타국에 와서 이렇게 서로 알게 되니 가히 이역(異域)의 친구로군요.”

하니, 부사와 서장관이 모두 크게 웃으면서,

“알지 못하겠군요. 어떤 곳이 이역이 될는지요.”

한다.

부사는 나보다 두 살 위다. 우리 조부님과 부사의 조부님과는 일찍이 동창(同牕)에서 공령문(功令文 과체(科體)의 시문)을 공부하였으므로, 지금도 동연록(同研錄 동창생끼리 기록한 문헌)이 보존되어 온다. 우리 조부께서 경조당상(京兆堂上)⁵³으로 계실 때에, 부사의 조부님께서 경조랑(京兆郎)으로 찾아오셔서, 통자(通刺)하고 서로 지난날 함께 공부한 일을 이야기하시던 걸 내가 그 때 여덟 살인지 아홉 살인지 되어서 옆에서 들었으므로, 세의(世誼)가 있음을 안다.

53 경조당상(京兆堂上) : 경조는 한성부의 별칭. 한성부의 당상관을 말함.

서장관이 흰 석류를 가리키면서,

“전에 이런 것을 본 일이 있소.”

하고 묻는다. 나는,

“아직껏 본 적이 없소.”

하고 답하니, 서장관은,

“내가 어렸을 때에 집에 이런 석류가 있었으나 국내 다른 곳에는 없었는데, 대체 이 석류는 꽃만 피고 열매는 맺지 않는다더군요.”

한다.

그들은 대략 이런 한담을 마치고는 일어섰다. 강을 건너던 날에 갈대 우거진 속에서 서로 낯은 알았으나 이야기를 주고받을 겨를이 없었고, 또 이를 동안 책문 밖에서 천막을 나란히 하고 한둔하였으나, 서로 만날 기회가 없었으므로 이제 이렇게 이역이니 하고 웃음소리를 붙인 것이다.

점심은 아직도 멀었다 하기에 그냥 기다릴 수 없어서 배고픈 것을 참고 구경을 나섰다. 애초에 오른편 작은 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집이 얼마나 웅장하고 사치한가를 몰랐더니, 이제 앞문으로 나가 보니 바깥뜰이 수백 칸이나 되고, 삼사(三使)와 그 일행들이 다 함께 이 집에 들었건만, 어디에 들었는지 알 수 없을 지경이다. 비단 우리 일행이 거쳐하고도 남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가는 장수나 나그네들이 끊임 사이 없고, 또 수레가 20여 대나 문이 그득하게 들어온다. 그 수레마다 말과 노새가 대여섯 마리씩이었으나 떠드는 소리라고는 조금도 없고, 깊이 간직하여 텅 빈 것처럼 조용하다.

대개 그 배치해 놓은 것이 제대로 규모가 있어서 서로 거리끼는 일이 없다. 밖으로 보아서 이러하니 속속들이 세세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천천히 문 밖으로 나섰다. 그 변화하고 부유함이 비록 연경에 이른들 이보다 더 할 수 있을까 생각된다. 중국이 이처럼 번영할 줄은 참으로 뜻밖이다. 길 좌우에 즐비하게 늘어선 점방들은 모두 아로새긴 들판 비단을 드리운 문, 그럼 그린 기둥, 붉게 칠한 난간, 푸른 성적한 주련(柱聯), 황금 빛깔 현판들이 현란하게 눈부실 지경이다.

그 안에 펼쳐 놓은 것은 모두 그 국내의 진기한 물건들이다. 변문(邊門)의 보잘것 없는 이 땅에 이처럼 정치하고 아담한 감식(鑑識)이 있을 줄은 몰랐다.

또 한 집에 들어가니 그 광려(宏麗)함이 아까 강씨(康氏)의 집보다도 더 지나치나, 그 제도는 거의 한가지다. 대개 집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수백 보의 자리를 마련하여 길이나 넓이를 알맞게 하고 사면을 반듯하게 깎아서 측량기로 높고 낮음을 재고, 나침반(羅針盤)으로 방위를 잡은 다음에 대(臺)를 쌓되, 바닥에는 돌을 깔고 그 위에 한 층 또는 두세 층 벽돌을 놓으며, 다시 돌을 다듬어서 대를 장식한다. 그 위에 집을 세우되, 모두 한일자로 하여 꾸부러지게 하거나 잇달아 붙여 짓지 않는다. 첫째가 내실(內室)이고, 그 다음이 중당(中堂),셋째는 전당(前堂),넷째는 외실(外室)이다. 외실 밖은 한길이라 점방으로나 또는 시전(市塵)으로도 쓴다. 당(堂)마다 좌우의 결채가 있으니, 이것이 곧 행랑과 재방(齋房)이다. 대개 집 한 채의 길이는 6영(六楹) · 8영 · 10영 · 12영으로 되어 있고, 기둥과 기둥 사이는 매우 넓어서 거의 우리나라의 보통 집 두 칸짜리만하다. 그리고 재목에 따라 길고 짧음을 마련하지 않고 또한 마음대로 넓히고 좁히는 것도 아니요, 꼭 자로 재어서 간실을 정한다. 집은 다 들보를 다섯 혹은 일곱으로 하여 땅바닥에서 용마루까지 그 높이를 따지면, 처마는 한가운데쯤 있게 되므로 물매가 매우 싸서 병을 거꾸로 세운 것처럼 가파르다. 집 좌우와 후면은 부연(婦椽)이 없이 벽돌로 담을 쌓아 올려서 집 높이와 가지런히 하니, 서까래가 아주 보이지 않을 정도다. 동서의 양쪽 담벽에는 각기 등근 창구멍을 뚫고, 남쪽에는 모두 문을 내고, 그 중 한가운데 한 칸을 드나드는 문으로 쓰되, 반드시 앞뒤가 꼭 맞서게 하였으므로 집이 서너 겹이라면 문은 여섯이나 또는 여덟 겹이나 되어도, 활짝 열어젖히면 안채로부터 바깥채에 이르기까지 문이 똑바로 화살같이 골다. 그들이 이른바,

“저 겹문을 활짝 여니, 내 마음 통하게 하는구나.”

함은, 그 곧고 바름을 이에 견준 말이다.

길에서 동지(同知) 이혜적(李惠迪)[역관인데 정3품 당상관이다.]을 만났다. 이군이 웃으면서,

“궁벽한 시골구석에 뭐 볼 만한 게 있겠습니까.”

하기에, 나는,

“연경인들 이보다 더 나을 수 있겠어요.”

하였더니, 이군은,

“그렇습니다. 비록 크고 작으며 사치하고 겹박한 구별은 있겠지만, 그 규모는 거의 한가집니다.”

한다.

대개 집을 짓는 데 있어 온통 벽돌만을 사용한다. 벽돌의 길이는 한 자, 넓이는 다섯 치여서 돌을 가지런히 놓으면 이가 꼭 맞고 두께는 두 치이다. 한 개의 네모진 벽돌박이에서 찍어 낸 벽돌이건마는 귀가 떨어진 것도 못 쓰고, 모가 이지러진 것도 못 쓰며, 바탕이 뒤틀린 것도 못 쓴다. 만일 벽돌 한 개라도 이를 어기면 그 집 전체가 틀리고 만다. 그러므로 같은 기계로 찍어냈건마는 오히려 어긋난 놈이 있을까 염려하여, 반드시 곡척(曲尺)으로 재고 자귀로 깎고 돌로 갈아서, 힘써 가지런히 하여 그 개수가 아무리 많아도 한 금으로 그은 듯싶다. 그 쌓는 법은 한 개는 세로, 한 개는 가로로 놓아서 저절로 감(坎 ☵) · 이(离 ☲) 괘(卦)가 이루어된다. 그 틈서리에는 석회를 이기어 붙이되 초지장처럼 얹으니 이는 겨우 돌 사이가 붙을 정도여서 그 흔적이 실밥 같아 보인다. 회를 이기는 법은 굵은 모래도 섞지 않고 진흙과 기(忌)한다. 모래가 굵으면 어울리지 않고 흙이 진하면 터지기 쉬우므로, 반드시 검고도 부드러운 흙을 회와 섞어 이기어 그 빛깔이 거무스름하여 마치 새로 구워 놓은 기와와 같다. 대체 그 특성은 진흙도 쓰지 않고 모래도 쓰지 않으며, 또 그 빛깔이 순수함을 취할 뿐 아니라, 거기다가 어저귀(삼(麻)의 일종) 따위를 터럭처럼 가늘게 썰어서 섞는다. 이는 우리나라 초벽하는 흙에 말뚱을 섞는 것과 같으니 질겨서 터지지 않도록 함이요, 또 동백기름을 타서 젖처럼 번드럽고 미끄럽게 하여 떨어지고 터지는 탈을 막는다.

기와를 이는 법은 더구나 본받을 만한 것이 많다. 모양은 마치 동그란 통대를 네 쪽으로 쪼개 놓은 것과 같고 그 크기는 두 손바닥만 하다. 보통 민가에는 원앙와(鷄鳶瓦 짹기와)를 쓰지 않으며, 서까래 위에는 산자를 엮지 않고 삿자리를 몇 잎씩 펼 뿐이요, 진흙을 두지 않고 곧장 기와를 인다. 한 장은 엎치고 한 장은 젖히어

자옹으로 서로 맞추어 틈새는 한 층 한 층 비늘 진 데까지 온통 회로 발라 붙여 때운다. 이러니까 쥐나 새가 뚫거나 위가 무겁고 아래가 허한 폐단이 저절로 없게 된다.

우리나라의 기와 이는 법은 이와는 아주 달라 지붕에는 진흙을 잔뜩 올리고 보니 위가 무겁고, 바람벽은 벽돌로 쌓아 회로 때우지 않고 보니, 네 기둥은 의지할 데가 없으므로 아래가 허하게 된다. 기왓장은 너무 크고 지나치게 굽기 때문에, 저절로 빙 데가 많게 되니 진흙으로 메우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진흙이 내리 누르니 기둥이 휘어지는 병폐가 생기고, 젖은 것이 마르면 기와 밑이 저절로 떠서 비늘 진 곳이 물러나며 틈서리가 생기게 된다.

이리하여 바람이 들며, 비가 새고, 새가 뚫으며, 쥐가 숨으며, 뱀이 서리고, 고양이가 뒤적이는 걱정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다.

아무튼 집을 세울 때에는 벽돌의 공이 가장 크다. 비단 높은 담 쌓기만이 아니라 집 안팎을 헤아리지 않고 벽돌을 쓰지 않는 것이 없다. 저 넓고 넓은 뜰에도 눈가는 곳마다 반듯반듯 바둑판을 그린 것처럼 쌓았다.

집이 벽을 의지하여 위는 가볍고 아래는 튼튼하여 기둥은 벽 속에 들어 있어서 비바람을 겪지 않는다. 이러므로 불이 번질 염려도 없고 도둑이 뚫을 위험도 없으려니와, 더구나 새·쥐·뱀·고양이 같은 놈들의 걱정이야 있을 수 없다. 가운데는 문 하나만 닫으면 저절로 굳은 성벽이 이루어져 집 안의 모든 물건은 궤 속에 간직한 셈이 된다. 이로 보면, 많은 흙과 나무도 들지 않고 못질과 흙손질을 할 필요도 없이, 벽돌만 구워 놓으면 집은 별씨 이루어진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때마침 봉황성을 새로 쌓는데 어떤 사람이,

“이 성이 곧 안시성(安市城)이다.”

라고 한다. 고구려의 옛 방언에 큰 새를 ‘안시(安市)’라 하니, 지금도 우리 시골말에 봉황(鳳凰)을 ‘황새’라 하고 사(蛇)를 ‘배암(白巖)’이라 함을 보아서,

“수(隋)·당(唐) 때에 이 나라 말을 좋아 봉황성을 안시성으로, 사성(蛇城)을 백암성(白巖城)으로 고쳤다.”

는 전설이 자못 그럴싸하기도 하다. 또 옛날부터 전하는 말에,

“안시성주(安市城主) 양만춘(楊萬春)이 당 태종(唐太宗)의 눈을 쏘아 맞히매, 태종이 성 아래서 군사를 집합시켜 시위(示威)하고, 양만춘에게 비단 백 필을 하사하여, 그가 제 임금을 위하여 성을 굳게 지킴을 가상(嘉賞)하였다.”
한다. 그러므로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이 연경에 가는 그 아우 노가재(老稼齋) 창업(昌業)에게 보낸 시(詩)에,

천추에 크신 담략 우리의 양만춘님 | 千秋大膽楊萬春
용 수염 범 눈동자 한 살에 떨어졌네 | 箭射虯鬚落眸子

라 하였고,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정관음(貞觀吟)에는,

주머니 속 미물이라 하잘것이 없다더니 | 爲是囊中一物爾
검은 꽃이 흰 날개에 떨어질 줄 어이 알랴 | 那知玄花落白羽

라 하였으니, ‘검은 꽃’은 눈을 말함이요, ‘흰 날개’는 화살을 말함이다. 이 두 노인이 옮은 시는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서 나온 것이리라. 대개 당 태종이 천하의 군사를 징발하여 이 하찮은 탄알만 한 작은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창황히 군사를 돌이켰다 함은 그 사실에 의심되는 바 없지 않거늘, 김부식(金富軾)은 다만 옛 글에 그의 성명이 전하지 않음을 애석히 여겼을 뿐이다. 대개 부식이 《삼국사기(三國史記)》를 지을 때에 다만 중국의 사서에서 한번 골라 베껴 내어 모든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고, 또 유공권(柳公權) 당의 학자요 서예가)의 소설(小說)을 끌어 와서 당 태종이 포위되었던 사실을 입증까지 했다. 그러나 《당서(唐書)》⁵⁴와 사마광(司馬光)의 《자치통감(資治通鑑)》에도 기록이 보이지 않으니, 이는 아마 그들이 중국의 수치를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우리 본토에서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사실을 단 한 마디도 감히 쓰지 못했으니, 그 사실이 미더운 것이건 아니건 간에 모두 빼지고 말았던 것이다.

54 당서(唐書) : 유후(劉煦)의 《구당서(舊唐書)》, 구양수(歐陽修)의 《신당서(新唐書)》가 있다.

나는,

“당 태종이 안시성에서 눈을 읊었는지 않았는지는 상고할 길이 없으나, 대체로 이 성을 ‘안시’라 함은 잘못이라고 한다. 《당서》에 보면, 안시성은 평양서 거리가 5백 리요, 봉황성은 또한 왕검성(王儉城)이라 한다 하였으므로, 《지지(地志)》에는 봉황성을 평양이라 하기도 한다 하였으니, 이는 무엇을 이름인지 모르겠다. 또 《지지》에, 옛날 안시성은 개평현(蓋平縣 봉천부(奉天府)에 있다)의 동북 70리에 있다 하였으니, 대개 개평현에서 동으로 수암하(秀巖河)까지가 3백 리, 수암하에서 다시 동으로 2백 리를 가면 봉황성이다. 만일 이 성을 옛 평양이라 한다면, 《당서》에 이른바 5백 리란 말과 서로 부합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비들은 단지 지금 평양만 알므로 기자(箕子)가 평양에 도읍했다 하면 이를 믿고, 평양에 정전(井田)이 있다 하면 이를 믿으며, 평양에 기자묘(箕子墓)가 있다 하면 이를 믿어서, 만일 봉황성이 곧 평양이다 하면 크게 놀랄 것이다. 더구나 요동에도 또 하나의 평양이 있었다 하면, 이는 해괴한 말이라 하고 나무랄 것이다. 그들은 아직 요동이 본시 조선의 땅이며, 숙신(肅慎) · 예(穢) · 맥(貊) 등 동이(東彝)⁵⁵의 여러 나라가 모두 위만(衛滿)의 조선에 예속되었던 것을 알지 못하고, 또 오라(烏刺) · 영고탑(寧古塔) · 후춘(後春) 등지가 본시 고구려의 옛 땅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아아, 후세 선비들이 이러한 경계를 밝히지 않고 함부로 한 사군(漢四郡)을 죄다 압록강 이쪽에다 몰아넣어서, 억지로 사실을 이끌어다 구구히 분배(分排)하고 다시 패수(𬇙水)를 그 속에서 찾되, 혹은 압록강을 ‘패수’라 하고, 혹은 청천강(淸川江)을 ‘패수’라 하며, 혹은 대동강(大同江)을 ‘패수’라 한다. 이리하여 조선의 강토는 싸우지도 않고 저절로 줄어들었다. 이는 무슨 까닭일까. 평양을 한 곳에 정해 놓고 패수 위치의 앞으로 나감과 뒤로 물리는 것은 그때그때의 사정에 따르는 까닭이다. 나는 일찍이 한사군의 땅은 요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여진(女眞)에까지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무엇으

55 동이(東彝) : 어떤 본에는 동이(東夷)로 되었으나 그릇되었다. 연암은 이(夷)는 야만족이라 하여 이(彝)를 썼다.

로 그런 줄 아느냐 하면 《한서(漢書)》⁵⁶ 지리지(地理志)에 현도(玄菟)나 낙랑(樂浪)은 있으나, 진번(眞蕃)과 임둔(臨屯)은 보이지 않는다.

대체 한 소제(漢昭帝)의 시원(始元) 5년(B.C. 82)에 사군을 합하여 2부(府)로 하고, 원봉(元鳳) 원년(B.C. 76)에 다시 2부를 2군(郡)으로 고쳤다. 현도 세 고을 중에 고구려현(高句麗縣)이 있고, 낙랑 스물다섯 고을 중에 조선현(朝鮮縣)이 있으며, 요동 열여덟 고을 중에 안시현(安市縣)이 있다. 다만 진번은 장안(長安)에서 7 천 리, 임둔은 장안에서 6천 1백 리에 있다. 이는 김윤(金峯 조선 세조(世祖) 때의 학자)의 이른바,

“우리나라 지경 안에서 이 고을들은 찾을 수 없으니, 틀림없이 지금 영고탑(寧古塔) 등지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함이 옳을 것이다. 이로 본다면 진번 · 임둔은 한말(漢末)에 바로 부여(扶餘) · 읍루(挹婁) · 옥저(沃沮)에 들어간 것이니, 부여는 다섯이고 옥저는 넷이던 것이 혹 변하여 물길(勿吉)이 되고, 혹 변하여 말갈(靺鞨)이 되며, 혹 변하여 발해(渤海)가 되고, 혹 변하여 여진(女眞)으로 된 것이다. 발해의 무왕(武王) 대무예(大武藝)가 일본(日本)의 성무왕(聖武王)에게 보낸 글월 중에,

“고구려의 옛터를 회복하고, 부여의 옛 풍속을 물려받았다.”

하였으니, 이로써 미루어 보면, 한사군의 절반은 요동에, 절반은 여진에 걸쳐 있어서, 서로 포괄되어 있었으니, 이것이 본디 우리 강토 안에 있었음은 더욱 명확하다.

그런데 한대(漢代) 이후로, 중국에서 말하는 패수가 어딘지 일정하지 못하고, 또 우리나라 선비들은 반드시 지금의 평양으로 표준을 삼아서 이러쿵저러쿵 패수의 자리를 찾는다. 이는 다름 아니라 옛날 중국 사람들은 무릇 요동 이쪽의 강을 죄다 ‘패수’라 하였으므로, 그 이수가 서로 맞지 않아 사실이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옛 조선과 고구려의 지경을 알려면, 먼저 여진을 우리 국경 안으로 치고, 다음에는 패수를 요동에 가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패수가 일정해져야만 강역이 밝혀지고, 강역이 밝혀져야만 고금의 사실이 부합될 것이다. 그렇다면 봉황성을 틀

56 한서(漢書) : 동한(東漢, 後漢) 반고(班固)가 지은 전한(前漢)의 역사서.

림없는 평양이라 할 수 있을까. 이곳이 만일 기씨(箕氏) · 위씨(衛氏) · 고씨(高氏) 등이 도읍한 곳이라면, 이 역시 하나의 평양이라리라 하고 답할 수 있을 것이다. 《당서》 배구전(裴矩傳)에,

“고려는 본시 고죽국(孤竹國)인데, 주(周)가 여기에 기자를 봉하였더니, 한(漢)에 이르러서 사군으로 나누었다.”

하였으니, 그 이른바 고죽국이란 지금 영평부(永平府)에 있으며, 또 광녕현(廣寧縣)에는 전에 기자묘(箕子墓)가 있어서 우관(辱冠 은(殷)의 갓 이름)을 쓴 소상(塑像)을 앉혔더니, 명(明)의 가정(嘉靖 명 세종(明世宗)의 연호) 때 병화(兵火)에 불탔다 하며, 광녕현을 어떤 이들은 ‘평양’이라 부르며, 《금사(金史)⁵⁷}와 《문현통고(文獻通考)⁵⁸}에는,

“광녕 · 함평(咸平)은 모두 기자의 봉지(封地)이다.”

하였으니, 이로 미루어 본다면, 영평(永平) · 광녕의 사이가 하나의 평양일 것이요, 《요사(遼史 원(元)의 탁극탁이 씀)》에,

“발해(渤海)의 현덕부(顯德府)는 본시 조선 땅으로 기자를 봉한 평양성(平壤城)이던 것을, 요(遼)가 발해를 쳐부수고 ‘동경(東京)’이라 고쳤으니 이는 곧 지금의 요양현(遼陽縣)이다.”

하였으니, 이로 미루어 본다면, 요양현도 또한 하나의 평양일 것이다. 나는,

“기씨(箕氏)가 애초에 영평 · 광녕의 사이에 있다가 나중에 연(燕)의 장군 진개(秦開)에게 쫓기어 땅 2천 리를 잃고 차츰 동쪽으로 옮아가니, 이는 마치 중국의 진(晉) · 송(宋)이 남으로 옮겨감과 같았다. 그리하여 머무는 곳마다 평양이라 하였으니, 지금 우리 대동강 기슭에 있는 평양도 그 중의 하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저 패수도 역시 이와 같다. 고구려의 지경이 때로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였을 터인즉, ‘패수’란 이름도 따라 옮김이 마치 중국의 남북조(南北朝) 때에 주(州) · 군(郡)의 이름이 서로 바뀜과 같다. 그런데 지금 평양을 평양이라 하는 이는

57 金사(金史) : 원(元)의 탁극탁(托克托) 등이 순제(順帝)의 명을 받들어 지었다.

58 문현통고(文獻通考) : 원의 마단립(馬端臨)이 지었다.

대동강을 가리켜, “이 물은 ‘패수’다” 하며, 평양과 함경(咸鏡)의 사이에 있는 산을 가리켜, “이 산은 ‘개마대산(蓋馬大山)’이다” 하며, 요양으로 평양을 삼는 이는 헌우낙수(軒芋灑水)를 가리켜, “이 물은 ‘패수’다” 하고, 개평현에 있는 산을 가리켜, “이 산은 ‘개마대산’이다” 한다. 그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지금 대동강을 ‘패수’라 하는 이는 자기네 강토를 스스로 줄여서 말함이다.

당(唐)의 의봉(儀鳳 당 고종(唐高宗)의 연호) 2년(677)에 고구려의 항복한 임금 고장(高藏)[고구려 보장왕(寶藏王)]을 요동주(遼東州) 도독(都督)으로 삼고, 조선왕(朝鮮王)을 봉하여 요동으로 돌려보내며, 곧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를 신성(新城)에 옮겨서 이를 통할하였으니, 이로 미루어 보면 고씨(高氏)의 강토가 요동에 있던 것을 당시 비록 정복하기는 했으나 이를 지니지 못하고 고씨에게 도로 돌려주었은 즉, 평양은 본시 요동에 있었거나 혹은 이곳에다 잠시 빌려 씀으로 말미암아 패수와 함께 수시로 들쭉날쭉하였다 뿐이었다. 그리고 한의 낙랑군 관아(官衙)가 평양에 있었다 하나 이는 지금의 평양이 아니요, 곧 요동의 평양을 말함이다. 그 뒤 승국(勝國 고려(高麗)) 때에 이르러서는, 요동과 발해의 일경(一境)이 모두 거란(契丹)에 들어갔으나, 겨우 자비령(慈悲嶺)과 철령(鐵嶺)의 경계를 삼가 지켜 선춘령(先春嶺)과 압록강마저 버리고도 돌보지 않으니, 하물며 그 밖에야 한 발자국인들 돌아보았겠는가. 고려는 비록 안으로 삼국(三國)을 합병하였으나, 그의 강토와 무력이 고씨의 강성함에 결코 미치지 못하였는데, 후세의 옹졸한 선비들이 부질없이 평양의 옛 이름을 그리워하여 다만 중국의 사전(史傳)만을 믿고 흥미진진하게 수·당의 구적(舊蹟)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패수요, 이것은 평양이오.”

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벌써 말할 수 없이 사실과 어긋났으니, 이 성이 안시성인지 또는 봉황성인지를 어떻게 분간할 수 있겠는가.

성의 둘레는 3리에 지나지 않으나 벽돌로 수십 겹을 쌓았다. 그 제도가 웅장하고 화려하며, 네 모서리가 반듯하여 네모 말[斗]을 놓아둔 것처럼 보인다. 지금 겨우 반쯤밖에 쌓지 않아서 그 높낮이는 비록 예측할 수 있으나, 성문 위 다락 세울 곳에 구름다리를 놓아 허공에 높이 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 공사는 비록 거창스

러운 듯하나 여러 가지 기계가 편리하여 벽돌을 나르고 흙을 실어 오고 하는 것이 모두 기계가 움직이고 수레바퀴가 굴러 혹은 위로부터 끌어올리기도 하며 혹은 저 절로 가기도 하여 그 법이 일정하지 않으나, 모두 일은 간단하되 공로는 배나 되는 기술이다. 그 어느 하나 본받지 않을 것이 없으나, 다만 길이 바빠서 골고루 구경 할 겨를이 없었을 뿐더러, 설사 진종일 두고 자세히 본다 하더라도 갑자기 배울 수 없으니, 참으로 한스러운 일이다.

식후에 변계함과 정 진사와 함께 먼저 떠났다. 강영태(康永泰)가 문 밖에까지 나와서 읍(揖)하며 전송하는데 자못 석별(惜別)의 뜻이 보이며, 또 돌아올 때는 겨울이 될 터인즉 책력 한 별을 사다 달라고 부탁한다. 나는 청심환(淸心丸) 한 개를 내어 주었다.

한 점포 앞을 지나다 보니, 한쪽에 금으로 ‘당(當)’ 자를 쓴 패(牌)가 걸려 있는데, 그 결줄에는 ‘유군기부당(惟軍器不當 군기만은 전당잡지 않는다는 뜻)’이란 다섯 글자가 씌었으니, 이것은 전당포(典當舗)다. 예쁘장하게 생긴 청년 두셋이 그 안에서 뛰어 나와서 길을 막아 서며, 잠깐만 땀을 들이고 가라 한다. 이에 모두들 말에서 내려 따라 들어가 본즉, 그 모든 시설이 아까 강씨의 집보다도 더 훌륭하다. 끌 가운데 큰 분(盆)이 두 개 놓여 있고, 그 속에는 서너 대의 연(蓮)이 심어져 있으며, 오색 붕어를 기르고 있다. 한 청년이 손바닥만 한 작은 비단그물을 가져와서 작은 항아리 쪽으로 가더니, 빨간 별레 몇 마리를 떠다가 분 속에 띄운다. 그 별레는 게알[蟹卵]같이 작으며, 모두 꼬물꼬물 움직인다. 청년이 다시 부채로 분의 가장자리[盆部]를 두들기면서 고기를 부르니, 고기가 모두 물 위로 나와서 물을 머금고 거품을 뿜는다.

마침 때가 한낮이라 불볕이 내리쬐어서 숨이 막혀 더 오래 머물 수 없으므로, 드디어 길을 떠났다. 정 진사와 함께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다가. 나는 정 진사에게 물었다.

“그 성 쌍은 방식이 어떠한가.”

“벽돌이 돌만 못한 것 같애.”

하고 답한다. 나는 또,

“자네가 모르는 말일세. 우리나라의 성곽제도[城制]는 벽돌을 쓰지 않고 돌을 쓰는 것은 잘못일세. 대저 벽돌로 말하면, 한 개의 네모진 틀에서 박아 내면 만 개의 벽돌이 똑 같을지니, 다시 깎고 다듬는 공력을 허비하지 않을 것이요, 아궁이 하나만 구워 놓으면 만 개의 벽돌을 제 자리에서 얻을 수 있으니, 일부러 사람을 모아서 나르고 어찌고 할 수고도 없을 게 아닌가. 다들 고르고 반듯하여 힘을 덜고도 공이 배나 되며, 나르기 가볍고 쌓기 쉬운 것이 벽돌만한 게 없네.”

이제 돌로 말하자면, 산에서 쪼개어 낸 때에 몇 명의 석수(石手)가 들어야 하며, 수레로 운반할 때에 몇 명의 인부를 써야 하고, 이미 날라다 놓은 뒤에 또 몇 명의 손이 가야 깎고 다듬을 수 있으며, 다듬어내는 데까지 또 며칠을 허비해야 할 것이요, 쌓을 때도 돌 하나하나를 놓기에 몇 명의 인부가 들어야 하며, 이리하여 언덕을 깎아내고 돌을 입히니, 이야기로 흙의 살에 돌옷을 입혀 놓은 것이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레하나 속은 실로 고르지 못한 법일세. 돌은 워낙 들쭉날쭉하여 고르지 못한 것이기에, 조약돌로 그 궁둥이와 발등을 괴며, 언덕과 성과의 사이는 자갈에 진흙을 섞어서 채우므로, 장마를 한 번 치르고 나면 속이 텅 비고 배가 불러져서, 돌 한 개가 튀어나 빠질 경우 그 나머지는 모두 저절로 무너질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요, 또 석회의 성질이 벽돌에는 잘 붙지만 돌에는 붙지 않는 것일세.

내가 일찍이 차수(次修)⁵⁹와 더불어 성제를 논할 때에 어떤 이가 말하기를, ‘벽돌이 굳다 한들 어찌 돌을 당할까보나’ 하자, 차수가 소리를 벼려 지르며, ‘벽돌이 돌보다 낫다는 게 어찌 벽돌 하나와 돌 하나를 두고 한 말이오’ 하더군 그래. 이는 가위 움직일 수 없는 철칙일세. 대개 석회는 돌에 잘 붙지 않으므로 석회를 많이 쓰면 쓸수록 더 터져 벼리며, 돌을 배치하고 들떠 일어나는 까닭에 돌은 항상 외톨로 돌아서 겨우 흙과 겨루고 있을 따름이네. 벽돌은 석회로 이어 놓으면, 마치 어교(魚膠)가 나무에 합하는 것과 봉사(鵬砂)가 쇠에 닿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많은 벽돌이라도 한 뭉치로 엉켜져 굳은 성을 이루하므로, 벽돌 한 장의 단단함이야 돌에다 비할 수 없겠지마는, 돌 한 개의 단단함이 또한 벽돌 만 개의 단단함을 당하지 못할 것이니, 이로써 본다면 벽돌과 돌 중 어느 것이 이롭고 해로우며 편리하고 불편

59 차수(次修) : 박제가(朴齊家)의 자. 또는 재선(在先) · 수기(修其)라고도 하였다. 연암의 제자.

한가를 쉽사리 알 수 있겠지.”

하였다. 정 진사는 방금 말등에서 꼬부라져 거의 떨어질 것 같다. 그는 잠든 지 오래된 모양이다. 내가 부채로 그의 옆구리를 꾹 짜르며,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웬 잠을 자고 듣지 않아.”

하고 큰 소리로 꾸짖으니, 정 진사가 웃으며,

“내 벌써 다 들었네. 벽돌은 돌만 못하고, 돌은 잠만 못하느니.”

한다. 나는 화가 나서 때리는 시늉을 하고, 함께 한바탕 크게 웃었다.

시냇가에 이르러 베드나무 그늘에서 땀을 들이다. 오도하(五渡河)까지 5리만큼 씩 돈대가 하나씩 있다. 이른바 두대자(頭臺子) · 이대자(二臺子) · 삼대자(三臺子)라는 것은 모두 봉대(烽臺 봉화를 놓는 곳)의 이름이다. 벽돌을 성처럼 쌓아 높이가 대여섯 길이나 되며, 마치 필통(筆筒)같이 동그랗다. 대 위에는 성첩(城堞)이 시설되었는데, 형편없이 헐어진 대로 내버려 두었음은 무슨 까닭일까. 길가에 간혹 널을 돌무더기로 눌러 둔 것이 보인다. 오랫동안 그냥 내버려 두어서 나무 모서리가 썩어 버린 것도 있다. 대개 뼈가 마르기를 기다려서 불사른다 한다.

흔히 길 옆에 무덤이 있는데, 위가 뾰족하고 뼈를 입히지 아니하였으며, 백양(白楊)을 많이 줄지어 심었다.

도보(徒步)로 길 다니는 사람들이 극히 적다. 걷는 이는 반드시 어깨에 포개(鋪蓋) [침구를 포개라 한다.]를 짊어졌다. 포개가 없으면 여점에서 재우지 않으니, 이는 도둑이 아닌가 의심하기 때문이다. 안경을 쓰고 길가는 자는 눈의 정력을 기르고자 함이다. 말을 탄 이는 모두 검은 비단신을 신고, 걷는 이는 대체로 푸른 베신을 신었는데, 신바닥에는 모두 베를 수십 겹이나 받아 댄 것이다. 미투리나 짚신은 보지를 못했다.

송참(松站)에서 묵다. 이곳은 설리참(雪裏站)이라고도 하고, 또 설유참(雪劉站)이라고도 부른다. 이 날 70리를 갔다. 누가 말했다.

“이곳은 옛날 진동보(鎮東堡)이다.”

29일 병자(丙子)

맑게 개다. 배로 삼가하(三家河)를 건넜다. 배가 마치 말구유같이 생겼는데 통나무를 파서 만들었고, 상앗대도 없이 양편 강언덕에 아귀진 나무를 세우고 큰 밧줄을 건너질렀다. 그 줄을 따라가면 배가 저절로 오가기 마련이다. 말은 모두 물에 둉뚱 떠서 건넌다.

다시 배로 유가하(劉家河)를 건너 황하장(黃河庄)에서 점심을 먹었다. 한낮이 되니 극도로 더웠다. 말 탄 채로 금가하(金家河)를 건너니, 여기가 이른바 팔도하(八渡河)이다. 임가대(林家臺) · 범가대(范家臺) · 대방신(大方身) · 소방신(小方身) 등지는 5리나 10리마다 마을이 즐비하고 뽕나무와 삼밭이 우거졌으며, 때마침 올기장이 누렇게 익었고 옥수수 이삭이 한창 패었는데, 그 잎을 모조리 베었으니, 이는 말과 노새의 먹이로 쓰기도 하고, 또는 옥수수대가 지기(地氣)를 오로지 받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르는 곳마다 관제묘(關帝廟)가 있고, 몇 집만 모여 사는 곳에는 반드시 벽돌 굽는 큰 가마가 있어서 벽돌을 굽는다. 벽돌을 틀에 박아 내어 말리는 것이며, 전에 구워 놓은 것, 새로 구울 것들이 곳곳에 산무더기처럼 쌓였으니, 대개 벽돌이 무엇보다도 일용에 요긴한 물건인 까닭이다.

전당포에서 잠깐 쉬려는데, 주인이 중간방으로 맞이하여 더운 차(茶) 한 잔을 권한다. 집안에는 진귀한 물건이 진열되었다. 시령의 높이는 들보에 닿고, 그 위엔 전당 잡은 물건을 차례로 얹어 놓았다. 모두들 웃이다. 보자기에 싼 채 종이쪽을 붙여서 물건 임자의 성명 · 별호(別號) · 상표(相標) 얼굴의 특징을 기록한 것) · 거주(居住) 등을 적고는 다시,

“모년 · 모월 · 모일에 무슨 물건을 무슨 자호(字號) 붙인 전당포에다 친히 전네주었다.”

라고 썼다. 그 이자는 10분의 2를 넘는 법이 없고, 기한을 지난 채 한 달이 넘으면 물건을 팔아 버릴 수 있다. 금자(金字)로 쓴 주련(柱聯)에,

홍법⁶⁰의 구주에는 먼저 부를 말하였고 | 洪範九疇先言富
대학의 십장에도 반은 재를 논하였는데 | 大學十章半論財

라는 것이 있다. 옥수솟대로 교묘하게 누각처럼 만들어, 그 속에 풀벌레 한 마리를 넣어 두고 그 우는 소리를 듣는다. 처마 끝에는 조롱을 달아매고 이상한 새 한 마리를 기른다.

이날 50리를 행하여 통원보(通遠堡)에서 묵다. 여기가 곧 진이보(鎮夷堡)이다.

7월 1일 정축(丁丑)

새벽에 큰비가 내려 떠나지 못하다.

정 진사 · 주 주부 · 변군 · 내원 · 조 주부(趙主簿) 학동(學東)[상방의 건량판사(乾
糧判事)]이다. 등과 더불어 투전판을 열어서 소일도 할 겸 술값을 벌자는 심산이다. 그들은 나더러 투전에 솜씨가 서툴다고 한몫 끼지 말고, 그저 가만히 앉아서 술만 마시라고 한다. 속담에 이른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는 셈이니, 슬며시 화가 나긴 하나 역시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 혼자 옆에 앉아서 지고 이기는 구경이나 하고 술은 남보다 먼저 먹게 되었으니, 미상불 해롭지 않은 일이다.

벽을 사이에 두고 가끔 여인의 말소리가 들려온다. 하도 가냘픈 목청과 아리따운 하소연이어서 마치 제비와 꾀꼬리가 우짖는 소리인 듯싶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는 아마 주인집 야가씨겠지. 반드시 절세의 가인이리라.”

하고, 일부러 담뱃불 냉기기를 평계하여 부엌에 들어가 보니,⁶¹ 나이 쉰도 넘어 보이는 부인이 문쪽에 평상을 의지하고 앉았는데, 그 생김생김이 매우 사납고 누추하다. 나를 보고,

“아저씨, 평안하세요.”

60 홍법(洪範) : 홍법은 기자(箕子)가 주 무왕(周武王)에게 전술한 국가의 기본 법도.

61 일부러……보니 : 이 부분은 다른 본에 빠졌고, '주택본'과 '일재본'에서만 보인다.

한다. 나는,

“주인께서도 많은 복을 받으십시오.”

하며 답하고는, 짐짓 재를 파헤치는 체하면서 그 부인을 곁눈질해 보았다.⁶² 머리 쪽지에는 온통 꽃을 꽂고, 금비녀 옥귀고리에 분연지를 살짝 바르고, 몸에는 검은 빛 긴 통바지에 촘촘히 은단추를 달았으며, 발엔 풀·꽃·별·나비를 수놓은 한 쌍의 신을 신었다. 대개 만주 여자인 듯싶다. 다리에는 봉대를 감지 않고 발에는 궁혜(弓鞋)를 신지 않았음을 보아서 짐작할 수 있다. 주렴 속에서 한 처녀가 나온다. 나이나 얼굴이나가 20여 세쯤 되어 보인다. 그가 처녀임은 머리를 양쪽으로 갈라서 위로 틀어 올린 것으로 보아서 분별할 수 있다. 생김새는 역시 억세고 사나우나, 다만 살결이 희고 깨끗하다. 쇠양푼을 갖고 와서 펴련 질그릇을 기울여 수수밥 한 사발을 수북하게 펴담고, 양푼의 물을 부어서 서쪽 벽 아래 놓여 있는 교의에 걸터앉아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다. 또 두어 자 길이나 되는 파뿌리를 잎사귀째장에 찍어서 밥과 같이 먹는다. 목에는 달걀만 한 혹이 달려 있다. 그는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얼굴엔 조금도 수줍어하는 기색이 없다. 이는 아마 해마다 조선 사람을 보아 와서 아주 예사로 낮익었기 때문이리라.

뜰은 넓이가 수백 칸이나 된다. 장맛비에 수령이 되어 있다. 시냇가 물에 씻긴 조약돌이, 마치 바둑돌이나 참새알 같은 것이 애초에는 쓸데없는 물건이었지만, 그 모양과 빛이 비슷한 것을 골라서 문간에 아롱진 봉새 모양으로 무늬지게 깔아서 수령을 막았다. 그들에게는 버리는 물건이 없음을 이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닭은 모두 꼬리와 깃을 뽑고 두 겨드랑 밑의 털까지도 뜯어 버리어, 이따금 고깃덩이만 남은 닭이 절름거리면서 다닌다. 이는 빨리 키우는 한 방법이요, 또 이가 이는 것을 예방함이다. 여름이 되면 닭에 검은 이가 일어서, 꼬리와 날개에 붙어 오르면 반드시 콧병이 생기며, 입으로는 누른 물을 토하고 목에는 가래 소리가 난다. 이것을 계역(雞疫)이라 한다. 그러므로 미리 그 꼬리와 깃을 뽑아서 시원한 기운

62 재를……보았다 : 이 구절은 ‘수백본’에 의거하였다. 다른 본들에는, “그 복식의 제도를 구경하였다”로 되었다.

을 통해 준다 한다.⁶³ 꿀은 하도 추악해서 차마 바로 볼 수 없다.

2일 무인(戊寅)

새벽에 큰비가 내리다. 늦게 개었다.

앞 시냇물이 불어서 건널 수 없으므로 떠나지 못했다. 정사가 내원과 주 주부를 시켜 앞 시내에 나가서 물을 보고 오라 한다. 나도 따라 나섰다. 몇 리를 가지 않아서 큰 물이 앞을 가로막아 끝이 보이지 않는다. 헤엄 잘 치는 사람을 시켜서 물속에 들어가 그 얕고 깊음을 재계 하니, 열 발자국도 못 가서 어깨가 잠긴다. 돌아와서 수세를 알리니, 정사가 걱정하여 역관과 각방(各房)의 비장들을 모조리 불러서 각 기 물 건널 계책을 밀하게 한다. 부사와 서장관 역시 참석하였다. 부사가,

“문짝과 수레의 바탕을 많이 세내어 떼를 매어서 건너는 게 어떠하리까.”

하니, 주 주부가,

“거, 참 좋은 계책이올시다.”

한다. 수역관이,

“문짝이나 수레를 그렇게 많이 얹을 수 없으리다. 그런데 이 근처에 집 지으려고 둔 재목이 십여 간분 있으니 그것을 세낼 수는 있으나, 단지 이를 얹어맬 훑덩굴을 얹기 어려울 듯합니다.”

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였다. 내가,

“뭐, 뗏목을 맬 것까지야 있소. 내게 한두 척이 있는데, 노도 있고 상았대도 갖추었으나 다만 한 가지가 없소.”

하니, 주 주부가,

“그럼, 없는 게 무엇이오.”

하고, 묻는다. 나는,

“다만 그를 잘 저어갈 사공이 없소.”

63 이는 빨리……준다 한다 : 이 부분은 모든 본에 빠진 것을, ‘일재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한즉, 모두들 허리를 잡고 웃는다.

주인은 위낙 추솔하고 명청하여 눈을 부릅뜨고도 ‘고무래 정(丁) 자’를 모를 무식쟁이였지만, 책상 위에는 오히려 《양승암집(楊昇菴集)》⁶⁴과 《사성원(四聲猿)》⁶⁵ 같은 책들이 놓여 있고, 길이 한 자 넘어 보이는 정남색(正藍色) 자기병에 조남성(趙南星)⁶⁶의 철여의(鐵如意)⁶⁷가 비스듬히 꽂혀 있으며, 운간(雲間)⁶⁸ 호문명(胡文明)이 만든 조그만 납다색(蠟茶色) 향로며 그 밖의 교의 · 탁자 · 병풍 · 장자(障子) 등이 모두 아치(雅致)가 있어서 궁벽한 시골티가 보이지 않는다. 내가,

“주인의 살림살이는 좀 넉넉한가보오.”

하고 물은즉, 그는,

“1년 줄곧 부지런히 일해 봐야 기한을 면하지 못한답니다. 만일 귀국 사신의 행차가 없다면, 아주 살림살이는 막연할 형편입니다.”

한다. 나는 또,

“아들과 딸을 몇이나 두었나요.”

하고 물었더니, 그는,

“도둑놈 하나만 있으나, 아직 여의지 못했답니다.”

하기에, 나는,

“그게 무슨 말이오. 도둑놈 하나라니.”

“예, 도둑도 딸 다섯 둔 집에는 들지 않는다 하오니, 어찌 집안의 좀도둑이 아니옵니까.”

한다.

오후에 문을 나서 바람을 쐬었다. 수수밭 가운데서 별안간 새총 소리가 난다. 주인이 급히 나와 본다. 밭 속에서 어떤 사람 하나가 한 손에 총을 들고 또 한 손으로

64 양승암집(楊昇菴集) : 명의 학자 양신(楊慎)의 문집이다. 승암은 그의 호.

65 사성원(四聲猿) : 명 서위(徐渭)가 지은 전기(傳奇).

66 조남성(趙南星) : 명 희종(明熹宗) 때 이부 상서(吏部尙書)로서, 위충현(魏忠賢)에게 몰리어 대주(代州)로 귀양가서 죽었다.

67 철여의(鐵如意) : 쇠로 만든 여의. 어의는 손에 지니는 완상물의 일종.

68 운간(雲間) : 강소성(江蘇省) 송강현(松江縣)의 옛 이름.

돼지 뒷다리를 끌고 나와 주인을 흘겨보고,

“왜, 이 짐승을 내놓아서 밭에 들여보내지.”

하고 노한 음성을 낸다. 주인은 다만 송구한 기색으로 공손히 사과하여 마지않는다. 그 자는 피가 똑똑 떨어지는 돼지를 끌고 가버린다. 주인은 자못 섭섭한 모양으로 우두커니 서서 거듭 한탄만 한다. 내가,

“그 자가 잡아간 돼지는 뉴 집에서 먹이던 돼지인가요?”

하고 물은즉, 주인은,

“우리 집에서 기르던 거죠.”

한다. 나는 또,

“그렇다면, 잘못 남의 밭에 들어갔기로서니 수숫대 하나 다친 것이 없는데, 그 놈이 왜 함부로 돼지를 잡아 죽이지요. 주인은 당연히 그 자에게 돼지 값을 물려야 하지 않겠소.”

한즉, 주인은,

“값을 물리다니요, 돼지우리를 잘 단속하지 못한 것이 이쪽의 잘못이죠.”

한다.

대개 강희제(康熙帝 청의 제4대 황제)가 농사를 매우 소중히 여겨서, 그 법에 마소가 남의 곡식을 밟으면 갑절로 물어 주어야 하고, 함부로 마소를 놓는 자는 곤장 60대를 맞히며, 양이나 돼지가 밭에 들어간 것을 밭 임자가 보면, 곧 그 짐승을 잡아가도 주인은 감히 내가 주인인 체하지 못한다. 그러나 다만 수레가 다니는 자유는 막지 못한다. 그리하여, 길이 수렁이 되면 밭이랑 사이로도 수레를 끌고 들어가기 쉬우므로, 밭 임자는 항상 길을 잘 닦아서 밭을 지키기에 힘쓴다고 한다.

마을 가에 벽돌가마가 둘이 있었다. 하나는 마침 거의 굳어서, 흙을 아궁이에 이겨붙이고 물을 수십 통 길어다가 잇달아 가마 위로 들어붓는다. 가마 위가 조금 웁푹 패어서 물을 부어도 넘치지 않는다. 가마가 한창 달아서 물을 부으면 곧 마르고 하므로 가마가 달아서 터지지 않게 물을 붓는 것 같다. 또 한 가마는 벌써 구워서 식어졌으므로, 방금 벽돌을 가마에서 끌어내는 중이다. 대체로 이 벽돌가마의 제도가 우리나라의 기와가마와는 아주 다르다. 먼저 우리나라 가마의 잘못된 점을 말

해야 이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와가마는 곧 하나의 뉘어 놓은 아궁이여서 가마라고 할 수 없다. 이는 애초에 가마를 만드는 벽돌이 없기 때문에 나무를 세워서 흙으로 바르고 큰 소나무를 연료로 삼아서 이를 말리는데, 그 비용이 별써 수월찮다. 아궁이가 길기만 하고 높지 않으므로, 불이 위로 오르지 못한다. 불이 위로 오르지 못하므로 불 기운이 힘이 없으며, 불 기운이 힘이 없으므로 반드시 소나무를 때어 불꽃을 세게 한다. 소나무를 때어 불꽃을 세게 하므로 불길이 고르지 못하고, 불길이 고르지 못하므로 불에 가까이 놓인 기와는 이지러지기가 일쑤이며, 먼 데 놓인 것은 잘 구워지지 않는다. 자기를 굽거나 옹기를 굽거나를 무론하고 모든 요업(窯業)의 제도가 다이 모양이며, 그 소나무를 때는 법 역시 한가지니, 송진의 불광이 다른 나무보다 훨씬 세다. 그러나 소나무는 한번 베면 새 움이 돌아나지 않는 나무이므로, 한번 옹기장이를 잘못 만나면 사방의 산이 모두 별거승이가 된다. 백년을 두고 기른 것을 하루아침에 다 없애 버리고, 다시 새처럼 사방으로 소나무를 찾아서 흘어져 가버린다. 이것은 오로지 기와 굽는 방법 한 가지가 잘못되어서, 나라의 좋은 재목이 날로 줄어들고 질그릇점 역시 날로 곤궁해지는 것이다.

이곳의 벽돌가마를 보니, 벽돌을 쌓고 석회로 봉하여 애초에 말리고 굳히는 비용이 들지 않고, 또 마음대로 높고 크게 할 수 있어서 그 꼴이 마치 큰 종(鐘)을 엎어 놓은 것 같다. 가마 위는 못처럼 움푹 패개 하여 물을 몇 섬이라도 부을 수 있고, 옆구리에 연기 구멍 네댓을 내어서 불길이 잘 타오르게 되었으며, 그 속에 벽돌을 놓되 서로 기대어서 불꽃이 잘 통하도록 되어 있다. 대개 요약해 말한다면, 그 묘법은 벽돌을 쌓는 데 있다 하겠다. 이제 나로 하여금 손수 만들게 한다면 극히 쉬울 듯싶으나, 입으로 형용하기에는 매우 힘들다. 정사가,

“그 쌓은 것이 ‘품(品)’자와 같던가.”

하고 묻기에, 내 대답하되,

“그런 것 같기도 하오나,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하니, 변 주부가,

“그러면 책갑(冊匣)을 포개 놓은 것 같습디까.”

하기에, 나는 또,

“그런 뜻도 하지만, 꼭 그렇다고도 할 수 없을 걸.”
하였다.

대략 그 쌓는 법이, 벽돌을 눕히지 않고 모로 세워서 여남은 줄을 방고래처럼 만들고, 다시 그 위에다 벽돌을 비스듬히 놓아서 차차 가마 천장에 닿게까지 쌓아올린다. 그러는 중에 구멍이 저절로 뚫어져서 마치 고라니의 눈같이 된다. 불기운이 그리로 치오르면 그것이 각기 불목이 되어, 그 수없이 많은 불목이 불꽃을 빨아들이므로 불기운이 언제나 세어서, 비록 저 하찮은 수수깡이나 기장대를 때도 고루 굽히고 잘 익는다. 그러므로 터지거나 뒤틀어지거나 할 걱정은 저절로 없다. 지금 우리나라의 옹기장이는 먼저 그 제도를 연구하지 않고, 다만 큰 솔밭이 없으면 가마를 놓을 수 없다고만 한다. 이제 요업(窯業)은 금할 수 없는 일이고, 소나무 역시 한이 있는 물건인즉, 먼저 가마의 제도를 고치는 것만 같지 못하니, 그렇게 되면 양편이 다 이로울 것이다. 옛날 오성(鰲城 이항복(李恒福)의 봉호)과 노가재(老稼齋)가 모두 벽돌의 이로움을 논하였으되, 가마의 제도에 대해서는 상세히 말하지 않았으니, 매우 한스러운 일이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수수깡 3백 줌이면 한 가마를 구울 수 있는데, 벽돌 8천 개가 나온다.”

한다. 수수깡의 길이가 길 반이고, 굵기가 염지손가락만큼씩 되니, 한 줌이라야 겨우 너덧 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즉, 수수깡을 때면 불과 천 개 남짓 들여서 거의 만 개의 벽돌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루해가 몹시 지루하여 한 해[年]인 듯싶고, 저녁때가 될수록 더위가 더욱 심해져서 졸려 견딜 수 없던 차에, 결방에서 투전판이 벌어져 떠들고 야단들이다. 나도 뛰어가서 그 자리에 끼어 연거푸 다섯 번을 이겨 백여 닉을 땠으므로, 술을 사서 실컷 마시니 가히 어제의 수치를 씻을 수 있겠다. 내가,

“그래도 불복인가.”

하니, 조 주부와 변 주부가,

“요행으로 이겼을 뿐이죠.”

한다. 서로 크게 웃었다. 변군과 내원이 직성이 풀리지 않았음인지 다시 한판 하자

고 조르나, 나는,

“뜻을 얻은 곳에 두 번 가지 말아야 하느니, 만족을 알면 위태롭지 않으니라.”

하고 그만두었다.

3일 기묘(己卯)

새벽에 큰비가 내리다가 아침과 낮에는 화창하게 개었다. 밤들어 다시금 큰비가 내려서 이튿날 새벽까지 멎지 않으므로 또 묵다.

아침에 일어나 들창을 여니, 지루하던 비가 깨끗이 개고 맑은 바람이 이따금 불어오며 날씨가 청명한 것으로 보아서, 낮에는 더울 것 같다. 석류꽃이 땅에 가득히 떨어져서 붉은 진흙으로 변해 버렸다. 수구화는 이슬에 함빡 젖고, 옥잠화는 눈덩이처럼 머리를 쳐든다.

문 밖에서 통소·피리·징 등의 소리가 나기에 급히 나가 보니, 신행하는 행차다. 채색 그림 그린 사초롱[紗燈籠]이 여섯 쌍, 푸른 일산(日傘)이 한 쌍, 붉은 일산이 한 쌍이요, 통소 한 쌍, 날라리 한 쌍, 피리 한 쌍, 징경 한 쌍이 있고, 가운데 푸른 가마 한 채를 교군 네트이 메고 간다. 사면에 유리를 끼어서 창을 내었고, 네모에는 색실을 드리워서 술을 달았다. 가마 한 허리에 통나무를 받혀서 푸른 밧줄로 가로묶고, 그 통나무 앞뒤로 다시 짧은 막대를 가로질러 엎어매어 그 양쪽 머리를 네 사람이 메었는데, 여덟 발자국이 발맞추어 한 줄로 가므로, 흔들리거나 출렁거리거나 하지 않고 그저 허공에 떠서 가는 폭이다. 그 법이 아주 묘하다. 가마 뒤에 수레 두 채가 있는데, 모두 검은 베로 방처럼 둘러씌우고 나귀 한 마리로 끌고 간다. 한 수레에는 두 늙은 여인을 태웠는데, 얼굴은 모두 추하지만 성적(成赤)은 폐하지 않고 앞머리가 다 벗어져서 바가지를 엎어 놓은 것처럼 번들번들 빛난다. 시늉만 생긴 쪽이 뒤에 달렸는데 가지가지 꽃을 빈틈없이 꽂았다. 양쪽 귀에는 귀고리를 달고, 몸에는 검은 옷옷에 누런 치마를 입었다. 또 한 수레에는 젊은 여인 세 사람을 태웠는데, 주홍빛 또는 푸른빛 바지를 입고 모두 치마를 두르지 않았다. 그 중

에 한 소녀는 제법 아리땁다. 대체 그 늙은이는 한님과 젖어미요, 이 소녀들은 몸 종이라 한다.

30여 명의 말 탄 군사가 빠 둘러서 옹위(擁衛)한 속에 한 뚱뚱한 사내가 앉아 있다. 그는 입가에나 턱 밑에 검은 수염이 거칠게 형그어지고, 구조망포(九爪蟒袍 청인 관리들이 입는 관복)를 걸쳐 입었으며, 흰 말과 금안장에 은등자를 넌지시 디디고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 찼다. 뒤에는 수레 세 바리에 의룡(衣籠)이 가득 실렸다.

내가 주인더러,

“이 동리에도 수재(秀才)⁶⁹나 훈장(訓長)이 있을 테지요.”

하고 물은즉, 주인은,

“이런 시골구석에 아무런 왕래가 없으니 무슨 학구선생(學究先生)이 있사오리까마는 지난해 가을에 우연히 수재 한 분이 세관(稅官)을 따라 서울서 오셨는데, 도중에서 이질을 만나 이곳에 떨어져 있게 되었습니다그려. 이곳 사람들의 각별한 구료를 입어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이르기까지에 아주 말끔히 낫게 되었죠. 그 선생님은 문장이 뛰어날 뿐더러, 겸하여 만주글도 쓸 줄 안답니다. 그는 계속해 이곳에 머물러 계셔서, 한두 해 동안 글방을 내고 이 시골의 아이들을 성심껏 가르쳐서 병 구료를 해 준 은혜를 갚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관제묘에 계십니다.”

한다. 나는,

“그럼, 잠깐 주인이 인도해 줄 수 없겠소.”

한즉, 주인은,

“뭐, 남의 길잡이를 요할 것까지 있겠습니까.”

하며 손을 들어,

“저기 저 높다란 사당집이 거기죠.”

하고 가리킨다. 나는,

“그 선생의 성함은 무엇이지요?”

하니, 주인은,

69 수재(秀才) : 부(府) · 주(州) · 현(縣)의 학교에 있는 생원(生員).

“이 마을에서는 모두들 그를 부 선생(富先生)이라 부릅니다.”

한다. 나는 또,

“부 선생의 나이는 얼마나 되었소?”

한즉, 주인은,

“나으리께서 친히 가셔서 직접 물어 보십시오.”

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붉은 종이 수십 쪽을 들고 나와서 펴 보이며,

“이게 부 선생님께서 친히 써 주신 글씨입니다.”

한다. 그 붉은 종이의 글씨는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내리쓴 가는 글자로,

“아무 어른 존전(尊前)에 아뢰옵니다. 모년 · 모월 · 모일에 어른께옵서 제게로 왕립하여 주시옵기 바라옵니다.”

하였다. 주인은 이어서,

“이것은 제 아우가 지난 봄에 사위를 볼 때에 청첩을 그에게 빌려서 쓴 것입니다.”

한다. 대체로 그 글씨는 겨우 글자가 모양을 이룬 정도이다. 다만 수십 장의 자양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으며, 실에 구슬을 펜 듯 책판에 글자를 박은 듯 똑같다.

나는 혼자서,

“혹시 그 수재는 부정공(富鄭公)⁷⁰의 후손이나 아닌가.”

생각하고, 곧 시대를 불러서 함께 관제묘를 찾아갔다. 괴괴하여 인기척이 없다. 두루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차에, 오른편 곁방에서 아이의 글 읽는 소리가 들린다. 조금 있다가 한 아이가 문을 열고 목을 늘여 한번 살피더니, 이내 뛰어나와 우리를 돌아보지도 않고 한 달음에 어디로 가버린다. 나는 이 아이의 뒤를 따라가면서,

“너의 스승님은 어디 계시냐?”

하고 물은즉, 아이는,

“무엇 말씀이에요?”

한다. 나는 또,

“부 선생님 말씀이야.”

하였으나, 아이는 조금도 듣는 체 않고 다만 입속으로 중얼중얼하다가 훙하니 가

70 부정공(富鄭公) : 송(宋) 인종(仁宗) 때의 정치가 부필(富弼). 부는 성이요, 정은 봉호.

버린다. 내가 시대더러,

“그 선생이 아마 이 속에 있겠지.”

하고, 줄곧 오른편 곁방으로 가서 문을 열어 보니, 빈 교의 네댓이 놓였을 뿐, 아무 런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 문을 닫고 몸을 돌이키려고 할 즈음에, 아까 그 아이가 한 노인을 데리고 온다. 생각에 이 이가 곧 ‘부’란 사람인 듯싶다. 그가 잠깐 이웃에 나간 것을 아이가 달려가서 손님이 왔다 하여 돌아온 모양이다. 그 생김생김을 보니, 단아한 빛이라곤 도무지 없다. 앞으로 가서 깍듯이 읍(揖)하자, 노인이 별안간에 와락 달려들어서 허리를 껴안고 힘껏 들었다 놓으며, 또 손을 잡고 흔들면서 얼굴 가득히 웃음을 짓는다. 처음에는 놀립고, 다음에는 불쾌하였다. 내가,

“당신이 부공(富公)이시오?”

한즉, 그 노인이 아주 기뻐하면서,

“영감께서 어찌 제 성을 아십니까.”

한다. 나는,

“저는 오랫동안 선생의 성화를 높이 들어서, 마치 우레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싶습니다.”

한즉, 부가,

“당신의 성함은 뭐라 하십니까.”

한다. 내 성명을 써서 보이니, 그 역시 써 보인다. 이름은 부도삼격(富圖三格)이요, 호는 송재(松齋), 자는 덕재(德齋)라 한다. 나는,

“삼격이란 무슨 뜻입니까?”

한즉, 그는,

“이건 저의 성명이옵니다.”

한다. 나는 또,

“살고 계신 고을과 관향(貫鄉)은 어디세요?”

한즉, 그는,

“저는 만주양람기(鑲藍旗)⁷¹에 사는 사람이옵니다.”

71 양람기(鑲藍旗) : 만주족은 전부 군대의 편제로 하여 팔기(八旗)로 나누었는데, 이는 그 중의 하나이

하고 다시,

“영감께서는 이번엔 의당 면가(面駕)하시겠지요?”

하고 묻기에, 나는,

“그게 무슨 말씀이오.”

한즉, 그는,

“황제께서 의당 영감을 불러 보시겠지요?”

한다. 내가,

“황제께서 만일 접견하신다면 노인의 말씀을 잘 여쭈어서 작은 벼슬이라도 불게 할 생각인데, 어떠하오.”

한즉, 그는,

“만일 그렇게까지 해 주신다면, 박공(朴公)의 가륵하신 은덕은 결초보은(結草報恩)으로도 갚기 어렵겠소이다.”

한다. 나는 또,

“물에 막혀서 이곳에 머무른 지가 벌써 수일이나 되었소. 이다지 긴 여름 해를 보내기 난감하니, 노인께 볼 만한 책이 있으면 며칠만 빌려 주실 수 없겠소.”

하였더니, 그는,

“별로 없습니다. 전에 서울 있을 때, 가친 절공(折公)이 명성당(鳴盛堂) 북경 유리창(琉璃廠)에 있었다)이라고 이름을 붙인 각포(刻舗 판각하는 집)를 내었는데, 그때의 책 목록(目錄)이 마침 행장 속에 들어 있사온즉, 만일 소일삼아 보시려면 빌려 드리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감께서는 이제 바로 돌아가셔서 진짜 환약[청심환이다.]과 조선 부채 중에 잘 된 것을 골라서 초면의 정표로 주신다면 영감의 참된 사귐의 뜻을 알겠으니, 그 때에 서목을 빌려 드려도 늦지 않겠소이다.”

한다. 그 생김새와 말투를 보자니, 뜻이 하도 비루하고 용렬하여 더불어 이야기할 바가 못 될 뿐더러, 오래 앉았을 수도 없으므로 곧 하직하고 일어섰다. 부가 문에 나와 읍을 하여 보내면서,

다.

“귀국의 명주를 살 수 있겠습니까.”

하기에, 나는 대답도 하지 않고 돌아왔다. 정사가,

“뭐 볼 만한 것이 있던가. 더위 먹을까 조심스러우이.”

하기에, 나는,

“아까 한 늙은 훈장을 만났는데, 한갓 만주 사람일 뿐 아니라 몹시 비루하여 더불어 이야기할 위인이 못 됩니다그려.”

한즉, 정사는,

“그가 이왕 구하는 바에야 어찌 환약 한 개, 부채 한 자루를 아끼겠는가. 그리고 서목을 빌려다 봄도 해롭진 않아.”

한다. 드디어 시대를 시켜서 청심환 한 개와 어두선(魚頭扇) 한 자루를 보냈더니, 시대가 이내 크기가 손바닥만하고 몇 장 되지도 않은 작은 책을 들고 돌아온다. 그나마 모두 빈 종이였고, 기록된 서목은 모두 청인의 소품(小品) 70여 종이다. 이는 불과 몇 장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많은 값을 요구하니, 그의 뻔뻔스러움은 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이왕 빌려 온 것이요, 또 눈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베껴 놓고 돌려보내기로 한다.

명성당서목(鳴盛堂書目)⁷²

척독신어(尺牘新語) 6책(六冊) : 왕기(汪淇 청대 학자) 첨의(瞻漪 왕기의 자) 전(箋).

분서(焚書) 6책, 장서(藏書) 18책, 속장서(續藏書) 9책 : 이지(李贊 명의 사상가요 문인, 이름을 재지(載贊)라고도 함) 탁오(卓吾 이지의 자) 저(著).

궁규소명록(宮闈小名錄), 장주잡설(長洲雜說), 서당잡조(西堂雜俎) : 우동(尤侗 명의 문학가) 전성(展成 우동의 자) 저.

균랑우필(筠廊偶筆) : 송락(宋犖 청의 문인) 목중(牧仲 송락의 자) 저.

동서자(同書字), 촉민소기(蜀閨小記), 인수옥서영(因樹屋書影) : 주량공(周亮工 명

72 명성당서목(鳴盛堂書目) : 원전에는 잇달아 써어 있으나, 위의 '예단물목(禮單物目)'의 예를 따라 별도로 제목을 붙이고 정리하였다.

말 청조 문학가) 원량(元亮 주량공의 자) 저.

사례촬요(四禮撮要) : 감경(甘京 청의 학자, 자는 건재(健齋)) 저.

설림(說林), 서하시화(西河詩話) : 모기령(毛奇齡 청대의 학자, 자는 대가(大可)) 저.

운백광림(韻白匡林), 운학통지(韻學通指), 손서(漣書) : 모선서(毛先舒 청대의 시인) 치황(稚黃 모선서의 자) 저.

서산기유(西山紀游) : 주금연(周金然 청대의 시인, 자는 광거(廣居)) 저.

일지록(日知錄), 북평고금기(北平古今記) : 고염무(顧炎武 청대의 학자, 자는 영인(寧人)) 저.

부지성명록(不知姓名錄) : 이청(李清 청의 학자) 영벽(映碧 이청의 호, 자는 심수(心水)) 저.

장설(蔣說) : 장호신(蔣虎臣) 저.

영매암언어(影梅庵憶語) : 모양(冒襄 명말 학자) 벽강(辟疆 모양의 자) 저.

고금서자변화(古今書字辨訛), 동산담원(東山談苑), 주설종담(秋雪叢談) : 여회(余懷 명말 학자) 담심(淡心 여회의 자) 저.

동야전기(冬夜箋記) : 왕승간(王崇簡 청대 학자, 자는 경재(敬載)) 저.

황화기문(皇華記聞), 지북우담(池北偶談), 향조필기(香祖筆記) : 왕사진(王士禛 청대의 문인, 사정(士禎)이라고도 함.) 이상(貽上 왕사진의 자) 저.

모각양추(毛角陽秋), 군서두설(羣書頭屑), 규합어림(閨闥語林), 주조일사(朱鳥逸史) : 왕사록(王士祿 왕사진의 형으로 문인, 자는 자저(子底)) 저.

입옹통보(笠翁通譜), 무성희(無聲戲), 소설귀수전고사(小說鬼輸錢故事) : 이어(李漁 청대의 극작가) 입옹(笠翁 이어의 자) 저.

천외담(天外談) : 석방(石龐 청대 문인, 자는 천외(天外)) 저.

주대기연(奏對機緣) : 홍각(弘覺) 저.

십구종(十九種) : 시호신(柴虎臣) 저.

굴보(橘譜) : 저호남(諸虎男) 저.

일하구문(日下舊聞) 20책, 분목춘추(粉墨春秋) : 주이준(朱彝尊 청대 학자) 석창

(錫鬯 주이준의 자) 저.

우초신지(虞初新志) : 장조(張潮 청대 학자) 산래(山來 장조의 자) 저.

기원기소기(寄園寄所寄) 8책 : 조길사(趙吉士 청대 학자, 자는 천우(天羽)) 저.

설령(說齡) : 왕완(汪濊) 저.

설부(說郛) : 오진방(吳震方 청대 학자) 청단(青壇 오진방의 자) 저.

단궤총서(檀几叢書) : 왕탁(王晫 청대 학자) 저.

삼어당일기(三魚堂日記) : 육룡기(陸隴其 청대 성리학자, 자는 가서(稼書)) 저.

역선록(亦禪錄), 유몽영(幽夢影) : 장조(張潮) 저.

양경구구록(兩京求舊錄) : 주무서(朱茂曙) 저.

연주객화(燕舟客話) : 주재준(周在浚 주양공의 아들, 자는 설객(雪客)) 저.

승정유록(崇禎遺錄) : 왕세덕(王世德 명말 절사(節士), 자는 극승(克承)) 저.

입해기(入海記) : 사사련(查嗣璉 청대 학자, 다른 이름은 신행(慎行), 자는 하중(夏重) 또는 회여(悔餘)) 저.

유구집록(琉球雜錄) : 왕즙(汪楫 청대 학자, 자는 주차(舟次)) 저.

박물전획(博物典彙) : 황도주(黃道周 명말 절사, 자는 유현(幼玄) 또는 이약(螭若)) 저.

관해기행(觀海紀行) : 시윤장(施閏章 청대 문인, 자는 상백(尙白)) 저.

석진일기(析津日記) : 주운(周蕡 청대 학자, 자는 청사(青士), 또는 당곡(簷谷)) 저.

정 진사와 함께 나누어 베껴서 이 뒤에 책사에서 참고하기로 하고, 곧 시대를 시켜서 돌려보내고, 또 시대더러,

“이런 책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므로, 우리 영감께서 이 서목을 보시지 않았소.”

라고 말하라 일렀더니, 시대가 돌아와서,

“부씨가 제가 전하는 말을 듣더니, 자못 계면쩍은 빛을 보이면서 저에게 수건 한 개를 주더이다.”

한다. 그 수건의 길이는 두 자 남짓한 추사(觸紗 올이 말려들게 짠 천)인데, 새 감으로 만든 것이다.

4일 경진(庚辰)

어젯밤부터 밤새도록 비가 억수로 퍼부어서 길을 떠나지 못했다. 양승암집도 보며 바둑⁷³도 두어 심심풀이하다. 부사와 서장관이 상사의 처소에 모이고, 또 다른 여러 사람을 불러서 물 건널 방도를 묻다가, 오래되어서야 모두 돌 아가다. 아마 별 좋은 계책이 없는 모양이다.

5일 신사(辛巳)

맑게 개었다. 물에 막혀서 또 듅다.

주인이 방고래를 열고 기다란 가래로 재를 긁는다. 나는 그 구들 제도의 대략을 엿보았다. 먼저 높이 한 자 남짓하게 구들바닥을 쌓아서 편평하게 만든 뒤에, 깨뜨린 벽돌로 바둑돌 놓듯 괼돌을 놓고, 그 위에는 벽돌을 깔 뿐이다.

벽돌의 두께가 본시 같으므로 깨뜨려서 괼돌을 해도 절름발이가 될 리 없고, 벽돌의 몸이 본디 가지런하므로 나란히 깔아 놓으면 틈이 날 리 없다. 고래 높이는 겨우 손이 드나들 만하고, 괼돌은 갈마들며 불목이 되어 있다. 불이 불목에 이르면 그 넘어가는 힘이 빨아들이듯 하므로, 불꽃이 재를 휘몰아 메어지듯 세차게 들어간다.

그리하여 여러 불목이 서로 잡아당기어, 도로 나올 새가 없이 쏜살같이 굴뚝으로 빠져 나간다. 굴뚝의 깊이는 길이 넘는다. 이것은 곧 우리나라 말의 개자리[犬座]다. 불꽃이 항상 재를 몰아다가 고래 속에 가득히 떨어뜨리므로, 3년 만에 한 번씩

73 바둑 : '수택본'에는 투전으로 되어 있다.

고래목을 열고 재를 쳐내야 한다. 부뚜막은 한 길이나 땅을 파서 위로 아궁이를 내고, 땔나무는 거꾸로 집어넣는다.

부뚜막 옆에는 큰 항아리만큼 땅을 뚫고, 그 위에 돌덮개를 덮어서 봉당바닥과 가지런히 한다. 그 빈 테서 바람이 일어나서 불길을 불목으로 몰아넣으므로, 연기가 조금도 새지 않는다. 또 굴뚝을 내는 법이, 큰 항아리만큼 땅을 파고 벽돌을 탑처럼 쌓아올리되 지붕과 가지런하게 하였으므로, 연기가 그 항아리 속으로 굴러들어서 서로 잡아당기고 빨아들이듯 한다. 이 법이 가장 묘하다. 대개 굴뚝에 틈이 생기면, 약간의 바람에도 아궁이의 불이 꺼지는 법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온돌은 항상 불을 내뿜고 방이 골고루 덥지 않다. 그 잘못이 모두 굴뚝에 있다. 혹은 싸리로 엮은 농(籠)에 종이를 바르고, 혹은 나무판자로 통을 만들어 쓴다. 처음 세운 곳에 흙이 틈이 나거나, 혹은 종이가 떨어지거나, 또는 나무통이 벌어지거나 하면, 연기 새는 것은 막을 길이 없고, 바람이 한 번 크게 불면 연통은 소용이 없게 된다. 나는 생각에,

“우리나라에서는 집이 가난해도 글 읽기를 좋아해서, 겨울이 되면 수많은 형제들의 코끝에는 항상 고드름이 달릴 지경이니, 이 법을 배워 가서 삼동의 그 고생을 덜었으면 좋겠다.”

하였다. 변계함이,

“이곳 구들은 아무래도 이상해요. 우리나라 온돌만 못한 것 같아요.”

하기에, 나는,

“못한 까닭이 뭐지.”

하고 물었다. 변군은,

“어찌, 저 기름 넉 장을 반듯하게 깔아서, 빛은 화제(火齊 운모(雲母)의 일종으로 빛이 붉다)와 같고 범드름하기는 수골(水骨)과 같을 수야 있겠소.”

한다. 나는,

“이곳의 벽돌 장판이 우리나라의 종이 장판만 못한 것은 그럴싸한 말이야. 그러나 이 구들 놓는 방법을 본받아 가서 우리나라 온돌에 쓰고, 그 위에 기름 먹인 장판지를 깔아만 보아. 누가 금할 이 있겠는가. 대개 우리나라 온돌제도는 여섯 가

지 흄이 있으나 아무도 이를 말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내 시험조로 한번 논할 테니, 자네는 떠들지 말고 조용히 들어 보게. 진흙을 이겨서 귓돌을 쌓고 그 위에 돌을 얹어서 구들을 만드는데, 그 돌의 크고 작음과 두껍고 얕음이 애초에 고르지 못하므로, 조약돌로 네모를 괴어서 그 절름발이를 금지하려 했으나 돌이 타고 흄이 마르면 곧잘 허물어짐이 첫째 흄이요, 돌이 울퉁불퉁하여 음폭한 데는 흄으로 메워서 평평하게 하므로, 불을 때어도 고루 덥지 못함이 둘째 흄이요, 불고래가 덩실 높아서 불길이 서로 맞물지 못함이 셋째 흄이요, 벽이 성기고 얇아서 곧잘 틈이 생기므로, 바람이 새고 불이 내쳐서 연기가 방 안에 가득하게 됨이 넷째 흄이요, 불목이 목구멍처럼 되어 있지 않으므로, 불길이 안으로 빨리어 들어가지 않고 뺏나무 끝에서만 남실거림이 다섯째 흄이요, 또 방을 말리려면 적어도 뺏나무가 백 단은 들고, 열흘 안으로 입주를 못함이 여섯째 흄이다. 이제 곧 자네와 더불어 벽돌 수십 개만 깔아 놓으면, 웃고 이야기하는 사이에 벌써 몇 칸 온돌이 이루어져서 그 위에 누워 잘 수 있을 것이니, 그 어떠한가.”

하고 설명하였다.

저녁에 여럿이 술을 몇 잔 나누고, 밤이 이슥하여 취해 돌아와서 누웠다. 정사의 맞은편 방인데, 다만 베 휘장이 중간을 가리었다. 정사는 벌써 한잠이 들었고, 나 혼자 담배를 피워 물고 정신이 몽롱한데, 머리맡에서 별안간 발자국 소리가 나므로 깜짝 놀라서,

“거 누구냐?”

하고 소리를 지른즉,

“도이노음이오(擣伊齒音爾亥).”

하고 대답한다. 말소리가 심히 수상해서, 나는,

“이놈 누구야.”

하고 거듭 소리친즉,

“소인 도이노음이오.”

하고, 큰 소리로 대답한다. 시대와 상방(上房) 하인들이 모두 놀라 일어난다. 뺏 치는 소리가 들리고, 덜미를 밀어서 문 밖으로 끌어가는 모양이다. 이는 다름 아니라

저 갑군(甲軍)이 밤마다 우리 일행의 숙소를 순찰하여 사신 이하 모든 사람의 수를 헤어가는 것을, 깊이 잠든 뒤이므로 여태껏 그런 줄 모르고 지냈던 것이다. 갑군이 제 스스로 ‘도이노음’이라 함은 더욱 절도할 일이다. 우리나라 말로 오랑캐를 ‘되놈’이라 하니, 이는 대개 ‘도이(島夷)’의 준말이요, ‘노음(老音)’은 낮고 천한 이를 가리키는 말이요, ‘이오(伊吾)’란 높은 어른에게 여쭈는 말이다. 갑군이 오랫동안 사행을 치르는 사이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말을 배우되, 다만 ‘되’란 말이 귀에 익었기 때문이다. 한바탕의 소란 때문에 그만 잠이 달아나, 이어 벼룩에게 시달렸다. 정사 역시 잠이 달아났는지 촛불을 켠 채 그냥 날을 새웠다.

6일 임오(壬午)

개었다. 시냇물이 약간 줄었으므로 길을 떠났다. 나는 정사의 가마에 함께 타고 건넜다. 하인 30여 명이 알몸으로 가마를 메고 가다가, 강 한가운데쯤 물살이 센 곳에 이르러 별안간 왼쪽으로 기우뚱하여 하마터면 떨어질 뻔하니 사세가 실로 위급하기 짹이 없었다. 정사와 서로 부둥켜 안고서 겨우 물에 빠짐을 면했다. 저쪽 강 언덕에 올라서 물 건너는 자들을 바라보니, 혹은 사람의 목을 타고 건너고, 혹은 좌우에서 서로 부축하여 건너기도 하며, 더러는 나무로 폐를 엮어서 타고 네 사람이 이 어깨로 메고 건너기도 한다. 말을 타고 떠서 건너는 이는 모두 머리를 쳐들어서 하늘만 바라보고, 혹은 두 눈을 꼭 감기도 하고, 혹은 억지로 웃음을 짓기도 한다. 하인들은 모두 안장을 풀어 어깨에 메고 건너는데 젖을까 염려하는 모양이다. 이미 건너왔다 다시 건너가려는 이도 무엇을 어깨에 지고 물에 들므로, 이상하여 물은즉,

“빈 손으로 물에 들면 몸이 가벼워 떠내려가기 쉬우므로, 반드시 무거운 것으로 어깨를 눌러야 된다.”

한다. 몇 번씩 갔다왔다한 사람은 추워서 별별 떨지 않는 이가 없다. 산 속 물이 몹시 찬 때문이다.

초하구(草河口)에서 점심을 먹다. 이른바 답동(畜洞)이니, 이곳이 항상 진창이 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 사람이 이름지었다 한다.[답(畜) 자는 본시 없는 글자인데, 우리나라 아전들 장부에 수전(水田) 두 글자를 합쳐서 논이란 뜻을 붙이고, ‘답(畜)’자의 음을 빌렸다.] 분수령(分水嶺) · 고가령(高家嶺) · 유가령(劉家嶺)을 넘어 연산관(連山關)에서 묵다. 이날 60리를 갔다.

밤에 조금 취하여 잠깐 조는데, 몸이 홀연 심양 성중에 있었다. 궁궐(宮闈)과 성지(城地)와 여염과 시정들이 몹시 변화 · 장려하다. 나는 스스로,

“여기가 이처럼 장관일 줄은 몰랐네그려. 내 집에 돌아가서 이를 자랑해야지.”

하고 드디어 훌훌 날아가는데, 산이며 물이 모두 내 발꿈치 밑에 있어 마치 나는 솔개처럼 날쌔다. 눈 깜박할 사이에 야곡(冶谷)⁷⁴ 옛 집에 이르러 안방 남창 밑에 앉았다. 형님[박희원(朴喜源)]께서,

“심양이 어떻더냐.”

하고 물으시기에, 나는,

“듣기보다 훨씬 낫더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또 수없이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였다. 마침 남쪽 담장 밖을 내다보니, 옆집 회나무 가지가 우거졌는데, 그 위에 큰 별 하나가 휘황히 번쩍이고 있다. 나는 형님께,

“저 별을 아십니까.”

하고 사刎즉, 형님은,

“이름도 모르겠다.”

하시기에, 나는,

“저게 노인성(老人星) 남극성(南極星)이 올시다.”

하고 일어나 형님께 절하고,

“제가 잠시 집에 돌아온은 심양 이야기를 상세히 해 드리려는 것입니다. 이제 갈 길이 바빠서 하직 드립니다.”

하고, 안문을 나와서 마루를 지나 사랑 일각문을 열고 나섰다. 머리를 돌이켜 북쪽

74 야곡(冶谷) : 서울 시내 서북방에 있던 동리 이름으로, 연암이 세거하던 곳이다.

을 바라본즉, 길마재[鞍峴] 여러 봉우리가 역력히 얼굴을 드러낸다. 그제야 홀연히 깨달았다.

“아아, 내가 바보야. 내 홀로 어이 책문을 들어간담. 여기서 책문이 천여 리니, 누가 나를 기다리고 머물러 있으리.”

커다란 소리로 외쳤다. 안타깝기 짹이 없어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 하나, 문지 도리가 하도 삐빡하여 열리지 않으므로, 큰 소리로 장복을 부르려 하나, 소리가 목에 걸려서 나오질 않는다. 할 수 없이 힘껏 문을 밀다가 잠을 깨었다. 정사가 마침, “연암(燕巖).”

하고 부른다. 내 오히려 어리둥절하여,

“여기가 어디요.”

한즉, 정사는,

“아까부터 가위에 눌린 지 오래야.”

한다. 일어나 앓아서 이를 부딪으며 머리를 통기고 정신을 가다듬으니, 그제야 제법 상쾌해진다. 한편 섭섭하고도 한편은 기쁜 생각에, 오랫동안 마음이 뒤승승하다. 다시 잠들지 못하고 자리 위에서 몸을 뒤척거리며 공상에 잠겨서 날새는 줄도 깨닫지 못했다. 연산관은 또 아골관(鵝鶴關)이라고도 부른다.

7일 계미(癸未)

개였다.

2리(里)를 가서 말을 타고 그냥 물을 건넜다. 강물이 비록 넓지는 않으나, 물살이 어제 건넜던 곳보다도 훨씬 세다. 무릎을 올츠리며 두 발을 모아서 안장 위에 옹송 그리고 앉았다.

창대는 말머리를 꽉 껴안고 장복은 힘껏 내 엉덩이를 부축하여, 서로 목숨을 의지해서 잠시 동안의 행복을 마음속으로 빌 뿐이다. 말을 모는 소리조차 ‘오호(嗚呼)’ [말에게 조심해 가자고 타이르는 소리가 원래 ‘호호(好護)’인데, 우리나라 발음으로

는 ‘오호(嗚呼)’와 비슷하다.]하니, 어쩐지 치량하게 들린다. 말이 강 복판에 이르자, 갑자기 그 몸이 왼쪽으로 쓸린다.

대개 물이 말의 배에 닿으면 네 발굽이 저절로 뜨기 때문에 누워서 견너는 셈이다. 내 몸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른편으로 기울어지면서, 하마터면 물에 빠질 뻔하였다. 마침 앞에 말꼬리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보고, 재빠르게 그것을 불들고 몸을 가누어 고쳐 앉아서, 겨우 떨어짐을 면하였다. 나 역시 내 자신이 이토록 재빠를 줄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다. 창대도 말 다리에 채여 자칫하면 변을 당할 뻔하였으나, 말이 훌연 머리를 들고 몸을 바로 가누니, 물이 얇아져서 발이 땅에 닿았음을 알 수 있다.

마운령(摩雲嶺)을 넘어 천수참(千水站)에서 점심을 먹었다. 오후엔 몹시 무더웠다. 청석령(青石嶺)을 넘다보니 고갯마루에 관제묘가 있는데, 매우 영검스럽다하여 역부와 마두들이 서로 다투어 탁자 앞으로 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혹은 참외를 사서 바치기도 하고, 역관들 중에는 향을 피우고 제비를 뽑아서 평생의 신수를 점쳐 보는 이도 있었다. 한 도사(道士)가 바리때를 두드리며 돈을 구걸한다. 그는 머리를 깎지 않고 상투를 한 것이 마치 우리나라 환속한 중과 같기도 하고, 머리에는 등립(藤笠)을 쓰고 몸에는 야견사(野繭紗)로 만든 도포(道袍) 한 벌을 입은 것으로 보아서는 마치 우리나라 선비들의 차림새와 같으나, 다만 검은 빛깔의 방령(方領)만이 조금 다를 뿐이다. 또 한 도사는 참외와 달걀을 파는데, 참외 맛이 매우 달고 물이 많으며, 달걀은 맛이 삼삼하다.

밤에는 낭자산(狼字山)에서 묵었다. 이날 큰 쟁을 둘이나 넘었다. 80리를 행하였다. 마운령은 회령령(會寧嶺)이라고도 부른다. 그 높이나 가파르기가 우리나라 관북(關北)의 마천령(摩天嶺)에 못지않다 한다.

8일 갑신(甲申)

개었다.

정사와 한 가마를 타고 삼류하(三流河)를 건너서, 냉정(冷井)에서 아침밥을 먹었다. 10리 남짓 가서 산모롱이 하나를 접어들자 태복(泰卜)이가 갑자기 국궁(鞠躬)하고 말 앞으로 달려 나와서 땅에 엎드려 큰 소리로,

“백탑(白塔)이 보입니다.”

한다. 태복은 정 진사의 마두다. 아직 산모롱이에 가려 백탑은 보이지 않는다. 빨리 말을 채찍질하여 수십 보를 채 못 가서 겨우 모롱이를 벗어나자, 안광(眼光)이 어른거리고 갑자기 한 덩이 흑구(黑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 내 오늘에 처음으로, 인생(人生)이란 본시 아무런 의탁한 곳이 없이 하늘을 이고 땅을 밟은 채 떠돌아다니는 존재임을 알았다. 말을 세우고 사방을 돌아보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을 들어 이마에 얹고,

“아, 참 좋은 울음 터로다. 가히 한 번 울 만하구나.”

하였다. 정 진사가,

“이렇게 천지간의 큰 안계(眼界)를 만나서 별안간 울고 싶다니, 웬 말씀이오.”

하고 묻는다. 나는,

“그래 그래, 아니 아니. 천고의 영웅(英雄)이 잘 울었고, 미인(美人)은 눈물 많다 지. 그러나 그들은 몇 줄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기에, 소리가 천지에 가득 차서 금(金) · 석(石)으로부터 나오는 듯한 울음은 듣지 못하였소. 사람이 다만 칠정(七情)⁷⁵ 중에서 슬플 때만 우는 줄로 알고, 칠정 모두가 울 수 있음을 모르는 모양이오. 기쁨이 사무치면 울게 되고, 노여움이 사무치면 울게 되고, 즐거움이 사무치면 울게 되고, 사랑이 사무치면 울게 되고, 욕심[欲]이 사무치면 울게 되는 것이오. 불평과 억울함을 풀어 버림에는 소리보다 더 빠름이 없고, 울음이란 천지간에 있어서 우레와도 같은 것이오. 지극한 정(情)이 우러나오는 곳에, 이것이 저절로 이치

75 칠정(七情) : 《예기(禮記)》에서 말한, 사람이 가진 일곱 가지의 감정. 곤 희(喜) · 노(怒) · 애(哀) · 구(懼) · 애(愛) · 오(惡) · 욕(欲)을 말한다.

에 맞는다면 울음이 웃음과 무엇이 다르리오. 인생의 보통 감정은 오히려 이러한 극치를 겪지 못하고, 교묘히 칠정을 늘어놓고 슬픔에다 울음을 배치했으니, 이로 인하여 상고를 당했을 때 억지로 ‘애고’, ‘어이’ 따위의 소리를 부르짖지. 그러나 참된 칠정에서 우리나라온 지극하고도 참된 소리란 참고 눌러서 저 천지 사이에 서리고 엉기어 감히 나타내지 못한다오. 그러므로, 저 가생(賈生)⁷⁶은 일찍이 그 울 곳을 얻지 못하고, 참다못해서 별안간 선실(宣室)⁷⁷을 향하여 한 마디 길게 울부짖었으니, 이 어찌 듣는 사람들이 놀라고 해괴히 여기지 않으리오.”

한즉, 정은,

“이제 이 울음 터가 저토록 넓으니, 나도 의당 당신과 함께 한 번 슬퍼 울어야 할 것이나, 우는 까닭을 칠정 중에서 고른다면 어느 것에 해당될까요.”

한다. 나는,

“저 갓난아기에게 물어 보시오. 그가 처음 날 때 느낀 것이 무슨 정인가. 그는 먼저 해와 달을 보고, 다음에는 앞에 가득한 부모와 친척들을 보니 기쁘지 않을 리 없지. 이러한 기쁨이 늙도록 변함이 없다면, 본래 슬퍼하고 노여워할 리 없으며 의당 즐겁고 웃어야 할 정만 있어야 하련만, 도리어 분한(忿恨)이 가슴에 사무친 것 같이 자주 울부짖기만 하니, 이는 곧 인생이란 신성(神聖)한 이나 어리석은 이나를 막론하고 모두 한결같이 마침내는 죽어야만 하고 또 그 사이에는 모든 근심 걱정을 골고루 겪어야 하기에, 이 아기가 태어난 것을 후회하여 저절로 울음보를 터뜨려서 스스로를 조상함인가. 그러나 갓난아기의 본정이란 결코 그런 것은 아닐 거요. 무릇 그가 어머니의 태종에 있을 때 깜깜하고 막혀서 갑갑하게 지나다가, 갑자기 넓고 훤한 곳에 터져 나와 손을 펴고 발을 폐매 그 마음이 시원할 것이니, 어찌 한마디 참된 소리를 내어 제멋대로 외치지 않으리오. 그러므로, 우리는 의당 저

76 가생(賈生) : 한(漢)의 신진 문학가. 이름은 의(諡)인데, 나이가 젊었으므로 가생으로 불리었다. 그는 이론이 날카로웠으므로 장사왕(長沙王)의 태부(太傅)로 쫓겨났으나, 오히려 문제(文帝)에게 치안책(治安策)이라는 정견을 올려서, 시사(時事)의 통곡(痛哭) · 유체(流涕) · 장태식(長太息)할 만함을 진술하였다.

77 선실(宣室) : 한의 미양궁(未央宮) 전전(前殿)의 정실(正室). 문제가 이곳에서 가의에게 귀신(鬼神)에 대한 이론을 물었다.

갓난아기의 꾸밈없는 소리를 본받아서 저 비로봉(毗盧峯) 산마루에 올라가 동해를 바라보면서 한바탕 울어볼 만하고, 장연(長淵 황해도의 고을) 바닷가 금모래밭을 거닐면서 한바탕 울어볼 만하며, 이제 요동 별판에 와서 여기서부터 산해관(山海關)까지 1천 2백 리 사방에 도무지 한 점의 산도 없이 하늘 끝과 땅 변두리가 맞닿은 곳이 아교풀[膠]로 붙인 듯, 실로 깨맨 듯, 고금에 오가는 비구름만 창창할 뿐이니, 이 역시 한바탕 울어볼 만한 곳이 아니겠소.”

하였다.

한낮은 몹시 무더웠다. 말을 달려 고려총(高麗叢) · 아미장(阿彌庄)을 지나서 길을 나누어 갔다. 나는 조 주부 달동과 변군 · 내원 · 정 진사와 하인 이학령(李鶴齡)과 더불어 구요양(舊遼陽)에 들어갔다. 구요양은 봉황성보다도 10배나 더 변화하고 호화스러웠다. 따로 요동기(遼東記)를 썼다. 서문(西門)을 나와 백탑(白塔)을 보았다. 제작 기술이 뛰어나고 규모가 웅장하여 요동 별판과 잘 어울렸다. 따로 백탑기(白塔記)가 있다.

구요동기(舊遼東記)⁷⁸

요동의 구성(舊城)은 한(漢)의 양평(襄平) · 요양(遼陽) 두 현(縣) 지역에 있었다. 진(秦)이 요동이라 칭하였고, 그 뒤에는 위만조선(衛滿朝鮮)에 편입되었다가, 한 말년에 공손도(公孫度)⁷⁹가 웅거한 바 되었으며, 수(隋) · 당(唐) 때에는 고구려에 속하였고, 거란(契丹)은 이곳을 남경(南京)이라 하였으며, 금(金)은 동경(東京)이라 하였고, 원(元)은 행성(行省) 원대의 지방 행정 구역)을 두었으며, 명(明)은 정묘위(定遼衛)를 두었더니, 지금은 요양주(遼陽州)로 승격되었다.

78 구요동기(舊遼東記) : 구요동성을 중심으로 하여 고금의 연혁과, 명의 말기에 명과 청의 두 나라가 이어서 격렬히 싸우던 역사를 서술하였다. 이 편은 원전에는 편말(篇末)에 있었으나, 이제 이곳으로 옮겼다.

79 공손도(公孫度) : 후한(後漢) 말기에 어버이를 따라 현도(玄菟)에 갔다가, 요동태수(遼東太守)를 거쳐 스스로 요동후(遼東侯)가 되었다.

20리 떨어진 곳에 성을 옮겨서 신요양(新遼陽)이라 하였으므로, 이 성은 폐하여 구요동(舊遼東)이라고 부른다. 성의 둘레는 20리인데, 혹은 이르기를,

“이 성은 웅정필(熊廷弼)⁸⁰이 쌓은 것이다. 이 성이 옛날에는 몹시 낮고 비좁았는데, 정필이 적기(敵騎)가 들어온다는 정보를 듣고 성을 헐었다. 청인이 이를 보고 의심하여 감히 가까이 이르지 못하다가, 고쳐 쌓는다는 정보를 정탐해 알고는 군사를 이끌고 성 밑에 이르렀으나, 하룻밤 사이에 새로 쌓은 성이 높다랗게 이룩되었다. 나중에 정필이 이곳을 떠나자 요양이 함락되었다. 청인이 그 성이 견고하여 함락시키느라 어려웠던 점을 분히 여겨서 성을 헐어 버릴 적에 싸움에 이긴 열 sesso 군사들을 동원했음에도 열흘이 가도 다 헐지 못하였다.”

한다. 명(明) 천계(天啓) 원년(1621) 3월에, 청인(清人)이 이미 심양을 빼앗고 또 군사를 옮기어 요양으로 향하였다. 이때 경략(經略) 원응태(袁應泰)가 세 길로 군사를 내어서 무순(撫順)을 회복하려던 차에, 청인이 이미 심양을 점령하고 요양으로 향한다는 것을 듣고, 드디어 태자하(太子河) 물을 끌어다 해자에 채우고 군사를 성 위로 올라가 빙 둘러서서 지키게 하였다.

청인이 심양을 함락시킨 지 닷새 만에 요양성 밑에 이르렀다. 누루하치[奴兒哈赤]란 자는 이른바 청 태조(清太祖)다. 그가 스스로 좌익(左翼)의 군사를 이끌고 먼저 이르니, 명(明)의 총병(摠兵) 이회신(李懷信) 등이 군사 5만 명을 거느리고 성에서 5리 되는 곳에 나와서 진을 쳤다. 이때 누루하치가 좌익(左翼) 군대에 속한 사기(四旗 만주군 편성 단위)로 원편을 공격했다. 청 태종(清太宗)이란 자는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한(汗)이라고 부르니, 그의 이름은 홍타시[洪台時][우리나라의 병정록(丙丁錄) 중에 너저분하게 실려 있는 ‘紅打時, 또는 紅他詩’는 모두 발음이 비슷한 대로 적은 것이다. 마치 영알대[英阿兒臺]를 용골대(龍骨大)로, 마부타이[馬伏塔]를 마부대(馬夫大)로 쓴 것이 모두 이와 같다.]였다. 그가 날쌘 군사를 이끌고 싸우기를 청했으나 누루하치가 허락하지 않다가, 홍타시는 굳이 가서 홍기(紅旗) 두 개를 세워 두고 성 옆에다 매복시켜 형세를 살피게 하였다. 누루하치가 정황기(正黃

80 웅정필(熊廷弼) : 명의 명신. 그가 요동을 지키며 신흥인 청(淸)도 이를 넘어뜨리지 못하였으나, 당로 자의 질시와 파쟁으로 말미암아 참혹하게 죽음을 맞쳤다.

旗)⁸¹ · 양황기(鑲黃旗)를 보내어 홍타시를 도와서 명(明)의 군영(軍營) 왼편을 치게 하였다. 또 사기(四旗) 군사가 뒤이어 이르니 명병(明兵)이 크게 어지러운지라, 홍타시가 승리를 얻어서 60리를 추격하여 안산(鞍山)에 이르렀다. 이 싸움에 명병이 요양의 서문으로 나와, 앞서 청인이 성 곁에 세워 두었던 두 흥기(紅旗)를 뽑으니, 복병이 일어나서 이를 맞아들여 쳤다. 명병이 다시 성으로 도망하여 들어가느라고 저희들끼리 짓밟혔다. 총병 하세현(賀世賢)과 부장(副將) 척금(戚金) 등이 모두 전사하였다.

이튿날 아침에 누루하치가 패륵(貝勒 만주군의 벼슬 이름)의 왼편 사기 군사를 거느려서 성 서쪽의 수문(水門)을 파 호수의 물을 빼고, 또 오른편 사기 군사로 하여금 성 동쪽의 진수구(進水口)를 막게 하고, 자기는 우익(右翼) 군대를 성 밑에 늘어놓고는 흙을 넣고 돌을 날라서 물길을 막았다.

명병은 보병과 기병 3만 명을 거느리고 동문(東門)을 나와서 청병과 마주 진을 치고 서로 벼티었다. 청병이 바야흐로 다리를 빼앗으려 할 즈음, 마침 수구(水口)가 막히어서 물이 거의 마를 지경이므로, 사기의 선봉이 해자를 건너 고함을 치면서 동문 밖으로 엄습하자, 명병도 이에 맞서 역전했으나, 청병 홍갑(紅甲) 2백 명과 백기(白旗) 1천 명이 내닫는 바람에 죽은 명병이 해자에 가득하였다. 청병이 무정문(武靖門) 다리를 빼앗고 양쪽으로 나누어 지키는 명병을 치니, 명병이 성 위에서 끊임없이 화포(火砲)를 터뜨리었다. 청병도 이에 용감히 맞서 서성(西城) 한 쪽을 빼앗고 민중들을 베니, 성 안이 요란하였다. 이날 밤 성 안에 있는 명병이 횃불을 들고 싸울 때, 우유요(牛維曜) 등은 성을 넘어 달아났다.

이튿날 아침에 명병이 다시 방패를 세우고 힘써 싸웠으나, 청 사기의 군사가 역시 성을 타고 올랐다. 경략 원응태는 성 북쪽 진원루(鎮遠樓)에 올라서 싸움을 독촉(督促)하다가 성이 함락되는 것을 보고 누(樓)에 불을 놓아서 타죽고, 분수도(分守道) 하정괴(何廷魁)는 처자(妻子)를 거느리고 우물에 빠져 죽고, 감군도(監軍道) 최유수(崔儒秀)⁸²는 목매어 죽고, 총병(摠兵) 주만량(朱萬良), 부장 양중선(梁仲善)과

81 정황기(正黃旗) · 양황기(鑲黃旗) : 모두 만주군 팔기에 속한 부대.

82 최유수(崔儒秀) : 어떤 본에는 최允수(崔允秀)로 되었다.

참장(參將) 왕치(王豸) · 방승훈(房承勳)과 유격(遊擊) 이상의(李尙義) · 장승무(張繩武)와 도사(都司) 서국전(徐國全) · 왕종성(王宗盛)과 수비(守備) 이정간(李廷幹) 등은 모두 전사하였다.

어사(御史) 장전(張鉉)⁸³은 청병에게 사로잡혔으나 굴복하지 않으므로, 누루하치가 죽음을 내려 순국(殉國)하고자 하는 뜻을 이루게 하였다. 홍타시가 장전을 아껴서 살리려고 여러 번 타일렀으나 마침내 뜻을 빼앗을 수 없었으므로, 부득이 목매어 죽이고 장사를 치러 주었다.

청나라 황제(皇帝 고종(高宗))가 작년에 전운시(全韻詩 어제전운시(御製全韻詩))를 지어 이 성이 함락한 사실의 시발을 상세히 적고 또 말하기를,

“명의 신하로서 항복하지 않는 자에게 우리 선황제께옵서 오히려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때 연경에 있는 명의 군신(君臣)들은 도무지 아랑곳하지 않았다. 공과 죄를 밝히지 않았으니, 그러고서야 망하지 않으면 될 수 있으리오.”

하였다. 《명사(明史)⁸⁴를 상고하건대,

“옹정필이 광녕(廣寧)을 구출하지 않았을 때에 삼사(三司)⁸⁵ 왕기(王紀) · 추원표(鄒元標) · 주응추(周應秋) 등이 정필을 탄핵하기를, ‘정필의 재식과 기백이 일세를 비웃을 만하므로 지난해에 요양을 지키매 요양이 보존되고 요양을 떠나매 요양이 망했으나, 다만 그 교만하고 괴팍한 성격은 고칠 길이 없어서 오늘에 한 소(疏)를 올리고 다음날에는 한 방(榜)을 걸었으니, 그는 양호(楊鎬)⁸⁶에게 비하여서는 도망친 한 가지 죄가 더하고 원웅태처럼 죽지도 못하였으므로, 만일 왕화정(王化貞)⁸⁷을 죽이고 정필을 살려둔다면 죄는 같음에도 별이 다른 것입니다’ 했다.”

하였다. 이제 당시의 토벽(土壁)이 예와 같이 둘러 있고 벽돌 흔적이 오히려 새로

83 장전(張鉉) : 자는 우형(宇衡). 국사기문(國史紀聞)을 지었다.

84 명사(明史) : 청의 장정속(張廷玉) 등이 황제의 명을 받들어 지었다.

85 삼사(三司) : 시대를 따라 변천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상서행부(尙書刑部) · 어사대(御史臺) · 대리시(大理事)를 이른 듯하다.

86 양호(楊鎬) : 명의 장수로서, 임진란에 구원군을 거느리고 패해서 돌아가, 요동에 나가서 청과 싸워 또 패하였으므로 사형을 받았다.

87 왕화정(王化貞) : 몽고를 무마하여 일찍이 공을 세웠으나, 옹정필과 함께 청에 패했으므로 사형을 당했다.

우매, 그때 삼사가 탄핵한 글을 다시 외워 본즉, 그의 사람됨을 가히 짐작할 수 있겠다. 아아, 슬프다. 명의 말운을 당하여 인재를 쓰고 벼름이 거꾸로 되고, 공과 죄가 밝지 못했으므로, 웅정필·원승환의 죽음을 보건대 가히 스스로 그 장성(長城)을 허물어뜨렸다 하겠으니, 어찌 후세의 기룡을 받지 않으리오.

태자하(太子河)를 끌어서 해자를 만들었다. 해자 위에는 서너 채 고기잡이배가 떠 있고, 성 밑에는 낚시질하는 이가 수십 명이나 되는데, 다들 좋은 옷을 입었고, 그 생김생김이 단아한 귀공자 같다. 모두 성 안의 장사치들이다. 내가 이에 해자를 한 바퀴 돌아서 그 수문의 여닫는 제도를 엿보려 할 때, 낚시꾼들이 왁자하게 웃으면서 낚싯대를 가지고 와서 나를 보고 말을 걸기에, 나는 땅에 글자를 써서 보였으나 모두 슬쩍 들여다보고는 웃고 가버린다.

서문(西門)을 나서 백탑을 구경하다. 그 만듦새가 공교롭고 화려하며, 웅장함이 가히 요동 넓은 벌판에 알맞다. 따로이 백탑기(白塔記)를 썼다.

관제묘기(關帝廟記)⁸⁸

구요동성 문 밖을 나서면 돌다리 하나가 있다. 다릿가 돌 난간은 그 만든 품이 매우 정교하다. 강희(康熙) 57년에 쌓은 것이다. 다리 건너편에서 백여 보쯤 되는 곳에 패루(牌樓)가 있다. 구름 속의 용과 수선(水仙)을 새겼는데, 모두 파서 새긴 것이다. 패루에 올라 본즉 동쪽에 큰 다락이 있는데, 글자를 써서 현판을 걸어 적금루(摘錦樓)라 하였고, 그 왼편의 종루(鍾樓)는 용음루(龍吟樓)요, 오른편의 고루(鼓樓)는 호소루(虎嘯樓)라 하였다.

묘당(廟堂)이 웅장 화려하여 복전(複殿)과 중각(重閣)에 금빛·푸른빛이 휘황찬란하다. 그 정전(正殿)에는 관공(關公)⁸⁹의 소상(塑像)을 모셨고, 동무(東廡)에는 장

88 관제묘기(關帝廟記) : 구요동에 있는 관제묘를 구경한 기록이다. 어떤 본에는 요동백탑기(遼東白塔記) 밑에 있으나 그릇된 것이다.

89 관공(關公) : 죽한(蜀漢) 오후대장(五虎大將) 중의 하나. 이름은 우(羽)요, 자는 운장(雲長). 뒤에 그를 추숭하여 제(帝)라 일컬었다.

비(張飛) 자는 익덕(翼德), 서무(西廝)에는 조운(趙雲) 자는 자룡(子龍)을 배향(配享)하였으며, 또 촉(蜀)의 장군 엄안(嚴顏)⁹⁰의 굴복하지 않는 꼴을 설치하였다. 뜰 가운데에는 큰 비(碑) 몇이 서 있는데, 모두 이 사당의 창건과 중수한 사실의 시말을 적은 것이다. 그 중 새로 세운 한 비는, 산서(山西)의 어떤 상인(商人)이 사당을 중수한 일을 새긴 것이다.

사당 안에는 노는 건달패 수천 명이 왁자하게 떠들어, 마치 무슨 놀이터 같다. 혹은 총과 곤봉을 연습하고, 혹은 주먹놀음과 씨름을 시험하기도 하며, 혹은 소경 말·애꾸말을 타는 장난들을 하고 있다. 또는 앉아서 《수호전(水滸傳)》⁹¹을 읽는 자가 있는데, 못사람이 뻥 둘러앉아서 듣고 있다. 그는 머리를 흔들며 코를 별름거리는 꼴이, 방약무인(旁若無人)의 태도이다. 그 읽는 곳을 보니, 곧 화소와관사(火燒瓦官寺) 수호 중 장회(章回)의 이름인 데, 외는 것은 뜻밖에 《서상기(西廂記)》⁹²였다. 글자를 모르는 까막눈이건만 외기에 익어서 입이 매끄럽게 내려간다. 이것은 꼭 우리나라 네거리에서 《임장군전(林將軍傳)》⁹³을 외는 것 같다. 읽는 자가 잠깐 중지하면 두 사람이 비파(琵琶)를 타고 한 사람은 징을 울린다.

90 엄안(嚴顏) : 유장(劉璋)의 부하로서, 장비에게 굴복하지 않은 의장(義將).

91 수호전(水滸傳) : 소설 이름. 곧 수호. 원의 시자안(施子安)이 엮은 것을 명의 나본(羅本, 羅貫中)이 완성하였다.

92 서상기(西廂記) : 희곡 이름. 당 원진(元稹)의 회진기(會真記)를 원의 왕실보(王實甫)가 각색하였다.

93 임장군전(林將軍傳) : 조선 국문 소설의 이름. 임경업(林慶業)을 주인공으로 한 것이다. 본이름은 임충민공실기(林忠愍公實記).

요동백탑기(遼東白塔記)⁹⁴

관제묘를 나와 5마장도 채 못 가서 하얀 빛깔의 탑(塔)이 보인다. 이 탑은 8각 13층에 높이는 70길[仞]이라 한다. 세상에 전하는 말에,

“당(唐)의 울지경덕(蔚遲敬德)⁹⁵이 군사를 거느리고 고구려를 치러 왔을 때에 쌓은 것이다.”

한다. 혹은 이르기를,

“선인(仙人) 정령위(丁令威)⁹⁶가 학을 타고 요동으로 돌아와 본족, 성곽과 인민이 이미 바뀌었으므로 슬피 울며 노래 부르니, 이것이 곧 그가 머물렀던 화표주(華表柱)⁹⁷다.”

한다. 그러나 이는 그릇된 말이다. 요양성 밖에 있으니 성에서 10리도 못 되는 곳이고, 또 그리 높고 크지도 않다. 그저 백탑이라 함은 우리나라 조례(阜隸)들이 아무렇게나 부르기 쉽게 지은 이름이다.

요동은 원편에 창해(滄海)를 끼고 앞으로는 벌판이 열려서 아무런 거칠 것 없이 천리가 아득하게 펴있는데, 이제 백탑이 그 벌판의 3분의 1을 차지하였다. 탑 꼭대기에는 구리북 세 개가 놓였고, 층마다 쳐마 네 귀퉁이에 풍경을 달았는데, 그 크기가 물들통만 하고, 바람이 일 때마다 풍경이 울어서 그 소리가 멀리 요동벌에 울린다.

탑 아래서 두 사람을 만났다. 그들은 모두 만주 사람으로, 약을 사러 영고탑(寧古塔)에 가는 길이다. 땅에 글자를 써서 문답을 하는데, 한 사람이 고본(古本) 《상서(尚書)》가 있나를 묻고,⁹⁸ 또 한 사람은,

94 요동백탑기(遼東白塔記) : 어떤 본에는 관제묘기(關帝廟記) 위에 있었으나, 그릇되었으므로 여기로 옮겼다.

95 울지경덕(蔚遲敬德) : 당의 명장. 태종을 따라 여러 군데에 원정하였다.

96 정령위(丁令威) : 한의 선인. 《수신후기(搜神後記)》에 의하면, 그가 신선이 되어 천 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다 하였다.

97 화표주(華表柱) : 큰 길거리나 고을 앞과 같은 곳에 세우는 쪽대.

98 고본(古本)……묻고 :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고본 《상서》가 있었다 하므로, 그들이 물은 것이다.

“안부자(顏夫子 공자의 제자인 안회(顏回), 부자는 존칭)가 지은 책과 자하(子夏 공자 제자, 성명은 복상(卜商), 자하는 자)가 지은 악경(樂經)이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이는 모두 내가 처음 듣는 것이므로 없다고만 답하였다. 두 사람은 모두 아직 청년인데, 처음으로 이곳을 지나며 이 텁을 구경하러 온 것이다. 길이 바빠서 그의 이름을 묻지는 못했으나 수재(秀才)인 듯싶다.

광우사기(廣祐寺記)

백탑 남쪽에 광우사(廣祐寺)라는 옛날 절이 있다. 아까 만난 수재들의 말에,

“한대(漢代)에 지은 절인데, 당 태종(唐太宗)이 요(遼)를 칠 때에 수산(首山)에 머물러 악공(鄂公 울지경덕의 봉호(封號)) 울지경덕으로 하여금 중수하게 하였다.”

하고, 전하는 말에는,

“옛날 어떤 시골 사람이 광녕으로 가다가 길에서 한 동자를 만났는데, 그 동자의 말이, ‘나를 업고 광우사까지 가면 그 절 오른편으로 열 걸음 가서 고목나무 밑에 돈 10만냥이 묻혀 있을 것이니, 그 돈을 품삯으로 주겠소’ 하기에, 그 사람이 동자를 업고 수백 리 길을 한나절이 못 되어 닿았다. 내려 놓고 보니, 동자는 사람이 아니고 금부처님이었다. 그 절의 중이 이상히 여겨서 절 오른편 열 걸음쯤 되는 곳 고목나무 밑을 파본즉, 과연 10만냥이 나왔으므로, 시골 사람이 그 돈으로 절을 중수하였다.”

한다. 이제 절의 비문(碑文)을 읽어 보니,

“강희 27년에 태황 태후(太皇太后 태종 홍타시의 비(妃))가 내탕고(內帑庫)의 돈으로 세운 것이고, 강희제도 일찍이 이 절에 거동하여 중에게 비단 가사(袈裟)를 하사한 일이 있다.”

하였다. 지금은 절이 황폐하여 중도 없다. 요양성으로 돌아오니 수레와 말의 울리는 소리가 우렁차고, 가는 곳마다 구경꾼이 폐를 지었다. 주루(酒樓)의 붉은 난간이 높다랗게 한길 가에 솟아 있고, 금글자를 쓴 주기(酒旗)가 나부낀다. 그 가에는,

이름을 듣고서는 말을 곧장 세우고 | 聞名應駐馬
향내를 찾아서 수레를 잠깐 멈추리라 | 尋香且停車

라고 써어 있다. 나는 술을 마실 만한 기분이 들었다.
빙 둘러선 구경군은 더욱 많아져서 서로 어깨를 비빈다. 일찍이 들으니,
“이곳에는 좀도둑이 많아서, 낯선 사람이 구경에만 마음이 팔려 자신을 잘 보살피
지 못하면 반드시 무엇이든 잃어버리고 만다. 지난해 어느 사신 행차에 많은 무뢰
배를 반당(伴當)⁹⁹으로 삼아 거느렸는데 상하 수십 명이 모두 초행이어서 의장(衣
裝)이나 안구(鞍具)가 제법 호화로웠다. 이곳에 이르러 유람하는 사이에, 혹은 안
장을 잃고 혹은 등자(鐙子)를 잃어버려 여간 낭패가 아니었다.”
고 한다. 장복이 갑자기 안장을 머리에 쓰고 등자를 쌍으로 허리에 차고서 앞에 모
시고 서서 조금도 창피해하는 기색이 없기에, 내가 웃으며,
“왜 너의 두 눈알은 가리질 않나.”

하고 나무란다. 보는 이들이 모두 크게 웃었다.
다시 태자하에 이르렀다. 강물이 한창 부풀었을 뿐 아니라, 배가 없어서 건널 길이
막연하다. 강기슭을 타고 위아래로 바장일 무렵에, 갈대 우거진 속에 콩깍지만 한
고기잡이 배가 저어 나오고, 또 작은 배 하나가 강기슭에 아련히 보인다. 장복과
태복 등을 시켜 소리를 질러 배를 부르게 했다. 어부(漁夫)들이 낚싯대를 드리우고
배 두 머리에 마주 앉아 있다. 버드나무 짙은 그늘에 석양 놀이 금빛으로 아롱졌는
데, 잡자리는 물을 점치며 놀고, 제비는 물결을 차고 난다. 아무리 불러도 저들은
돌아다보지도 않는다. 오랫동안 물가 모래판에 섰노라니, 찌는 듯한 더위에 입술
이 타고 이마에 땀이 번지며 허기증이 들고 몸이 몹시 지친다. 평생에 구경을 좋아
하였더니, 오늘에야 톡톡히 그 값을 치르는구나 싶었다.

정군(鄭君) 등 여럿이 다투어 농담으로,
“해는 지고 길은 먼데 상하가 모두 배고프고 고달프니, 한번 올기라도 하는 수밖에
아무런 계책이 없구려. 선생은 어찌 참고서 올지 않으시오.”

99 반당(伴當) : 가마 메는 하인. 반당(伴擣)이라고도 하였다.

하고 서로들 크게 웃는다. 나는,

“저 어부가 남을 구원해 주질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인심을 가히 알지니, 제가 비록 육노망(陸魯望)¹⁰⁰ 선생처럼 점잖은 어른일지라도 나는 한 주먹으로 때려 눕하고 싶구려.”

하였다. 태복이 더욱 초조해하면서,

“이제 곤 들에 해가 지려 하니, 다른 산기슭에는 벌써 어두움이 깃들었으리이다.” 한다. 대체 태복은, 비록 나이는 젊으나, 일곱 번이나 연경에 드나들었으므로 모든 일에 익숙하다. 얼마 뒤에 사공이 낚시질을 끝마치고서 배 밑에 있던 고기 종다래 끼를 거두고 짧은 상앗대로 베드나무 그늘 가로 저어 나오자, 그 속에서 별안간 대여섯 척의 작은 배가 다투어 나온다. 그들은 저 고기잡이배가 저어오는 것을 보고는, 역시 너도 나도 하고 서로 다투어 저어 와서 비싼 삽을 받으려 함이다. 남의 갈급함을 짐짓 기다린 뒤에야 비로소 와서 전네 주려고 하니 그 소행이 밉다. 배 한 척에 세 사람씩을 태우고, 삽은 한 사람의 뜶이 일 초(一鈔 은으로는 서 돈쯤)씩이다. 배는 모두 통나무를 후벼파서 만들었다. 이른바,

들배는 넉넉히 두세 사람 탈 수 있네¹⁰¹ | 野航恰受兩三人

라 함은, 실로 이를 두고 이름이다. 일행 상하가 모두 열일곱 명에 말이 열여섯 필이다. 함께 강을 건넜다. 뱃머리에서 말굴레를 잡고 순류(順流)를 따라서 7~8리를 내려가니, 그 위험스럽기가 전날 통원보(通遠堡)의 여러 강을 건널 때보다 더하다. 신요양(新遼陽) 영수사(映水寺)에서 묵다. 이날 70리를 갔다. 밤에는 몹시 더워서, 잠든 중에 절로 흘러붙이 벗겨져서 약간 감기 기운이 있었다.

100 육노망(陸魯望) : 당의 문학가 육귀몽(陸龜蒙). 노망은 자. 벼슬을 하지 않고 차[茶]를 심으며 일생을 보내었으므로,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를 강호산인(江湖散人), 또는 보리선생(甫里先生)이라 불렀다.

101 들배는……있네 : 두보(杜甫)의 시구.

9일 을유(乙酉)

개었다. 몹시 더웠다.

새벽의 서늘함을 타서 먼저 길을 떠났다. 장가대(張家臺) · 삼도파(三道巴)를 거쳐서 난니보(爛泥堡)에서 점심을 먹었다. 요동 땅에 들어서면서부터 마을이 끊이지 않고 길 너비가 수백 보나 되며, 길을 따라 양편에는 모두 수양(垂楊)을 심었다. 집이 즐비하게 늘어선 곳에는, 마주 선 문과 문 사이에 장마 때 물이 괴어서 가끔 저절로 큰 뜯이 이루어졌다. 집집마다 기르는 거위와 오리가 수없이 그 위에 떠서 놀고, 양편 촌집들은 모두 물가의 누대처럼 붉은 난간과 푸른 현함이 좌우에 영롱하여, 슬며시 강호(江湖)를 방불케 한다.

군뢰가 세 번 나팔을 불고 나서 반드시 몇 리 앞서 가면, 전배(前排) 군관이 역시 군뢰를 따라 먼저 떠난다. 나는 행동이 자유로워서, 매양 변군(卞君)과 함께 서늘함을 타서 새벽에 떠난다. 그러나 10리도 못 가서 전배가 따라와 만나게 된다. 그들과 고삐를 나란히 하여, 재미 있는 이야기와 농담을 붙이면서 간다. 매일 이러하였다.

마을이 가까워질 때마다 군뢰를 시켜서 나팔을 불고, 넷이 모두 합창으로 권마성(勸馬聲)¹⁰²을 부른다. 그러면 집집마다 여인들이 문이 메도록 뛰어나와서 구경들을 한다. 늙은이고 젊은이고 간에 차림은 거의 같다. 머리에는 꽃을 꽂고 귀고리를 드리웠으며, 화장은 살짝 하였다. 입에는 모두 담뱃대를 물었고, 손에는 신바닥에 까는 베와 바늘 · 실 등을 들고 어깨를 비비고 서서 손가락질하며 깔깔거리고 웃는다. 한녀(漢女)는 여기서 처음 보는데, 모두 발을 감고 궁혜(弓鞋)를 신었다. 자색은 만주 여자[滿女]만 못하다. 만주 여자는 얼굴이 예쁘고 자태가 고운 이가 많았다.

만보교(萬寶橋) · 연대하(烟臺河) · 산요포(山腰鋪)를 거쳐서 십리하(十里河)에서 묵다. 이날 50리를 갔다.

102 권마성(勸馬聲) : 높은 관리의 행차에 앞서, 하인이 위엄을 돋우고 일반 행인을 물러서게 하기 위하여 길게 부르는 소리.

비장과 역관들이 말등에서, 맞은 편에서 이리 보고 오는 만녀나 한녀 중에서 각기 첨 하나씩을 정하는데, 만일 남이 먼저 차지한 것이면 감히 겹으로 정하지 못하고 법이 몹시 엄격하다. 이를 구첩(口妾)이라 하여 가끔 서로 샘도 하고 골도 내며 욕도 하고 웃고 떠들기도 하여, 이 역시 먼 길에 심심풀이로서 한 가지의 방법이다. 내일은 곧장 심양(瀋陽)에 들어갈 것이다.



성경잡지

성경잡지(盛京雜誌)

7월 10일 병술(丙戌)에 시작하여 14일 경인(庚寅)에 마쳤다. 모두 5일 동안이다. 십리하(十里河)로부터 소흑산(小黑山)에 이르기까지 모두 3백 27리다.

4년 경자(庚子) 가을 7월 10일 병술(丙戌)

비오다 곧 개었다.

십리하(十里河)에서 일찍 떠나 판교보(板橋堡) 5리, 장성점(長盛店) 5리, 사하보(沙河堡) 10리, 폭교와자(暴交蛙子) 5리, 전장보(薦匠堡) 5리, 화소교(火燒橋) 3리, 백탑보(白塔堡) 7리, 도합 40리를 가고, 백탑보에서 점심 먹고 거기서 다시 일소대(一所臺) 5리, 홍화포(紅火舗) 5리, 혼하(渾河) 1리, 배로 혼하를 건너서 심양(瀋陽)까지 9리, 도합 20리를 가니, 이날은 60리를 갔다. 심양에서 묵었다.

이날은 몹시 더웠다. 멀리 요양성(遼陽省) 밖을 돌아보니 수풀이 아주 울창한데 새벽 까마귀 떼가 들 가운데 흩어져 날고 한 줄기 아침 연기가 하늘 가에 짙게 끼었는데다 붉은 해가 솟으며 아롱진 안개가 곱개 피어 오른다. 사방을 둘러본즉 넓디 넓은 별에 아무런 거칠 것이 없다. 아아, 이곳이 옛 영웅들이 수없이 싸우던 터전이구나. 범이 달리고 용이 날 제 높고 낮음은 내 마음에 달렸다는 옛말도 있겠지만, 그러나 천하의 안위(安危)는 늘 이 요양의 넓은 들에 달렸으니 이곳이 편안하면 천하의 풍진(風塵)이 자고, 이곳이 한번 시끄러워지면 천하의 싸움 북이 소란히 울려댄다. 이는 어인 까닭일까. 대개 평평한 별과 넓은 들판이 한 눈에 천 리가 트인 이곳을 지키자니 힘들고, 버리자니 오랑캐가 쳐들어 오는데 아무런 방비할 계교가 없으므로 이곳은 중국으로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터전이어서, 비록 천하의 병력을 기울여서라도 이를 지킨 뒤에야 천하가 편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천하가 백년 동안이나 아무 일이 없음이 어찌 그들의 덕화와 정치가 전대(前代)보다 훨

1 범이……달렸다 : 《후한서(後漢書)》 하진전(何進傳)에 있는 말인데, 큰 권세를 훌로 잡았으며, 그 조종(操縱)은 나 한 사람에 있다는 것이다.

씬 뛰어난 때문이라 할 수 있으리오. 단지 이 심양은 본시 청(淸)이 일어난 터전²이어서 동으로 영고탑(寧古塔)과 맞물리고, 북으로 열하(熱河)를 끌어당기고, 남으로는 조선을 어루만지며 서로는 향하는 곳마다 감히 까딱하지 못하니, 그 근본을 튼튼히 다짐이 역대에 비하여 훨씬 낫기 때문일 것이다.

요양에 들어오면서부터 뽕나무와 삼밭이 우거지고, 개·닭 소리들이 끊이지 않는다. 이토록 백 년 동안이나 무사하긴 하나 청의 황제³로서는 오히려 한낱 근심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몽고(蒙古) 수레 수천 채가 벽돌을 싣고 심양에 들어오는데, 수레마다 소 세 마리가 끈다. 그 소는 흰 빛깔이 많으나 간혹 푸른 것도 있으며, 짚는 듯한 더위에 무거운 짐을 끌고 오느라고 코에서 피를 뺏는다. 몽고 사람들은 코가 우뚝하고 눈이 깊숙하며 혐상궂고 날래고 사나운 품이 인간 같아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옷과 병거지가 납루하고 얼굴에는 땃국이 흐른다. 그런데도 버선은 꼭 신고 있다. 우리 하인배들이 알정강이로 다니는 것을 보곤 이상스럽게 여기는 모양이다. 우리의 말몰이꾼들은 해마다 몽고 사람을 봐 와서 그 성격을 잘 알므로 서로 희롱하면서 길을 간다. 채찍 끝으로 그들의 병거지를 통겨서 길 곁에 버리기도 하고, 혹은 공처럼 차기도 한다. 그래도 몽고 사람들은 웃고, 성내지 않으며 두 손을 펴서 부드러운 말씨로 돌려 달라고 사정한다. 또 하인들이 뒤로 가서 그 병거지를 벗겨 가지고 밭가운데로 뛰어들어 가면서 짐짓 그들에게 쫓기는 체하다가 갑자기 몸을 돌이켜 그들의 허리를 안고 다리를 걸면 영락없이 넘어지고 만다. 그러면 그 가슴을 가로 타고 앓아서 입에 티끌을 넣으면, 못 되놈들이 수레를 멈추고 서서 모두들 웃으며, 밑에 깔렸던 자도 웃으며 일어나서 입을 닦고 병거지를 털어서 쓰고는 다시 덤벼들지 않는다.

길에서 한 수레를 만났다. 사람 일곱을 태웠다. 모두 붉은 옷을 입었고 쇠사슬로 어깨와 등을 얹어 매어서 목덜미에다 채우고는 다시 한 끝은 손을 매고 한 끝은 다

2 청(淸)이 일어난 터전 : 청은 애초 무순(撫順)의 동쪽 홍경(興京)에서 일어나서 태조 천명(天命) 10년에 심양에 수도를 옮겼다.

3 청의 황제 : '박영철본(朴榮喆本)'에는 청실(淸室)로 되었다.

리를 묶었다. 이들은 금주위(錦州衛)의 도둑으로, 사형을 한 등 감하여 멀리 흑룡강(黑龍江) 수자리 지역으로 귀양보내는 것이라 한다. 그들의 입이나 눈의 생김새가 무서워 보인다. 그래도 수레 위에서 서로 웃고 떠들며 조금도 괴로워하는 빛이 보이지 않는다.

말 수백 필이 길을 휩쓸고 지나간다. 마지막 한 사람이 씩 좋은 말을 타고 손에 수숫대 한 가지를 쥐고 뒤에서 말 떼를 따라 간다. 말들은 굴레도 없고 고삐도 없이 다만 가끔 뒤를 돌아다 보면서 걸어 간다.

탑포(塔舗)에 이르렀다. 탑은 그 동리 한 가운데 있는데, 8면 13층이고, 높이는 20여 길이나 된다. 층마다 둑근 문 네 개씩 트어져 있다. 그 속으로 말을 타고 들어가서 우러러보니 홀연 현기증이 생기기에 고삐를 되돌려 나와 버렸다. 일행은 벌써 사관에 들었다. 뒤쫓아 후당으로 들어가니 주인의 수염 밑에서 갑자기 강아지 소리가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서 멈칫하니, 주인이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나에게 앉기를 청한다. 주인은 긴 수염이 희끗희끗한 늙은이로 방 안 나지막한 걸상에 오똑이 걸터앉았고, 방 밖에는 교의를 마주하여 한 할멈이 앉아 있다. 머리 위에 희붉은 촉구화(蜀葵花) 한 봉오리를 꽂았으며, 옷은 야청 빛깔에 복숭아꽃 무늬 놓은 치마를 입었다. 할멈의 품에서도 강아지 짓는 소리가 더욱 사납게 들린다. 그제사주인이 천천히 가슴 속에서 삽살강아지 한 마리를 끄집어 낸다. 크기는 토끼만 한데, 눈처럼 흰 털은 길이가 한 치나 되고, 등은 담청색이고 눈은 노랗고 입 언저리는 붉으레하다. 노파도 웃자락을 헤치고 강아지 한 마리를 꺼내어 내게 보이는데, 털 빛은 똑같다. 노파가 웃으면서,

“손님, 괴이하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 영감 · 할멈 둘이서 하는 일 없이 집안에 들 앉았으려니 정말 긴긴 해를 지우기가 지루해서 이것들을 안고 놀리다가 도리어 남 들의 웃음거리가 되곤 하지요.”

한다. 나는,

“주인 댁엔 자손이 없으신가요.”

하고 물은즉 주인은,

“아들 셋, 손주 하나를 두었는데, 맏아들은 올해 서른 하나에, 방금 성경장군(盛京

將軍)⁴을 모시는 장경(章京)으로 있으며, 둘째 놈은 열아홉 살이고, 막내는 열여섯 살인데 둘 다 서당에 가서 글 읽는답니다. 아홉 살 된 손주놈은 저 벼드나무에서 매미 잡는다고 나가선 해가 지도록 보기조차 어려워요.”

한다. 얼마 안 되어서 주인의 어린 손자가 손에 웬 나팔을 쥐고 숨이 차서 후당으로 뛰어 들어 노인의 목을 끌어안고 나팔을 사 달라고 조른다. 노인은 얼굴 가득히 사랑겨운 빛을 띠면서,

“이런 건 쓸데없어.”

하고 타이른다. 그 아이는 미목이 희맑게 생겼다. 살구빛 무늬 놓인 비단 저고리를 입었다. 갖은 재롱과 어리광을 다 떨면서 이리저리 뛴다. 노인이 손자더러 손님 뵙고 인사 드리라고 시킨다. 군뇌가 눈을 부르뜬 채 후당으로 쫓아 들어와서 그 나팔을 빼앗고 큰 소리로 야단을 친다. 노인이 일어나서,

“미안합니다. 그 놈이 놀잇감으로 갖고 온 게요. 물건은 아무런 파손이 없습니다.”
하고 사과한다. 나도,

“찾았으면 그만이지. 하필 이토록 야단을 쳐서 남을 무료하게 한단 말인가.”

하고 군뇌를 나무랐다. 나는 또,

“이 개는 어디서 나는 것이오.”

물은즉, 주인은,

“운남(雲南)서 나는 거랍니다. 촉중(蜀中사천(四川)) 지방에서도 이와 같은 강아지가 있지요. 이것의 이름은 옥토아(玉兔兒)이고, 저것은 설사자(雪獅子)라 부른답니다. 둘이 모두 운남 산이지요.”

하고 주인이 옥토아를 불러 인사하라 하니, 그 놈이 오똑히 서서 앞 발을 나란히 추켜들고 절하는 시늉을 하고 다시 땅에 머리가 닿도록 조아리곤 한다.

장복이 와서 식사를 여쭙는다. 나는 곧 몸을 일으켰다. 주인은,

“영감, 이미 이 미물을 귀여워하셨은즉 삼가 이걸 드리고자 합니다. 방물을 바치시고 돌아오는 길에 영감께서 가져 가셔도 무방하옵죠.”

한다. 나는,

4 성경장군(盛京將軍) : 성경을 지키는 관원. 성경은 지금의 봉천(奉天).

“고맙소이다마는, 어찌 함부로 받으리까.”

하고 급히 돌아서 나왔다. 일행이 벌써 나팔을 불고 떠나려 했으나, 내가 간 곳을 몰라서 장복을 시켜 두루 찾아 다닌 것이다. 밥을 이미 지은 지 오래되어 굳어지고, 또 마음이 바빠서 목에 넘어가질 않기에 장복과 창대더러 나눠 먹으라 하고, 혼자서 음식점에 들어가서 국수 한 그릇, 소주 한 잔, 삶은 달걀 세 개, 참외 한 개를 사 먹고는 마흔두 닭을 헤어서 치르고 나니 상사의 행차가 문 앞을 막 지나간다. 곧 변군과 함께 고삐를 나란히 하여 길을 떠났다. 배가 잔뜩 불렀으므로 20리 길을 잘 갈 수 있었다. 해는 벌써 사시(已時)가 가까워서 별이 몹시 내려 쪼인다.

요양에서부터 길가에 벼드나무를 수없이 많이 심어서 그 우거진 그늘에 더위를 잊을 만하다. 가끔 벼드나무 밑에 물이 괴어서 웅덩이를 이루었으므로 이를 피하여 길 위로 둘러 나오면, 찌는 듯한 햇볕이 내려 쪼이고, 후끈거리는 흙 기운이 치울 라서 삽시간에 가슴이 막힐 듯 갑갑해진다. 멀리 벼들 그늘 밑을 바라본즉 수레와 말들이 구름같이 모여 있다. 말을 재촉하여 그곳에 이르러서 잠깐 쉬기로 했다. 장사꾼 수백 명이 짐을 내리고 땀을 들이고 있다. 혹은 벼드나무 그루에 걸터 앉아서 옷을 벗어놓고 부채질을 하며, 혹은 차를 마시고 술을 기울이며, 어떤 이는 머리를 감기도 하고 깎기도 하며, 더러는 골판도 치며, 또는 팔찌를 한다. 짐 속에는 모두 그림 그린 자기가 있고, 또 껌질 벗긴 수숫대로 조그맣게 누각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 속에는 각기 우는 벌레나 매미를 넣은 것이 여남은 짐이나 되며, 어떤 것은 항아리에 빨간 벌레와 파란 마름을 넣었는데, 빨간 벌레는 물 위에 둑둥 뜬 것이 마치 새우알처럼 작다. 이는 고기 밥으로 쓰인다. 수레 30여 채에 모두 석탄을 가득히 실었다. 술도 팔며, 차도 팔고, 떡과 과실 등 모든 음식을 파는 자가 모두 벼들 그늘 밑에 걸상을 죽 늘어 놓고 앉아 있다. 나는 여섯푼으로 양매차(楊梅茶)⁵ 반 사발을 사서 목을 축이었다. 맛이 달고 신 것이 제호탕(醍醐湯)⁶과 비슷하다.

태평거(太平車 청의 승용차의 한 가지) 한 채에 두 여인이 탔는데 나귀 한 마리가

5 양매차(楊梅茶) : 소귀나무의 열매를 볶아서 만든 차.

6 제호탕(醍醐湯) : 오매육(烏梅肉) · 백단향(白檀香) · 사인(砂仁) · 초과(草果) 등의 가루를 꿀에 넣어서 끓인 청량 음료.

끌고 간다. 나귀가 물통을 보자 수레를 끈 채 통으로 달려 듈다. 그 여인 둘 중 하나는 늙고 하나는 젊었다. 앞을 가렸던 밭을 걷고 바람을 쏘이고 있다. 둘 다 꾀꼬리 무늬 놓은 파란 웃옷에 주황 빛깔 치마를 입고, 옥잠화·패랭이꽃·석류화로 머리를 야단스럽게 꾸몄다. 아마 한녀(漢女)인 듯하다.

변군이 술을 마시자기에 각기 한 잔씩 기울였다. 곧 떠났다. 몇 리를 못 가서 멀리 군데군데에 불탑(佛塔)이 나타나서 훤히 눈에 든다. 아마 심양이 점점 가까워지는 가보다.

어부가 손을 들어 강성이 여기매요 | 漁人爲指江城近
뱃머리에 솟은 탑이 볼수록 더 높아지네 | 一塔船頭看漸長

하는 옛 시가 문득 생각난다. 대개 그림을 모르는 이 치고 시를 아는 이가 없는 법이다. 그림에는 짙고 옅은 법이 있으며, 또는 멀고 가까운 자세가 있다. 이제 이 탑의 모양을 바라보니 더욱 옛사람이 시를 지을 때 반드시 저 그림 그리는 방법을 체득했으리라고 깨달은 것이 있다. 대개 성의 멀고 가까움을 탑의 길고 짧음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까닭이다.

흔하의 이름은 아리강(阿利江)이요, 또는 소요수(小遼水)라고도 부른다. 장백산에서 흐르기 시작하여 사하(沙河)와 합하고, 성경성(盛京城) 동남을 굽이쳐 흘러 태자하와 합하며, 또 서로 비끼어서 요하(遼河)와 합하여 삼차하(三叉河)가 되어 바다로 흐른다.

흔하를 건너 몇 리를 가서 토성이 있다. 그다지 높지 않고 성 밖에는 검은 소 수백 마리가 있는데, 그 빛깔이 아주 새까맣게 옷칠한 듯하다. 또 1백 경(頃)이나 되는 큰 뜻이 있는데, 붉은 연꽃이 한창이고 그 속에는 거위와 오리 떼가 수없이 떠다닌다. 뭇가에는 백양(白羊) 천여 마리가 마침 물을 먹다가 사람을 보고 모두 머리를 쳐들고 섰다. 외곽의 문을 들어가니 성 안 인물의 변화함과 점포의 호화스러움이 요양보다 10배나 더하다.

관묘에 들어가 잠깐 쉬었다. 삼사(三使)는 관복을 모두 갖추었다. 한 노인이 있어

수화주(秀花紬)로 지은 홀적삼을 입고 민승하니 벗어진 이마에, 땅은 뒷머리가 드리웠다. 내게 깊이 읍하면서,

“수고하십니다.”

한다. 나도 손을 들어서 답례하였다. 노인이 내가 신고 있는 가죽신을 유심히 바라보는 것이 마치 그 만든 법을 상세히 알고자 하는 듯하므로 나는 곧 한 짹을 벗어서 보였다. 사당 안에서 갑자기 도사(道士) 한 사람이 뛰어나오는데 몸에는 야견사(野繭絲) 도포를 걸치고, 머리에는 등갓을 썼으며, 발에는 검은 공단 신을 신었다.

그는 갓을 벗고 상투를 어루만지면서,

“이게 영감의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한다. 노인은 자기 신을 벗고서 내 신을 바꿔 신어 보면서,

“이 신은 무슨 가죽으로 만들었소이까.”

하고 묻는다. 내가,

“나귀가죽으로 만든 겁니다.”

하니, 그는 또,

“밑창은 무슨 가죽입니까.”

한다. 나는,

“쇠가죽에 들기름을 먹여서 만든 것이라 흙탕을 디디어도 젖지 않는답니다.”

하고 답했다. 노인과 도사가 한 마디로 참 좋다고 칭찬하고 또,

“이 신은 진 땅에는 편리하지만 마른 땅엔 발이 부르트지나 않을까요?”

하고 묻는다. 나는,

“정말 그렇소.”

하고 답하였다. 노인이 나를 인도하여 사당 안 한 균데에 이르렀다. 도사가 손수 두 주발의 차를 따라서 각기 권한다. 노인이 제 성명을 복녕(福寧)이라 써 보인다. 그는 만주 사람으로 현재 성경 병부낭중(兵部郎中)의 벼슬에 있으며 나이는 63세이다. 성 밖에 피서 와서 큰 못에 연꽃이 한창 핀 것을 조용히 한 바퀴 둘러 보고 방금 돌아가는 길이라 한다. 그는 이어,

“영감의 벼슬은 몇 품이오며, 연기(年紀)는 몇이시옵니까.”

하고 묻는다. 나는,

“나의 성명은 아무개요, 그저 선비의 몸으로 중국에 관광(觀光)하러 온 것이고 나 이는 정사생(丁巳生)입니다.”

하고 답하였다. 그는 또,

“그리면 월일과 생시(生時)는?”

하기에 나는,

“2월 5일 축시(丑時)요.”

했다. 그는,

“그리면 하마경(蝦蟆更)⁷이오.”

하기에, 나는,

“아니오.”

했다. 복녕이 다시,

“저 윗 자리에 앉으신 분은 지난해에도 오셨더랬죠. 내 그 때 서울서 막 내려오다가 옥전(玉田)서 며칠 동안 한 객사에서 묵은 일이 있습니다. 이는 아마 한림(翰林) 출신이죠.”

하고 묻는다. 나는,

“한림이 아니라 부마도위(駙馬都尉)⁸요. 나하고는 삼종 형제 사이입니다.”

하고 답했다. 그가 또 부사와 서장관에 대한 일을 묻기에 각각 성명과 관품을 일러 주었다. 사행들이 옷을 갈아 입고 떠나려 한다. 나는 하직하고 일어섰다. 복녕이 앞으로 나와서 손을 잡고,

“행차 보중(保重)하시오. 마침 쇠어 가는 더위가 점점 더하오니 날오이나 냉한 음료수를 부디 자시지 마시오. 우리 집은 서문 안 마장거리 남쪽에 있는데, 문 위엔 병부낭중이란 패가 있고, 또 금자로 계유문과(癸酉文科)라 써 붙였으니 찾기 쉬우리다. 영감은 언제쯤 오시게 되는지요.”

7 하마경(蝦蟆更) : 오경(五更). 주준도(周遵道)의 표은기담(豹隱紀談)에 나온다. “내루(內樓)에 5경이 다하면 목탁과 북을 울리니 이를 하마경이라 한다” 하였다.

8 부마도위(駙馬都尉) : 임금의 사위인데, 일반적으로 ‘부마’라 하였다.

한다. 나는,

“9월 중이나 성경에 돌아오게 될 것 같소이다.”

한즉, 복녕은 또,

“그 무렵에 긴급한 공무가 생기지 않는다면 반가이 맞이하오리다. 이미 당신의 사주(四柱)를 알았으니 조용히 추수(推數)해 두었다가 귀한 행차가 돌아오시길 기다리리다.”

한다. 그 어조가 정중하여 작별을 뜻내 서운해 하는 모양이다. 도사는 코 끝이 뾰족하고 눈동자가 똑바로 박혔으며 행동이 경박하여 전혀 은근한 맛이라곤 없다. 복녕은 사람됨이 기절하고 원만하다.

삼사(三使)가 차례로 말을 타고 간다. 대개 문무관이 반(班)을 짜서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성 둘레가 10리인데 벽돌로 여덟 문루를 쌓았다. 누는 모두 3층이며 옹성(甕城)⁹을 쌓아서 보호했다. 좌우에는 또한 동·서 두 대문이 있는데 네거리를 통하도록 돈대를 쌓고, 그 위에 3층으로 문루를 세웠다. 문루 밑에는 저절로 십자로가 트이었는데 수레바퀴는 서로 부딪히고 어깨가 서로 닿을 정도이다. 그 변화함이 바다 같다. 점방들은 한길을 사이에 두고 그림 그린 충집과 아로새긴 들판에 다붉은 간판 푸른 방(榜)을 써 붙였으며, 가지 각색의 보화가 그 속에 가득하다. 점방을 보는 이들은 모두 희멀건 얼굴에 웃·갓[帽] 차린 맵씨가 깨끗하다.

심양은 본시 우리나라 땅이다. 혹은 이르기를,

“한(漢)이 4군을 두었을 때에는 이곳이 낙랑의 군청[治所]이더니 원위(元魏)¹⁰·수(隋)·당(唐) 때 고구려에 속했다.”

한다. 지금은 성경이라 일컫는다. 봉천 부윤(奉天府尹)이 백성을 다스리고 봉천 장군(奉天將軍)부도통(副都統)이 팔기(八旗)를 통할하며, 또한 승덕지현(承德知縣)이 있는데, 각부(各部)를 설치하고 좌이아문(佐貳衙門)을 두었다. 문 맞은편에 조장(照牆)¹¹이 있고 문 앞마다 옻칠한 나무를 어ぐ매끼로 세워서 난간을 만들었다. 장

9 옹성(甕城) : 큰 성 밖의 작은 성인데 혹은 월성(月城)이라 한다.

10 원위(元魏) : 남북조 시대의 후위(後魏). 그의 성은 본시 척발(拓跋)이었으나 효원제(孝元帝)에 이르러서 원으로 고쳤으므로 원위라 일컬었다.

11 조장(照牆) : 병문(屏門)의 담. ‘박영철본’에는 향장(響牆)으로 되었다.

군부(將軍府) 앞에는 큰 패루(牌樓)¹² 한 채가 서 있다. 길에서 그 지붕의 알록달록한 유리 기와를 바라보았다.

내원과 계함과 함께 행궁(行宮) 앞을 지나가다가 한 관인(官人)을 만났다. 그는 손에 짧은 채찍을 쥐고 매우 바쁜 걸음으로 간다. 내원의 마두(馬頭) 광록(光祿)이 관화(官話)를 잘하므로 관인을 쫓아가서 한 무릎을 끊고 머리를 조아리니 그는 얼른 광록을 붙들어 일으키면서

“큰 형님, 왜 이러시오. 편히 하시오.”

한다. 광록이 절하며 여쭙기를,

“저는 조선 방자(幫子)¹³이온데, 우리 상전께서 큰 임금님 계신 궁궐을 구경하시길 마치 하늘같이 높이 바라오니, 영감께서 이를 승낙하시겠습니까.”

한즉, 관인이 웃으면서,

“그것, 어려울 것 없소. 날 따라 오시오.”

한다. 나는 곧 쫓아가서 인사를 하고자 했으나 그의 걸음이 나는 듯 빨라서 따라갈 수 없다. 길이 막다른 곳을 바라본즉 붉은 목책(木柵)을 둘렀는데, 관인이 그 속으로 들어가면서 돌아다 보고 채찍으로 한 군데를 가리키면서,

“여기 좀 서서 기다리시오.”

하고 이내 몸을 돌이켜 어딘지 가버린다. 내원은,

“이왕 들어가 보지 못할 바에는 여기 우두커니 서 있는 게 싱거운 노릇이야. 또 이렇게 겉으로 한 번 바라보았으면 그만이지.”

하고 곧 계함과 함께 술집으로 가버린다. 나는 다만 광록과 함께 목책 속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정문의 이름은 태청문(太淸門)이라 하였다. 마침내 그 문을 들어섰다. 광록의 말이,

“아까 만났던 관인은 필시 수직장경(守直章京)일 겁니다. 지난해 하은군(河恩君)¹⁴을 모시고 왔을 때도 두루 행궁을 구경했으나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었사오니 아

12 패루(牌樓) : 우리나라 홀살문처럼 세우는 기념용 장식 건물.

13 방자(幫子) : 지방 관아 하례(下隸)의 하나. 조선시대에는 방자(房子)로 통용함.

14 하은군(河恩君) : 이광(李光)의 봉호. 정조 원년에 진하사은진주겸동지행정사(進賀謝恩陳奏兼冬至行正使)가 되었다.

주 마음 놓고 구경하시지요. 설사 사람을 만나더라도 쫓겨나기밖에 더하겠습니까.”

한다. 나는,

“네 말이 옳다.”

하고 곧 걸어서 전전(前殿)에 이르렀다. 현판에 숭정전(崇政殿)이라 하였고, 또 정대광명전(正大光明殿)¹⁵이라는 현판도 붙어 있다. 왼편은 비룡각(飛龍閣), 오른편은 상봉각(翔鳳閣)이라 하였고, 그 뒤에는 3층 높은 다락이 있는데, 이름은 봉황루(鳳凰樓)이다. 좌우에 익문(翼門)이 있고 문 안에는 갑군(甲軍) 수십 명이 있어서 길을 막는다.

할 수 없이 문 밖에서 멀리 바라본즉, 높은 누각 겹전과 겹겹이 둘린 회랑들이 모두 오색 찬란한 유리 기와로 지붕을 이었다. 이중 8각 집을 대정전(大政殿)이라 하였고, 태청문 동쪽에는 신우궁(神祐宮)이라는 건물이 있어서 삼청(三清)¹⁶의 소상을 모셨는데, 강희 황제(康熙皇帝)의 어필로 소격(昭格), 옹정 황제(雍正皇帝)¹⁷의 어필로 옥허진제(玉虛真帝)라 써 붙였다.

도로 나와서 내원을 찾아 한 술집에 들렀다. 기(旗)에 금자로,

하늘 위엔 술별[酒星] 한알 번쩍번쩍 빛나고요 | 天上已多星一顆
인간 세상엔 부질없이 고을이름[酒泉]과 나란하네 | 人間空聞郡雙名

라고 썼다. 술집은 붉은 난간에, 파란 문, 하얀 벽에 그림 기둥인데, 시렁 위에는 층층이 똑 같은 놋 술통을 나란히 놓고 붉은 종이로 술 이름을 써 붙인 것이 이루다 해일 수 없이 많다.

조 주부(趙主簿) 학동(學東)이 마침 그 집에서 사람들과 술을 마시다가 일어나 웃으면서 나를 맞아들인다. 방 안에는 50~60개의 훌륭한 걸상과 20~30개의 탁자

15 정대광명전(正大光明殿) : ‘박영철본’에는 태정전(太政殿)으로 되었다.

16 삼청(三清) : 도교에서 말하는 세 신선(神仙). 즉, 원시천존(元始天尊) · 태상도군(太上道君) · 태상노군(太上老君).

17 옹정 황제(雍正皇帝) : 청의 5대 황제인 세종(世宗). 강희 황제의 아들.

가 놓였으며, 화분 수십 그루가 있는데 마침 저녁 물을 주고 있었다. 추해당 · 수구화는 이제 한창으로 피었고, 다른 꽃들은 모두 처음 보는 것뿐이다.

조군이 불수로(佛手露 술 이름) 석 잔을 내게 권한다. 계함 등은 어디로 갔느냐고 물었으나 모른다고 답한다. 내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길에서 또 주부 조명회(趙明會)를 만나니 몹시 반가워하면서 어디 가서 함께 실컷 마시자는 것이다. 나는 몸을 돌이켜 방금 나온 술집을 가리켰다. 다시 저기로 가서 마시자는 의미이다. 조는,

“반드시 저 집뿐만이 아니라 어디를 가더라도 다 그만큼은 하죠.”

한다. 이에 서로 손을 맞잡고 어떤 술집에 들었다. 그 웅장하고 화려함은 아까 그 집보다 훨씬 지나친다. 달걀부침 한 쟁반, 사괴공(史刪公)¹⁸ 한 병을 사서 실컷 먹고 나왔다.

어떤 한 골동품 다루는 점포에 들렀다. 그 집 이름은 예속재(藝粟齋)이다. 수재(秀才) 다섯 사람이 동업하여 점포를 내고 있는데, 모두 나이가 젊고 얼굴이 아리따운 청년들이다.

다시 밤에 이 집을 찾아 이야기하기로 약속하였다. 그 상세한 이야기는 따로 〈속재필담(栗齋筆談)〉에 실었다.

또 한 점포에 들렀다. 이는 모두 먼 곳에서 온 선비들이 갓 개업한 비단점이었다. 집 이름은 가상루(歌商樓)이다. 모두 여섯 사람인데 의관의 차림이 깨끗하고 행동과 인상이 모두 단아하므로 또한 밤이 되면 예속재에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기로 약속하였다.

형부(刑部 지금의 재판소) 앞을 지나니 아문이 활짝 열렸다. 문 앞에는 나무를 어긋지게 둘러쳐서 아무나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게 하였다. 나는 스스로 외국 사람임을 믿고 거리낄 것이 없을뿐더러, 여러 아문 중에 오직 이 문만 열렸으므로 관부(官府)의 제도를 속속들이 봐 두리라 생각하고 문 안으로 들어섰다. 아무도 막는 이가 없었다.

한 관인이 대 위에서 걸상에 걸터앉았고 그 뒤에는 한 사람이 손에 지필을 든 채

18 사괴공(史刪公) : 술 이름. ‘박영철본’에는 사국공(史國公)으로 되었다.

모시고 섰다. 뜰 아래는 한 죄인이 끓어앉았고, 그 좌우에는 한 쌍 사령이 대곤장을 짚고 섰다. 그러나 분부나 거행 등의 여러 가지 호통도 없이, 관인이 죄인을 마주보고 순순히 말을 따진다. 한참 만에 큰 소리로 치라고 호통하니, 그 사령이 손에 들었던 곤장을 던지고 죄인 앞으로 달려가서 손바닥으로 따귀를 네다섯 번 때리고 다시 전 자리에 돌아가서 막대를 들고 섰다. 다스리는 법이 아무리 간단하다 기로니 따귀 때리는 형은 옛적에도 듣지 못했던 것이다.

저녁 뒤에 달빛을 따라 가상루에 들러서 여러 사람을 이끌고 함께 예속재에 이르렀다. 밤이 이슥하도록 이야기하다가 헤어지다.

11일 정해(丁亥)

개었다. 몹시 덥다. 심양에서 묵다.

아침 일찍 성 안에 우레 같은 대포소리가 들린다. 대개 상점들이 아침에 일어나 문을 열 때면 으레 종이 딱총을 터뜨리는 버릇이라 한다.

급히 일어나 가상루로 가자 여러 사람이 또 모였다.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사관에 와서 아침을 먹고 다시 여러 사람들과 함께 거리 구경을 나섰다. 길에서 두 사람을 만났는데 서로 팔을 끼고 간다. 보아한즉 생김새들이 모두 수려하기에 그들이 혹시 글하는 사람인가 싶어서 그 앞에 가서 읍을 한즉, 둘이 팔을 풀고 답례를 아주 공손히 하고는 이내 약방으로 들어간다. 나도 뒤쫓아 들어갔다. 둘은 빈랑(檳榔)¹⁹ 두 개를 사서 칼로 넷으로 쪼개어 나에게 한 쪽을 먹여보라 권하고 자기네도 씹어 먹는다. 내가 그들의 성명과 거주를 글로 써서 물은즉, 둘이 들여다보고 명해 하는 품이 글을 모르는 듯싶다. 다만 길이 읍하고는 가버린다.

해마다 연경에서 심양의 여러 아문과 팔기(八旗)의 봉급을 지급하면 심양에서 다시 흥경(興京) · 선창(船廠) · 영고탑 등지로 나누어 보내는데 그 돈이 1백 25만 냥이라 한다.

19 빈랑(檳榔) : 한약의 일종으로 소화제로 씹기도 한다.

저녁에는 달빛이 더욱 밝다. 변계함에게 함께 가상루에 가자 하였더니, 변군이 부질없이 수역(首譯)에게 가도 좋으냐고 물었으므로 수역의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성경은 연경이나 다름없는데 어찌 함부로 밤에 나다닌단 말씀이오.” 하는 바람에 변군이 한풀 꺾이었다. 수역은 실로 어젯밤 우리 일을 모르는 모양이다. 만일 알게 되면 나도 불잡힐까 두려워서 일부러 알리지 않고 홀로 빠져 나가면서 장복더러 혹시라도 나를 찾는 이가 있거든 뒷간에 간 것처럼 대답하라고 일러두었다.

속재필담(粟齋筆談)²⁰

전사가(田仕可)의 자는 대경(代耕) 또는 보정(輔廷)이고, 호는 포관(抱關)이며, 무종(無終) 사람이다. 자기 말로, 전주(田疇)²¹의 후손이며 집은 산해관(山海關)에 있는데, 태원(太原) 사람 양등(楊登)과 함께 이곳에 점포를 내었다 한다. 나이는 스물아홉이요, 키는 일곱 자이다. 넓은 이마와 가름한 코에 풍채가 날렵하다. 그는 고기(古器)의 내력을 잘 알고 남에게 몹시 다정스러웠다.

이귀몽(李龜蒙)의 자는 동야(東野)요, 호는 인재(麟齋)이며, 촉(蜀)의 면죽(綿竹) 사람이다. 나이는 서른아홉이요, 키는 일곱 자이다. 입이 모나고 턱은 넓으며 얼굴은 분바른 듯 희고 글 읽는 소리가 낭랑하여 금석을 울리는 듯싶다.

목춘(穆春)의 자는 수환(繡寰)이요, 호는 소정(韶亭)²²이며 촉 사람이다. 나이는 스물넷이요, 눈매가 그린 듯하나 글을 모르는 게 흠이다.

온백고(溫伯高)의 자는 목현(鶯軒)이며 촉의 성도(成都) 사람이다. 나이는 서른하나인데 역시 까막눈이다.

오복(吳復)의 자는 천근(天根)이요, 항주(杭州) 사람이며, 호는 일재(一齋)다. 나이

20 속재필담(粟齋筆談) : ‘다백운루본(多白雲樓本)’에는 〈속재야화(粟齋夜話)〉라 하여 〈성경잡지〉에서 각립(各立)시켰으며, 또 차례를 〈성경가람기(盛京伽藍記)〉의 다음에 두었는데 그릇된 것이다.

21 전주(田疇) : 조위(曹魏)의 문학가, 격검(擊劍)에 능하였다.

22 소정(韶亭) : 어떤 본에는 ‘소정’ 두 글자가 궐문(闕文)이 되었다.

는 갓 마흔이요, 학문은 짧으나 사람은 얌전하다.

비치(費禡)의 자는 하탑(下榻)이요, 호는 포월루(抱月樓) 혹은 지주(芝洲) 또는 가재(稼齋)이며 대량(大梁) 사람이다. 나이는 서른다섯이요, 아들 여덟²³을 두었다. 그림을 잘 그리고 조각에도 능하며, 경의(經義)도 곧잘 이야기한다. 집이 가난한데도 남들을 잘 도와 주니, 이는 여러 아들을 위하여 복을 기르는 것이라 한다. 목수환(穆繡寰) · 온목현(溫鶯軒)을 위하여 회계를 보아줄 양으로 방금 측에서 돌아온 것이라 한다.

배관(裴寬)의 자는 갈부(褐夫)이며 노룡현(盧龍縣) 사람이다. 나이는 마흔일곱이요, 키는 일곱 자 남짓 하고, 아름다운 수염에 술을 잘하고 문장에 능하여 나는 듯 빠르며, 너그러운 품이 장자의 풍도이다. 스스로 《과정집(邁亭集)》 두 권을 새기고 또 《청매시화(青梅詩話)》 두 권을 지었다. 아내 두씨(杜氏)는 열아홉에 요절했다 한다. 《임상현집(臨湘軒集)》 한 권이 있는데 내게 서문을 부탁하므로 써주었다. 그 다음 몇몇 사람들은 모두 녹록하여 적을 것이 없을 뿐 아니라, 게다가 목소정이나 온목현과 같은 풍골도 없고 그저 장사치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밤이나 함께 놀았으나 그 이름을 잊어버렸다.

내가 목소정을 보고,

“저처럼 미목이 그림 같은 분으로서 젊어서 이렇게 멀리 고향을 떠나와 있음은 어인 까닭이오. 인재와 온공(溫公)²⁴과는 모두 같은 촉의 사람인즉 무슨 친척의 연줄이나 없으시오?”

하고 물은즉, 인재가,

“그에겐 묻질 마십시오. 그의 얼굴은 비록 아름답긴 하나 마치 관옥(冠玉)²⁵ 같아서 그 속엔 아무 것도 듣 것이 없답니다.”

한다. 나는,

“이건 비평이 너무 지나치지 않소.”

23 아들 여덟 : 어떤 본에는 '아들 여덟'이 궐문으로 되었다.

24 온공(溫公) : 곧 온백고인데, 공(公)은 성 밑에 붙이는 미칭(美稱).

25 관옥(冠玉) : 《한서(漢書)》〈진평전(陳平傳)〉에 있는 말. 마치 옥으로 꾸민 것과 같아서 비록 밖에 나타나는 빛은 아름다우나 그 내용은 변변하지 못함을 이른 말이다. 미남자의 호칭으로 쓰임.

한즉, 인재는,

“온형과 수환과는 종모(從母) 형제 사이지만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소이다. 우리 세 사람이 배에다 서촉(西蜀) 비단을 싣고 병신년(丙申年 청의 전릉 41년) 2월에 촉을 떠나, 삼협(三峽)을 거쳐 오중(吳中 강소성(江蘇省)오현(吳縣))에 넘겨 버리고 장삿길을 좇아서 구외(口外)²⁶로 나와 이곳에 점포를 낸 지도 벌써 3년이랍니다.”

한다. 내 목춘을 못내 그리워하여 그와 더불어 필담(筆談)을 하고자 하였더니, 이 생(李生 이귀몽)이 손을 저으면서,

“온 · 목 저 두 분은 입으로 봉황새를 읊을 수 있으나 눈으로 시(豕)와 해(亥)를分辨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다. 나는.

“그럴 리가 있나요.”

한즉, 배관이,

“허튼 소리가 아니오. 귀에는 이유(二酉)²⁷의 많은 서적을 간직했으나 눈엔 하나의 고무래정(丁) 자도 뵐지 않는답니다. 하늘에 글 모르는 신선은 없어도 인간 속세엔 말 잘하는 앵무새가 있다오.”

한다. 나는.

“과연 그러할진댄 비록 진림(陳琳)²⁸으로 하여금 격문(檄文)을 쓰인대도 골치 앓는 것이 시원해지지 않겠소그려.”

한즉, 배관이,

“아주 이것이 모두 유행(流行)이랍니다. 한(漢 서한(西漢))이 육국(六國)을 세운 뒤에 문득 이 법이 그릇됨을 깨달았다 합니다. 이는 이른바 귀로 들어가서 입으로 새

26 구외(口外) : 장성(長城) 밖. 그 경계에 장가구(張家口)와 고북구(古北口)가 있으므로 그 밖의 땅을 구외라 한다.

27 이유(二酉) : 대유산(大酉山)과 소유산(小酉山). 그 산 밑에 석혈(石穴)이 있는데, 그 중에는 책 천 권을 간직하였다 한다. 원화군현지(元和郡縣志)에서 나온 말이다.

28 진림(陳琳) : 조위(曹魏)의 문학가. 일찍이 원조(袁紹)의 밑에 있으면서 조조(曹操)에게 보내는 격문을 지어 바쳤더니 조조는 마침 머리를 앓다가 그 자리에서 나았다 한다.

나오는 학문²⁹이라는 것이니, 지금 향교(鄉校)나 서당(書堂)에서도 한갓 글을 읽기
에만 힘쓸 뿐 강의(講義)는 하지 않으므로 귀로는 똑똑히 들으나 눈으로 보는 건
아득해서, 입으론 제자백가(諸子百家)³⁰가 모두 술술 풀려 나오지만 손으로 글을
쓰려면 한 글자도 어려울 뿐이랍니다.”

한다. 이생이,

“귀국에서는 어떠합니까.”

하기에, 나는,

“책을 펴놓고 읽는 법을 가르치되 소리와 뜻을 함께 익힌답니다.”

한즉, 배생(裴生 배관(裴寬))이 거기에 관주(貫珠)³¹를 치면서,

“그 법이 정말 옳습니다.”

한다. 나는,

“비공(費公 비치(費輝))은 언제 촉을 떠나셨습니까.”

하고 물은즉 비생(費生)은,

“이른 봄이었습니다.”

한다. 내가,

“촉에서 여기가 몇 리나 됩니까.”

한즉, 비는,

“한 5천여 리나 된답니다.”

한다. 나는,

“비씨(費氏)의 여덟 용(龍 아들들을 지칭)은 모두 한 어머니가 낳으셨나요.”

하자, 비는 다만 빙그레 웃을 뿐이었고, 배생이,

“아니어요. 소실 두 분이 좌우에서 도와 드렸답니다. 난 저 사람의 여덟 아들이 부
러운 것보다 작은 마누라나 하룻밤 빌렸으면 그만이겠소.”

한다. 온 방안 사람들이 모두 한바탕 웃었다. 나는,

29 귀로……학문 : 《순자(荀子)》에서 나온 말. 소인(小人)의 학문은 귀로 들어가서 입으로 새어 나간다.
그의 알음을 일렀다.

30 제자백가(諸子百家) : 중국 고전으로 각파 학자들의 학술이 실려 있는 서적.

31 관주(貫珠) : 글이 잘된 곳을 보아서 그 글자의 오른편에 주묵(朱墨)으로 동그라미를 치는 것이다.

“오실 때 검각(劍閣)의 잔도(棧道)³²를 지나셨나요.”

하고 곧 물은즉, 비는,

“그랬죠. 참 좁디좁은 조도(鳥道) 일천 리(一千里), 하루에 열두 시간 줄곧 원숭이 소리뿐입니다그려.”

한다. 배생은,

“참말, 촉(蜀)의 길은 배로 가나 물으로 가나 마찬가지로 어려워요. 이는 이른바 하늘에 오르기보다 더 어렵다³³는 것이지요. 내가 요전 신묘년(辛卯年 청의 건륭 36년)에 강을 거슬러 촉(蜀)으로 들어갈 제 74일 만에 겨우 백제성(白帝城)에 이르렀습니다. 배를 타니 때마침 늦은 봄철이어서 양쪽 언덕에는 여러 가지 꽃이 한창으로 피었고, 쓸쓸한 다북 창 속의 나그네 외론 밤 길기도 한데 소쩍새 피를 뿐고, 원숭이 우지지며, 학이 울고, 매가 웃으니, 이것은 고요한 강물 위의 달 밝은 경치였고, 낭떠러지 위의 큰 바위가 무너져 강에 떨어지자 두 돌이 서로 부딪혀서 번갯불이 번쩍하고 일어나니 이것이 여름 장마 때의 경치입니다. 이 길을 걸어서 비록 황금덩이와 비단이 바리로 많이 생긴다손 치더라도 머리칼이 세고 가슴이 타는 이 고생을 어찌 하겠습니까.”

한다. 나는 또,

“비록 고생하신 것은 그러하지만 저 육방옹(陸放翁 송대의 문호인 육유(陸游)의 호)의 입촉기(入蜀記)를 읽을 때면 미상불 흥겨워 춤이라도 너풀너풀 추고 싶던 걸요.”

한즉, 배생은,

“뭐,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한다.

이날 밤에는 달이 낮처럼 밝았다. 전사가가 주식을 차리느라고 이경(二更)에야 겨우 돌아왔다. 불불(호떡의 일종) 두 소반, 양 곱창 곰국 한 동이³⁴, 익힌 오리고기

32 잔도(棧道) : 중국 사천(四川) 지방에 있는 험준한 절벽에 나무로 시렁을 만들어 길을 낸 곳.

33 하늘에……더 어렵다 : 이백(李白)의 시구에, “촉도의 가기 어려움은 푸른 하늘에 오르기보다 더하구려” 하였다.

34 양 곰창 곰국 한 동이 : 이 구절은 ‘수택본’에는 다음에 나오는 ‘과실 두 쟁반’의 밑에 있다.

한 소반, 닭찜 세 마리, 돼지 삶은 것 한 마리, 신선한 과실 두 쟁반, 임안주(臨安酒 중국 남방산 명주) 세 병, 계주주(薊州酒 중국 북방산 명주) 두 병, 잉어 한 마리, 백반(白飯) 두 냄비, 잡채(雜菜) 두 그릇이니, 돈으로 친다면 열두 냥어치나 된다. 전생(田生 전사가)이 앞으로 나와 공손히,

“이 변변치 못한 걸 장만하느라고 오늘밤 선생님의 좋은 말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한다. 나는 교의에서 내려서며,

“이다지 수고하시니 꽂꽃이 앉아 받긴 황송합니다.”

한즉, 여러 사람들도 일어서면서,

“귀하신 손님이 오셨는데 도리어 부끄럽습니다.”

한다. 이에 일제히 일어나서 다른 좌석(座席)으로 옮기고 이내 점방 문을 닫았다.

들보 위에 부채 모양의 사초롱[紗燈] 한 쌍을 달았는데, 곁에는 모두 꽃과 새를 그렸으며, 또 이름 있는 사람의 시구(詩句)도 적혀 있다. 그리고 네모난 유리등(琉璃燈) 한 쌍이 낮처럼 밝게 비친다.

여러 사람들이 각기 한두 잔씩 권하는데 닭이나 오리는 모두 주둥이도 발도 떼지 않았고, 양고기 국도 몹시 비려서 비위에 받지 않으므로 떡과 과실만 먹었다.

전생이 필담한 종이쪽을 두루두루 열람하고 연신,

“좋아, 좋거든.”

하고 감탄한다. 그리고 그는 또,

“선생께서 아까 저녁 전에 골동을 구하셨으면 하시더니, 어떤 진품(眞品)을 구하시렵니까?”

하기에, 나는,

“비단 골동뿐만이 아니라 문방(文房)의 사우(四友)까지도 사고 싶습니다. 정말 희귀하고 고아(古雅)한 것이라면 값은 계교치 않으렵니다.”

하니, 전생은,

“선생께서 이제 오래지 않아서 북경에 들르시면 유리창(琉璃窗) 같은 데도 들르실테니 얻기 어렵지는 않으리다. 그러나 다만 그의 참과 거짓을 분간하기 어렵사오

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생의 감상력이 어떠하신지요?”

한다. 나는,

“궁벽한 바다 구석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이라 감식이 고루하니, 어찌 진짜 가짜를 잘 분간할 줄 알겠습니까?”

하니, 전생은 또,

“이곳은 말이 도회이지 중국에선 한 구석이었으므로, 모든 거래는 다만 몽고나 영고탑이나 또는 선창 등지에 의뢰할뿐더러, 변방의 풍습이 몹시 무디어서 아담한 취미를 갖지 못하였으므로, 여러 가지 신비스러운 빛깔이나 고아한 그릇조차 이곳에는 나온 일이 드물거늘, 하물며 은(殷)의 그릇과 주(周)의 솔과 같은 것이야 어디서 볼 수 있겠습니까. 귀국에서 골동 다루는 식이 이곳과는 또 달라서 전에 그 장사하는 이들을 본즉, 비록 차[茶]와 약재 같은 따위라도 상품을 가리지 않고 값싼 것만 따지더군요. 그리고서야 무슨 진짜 가짜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차나 약재뿐만 아니라, 모든 기물이 무거우면 실어가기 어려우니까 대개 변문(邊門)에서 사가지고 돌아가더군요. 그러므로 북경 장사꾼들이 미리 내지(內地)에서 쓰지 못할 물건들을 변문으로 넘겨보내서 서로 속여서 이익을 취한답니다. 이제 선생께서는 구하시는 것이 속류(俗流)에서 훨씬 벗어난 것이고, 또 우연히 이 타향에서 서로 만나서 불과 몇 마디 말을 주고받은 나머지 벌써 지기의 벗이 되었으니, 비록 정성을 다하여 물건을 드리진 못할망정 어찌 잠깐이라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한다. 나는,

“선생의 이 말씀은 참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이는 가히 ‘이미 술로 취하게 하고 또 덕(德)으로써 배부르게 했다.³⁵고 할 만하군요.”

하니, 전생은,

“너무 지나치신 사랑이십니다. 내일 아침 다시 오셔서 점포에 있는 물건들을 죄다 구경하시죠.”

하니 배생은,

“내일 아침 일을 미리 이야기할 것 있소. 다만 선생을 모시고 이 밤의 즐거움을 다

35 이미 술로……했다 : 《시경(詩經)》〈대아(大雅)〉 생민지십(生民之什) 기취(餽酙).

하면 그만이죠.”

하니, 여러 사람이 모두,

“옳소.”

한다. 전생은 또,

“옛날 공자께서도 ‘구이(九夷)의 땅에 살고 싶다.’³⁶ 하셨고, 또 ‘군자(君子)가 그곳에 산다면 무엇이 야비함이 있겠느냐’ 하셨으즉, 상공(相公)³⁷께서 비록 먼 나라에 계시오나 기우(氣宇)가 헌칠하시고, 또 글은 공(孔) · 맹(孟)의 끼치신 글을 통하시며, 예법에는 주공(周公)³⁸의 도(道)를 닦았사온즉 이는 곧 한 분의 군자이신데 다만 한스러운 것은 우리들이 먼 땅 다른 하늘 밑에 살고 있어서 서로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풀지 못한 채 만나자 곧 헤어지게 되니 이를 어이하오리이까.”

하니 이귀동이 그 대목에다 수없이 동그라미를 치면서,

“은근하고도 애처로움이 꼭 내 마음 같구려.”

하고 감탄한다. 술이 다시 두어 순배 돈 때에 이생이,

“이 술 맛이 귀국의 것과 비교하여 어떠합니까.”

하고 묻는다. 나는,

“이 임안주는 너무 싱겁고, 계주주는 지나치게 향기로워서, 둘 다 술의 애초부터 지니고 있는 맑은 향기는 아니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엔 법주(法酒)가 더러 있습니다.”

한즉, 전생은,

“그러면 소주(燒酒)도 있습니까.”

하고 묻기에 나는,

“예, 있습니다.”

36 구이(九夷)……싶다 : 《논어(論語)》〈자한편(子罕篇)〉에 “공자께서 구이에 살고 싶으셨다” 했다. 구이 는 견이(畎夷) · 어이(於夷) · 방이(方夷) · 황이(黃夷) · 백이(白夷) · 적이(赤夷) · 현이(玄夷) · 풍이(風夷) · 양이(陽夷) 등 동방의 여러 민족.

37 상공(相公) : 〈통속편(通俗篇)〉에 “이제 의관을 차린 이를 모두 상공이라 남용하여 그의 계급에 따라서 대상공(大相公) · 이상공(二相公)이라 한다” 했다. 여기서는 연암을 가리킨 말.

38 주공(周公) : 성명은 희단(姬旦). 주(周)의 대표적 정치가.

하고 답하였다. 전생이 곧 몸을 일으켜 벽장에서 비파를 끄내어 두어 곡조를 뜯었다.
나는,

“옛날에도 연(燕) · 조(趙)엔 슬퍼 노래부르는 이가 많다³⁹고 일컬었으니 여러분도
응당 노래를 잘 하시겠죠. 원하건대, 한 곡조 들려 주시지요.”

하니, 배생은,

“잘 부르는 이가 없어요.”

하고, 이생은,

“옛날에 이른바 연 · 조의 슬픈 노래는 곧 궁벽하고도 작은 나라 선비로서 뜻 잃은
이들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이제야 사해가 한 집이 되고 성스러운 천자(天子)가 위
에 계시오니, 사민(四民)이 업을 즐기어서 어진 이는 밝은 조정의 상서로운 인물이
되어, 임금과 신하가 노래를 창수(唱酬)하며, 어리석은 백성들은 강구(康衢)의 연
월(煙月) 속에서 밭 갈고 우물 파며 노래 부르니⁴⁰ 아무런 불평이 있을 리 없으니,
어찌 슬픈 노래가 있을 수 있겠나이까.”

한다. 나는,

“성스러운 천자가 위에 계시면 나아가 섬김이 의당하올 것인데, 여러분으로 말하
면 모두 당세의 영결이시라 재주가 높고 학문이 넉넉하옵거늘, 어찌 세상에 나가
서 일하지 않으시고 이다지 녹록하게 이 시정 사이에 잠겨 지내시나요.”

하고 물으니, 배생은,

“이런 자격은 다만 전공(田公)께서나 담당하실 수 있겠죠.⁴¹”

하니, 한 자리에 앉은 사람의 웃음보가 터졌다. 이생은,

“이야말로 때와 운수가 있는 것인즉, 함부로 요구할 수는 없겠지요.”

하고, 그는 곧 책꽂이 위에서 선문(選文)⁴² 한 권을 뽑아서 나에게 한 번 읽기를 청

39 연(燕)……많다 : 한유(韓愈)의 〈송동소남서(送董邵南序)〉 중의 한 구절.

40 어리석은……부르니 : 《열자(列子)》에, “제요(帝堯)가 천하를 다스린 지 50년 만에 미복(微服)으로 강
구에 놀면서 동요(童謡)를 들었다” 했다. 강구는 한길.

41 전공(田公)……있겠죠 : 전의 이름이 사가(仕可) 즉 ‘출사할 만하다’는 뜻이었으므로 농담을 붙인 것이다.

42 선문(選文) : 어떤 본에는 문선(文選)으로 되었으나 그릇된 듯하다. 《문선》에는 〈출사표〉는 있으나 〈후

한다.

나는 곧 〈후출사표(後出師表)⁴³〉를 읽을 제 우리나라 식의 언토(諺吐)[구두(句讀)]를 달지 않고 높은 소리로 읽었다. 여럿이 둘러앉아 듣다가 무릎을 치며 좋아하지 않는 이가 없다. 이생이 내가 다 읽기를 기다려서 유량(庾亮)⁴⁴의 〈사중서감표(辭中書監表)〉를 골라 읽는데 그의 높았다 낮았다 하는 음절이 분명해서 비록 글자를 따라 일일이 알 수는 없어도 지금 어느 구절을 읽고 있는가를 넉넉히 알 수 있었다. 그의 목청이 맑아서 마치 관현을 듣는 듯하였다.

벌써 달은 지고 밤은 깊었는데 문 밖에는 인기척이 끊이지 않는다. 나는,

“성경에는 순라(巡邏 야경꾼)가 없습니다.”

하고 물었더니, 전생은

“예, 있습니다.”

한다. 나는 또,

“그럼, 길에 행인이 끊이지 않음은 어인 까닭이죠.”

한즉, 전생은

“다들 긴한 볼일이 있는게죠.”

한다. 나는,

“아무리 볼 일이 있은들, 어찌 밤중에 나다닐 수 있겠어요.”

한즉, 전생은

“왜, 못 다닌답니까. 초롱 없는 이야 못 다니겠지만, 거리마다 파수보는 데가 있어서 갑군이 지키고, 창과 곤봉으로 나쁜 놈을 적발하여 낮과 밤의 구별이 없거늘, 어찌 밤이라고 다니지 못하리까.”

한다. 나는,

“밤도 깊고 졸리니 초롱을 들고 사관으로 돌아감이 어떨까요.”

출사표>는 실려 있지 않다.

43 후출사표(後出師表) : 촉한의 명신 제갈량이 지었다 하나 〈출사표〉 곧 속칭 〈전출사표(前出師表)〉는 그가 지은 것이요, 소위 〈후출사표〉는 뒷사람의 위작(僞作)이라 한다.

44 유량(庾亮) : 동진(東晉)의 정치가로서 특히 사부(辭賦)에 능하였다. 〈사중서감표〉는 유량이 진 명제(晉明帝)에게 올려서 중서감을 사퇴한 표문.

하니, 배와 전이 함께,

“아니어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파수꾼에게 검문을 당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 깊고 깊은 밤에 혼자서 쏘다니냐고 하며 오가면서 들르신 처소까지 밝히라 할 것이 온즉, 몹시 귀찮을 것입니다. 선생이 이미 졸리신다면 이 누추한 곳에서나마 잠시 눈을 붙이시죠.”

하자, 목춘(穆春)이 곧 일어나서 텁(榻) 위의 텔방석을 말끔히 털고 나를 위해서 누울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젠 졸음도 갑자기 깨는군요. 다만 나 때문에 여러분께서 하룻밤 잠을 잊으실까 두려울 뿐입니다.”

하니, 여럿이,

“아니오, 조금도 졸립지 않아요. 이토록 고귀하신 손님을 모시고 하룻밤 아름다운 이야기로 새는 건 참으로 한 평생 가도 얻기 어려운 좋은 인연일까 합니다. 이렇게 세월을 보낸다면 하룻밤은커녕 석달이 넘도록 촛불을 돋우어 밤을 새워도 무슨 싫증이 나겠습니까.”

하고, 모두들 흥이 도도하여 다시 술을 더 데우고 안주를 다시 가져오게 한다. 나는,

“술을 다시 데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니, 그들은,

“찬 술은 폐(肺)를 해칠 우려가 있을뿐더러 독이 이[齒]에 스며듭니다.”

한다. 그 중 오복(吳復)은 밤새도록 단정히 앉았는데 눈매가 범상치 않다. 나는,

“일재선생(一齋先生)께선 오중을 떠나신 지 몇 해나 되시는지요.”

하니, 오생(吳生 오복(吳復))은,

“열한 해나 되었습니다.”

한다. 내가,

“무슨 일로 고향을 떠나 이다지 분주히 다니십니까?”

하니, 오생은,

“장사로 생애를 삼고 있습니다.”

한다. 내가 또,

“가족도 이곳에 따라와 계십니까?”

하니, 오생은,

“나이는 벌써 40세입니다마는, 아직껏 장가 들지 못했습니다.”

한다. 나는,

“오서림선생(吳西林先生)⁴⁵의 휘(諱)는 영방(穎芳)이옵고, 항주(杭州)의 고사(高士) 이신데 혹시 노형의 일가가 아닙니까?”

한즉, 오생은,

“아니에요.”

하기에, 나는 또,

“해원(解元) 육비(陸飛)와 철교(鐵橋) 엄성(嚴誠)과 향조(香祖) 반정균(潘庭筠)은 모두 서호(西湖 절강(浙江)에 있는 명소)의 이름 높은 선비들인데 노형이 혹시 잘 아시나요.”

한즉, 오생은,

“모두들 서로 이름을 통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되었으니까요.

다만 육비가 그린 모란을 본 기억은 납니다. 그는 호주(湖州) 사람이더군요.”

한다.

조금 뒤에 닭이 우니 이웃 사람들이 일어나 움직인다. 나는 고단한데 또 술까지 취하여, 교의 위에 걸터앉은 채 꾸벅꾸벅하다가 곧장 코를 골고 잠이 들었다. 그리하여 훤히 밝을 무렵에야 놀라서 잠을 깨니, 모두들 서로 걸상에 의지하여, 베기도 하고, 눕기도 하며, 혹은 의자에 앉은 채로 잠이 들었다. 나는 홀로 두어 잔 술을 기울이고 배생을 흔들어 깨워서, 가노라 이르고는 곧 사관에 돌아오니 해가 벌써 돋았다.

장복은 깊은 잠에 빠졌고 일행 상하도 모두 일어나지 않았다. 장복을 툭 차 깨워서,

“누가 날 찾는 이가 있더냐.”

45 오서림선생(吳西林先生) : 청 고종(清高宗) 때의 학자. 서림은 그의 자.

하고 물었더니,

“아무도 없더이다.”

한다. 곧 세숫물을 재촉하여 망건을 두르고 바삐 상방(上房)으로 가니, 여러 비장과 역관들이 바야흐로 아침 문안을 아뢰는 중이었다. 아무도 간밤의 일을 눈치채지 못한 듯한 모양이므로 마음속으로 적이 기뻐하며 다시 장복더러,
“입밖에 내지 말라.”

당부하였다.

아침 죽을 약간 마시고 곧 예속재에 이르니 모두들 일어나 가고, 전생과 이인재가 골동을 벌여 놓고 있다가 나를 보더니 모두 놀라는 듯이 반기면서,
“선생은 밤새 고단하지 않았습니까.”

하기에, 나는,

“밤낮을 헤일 것 없이 계으름증은 나질 않아요.”

하니, 전생은,

“그럼, 차나 한 잔 드시죠.”

한다. 조금 앉았으려니 한 아름다운 청년 하나가 밖에서 들어와 찻잔을 받들어 내게 권한다. 나는 그의 성명을 물었더니, 그는,

“저는 부우재(傅友梓)입니다. 집은 산해관에 있사옵고 나이는 열아홉 살입니다.”

한다. 전생이 골동들을 다 늘어놓고는 날더러 감상하기를 청한다. 호(壺) · 고(觚) · 정(鼎) · 이(彝) 등이 모두 열하나인데, 큰 것, 작은 것, 둥근 것, 모난 것이 제각기 다르고, 그 새김질과 빛깔이 낱낱이 고아하며, 관지(款識)⁴⁶를 살펴보니 모두 주(周) · 한(漢) 시대의 물건이다. 전생은,

“그 글자는 고증할 것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 요새 금릉(金陵) · 하남(河南) 등지에서 새로 꽃 무늬를 새긴 것이라, 관지는 비록 옛 식을 본떴더라도 꽃이 벌써 질박하지 못하고, 빛깔이 또한 순하지 못해서, 만일 이것들을 진짜 골동 사이에 놓는다면 필시 야비함이 대변에 드러날 것입니다. 내 비록 몸은 시전(市塵)에 잠겨 있더라도, 마음은 늘 배움터에 있던 차에 선생을 뵈오니, 마치 여러 쌍 보배(寶貝)를 얻

46 관지(款識) : 골동에 새긴 글자. 관은 음각(陰刻)이고, 지는 양각(陽刻).

은 듯싶사온즉, 어찌 조금이라도 서로 속여서 한평생을 두고 마음에 깨름칙하게 하오리까.”

한다. 나는 여러 그릇 중에서 창 같은 귀가 달리고 석류 모양으로 발을 단 통화로 하나를 들고 자세히 훑어본즉, 납다색(臘茶色) 빛깔에 제법 정미하게 만들었다. 화로 밑을 들쳐보니 대명선덕년제(大明宣德年製) 선덕은 명 선종(明宣宗)의 연호라고 양각(陽刻)으로 새겨져 있다. 나는,

“이것은 제법 좋은 듯싶은데요.”

하니, 전생은,

“실상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이는 선로(宣爐)가 아닙니다. 선로는 대개 납다색 수은(水銀)으로 잘 문질러서 속속들이 스미게 한 뒤 다시 금가루를 이겨 칠하였으므로, 불을 오래 담으면 저절로 붉은 빛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거야 어찌 민간에서 함부로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한다. 나는 또,

“그렇다면 골동기에 청록색 주반(硃斑 주사의 얼룩)이 생기는 건 흙 속에 오랫동안 파묻혀야 그러하므로, 그래서 무덤 속에 묻혔던 것이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제 이 그릇들이 만일 갓 구운 것이면 어찌 이런 빛깔을 낼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은즉, 전생은,

“이건 참 알아 두어야 합니다. 대개 골동기는 흙에 들면 청색(青色)이 나고, 물에 들면 녹색(綠色)이 나는 법입니다. 무덤 속에서 파낸 그릇들은 흔히 수은빛을 내는데, 어떤 이는 시체 기운이 스며들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아득한 옛날에는 흔히 수은으로 염(驗)을 했기 때문에, 혹시 제왕의 능묘에서 나오는 그릇은 수은이 옮아서 오래된 것일수록 속속들이 스며 배는 법이므로, 대개 갓 구운 것인지, 옛 것인지, 또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리기 쉽습니다. 고기(古器)는 비단 살이 두껍고 질이 좋을 뿐만 아니라, 본 몸에서 나는 빛이 대체로 천연스럽게 맑고도 윤기 있고, 수은 빛 역시 그릇 전체에 고루 퍼지는 게 아니라, 혹은 반쪽에서, 혹은 귀에서만, 또는 다리에서만, 그리고 가끔 번져나간 것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록색 얼룩 역시 그리하여, 전체 아닌 반만이 짙게도 들고, 여리게도 들고,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흐리다고 더러울 정도는 아니어서 머리카락 같은 무늬가 투명하게 뵈며, 맑다고 매마르진 않아서 어른어른함이 마치 물오른 듯합니다. 가끔 주사 알록점이 속속들이 깊이 스며든 것이 있는데, 그 중에도 갈색(褐色)진 것이 가장 고귀한 것이어서, 흙 속에 오래 들어 있으면 청(青) · 녹(綠) · 취(翠) · 주(朱)의 점들이 알록달록 하여, 혹은 버섯 무늬 같기도 하고, 혹은 구름 속 핫무리 같기도 하고, 또는 함박눈 조각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흙 속에서 천 년쯤 묻혀 있어야 될 테니 이건 정말 상품으로 치는 것입니다. 옛날 명 선종(明宣宗)이 무척 갈색을 좋아해서 이른바 선로에는 갈색이 많았던 것입니다. 근년에 섬서(陝西)에서 갓 지은 것도 문득 선덕의 것을 본뜨려 하였으나, 선로는 아예 꽃 무늬가 없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일부러 꽃 무늬를 새겼으니, 이것은 모두 요즘의 가짜입니다. 그들이 빛깔을 이토록 잘 위조함은, 대체로 그릇을 구운 뒤에 칼로 무늬를 새기고 관지를 파서 넣은 다음 땅속에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다 소금물 두어 둉이를 들이 붓고 마르기를 기다려 그릇을 그 속에 묻어두었다가 몇 해 만에 꺼내 보면 자못 고의(古意)가 있어 보이나, 이는 가장 하품이며 서투른 솜씨입니다. 이보다 더 교묘한 방법은, 봉사(鵬砂) · 한수석(寒水石) · 망사(礪砂) · 담반(膽礬) · 금사반(金砂礬)으로 가루를 만들어 소금물에 풀어서, 봉으로 골고루 그릇에 먹여 말린 뒤에, 씻고 또 씻은 다음 다시 봉질하여, 이러한지를 하루에 서너 번 한 뒤에 땅을 깊게 파서 그 속에 숯불을 피워 구덩이를 화로처럼 달군 뒤에 진한 초[醋]를 뿌리면, 구덩이가 펄펄 끓으면서 곧 말라 버립니다. 그 다음 그릇을 그 속에 넣고 초 찌꺼기로 두껍게 덮고, 또 흙을 다져서 빈틈 없이 하여 4~5일 지난 뒤에 꺼내 보면 여러 가지 알록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댓잎을 태워 그 연기를 풍겨서 푸른빛을 더 짙게 하고, 납으로 문지르되, 수은 빛을 내려고 한다면 바늘로 가루를 만들어 문지르고 그 위에 백랍(白蠟)으로 닦으면 그럴듯한 고색(古色)이 납니다. 그러고 혹은 일부러 한쪽 귀를 떼기도 하고, 또는 몸에 흠집을 내기도 해서, 상(商) · 주(周) · 진(秦) · 한(漢) 시대의 유물이라고 속이는 것은 더욱 얄미운 짓입니다. 뒷 날 창(廠) 중에 가시면 모두 먼 곳에서 온 장사치들이오니 물건을 사실 때 진 · 가를 분간치 못한 채 우물쭈물하다가 웃음감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한다. 나는,

“감사합니다. 선생이 이렇게 진심을 보여주시니까요. 저는 내일 아침 일찍 북경으로 떠날텐데, 바라건대, 선생은 문방·서화·정이(鼎彝) 등 여러 가지에 대하여 고금의 동이(同異)와 명호(名號)의 진위(眞僞)를 기록하셔서 어두운 길에 지남(指南)이 되도록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생은,

“선생이 만일 이것이 소용이 있으시다면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곧 《서청고감(西清古鑑)》⁴⁷과 《박고도(博古圖)》⁴⁸ 중에서 제 소견을 첨가하여 깨끗이 써서 드리겠습니다.”

한다. 이에 달이 돋으면 다시 오기로 약속하고 사관에 돌아오니, 이미 아침 밥을 올렸으므로 잠깐 상방에 다녀 빨리 조반을 치르고 다시 나오니, 정 진사가 계함과 내원과 함께 역시 유람을 나서면서 나더러,

“혼자서 다니며 무슨 재미난 구경을 하시오.”

하고 나무라더니, 내원이 또,

“실은 아무 것도 구경한 게 없습니다. 옛날 광주(廣州) 골 생원님이 처음 서울에 와서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인사 한 마디도 똑똑히 못하여 서울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⁴⁹더니 이제 우리들이 꼭 그 꼴이군요. 난 더군다나 두 번째라 아무런 재미란 느끼지 못했구려.”

한다.

길에서 비치(費輝)를 만났더니 나를 이끌고 담자리전으로 들어가서 오늘 밤 가상루에서 모이자고 부탁한다. 나는 이미 전포관(田抱關)과 예속재에서 만나기로 약속했고, 어제 저녁에 모였던 여러분들이 다 모이기로 했다고 말했더니, 비생은, “아까 포관과도 잘 이야기 되었습니다. 이제 선생이 외국의 손님으로 녹명(鹿鳴)⁵⁰

47 서청고감(西清古鑑) : 청 고종(清高宗)의 명참(命譏)으로서 내부(內府)에 있는 고기를 해설한 책 이름.

48 박고도(博古圖) : 송 휘종(宋徽宗)이 지은 책 이름. 흔히 선화박고도(宣和博古圖)라 한다.

49 광주(廣州) 골……되었다 : 우리나라에 많이 유행된 속담.

50 녹명(鹿鳴) : 《시경(詩經)》의 편명(篇名). 임금이 군신(羣臣)을 모아서 잔치할 때 녹명편을 노래로 불렀다.

을 노래하며 북경으로 가시는 길이온즉, 우리들이 선생을 위해서 백구(白駒)⁵¹의 옛 시를 읊는 심정은 누구나 다 같을 것입니다. 배공이 이미 촉중의 온공(溫公)과 함께 주식을 장만하였으즉, 이 약속을 어기시면 안 될 것입니다.”

한다. 나는,

“어제 저녁엔 너무 많이 여러분께 폐를 끼쳤는데 오늘밤은 그러시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니, 비생은,

“저 꾀에 아름다운 나무가 있다면 공장이 자로 갈 것⁵²이요, 나는 백로(白鷺)가 멀리 찾았으니⁵³ 피차 서로 싫지 않을 것입니다. 열두 행와(行窩)⁵⁴엔 애초부터 일정한 약속이 없을 것이요, 사해가 모두 형제인즉 누구에게 후박이 있겠습니까.”

하자, 마침 내원 등이 거리를 서성거리다가 나를 찾아 가게로 들어왔다. 나는 급히 필담(筆談)하던 종이쪽을 걷어치우고 고개를 끄덕여서 응낙하였다. 비생 역시 내 뜻을 눈치채고 빙그레 웃으면서 턱을 끄덕였다. 계함이 종이를 찾으며 말을 하고 싶어 하기에 내가 먼저 일어나면서,

“그와 더불어 이야기할 게 못 되네.”

하니, 계함 역시 웃고 일어선다. 비생이 문까지 나와서 내 손을 넘지시 잡고 은근한 뜻을 비치므로, 나는 그저 끄덕이고 나와 벼렸다.

상루필담(商樓筆談)⁵⁵

51 백구(白駒) : 《시경》의 편명. 어진 선비를 여의는 노래. 백구는 흰 말.

52 저 꾀에……깰 것 : 《좌전(左傳)》에서 나온 말.

53 나는……찾았으니 : 《시경》〈진로편(振鷺篇)〉에서 나온 말. 나는 백로로써 외국 손님이 이름에 비하였 다.

54 열두 행와(行窩) : 《송사(宋史)》〈소옹전(邵雍傳)〉에, “일을 좋아하는 자가 별도로 소옹의 살고 있는 집과 비슷한 집을 지어서 그가 이르기를 기다렸으니 그 이름은 행와라 한다” 했다. 그리하여 열두 군데에 행와가 있었다.

55 상루필담(商樓筆談) : ‘다백운루본’에는 〈상루야화(商樓夜話)〉라 하여 성경잡지에서 각립시켰으나 그릇된 것이다.

저녁에는 더위가 오히려 찌는 듯하고 하늘 가엔 붉은 햇무리가 끼었다.

나는 밥을 재촉해 먹고 잠깐 상방에 가서 조금 앉았다가 곧 일어나면서 혼잣말로,
“고단하고 더위가 특히 심하니 일찍 자야겠군.”

하고는, 뜰로 내려와서 서성거리다가 틈만 있으면 나갈 궁리였다. 마침 내원과 주
주부·노 참봉 등이 밥 먹은 뒤 뜰을 거닐면서 배를 문지르며 트림을 하고 있다.
때에 달빛이 차츰 돋아나고 시끄러운 소리가 잠깐 끊기었다. 주(周)가 달그림자를
따라 두루 거닐면서 부사가 요양서 지은 칠률(七律)을 외고, 또 자기가 차운(次韻)
한 것을 읊고 있었다. 나는 바쁜 걸음으로 마루로 올라갔다가 도로 나오면서 노군
더러,

“형님⁵⁶이 매우 심심해하시더군.”

하니, 노군은,

“사또께서 너무나 적막하시리다.”

하고, 곧 마루 위로 향한다. 주군도 근심스러운 낮빛으로,

“요즘 병환이 나실까 두렵습니다.”

하고, 곧장 마루 쪽으로 향해 가니 내원도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나는 그제야
빨리 문을 나가면서, 장복에게,

“어제처럼 잘 꾸며 대려무나.”

하고, 타이르자 계함이 밖에서 들어오다가 나를 보고,

“어디를 가시오.”

한다. 나는 가만히,

“달을 따라 어디 좋은 데 가서 이야기나 해보자꾸나.”

한즉, 계함은,

“어딜요.”

하므로, 나는,

“그야 어디든지.”

56 형님 : 곧 상사 박명원. 연암의 삼종형.

하였더니, 계함이 발을 멈추고 망설이는 차에 수역이 마침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는,

“달이 좋으니 좀 거닐다 와도 좋겠지요.”

한다. 수역이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말하니, 계함은 웃으면서,

“일이야 의당 이렇게 해야죠.”

하기에, 나도 허튼 말로,

“그럴 법 하군.”

하고, 곧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여 들어갈 제 마침 수역과 계함이 마루에 올라서 돌아보지 않는 틈을 타서 나는 가만히 빠져 나왔다. 이미 한길에 나오니, 비로소 가슴이 후련하였다. 더위도 약간 물리가려니와 달빛이 땅에 가득하다. 먼저 예속재에 이른즉, 벌써 문이 닫혔는데 전생은 어딘지 나가고 이인재만이 혼자 있었다. 이는 곧,

“잠깐 앉으셔서 차나 마시세요. 전공이 곧 돌아올 겁니다.”

한다. 나는,

“가상루의 여러분께서 벌써 모여서 몹시 기다릴 걸요.”

하니, 이생은,

“가상루의 아름다운 약속은 벌써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모시고 가리다.”

한다. 마침 전생이 손에 붉은 양각등(羊角燈)을 들고 들어와서 곧 가기를 재촉하므로, 이생과 함께 담뱃대를 입에 문 채 문을 나섰다. 한길이 하늘처럼 넓고 달빛은 물결처럼 흘러내린다. 전생이 손에 들었던 초롱을 문 위에 걸기에, 나는,

“초롱을 들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한즉, 이생은,

“아직 밤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한다. 드디어 천천히 네거리로 거닐었다. 양편 상점(商店)들은 벌써 문이 닫혔고, 문 밖엔 모두 양각등을 걸었는데 더러는 푸르고 붉은 빛깔도 섞여 있다.

가상루 여러 사람들이 마침 난간 밑에 죽 늘어서 있다가 나를 보고 모두들 못내 반겨하며 상점 안으로 맞아들인다. 이중에는 배관·갈부·이귀몽·동야·비치·하

탑·전사가·포관·온백고·목재(鷺齋 목현(鷺軒))·목춘·수환·오복·천근 등이 모두 모였다. 배생이,

“박공(朴公)은 가히 믿음 있는 선비라 이를 만합니다.”

한다. 마루 가운데에 부채처럼 생긴 사초롱 한 쌍이 걸려 있고 탁상에는 촛불 두 자루가 켜졌는데, 어(魚)·육(肉)·소(蔬)·과(果)들을 이미 차려 놓았으며, 북쪽 벽 밑에도 따로이 한 식탁을 벌여 놓았다. 여러 사람들이 나에게 먹기를 청하기에 나는,

“저녁밥이 아직 덜 내려갔습니다.”

한즉, 비생이 손수 더운 차 한 잔을 따라서 권한다. 마침 자리에 처음 보는 손님이 있기에 나는 그들에게 그의 성명을 물었더니,

“저이는 마영(馬鎣)이라 하며, 자는 요여(燭如)이고, 산해관에 살고 있는 분인데 장사하러 이곳에 왔으며, 나이는 스물셋이고 글도 대략 안답니다.”

하고, 소개한다. 비생은,

“오십독역(五十讀易)⁵⁷을 어떤 이는 정복독역(正卜讀易)이라 하여 복(卜) 자에다 획 하나 더 붙은 것이라 하는데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기에, 나는,

“오십독역의 오십(五十)은 비록 졸(卒) 자가 아닌가 하고 의심할 수는 있겠으나, 이제 정복(正卜)의 그릇된 것이라 함은 너무 천착함이 아닐까요. 《역경(易經)》은 비록 복서(卜筮)에 쓰는 책이지만 계사(繫辭 《역경》 중의 한 편명(篇名))에도 점(占)과 서(筮)를 말했으나 복(卜)자는 보이지 않을뿐더러 복 자로 말한다 하더라도 곤() 자에다 한 점(丶)을 더한 것인만큼 애초에 일(一)자의 획을 건너 그은 건 아니니까요.”

하니, 비생은 또,

“혹은 무악단주오(無若丹朱傲)⁵⁸의 오(傲) 자를 오(奡)⁵⁹ 자의 잘못이라 하고, 그 아

57 오십독역(五十讀易) : 《논어(論語)》에, “순 살에 역경(易經)을 읽었다” 하였다.

58 무악단주오(無若丹朱傲) : 《서경(書經)》에 “단주처럼 거오한 자는 없다” 했다. 단주는 요(堯)의 아들 이름.

59 오(奡) : 《논어》에 “오(奡)는 능히 물에서 배를 끈다” 했다. 오는 역사(力士)의 이름.

래 망수행주(罔水行舟)⁶⁰라는 글을 보아서도 두 사람으로 봄이 옳다 하는데요.”

하기에, 나는,

“오(寡)가 능히 물에서 배를 저었다 하니, 망수행주와 뜻은 매우 그럴싸하게 맞으나 오(傲)와 오(寡)는 비록 음은 같을지라도 글자의 모양은 아주 다를뿐더러 오(寡)와 착(浞)⁶¹으로 말하면 모두 하 태강(夏太康)⁶² 때의 사람인즉 위로 우순(虞舜) 시대와는 매우 요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이동야는,

“선생의 변증이 꼭 옳습니다.”

한다. 나는 전포관더리,

“부탁드린 골동의 목록은 이미 집필을 시작하셨지요.”

하고 물은즉, 전생은,

“점심 때 마침 조그마한 일이 생겨서 아직 반도 베끼지 못한 채 그대로 접어 두었습니다. 내일 아침 떠나시는 길에 잠시 점포 앞에서 행차를 멈추시면, 제 손수 수하 사람에게 전해 드릴 터이오며, 이번엔 결단코 전 약속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한다. 나는,

“선생께 이렇듯 수고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하니, 전생은,

“이건 친구간의 예사 일입죠. 다만 진작 못해 드려 부끄러울 뿐입니다.”

한다. 나는 또,

“여러분은 일찍이 천산(千山)을 구경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들은,

“예서 백여 리나 되어 아무도 가본 일이 없답니다.”

한다. 나는,

“병부 낭중(兵部郎中) 복녕(福寧)이란 이를 잘 아십니까.”

60 망수행주(罔水行舟) : 물도 아닌 물에서 배를 가게 함을 이른 말.

61 착(浞) : 사람 이름. 혹은 오가 착의 아들이라 하였다.

62 하 태강(夏太康) : 하(夏)의 임금. 태강은 시호(諡號).

하니, 전생은,

“아직 모릅니다. 우리 친구 중에도 다들 그럴 것입니다. 그는 벼슬하는 양반이고,
우리는 장사치인데 어찌 서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한다. 동야는,

“선생은 이번 길에 황제를 직접 뵈옵지요?”

하기에, 나는,

“사신은 때로 별 수 있겠지만, 나는 한갓 수원(隨員)이라 그 반열에 참가할 것 같지
않습니다.”

하니, 동야는,

“지난해에 어가(御駕)가 능(陵)에 거동하셨을 때 귀국의 종관(從官)들은 모두 천자
의 존안을 가까이 뵙곤 하던데 우리네는 도리어 그가 부럽더군요.”

하기에, 나는,

“여러분은 어째서 우러러뵙지 못합니까?”

하니, 배갈부는,

“어찌 감힌들 당돌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문 닫은 채 잠자코 있을 뿐이
죠.”

한다. 나는,

“황상께서 거동하실 때면 아이 어른할 것 없이 들판에 모여들어 다투어 그 행차를
우러러보려고 할 것 아닙니까.”

하니, 그는,

“어찌 감히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한다. 나는,

“지금 조정 각로(閣老)들 중에 누가 가장 인망이 높지요?”

하였더니, 동야는,

“그들 이름은 모두 만한진신영안(滿漢晳紳榮案)⁶³에 실렸으니 한번 훑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63 만한진신영안(滿漢晳紳榮案) : 만인과 한인을 함께 실은 일종의 잡영록(簪纓錄).

하기에, 나는,

“비록 영안(榮案)을 본단들 그들의 사업이야 알 수 있습니까.”

하니, 동야는,

“우리네야 모두 초야(草野)에 묻힌 몸이어서 지금 조정에 누가 주공(周公)인지 소공(召公)⁶⁴인지, 또 누가 꿈에서⁶⁵, 또는 점쳐서⁶⁶ 등장되었는지를 모르지요.”

한다. 나는,

“심양성 중에 경술(經術)과 문장이 능통한 이가 몇이나 있을까요?”

하니, 배생은,

“저는 녹록해서 들은 바가 없습니다.”

하고, 전생은,

“심양 서원(書院)에 서너너덧 사람 거인(舉人)⁶⁷이 있었는데 마침 과거보러 북경에 가고 없답니다.”

한다. 나는,

“여기서 북경까지 1천 5백 리 사이 연로에 이름난 사람과 높은 선비들이 응당 많겠죠. 그들 성명(姓名)을 알았으면 찾아보기에 편리할 것 같습니다.”

하니, 전생은

“산해관(山海關) 밖은 아직도 변방이라 지기(地氣)가 거칠고 사람이 사나워서, 연로엔 모두 우리와 같은 장사꾼들뿐이니, 이름을 들 만한 이도 없거니와 역시 사람을 천거하기란 가장 어려운 노릇이어서, 기껏해야 제가 아는 사람을 들춤에 지나지 못하며, 제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아첨함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랬다가 한번 높으신 눈으로 보시어 꼭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저에겐 부질없는 말이 되고, 남들에겐 실망을 줄 뿐이리다. 이제 무슨 좋은 바람이 불어서 선생을 뵙고, 덕망을 우러러 촛불을 밝히고 마음껏 토론하니, 이를 어찌 꿈엔들 생각이나 했던 일이겠습니까. 이는 실로 하늘이 맺어 준 연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서 한

64 소공(召公) : 성명은 희석(姬奭). 주공과 함께 주초(周初)의 어진 재상. 소공은 봉호(封號).

65 꿈에서 : 은 무정(殷武丁)이 꿈에 부열(傅說)을 만나고 초상을 그려 붙여서 그를 찾아 재상을 삼았다.

66 점쳐서 : 주 문왕(周文王)은 점쳐서 여성(呂尚)을 얻어 스승을 삼았다.

67 거인(舉人) : 지방에서 국가 고시에 합격하고 중앙 고시에 응할 자격을 지닌 선비.

사람 지기의 벗을 얻는다면 족히 한이 없을 것이니, 선생께서는 가시는 길에 스스
로 좋은 사람을 만날 것인즉, 어찌 다른 사람을 미리 소개할 일이겠습니까.”

한다. 술이 몇 순배 돌 때에 비생이 먹을 갈고 종이를 펴면서,

“목수환이 선생의 필적을 얻어서 간직하고자 합니다.”

하기에, 나는 곧 반향조가 김양허(金養虛)⁶⁸를 보낼 때 준 칠절(七絕) 중에서 한 수
(首)를 써서 주었다. 동야는,

“반향조란 귀국의 이름 높은 선비입니까.”

하고 묻기에, 나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이는 전당(錢塘) 사람으로 이름은 정균(廷筠)인데, 지금 중서사인(中書舍人)으로 있고 향조는 그의 자랍니다.”

했다. 배생은 또 한 공첩(空帖)을 내어서 글씨를 청한다. 짙은 멱 부드러운 봇끝에 자획이 썩 잘 되었다. 내 스스로도 이렇게 잘 쓰여질 줄은 몰랐고, 다른 사람들도 크게 감탄하여 마지않는다. 한 잔 기울이고 한 장 써 내치고 하매 필태(筆態)가 마음대로 호방해진다. 밑에 몇 쪽은 진한 먹으로 고송(古松)과 괴석(怪石)을 그렸더니, 여러 사람들이 더욱 좋아하여 서로 다투어 가면서 종이와 봇을 내놓고 뻥 둘러 서서 써 달라고 조른다. 또 검은 용(龍) 한 마리를 그리고 봇을 통겨서 짙은 구름과 소낙비를 그렸는데, 지느러미는 꽂꽂이 세워지고, 등비늘은 순서 없이 붙었으며, 발톱이 얼굴보다 더 크고, 코는 뿔보다 더 길게 그렸더니, 모두들 크게 웃으며 기이하다 한다. 전생과 마영(馬鑄)이 초롱을 들고 먼저 돌아가려 하므로, 나는,

“이야기가 한창 재미있는데 선생은 왜 먼저 가시렵니까.”

하고 물은즉, 선생은,

“지례 돌아가고 싶진 않으나 다만 약속⁶⁹을 지키려니 하는 수 없습니다. 내일 아침 문에 나서서 작별 드리오리다.”

한다. 나는 아까 그런 검은 용을 들고 촛불을 당겨 사르려 했다. 온목현이 급히 일

68 김양허(金養虛) : 김재행(金在行). 양허는 자. 그는 김상현(金尙憲)의 오대손. 영조(英祖) 41년에 홍대용(洪大容)과 함께 연행(燕行)을 하였다.

69 약속 : 등사해 주기로 한 <고동록(古董錄)>을 베끼기 위함이었다.

어나서 앗아다가 고이 접어서 품속에 간직한다. 배생은 껄껄 웃으면서,

“관동(關東) 천 리에 큰 가뭄이 들까 두렵군.”

하기에, 나는,

“어째서 가문단 말씀이오.”

하니, 배생은,

“만일 이게 화룡(火龍)이 되어 간다면 누구든지 괴로움을 부르짖지 않을 수 없을 걸요.”

한다. 모두 한 바탕 웃은 뒤에 배생은 다시,

“용 중에도 어질고 나쁜 것이 있는데 화룡이 가장 독하답니다. 건륭(乾隆) 8년 계해(癸亥 1743)⁷⁰ 3월에 산해관 밖 여양(閨陽) 벌판에 용 한 마리가 떨어져서 구름도 없이 우레하며, 비도 내리지 않으면서 번갯불이 번쩍이고, 해서관 밖 늦은 봄 일기가 별안간 6월 더위로 변하였답니다. 용이 있는 곳으로부터 백 리 안은 모두 펄펄 끓는 도가니 속같이 되어서 사람과 짐승이 목말라 죽은 게 수없이 많았고, 장사치와 나그네도 다니지 못했고 살아 있는 사람들은 밤낮 없이 발가승으로 앓아도 부채를 손에서 놓지 못했답니다. 황제께서 분부를 내리시어 관내의 냉장고에서 얼 음 수천 차를 내어 관 밖에 고루 나눠서 더위를 가시게 하였답니다. 용 가까이 있던 나무와 흙과 돌은 모두 콩 볶듯 되고 우물과 샘이 들끓었습니다. 용이 열흘 동안 누워 있더니 갑자기 바람이 불어치고 천둥이 일며 콩알 같은 비가 퍼붓고, 대릉하(大陵河)의 집들이 비 속에서 저절로 불이 나곤 하였으나, 다만 사람과 짐승에겐 아무런 해도 없었답니다. 용이 떠날 때엔 사람들이 나가 보니, 마침 몸을 일으켜서 하늘로 오르려 할 제 쳐음엔 무척 굽뜨게 머리를 쳐들고 꼬리를 끌되, 마치 타마(駝馬)가 일어선 모양인데 길이는 겨우 서너 길밖에 되지 않더랍니다. 그러다가 입 으론 불을 뿐고 꼬리만 땅에 붙이고는 한 번 몸을 굽힐하매 비늘마다 번개가 번 일면서 우레 소리가 나오 공중에서 빛발이 쏟아지더니, 이윽고 몸을 묵은 벼드나 무 위에 걸치자, 머리로부터 꼬리에 이르기까지 여남은 길이나 되며, 소낙비가 강 물을 뒤엎는 듯 퍼붓더니 이내 멎었답니다. 그제야 하늘을 쳐다본즉, 그 날랜 품이

70 계해(癸亥) : '일재분'에는 계사(癸巳)로 되었는데 그릇된 것이다.

동쪽 구름 사이에 뿔이 나타나고 서쪽 구름 사이엔 발톱이 드러나는데, 뿔과 발톱 사이가 몇 리나 되더랍니다. 용이 오른 뒤엔 날씨가 청명하여 도로 삼월의 천기가 되고, 용이 누웠던 자리엔 몇 길이나 되는 맑은 못이 파이고, 못 가에 있던 나무와 들은 모두 타버리고 반쯤만 남았으며, 마소들은 털과 뼈가 모두 타서 녹아버렸고, 크고 작은 물고기 죽은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그 냄새에 사람이 가까이 갈 수도 없었답니다. 특히 이상한 것은 용이 걸렸던 벼드나무는 일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해에 관동의 일대에 큰 가뭄이 들어서 9월이 되도록 비가 내리지 않았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용이 간다면 또 그런 변이 생길까 저어하는 바입니다.” 하자, 일좌가 모두 한바탕 크게 웃었다. 나는 잔에 술을 부어 죽 들이키고 나서, “이 이야기에 아주 술맛이 도는군요.”

하니, 여렷이,

“옳습니다. 이번엔 우리 각기 한 잔씩 돌려서 박공의 기쁨을 도웁시다.”

한다. 나는,

“여러분이 그 용의 이름을 아십니까?”

한즉, 혹은 응룡(應龍)이라 하고, 또는 한발(旱魃)이라 한다. 나는,

“아니에요. 그 이름은 강철(罡鐵)이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강철이 지난 곳엔 가을도 봄이 된다 하니, 이는 가물어 흥년이 짐을 이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들이 일하다 잘 이룩되지 않음을 보고는 강철의 가을이라 합니다그려.”

하였더니, 배생이

“그 용 이름이 참 기이하구려. 내가 난 때가 바로 그 해이니, 이는 곧 강철의 가을이라 어찌 가난치 않고야 견디겠소.”

하고, 그는 다시 긴 목소리로,

“강처(罡處).”

하기에, 나는,

“아니오, 강철.”

하고, 다시 일러주니, 배생은 또,

“강천(罡賤).”

한다. 나는 웃으면서,

“천(賤)이 아니요, 도철(饕餮)이란 철(饕)과 음이 같은 철(鐵)이에요.”

하니, 동야가 크게 웃으며 이내 커다란 소리로,

“강청(罡青).”

하여, 모두들 허리를 잡고 웃었다. 대개 중국 사람들의 발음엔 갈(曷) · 월(月) 등의
리를 받침이 잘 궁글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여러분은 모두 오(吳) · 촉(蜀)에 살고 계시면서 이렇게 멀리 장사와서 해를 거듭
바꾸시면 고향 생각이 간절치 않습니까.”

하고, 말머리를 돌렸다. 오복은,

“간절타 뿐입니까.”

하고, 동야는,

“고향 생각이 날 때마다 심신이 산란해집니다. 천애(天涯) · 지각(地角)과 같은 먼
곳에 와서 사소한 이문을 다투다 보니, 연만하신 어머니께서는 부질없이 해저문
여문(閨門)에 기대어 나를 기다리시고, 젊은 아내는 침방을 홀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편지마저 끊어지고, 꾀꼬리 소리엔 꿈 역시 이르지 않으니, 어
찌 사람으로서 머리가 세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달 밝고 바람 맑으며, 일 지고 꽃
피는 때면 하염없이 간장만 타니 이를 그 어이하오리까.”

한다. 나는,

“그렇다면 진작 고향에 돌아가서 몸소 밭을 갈아 우리를 어버이를 섬기고, 아래로
는 처자를 거느릴 계획을 세우시지 않고, 오로지 이렇게 하찮은 이문을 쫓아서 멀
리 고장을 떠나셨나요. 설사 이리하여 재산이 의돈(猗頓)⁷²과 겨루고 이름이 도주
(陶朱)⁷³와 같이 된다한들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까.”

하니, 동야는,

71 철(饕) : ‘일재본’에는 명철(明哲)이란 철(哲)로 되었다.

72 의돈(猗頓) : 전국 때 노(魯)의 유명한 부자. 돈은 이름이요. 의는 산동성 의씨(猗氏)라는 고을에서 살
림을 일으켰으므로 불였다.

73 도주(陶朱) : 성명은 범려(范蠡). 도(陶)에 살 때에 주공(朱公)이 되었으며, 19년 만에 세 번이나 천금
을 이룩하였고 그 자손이 더욱 돈을 늘려서 거만에 이르렀다.

“그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고향 사람들도 더러는 반딧불을 주머니에 넣기도 하고⁷⁴ 송곳으로 정강이를 찌르면서⁷⁵ 글 공부하며, 아침에 나물 밥, 저녁엔 소금 찬으로 가난을 견디는 이가 많습니다. 그러한 정성을 하늘이 가엾이 여기셨음 인지 때로 비록 하찮은 벼슬을 얻어 하는 일이 있사오나, 만 리 타향에 일터를 찾으려니 고향을 떠나 사는 건 마찬가지지요. 혹시 친상을 당하든지 파면을 당하든지 한다면 고생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또 관직을 가진 자는 마땅히 그 일터에서 죽어야 할 것이며, 혹시 잘못이 있을 때엔 장물(贓物)을 도로 토해내야 할뿐더러 세업(世業)마저 기울이게 될 것이니, 그때에야 비록 황견(黃犬)의 탄식⁷⁶을 지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배운 것이 어설프니 벼슬길도 가망 없고, 그렇다고 해서 피땀 흘리며 공장이 노릇으로 일생을 보낼 기술도 없거니와, 쌀 한 알 얻기 위해 갖은 고생을 다하는 농업으로 한 평생을 지낸댔자, 이는 나서 늙고 병들어 죽을 때까지 불과 좁은 고장을 한 걸음도 떠나지 못한 채, 마치 여름 별레가 겨울엔 나오지 못하듯이 이 세상을 마칠 터이니, 그렇다면 차라리 하루 빨리 죽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이제 가게를 내고 물건을 사고 팔아서 생활을 삼는 건 남들은 비록 하류로 치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나를 위하여 이에 하늘이 한 개의 극락계(極樂界)를 열고 땅이 이러한 쾨활림(快活林)⁷⁷을 점지하여, 도주공의 편주(扁舟)를 띠우고,⁷⁸ 단목씨(端木氏)의 수레를 잇달아서⁷⁹ 유유히 사방을 다니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어떤 넓은 대도시라도 뜻에 맞는 대로 그칠 것이니, 드높은 처마와 화려한 방 안에 몸과 마음이 한가롭고, 모진 추위나 가혹한 더위에도 방편을 따라 자유롭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버이께 위안되시고 처자들도 원망치 아니하

74 반딧불을……하고 : 진(晉)의 가난한 학자 차윤(車胤)의 옛 일. 형설(螢雪)의 공(功)이 여기서 유래되었음.

75 송곳으로……찌르면서 : 육국(六國) 때 여섯 나라 재상을 겸임하던 소진(蘇秦)의 옛 일.

76 황견(黃犬)의 탄식 : 진(秦)의 이사(李斯)가 그의 아들과 함께 형장으로 갈 때 그의 아들을 돌아보면서, “내 비록 너와 다시 황견을 물고 동문을 나서 사냥을 하고자 한들 얻을 수 있겠느냐” 하였다.

77 쾨활림(快活林) : 송(宋)의 수도 교외에 있는 유명한 유원지의 이름.

78 도주공의……띠우고 : 범려가 절세의 가인 서시(西施)를 배에 싣고 함께 오호(五湖)로 떠다녔다.

79 단목씨(端木氏)……잇달아서 : 공자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돈벌이를 잘하는 단목사(端木賜). 그의 자는 자공(子貢).

여, 나아가나 물려서나 피차간 여유 있고 영화롭거나 욕되거나를 모두들 잊게 된 즉, 저 농사와 사환의 두 길에 비하여 그 괴롭고 즐거움이 어떻다 하리까. 또 저희들은 특히 사귐에 있어서 모두 지성(至性)을 지녔답니다. 옛 글에도 세 사람이 같이 행하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될 이가 있다⁸⁰ 하였고, 또 이르기를, 두 사람의 마음이 합한다면 굳은 쇠라도 끊을 수 있다⁸¹ 하였으니, 이 누리의 지락(至樂)이 이보다 더 지나칠 것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한평생에 만일 동무가 없다면 아무런 재미도 없을 것입니다. 저 입고 먹는 것밖에 모르는 위인들은 모두 이런 취미를 모른답니다. 세상에는 과연 그 면목이 얄밉고 말씨가 멋 없는 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의 눈엔 옷가지 밥사발만 눈에 뜨일 뿐 동무를 사귀는 즐거움이라곤 조금도 지니지 않았답니다.”

한다. 나는,

“중국의 백성들은 제각기 네 갈래의 분업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만큼 거기엔 귀천의 차별이 없을 터이며, 따라서 혼인이라든지 또는 사환에 있어서도 아무런 구애가 없겠지요.”

한즉, 동야는,

“우리나라에선 벼슬아치들은 장사치나 장인바치와는 혼인함을 금하여 관기(官紀)를 깨끗이 하고, 아울러 도(道)를 높이고 이(利)를 낮게 보며, 근본을 숭상하고 지업을 누르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네는 모두 대대로 장사하는 집이므로 사대부의 집과는 혼인이 없고, 돈과 쌀을 바쳐서 생원(生員)이나 얻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역시 향공(鄉貢)⁸²을 거쳐서 거인(舉人)이 되지는 못한답니다.”

하매, 비생은,

“그러나 그건 다만 고향에서만이지 타관에 나서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고, 덧붙여 설명한다. 나는,

“한 번 제생(諸生 생원과 같음)이 되기만 하면 사류(士類)로 행세함은 용허됩니

80 세 사람……있다 : 《논어(論語)》에 나온 말.

81 두 사람의……있다 : 《역경(易經)》에서 나온 말.

82 향공(鄉貢) : 지방 출신의 과거 응시자.

까.”

하였다니, 이는,

“그렇습니다. 제생 중에서도 늄생(廩生 국가 급비생(給費生)) · 감생(監生)⁸³ · 공생(貢生) 등의 여러 가지 명목이 있어서 이들은 모두 생원 중에서, 뽑혀 오르기 때문에 한 번만 생원에 통과되면 구족(九族)에게 빚이 나나, 그 대신 이웃들이 해를 입습니다. 왜냐하면 관권(官權)을 잡고 시골에서 무단(武斷)을 감행하는 게 곧 생원님네의 전문적인 기술이고, 소위 사류(士類) 중에도 대체로 세 층이 있으니, 상등은 벼슬아치가 되어 관록을 먹는 것이요, 중등은 학관(學館)을 열어서 생도를 모집하는 것이요, 하등은 남에게 창피를 무릅쓰고 빌붙고 꾸러 다니는 축들입니다. 이는 속담에 이른바 남에게 빌붙어 사니 체면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건만, 당장 살길이 막연하니 남에게 빌붙지 않을 수 없지요. 추위와 더위를 헤아리지 않고 줄곧 쏘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면 말을 할까말까 주저하다가 그 야비한 정상이 먼저 나타납니다. 한때엔 고담준론만 하던 선비가 뜻밖에 세상이 미워하는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속담에 ‘남에게 구하는 것은 나에게 스스로 구함만 같지 못하다’고 했듯이, 장사를 하면 저절로 이런 지경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한다. 나는 말머리를 돌려서,

“중국의 상정(觴政)⁸⁴엔 반드시 묘한 방법이 있을 터인데, 어제 오늘 이를 밤을 여럿이 모여 마셔도 주령(酒令)을 내지 않음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배갈부가,

“이는 옛날의 상정을 말씀함이죠. 지금은 하찮은 운전수(運轉手)나 금고직(金庫直)이 따위도 다 아는 일이어서 그리 운치(韻致) 있는 일로 치질 않습니다.”

하니, 비생은 다시,

“《입옹소사(笠翁笑史)》⁸⁵에 용자유(龍子猶)의 고려 중의 주령에 관한 이야기를 실

83 감생(監生) : 국립 대학인 국자감(國子監)의 학생을 가리키는 것이었으나, 이때에는 아래 나오는 공생과 함께 일정한 월사금을 내고 관립 학교에 학적을 지니게 된 자.

84 상정(觴政) : 주령(酒令)과 같다. 술을 마시는 좌석에서 수수께끼 같은 문제를 내면 이에 맞추어 대구를 하여 승부를 보아 벌주를 먹이는 놀음.

85 입옹소사(笠翁笑史) : 청의 유명한 희곡작가 이어(李漁)가 지은 서명(書名).

었는데, 어떤 사신이 고려에 갔을 때 고려에서는 한 중으로 하여금 그를 초대하여 잔치를 벌였더니 중이 영(令)을 내되, 항우(項羽)와 장량(張良)⁸⁶이 서로 산(傘) 하나를 놓고 다투는데, 항우는 우산(雨傘)이라 하고 장은 양산(涼傘)이라 했다 하니, 사신이 창졸간에 대답하기를, ‘허유(許由)⁸⁷와 조조(鼂錯)⁸⁸가 호로(胡盧) 하나를 두고 다투는데, 허유는 유호로(油胡盧)라 하고 조조는 초호로(醋胡盧)라 하였다’ 하니, 그때 고려 중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하기에, 나는,

“이 영은 전혀 이치에 닿지 않을뿐더러 중의 이름도 전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조금 눈을 붙였다가 문 밖에 사람 소리가 중얼거리기에 곧 일어나 사관에 돌아오니 아직 날이 채 밝지 않았다. 옷 벗고 다시 잠들어서 조반을 알릴 때 겨우 깨었다.⁸⁹

86 장량(張良) : 한 고제(漢高帝) 유방(劉邦)을 도와서 천하를 얻게 한 책사.

87 허유(許由) : 姜(堯)가 그에게 천하를 물려주려 하였으나 받지 않았다는 은사.

88 조조(鼂錯) : 한 경제(漢景帝)의 어진 신하.

89 옷벗고……깨었다 : ‘일재본’에는 이 부분이 탈락되었다.

12일 무자(戊子)

보슬비 오다 곧 멎다.

심양에서 원당(願堂)까지 3리, 탑원(塔院) 10리, 방사촌(方士邨) 2리, 장원교(壯元橋) 1리, 영안교(永安橋) 14리였고, 길 쌓은 것이 영안교에서 비롯하여 쌍가자(雙家子)까지 5리, 대방신(大方身) 10리, 모두 45리다. 이곳에서 점심 먹고, 대방신에서 다시 마도교(磨刀橋)까지 5리, 변성(邊城) 10리, 흥륭점(興隆店) 12리, 고가자(孤家子) 13리, 모두 40리다. 이날 85리를 갔다. 고가자에서 머물렸다.

이날 아침 일찍 심양을 떠날 제 가상루에 들르니, 배관이 홀로 나와 맞고 온백고는 마침 잠이 깊이 들었다. 나는 손을 들어 배를 작별하고 예속재에 이르니, 전사가와 비치가 나와 맞는다. 전생이 두 봉(封) 글을 내어서 한 봉은 떼어 내게 봐는데 곧 내게 주는 고동(古董)의 명목을 기록한 것이었고, 또 한 봉은 곁에 붉은 쪽지로 ‘허태사 태총선생 수계(許太史台駕先生手啓)’라 썼다. 전생은 다시,

“이는 저의 성심에서 나온 것이요, 아무런 객기(客氣) 없는 말씀이옵니다. 조선관(朝鮮館) 조선 사신이 드는 객관(客官)과 서길사관(庶吉士館)⁹⁰은 바로 문이 나란히 있으니, 선생이 북경에 도착하시거든 이 편지를 전하시오. 허태사는 그 의표(儀表)가 속되지 않고 게다가 문장이 아름다운즉 반드시 선생을 잘 대우하리다. 편지 중에도 선생의 존함(尊諱)과 자함(字諱)을 함께 적었으니 결코 혀걸음이 되지 않으리다.”

하고 설명한다. 나는,

“여러분을 면면이 만나서 하직하지 못하니 매우 서운합니다. 선생이 이 뜻을 잘 전해 주시오.”

하니, 전생이 머리를 끄덕인다. 내가 곧 몸을 일으키려 하는 즈음에 전생은, “목수환이 옵니다.”

한다. 목춘이 한 청년을 데리고 왔는데, 청년은 손에 포도 한 광주리를 들었다. 대체 청년은 나를 만나기 위하여 예물로 포도를 가지고 온 모양이다. 그는 나를 향하

90 서길사관(庶吉士館) : 한림원에 속한 문인들을 모아 둔 곳. 서길사는 한림의 후보격이다.

여 공손히 읍한 뒤에 앞으로 다가와서 내 손을 잡는데 구면이나 다름없이 익숙해 한다. 그러나 길이 바빠서 이내 손을 들어 작별하고 점방을 떠나 말을 타는데, 그는 말 머리에 이르러 두 손으로 포도 광주리를 받쳐 들었다. 나는 말 위에서 그 한 송이를 집고 다시 손을 들어 치사하고 떠났다. 얼마 가다 돌아본즉 여러 사람이 아직도 점방 앞에서 내 가는 양을 바라보고 섰다. 길이 바빠서 미처 그 청년의 성명을 묻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

연거푸 이를 밤을 잠을 설치었으므로 해 뜬 뒤에 고단함이 더욱 심하였다. 창대로 하여금 굴레를 놓고 장복과 함께 이쪽저쪽에서 부축하게 하고 가면서 한숨 달게 잤더니, 정신이 비로소 맑아지고 주위의 물색이 한층 더 새롭다. 장복은,
“아까 뚱고 사람이 낙타 두 마리를 끌고 지나가더이다.”

하기에, 나는,

“왜, 내게 알리지 않았어.”

하고 꾸짖었더니, 창대는,

“그때 코 고는 소리가 천둥치듯하와 불렀사오나 아니 깨시는 걸 어찌하오리까. 천 네들도 생전 처음 보는 것이라 무언지는 똑똑히 모르오나 생각에 낙타인가 싶습니다.”

한다. 나는,

“그 꼴이 어떻게 생겼더냐?”

하고 다시 물었더니, 창대는,

“정말 형언하기 어렵습니다. 밀인가 하면 굽이 두 쪽일뿐더러 꼬리가 소처럼 생겼고, 소인가 하면 머리에 뿔이 없을뿐더러 얼굴이 양같이 생겼고, 양인가 하면 털이 꼬불꼬불하지 않을뿐더러 등엔 두 뇌봉우리가 솟았으며, 게다가 머리를 쳐들면 거위 같기도 하려니와, 눈을 떴다는 것이 청맹과니와 같사옵더이다.”

한다. 나는,

“그게 과연 낙탄가보다. 그 크기가 얼마만하더냐?”

하니, 그는 한 길이나 되는 허물어진 담을 가리키며,

“높이가 저만하더이다.”

한다. 나는,

“이 담엘랑 처음 보는 물건이 있거든 비록 졸 때거나 식사할 때거나 반드시 알려야 한다.”

하고, 타일렀다.

지는 해가 뉘엿뉘엿 말 머리에 감돈다. 강가에 나귀 떼가 수백 마리 물을 먹고 있다. 한 노파가 손에 수숫대를 들고 나귀를 모는데, 일곱여덟 살 된 어린아이가 노파를 따라 다닌다. 그는 시골 마나님으로 몸에는 푸른 색 짧은 치마를 입고 발엔 검은 신을 신었는데, 머리가 모두 벗어져서 뻔질뻔질한 게 마치 바지처럼 빛난다. 게다가 또 정수리 밑에 조그마하게 낭자를 들고 겨우 한 치길이밖에 안 되는 곳에 온갖 꽃을 수두룩이 꽂았다. 장복을 보고 조선담배를 달라 한다. 나도,

“저 나귀가 모두 너의 한 집에서 기르는 것인가?”

하고 물었더니, 노파는 머리를 끄덕이고 가버린다. 그가 무슨 말인지 알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는 모르겠다.

고동록(古董錄)⁹¹

문왕정(文王鼎)

소보정(召父鼎)

아호부정(亞虎父鼎)

[이는 모두 상(商) · 주(周) 시대의 유물로서 상상(上賞)에 해당됩니다.]⁹²

주왕백정(周王伯鼎)

단도정(單徒鼎)

주풍정(周豐鼎)

[이는 모두 당(唐)의 천보(天寶) 당 현종(唐玄宗)의 연호) 연간(年間)에 국(局)에서

91 고동록(古董錄) : ‘백운루본’에는 <성경잡지>에서 각립시켰는데, 그릇된 것이다.

92 이는 모두……해당됩니다 : ‘박영철본’에는, 이 부분이 소주(小註)로 되었는데, 그릇된 것이다.

만든 것인데, 몸집이 작아서 서재(書齋)의 항불 피우기에 가장 알맞습니다.]

상부을정(商父乙鼎)

부이정(父己鼎)

부계정(父癸鼎)

상자정(商子鼎)

병중정(秉仲鼎)

도철정(饗餮鼎)

이부정(李婦鼎)

상어정(商魚鼎)

주익정(周益鼎)

상을모정(商乙毛鼎)

부갑정(父甲鼎)

[이는 모두 원나라 때 강낭자(姜娘子)의 옛것을 모방해서 만든 것입니다.]

주대숙정(周大叔鼎)

주련정(周■鼎)

[이는 모두 서실(書室)의 청공(清供)에 들 만합니다. 대개 술이나 화로의 귀가 고리로 된 것, 아가리가 헤벌어진 것, 배가 민승하게 내민 것, 밑이 뾰족한 것 등은 다 하품이어서 볼 것이 못 되오니 아예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사망대(周師望敦)

시대(兕敦)

익대(翼敦)

상모을력(商母乙鬲)

주멸오력(周蔑敖鬲)

상호수이(商虎首彝)

주신이(周辛彝)

[이는 모두 《박고도(博古圖)》 중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근일에 새로 나온 《서청고감(西清古監)》엔 도식(圖式)이 더욱 정밀하니, 먼저 서사(書肆) 중에서 《서청고

감》을 찾아서 그릇 이름을 보고 그림을 살피신 뒤에, 그 모양이 단아한 것을 마음에 골라 두신 다음, 창중(廠中)에나 혹은 응복사(隆福寺) 또는 보국사(報國寺)⁹³의 장날에 가서 찾으시면 모두 틀림없으리다.]

고(觚)

준(尊)

지(觶)

[이 세 가지는 모두 술 그릇이지만 역시 꽃을 꽂아서 평상시의 맑은 감상에 이바지 될 것입니다.]

대체로 관요(官窯)⁹⁴는 그 법식이나 품격이 가요(哥窯)⁹⁵와 다름없으나, 빛깔은 분청(粉青) 혹은 난백(卵白)을 취하였으되 맑고도 기름기가 번지르르한 것이 상품이고, 그 다음이 담백색(澹白色)이고, 다만 유회색(油灰色)은 사지 마십시오. 무늬는 얼음장이 깨진 것처럼 된 것, 또는 뱀장어 피무늬같이 된 것이 상품이고, 자디잔 무늬는 그 중 하품이니 취하지 마십시오. 그 만드는 법식 역시 《박고도(博古圖)》 중에서 본받은 것이 많습니다. 다만 정(鼎) · 이(彝) · 병(瓶) · 호(壺) · 고(觚) · 준(尊) 등의 어느 것을 막론하고, 특히 키 작고 배부른 것은 속되고 추악하여 볼품 없으니 결코 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사가여연암서(田仕可與燕巖書)⁹⁶

제가 지난해 첫 겨울에 북경까지 갔다가 2월에 돌아왔습니다. 북경에 있을 때 날마다 창중(廠中)에 가보았는데, 눈에 띠는 게 모두 보배롭고 기이하여 이루 다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저의 그때 심경은 마치 하백(河伯 물귀신)이 자기 얼굴의 누

93 응복사(隆福寺) 또는 보국사(報國寺) : 북경 동사페루(東四牌樓) 응복사가(隆福寺街)에 있다. 보국사와 함께 골동품들을 많이 매매한다. 보국사는 호국사(護國寺)라고도 함. 서성(西城) 호국사가(護國寺街)에 있다. '일재본'에는 홍인사(弘仁寺)로 되었다.

94 관요(官窯) : 송(宋) 휘종(徽宗) 정화(政和) 연간에 관에서 직접 구워 낸 자기.

95 가요(哥窯) : 송(宋)의 치주(處州)에 살고 있는 장씨(張氏) 형제가 각기 자기를 구웠는데, 형이 구운 것이 아우의 것보다 약간 더 희고 깨진 무늬가 많아서 이를 '가요'라 하였다.

96 전사가여연암서(田仕可與燕巖書) : 이 편지는 다만 '주설루본(朱雪樓本)'에 있는 것을 여기에 추록하였다.

추함을 얇과 같이, 싸움을 시작도 않고서 벌써 항복했답니다. 다만 저 금창(金闔) 소주(蘇州)의 별명) 지방에 살고 있는 경박한 무리들이 마치 이와 벼룩처럼 기고 뛰어서, 창중(廠中)에 들끓으면서 값을 함부로 올려 불러서 비단 열곱이 넘게 만들 뿐더러, 온갖 감언 이설로써 사람의 굳은 간장을 녹일 듯 덤빠티다.

저는 그 길이 처음인지라 하도 놀랍고 미혹하여, 삼관(三官 눈·입·귀)이 아찔하고 오장(五腸)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조금도 얻은 바 없이 그저 어리둥절하다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가만히 이 일을 생각하면 문득 머리카락이 솟는 듯하니 이는 어인 까닭일까요. 제가 시골에서 생장하여 어리석고 겸허함이 지방성 을 그대로 지닌지라, 연석(燕石)을 보배로 여기고⁹⁷ 어목(魚目)을 진주로 그릇 얹⁹⁸ 은 하는 수 없는 일이지만, 다만 분한 것은 그들의 웃음감이 될 만큼 많은 값을 치렀으니, 이는 이른바 도척(盜跖)⁹⁹의 배를 불린다는 셈이 된 것입니다.

이제 선생이 북경으로 가시는 마당에 제가 잊지 못하고 이런 구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로 선생과 같은 외국의 손님으로 후일 본국에 돌아가시어 중국에 전혀 옳은 사람이 없더라고 하실까 두려워함입니다. 아울러 충심껏 말씀드릴 것은 제가 옛 서화에 대해서는 감상한 것도 아직 넓지 못할뿐더러 사랑하는 버릇도 깊지 못한 것이 함부로 말씀 드리긴 어렵사오나, 이들은 대체로 전현들의 수적은 아닐지라도 역시 후세의 명필들이 잘 본뜬 것이어서, 비록 노성(老成)한 티가 없다 하더라도 그들의 전형(典刑)을 엿볼 수 있으며, 미(米 미불(米芾)) · 채(蔡 채경(蔡京)) · 소(蘇 소식(蘇軾)) · 황(黃 황정견(黃庭堅))은 모두 그 이름을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이 전날에 저의 보잘것없음을 헤아리지 아니하시고 아름다운 사람을 구하시는 뜻을 말씀하셨으나, 연로 중에서 누구와 이야기를 붙이는 일도 너무 창졸간이어서 마음을 다 드러내지 못할 것이요, 또한 일부러 길을 돌아가면서 일일이 찾아봄도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제가 북경에 있을 때에 허태사 조당(兆黨)과

97 연석(燕石)을……여기고 : 《한비자(韓非子)》에 나오는 말. 송(宋)의 어떤 어리석은 이가 기와 쪽과 다른 름없는 연석을 보배로 그릇 알고 깊이 간직하여 남의 조소를 샀다.

98 어목(魚目)을……그릇 얹 : 《한시외전(韓詩外傳)》에 나오는 말. 고기 눈과 구슬과의 혼동을 이른 말.

99 도척(盜跖) : 전국 때 노(魯)의 대도(大盜). ‘도’는 도적이요, ‘척’은 그의 이름.

며칠 동안 사귀어 지기의 벗으로 맹세하였는데, 그의 자는 태촌(台邨)이며 호북(湖北) 사람입니다.

여기 그에게 부치는 편지 한 통이 있으니, 선생이 북경에 닿으시는 날 곧 한림원(翰林院)에 가셔서 이 허태촌을 찾아서 제 이름을 대시고 이 글을 전하십시오.

그가 만일 선생과 저의 사이가 이처럼 친밀함을 알게 되면 반드시 푸대접하지 아니하오리다. 그리고 그의 사람됨이 현걸하오니 한번만 보시면 문득 뜻이 맞으실 것이오며, 결코 제가 그릇 추천함이 아님을 아시리다. 아울러 박공(朴公) 노야(老爺)께옵서 양해하여 주시길 바라옵니다.

전사가는 머리를 조아리면서 사뢰옵니다.

13일 기축(己丑)

날은 맑으나 바람이 심하다.

고가자(孤家子)에서 새벽에 떠나 거류하(巨流河)까지 8리였으니, 거류하는 주류하(周流河)라고도 한다. 거기서 거류하보(巨流河堡)가 7리, 필점자(泌店子) 3리, 오도하(五渡河) 2리, 사방대(四方臺) 5리, 꽈가둔(郭家屯) 3리, 신민둔(新民屯) 3리, 소황기보(小黃旗堡) 4리를 와서 이곳에서 점심 먹었다. 모두 35리를 갔다. 소황기보에서 대황기보(大黃旗堡)까지 8리, 유하구(柳河溝) 12리, 석사자(石獅子) 12리, 영방(營房) 10리, 백기보(白旗堡) 5리, 모두 47리를. 이날에는 도합 82리를 가서 백기보에서 묵었다.

이날 새벽에 일어나 아침 소세를 마치니 몹시 고단하다. 달이 지새니 온 하늘에 총총한 별들이 모두 깜박거리고 마을 닭이 서로 혼례를 친다. 몇 리를 못 가서 안개가 뾰얗게 끼어 큰 별이 삽시에 수은 바다를 이루었다. 한 때의 의주(義州) 장사꾼들이 서로 지껄이며 지나는데, 그 소리가 몽롱하여 마치 꿈속에 기이한 글을 읽는 것처럼 분명하지는 않으나 그 영검스러운 경지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조금 뒤에 하늘 빛이 훤히지며 길에 늘어선 수많은 버드나무에서 매미가 한꺼번에 울기 시작한다.

저들이 그처럼 알리지 아니한들 이미 낮 더위가 몹시 뜨거운 줄을 모르랴. 점차 들에 가득했던 안개가 걷히고 면 마을 사당 앞에 세운 깃발이 마치 둑대처럼 보인다. 동쪽 하늘을 돌아보니 불빛 구름이 용솟음치며 붉은 불덩이가 옥수수 밭 저편에 솟을 듯 말 듯 천천히 온 요동별에 꽉 차게 떠오른다. 땅 위의 오가는 말이며, 수레며, 나무며, 집이며, 텔끝같이 보이는 것이 불덩이 속에 잠기기 시작했다.

신민둔의 시거나 점포가 요동보다 못지 않게 변화하다. 한 전당포(典當舗)에 들어가니 뜰 가득히 시령 위에 포도 덩굴의 그늘이 영롱한데, 뜰 가운데엔 여러 가지 이상스러운 돌을 포개어 한 개의 가산(假山)이 이룩되었고, 그 산 앞에 높이 한 길이나 되는 항아리를 놓아서 연꽃 너덧 포기가 피어 있고, 땅을 파서 한 칸 나무통을 묻고 그 속에 뜀부기 한 쌍을 기른다. 산에는 종려·추해당·안석류(安石榴) 등 화분 여러 개가 놓여 있고, 휘장 밑엔 의자를 나란히 놓고 우람한 사나이 대여섯이 앉아 있다가 나를 보고 일어나 읍하며, 앉기를 청하고 시원한 냉차 한 잔을 권한다. 점포 주인이 유금색(乳金色)으로 이룡(螭龍) 두 마리를 곱게 그린 붉은 종이 두장을 끄내며 주련(柱聯)을 써달라 한다. 나는 곧,

쌍 목욕 원양새는 나는 비단이요 | 鴛鴦對浴能飛繡

갓 피는 연꽃송이 말없는 신선일세 | 菰萏初開不語仙

라고 쓰니, 보던 이들이 모두 필법이 아름답다고 칭찬이다. 주인은, “영감은 잠깐만 지체하세요. 제가 다시 좋은 종이를 가져 오겠습니다.” 하고 일어나더니, 조금 뒤에 왼손에 종이를 들고 오른손엔 진한 며 한 종지를 받쳐 들고 오더니, 칼로 백로지(白鷺紙) 한 장을 끊어서 석 자 길이로 만들어 문 위에 붙일 만한 좋은 액자(額字)를 써 달라 한다. 내가 길을 오며 보니, 점포 문설주에 기상새설(欺霜賽雪)¹⁰⁰이란 네 글자가 써 붙여 있는 것이 가끔 눈에 띠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장사치들이 자기네들의 애초에 지닌 심지(心地)가 깨끗하기는 가을 서릿발 같고,

100 기상새설(欺霜賽雪) : 희기가 서리를 능가하여, 백설을 걸고 내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또 희디흰 눈빛보다도 더 밝음을 스스로 나타내기 위함이 아닐까.”

또 문득 생각하기를,

‘며칠 전에 난리보를 지날 때 어떤 점포 문설주에 붙인 이 녁자의 필법이 심히 기묘하기에, 내 한참 말을 멈추고 감상해 본즉, 「상설(霜雪)」이란 두 글자는 틀림없이 미해악체(米海嶽體)¹⁰¹거니 하였더니, 이제 그 체대로 한번 써봄직도 하구나.’

하고, 먼저 붓끝을 먹물에 담가 붓을 낫추었다 높였다 하니 먹빛은 붉은 기운이 돌듯, 짙고 연함이 골고루 펴진 다음 종이를 폐고 원쪽에서 오른편으로 쓰기 시작하여 ‘설(雪)’자가 이루어졌다. 이는 비록 미원장(米元章)의 것에야 비길 수 없겠지만 어찌 동 태사(董太史)¹⁰²만이야 못하랴 싶게 잘된 셈이다. 구경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난다. 그들은 일제히,

“글씨가 뛱이나 잘 되었습니다.”

하고 감탄한다. 다음 ‘새(賽)’자를 쓰니 더러는,

“잘 되었다.”

하고, 칭찬하는 이도 있으나 다만 주인의 기색이 적이 달라지고 아까 ‘설(雪)’자 쓸 때처럼 절규(絕叫)하지 않는다. 나는 속으로,

‘정말 「새(賽)」자야 늘 써본 적도 없어서 손에 익지 못하여 위 「색」자는 너무 빡빡하게 썼고 아래 「패(貝)」자는 지나치게 길어서, 그 마음에 들지 않을뿐더러 붓끝에서 짙은 먹물이 「새(賽)」자의 원편에 잘못 떨어져서 점차 번져 마치 얼룩진 표범처럼 되었으니, 이게 아마 그 자가 언짢게 생각하는 것이라.’

하고, 짐짓 단숨에 잇달아서 ‘상(霜)’·‘기(欺)’의 두 자를 쓰고 붓을 던지고 한번 주워 읽어본즉, 큼직한 ‘기상새설(欺霜賽雪)’ 네 글자가 틀림없다. 그런데 주인은,

“이는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 없어요.”

하며, 머리를 저을 뿐이다. 나는,

“그저 두고 보시오.”

하고, 몸을 일으켜 나오면서,

101 미해악체(米海嶽體) : 곧 미불(米芾)의 글씨체. 해악은 호, 원장(元章)은 자임.

102 동 태사(董太史) : 동기창(董其昌). 태사는 그의 벼슬.

‘이런 궁벽한 곳의 장사치가 제 어찌 전날 심양 사람들만 할까. 저깐 놈이 글이 잘 되고 못된 것은 어찌 안단 말야.’

하고, 혼자 속으로 투덜거렸다.

이날 해가 뜬 뒤에 바람이 온 누리를 뒤덮을 듯이 불어치더니, 오후에는 멎고 공중에 한 점 바람기도 없어 더위가 더욱 찌는 듯하다.

영안교(永安橋)에서부터 아름드리 통나무를 엮어서 다리를 놓았는데, 다리의 높이가 두세 길이가 되고, 넓이가 다섯 길은 되며, 양쪽의 나무 끝이 가지런하여 마치 한 칼로 밀어 놓은 듯싶다. 다리 밑 도랑엔 푸른 물이 끝없이 흐르고 진흙 벌이 윤기난다. 만일 이를 개간해서 논을 만든다면 해마다 몇만 섬의 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이르기를,

“강희황제가 일찍이 경직도(耕織圖)¹⁰³와 농정(農政)에 대한 모든 글(농정전서(農政全書))을 지었으니, 지금 황제도 역시 노농가(老農家)의 자제이신만큼 이 산해관 밖의 푸른 듯 검은 기름진 땅이 상상전(上上田)이 될 줄 어찌 모르겠는가. 그러나 저 관 밖의 땅은 실로 자기네들이 일어난 고장이라, 벼가 기름지고 향기로우며 이 밥이 차져서 백성이 혀에 감기도록 늘 먹어 버릇들인다면, 힘줄이 풀리고 뼈가 연해져서 용맹을 쓸 수 없게 될 것이라 차라리 수수떡과 산벼 밥을 늘상 먹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립을 잘 참고 혈기를 돋우어 구복(口腹)의 사치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함일 것이다. 비록 천 리의 기름진 땅을 버릴지언정 그들로 하여금 메마른 땅에 정의를 위해서 사는 백성이 되게 함이니, 이게 그의 더욱 깊은 생각일 것이다.”

한다.

길에서 보니 2리나 3리마다 시골 집들이 끊어졌다 또 이어지고, 수레와 말이 수없이 쏘다니고, 좌우의 점포들도 모두 볼 만하여 봉성에서 여기까지 비록 사치하고 검박한 것은 혹 다른 점도 없지 않겠지만, 그 규모는 모두 한결같을 뿐이다. 때로

103 경직도(耕織圖) : 본시 남송의 누숙(樓璡)이 경도(耕圖) 21과 직도(織圖) 24를 그려서 고종(高宗)에게 바쳤던 것을, 청(淸) 성조 때에 초병정(焦秉貞) · 냉매(冷枚) · 진매(陳枚) 등에게 명하여 각기 한 책씩 을 짓게 하였다. 특히 초병정이 그린 경도와 직도 각기 23으로 된 것이 아름다웠으므로, 판각하여 군신(羣臣)에게 나누어 주었다.

휘딱휘딱 눈에 띠는 것이 실로 놀랄 만한 것, 기뻐할 만한 것들이 적지 않건만 이 루다 적을 수 없었다.

날이 저물어 먼 곳에 자욱이 번지는 연기를 바라보고 말을 채찍질하여 참(站)으로 달리는데 오이밭에서 한 늙은이가 나와 말 앞에 엎드려서 서너댓 칸 되는 초가집 을 가리키면서,

“이 늙은 게 혼자 길가에서 참외를 팔아서 오늘 내일 지내는데, 아까 당신네 조선 사람 40~50명이 이곳을 지나다가 잠시 쉬면서 처음엔 값을 내고 참외를 사 자시 더니, 떠날 때 참외를 한 개씩 손에 쥐고 소리를 지르면서 달아나버렸습니다.”
한다. 나는,

“그럼, 왜 그 우두머리 어른에게 하소연하지 않았는고.”

하니, 늙은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지 않아도 그리하였더니 그 어른이 귀먹고 병어린 척하시는데 나 혼자 어찌 그 40~50명 힘센 장정을 당하오리까. 이제도 쫓아가니까 한 사람이 가는 길을 막 으며 참외로 냅다 저의 면상을 갈기니, 눈에선 별안간 번갯불이 일고 아직도 참외 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하고, 결국은 청심환을 달라고 조르기에 없다고 했더니, 그는 창대의 허리를 꼭 껴 안고 참외를 팔아달라고 떼를 쓰고는 참외 다섯 개를 앞에 갖다 놓는다. 나는 마침 목이 마르던 참이라 한 개를 벗겨서 먹어본즉, 향기와 단맛이 비상하므로 장복더 러 남은 네 개를 마저 사 가지고 가서 밤에 먹기로 하고, 그들에게도 각기 두 개씩 을 먹였다. 모두 아홉 개인데, 늙은이가 80문(文)을 달라고 떼를 쓴다. 장복이 50 문을 주니 골을 내며 받지 않는다. 창대와 둘이 주머니를 털어 세어본즉 모두 71문 이라, 주기로 하고, 나는 먼저 말에 오르고 장복을 시켜 주게 하였더니, 장복이 주 머니를 털어 뵈자 그제야 가만 있다. 그는 애초에 눈물을 흘려서 가련한 빛을 보인 다음에, 억지로 참외 아홉 개를 팔고서 1백 문에 가까운 비싼 값을 내라고 떼를 쓰 니 심히 통탄할 만한 일이며, 그보다도 우리나라 하정배들이 길에서 못되게 구는 것이 더욱 한스러운 노릇이다.

어두워서야 참에 이르렀다. 참외를 내어 청여(淸如 내원의 자) · 계함 들에게 주어

저녁 뒤 입가심으로 먹게 하고, 길에서 하인들이 참외를 빼앗았다는 이야기를 한 즉, 여러 마두들은,

“도무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 외딴집 오이 파는 늙은 것이 본시 간교하기 짝이 없어, 서방님이 홀로 떨어져 오시니까 거짓말을 꾸며 가지고 짐짓 가엾은 꼴상을 지어서 청심환을 얻으려던 것이죠.”

한다. 나는 그제서야 비로소 속은 것을 깨닫고, 그 참외 사던 일을 생각하니 분하기 짝이 없다. 대체 그 갑작스러운 눈물은 어디서 솟았을까. 시대(時大)¹⁰⁴의 말이, “그 놈은 바로 한인(漢人)일 겁니다. 만인(滿人)은 실로 그다지 요약한 짓은 아니합니다.”

한다.

14일 경인(庚寅)

개다.

백기보(白旗堡)에서 소백기보(小白旗堡)까지 12리, 평방(平房) 6리, 일반립문(一半拉門) 12리인데, 일반립문은 일판문(一板門)이라고도 한다. 거기서 또 곡산둔(靠山屯) 8리, 이도정(二道井) 12리, 모두 50리다. 이곳에서 점심을 먹었다. 이도정에서 은적사(隱寂寺)까지 8리, 고가포(古家舗) 22리다. 여기서 다리[梁路]가 다하다. 다시 고정자(古井子) 1리, 십강자(十杠子) 9리, 연대(煙臺)¹⁰⁵ 6리, 소흑산(小黑山) 4리, 모두 5리다. 이날 1백 리를 갔다. 소흑산에서 묵다.

이날은 마침 말복(未伏)이라 늦더위가 더욱 심할 것이고 또 참(站)이 멀어서 일행이 새벽에 떠났다. 나와 정 비장·변 주부가 먼저 떠났다. 길에서 어제 해돋이 광경을 이야기했더니, 두 사람이 꼭 한번 구경하고자 하였으나 막상 해가 뜰 무렵엔 동녘 하늘에 구름과 안개가 개지 아니하여 광경이 어제보다 훨씬 못하다. 해가 이

104 시대(時大) : ‘일재본’에는, 창대(昌大)로 되었다.

105 연대(煙臺) : 옛날의 통신 기관으로, 봉화를 놓던 축대.

미 한 길이나 땅 위에 솟았을 때 그 밑의 구름이 여러 가지 금빛 용이 되어, 뛰고 솟고 꾸불거리고, 뒤눕는 듯, 신출귀몰하여 잠시도 한 모양으로 머물러 있지 않은 데, 해는 다만 천천히 높은 공중으로 향해 오른다.

요양에서부터 조그마한 성과 못을 많이 거쳐 왔으나, 이루 다 기록할 수 없다. 이른바, ‘3리마다 성이요 5리마다 곽(郭)이라’¹⁰⁶ 함은, 반드시 모두 군이나 읍의 청소(廳所)가 있음이 아니고, 그저 시골의 취락에 지나지 않는 곳이었으나, 그 제도는 큰 성과 다름이 없다.

일판문과 이도정은 땅이 웁푹 파인 곳이어서 비가 조금만 와도 시궁창이 되고, 봄에 얼음 풀릴 무렵에는 잘못 시궁창에 빠지면, 사람도 말도 삽시에 보이지 않게 되어 지척에 있어도 구출하기 어려우므로, 작년 봄에 산서(山西) 장사꾼 20여 명이 모두 건장한 나귀를 타고 오다 일판문에 이르러 한꺼번에 빠졌으며, 우리나라 마부 역시 두 사람이 빠져버렸다 한다. 그리고 《당서》에 이르기를,

“태종이 고구려를 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돌아오는 길에 발착수(渤錯水)에 이르러 80리 진펄에 수레가 통할 수 없으므로, 장손무기(長孫無忌)¹⁰⁷와 양사도(楊師道 당 고조(唐高祖)의 사위) 등이 군정 1만 명을 거느리고 나무를 베어 길을 쌓고 수레를 잇달아 다리를 놓을 제 태종이 말 위에서 손수 나무를 날라서 일을 도왔고, 때마침 눈보라가 심해서 햇볼을 밝히고 건넜다.”

하였으니, 발착수가 어디인지 알 수 없으나, 요동 진펄 천 리에 흙이 떡가루처럼 보드라워서 비를 맞으면 반죽이 되어 마치 옛 녹은 것처럼 되어, 자칫하면 사람의 허리와 무릎까지 빠지고 겨우 한 다리를 빼면 또 한 다리가 더 깊이 빠지게 된다. 이에 만일 발을 빼려고 애쓰지 않으면 땅 속에서 마치 무엇이 있어서 빨아들이는 듯이 온 몸이 묻혀서 흔적도 없어지게 된다. 지금은 청(淸)에서 자주 성경으로 거동하므로, 영안교에서부터 나무를 엮어 다리를 만들어서 진펄을 막되, 고가포(古家舡) 밑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치는데, 2백여 리 사이에 한결같이 뻗쳤으니 이는

106 3리마다……곽(郭)이라 : 《맹자(孟子)》에 나오는 말.

107 장손무기(長孫無忌) : 당의 명신. 태종의 고명(顧命)을 받들어 저수량(褚遂良)과 함께 고종(高宗)을 섬겼다.

비단 물력(物力)이 그처럼 굉장할뿐더러, 그 나무끝이 한 군데도 들쭉날쭉한 것이 없이 2백 리 사이에 두 쪽이 마치 한 먹줄로 통긴 듯이 되었으니, 그 일솜씨의 정미로움을 이로써 짐작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민간에서 항용 쓰는 물건들이라도 이를 본받아서 그 규모가 대체로 같으니, 이는 덕보(德保 홍태용(洪大容)의 자)가 이른바 중국의 심법(心法)을 우리로선 당하지 못할 것이라 한 것이 바로 이런 일을 말한 것이리라. 이 다리는 3년 만에 한 번씩 고친다 한다. 그리고 《당서》의 발착수는 아마 일판문·이도정의 사이를 말한 것인 듯싶다.

아골관(鴉鵲關)에서부터 가끔 마을 가운데 높다랗게 흰 패루(牌樓)를 세운 것이 보이는데 이는 초상난 집들이다. 이는 삿자리로 지었는데 기왓골이나 치문(鶴吻)¹⁰⁸이 여느 성조나 조금도 다름없으며, 높이가 너덧 길이고 그 집 문앞에서 열 걸음쯤 떨어져 세웠는데, 그 밑에는 악공들이 늘어앉아서 풍류를 아뢴다. 바리 한 쌍, 피리 한 쌍, 쇄납(噴吷)¹⁰⁹ 한 쌍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조객이 문에 이르면 요란하게 불고 두드린다. 상식(上食)¹¹⁰이나 제전이 시작되자 안에서 곡성이 일면 밖에선 반드시 음악으로 서로 화답하는 듯이 야단들이다. 내가 십강자에 이르러 쉬는 사이에 정(鄭)·변(卞) 둘과 함께 거리를 거닐다가 한 삿자리로 만든 패루에 이르러 바야흐로 그 제도를 상세히 구경하려 할 즈음에 요란스러운 음악이 시작된다. 둘은 엉겹결에 귀를 막고 도망치고, 나 역시 두 귀가 먹을 것 같아서 손을 흔들어 소리를 멈추라 하여도 영 막무가내로 듣지 않고, 다만 힐끔힐끔 돌아보기만 하고 그냥 불고 두드리고 한다. 나는 상가의 제도가 보고 싶어서 발을 옮겨 대문 앞에 이르니, 문 안에서 한 상주(喪主)가 뛰어나오더니 내 앞에 와 올며 대막대를 내던지고, 두 번 절하는데 옆드릴 땐 머리가 땅에 닿도록 조아리고 일어설 땐 발을 구르며 눈물이 비오듯 하면서,

“창졸에 변을 당했사오니 어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수없이 울부짖는다. 상주 뒤에 5~6명이 따라 나오는데, 모두 흰 두건을 썼

108 치문(鶴吻) : 큰 전각 같은 지붕의 용마루 끝에 장식하는 물형.

109 쇄납(噴吷) : 애초에 회족(回族)이 사용하던 것인데, 본명은 소랄(蘇喥) 또는 쇄랄(瑣喥).

110 상식(上食) : 초상집에서 조식으로 음식을 영좌에 차려 놓는 것이다.

으며 나를 양쪽에서 부축하고 문 안으로 들어가니 상주 역시 곡을 멈추고 따라 들어온다. 때마침 건량마두(乾糧馬頭) 이동(二同)이 안으로부터 나오기에, 나는 하도 반가워서 엉겁결에,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하니, 이동은,

“소인은 죽은 사람과 동갑이라서 본시 서로 친절하게 지냈습니다. 그래 아까 들어와서 그 처를 조문하고 나오는 길입니다.”

한다. 나는,

“조문례를 어떻게 하는 거야.”

한즉, 이동은,

“상주의 손목을 잡고 너의 어른이 돌아가셨다지야 할 뿐입니다.”

하고, 이동 역시 나를 따라 다시 들어오면서,

“백지(白紙) 권이나 주지 않으면 안 되오니 천네가 마련해 드리오리다.”

한다. 당(堂) 앞에 삿자리로 큰 집을 세웠는데 그 제도가 매우 이상스러우며, 뜰에는 흰 베로 포장을 치고 그 속에 내외(內外) 복인들을 따로 나누어 두었다. 이동은, “주인이 주과 대접을 하오리니 좀 지체하시고 너무 빨리 일어나시지 마십시오. 만일 자시지 않으면 큰 수치랍니다.”

한다. 나는,

“이왕 들어왔으니 이것 역시 봄직하다만, 상주가 조문을 받으려면 너무 괴롭겠구나.”

하니, 이동은,

“아까 벌써 조문은 끝났사오니 다시 조문하실 것 없습니다.”

하고, 이내 삿자리집을 가리키며,

“이게 빈소(賓所)올시다. 남녀가 모두 집을 비우고 이 빈소로 옮겨옵니다. 그리고 포장 속에 각기 기(基) · 공(功)의 복제(服制)를 따라 장소가 마련되었으며, 장사를 치른 뒤에 제마다 돌아간답니다.”

한다. 포장 속에서 한 여인이 가끔 머리를 내밀고 엿보는데, 흰 베로 머리를 싸고

제법 자태가 흐른다.¹¹¹ 이동은,

“저 이는 죽은 이의 딸이온데, 산해관에 살고 있는 부상의 아내랍니다.”

하고, 말해 준다. 이윽고 상주가 빈소에서 나와 걸상에 나았고, 흰 두건을 쓴 사람들이 국수 두 그릇, 과실 한 쟁반, 두부 한 소반, 채소 한 쟁반, 차 두 잔, 술 한 주 전자를 탁자 위에 벌여 놓고, 내 앞에 빈 잔 세 개를 놓으며 탁자 저편엔 빈 의자를 가져 오고, 잔 세 개를 나란히 늘어놓고는 이동더러 앉기를 청한다. 이동은 굳이 사양하면서,

“저의 상전이 계신데 어찌 감히 마주 앉을 수 있으리까.”

하고, 곧 밖으로 나가더니 백지 한 권과 돈 일조(一鈔)를 갖고 들어와서 상주 앞에 놓고 내가 부의(賻儀)하는 뜻을 말하니, 상주가 걸상에서 내려와 머리를 조아리며 공손히 사례한다. 나는 대충 음복하는 시늉만 하고 곧 일어나 나오니, 상주가 문 밖까지 나와서 전송한다. 문 앞 양쪽 상랑(廡廊)에서는 방금 대말을 만들어 종이로 옷을 입히고 있다. 이윽고 사행이 이곳에 와서 쉬고, 부사도 잇따라 이르러 길가에 가마를 내렸다. 내가 아까 조상하던 이야기를 하니 모두 허리를 잡고 웃는다.

이도정은 마을이 꽤 변화롭다. 은적사는 굉장히 절인데 많이 헐었다. 비(碑)에는 조선 사람 시주(施主) 성명들이 새겨졌는데, 이는 모두 의주 상인인 것 같다. 이곳에서 처음으로 의무려산(醫巫閭山)이 보이는데, 멀리 서북을 가로지른 것이 마치 푸른 장막을 드리운 것 같고, 뒤 봉우리가 오히려 보일락말락한다. 혼하를 건년 뒤로 무릇 다섯 번 강을 건넜는데 모두 배로 건넜다. 연대(煙臺)는 이곳으로부터 시작된다. 오리마다 대(臺)가 하나씩 있는데, 원경(圓徑)이 10여 장이요, 높이가 대여섯 발이며, 쌓은 제도가 성과 다름이 없고, 그 위엔 총구멍을 뚫고 여장(女牆) 성 위에 또 쌓은 담장)을 둘렀다. 남궁(南宮) 척계광(戚繼光)¹¹²이 만들었다는 팔백망(八百望)이 곧 이것이다. 소흑산은 들 가운데 민 듯이 편평하며, 조금 불룩하고 주먹처럼 생긴 작은 산이라 하여 이 이름을 지었다 한다. 인가가 즐비하고 점포가 번

111 제법……흐른다 : 이 한 구절은 '일재본'에만 있는 것을 추록하였다.

112 척계광(戚繼光) : 명말(明末)의 저명한 군사가요, 학자. 남궁은 그의 호. 《기효신서(紀效新書)》《이옹 요략(莅戎要略)》등의 저서가 있다.

화한 품이 신민둔보다 못지 않고, 푸른 들 가운데 말·노새·소·양 수천백 마리가 떼를 지어 있으니, 역시 큰 곳이라 이를 수밖에 없다. 일행 하인들이 으레 이 소혹산에서 돼지를 삶아서 서로 위로하므로 장복·창대 역시 밤에 가서 얻어먹겠다고 여쭙는다.

이날 밤 달빛이 낮같이 밝고 더위는 이미 한물 간 모양이다. 저녁 식사 후에 곧 밖으로 나가서 아득히 먼 들판을 바라보니, 푸른 내는 땅에 깔리고 소와 양이 제각기 집으로 돌아간다. 점방들은 아직 모두 문을 닫지 않았으므로 그 중 한 집에 들어가니, 뜰 가운데 시렁을 높이 매고 삿자리로 덮여 두었다가 밑에서 끈을 당기면 걷히어서 달빛을 받게 되었다. 이상스러운 화초가 달빛 아래 얹히어 있다. 길에서 놀던 사람들이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와서 뜰에 가득하다. 다시 일각문을 들어서니 뜰 넓이가 앞 뜰과 같고, 난간 아래 몇 그루 푸른 파초가 심겨 있으며, 네 사람이 탁자를 가운데 놓고 뻥 둘러앉았는데, 그 중 한 사람이 탁자를 차지하고 ‘신추경상(新秋慶賞)’이란 넉 자를 쓴다. 자줏빛 먹 붉으래한 종이 위에 흰 달빛이 비끼어서 똑똑히 보이지는 않으나, 봇놀림이 매우 간삽하여 겨우 글자 모양을 이루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저 필법을 보매 저토록 옹졸하니, 내가 정작 한번 뽑낼 때로구나.’

하였다. 여러 사람들이 그 글씨를 다투어가면서 구경하고, 곧 당 앞 한가운데 문설주 위에 붙였으니, 이는 대개 달 구경에 축하하는 방문(榜文)이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일어나 당 앞으로 가서 뒷짐을 지고 구경을 한다. 아직 탁자 위엔 남은 종이가 있기에 내가 걸상에 가 앉아서 남은 먹을 진하게 묻혀 시비를 가리지 않고 커다랗게 ‘신추경상(新秋慶賞)’이라 써 갈겼다. 그 중 한 사람이 내가 쓴 글씨를 보더니 뭇 사람들에게 소리쳐 모두 탁자 앞으로 달려왔다. 서로 웃고 떠들며,

“조선 사람이 글씨 참 잘 쓰네.”

하기도 하고, 혹은,

“동이(東夷)도 글씨가 우리와 같네.”

하고, 혹은,

“글자는 같지만 음은 다르다네.”

한다. 나는 봇을 쳐억 던지고 일어섰다. 여렷이 내 손목을 잡으면서,

“영감은 잠깐만 앉으세요. 존함은 뉴시오니까?”

하기에, 내가 성명을 써 보이니 그들은 더욱 기뻐한다. 내가 처음 들어올 때엔 반가워하지 아니할뿐더러 본체만체 하더니, 이제 내 글씨를 본 뒤에 그 기색을 살펴보매 너무 분에 지나치게 반기면서 급히 차 한 잔을 내오고, 또 담배를 붙여 권한다. 그리하여 삽시간에 염량(炎涼)이 달라진다. 그들은 모두 태원(太原) 분진(汾晉)에 사는 사람으로, 지난해에 이곳에 와서 수식포(首飾舗)를 갓 열었는데, 차(釵) · 비녀 · 잠 · 귀걸이 · 가락지[弧環] 등속을 사들이고 가게 이름을 ‘만취당(晚翠堂)’이라 한다. 그 중 셋은 성이 최(崔)요, 둘은 유(柳) · 곽(霍)인데 모두 문필(文筆)이 극히 짚어서 말할 것도 없으나, 곽생(霍生)이 가장 나아 보인다. 다섯 사람이 다 나이 서른 남짓하고 호건하기가 마치 노새 같으며, 얼굴들은 모두 희고 눈매가 서늘하나 맑고 아담한 기는 전혀 없다. 요전 오(吳) · 촉(蜀) 사람들과는 매우 다르다. 지방 풍토의 같지 아니함을 이로써 넉넉히 알 수 있으며, 산서에서 장수[將]가 잘 난다더니 과연 빈 말이 아닌 듯싶다. 나는 곽생에게,

“당신이 태원에 살고 계시다니, 귀향(貴鄉) 곽태봉(郭泰峰), 아호는 금납(錦納)이란 어른을 아시는지요?”

하고 물었더니, 곽생은,

“모릅니다.”

하고는, 이내 곽(霍)과 곽(郭)의 두 글자에다 점을 치면서,

“이는 곽 태조(郭太祖) 후주(後周)의 태조 곽위(郭威)의 곽(郭) 자요, 나는 곽거병(霍去病) 한 무제(漢武帝) 때의 명장)의 곽(霍) 자입니다.”

한다. 나는 웃으면서,

“왜 분양(汾陽)¹¹³ · 박륙(博陸)¹¹⁴을 끌어 오지 않고, 하필이면 주 태조나 묘요(驃姚)¹¹⁵로써 증명하시오.”

113 분양(汾陽) : 당의 안녹산(安祿山) · 사사명(史思明)의 난을 평정한 명장 곽자의(郭子儀). 분양은 봉호.

114 박륙(博陸) : 곽거병의 이모제(異母弟) 곽광(霍光). 박륙은 봉호.

115 묘요(驃姚) : 곽거병이 일찍이 묘요 교위(驃姚校尉)를 지냈으므로 이른 말이다.

한즉, 곽생이 물끄러미 들여다보고 잠자코 있다. 아마 제 생각엔 내가 만인들처럼
곽(霍) · 곽(郭)을 혼용할까 보아서 이렇게 밝히는 듯싶다. 곽생은,

“등주(登州)에서 물에 내리셨으면 어찌해서 이리로 오셨습니까?”

하고, 말머리를 바꾼다. 나는,

“아니, 거기로 오지 않았소. 육로 3천 리로 바로 북경까지 대어가는 길이오.”

하니, 곽생은,

“조선은 곧 일본(日本)과 같습니까?”

한다. 마침 한 사람이 붉은 종이를 가지고 와서 글씨를 써 달라 하고는 저의 아는
사람끼리 몰려와서 모이는 이들이 점점 늘어간다. 내가,

“붉은 종이엔 글씨가 잘 되지 않으니 계란빛 종이를 가져 오시오.”

하니, 한 사람이 바삐 가더니 분지(粉紙) 몇 장을 가져 왔다. 나는 그것을 끊어서
주련(柱聯)을 만들어,

옹은 산과 숲을 즐기노니 | 翁之樂者山林也

객도 물과 달을 아시나요¹¹⁶ | 客亦知否水月乎

라 썼더니, 그제야 여러 사람들이 좋아라고 환성을 지른다. 서로 다투어 먹을 갈고
왔다갔다 분주하니 모두 종이를 구하느라고 그러는 모양이다. 나는 이에 종이를
폐고 쓰며 쉴새 없이 붓을 달리기를 마치 소지(所志)에 제사(題辭 고소장)를 쓰듯
하니, 한 사람이 나에게 묻되,

“영감은 술을 자실 줄 아십니까?”

하기에, 나는,

“한 잔 술이야 어찌 사양하리오.”

하니, 여러 사람이 모두 크게 한바탕 웃고 곧 따끈한 술 한 주전자를 가져 와서 연
거푸 석 잔을 권한다. 나는,

116 옹은……아시나요 : 앞 구절은 구양수(歐陽脩)의 〈취옹정기(醉翁亭記)〉에서, 뒷 구절은 소식(蘇軾)의
〈적벽부(赤壁賦)〉에서 각기 따왔다.

“주인은 어찌 아니 마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들은,

“하나도 먹을 줄 아는 이가 없소이다.”

한다. 이에 모여 구경하던 이들이 서로 능금과 사과와 포도 등을 가져다 내게 권한다. 나는,

“달빛이 비록 밝다 해도 글씨 쓰기엔 방해가 되니 촛불을 켜는 게 좋겠소.”

하니, 꽉생은,

“하늘 위에 저 한 조각 거울이 달렸으니 이 세상에 천만 개의 등불보다 낫지 않소이까.”

하고, 한 사람은,

“영감, 눈이 좋지 못하십니까?”

하기에, 나는,

“그렇소.”

하니, 곧 네 가지 촛불을 밝혀 준다. 나는 갑자기 생각하기를,

“어제 전당포에서 ‘기상새설(欺霜賽雪)’이란 넉 자를 썼는데 주인이 왜 갑자기 좋아하지 않았는지 오늘은 단연코 그 설치를 해 보렸다.”

하고, 곧 주인더러,

“주인댁에서는 점포 머리에 달 만한 액자(額字)가 어떨까요?”

하니, 그들은 일제히,

“이것이야말로 더욱 좋겠습니다.”

한다. 내가 드디어 ‘기상새설(欺霜賽雪)’이란 넉 자를 써 놓은즉, 여럿이 서로 쳐다보는 품이 어제 전당포 주인 기색과 한가지로 수상스럽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것, 또 이상스러운 일이구나’ 하고, 나는 또,

“이건 아무런 상관없는 겁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들은,

“그렇습니다.”

한다. 꽉생은,

“저의 집에선 오로지 부인네들 수식을 매매하옵고 국숫집은 아니옵니다.”

한다. 나는 비로소 내 잘못을 깨달았다. 전에 한 일이 부끄럽지 않을 수 없었다. 그제야,

“나도 모르는 바 아니로되 애오라지 심심풀이로 써보았을 뿐이오.”

하여 얼버무리고 나서, 전일 요양 점포에서 본 ‘계명부가(鶴鳴副珈) 닭이 울자 수식을 갖춤’라는 금자로 쓴 간판이 페뜩 생각나기에, 이와 그와는 한가지일 듯싶어서 이에 ‘부가당(副珈堂)’이란 석 자를 써 주었더니, 그들이 소리치며 좋아해 마지않는다. 꽉생은,

“이게 무슨 뜻이옵니까?”

하고 묻는다. 나는,

“이제 귀댁에선 부인네들의 수식을 전문으로 한다 하니, 《시경(詩經)》에 이른바 부계육가(副笄六珈)¹¹⁷란 곧 이것이오.”

하니, 꽉생은,

“저의 집을 빛내주신 그 은덕을 무엇으로 갚아 드리리까.”

하고, 사례한다. 다음날 북진묘(北鎮廟)를 구경하기로 되었으므로 일찍 돌아와서 일행 여러 사람에게 아까 일을 이야기하니 허리를 잡지 않은 이가 없다. 그 뒤로는 점포 앞에 ‘기상새설(欺霜賽雪)’이란 넉 자를 볼 때마다 이것이 반드시 국숫집이로구나 하였다. 이는 그 심지의 밝고 깨끗함을 이름이 아니요, 실제로 그 면발이 서릿발처럼 가늘고 눈보다 희다는 것을 자랑함이다. 여기서 면발[麵]이란 곧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진말(眞末)’이다. 청여 · 계함, 조 주부 달동과 함께 다음날 북진묘에 가기로 약속했다.

성경가람기(盛京伽藍記)¹¹⁸

117 부계육가(副笄六珈) : 비녀에 뒤이어서 온갖 수식을 꽂는다는 뜻.

118 성경가람기(盛京伽藍記) : ‘다백운루본’에는 이 편을 〈성경잡지〉와 각립시켰으나, 그릇된 것이다.

성자사(聖慈寺)는 승덕(崇德 청 태종(青太宗)의 연호) 2년 무인(戊寅)에 세웠다. 전각은 깊숙하고도 장려(壯麗)하다. 법당은 돈대 높이가 한 길, 두루 돌난간을 세우고, 전각 위엔 부시(罘罳)¹¹⁹로 둘러싸고, 세 그루 늙은 소나무 가지가 서로 엉켜서 푸른 그림자가 뜰에 가득하여 어둠침침한 빛이 고요한 속에 잡겨 있다. 비석 둘이 있는데, 하나는 태학사(太學士) 강림(剛林)이 지은 글로 뒷면엔 만주글이고, 또 하나는 앞뒷면이 모두 몽고 서번(西番)¹²⁰의 글자이다. 지키는 중들 중에는 라마(喇麻)¹²¹ 중 몇 명이 있고, 전 속엔 8백 나한(羅漢)이 있는데, 키가 겨우 몇 치씩밖에 되지 않으나 하나하나가 모두 정묘하다. 강희 황제가 손수 작은 탑 수백을 만들었는데 크기가 주사위만하고, 그 아로새긴 솜씨가 기묘하여 신경(神境)에 들어갔고 탑 높이가 10여 길인데, 위는 둥글고 아래는 모났으며 사자를 새기었다.

만수사(萬壽寺)는 강희(康熙) 55년 병신(丙申)¹²²에 중수하였다. 절 앞에 패루 하나가 있는데, 현판에는 ‘만세무강(萬歲無疆)’이라 하였고, 전각이 웅장하고 화려하기는 성자사를 능가하나 다만 뜰에 가득한 소나무 그늘이 없었다. 비석 둘이 있으며 정전(正殿)에는 강희황제가 쓴 ‘요해자운(遼海慈雲)’이란 액자가 붙어 있고, 향정(香鼎)이며, 보로(寶爐)며, 그 밖에도 보물을 이루 다 기록할 수 없겠다. 라마 중 10여 명이 있는데, 모두 누런 옷에 누런 병거지를 썼으며 사납고 헌칠해 보인다. 실승사(實勝寺)¹²³는 현판에 연화정토(蓮花淨土)라 하였고, 승덕 3년에 세웠다. 지붕 위엔 모두 푸르고 누런 유리기와로 이었다. 이는 청 태종(清太宗)의 원당(願堂)이다.

119 부시(罘罳) : 큰 건물에서 참새가 들어 보금자리 트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물 같은 것으로 쳐마 밑을 둘러친 것.

120 서번(西番) : 서장(西藏)을 비롯하여 중국 아시아 등지 서역의 모든 국가의 총칭.

121 라마(喇麻) : 몽고·서장 등지에서 성행하는 불교의 한 종파.

122 병신(丙申) : ‘박영철본’에는 병술(丙戌)로 되었으나, 그릇된 것이다.

123 실승사(實勝寺) : ‘일재본’에는 보승사(寶勝寺)로 되었다.

산천기략(山川記略)¹²⁴

주필산(駐蹕山)은 요양의 서남에 있다. 애초 이름은 수산(首山)이더니, 당 태종이 고구려를 치러 왔을 때 이 산 위에 며칠 머물면서 돌에 그 공덕을 새기고 ‘주필산’이라 이름을 고쳤다.

개운산(開運山)은 봉천부(奉天府) 서북에 있다. 여러 산봉우리가 둘러 있고 많은 물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곧 청(淸)의 영릉(永陵)¹²⁵이다.

철배산(鐵背山)은 봉천부 서북에 있다. 그 위엔 계(界) · 번(蕃) 두 성이 있다 한다. 천주산(天柱山)은 승덕현(承德縣) 동쪽에 있다. 곧 청의 복릉(福陵 청 태조의 능)이 있는 곳이다. 《진사(晉史)》¹²⁶에 이른바 동모산(東牟山)이 곧 이것이이다.

용업산(隆業山)은 승덕현 서북에 있다. 여기에는 청(淸)의 소릉(昭陵 청 태종의 능)이 있다 한다.

십삼산(十三山)은 금주부(錦州府) 동쪽에 있다. 봉우리가 열 셋이 있으므로 채규(蔡珪)¹²⁷의 시에,

여산이 다한 곳에 다시금 열세 봉우리 | 閻山盡處十三山

갯마을 집집마다 그림 사이 보이누나 | 溪曲人家畫幅間

라고 하였다.

발해(渤海)는 봉천부 남쪽에 있다. 《성경통지(盛京統志)》¹²⁸에 이르기를,

“바다의 옆으로 나간 줄기를 발(渤)이라 한다.”

하였다. 요동 2천 리 벌이 뻗쳤는데 그 남쪽이 곧 발해이다.

요하(遼河)는 승덕현의 서쪽에 있다. 곧 구려하(句驪河)인데 혹은 구류하(拘柳河)

124 산천기략(山川記略) : ‘다백운루본’에는 이 편을 <성경잡지>와 각립시켰으나, 그릇된 것이다.

125 영릉(永陵) : 청 태조의 부조(父祖) 4대의 능이 있다.

126 진사(晉史) : 당 태종의 명찬인 《진서(晉書)》를 이름인 듯하다.

127 채규(蔡珪) : 금(金)의 학자. 자는 정보(正甫).

128 성경통지(盛京統志) : 지은이는 알 수 없다. 다른 본에는 《성경통지(盛京通志)》로 되었다.

라고도 한다. 《한서(漢書)》와 《수경(水經)》¹²⁹에는 모두 대요수(大遼水)라 하였다. 요수의 좌우가 곧 요동·요서의 갈리는 경계이다. 당 태종이 고구려를 칠 적에 진 편 2백여 리에 모래를 깔아 다리를 놓아서 건너갔다.

흔하(渾河)는 승덕현 남쪽에 있다. 일명(一名) 소요수(小遼水)요, 혹은 아리강(阿利江)이라 하고, 또는 현우록수(軒茅灤水)라고도 한다. 장백산에서 발원하여 태자하(太子河)와 합하고, 다시 요수와 합하여 바다로 들어간다.

태자하는 요양 북쪽에 있다. 변문(邊門) 밖 영길주(永吉州)에서 발원하여 변문 안으로 흘러들어 혼하·요하와 합쳐 삼차하(三叉河)가 되었다. 세상에 전하기를, “연 태자(燕太子) 단(丹)이 도망하여 이곳까지 온 것을 마침내 머리를 베어 진(秦)에 바쳤으므로 후인이 이를 가엾이 여겨 이 물 이름을 태자하라 하였다.”

한다. 소심수(小瀋水)는 승덕현 남쪽에 있다. 동관(東關) 관음각(觀音閣)에서 발원하여 혼하로 들어간다. 물 북편을 양(陽)이라 하므로 심양(瀋陽)의 이름이 대체로 여기에서 난 것이라 한다.

산천기략후지(山川記略後識)¹³⁰

내가 이제 지나온 산하는 다만 그 지방 사람들의 구전(口傳)하는 말과, 또 길가는 사람들의 가르침에 의하였을뿐더러 자주 다니는 우리 하인들에게 물어본 것이었는데, 대체로는 생각나는 대로 대답한 것이어서 도무지 상세하지 않다. 화표주는 요동의 고적인데, 그나마 어떤 이는 성 안에 있다 하고 혹은 성 밖 10리에 있다 하니, 다른 것도 이를 미루어 가히 짐작할 수 있겠다.

129 수경(水經) : 《당서(唐書)》 중에 있는 상흡(桑欽)이 지은 서명.

130 산천기략후지(山川記略後識) : 다른 본에는 이 소제(小題)가 없었으나, ‘주설루본’에 있으므로 이를 죽 았다.



일신수필

일신수필(駢汎隨筆)

7월 15일 신묘(辛卯)에 시작하여 23일 기해(己亥)에 그쳤다. 모두 아흐례 동안이다. 신광녕(新廣寧)으로부터 산해관(山海關) 안에 이르기까지 모두 5백 62리다.

일신수필 서(駢汎隨筆序)¹

한갓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들은 것에만 의지하는 이들과 학문을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인데, 하물며 그의 평생에 생각이 미치지 못한 것에서야 더욱 말할 것이 있겠는가. 만일 어떤 이가 성인(聖人)이 태산(泰山)에 올라서 천하를 작게 생각하였다²고 말한다면,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입으로는 그렇다고 답할 것이다. 그러나 부처가 시방세계(十方世界)³를 보살핀다 하면 그는 곧 환망(幻妄)된 일이라고 배격할 것이며, 태서(泰西 서양(西洋)) 사람이 큰 배를 타고 지구(地球) 밖을 둘러 다녔다 하면, 그는 괴이하고도 허탄한 이야기라고 꾸짖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누구와 함께 천지 사이의 크나큰 구경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아아, 성인[공자를 가리킴]이 2백 40년간의 역사를 필삭(筆削)하여 이름을 《춘추(春秋)}⁴라 하였으나, 이 2백 40년간의 옥백(玉帛)과 병거(兵車)의 모든 일은 곧 하나의 꽂피고 잎지는 삽시의 광경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아아, 슬프도다. 내 이제 글을 빨리 써서 이에 이르러 생각하니, 이 한점의 먹을 찍을 사이는 하나의 순(瞬)과 식(息)에 지나지 않는 것이건만, 눈 한번 감고 숨 한번 쉬는 사이에 별씨 소고(小古) · 소금(小今)이 이루어된다. 그러면 하나의 옛날이란 것

1 일신수필 서(駢汎隨筆序) : '박영철본'에는 이 소제가 없었으나 '주택본' 또는 '일재본'에 모두 서(序)자가 있으므로 이들을 따라서 이 다섯 글자의 소제를 붙였다.

2 태산(泰山)에……생각하였다 : 《맹자(孟子)》에 나오는 말. 성인은 곧 공자. 공자의 학문 세계가 점차 넓어짐을 의미한 것이다.

3 시방세계(十方世界) : 불가에서 말하는 이 세상 밖의 다른 여러 세계들.

4 춘추(春秋) : 공자가 지은 책. 기원전 770년으로부터 240년간 노(魯)를 중심으로 하여 쓴 역사서. 십삼경(十三經)의 하나.

이나, 지금이란 것 역시 대순(大瞬) · 대식(大息)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에 그 사이에서 온갖명예와 사업을 세우고자 한다는 것이 어찌 슬프지 않겠느냐.

내 일찍이 묘향산(妙香山)에 올라서 상원암(上元庵)에 묵을 때 밤이 다하도록 낮과 다틈없이 달빛이 밝았다. 창문을 열고 동쪽을 바라보니, 절 앞에는 안개가 질편하여 그 위에 달빛을 받자 별안간 수은 바다가 이룩되었다. 그리고 바다 밑에는 은은히 코고는 소리 같은 것이 들려오자 중들이,

“저 하계(下界)에는 방금 큰 천둥과 소나기가 내리는 것이다.”

한다. 며칠 뒤에 산을 떠나 안주(安州)에 이른즉, 전날 밤에 과연 갑작스러운 비 · 천둥 · 번개로 물이 평지에 한 길이나 괴고, 민가들이 많이 해를 입었다. 이를 보고서 나는 말을 멈추고 섭섭한 듯이,

“어제 밤에는 나는 운(雲) · 우(雨) 밖에서 밝은 달을 겨우 누웠으니, 저 묘향산이란 태산에 비한다면 겨우 한 개의 둔덕에 지나지 않을 뿐이었으나, 이토록 높낮이 가 심한 세계를 이룩했거늘 하물며 성인이 천하를 봄이라.”

하니, 설산(雪山) 석가가 도를 닦던 곳)의 고행(苦行)을 닦는 이가 만일 공씨(孔氏) 공자의 한 가족)의 집을 두고서 다만 세 번이나 출처(出妻)를 했느니,⁵ 백어(伯魚) 가 일찍 죽었느니,⁶ 노(魯) · 위(衛)에서 봉변을 당했느니⁷ 하고서 조금 더 넓게 보지 못한다면, 이는 실로 땅 · 물 · 바람 · 불 등이 별안간에 모두 빈 것이 된다는 것 인즉 정말 한심한 일일 것이다. 또 그들은 성인과 불씨(佛氏)의 관점도 오히려 땅에 떠나지 못했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이 지구를 어루만지고 공중을 달리며 별을 따서 가지 못하는 곳이 없다는 이들은 스스로 자기의 보는 것이, 유(儒) · 불(佛) 이씨(二氏)보다 낫다고 함도 무리가 아닐 듯싶다.

그들이 모두 이국(異國)에 와서 말을 배우며, 머리끝이 희도록 남의 글을 익혀서

5 공씨(孔氏)의……했느니 : 공자 · 백어 · 자사의 3대가 모두 아내를 내쫓았다 한다.

6 백어(伯魚)가……죽었느니 : 백어는 공자의 아들 공리(孔鯉)의 자. 공리는 공자가 재세할 때에 요사하였다.

7 노(魯)……당했느니 : 공자는 일찍이 노 · 위 등지에서 무뢰배에게 봉변하였다.

썩지 않을 사업을 꾀함은 무슨 까닭일까. 대체로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다⁸는 것은 벌써 지나간 경지이니, 그 경지가 지나고 또 지나서 쉬지 않는다면 옛사람들의 이를 빙자하여 학문을 하는 이 역시 무엇을 가지고 고증(考證)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끗듯이 글을 지어서 남들이 이를 반드시 믿어주게 하고자 함이다. 그리하여 그들(서양 사람)은 우리 유가(儒家)에서 이단(異端)을 치는 이론을 보고는 그 남은 일을 주어서 억지로 불교를 배격하고, 또 그들은 불씨의 천당(天堂) · 지옥(地獄)의 설을 기뻐하여 그의 조박(糟粕)을 들일 뿐이었다.[몇 글자가 빠졌다.] 내 이번 걸음[이하는 탈락되었다.]에,

기울⁹ 7월 15일 신묘

개다.

내원과 변 태의(卞太醫) 관해(觀海)¹⁰ 조 주부 달동과 새벽에 소흑산을 떠나 중안포(中安浦)까지 30리를 와서 점심 먹고, 또 앞서 떠나 구광녕(舊廣寧)을 지나 북진묘(北鎮廟)를 구경하고, 달빛을 띠고 40리를 가서 신광녕(新廣寧)에서 묵었다. 북진묘를 구경하느라고 20리 돌림길을 하니 모두 90리를 갔다. 《정리록(程里錄)》에 실린 것으로 말하면, 백대자(白臺子) · 망우대(蠻牛臺) · 사하자(沙河子) · 굴가둔(屈家屯) · 삼의묘(三義廟) · 북진보(北鎮堡) · 양장하(羊腸河) · 우가둔(于家屯) · 후가둔(侯家屯) · 이대자(二臺子) · 소고가자(小古家子) · 대고가자(大古家子) 등의 지명과 이수가 서로 어긋난 것이 많다. 만일 이대로 계산한다면 1백 80리를 될 것이나 지금은 상고할 길이 없다. 이날은 몹시 더웠다.

우리나라 선비들이 북경에서 돌아온 이를 처음 만나면 반드시,

“자네, 이번 걸음에 제일 장관(壯觀)이 무엇이던고. 그 제일 장관을 뽑아서 이야기

8 귀로……보았다 : ‘주택본’에는 “애초 이 몸의 현재를 위함이다”로 되었다.

9 가을 : ‘주택본’과 ‘일재본’에는 이 위에 18년이란 글자가 있으나 삭제됨이 옳다. 여기서는 ‘박영철본’을 따랐다.

10 관해(觀海) : 곧 변계함. 태의는 그의 벼슬이요, 관해는 이름.

해 다오.”

하면, 그들은 제각기 본 바를 좇아서 입에 나오는 대로,

“요동 천 리의 넓디넓은 들이 장관이죠.”

“구요동 백탑(白塔)이 장관이더군.”

“그 연로의 시가와 점포가 장관이오.”

“계문(薊門)의 내 낀 숲들이 장관이오.”

“노구교(蘆溝橋)가 장관이야.”

“산해관이 장관이오.”

“각산사(角山寺)가 장관이오.”

“망해정(望海亭)이 장관이오.”

“조가페루(祖家牌樓)가 장관이오.”

“유리창이 장관이오.”

“통주(通州)의 주집(舟楫)들이 장관이오.”

“금주위(錦州衛)의 목축(牧畜)이 장관이오.”

“서산(西山)의 누대가 장관이오.”

“사천주당(四天主堂)이 장관이오.”

“호권(虎圈)이 장관이오.”

“상방(象房)이 장관이오.”

“남해자(南海子)가 장관이오.”

“동악묘가 장관이오.”

“북진묘가 장관이오.”

하고, 대답이 분분하여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그러나 상사(上士)¹¹는 섭섭한 표정으로 얼굴빛을 바꾸면서,

“도무지 볼 것이 없더군요.”

한다.

11 상사(上士) : 사(士) 중에서도 지식이 높은 이. 여기서는 존명사상에 철저한 고루한 선비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어째서 아무런 볼 것이 없더냐?”

하고 물으면, 그는,

“황제가 머리를 깎았고, 장(將) · 상(相)과 대신 모든 관원들이 머리를 깎았으며, 사(士)와 서인(庶人)들까지도 모두 그러한즉, 비록 공덕이 은(殷) · 주(周)와 같고 부강함이 진(秦) · 한(漢)에 지나치다손 치더라도 사람이 생겨난 이래로 아직껏 머리 깎은 천자는 없었다오. 또 비록 육룡기(陸隴其) · 이광지(李光地)¹²의 학문이 있고, 위희(魏禧)¹³ · 왕완(汪琬)¹⁴ · 왕사징(王士濬 王士禛)인 듯함)의 문장이 있고, 고염무(顧炎武) · 주이준(朱彝尊)의 박식이 있다 한들 한번 머리를 깎는다면 곧 되놈이요, 되놈이면 곧 짐승일 것이니, 우리가 그들 짐승에게서 무슨 볼 게 있단 말이오.”

한다. 이것이 곧 유품가는 의리(義理)라 하여 이야기하는 이도 잠잠하고, 듣는 이도 웃깃을 여민다. 그리고 중사(中士)는 말하기를,

“그들의 성곽은 장성(長城)의 남은 제도를 물려받은 것이요, 건물은 아방궁(阿房宮)¹⁵의 법을 본뜬 것이요, 사(士) · 서인(庶人)은 위(魏) · 진(晉)의 부화를 승배함이요, 풍속은 대업(大業 수 양제(隋煬帝)의 연호) · 천보(天寶 당 현종(唐玄宗)의 연호) 때의 사치함을 지었으며, 신주(神州)¹⁶가 더럽힘을 입어서 그 산천이 피비린내 나는 고장으로 변했고, 성인들의 끼친 자취가 묻혀지자 언어조차 야만의 것을 따르게 되었으니 무슨 볼 만한 게 있으리오. 진실로 10만의 군사를 얻을 수 있다면 급히 달려 산해관을 쳐 들어가서, 중원(中原)을 소탕한 다음에야 비로소 장관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한다. 이는 《춘추(春秋)》를 잘 읽은 이의 말이다. 이 일부(一部)의 《춘추》는 중화를

12 이광지(李光地) : 청의 성리학(性理學)의 대가. 광지는 이름이요, 자는 진경(晉卿).

13 위희(魏禧) : 청의 문학가(文學家). 희는 이름이요, 자는 빙숙(冰叔).

14 왕완(汪琬) : 역시 청의 문학가. 완은 이름이요, 자는 소문(召文). 당시에 요봉(堯峯)의 문필(文筆)과 원정(院亭)의 시(詩)를 병칭하였으니. 요봉은 그의 호요. 원정은 왕사진(王士禛)의 호.

15 아방궁(阿房宮) : 진 시황(秦始皇)이 그의 수도 함양(咸陽)에 세운 큰 궁궐 이름.

16 신주(神州) : 전국 때 학자 추연(驥衍)이 중국을 신주라 하였는데, 그 뒤에 이내 중국의 별칭으로 써왔다. 신은 신성의 의미를 지녔다.

높이고 이족(夷族)을 낮추어보는 사상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글이다. 우리나라가 명(明)을 섬긴 지 2백 년 동안 충성을 한결같이 하여 이름은 속국(屬國)이라 하나 실상은 한 나라나 다름 없고, 만력(萬曆) 임진년(壬辰年 1592) 왜적의 난에 신종 황제(神宗皇帝)가 천하의 군사를 이끌고 우리를 구원하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종(頂踵) · 모발(毛髮) 어느 것 하나하나 그 은혜 아닌 것이 없었고, 인조(仁祖) 병자(丙子 1636)에 청(淸)의 군대가 쳐 들어오매, 의열 황제(毅烈皇帝)가 우리나라가 난리를 입었다는 말을 듣고, 곧 총병(總兵) 진홍범(陳洪範 명의 장수 이름)에게 명하여 시급히 각 진(鎮)의 수군(水軍)을 징벌하여 구원병을 파견하였다. 홍범이 관병(官兵)의 출범(出帆)을 아뢸 제, 산동순무(山東巡撫) 안계조(顏繼祖)가 조선이 이미 무너져서 강화(江華)마저 떨어졌다 아뢰니, 황제는 계조가 힘껏 구원하지 않았다 하여 조서를 내려 준절히 나무랐다.

이때를 당하여 천자는 안으로 복주(福州) · 초주(楚州) · 양주(襄州) · 당주(唐州) 등 각지의 난리¹⁷를 누를 길이 없고, 밖으로 조선의 근심이 더욱 절박하여 그 구출해 줄 뜻이 형제의 나라에 뭇지 않았더니, 마침내 온 누리가 천崩(天崩) · 지탁(地坼)의 비운을 만나고 온 인민의 머리를 깎아서 모두 되놈을 만들었으즉, 비록 우리나라만이 이런 수치를 면했으나 그 중국을 위하여 원수를 갚고 치욕을 씻으려 하는 마음이야 어찌 하루 사인들 잊을 수 있었으랴. 그리고 우리나라 사대부들이 《춘추》 존(尊) · 양(攘)의 이론을 일삼는 이가 군데군데 우뚝 서서 백년을 하루같이 즐기차게 잇달렸으니 가히 장한 일이라 이르겠다.

그러나 존주(尊周)의 사상은 주를 높이는 데에만 국한될 것이요, 이적(夷狄)의 문제는 이적에서만 쓸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성과와 건물과 인민들이 예와 같이 남아 있고, 정덕(正德) · 이용(利用) · 후생(厚生)의 도구¹⁸도 파괴된 것이 없으며, 최(崔) · 노(盧) · 왕(王) · 사(謝)의 씨족¹⁹도 없어지지 않았고, 주(周) · 장(張) · 정(程) · 주(朱)의 학문²⁰도 사라지지 않았으며, 삼대(三代) 하(夏) · 은(殷) · 주(周))

17 각지의 난리 : 명말(明末) 안으로 장현충(張獻忠) · 이자성(李自成) 등이 반란을 일으켰다.

18 정덕(正德)……도구 : 이 세 가지의 일은 《서경(書經)》〈대우모(大禹謨)〉 중에 나온 말.

19 최(崔)……씨족 : 이 네 성씨는 진(晉)으로부터 당(唐)에 이르기까지의 별족들.

20 주(周)……학문 : 이 넷은 송의 성리학(性理學)의 대가 주돈이(周敦頤) · 장재(張載)와 정호(程顥) · 정

이후로 성스럽고 밝은 임금들과 한(漢) · 당(唐) · 송(宋) · 명(明)의 아름다운 법률 제도도 변함없이 남아 있다. 저들이 이적일망정 실로 중국이 자기에게 이로워서 길이 누리기에 족함을 알고, 이를 빼앗아 응거하되 마치 본시부터 지녔던 것같이 한다.

대개 천하를 위하여 일하는 자는 진실로 인민에게 이롭고 나라에 도움이 될 일이 라면, 그 법이 비록 이적에게서 나온 것일지라도 이를 거두어서 본받으려거든, 하물며 삼대 이후의 성제(聖帝) · 명왕(明王)과 한 · 당 · 송 · 명 등 여러 나라의 고유 적(固有的)인 옛것인들 어떨쏘냐. 성인이 『춘추』를 지으실 제 물론 중화를 높이고 오랑캐를 물리쳤으나, 그렇다고 이적이 중화를 어지럽힘을 분히 여겨서 중화의 숭배할 만한 진실 그것마저 물리친다는 일은 듣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들이 진실로 이적을 물리치려면 중화의 끼친 법을 모조리 배워서 먼저 우리나라의 유치한 문화를 열어서 밭갈기, 누에치기, 그릇굽기, 풀무불기 등으로부터 공업 · 상업 등에 이르기까지도 배우지 않음이 없으며, 남이 열을 한다면 우리는 백을 하여 먼저 우리 인민들에게 이롭게 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회초리를 마련해 두었다가 저들의 굳은 갑옷과 날카로운 무기를 매질할 수 있도록 한 뒤에야 중국에는 아무런 장관이 없더라고 이를 수 있겠다.

그러나 나와 같은 사람은 하사(下士 하류의 선비)이지마는 이제 한 말을 한다면, “그들의 장관은 기와 조각에 있고, 또 뚉부스러기에도 있다.”

고 하련다. 대개 저 깨어진 기와 조각은 천하에 버리는 물건이지만, 민간에서 담을 쌓을 때 담 높이가 어깨에 솟을 경우, 다시 이를 둘씩 또 둘씩 포개어서 물결 무늬를 만든다든지, 혹은 네트를 모아서 둑근 고리처럼 만든다든지, 또는 네트를 등지워서 옛 노전(魯錢)²¹의 형상을 만들면 그 구멍난 곳이 영롱하고 안팎이 서로 어리비쳐서 저절로 좋은 무늬가 이루어진다. 이는 곧 깨어진 기와 쪽을 버리지 아니하여 천하의 무늬가 이에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집마다 뜰 앞에 벽돌을 깔지 못한다면 여러 빛깔의 유리 기와 조각과 시냇가의

이(程頤) 형제와 주희(朱熹)를 일컬었다.

21 노전(魯錢) : 노는 전신론(錢神論)의 저자 노포(魯褒).

둥근 조약돌을 주워다가 꽃 · 나무와 새 · 짐승의 모양으로 땅에 깔아서 비울 때 진 수렁이 됨을 막으니, 이는 곧 부서진 자갈돌을 버리지 아니하여 천하의 도화(圖畫) 가 이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뚝은 지극히 더러운 물건이지만 이를 밭에 내 기 위해서 황금처럼 아껴 길에 내다 버린 분회가 없고, 말똥을 줍는 자가 삼태기를 들고 말 뒤를 따라 다닌다.

그리고 이를 주워 모으되 네모 반듯하게 쌓고, 혹은 여덟 모로 혹은 여섯 모로 하고 또는 누각이나 돈대의 모양으로 만드니, 이는 곧 풍무더기를 보아서 모든 규모 가 벌써 세워졌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저 기와 조각이나 풍무더기가 모두 장관이니, 하필 이 성지(城地) · 궁실(宮室) · 누대(樓臺) · 시포(市舗) · 사관(寺觀) · 목축(牧畜)이라든지, 또는 저 광막한 원야(原野)라든지, 변환하는 연수(煙樹)라든지, 그런 것들만이 장관이 아닐 것이다.”

구광녕성은 의무려산(醫巫閭山) 밑에 있는데, 앞으로 큰 강이 열리고 강물을 끌어서 해자를 만들었으며, 탑(塔) 둘이 하늘 높이 솟아 있다. 성에 못 미쳐 몇 마장 되는 곳에 큰 사당이 하나 있어 단청을 새로이 하여 친란하게 눈에 듈다.

광녕성 동문밖 다리 머리에 새긴 공하(蚣蠻 패하(霸夏)와 같음)가 매우 웅장하고 기묘하게 보였다. 겹문을 들어가서 거리를 지나노라니 점포들의 변화함이 요동만 못지 않다. 영원백(寧遠伯) 이성량(李成梁)²²의 패루(牌樓)가 성 북쪽에 있다. 혹은 이르기를,

“광명은 본시 기자(箕子)의 나라여서 옛날에 기자의 우관(辱冠 은(殷) 때의 갓 이름) 쓴 소상이 있더니, 명(明) 가정(嘉靖) 명 세종(明世宗)의 연호(연간)의 난리통에 타버렸다.”

한다. 성이 겹으로 되었는데 내성은 온전하나 외성은 많이 헐었다. 성 안의 남녀가 집집이 나와서 구경하며 거리의 노는 사람들이 수없이 떼를 지어 말머리를 둘러싸기 때문에 빠져 나가기가 힘들었다.

성 밖의 관제묘는 그 장려함이 요양의 것과 비슷하다. 문 밖에는 희대(戲臺)가 있

22 영원백(寧遠伯) 이성량(李成梁) : 명 신종 때 요동좌도독(遼東左都督)이 되었으며, 그의 선조는 조선 사람이었다. 영원백은 그의 봉호. 이여송(李如松)의 아버지.

어 높고 깊고 화려·사치하며, 마침 못사람이 모여서 연극을 하고 있는 모양이나 길이 바빠서 구경하지 못하였다. 천계(天啓) 연간에 왕화정(王化貞)²³이 이영방(李永芳)²⁴에게 속아서 그의 날랜 장수 손득공(孫得功)이 적군을 성 안으로 맞아들이었으므로 광녕이 떨어지고 천하의 대세가 어찌할 수 없이 되어 버렸다.

북진묘기(北鎮廟記)

북진묘는 의무려산 밑에 있다. 그 뒤에 여러 뾰부리가 마치 병풍을 친 듯이 둘러 있고 앞으로는 큰 벌이 트이었으며, 오른편은 바닷물이 넘실거리고 광녕성은 마치 슬하의 아이들처럼 앞에 벌여져 있다.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푸른 연기는 띠를 두른 듯 그 속에 잠긴 탑(塔)이 유달리 희게 보인다. 그 지형을 살펴본즉 편편한 벌판이 차츰 여러 길 되는 둑근 언덕을 이루어, 굽어보나 쳐다보나 천지가 하도 넓어 걸릴 것이 없으며, 해와 달이 떴다 졌다 하며 바람과 구름이 일다 사라졌다 함이 모두 그 가운데 있다. 동쪽을 바라보니 오(吳)·제(齊) 두 나라는 나의 손에 당을 듯 가까워 보이나 내 안력(眼力)이 미치지 못함이 한스러울 뿐이다. 사당의 모양이 웅장하고 고결하다. 그렇지 않으면 해(海)·악(嶽)·진사(鎮祠)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에는 북의의 현명제군(玄冥帝君 북방을 맡은 신군)과 아울러 그 종신(從神)을 모셨는데, 모두 곤포(袞袍)를 입고 면류관(冕旒冠)을 쓴 채 옥을 차고 옥흘(玉笏)을 받들고 섰는데, 위풍이 늄름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절로 웃음을 억미게 한다. 향정(香鼎)은 높이 여섯 자가 넘고 괴상한 간물(姦物)과 귀물(鬼物)들을 새겼는데, 푸른 기운이 속속들이 스며 배었다. 그 앞에는 검은 항아리가 놓여 있어서 열 섬은 들파하며, 햇불 네 개를 켜서 밤낮없이 밝히고 있다.

순(舜)이 일찍이 열 두 곳의 이름난 산에 봉선(封禪)할 때 이 의무려산을 유주(幽

23 왕화정(王化貞) : 명말의 장수로 일찍이 광녕을 지켜서 뭉고를 무마하였으나 응정필(熊廷弼)과 함께 요동에서 실패하여 극형을 받았다.

24 이영방(李永芳) : 명의 유격(游擊)으로 무순(撫順)을 지키다 청에 항복하여 병자호란에도 종군하였다.

州)의 진산(鎮山)으로 삼았더니, 그 뒤 하(夏) · 상(商) · 주(周) · 진(秦)이 모두 그대로 변경하지 않았으며, 그에 대한 예식은 저 오악(五岳)²⁵이나 사독(四瀆)²⁶과 같아하였다. 이 사당이 어느 시대에 비롯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당의 개원(開元) 당 현종(唐玄宗)의 연호(연호) 때에 의무려산의 신을 봉하여 광녕공(廣寧公)으로 삼았고, 요(遼) · 금(金) 때에는 왕호를 붙였으며, 원(元)의 대덕(大德) 원 성종(元成宗)의 연호(연호) 연간에 정덕광녕왕(貞德廣寧王)을 봉했더니, 명의 홍무(洪武) 명 태조(明太祖)의 연호(연호) 초년에는 다만 북진의 무려산지신(北鎮醫巫閭山之神)이라 하고, 설이 되면 향품을 하사하여 제사하고 축문(祝文)에는 천자의 성명까지 쓴다고 한다. 나라에 큰 식전(式典)이 있으면 예관(禮官)을 보내어 제사하였다. 지금은 청이 동북에서 일어났으므로 특히 이 산의 신을 받드는 품이 더욱 융숭하다 한다. 어떤 이는 이르기를,

“옹정 황제(雍正皇帝)가 아직 등극하기 전에 칙명을 받들고 강향하러 와서 그 제삿날 밤에 재실에서 자는데, 꿈에 신인이 그에게 커다란 구슬 한 개를 주어 그 구슬이 해가 되었더니, 그 길로 돌아가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으므로, 이에 이 사당을 크게 중수하여 그 신인의 은덕을 갚았다.”

한다. 사당 앞에는 다섯 문의 패루가 있는데 순전히 돌로만 세워 기둥이며 서까래며 기와며 추녀며 모두 다 나무는 하나도 쓰지 않았으며, 높이는 너덧 길이나 되고 그 구조의 공교함이나 조각의 정미로움이 거의 사람의 힘으로는 미치지 못할 만큼 잘 되었다. 패루의 좌우에는 돌사자가 있는데 높이는 두 길이었고, 묘문(廟門)으로 부터 흰 돌로 충계를 놓았으며, 묘문의 왼편에는 절이 있는데 그 뜰에는 벗돌 둘이 서 있다. 하나는 ‘만수선림(萬壽禪林)’이라 하였고, 또 하나는 ‘만고유방(萬古流芳)’이라 하였으며, 절 속에는 큰 금불 다섯을 모셨다. 절 오른편에는 문 하나가 있는데 왼쪽은 고루(鼓樓)요, 오른쪽은 종루(鍾樓)였고, 그 두 누의 사이에 또 문 셋이 있고 그 앞에는 비석 셋이 있는데, 모두 누린 기와로 비 위를 덮었다. 그 둘은 강희제(康熙帝)의 글과 글씨였고, 또 하나는 옹정제의 글과 글씨였다. 정전(正殿)은 푸

25 오악(五嶽) : 태산 · 화산 · 형산 · 항산 · 승산.

26 사독(四瀆) : 강(江) · 하(河) · 희(淮) · 제(濟).

른 유리기와를 이었는데, 북쪽 벽에는 ‘울총가기(鬱葱佳氣)’라 써 붙였으니 이는 옹정제의 글씨였고, 충계 위에는 동서로 돌화로가 마주 서 있는데 높이는 모두 한 발이 넘었으며, 다시 동서로 낭무 수백 칸이 있고 정전 뒤에는 공전(空殿)이 있으되, 그 제도는 정전과 다름없이 단청이 휘황찬란하나 덩 비어서 아무 것도 놓인 것이 없고, 그 뒤에 또 전각 한 채가 있는데 제도는 역시 정전과 같으며, 소상 둘이 있는데 면류를 쓰고 옥흘을 가진 이는 문장 성군(文昌星君)이요, 봉관(鳳冠 중국 고대 여자용의 관)을 이고 구슬띠를 띤 것은 옥비 낭랑(玉妃娘娘)이라 한다. 그 좌 우에는 두 동자가 모시고 섰다. 현판에는 ‘전시령구(乾始靈區)’라 하였으니 이는 지금 황제의 글씨이다. 바깥문으로부터 시작하여 충계마다 흰 돌로 만든 난간을 둘렀는데 그 조출하고 매끄러움이 마치 옥 같으며, 그 위에는 골고루 이룡과 도룡룡을 새겨서 결채와 충대를 두루 둘러 전전(前殿)에까지 이르고, 또 전전에서 굼틀굼틀 끊이지 않게 후전(後殿)까지 흰 빛 일색이 눈부시어 티끌 하나가 날지 않는다. 정전의 앞뒤에는 역대의 큰 비석이 나란히 서서 마치 파 이랑 같으며, 거기에 새긴 글들은 모두 나라를 위하여 복을 빙 말들이다. 그 중에는 송의 연우비(延祐碑 연우는 송 인종(宋仁宗)의 연호)가 가장 오래된 것이다. 서각문(西角門)을 나서니, 두어 길이나 되는 창벽이 있어 ‘보천석(補天石)’이라 새겼는데, 이는 명의 순무(巡撫) 장학안(張學顏 명 신종(明神宗) 때의 명신)의 글씨였고, 다시 한 칸쯤 떨어져 ‘취병석(翠屏石)’이라 새긴 것이 있으며, 동문 밖으로 수백 걸음을 나와서 커다란 둑근 돌이 놓였는데, 마치 거북의 등처럼 금이 갔으며, ‘여공석(呂公石)’ 또는 ‘회선정(會仙亭)’이라 새겼다. 그 위에 오르니 의무려산의 아름다운 기운과 가득찬 형세가 한 눈에 선뜻 들어온다. 문득 조그만 정자 하나가 바위를 의지하여 섰는데 흙 섬돌이 두 층이요, 띠이영에 끝을 약간 가지런하게 베었는데 그 깨끗하고 그윽함이 꺽 마음을 즐겁게 한다. 거기서 잠깐 앉아 쉬면서 변군은 말하기를,

“비유하건대 마치 감사(監司)가 군읍을 돌아다니느라면 아침저녁으로 공궤하는 것이 모두 산해의 진미여서 속이 거북하고 구역질이 날 즈음에 문득 산뜻한 야채 한 접시를 보면 그냥 구미가 당기는 것 같군요.”

한다. 나는 웃으면서,

“그야말로 참 의원다운 말이로군.”

하니, 조군은,

“늘 분단장한 기생과 노닐어서 그 예쁘고 예쁘지 않은 것조차 분간하지 못하다가
들이랑 촌 싸리문에서 별안간 형자(荊釵) · 포군(布裙)²⁷으로 수수하게 차린 여인을
만나면 모르는 결에 눈이 훤히 트이지 않겠습니까.”

한다. 나는,

“이건 호색가(好色家)다운 말이로군. 만일 그대들 말과 같이 될진댄 이제 이 흙 섬
돌과 떠 이엉에 천자의 안목과 비위를 이끌 수 있겠지요.”

하고는, 돌아와 회랑(廻廊) 아래에 앉았는데, 사당을 지키는 도사(道士) 셋이 있기
에 부채 석 자루, 종이 세 권, 청심환 세 개를 선물하니, 모두들 못내 기뻐하였다.
뜰 앞에 복승아가 방금 무르익은 것을 도사가 한 쟁반 따 왔다. 하인들이 다투어
나무 아래로 달려가서 가지를 휘어잡고 마구 땀다. 내가 그리 말라고 타일러도 막
무가내였다. 도사는,

“애써 금하실 게 없습니다. 배부르면 저절로 그만두겠죠.”

하고, 또 하인들을 향하여,

마음대로 따 먹게만 가질랑 다치지 마오 | 任君摘取莫傷枝

그렇게들 두었다가 명년에 다시 때맞춰 오소²⁸ | 留待明年再到時

라 한다. 그 도사의 성명은 이봉(李鵬)이요, 호는 소요관(逍遙館), 또는 찬하도인
(餐霞道人)이라 한다. 뜰에는 반이나 쪽은 늙은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황제가
갑술년(甲戌年 건륭 19년) 거동 때에 남겼다는 시(詩)와 그림은 바위 사이에 새겨
져 있다.

27 형자(荊釵) · 포군(布裙) : 한(漢)의 양홍(梁鴻)의 아내. 맹광(孟光)의 고사에서 나온 말. 형자는 나무로
만든 머리꽂이.

28 마음대로……오소 : 고시인 듯하다.

거제(車制)

타는 수레는 태평차(太平車)라 한다. 바퀴 높이가 팔꿈치에 닿으며 바퀴마다 살이 서른 개인데, 대추나무로 둥글게 테를 메우고 쇳조각과 쇠못을 온 바퀴에 입혔다. 그 위에는 둑근 방을 만들어 세 사람이 들 만하다. 방에는 푸른 베 혹은 공단이나 우단으로 휘장을 치고 더러는 주렴을 드리워 은 단추로 여닫게 되었다. 좌우에는 파리(玻璃)를 붙여서 창을 내고, 앞에 널판을 가로 놓아서 마부가 앉게 되었으며, 뒤에도 역시 하인이 앉게 마련이다. 나귀 한 마리가 끌고 갈 수 있으나 면 길을 가려면 말이나 노새 수를 더 늘린다.

짐을 싣는 것은 대차(大車)라 한다. 바퀴 높이가 태평차보다 조금 덜한 듯하며 바퀴 살은 입(廿) 자의 모양으로 되었고, 싣는 수량은 8백 근으로 정하여 말 두 필을 메우고, 8백 근이 넘을 경우에는 짐을 보아서 말을 늘린다. 짐 위에는 삿자리로 방을 꾸미되 마치 배 안같이 하여 그 속에서 자고 눕게 되어 있다. 대체로 말 여섯 필이 끄는데 수레 밑에 커다란 왕방울을 달고 말 목에도 조그만 방울 수백 개를 둘러서 그 댕그랑댕그랑 하는 소리로 밤을 경계한다. 태평차는 걸 바퀴로 돌며, 대차는 속 바퀴로 돈다. 그리고 쌍 바퀴가 똑같이 둥글므로 고루 돌아가고 빨리 달릴 수 있다. 명에 밑에 매는 말은 제일 튼튼한 말이나 견실한 나귀를 사용하며, 수레 명에를 쓰지 않고 조그만 나무 안장을 만들어 가죽끈이나 튼튼한 바로 명에 머리에 엮어매어서 말을 달았다. 명에 밑에 들지 않은 말들은 모두 쇠가죽끈으로 배띠를 하고 바를 매어서 끌게 되었다. 짐이 무거우면 바퀴채보다도 훨씬 더 밖으로 튀어 나오고 때로는 높이가 몇 길이나 되며, 끄는 말도 많으면 십여 필이나 된다. 말 모는 사람을 ‘칸쳐더[看車的]’라 부르며, 그는 짐 위에 덩실 높이 앉아서 손에는 긴 채찍을 쥐고 길이 두 발이나 되는 끈 두 개를 그 끝에 매어서, 그것을 휘둘러 때리되 그 중에 힘내지 않는 놈은 귀며 옆구리며 헤아리지 않고 때리고, 손에 익으면 더욱 잘 맞는다. 그 채찍질하는 소리가 우레처럼 요란스럽다.

독륜차(獨輪車)는 뒤에서 한 사람이 칫대를 잡고 수레를 밀도록 되었다. 한가운데

쯤 바퀴를 달았는데 바퀴가 수레바탕 위로 반이나 솟았으며, 양쪽이 상자처럼 되어 싣는 물건이 꼭 맞서지 않으면 안 된다. 바퀴 닿는 곳에는 북을 반쯤 자른 것 같아 보이며, 바퀴를 가운데로 하고 짐은 사이를 두고 실어서 바퀴와 짐이 서로 닿지 않도록 하였다. 칫대 밑에 짧은 막대가 양쪽으로 드리워서, 갈 때는 칫대와 함께 들리고 멈출 때는 바퀴와 함께 멈추어서, 이것이 베텀나무가 되어 수레가 쓰러지지 않게 마련이다. 길가에서 띄·엿·능금·오이 등을 파는 장사들도 모두 이 독륜차를 이용하며, 또 밭둑 길에 거름 내기에 가장 편리하다. 언젠가 보니, 시골 여자들이 양쪽 상자에 타고 앉아서 각기 어린애 하나씩을 안고 가는 것도 있으려니 와 물을 긋는 데는 한 쪽에 대여섯 통씩 싣는다. 짐이 무겁고 많으면 끈을 달아서 한 사람이 끌고, 때로는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마치 배를 끌 듯이 한다.

대개, 수레는 천리로 이룩되어서 땅 위로 가는 것이며, 땅 위를 다니는 배요, 움직일 수 있는 방이다. 나라의 쓰임에 수레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주례(周禮)》에 임금의 가멸함을 물었을 때 수레의 많고 적음으로써 대답했다 하니, 수레는 비단 싣고 타는 것뿐이 아님을 밀함이다. 수레 중에도 융차(戎車)·역차(役車)·수차(水車)·포차(砲車) 등이 있어서 천백 가지의 제도가 있으므로 이제 창졸간에 이루 다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나 타는 수레, 싣는 수레는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어서 시급히 연구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다. 내 일찍이 담현(湛軒) 홍덕보(洪德保), 참봉(參奉) 이성재(李聖載)²⁹와 더불어 거제(車制)를 이야기할 제, “수레의 제도는 무엇보다도 궤도를 똑같이 하여야 한다. 이 이른바 궤도를 똑같이 하여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한 것일까. 두 바퀴 사이에 일정한 분을 어기지 않음을 이름이다. 그리하면 수레가 천이고 만이고 간에 그 바퀴자리는 하나로 통일될 것이니, 이른바 거동궤(車同軌)³⁰는 곧 이를 두고 말함이다. 만일 두 바퀴 사이를 마음대로 넓히고 좁힌다면 길 가운데 바퀴 자리가 한 틀에 들 수 있을 것인가.”

하고 말한 일이 있었다. 이제 천 리 길을 오면서 날마다 수없이 많은 수레를 보았으나, 앞 수레와 뒷 수레가 언제나 한 자국을 도는 것이다. 그러므로 애쓰지 않고

29 이성재(李聖載) : 이광려(李匡呂). 참봉은 벼슬이요, 성재는 자.

30 거동궤(車同軌) : 《중용(中庸)》과 《좌전(左傳)》 소(疏)에 나오는 말.

도 같이 되는 것을 일철(一轍)이라 하고, 뒤에서 앞을 가리켜 전철(前轍)이라 한다. 성 문덕 수레바퀴 자국이 웁푹 패어서 흠통을 이루니 이는 이른바 ‘성문지궤(城門之軌 《맹자(孟子)에 나오는 구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전혀 수레가 없음은 아니나 그 바퀴가 온전히 둥글지 못하고 바퀴 자국이 틀에 들지 않으니, 이는 수레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늘 하는 말에,

“우리나라는 길이 험하여 수레를 쓸 수 없다.”

하니, 이 무슨 말인가. 나라에서 수레를 쓰지 않으니까 길이 닦이지 않을 뿐이다. 만일 수레가 다니게 된다면 길은 저절로 닦이게 될 테니 어찌하여 길거리의 좁음과 산길의 험준함을 걱정하리오. 전(傳《중용(中庸)》)에 이르기를,

“배와 수레 이르는 곳, 서리와 이슬이 내리는 곳.”

이라 하였으니, 이는 수레가 어떠한 먼 곳이라도 이를 수 있다고 하는 말이다.

중국에도 검각(劍閣) 아홉 굽이의 험한 잔도(棧道)와 태항(太行)과 양장(羊腸)처럼 위태한 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 수레가 가지 못하는 곳이 없다. 그리하여 관(關) · 섬(陝) · 천(川) · 촉(蜀) · 강(江) · 절(澠) · 민(閩) · 광(廣) 등지와 같은 먼 곳에서도 큰 장사치들이나, 또는 온 가족을 이끌고 부임(赴任)하러 가는 벼슬아치들의 수레바퀴가 서로 잇대어서 저의 집 뜰 앞을 거니는 것이나 다름없이 다니고, 우렁차게 굉굉거리는 수레바퀴 소리가 대낮에도 늘 우레치듯 끊이지 않는다. 이제 이 마천(摩天) · 청석(青石)의 고개와 장항(獐項) · 마전(馬轉)의 언덕들이 어찌 우리나라의 것보다 덜 위험하겠는가. 그 큰 바위에 마혀 험준한 것은 모두 우리나라 사람들도 목격(目擊)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수레를 폐하고 다니지 않음이 있던가. 이러므로 중국의 재산이 풍족할뿐더러 한 곳에 지체되지 않고 골고루 유통(流通)함은 모두 수레를 쓴 이익일 것이다. 이제 비근한 예를 든다면, 우리 사행이 모든 번거로운 폐단을 없애버리고 우리가 만든 수레에 우리가 올라 타고 바로 연경에 닿을 텐데 무엇을 꺼려서 하지 않는단 말인가. 그리하여 영남(嶺南) 어린이들은 새우젓을 모르고, 관동(關東) 백성들은 아가위를 절여서 장 대신 쓰고, 서북(西北) 사람들은 감과 감자(柑子)의 맛을 분간하지 못하며, 바닷가 사람들은 새우나 정어리를 거름으로 밭에 내건만 서울에서는 한 웅큼에 한 푼씩 하니 이렇게 귀함은 무

순 까닭일까. 이제 육진(六鎮)³¹의 마포(麻布)와 관서(關西)의 명주(明紬), 양남(兩南 영남과 호남)의 딱종이와 해서(海西)의 솜·쇠, 내포(內浦 충청남도 서해안)의 생선·소금 등은 모두 인민들의 살림살이에서 어느 하나 없지 못할 물건들이며, 청산(青山 충청북도에 있다)·보은(報恩)의 천 그루 대추와 황주(黃州 황해도에 있다)·봉산(鳳山)의 천 그루 배와 흥양(興陽 전남 고흥)·남해(南海)의 천 그루 굴(橘)·유자[柚], 임천(林川 충청남도에 있다)·한산(韓山)의 천 이랑 모시와 관동의 천 통 별꿀 들은 모두 우리 일상생활에서 교역해 써야 할 것인데도, 이제 이곳에서 천한 물건이 저곳에서는 귀할뿐더러 그 이름만 알고 실지로 보지 못함은 어찌된 까닭일까. 그것은 오로지 멀리 나를 힘이 없기 때문이다. 사방이 겨우 몇 천 리밖에 안 되는 나라에 인민의 살림살이가 이다지 가난함은, 한 말로 표현한다면 수레가 국내(國內)에 다니지 못한 까닭이라 하겠다. 어떤 이가,

“그러면 수레는 어찌하여 다니지 못하는 거요.”

하고 묻는다면, 역시 한 마디 말로,

“이는 사대부(士大夫)들의 허물입니다.”

하고 답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소에 글을 읽을 때에는,

“《주례》는 성인이 지으신 글이야.”

하고는, 또 윤인(輪人)³²이니, 여인(輿人)이니, 거인(車人)이니, 주인(轔人)이니 하고 떠들어대나, 끝내 그것을 만드는 기술이나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도무지 연구하지 않으니, 이는 이른바 한갓 글만 읽을 뿐³³이니 참된 학문에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아아, 슬프도다. 황제(黃帝)가 수레를 창조하였으므로 현원씨(軒轅氏)라 불린 뒤에 백천 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몇 성인의 심사(心思)·목력(目力)·수기(手技)가 마멸 되었고, 또 몇 사람의 수(倕)³⁴처럼 공교한 손을 거쳤으며,

31 육진(六鎮) : 두만강(豆溝江) 기슭에 있는 여섯 고을. 곧 종성(鍾城)·경원(慶源)·회령(會寧)·경흥(慶興)·온성(穩城)·부령(富寧).

32 윤인(輪人)……주인(轔人)이니 : 이 넷은 모두 《주례》중에 나오는, 옛날 수레를 맡은 관리의 벼슬 이름.

33 글만 읽을 뿐 : 전국 때 장수 조괄(趙括)의 고사.

34 수(倕) : 중국 황제(黃帝) 때의 유명한 공장(工匠)의 이름.

또 상양(商鞅)³⁵ · 이사(李斯)³⁶ 같은 이들의 제도 통일을 가져왔으니, 이는 실로 저 현관(縣官)들의 학술에 비한다면 몇백 배나 나을 것이다. 그들의 정미로운 연구와 행하기 간편함이 어찌 우연한 일이겠는가. 이는 진실로 민생의 살림에 이익되고 나라 경영에 큰 그릇이 되는 것이다. 이제 나는 날마다 눈에 나타나는 놀랍고 반가운 것들을 이 수레의 제도로 미루어 모든 일을 짐작할 수 있겠으며, 또한 어렵듯이 나마 몇천 년 모든 성인의 고심(苦心)을 알 수 있겠다.

밭에 물을 대는 것으로 용미차(龍尾車) · 용골차(龍骨車) · 항승차(恒升車) · 옥형 차(玉衡車) 등이 있고, 불을 끄는 것으로서 흥흡(虹吸)³⁷ · 학음(鶴飮)³⁸ 등의 제도가 있으며, 싸움에 쓰는 수레로는 포차(砲車) · 충차(衝車) · 화차(火車) 등이 있어서 모두 서양의 《기기도(奇器圖)》³⁹와 강희제(康熙帝)가 지은 경직도(耕織圖)에 실려 있고, 그 글로 설명된 것은 《천공개물(天工開物)》⁴⁰ · 《농정전서(農政全書)》 명 서 광계(徐光啓)의 저)에 있으니 이에 뜻있는 이가 잘 연구하여 그 제도를 본받는다면 우리나라 백성들의 극도에 달한 가난병도 얼마쯤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내가 본 불끄는 수레의 제도를 대략 적어서 우리나라에 돌아가 이를 전하려 한다.

북진묘(北鎮廟)에서 달밤에 신광녕(新廣寧)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니, 성밖의 어떤 집이 저녁 나절에 불이 나서 이제 겨우 불길을 잡은 모양인데, 길 위에 수차(水車) 세 대가 있어서 방금 거두어 가려는 것을 내가 그들을 잠깐 멈추어 세우고 먼저 그 이름을 물었더니, 수총차(水銃車)라 한다. 그 제도를 살펴본즉 바퀴가 넷에 그 위에 큰 나무 구유가 놓였고, 구유 속에 커다란 구리그릇이 있으며, 구리그릇 속에는

35 상양(商鞅) : 전국시대 정치가. 위인(衛人)으로서 형명(刑名)의 학으로 진 효공(秦孝公)을 도와 부국강 병의 실적을 이룩하였다.

36 이사(李斯) : 전국시대 정치가. 진 시황(秦始皇)을 도와서 육국을 통일하였다.

37 흥흡(虹吸) : 굽은 관(管)으로 만들어서 액체(液體)를 이 그릇에서 다른 높은 그릇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 기계.

38 학음(鶴飮) : 흥흡과 비슷한 기계일 것이나 자세한 제도는 알 수 없다.

39 기기도(奇器圖) : 곧 《기기도설(奇器圖說)》. 서양 사람 등옥함(鄧玉函)의 저. 전중(轉重) · 취수(取水) · 전마(轉磨) 등 39도(圖)에다 각기 설명을 붙였다.

40 천공개물(天工開物) : 명 송옹성(宋應星)의 저. 중국의 천산(天產)과 인공(人工)에 관한 저서. 그 원본은 일본제국도서관(日本帝國圖書館)에 간직되었다.

구리통 둘을 두었는데, 구리통 사이에는 목이 을(乙) 자 모양으로 생긴 물총을 세웠다. 물총은 발이 둘이어서 양쪽 구리통에 통하였고, 양쪽 구리통은 짧은 다리가 있어서 밑에 구멍이 뚫렸으며, 구멍은 얇은 구리쇠쪽으로 문짝을 만들어서 물의 오르내림을 따라 여닫게 되었다. 그리고 두 구리통 주동이에는 구리반으로 뚜껑을 해 달되 그 둘레가 구리통에 꼭 알맞게 되었다. 그 구리반 한복판에 쇠기둥을 세워서 나무를 건너지르고 그 나무가 구리반을 누르기도 하고 들기도 할 수 있게 되어서 구리반의 드나들고 오르내림이 그 나무에 달렸다.

그리고는 물을 구리동이 속에 붓고 몇이서 나무를 밟으면 구리반이 솟았다 내렸다 하여, 대체로 물을 빨아들이는 조화는 구리반에 있다. 구리반이 구리통 목에까지 솟으면 구리통 밑에 뚫린 구멍이 갑자기 열리면서 바깥 물을 빨아들이고, 이와 반대로 구리반이 구리통 속으로 떨어지면 그 밑구멍이 세차게 닫히어서 이에 구리통 속에 물이 가득 차서 쏟아질 곳이 없으므로, 물총 뿌리로부터 을(乙) 자로 생긴 물총의 목으로 내달아서 위로 치솟아 내뿜으니, 여남은 길이나 물발이 서고 가로는 3, 40보에 뻗는다.

그 제도가 생황(笙簧 관악기(管樂器)의 일종)과 비슷하고 물 길는 이는 연방 나무 구유에 물을 들어부을 때 때문이다. 옆에 있는 두 물차는 그 제도가 이것과도 다르고 더욱 무슨 곡절이 있는 듯싶으나 창졸간에 상세히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물을 빨아들이고 뿐는 묘리는 거의 같았다.

물건을 찧고 뺏는 데는 큰 아륜(牙輪 치륜(齒輪))이 두 층으로 되어서, 쇠궁글 막대로 이를 퀘어 방 안에 세워두고 틀을 움직여서 돌리게 되었다. 아륜이라는 것은 마치 자명종(自鳴鍾)의 기계 속처럼 이가 들쭉날쭉하여 서로 맞물게 된 것이다. 방 안 네 구석에 두 층으로 맷돌반을 두고, 맷돌반의 가장자리 역시 들쭉날쭉하여 아륜의 이와 서로 맞물게 되었다. 그리하여 아륜이 한번 돌기만 하면 여덟 맷돌 반이 모두 다투어 돌며, 순식간에 밀가루가 눈처럼 쌓인다. 이 법은 시계의 속과 비슷하다. 길가의 민가들은 각기 맷돌 방아 하나와 나귀 한 마리씩이 있고 곡식 뺏는 데는 항상 돌곰배를 쓰며, 더러는 나귀를 끌어서 방아공이를 대신하기도 한다.

가루 치는 법은 굳게 닫힌 방 안에 바퀴가 셋이 달린 요차(搖車)를 놓았는데, 그 바

퀴는 앞이 두 개, 뒤가 한 개이다. 수레 위에 기둥 네을 세우고 그 위에 두어 섬들이 큰 채를 두 층으로 간들거리게 놓았다. 윗채에 가루를 붓고, 아래채는 비워 두어서 윗채의 것을 받아서 더 보드랍게 갈리도록 되었다. 그리고 요차 앞에는 막대기 하나를 바로 질렀는데 그 막대기의 한쪽 끝은 수레를 잡아 달리고 또 한쪽 끝은 방 밖으로 뚫고 나가 있다. 밖에 기둥 하나를 세워서 그 막대기 끝을 잡아매고, 기둥 밑에는 땅을 파서 큰 널빤지를 놓아 막대기 밑이 이에 닿게 했다. 그 널빤지 밑 한가운데에 받침을 놓고, 그 양쪽을 뜨게 하여 마치 풀무를 다루듯 한다. 사람이 널빤지 위에 걸터앉아서 다리만 약간 움직이면 널빤지의 두 머리가 서로 오르내리며 널빤지 위의 기둥이 견디지 못하여 흔들린다. 그러면 그 기둥 끝에 가로지른 막대기가 세계 들이밀고 내밀고 하여 방 안의 수레가 나섰다 물러섰다 한다. 방은 네 벽에 열 층으로 시렁을 매어서 그릇을 그 위에 올려 놓아 날아오는 가루를 받게 되었다. 방 밖에 앉아 있는 사람은 발을 놀리면서 책도 읽고 글씨도 쓰고 손님과 수작도 하여 못하는 일이 없다. 다만 등 뒤에 약간 요란한 소리가 들릴 뿐 누가 그러는지 알지 못한다. 대체로 그 발 움직이는 공력은 아주 적으면서도 일은 많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여자들이 몇 말 가루를 한 번에 치려면 머리도 눈썹도 삽시에 하얗게 되고 팔이 나른해지니, 그 어느 것이 힘이 덜들고 편리한 것인가. 이와 비교해 보면 어떤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고치 켜는 소차(纏車)는 더욱 묘하니 마땅히 본받아야 한다. 이는 아까 곡식 빻는 것과 같이 커다란 아룬을 쓰되 소차의 양쪽 머리에 아룬이 달리고, 그 역시 들쭉날쭉한 이가 서로 맞물려서 쉴 새 없이 저절로 돌아간다. 소차는 별 것이 아니요, 곧 몇 아름드리가 되는 큰 자새이고, 수십 보 밖에서 고치를 삶되, 그 사이에는 여러 층 시렁을 매고 높은 곳에서부터 차츰 낮은 데로 기울게 하고, 시렁 머리마다 쇠조각을 세워서 구멍을 바늘귀처럼 가늘게 뚫고 그 구멍에 실을 훈다. 틀이 움직이면 바퀴가 돌고, 바퀴가 돌면 자새가 따라 돌되 그 아룬이 서로 맞물려서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게 천천히 실을 뽑는다. 그 움직임이 거세지도 않고 몰리지도 않게 제대로 법도가 있으므로 실이 고르지 않거나 한데 얹히거나 하는 탈이 없는 것이다. 켄 실이 솔에서 나와 자새로 들기까지에 쇠구멍을 두루 지나서 텔도 다듬어진다.

고 가시랭이도 떨어져 버렸으며, 또 자새에 들기 전에 실몸이 알맞게 말라서 말쑥하고 매끄러우므로, 다시 재에 삭히지 않아도 곧 베틀에 올릴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고치 켜는 법이란 다만 손으로 훑기만 할 뿐이지 수레를 쓰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의 손놀림이 그 타고난 바탕 제대로의 성질에 맞지 않아서, 빠르고 더딘 것이 고르지 않다. 어쩌다 홀치고 섞갈리면 실과 고치가 성내는 듯 놀래는 듯 뛰어 내달려서 실커는 널판 위에 휘몰리어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되고, 무거리가 나서 덩이가 지면 저절로 광택을 잃게 되며 실밥이 얹히어 붙으면 실이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므로, 티를 뽑고 눈을 따려면 입과 손이 모두 피로하다. 이를 저 고치 켜는 수레와 비교하면, 그 우열이 또한 어떠한가. 나는 그들에게 고치가 여름을 나도 벌레가 생기지 않는 방법을 물었더니, 약간 볶으면(찌면) 나비도 나지 않고, 또 더운 구들에 말리면 나비도 나지 않고 벌레도 먹지 않으므로 겨울철이라도 졸 수 있다 한다.

길에서 날마다 상여(喪輦)를 만났는데, 그 제도는 한결같지 않으나 가장 거추장스럽게 보인다. 거의 두 칸 방만하고 오색 비단으로 휘장을 치고, 거기다 구름·꿩·참새 같은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렸으며, 당마루턱에는 혹은 은실을 땅아 늘이었다. 양쪽 대채의 길이는 거의 일곱여덟 발이나 되는데, 붉은 칠을 하고 누런 구리를 올려서 금빛으로 꾸몄다. 횡강목(橫杠木)은 앞뒤에 각기 다섯씩인데 길이는 역시 서너 발이나 되고 그 위에 짧은 막대기를 걸쳐서 양쪽을 어깨에 메게 되었다. 상여꾼은 적어도 수백 명이고, 명정(銘旌)은 모두 붉은 비단에 금자(金字)로 썼다. 명정대는 세 길이나 되는데 검은 칠을 하고 금빛 나는 용을 그렸다. 깃대 밑에는 발을 달고, 거기에 역시 막대기 두 개를 가로 놓아서 반드시 아홉 사람이 맨다. 붉은 일산 한 쌍, 푸른 일산 한 쌍, 검은 일산 한 쌍, 수레 양장 대여섯 쌍이 이에 따르고 그 다음에 저·통소·북·나팔 등 악대가 서고, 승려와 도사들이 각기 그 구색을 차리고 불경과 주문(呪文)을 외면서 그 뒤를 따른다. 중국의 모든 일이 간편함을 위주하여 하나도 혀짐이 없는데 이 상여만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물론 본받을 것이 못 된다.

희대(戲臺)

절이나 관(觀) 도사가 깃들이는 건물)이나, 사당의 맞은편 문에는 반드시 희대(戲臺)가 하나씩 있다. 들보의 수가 모두 일곱 혹은 아홉이므로 드높고 깊숙하고 웅걸하여 보통 점방과는 비길 바가 아니다. 이렇게 깊고 넓지 않으면 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들일 수 없는 까닭이다. 등자(登子)며, 탁자며, 의자며, 평상이며 모든 앉을 자리가 적어도 천을 헤아리며 붉은 칠이 조출하고도 사치롭다. 연로 천 리에 가끔 삿자리로 누(樓) · 각(閣) · 궁(宮) · 전(殿)의 모양을 본떠서 높은 희대를 만들었는데, 그 구조의 공교로움이 기와집보다 더 낫게 보인다. 혹은 현판에 ‘중추경상(中秋慶賞)’이라 하였고, 또는 ‘중원가절(中元佳節)’이라 하였다. 소소한 시골 동네에 사당이 없는 곳이면 반드시 정월 보름과 8월 보름을 맞이하여 이러한 삿자리로 희대를 만들어 여러 가지 광대놀이를 연출한다. 언젠가 고가포(古家舖)를 지나다가 보니, 길에 수레가 끊이지 않고 수레마다 여인들 일곱여덟 명씩 탔는데 모두 진한 화장에 고운 나들이 차림새였다. 그런 차들이 몇백 대로 셀 수 있는데, 이는 모두 소흑산(小黑山)에 가서 광대놀이를 구경하고 해가 저물어서 돌아가는 시골 부인네들이었다.

시사(市肆)

이번 천여 리 길에 지나온 시포(市舖)는 봉성 · 요동 · 성경 · 신민둔 · 소흑산 · 광녕 등지였는데, 그 크고 작고, 사치하고 검소한 구별이야 없지 않겠지만 그 중 성경이 가장 화려한 편이다. 그곳은 모두 비단 창에 수 놓은 무늬요, 길을 사이 두고 늘어선 술집들이 더욱 오색이 찬란하였다. 다만 이상한 것은 처마 밖에 불쑥 내민 아롱진 난간이 여름 장마를 겪고도 그 단청 빛이 퇴색하지 않은 것이었다. 봉성은 동쪽 변두리에 있는 다시 더 발전하지 못할 궁벽한 곳이지만, 그곳의 의자 · 탁

자 · 주렴 · 휘장 · 담요 등의 모든 도구라든가 꽃과 풀까지도 모두 우리로서는 처음 본 것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 문패며 간판들이 서로 사치 · 화려함을 다투어 그 겉치레를 꾸미기 위하여 낭비가 천금에 그칠 뿐이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장사가 잘 되지 않을뿐더러 재신(財神)이 도와 주지 않는다고 한다. 그들이 모신 재신은 흔히들 관공(關公)의 소상이었으며, 탁상에 향불을 피우고 아침저녁으로 머리를 조아리며 절하는 품이 가묘(家廟)보다 더하다. 이로 미루어 보면 산해관 안의 습속을 가히 예측할 수 있겠다.

길을 가면서 물건을 파는 장사치들은 혹은 큰 소리로 싸구려를 부르기도 하나, 푸른 천을 파는 장수는 손에 든 작은 북을 흔들고, 머리를 깎는 이는 양철판을 두드리고, 기름 장수는 바리때를 친다. 또 더러는 쇠징 · 대비치개 · 목탁 따위를 갖고 다니는 자도 있다. 그들이 거리를 감돌며 두드리는 소리가 쉬지 않으니 집 안에서 작은 아이들이 달려나와 이를 부른다.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두드리는 소리만 들으면 그 파는 물건을 알게 마련이다.

점사(店舍)

점사는 뜰이 넓어서 적어도 수백 보는 된다. 그렇지 못하면 수레와 말과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문에 들어가서도 한 마장을 달리어야 전당(前堂)에 이르니, 그 넓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낭각 사이에 의자 · 탁자 40~50개가 놓였고 마굿간에는 길이가 두세 칸, 너비가 반 칸쯤 되는 돌구유가 있었는데 돌이 아니면 벽돌을 쌓아서 돌구유처럼 만들었다. 뜰 가운데 역시 나무통 수십 개를 나란히 두고는 양쪽 머리에 아귀진 나무로 받쳐 두었다. 기명은 오로지 그림 그린 자기를 쓰고, 백통 · 놋쇠 · 주석 등의 그릇은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궁벽한 두메에 다허물어져 가는 집에서라도 날로 쓰는 밥주발 · 접시 등속은 모두 울긋불긋 그림을 아로새긴 것들이다. 이는 반드시 사치를 승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릇 굽는 이들의 솜씨가 본시 그러해서 아무리 조잡한 것을 쓰려 해도 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깨어져도 버리지 않고 밖으로 쇠못을 쳐서 다시 쓴다. 다만 아무리 해도 내가 알지 못할 것은 못이 그릇 속에는 비어져 나오지 않고 꼭 끼어서 풀로 붙인 듯 감쪽같은 것이다. 높이 두 자나 되는 여러 가지 빛깔의 술잔과 오지병이며, 꽃과 잎을 꽂은 병과 두루미 같은 것은 어딜 가나 흔히들 있다. 이로 미루어 보면, 우리나라 분원(分院)⁴¹에서 구운 것은 저자에 들어올 수도 없을 것들이다. 아아, 그릇 굽는 법 한 가지가 좋지 못하여 온 나라의 모든 일과 모든 물건이 그 그릇과 같아서 마침내 한 나라의 풍속을 이루었으니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교량(橋梁)

교량은 모두 무지개 다리여서 다리 밑이 성문과 같다. 큰 것은 뚝단배가 마음대로 지나갈 수 있겠고, 작은 것도 거룻배는 지나다닐 수 있다. 돌 난간에는 흔히들 구름 무늬와 공하(蚣蠍) · 교리(蛟螭) 등을 새겼고, 나무 난간에도 역시 단청을 입혔다. 그리고 양쪽 다리목에는 모두 팔(八) 자로 된 담을 쌓아서 이를 보호하게 하였다. 지나온 것 중에서 만보교(萬寶橋) · 화소교(火燒橋) · 장원교(壯元橋) · 마도교(磨刀橋)가 가장 큰 것들이다.

41 분원(分院) : 조선시대 궁중이나 중앙 관아에서 쓰던 자기를 만든 사옹원(司饔院)의 분원이 있었으므로 이런 이름이 생겼다. 경기도 광주(廣州) 즉 한강 기슭 마현(麻峴)의 건너편에 있었다.

16일 임진(壬辰)

개다.

정 진사 · 변 주부 · 내원과 이날도 서늘한 새벽에 먼저 떠나기로 약속했다. 신광녕에서 흥륭점(興隆店)까지 5리, 쌍하보(雙河堡) 7리, 장진보(壯鎮堡) 5리, 상홍점(常興店) 5리, 삼대자(三臺子) 3리, 여양역(閭陽驛) 15리, 모두 40리를 와서 점심을 먹었다. 이곳에서부터 등마루 없는 집이 시작된다. 여양역에서 두대자(頭臺子)까지 10리, 이대자(二臺子) 5리, 삼대자 5리, 사대자(四臺子) 5리, 왕삼포(王三舗) 7리, 십삼산(十三山) 8리 이날 80리를 가 십삼산에서 묵었다.

새벽에 신광녕을 떠날 때 지새는 달이 아직 땅 위에서 몇 자 아니 되는 곳에 걸려 있는데 서늘하고 완연하다. 계수나무 그림자가 성기고 옥토끼와 은두꺼비는 금방 도 손으로 만져볼 수 있을 듯하고 펄펄 날리는 항아(姪娥 달 속에 산다는 선녀)의 흰 옷자락 속으로 비치는 살결이 얼룡얼룡하여, 나는 정군(鄭君)을 돌아보면서,

“이상도 하이,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돋는구려.”

하였다니, 정은 그것이 달인 줄을 깜박 잊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늘 새벽에 여관을 떠나므로 처음에 정말 동서남북을 가리기 어렵더군요”

하매, 모두들 혀리를 잡았다. 조금 뒤에 달이 점점 기울어져 들 밖에 떨어지니 정도 역시 크게 웃었다. 아침 노을이 물결처럼 일어 먼 나무 끝에 가로 뻗치더니, 별 안간 천만 가지 이상한 봉우리로 화하여 맑은 기운 탄탄한 형세가 마치 용이 서린 듯 봉이 춤추는 듯 천리 별에 가없이 뻗쳤다. 나는 정을 돌아보면서,

“허, 장백산이 뾰얗게 눈에 드네그려.”

하니, 비단 정군만이 그러려니 할 뿐 아니라 모두들 기이하다고 외치지 않는 이가 없다. 그러나 조금 뒤에 구름과 안개가 말끔히 걷히니, 해가 이미 서 밟은 솟았는데 하늘에는 한 점 티끌도 없다. 별안간 먼 마을 나무숲 사이로 새어드는 빛이 마치 맑은 물이 하늘에 고여서 어린 듯, 연기도 아니며 안개도 아니요, 높지도 낮지도 않고 늘상 나무 사이를 감돌며 훨하니, 비치는 품이 마치 나무가 물 가운데 선 것 같고, 그 기운이 차츰 퍼지며 먼 하늘에 가로 비낀다. 흰 듯도 하고, 검은 듯도

한 것이 마치 큰 수정 거울과 같아서 오색이 찬란할뿐더러 또 한 가지 빛인 듯 기운인 듯 그 무엇이 있다. 비유 잘하는 이도 흔히들 강물빛 같다 하고 또는 호수(湖水)빛 같다 하나, 말끔하고도 어리어리한 것이 그 무엇인지는 실로 형언하기 어렵다. 그리고 동네와 집, 수레와 말들이 모두 그림자가 거꾸로 비친다. 태복은,

“이것이 곧 계문(薊門)의 연수(煙樹)을 시다.”

하기에, 나는,

“계주(薊州)가 여기서 오히려 천 리인데 연수가 어찌 이곳에 있으랴.”

하니, 의주(義州) 상인 임경찬(林景贊)의 말이,

“계문이 비록 이곳에서 멀지만 이를 통칭 ‘계문연수(薊門煙樹)’라 한답니다. 날씨가 청명하고 바람이 잔잔한 때면 요동 천 리 벌에 늘상 이 기운이 있사오나, 계주에 들어가더라도 만일 바람이 불고 날씨가 음산하면 볼 수 없습니다.”

한다. 이는 통상 겨울 날씨가 고요하고 따뜻하면 산해관 안팎에서 날마다 볼 수 있다 한다. 마침 여양(閻陽)의 장날을 만났는데 온갖 물건이 모여들고 수레와 말이 거리에 가득 찼다. 아로새긴 듯한 초롱 속에 가지가지 새를 넣어서 그 이름이 매화조(梅花鳥)니, 요봉(幺鳳)이니, 오동조(梧桐鳥)니, 화미조(畫眉鳥)니 하여 형형색색이다. 새장수는 수레가 여섯, 우는 별례를 실은 수레가 둘이어서 그 지저귀는 소리에 온 장판이 마치 깊은 산 속에나 들어온 듯싶다. 국차[菊茶] 한 잔, ‘불불[餽餽]’ 두 덩이를 사먹고, 거기서 조 역관(趙譯官) 명회(明會)를 만나서 어떤 술집에 들어가니, 마침 소주를 내린다기에 다른 집으로 옮기려 했더니 술집 아범이 성을 내고 조에게 달려들어 머리로 양가슴을 받으며 꼼짝 못하게 한다. 조는 부득이 웃고 자리에 돌아와 돼지고기 볶음 한 쟁반, 달걀 지진 것 한 쟁반, 술 두 주발을 사서 배불리 먹고 자리를 떴다. 멀리 십삼산을 바라보니, 산맥이 뻗어온 것도 없고 끊어진 곳도 없이 별안간 큰 별판 가운데에 열세 무더기의 돌매 봉우리가 날아와 앉은 듯하여, 그 보일락말락 기이하게 솟은 품이 마치 여름 하늘에 피어오르는 구름 봉우리 같다. 머리가 뾰얗게 센 늙은이 하나가 손에 조그만 낚싯대를 들고 그 끝에 고리를 달아서 참새 한 마리를 앉히고 색실로 발을 잡아 매어 길로 다니고 있다. 그 새짐승을 놀리는 양이 거의 다 이러하다. 더위에 지쳐서 졸리므로 말에서

내려 걷기로 했다. 7~8세쯤 되는 아이 하나가 머리에는 새빨간 실로 뜯 여름 모자를 쓰고 몸에는 고동색 운문사(雲紋紗) 두루마기를 입고 공단 까만 신을 신었는데, 걸음걸이가 아담하고 얼굴이 눈빛 같고 눈매가 그린 듯싶다. 내 짐짓 길을 막아 서니, 아이는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는 빛도 없이 앞에 와 공손히 절하고 땅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린다. 나는 황망히 안아 일으켰다. 그 뒤에 한 노인이 멀찌감치 따라오면서 웃음을 머금고,

“이 애는 이 늙은 몸의 손주놈이오. 영감께서 이 놈을 귀여워하시니, 원 뭐라 고마운 말씀을 사뢰리까.”

하기에, 나는 그 아이에게,

“나이는 이제 몇 살이냐.”

하고 물었더니, 아이는 손가락을 꼽아서 보이면서,

“아홉 살입니다.”

한다. 나는 또 성명을 물었더니, 그는,

“제 성은 사(謝)입니다.”

하더니, 곧 신발 속에서 작은 쇠빗[鐵箇] 하나를 꺼내어 땅에다 효(孝) · 수(壽)의 두 글자를 그으면서,

“효는 백행(百行)의 근본이요, 수는 오복(五福)의 으뜸이기에 저의 할아버지가 제게 축원하시기를 남의 아들이 되어서는 효도를 해야 한다 하시고, 또 저에게, 첫째는 수(壽)하라 하시고, ‘효’ · ‘수’ 두 글자를 합하여 아명(兒名)을 지어서 효수(孝壽)라 부르옵니다.”

하고 설명한다.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어,

“지금 무슨 글을 읽느냐.”

하고 물었더니, 효수는,

“두 책은 벌써 외고 지금은 학이편(學而篇) 《논어(論語)》의 편명)을 읽는 중입니다.”

하기에, 내가,

“두 책이라니 무엇무엇인가?”

하였더니, 그는,

“《대학(大學)》·《중용(中庸)》⁴²입니다.”

한다. 나는,

“그러면 강의(講義)도 이미 끝났느냐?”

하니, 그는,

“두 글은 외우기만 하였고, 《논어(論語)》는 강의(講義)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이어서,

“선생께서는 성이 누구시오니까?”

하기에, 나는,

“내 성은 박(朴)이야.”

하고 답하였다. 효수는,

“《백가원(百家源)》⁴³에도 없는 것이옵니다.”

한다. 노인은 내가 그 손자를 귀여워함을 보고는, 얼굴에 천진스러운 웃음을 가득 머금고,

“고려 노야(老爺)께서는 부처님같이 어지신 양반입니다. 아마 슬하에는 많은 봉새 같은 아드님에 기린 같은 손주님을 두신 모양이어서, 그 생각을 하시고 남의 어린 이를 귀여워하신 게죠.”

하기에, 나는,

“내 나이는 많이 먹었으나 아직 손자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이내,

“당신께서는 연세가 얼마나 되셨나요.”

하고 물었더니, 그는,

“헛되이 쉰여덟 해를 지났소이다.”

한다. 나는 손에 들었던 부채를 아이에게 주니, 노인은 허리춤에서 쇠사슬 고리에 달아매어 찼던 비단 수건과 아울러 부시까지 겹쳐 주면서 못내 고마운 뜻을 표한

42 대학(大學) · 중용(中庸) : 이 두 책은 본시 《예기(禮記)》중의 각기 한 편이었으나 주희(朱熹)가 뽑아 사서(四書)의 하나로 독립시켰다.

43 백가원(百家源) : 백가성(百家姓). 곧 여러 성씨를 모은 책으로, 중국 촌 글방에 흔히들 유행되는 책이다.

다. 나는 노인에게,

“댁은 어디 계신지요.”

하고 물었더니, 사생(謝生)은

“여기에서 멀지 않은 왕삼포(王三舗)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다. 나는,

“영손(俞孫)이 매우 숙성하고 총명하여 옛날 왕(王) · 사가(謝家)의 풍류⁴⁴에 부끄럽지 않겠소이다.”

하니, 사생은,

“조상(祖上) 때부터 내려오는 계통이 끊인 지 이미 오래이니 어찌 강좌(江左 강소성(江蘇省))의 풍류를 다시 바라오리까.”

한다. 길이 바빠서 드디어 서로 작별하였다. 아이가 공손히 읍하면서,

“영감, 행리(行吏) 보중(保重)하옵소서.”

한다. 나는 길을 가며 늘 그 아이의 절묘한 눈매와 동작이 눈에 삼삼하고 또 사생이 땅에 그린 몇 마디 말이 족히 서로 이야기할 만하였으나, 갈 길이 바빠서 그 집을 찾지 못하였음이 한스럽다.

17일 계사(癸巳)

개다.

아침에 십삼산을 떠나 독로포(禿老舗)까지 12리, 배로 대릉하(大陵河)를 건너기까지 14리, 대릉하점(大陵河店)이 4리, 이곳에서 묵었다. 이날 겨우 30리를 갔다.

대릉하는 그 근원이 장성 밖에서 시작하여, 구관대(九官臺)와 변문을 뚫고 광녕성을 지나 두산(斗山)을 나와서, 금주위(錦州衛) 지경에 들어와 점어당(點魚塘)에 이르러, 동으로 바다에 듈다.

44 왕(王)……풍류 : 왕 · 사는 진(晉)의 왕검(王儉)과 사안(謝安). 풍류는 왕검이 일찍이, “강좌의 풍류는 다만 사안이 있을 뿐이야” 하였으니, 이는 실은 자기를 비기어 하는 말.

호행통관(護行通官) 쌍림(雙林)은 곧 조선수통관(朝鮮首通官) 오림포(烏林哺)의 아들이며, 집은 봉성에 있다. 말은 호행이라 하지만 저는 태평차를 타고 뒤를 따를 뿐이며, 그의 행동거지는 우리 사행의 관할할 바가 아니다. 그는 하인 넷을 거느렸는데, 하나는 성이 악(鄂)이라 하여 연로의 조석 공궤와 말 먹이는 일만을 맡아보고, 또 하나는 이(李)인데 매를 가지고 그저 길에서 꿩 사냥만 일삼고, 또 하나인 서(徐)는 제 말로 의주 부윤 서모(徐某)와는 서로 일가간이라 하며, 또 하나는 감(甘)인데 그들은 모두 조선 사람이고 나이도 열아홉 살이며 눈매가 아름다워서 쌍림의 길동무들이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감(甘)이란 성은 없으니 이는 의심스러운 일이다. 내 책문에 든 지 10여 일이 되어도 쌍림의 꼴을 보지 못하더니, 통원보(通遠堡)의 시냇물을 건널 때 언덕에 올라가서, 내가,

“물살이 센데.”

하니, 이때 언덕 위에 깨끗하게 차린 되놈 하나가 우리 역관들과 함께 서 있다가 선뜻 조선말로,

“물살이 셉니다. 그런데도 용하게 건너셨습니다.”

한다. 그는 연산관에 이르러서 수역더리,

“아침나절 물 건널 때 얼굴이 웅위(雄偉)한 이가 거 누구요?”

하고 물으매, 수역은,

“정사 대감과 일가 형제 되시는 분이오. 글을 잘 아셔서 구경하러 오셨답니다.”

하니, 쌍림은,

“그러면 사점(四點)인가요?”

한다. 수역은,

“아니오, 정사 대감의 적친(嫡親) 삼종형제(三從兄弟)입죠.”

하니, 쌍림은,

“그럼, 이량위첸[伊兩羽泉]이구먼.”

한다. ‘이량위첸’이란 중국 말로 한냥 닷돈을 말한다. 한냥 닷돈은 곧 양반(兩半)이라, 우리나라에서 사족(士族)을 양반(兩班)이라 하니, 양반(兩半)과 양반(兩班)이 음이 같으므로, 쌍림이 ‘이량우첸[一兩五錢]’이라 하여 은어(隱語)를 쓴 것이다. 사

점(四點)이란 서(庶) 자이니 우리나라 서얼(庶孽)을 두고 말함이다.

사행이 갈 때마다 사무를 맡은 역관이 공비(公費)로 은 4천 양(四千兩)을 가져 가서 5백 양은 호행장경(護行章京)에게 주고, 7백 양은 호행통관에게 주어 차삯과 여관비에 쓰게 되었으나, 실상은 한 푼도 쓰는 일이 없이 상사와 부사의 주방(廚房)에서 돌려가면서 두 사람을 먹인다. 쌍림은 그 사람됨이 교활하고 조선말을 잘한다고 한다. 앞서 소황기보(小黃旗堡)에서 점심을 먹을 때 여러 비장·역관들과 둘러앉아서 한담을 하노라니, 쌍림이 밖에서 들어왔다. 여러 사람이 모두 반겨 맞았다. 쌍림이 부사의 비장 이성제(李聖濟)와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또 내원을 향하여 말을 불였다. 그것은 이 두 사람이 두 번째 길이어서 구면이기 때문이다. 내원이 쌍림더러,

“내, 영감께 섭섭한 일이 있소.”

하니, 쌍림이 웃으면서,

“무슨 섭섭한 일이오니까.”

한다. 내원은,

“상사또(上使道)께서는 비록 작은 나라의 사신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정일 품(正一品) 내대신(內大臣)⁴⁵이므로 황제께서도 각별히 예법으로 대우하시는 바이니, 영감은 대국 사람이지만 조선의 통관인즉 우리 사또에게 마땅히 체면을 지켜야 할 것이어늘, 두 사또께서 말을 같아타실 때마다 길가에 가마를 멈추시는 데마다 영감들은 마땅히 수레를 멈춰 기다려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번번이 수레를 그냥 몰아서 지나면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으니 이 무슨 도리요. 이래서 장경(章京)도 영감을 본받으니 더욱 한심한 일이오.”

하니, 쌍림은,

“그것은 당신이 모르는 거요. 대국의 체모가 당신네 나라와는 훨씬 다르오. 대국에서 칙사가 가면 당신네 나라 의정대신(議政大臣 내각의 세 대신)이 우리들과 평등하게 대접하여 말도 서로 공경하는 것인데, 이제 당신이 새로이 체모를 지어내어

45 내대신(內大臣) : 황제의 친척으로 시위하는 관직. 조선에서는 이런 것이 없으나 정사 박명원(朴明源)이 부마(駙馬)이므로 청(淸)의 제도에 비겨서 말한 것.

서 나더러 회피하란 말이오.”

하고 발끈 성을 낸다. 조 역관 학동(學東)이 내원에게 눈짓하여 더 다투지 말라 하였으나, 내원은 한층 소리를 높여서,

“그럼, 영감의 종놈은 어느 존전이라고 손에 매를 낀 채 의기가 양양하게 지나간단 말이오. 그건 해괴한 일이 아니오. 이제 다시금 그런 걸 보면 내 곧 곤장을 내릴 테니 영감은 괴이하게 여기지 마시오.”

하니, 쌍림은,

“그것은 아직 못 보았소. 만일 내가 보기만 하면 단매에 처치해 버리겠소.”

한다. 그는 조선말을 잘한다지만 가장 분명하지 못하고 다급하면 도로 북경말을 쓰곤 한다. 공연히 7백 냥 돈을 허비하니 실로 아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겠다. 내가 이때 종이를 꼬아서 코를 쑤시니, 쌍림이 제 콧담배(코로 피우는 담배) 그릇을 끌러서,

“재채기를 하시려오.”

하나, 나는 그와 말을 건네기도 싫고 또 콧담배 그릇을 쓰는 법도 알지 못하므로 받지 않았다. 쌍림이 날 보고 몇 번이나 말을 걸고 싶어했으나 내가 더욱 도사리고 앉으니 그는 곧 일어나서 나가 버렸다. 그 뒤에 역관들의 말을 들은즉, 쌍림이 내가 저와 수작을 건네지 않으므로 무료히 일어나서 매우 노하였다 한다. 그리고 그 아비가 늘 아문(衙門)에 앉아 있으니 만일 쌍림의 노염을 사면 구경하러 드나들 때 반드시 말썽이 있을 것이고, 또 속담에 웃는 낮에 침 못 뱉는다고. 저번 쌍림을 냉대한 것은 재미없는 일이라고들 한다. 나 역시 마음에 그러려니 여겼다. 이윽고 사행은 먼저 떠나고, 나는 곧히 잠들었기 때문에 늦게 일어나서 마침 밥상을 물리고 행장을 차리는 차에 쌍림이 들어온다. 나는 웃는 얼굴로 맞이하여,

“영감, 한참 못 뵈었구려. 요즘 안녕들 하시오.”

하니, 쌍림이 좋아라고 자리에 앉으면서 삼등초(三登草)⁴⁶를 달라 하고 또 제집에 붙일 주련(柱聯)도 구하며, 또 내가 먹는 진짜 청심환과 단오(端午)에 기름 먹인 접부채를 달라 한다. 나는 일일이 머리를 끄덕이면서,

46 삼등초(三登草) : 평안남도 삼등에서 나는 질이 좋은 담배.

“수레에 실은 짐이 도착되면 다 드리구말구.”

하고, 또,

“내 먼 길에 말을 타고 왔기에 꼭 고단하니 한 정거장만 당신과 한 수레에 타고 갔으면 좋겠소.”

하였더니, 그는 쾌히 승낙하면서,

“공자(公子)와 함께 타고 간다면 이 길이 꼭 제게 영광이겠소.”

하고, 곧 함께 떠날 즈음에 쌍림이 수레 윈편을 비워서 나를 앉히고 제가 스스로 몰아갔다. 쌍림은 또 장복을 불러서 오른편에 앉히고는 그더러,

“내가 조선말로 묻거든 너는 북경말로 대답하여라.”

한다. 둘이서 수작하는 것을 들으니 우스워서 허리를 잡을 지경이었다. 한편 쌍림의 조선말은 세 살 먹은 아이가 밥 달라는 말이 밤 달라는 듯싶고, 또 한편 장복의 중국 말은 반병어리가 이름 부르는 듯 언제나 애(艾)하는 소리만 거듭한다. 혼자서 보기는 참 아까운 일이다. 쌍림의 우리말이 장복의 중국말보다 어림없이 못하여 말끝마다 존비(尊卑)를 가려 쓸 줄 모르고, 게다가 말 마디를 굴릴 줄 모른다. 그는 장복더러,

“너, 우리 아버지를 보았니.”

하니, 장복은

“칙사 나왔을 때 보았소이다. 대감(大監) 수염이 좋으시고 내가 보행으로 뒤를 따르며 권마성(勸馬聲)을 거푸 지르니, 대감이 눈에 웃음을 가득 담고 ‘네 목청이 좋아. 그치지 말고 불러라’ 하시기에 나는 쉬지 않고 외쳤더니 대감이 연방 ‘좋다, 좋아’ 하시고, 괜산(郭山)에 이르러선 손수 차담(茶啖)을 주시었다오.”

하매, 쌍림은,

“우리 아버지 눈이 흉악해 보이지.”

하니, 장복은 깔깔 웃으면서,

“마치 꿩 잡는 매 눈과 같더구먼요.”

하니, 쌍림은,

“옳아.”

하고, 또,

“너, 장가들었나.”

한즉, 장복은,

“집이 가난해서 아직 못 들었습니다.”

하매, 쌍림은 연신,

“하하, 불상(不祥)하이.”

한다. ‘불상’이란 우리말로 ‘아아, 안 됐군’ 하고 차탄하는 따위의 말이다. 쌍림은 다시,

“의주 기생이 몇 명이나 되느냐?”

하매, 장복은,

“아마 30~40명 있죠.”

하니, 쌍림은,

“예쁜 것도 많겠지야.”

한다. 장복은,

“예쁘다 뿐이오. 양귀비(楊貴妃)⁴⁷ 같은 것도 있고, 서시(西施)⁴⁸ 같은 것도 있소. 이 름이 유색(柳色)이라는 기생은 수줍은 꽃, 밝은 달 같은 자태가 있고, 또 춘운(春雲)이란 기생은 구름을 멈추고 남의 애를 끊을 만큼 창(唱)을 잘한다오.”

하니, 쌍림은 깔깔대면서,

“이런 기생이 있다면 내가 갔을 때에는 왜 현신(現身)하지 않았나?”

한다. 장복은,

“만일 한번만 보시면 대감님 따위는 혼이 그만 구만 리 장천(長天) 구름 밖으로 날 아가 버리고, 손 속에 쥐었던 만 냥 돈이 저절로 사라지고는 저 압록강을 다시 건너오질 못하리다.”

하니, 쌍림은 손뼉치고 깔깔거리면서,

47 양귀비(楊貴妃) : 당 현종(唐玄宗)이 사랑하던 미녀 양태진(楊太真). 귀비는 봉호.

48 서시(西施) : 전국시대 월(越)의 미녀. 시는 그의 성이요, 서는 시가(施家)의 서편 동네에 살았기 때문이라 한다.

“내 다음 번 칙사를 따라 가거든 네가 가만히 데려오려무나.”

한다. 장복은 머리를 흔들면서,

“잘 안 될 거요. 남에게 들기면 목이 달아나게요.”

하고, 돌이 모두 한바탕 크게 웃는다.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30리를 갔다. 이는 대개 돌이 서로 피차의 말을 시험하려 한 것인데 장복은 겨우 책문에 들어온 뒤 길에서 주워 들은 데 불과하나, 쌍림이 평생 두고 배운 것보다 더 잘한다. 이로 보아 우리말보다 중국말이 쉬움을 알겠다. 수레는 삼면을 초록빛 전으로 휘장을 쳐서 걷어올렸고, 동서 양쪽에는 주렴을 드리우고 앞에는 공단으로 차일을 쳤다. 수레 안에는 이불이 놓였고, 한글로 쓴 《유씨삼대록(劉氏三代錄)》⁴⁹ 두어 책이 있다. 비단 언문(諺文) 글씨가 너절할 뿐 아니라 책장이 해어진 것이다. 내가 쌍림더러 읽으라 하였더니, 쌍림이 몸을 흔들면서 소리를 높여 읽었으나 전혀 말이 닿지 않고 뒤틀어 읽어 간다. 입 안에 가시가 돋힌 듯 입술이 얼어 붙은 듯 군소리를 수없이 내며 꿩끙거린다. 내 역시 한참 들어도 명하니 무슨 소린지 알 수 없다. 그래서는 제가 늙어 죽도록 읽어도 아무 보람이 없을 것이다. 길에서 사행이 말을 갈아타는데 쌍림이 수레에서 뛰어 내려 점포 속으로 몸을 숨겼다가 사행이 떠난 뒤에 천천히 수레에 올랐다. 전날 내원이 그를 나무랐을 때 곁으로 버티기는 하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움츠러들었던 모양이다.

18일 갑오(甲午)

개다.

새벽에 대릉하점(大凌河店)을 떠나 사동비(四同碑)까지 12리, 쌍양점(雙陽店) 8리, 소릉하(小凌河) 10리, 소릉하교(小凌河橋) 2리, 송산보(松山堡) 18리, 모두 50리를 가서 점심을 먹었다. 송산보에서 행산보(杏山堡)까지 18리, 십리하점(十里河店) 10리, 고교보(高橋堡) 8리, 모두 36리, 이날은 80리를 가서 고교보에서 묵었다.

49 《유씨삼대록(劉氏三代錄)》: 우리 고전 소설의 일종. 작자는 미상.

사동비 근처에 이르니, 길가에 큰 비석 네이 있는데 그 제도가 꼭 같으므로 지명을 사동비라 한 것이다. 그 중 하나는 만력(萬曆) 15년(1587) 8월 29일에 왕성종(王盛宗) 명말에 요동을 지키던 장수)을 요동전둔유격장군(遼東前屯遊擊將軍)으로 삼는다는 칙문(敕文)을 새겼고, 위에는 광운지보(廣運之寶)를 찍었는데 비문 가운데 노추(虜酋)⁵⁰라는 두 글자는 모두 지워 버렸다. 그 둘째는 만력 15년 11월 4일에 왕성종을 요동도지휘체통행사(遼東都指揮體統行事)로 삼아서 금주(金州) 지방을 지킨다는 칙문을 새긴 것이요, 그 셋째는 만력 20년(1592) 9월 3일에 왕평(王平) 명말에 요동을 지키던 장수)으로 요동유격장군(遼東遊擊將軍)을 삼는다는 칙문을 새긴 것인데, 위에는 칙명지보(敕命之寶)를 찍었고, 그 넷째는 만력 22년(1594) 10월 10일에 왕평으로 유격장군금주통할(遊擊將軍錦州統轄)을 삼는다는 칙문을 새겼고, 위에는 광운지보(廣運之寶)를 찍었다. 왕평은 왕성종의 아들이 아니면 조카인 듯싶다. 그들이 노추를 잘 막았다 하여 신종 황제(神宗皇帝)가 칙명을 내려 이를 표창하고, 큰 돌을 갈아 칙문과 고신(告身 사령장(辭令狀))을 새겨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의 가륵함을 드러냈다.

그러나 성종이 만일 요동에서 대대로 장수의 직책에 있었다면, 임진년에 왜놈들을 칠 때 참가하지 않았음은 어찌된 까닭일까.

전에 사행이 다닐 때 이곳에 이르면, 비장이 반드시 이 비석에다, ‘모일 모시에 관(關)에 나왔고 모일 모시에 이곳을 지난다.’고 써 놓기로 되어 있다. 먹이는 말이 곳곳마다 폐를 지어 한 곳에 천여 마리씩 몰리어 다니는데 모두 흰 뺏깔이다.

배로 소릉하를 건넜다. 수레에 몇 천 바리의 쌀을 싣고 지나가는데 먼지가 하늘을 덮는다. 이는 해주(海州)에서 금주(錦州)로 실어들이는 것이다. 사나운 바람이 일기에 내가 먼저 말을 달려 사관에 들어가 한숨 자고 나니, 정사가 뒤이어 와서 말하기를,

“낙타 수백 마리가 철물(鐵物)을 싣고 금주로 가더군.”

한다. 나는 공교롭게 두 번이나 낙타를 보지 못한 셈이다. 강가에 민가 몇 백 호가 있던 것이 지난해 몽고의 침략을 입어서 모두 아내들을 잃고 몇 리 밖으로 옮겨갔

50 노추(虜酋) : 오랑캐의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명이 청의 임금이나 장수를 부를 때 쓴 말.

다 한다. 이제 그 길가에 허물어진 담이 둘렸으나 네 벽만이 쓸쓸하게 서 있을 뿐, 강가 아래 위에 흰 장막을 치고 파수를 보고 있다. 대개 이 강은 몽고의 지경에서 50리밖에 되지 않은 곳으로 며칠 전에 몽고기병 수백 명이 이에 이르렀다가 수비가 있음을 알고 도망해 버렸다 한다. 송산(松山)에서부터 행산(杏山) · 고교(高橋)를 거쳐 탑산(塔山)까지의 백여 리 사이에는 동리나 점포가 있기는 하나 가난하고 쓸쓸하여 그들은 조금도 생업에 안주할 의사가 없다. 아아, 이곳이 곧 옛날 승정(崇禎) 경진(庚辰) · 신사(辛巳) 연간(1640~41)에 피흘리던 마당이다. 이제 벌써 백여 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소생하는 기색이 뵈지 않으니, 그 당시 용과 범들의 싸움이 격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지금 황제가 엮은 전운시(全韻詩) 주(注)에,

“승덕(崇德) 6년(1633) 8월에 명의 총병 홍승주(洪承疇)⁵¹가 구원병 13만 명을 송산에 모으니, 태종(太宗)이 곧 군사를 거느리고 떠나려 할 때 마침 코피를 쏟았는데, 일이 시급하자 중세가 더욱 심하여 사흘 만에 겨우 그쳤다. 제왕(諸王)과 패륵(貝勒)들이 천천히 행군하기를 청했으나 태종은 싸움에 이기려면 행군을 빨리해야 한다 하고는, 빨리 달려서 옛새 만에 송산에 이르러 군사를 송산 · 행산 사이에 풀어서 한길을 가로 막았다. 이에 명의 총병 여덟 명이 전봉을 범하는 것을 모두 쳐 무찌르고 그들이 필가산(筆架山)에 쌓아둔 양식을 빼았고, 해자를 파서 송산 · 행산의 길을 끊었다.

이날 밤 명의 여러 장수가 칠영(七營)의 보병을 거두어 와서 송산성(松山城) 가까이 진을 쳤다. 이에 태종이 여러 장수들에게 오늘 밤 들어 적병이 반드시 도망치리라 하고, 이내 호군(護軍) 오배(鼈拜)⁵² 등으로 사기(四旗)의 기병을 거느리고 전봉과 몽고 군사가 함께 나란히 진을 펴고 곧 바닷가에 닿게 하고, 또 몽고 고산액진(固山額眞)⁵³ 고로극(固魯克 액진의 이름인 듯하다) 등에게 명하여 행산 길에 매복

51 홍승주(洪承疇) : 명(明)의 장수로서 청군과 싸우다가 항복하여 청에 공이 많았다. 그가 송산에서 청군에게 사로잡혔을 때, 명의 조정에서는 그가 순국한 줄로 알고 치재하였다.

52 오배(鼈拜) : 만인. 일찍부터 전공을 세워 의정대신(議政大臣)이 되고, 강희 초년에 선제의 고명(顧命)을 받아 정치에 참여했으나 전횡이 심하여 적몰(籍沒) 당하였다.

53 고산액진(固山額眞) : 청의 벼슬 이름. 고산장경(固山章京)이라고도 함. ‘고산’은 만주 말에서 아름다

하였다가 적을 맞아서 치게 하고, 예군왕(睿郡王)⁵⁴을 시켜서 금주로 가서 탑산 한 길에 이르러 가로질러 적을 치게 하였다.

이날 밤 초경(初更)에 명의 총병 오삼계(吳三桂 명말의 이름 높던 장수) 등이 바닷 가로 도망치는 것을 서로 잇대어 추격하고, 또 파포해(巴布海 청 태조의 열한째 아들) 등을 시켜서 탑산 길을 끊고, 무영군왕(武英郡王) 아제격(阿濟格)⁵⁵에게 명하여 역시 탑산으로 가서 적을 쳐부수게 하며, 패자(貝子)⁵⁶ 박락(博洛 청 태조의 손자)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상갈이채(桑噶爾寨)에 가서 적을 쳐부수게 하고, 고산액진 담태주(譚泰柱)⁵⁷를 시켜서 소능하에 가서 바닷가까지 이르러 적의 돌아가는 길을 끊게 하며, 매륵장경(梅勒章京)⁵⁸ 다제리(多濟里 매륵장경의 성명)에게 명하여 패하여 달아나는 적을 추격하게 하고, 또 고산액진 이배(伊拜)⁵⁹ 등을 보내어 행산의 사방에서 명병(明兵)이 행산으로 도망하여 들어오는 것을 치게 하고, 몽고 고산액진 사격도(思格圖) 등을 보내어 그들의 도망하는 군사를 추격(追擊)하게 하며, 국구(國舅) 아십달이한(阿什達爾漢 청 태종의 장인인 듯하다) 등에게 명하여 행산의 병영을 가 보아서 만일 그곳이 좋지 못하거든 다른 곳을 골라서 옮기게 하며, 그 이튿날 예군왕과 무영군왕을 시켜 탑산의 사대(四臺)를 에워싸고 흥의포(紅衣礮 대포의 일종)로 쳐서 이겼다.

명의 총병 오삼계와 왕박(王樸 명말의 장수)이 행산으로 달아나니, 이날 태종은 군사를 송산으로 옮기고 해자를 파서 예우려 하였다. 이날 밤 총병 조변교(曹變蛟)⁶⁰ 가 진을 버리고 에워싼 것을 뚫고 나가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하므로 다시 내대신

운 칭호이므로 그들의 벼슬 이름 위에 씌워서 불렀다.

54 예군왕(睿郡王) : 청 태조의 열넷째 아들. 세조를 받들고 관에 들어가 이자성(李自成)을 깨뜨리고 중원 을 평정하였다.

55 아제격(阿濟格) : 청 태조의 열두째 아들. 무영군왕은 봉호.

56 패자(貝子) : 청의 벼슬 이름. 종실(宗室)이나 몽고 외번(外藩)에게 주었다. 패륵의 아래요, 진국공(鎮國公)의 위이다.

57 담태주(譚泰柱) : 만인. 명과 싸운 공으로 일등공(一等公)이 되었으나 나중에는 극형을 당하였다.

58 매륵장경(梅勒章京) : 팔기(八旗)의 부장(副將). 장경은 액진(額眞)이라고도 하였다.

59 이배(伊拜) : 만인. 홍승주를 송산에서 사로잡았다.

60 조변교(曹變蛟) : 명말의 장수. 홍승주를 따라 송산에서 싸우다가 붙잡혀서 죽었다.

(內大臣) 석한(錫翰) 등과 사자부락(四子部落) 도이배(都爾拜 사자부락 군대의 장수)에게 명하여 각기 정병 2백 50명을 거느리어 고교보(高橋堡)와 상갈이보(桑噶爾堡)에 매복시키고는 태종이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고교보 동쪽에 이르러 패륵 다택(多鐸)⁶¹으로 하여금 군사를 매복시켰다. 오삼계와 왕박이 패하여 고교보에 이르니 복병이 사방에서 일어나 겨우 몸을 빼쳐 도망하였다. 이 싸움에서 명병 5만 3천 7백 명을 죽이고, 말 7천 4백 필, 낙타 60필, 갑옷과 투구 9천 3백 벌을 노획하였다. 행산의 남쪽으로부터 탑산에 이르기까지 바다로 뛰어들어가 죽은 자도 심히 많아서 시체가 마치 물오리와 따오기처럼 물에 둉으나 청군은 잘못하여 다친 자가 겨우 여덟일 뿐, 그 나머지는 코피도 흘리지 않았다.”

한다. 아아, 슬프다. 이것이 이른바 송산·행산의 싸움이다. 각라(覺羅 청 태조 애 친각라(愛親覺羅))는 관외(關外)의 이자성(李自成)⁶²이요, 이자성은 역시 관내(關內)의 각라였으니, 명이 비록 망하지 아니한들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때에 13만의 많은 군사로 각라의 수천 명에게 에워싸인 바 되어서 잠시 동안에 마치 마른 나무가 꺾이듯이, 썩은 새끼 끊기듯이 되어버리고, 홍승주와 오삼계같이 슬기 있고 용맹스러움이 천하에 대적할 자 없는 이들이건만 한번 각라를 만나자 곧 혼이 날아가고 넋이 흘어져 그의 겨느린 13만의 군사가 마치 지푸라기나 물거품같이 사라지고 말았으니, 이 지경에 이르면 어찌할 수 없이 운수로 돌리지 않을 수 없겠다.

전에, 인평대군(麟坪大君)⁶³이 지은 《송계집(松溪集)》을 읽자니까,

“청병이 송산을 에워쌌을 때에 마침 효종 대왕(孝宗大王 이호(李淏)의 묘호)께서 세자의 몸으로 인질(人質)이 되어 청의 진중(陣中)에 계시더니 잠깐 다른 곳으로 막차(幕次)를 옮긴 사이에 영원총병(寧遠摠兵) 오삼계가 겨느린 만 명의 기병이 포위를 뚫고 달려 나오니 애초에 막차이던 곳이 바로 그 길목이었다.”

하였으니, 이야말로 왕령(王靈)이 계신 곳에 천지의 신명이 힘을 합하여 도우신 밝

61 다택(多鐸) : 청 태조의 열다섯째 아들. 보정왕(輔政王).

62 이자성(李自成) : 명말의 유적(流賊)으로서 북경을 함락시켜 명을 망하게 했으나 오삼계가 끌어들인 청군에게 패사하였다.

63 인평대군(麟坪大君) : 인조(仁祖)의 셋째 아들 이요(李漬)의 봉호. 병자호란이 끝난 뒤 세자(世子)와 봉림대군(鳳林大君)과 함께 볼모로 잡혀 갔다.

은 증협이 아니겠는가.

밤에 고교보(高橋堡)에 묵었다. 이곳은 지난해 사행이 은(銀)을 잃은 곳이다. 지방관은 이로 말미암아 파직을 당하였고, 근처 점포에 애매하게 죽은 사람이 있었으므로 갑군(甲軍)이 밤이 새도록 야경을 돌면서 우리나라 사람을 도적과 다름 없이 엄하게 방비한다. 사처방 청지기의 말에 의하면,

“이곳 사람들은 조선 사람을 원수같이 보아서 간 곳마다 문을 닫고 맞이하지 않으며, ‘고려야, 고려는 그 신세진 사관 주인을 죽였다. 단 천냥 돈이 어찌 4~5명의 목숨을 당할 것인가. 우리들 가운데도 불량한 이가 많지만 당신네들 일행 중엔들 어찌 좀도둑이 없을 건가’ 하고는 그 은근하는 교묘한 방법이 몽고와 다름없사옵니다.”

한다. 내가 이 사실을 역관에게 물으니, 그는,

“지난 병신년(丙申年 1776) 고부차(告訃次)⁶⁴로 사행이 갔다 돌아오는 길에 이곳에 이르러 공비은(公費銀) 1천냥을 잃어버린 일이 있습니다. 사신들이 의논하되, ‘이는 나라의 돈이라 만일 쓴 곳이 없을 때에는 액수를 맞추어서 환납함이 곧 국법이 거늘 이제 공연히 잃었으니 장차 돌아가 무슨 말로 사귈 것인가. 잃었다 한들 누가 믿으며, 이를 물자 한들 누가 감당하겠는가?’ 하고 곧 지방관에게 그 사연을 알렸더니, 곧 중후소 참장(中後所叅將)에게 알리고, 중후소에서는 금주위(錦州衛)에, 금주에서는 산해관 수비(守備)에게 알리게 되어 며칠 사이에 이 일이 예부(禮部)에 알려져서 황제의 분부가 이내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이 지방에 관은(官銀)으로 잃은 돈을 물리고, 또 이 지방관이 항상 도적을 막기에 힘쓰지 아니하여 길손에게 원통한 변을 당하게 하였다 하여 파직으로 그 책임을 지우고, 사관의 주인과 그 가까운 이웃에 사는 용의자들을 잡아다가 닥달해서 그 중 너덧 사람이나 죽었습니다. 사행이 미처 심양에 이르기 전에 황제의 분부가 벌써 내렸으니, 그 거행의 신속함이 이러합니다. 그 뒤로부터 고교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원수같이 봄이 괴이한 일은 아닐까 하옵니다.”

한다. 대개, 의주의 말몰이꾼들은 태반이 거의 불량한 축들이며, 오로지 연경에 드

64 고부차(告訃次) : 국상을 알리는 사신. 이때는 영조(英祖)의 국상을 알리는 고부사(告訃使)였다.

나드는 것으로 생계를 삼아서 해마다 연경 다니기를 저희들 뜰 앞처럼 여긴다. 그리고 의주부에서 그들에게 주는 것은 사람마다 백지 60권에 지나지 않으므로, 백여 명 말몰이꾼들이 길가며 훔치지 않으면 다녀올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은 압록강을 건넌 뒤로는 낮도 씻지 않고 병거지도 쓰지 않아 머리털이 더부룩하여 먼지와 땀이 엉기고 비바람에 시달리어 그 남루한 옷과 병거지 차림이 귀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꼴이 마치 도깨비처럼 우습게 보인다. 이 무리 중에는 열다섯 살 나는 아이가 있는데 벌써 이 길을 세 번이나 드나들었다는데 처음 구련성에 닿았을 때는 제법 말쑥하여 뵈던 것이 반 길도 못 가서 햇빛에 얼굴이 그슬리고 시꺼먼 먼지가 살에 녹슨 듯하여 다만 두 눈만 빠꼼하니 희게 보일 뿐 홀 고쟁이가 낚아서 엉덩이가 다 드러났다. 이 아이가 이러할 제야 다른 것들은 더욱 말할 나위도 없다. 그들은 전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도둑질하는 것을 보통으로 하고, 밤에 사관에 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훔치고 만다. 그러므로 이를 막으려는 주인의 수단도 극도에 달하였다. 지난해 동지(冬至) 사행 때에 의주 상인 하나가 은화를 가만히 가지고 오다가 말몰이꾼에게 맞아 죽었는데, 빈 말 두 마리만 고삐를 놓아서 도로 강을 건너보냈으므로 말이 각기 그 집에 찾아 드는 것을 증거로 삼아서 마침내 법에 걸렸다 한다. 그 흉험함이 대체로 이와 같으니 이제 그 은을 잃음이 어찌 이놈들의 소행이 아니라 할 수 있으리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사소한 일이지만 만일 병자년 호란(胡亂) 같은 일이 다시 있다 하면 용천(龍川) · 철산(鐵山)의 이서는 우리 땅이 아닐 것이다. 변방을 지키는 자 역시 알아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날 밤 바람이 심하여 날이 새도록 하늘을 뒤흔드는 듯하였다.

19일 을미(乙未)

개다.

새벽에 고교보를 떠나 탑산(塔山)까지 12리, 주사하(朱獅河) 5리, 조라산점(罩羅山店) 5리, 이대자(二臺子) 10리, 연산역(連山驛) 7리, 모두 32리를 가서 점심 먹었다. 또 연산역에서 오리하자(五里河子)까지 5리, 노화상대(老和尚臺) 5리, 쌍수포(雙樹舗) 5리, 간시령(乾柴嶺) 5리, 다봉암(茶棚菴) 5리, 영원위(寧遠衛) 5리, 모두 30리이다. 이날 62리를 가서 영원성 밖에서 묵었다.

어저께 별씨 부사 · 서장관과 새벽 일찍 탑산에 가서 해돋이를 구경하자고 약속하였으나, 모두 늦게 떠났으므로 탑산에 이르자 해가 세 발이나 높이 올랐다. 동남으로 큰 바다가 하늘에 닿은 즈음에, 만으로 해일 만큼 많은 상선(商船)이 간밤의 바람에 쫓기어 들어와서 작은 섬에 의지하였다가 마침 일시에 뜻을 달고 떠나는 것이 마치 물에 뜬 오리떼 같았다. 영녕사(永寧寺)는 숭정(崇禎) 연간에 조대수(祖大壽)⁶⁵가 처음 지은 절이라 한다. 절이나 관묘(關廟)는 요동에서 처음 그 웅장 화려함을 보았으므로 대략 기록한 바 있었으나, 그 뒤 길에서 수없이 본 것이 비록 대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제도는 대체로 같아서 이루 다 기록할 수도 없을뿐더러 역시 구경하기에도 지쳐서 나중에는 들어가 보지도 않았다. 길가에 여남은 길이나 되는 뒷봉우리가 있어 이름이 구혈대(嘔血臺)라 한다. 전하는 말에,

“청 태종이 이 봉우리에 올라서 영원성 안을 굽어보다가 명의 순무(巡撫) 원승환(袁崇煥)⁶⁶에게 패한 바 되어서 피를 토하고 죽었으므로 이 이름이 생겼다.”

한다. 영원성 안 한길 가에 조가(祖家)의 패루(牌樓)가 마주 섰는데, 그 사이가 수백 보나 되며, 두 패루가 모두 삼문(三門)으로 되었고 기둥마다 앞에 몇 길 되는 돌사자를 앉혔다. 하나는 조대락(祖大樂 조대수의 형)의 패루요, 또 하나는 조대수의 패루이다. 높이 모두 예닐곱 길이나 되는데, 대수의 패루가 조금 낮은 편이다. 둘

65 조대수(祖大壽) : 명의 장수로서 대릉하를 지키다가 실패하고, 면주(綿州)에서 청에게 항복하여 총병(摠兵)이 되었다.

66 원승환(袁崇煥) : 명말의 대장, 병부 상서(兵部尙書)로서 요동 순무(遼東巡撫)로 공이 많았으나 청과 화친하려 한다는 모함을 받아 죽음을 당했다.

다 옥결 같은 흰 돌로 충충이 쌓아 올려, 추녀 · 도리 · 들보 · 서까래며, 기와 · 처마 · 들창 · 기둥에 이르기까지 나무는 한 토막도 쓰지 않았고, 대락의 패루는 오색 무늬가 있는 돌로 세웠다. 두 패루를 세운 솜씨와 그 아로새긴 공력은 거의 사람 힘이 미칠 바가 아니었다. 대락의 패루에는 삼대(三代)의 고증(誥贈),⁶⁷ 곧 증조 조진(祖鎮)과 할아버지 조인(祖仁), 아버지 조승교(祖承敎)를 쓰고, 전면에는 원훈초석(元勳初錫)이요, 후면에는 등단준열(登壇峻烈)이며, 맨 위층에는 옥음(玉音)이라 썼고, 주련(柱聯)에는,

무덤이 처음 같아 새로운 경사가 네 대를 쌓였거니 | 松櫓如初慶善培于四世
자손이 현달하여 영광이 천추에 빛나리라 | 琳琅有赫貲永譽于千秋

라 새겼고, 그 뒷면에는,

노래로 찬송하니 늠름한 모습은 간성의 중책이요 | 恒赳興歌國倚干城之重
임금이 괴오시니 가륵한 공훈 금석에 새겼구나 | 絲綸錫寵朝隆銘鼎之褒

라고 새겼다. 대수의 패루에도 사대(四代)의 고증을 썼는데, 증조와 조부는 대락과 같고, 아버지는 조승훈(祖承訓)이다. 우리나라에서 만력 임진년(1592)에 왜란이 일어났을 때 승훈이 요동 부총병(副總兵)으로 기병 3천 명을 거느리고 맨 먼저 구원하러 왔던 사람이다. 윗층에는 확청지열(廓清之烈)이요, 아래층에는 사대원웅(四代元戎)이라 썼으며, 그 앞뒤 주련이며 날짐승과 길짐승의 모양이나 싸움하는 그림을 새긴 것은 모두 양각(陽刻)이다. 주련의 글은 바빠서 적지 못했다. 조씨는 요계(遼薊)에서 대대로 이름난 장수 집안이다. 승정 2년(1629) 일월에 청병이 북경을 쳐들어오매 이해 12월에 독수(督帥) 원승환(元承煥)이 조대수 · 하가강(何可剛)⁶⁸ 등을

67 고증(誥贈) : 추증과 같다. 정의 제도에 5품관 이상은 죽은 조 · 부 · 모 처를 추봉했는데 이때 고(誥)지를 붙였다. 생존한 이는 고봉(誥封)이라 한다.

68 하가강(何可剛) : 명의 장수로서 대릉하 싸움에 조대수가 청군에 항복하려는 것을 굳이 말리다가 피살되었다.

거느리고 들어와서 구원하여 지나는 곳마다 군대를 머물러서 지키니, 황제는 그가 이른다는 말을 듣고 심히 기뻐하여 그로 하여금 구원군을 모두 통솔하게 하였다. 청인이 이를 이간하려고 그 장수 고흥중(高鴻中)을 시켜 사로잡아 온 명의 태감(太監)⁶⁹ 두 사람 앞에서 일부러 귓속말로,

“오늘 군사를 포함은 아마 원 순무(袁巡撫)와 비밀 약속이 있어서 한 일인가 보오. 아까 두 사람이 와서 한(汗)⁷⁰을 뵙고 이야기하다 한참 만에야 돌아갔다오.”

하였다. 양 태감(楊太監 양의 성을 가진 태감)이 잠든 체하고 그 말을 가만히 엿듣고 있다가 청이 짐짓 그를 놓아 보내자 이 일을 황제에게 일러 바쳤다. 황제가 이 말을 듣고 마침내 월승환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 대수가 크게 놀라 하가강과 더불어 군사를 거느리고 동으로 달아나서 산해관을 헐고 나갔다. 그 뒤 금주·송산의 싸움에 조대락·조대성(祖大成)·조대명(祖大明 세 사람 모두 한 형제간임) 등이 모두 사로잡히고, 대수는 대릉하성(大凌河城)을 지키던 중 청군에게 에워싸였다가 양식이 다하여 마침내 항복하고 말았다. 이제 그들의 패루만 우뚝 서 있을 뿐, 농서(隴西)의 가성(家聲)⁷¹은 벌써 헐리어서 부질없이 후세 사람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그 무슨 소용이 있으리오. 대수가 성 안에 있던 곳을 문방(文坊)이라 하고, 성 밖에 있던 곳을 무당(武堂)이라 하였으나, 지금은 딴 사람이 들어있다. 그리고 서쪽 몇 길 되는 담 안에 조그만 일각문이 서 있고, 그 문과 담의 제도가 패루의 기묘한 솜씨와 비슷하다. 담 안에 오히려 두어 칸 정사(精舍)가 남아 있어서 이 지방 사람들은 이를 가리켜 대수가 한가할 때 글 읽던 곳이라 한다. 이날 밤에 천둥과 비가 새벽까지 멎지 않았다.

69 태감(太監) : 명의 벼슬 이름. 내부(内部) 모든 감(監)의 장관.

70 한(汗) : 청의 군장(君長)을 일컫는 말.

71 농서(隴西)의 가성(家聲) : 한(漢) 이광(李廣)이 농서의 명장으로 대대로 높은 명망이 일세를 올렸으나 끝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20일 병신(丙申)

아침에 개었다가 저녁나절에 비가 내리다.

이날 새벽에 영원성을 떠나 청돈대(淸墩臺)까지 7리, 조장역(曹莊驛) 6리, 칠리파(七里坡) 7리, 오리교(五里橋) 5리, 사하소(沙河所) 5리, 모두 30리를 가서 점심 먹으니, 사하소는 곧 중우소(中右所)다. 낮 뒤에 찌는 듯한 더위가 비를 빚더니 겨우 간구대(乾溝臺) 3리를 와서 큰 비가 왔다. 비를 무릅쓰고 연대하(煙臺河) 5리, 반립점(半拉店) 5리, 망하점(望河店) 2리, 곡척하(曲尺河) 5리, 삼리교(三里橋) 7리, 동관역(東關驛) 3리, 모두 30리이다. 이날 60리를 갔다. 청돈대는 해돋이를 구경하는 곳이다. 부사와 서장관이 닦을 임시에 먼저 떠나서 해돋이를 구경할 예정으로 내게 하인을 보내어 같이 가기를 청했으나, 나는 푸근히 자야겠다 하고 늦게 떠났다. 대체로 해돋이를 구경함도 역시 운수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내 전에 동쪽 바다에 노닐 때 총석정(叢石亭)⁷²의 해돋이와 옹천(甕遷 통천군 남쪽) · 석문(石門 통천군 바닷가)의 해돋이를 하나도 시원히 보지 못했다. 혹은 늦게 이르러 해가 벌써 바다를 떠났고, 혹은 밤새 자지 않고 일찍 나가 보면 구름과 안개에 가려서 흐리곤 하였다.

대개, 해뜰 하늘에 구름 한점 없으면 잘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이처럼 무미한 것이 없다. 이는 다만 빨간 구리 쟁반 한 덩이가 바다 속에서 나올 뿐 아무런 기관이 없는 것이다. 해는 임금의 기상이라, 요(堯)를 기리는 말에도,

바라볼 젠 구름이요 | 望之如雲

다가서니 해일러라⁷³ | 就之如日

하였으니, 그러므로 해가 돋기 전에는 반드시 많은 구름 기운이 그 변두리에 몰려들어, 마치 앞길을 인도하는 듯 뒤를 따르는 듯 의장(儀仗)을 갖추는 듯 천승(千

72 총석정(叢石亭) : 관동 팔경의 하나. 강원도 통천(通川)에 있다.

73 바라볼……해일러라 :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에서 나왔다.

乘) · 만기(萬騎)가 임금을 모시고 옹위하여 깃발이 펼려이고 용이 꿈틀거리는 듯 한 연후에야 비로소 장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구름이 너무 많이 끼면 도리어 가물가물하고 가려져서 또한 볼 것이 없으려니, 대개 새벽 순음(純陰) 기운이 햇빛을 받아서, 이로 말미암아 바위 틈에 구름이 서리고 시냇가에 암개가 피어나서 서로 비치어 해가 돋을락 밀락할 때에 그 기상이 원망스러운 듯 수심겨운 듯 해미가 끼어서 빛을 잃게 되는 것이다.

내 일찍이 총석정에서 해돋이를 구경하다가 읊은 시(詩)에,

나그네 밤중되자 서로들 외치는데 | 行旅夜半相叫讐
먼 마을 닭 울음소리 외로이 들리누나 | 遠雞其鳴鳴未應
먼 닭이 먼저 우니 그곳이 어디더뇨 | 遠雞先鳴是何處
내 마음속 그 소리는 파리처럼 가늘도다 | 只在意中微如蠅
이웃 개 짖던 것이 그마저 고요하구나 | 村裏一犬吠仍靜
고요에 잠긴 이 몸 마음속이 떨리네 | 靜極寒生心兢兢
이때에 또 한 소리 귓가에 울려 와서 | 是時有聲若耳鳴
더 자세히 들으니 또 한 소리 휘를 친다 | 纔欲審聽簷雞仍
예서 총석정이 가까워 십 리라니 | 此去叢石只十里
넓디넓은 바닷가에 해돋이를 보오리라 | 正臨滄溟觀日昇
하늘인양 물인양 혼돈하여 가이 없고 | 天水湏洞無兆朕
언덕 위에 물결 치니 벼락이 이는 듯이 | 洪濤打岸霹靂興
흑풍이 이는 곳에 온 바다를 뒤집는 듯 | 常疑黑風倒海來
멧부리째 뽑을 듯이 돌인들 온전하리 | 連根拔山萬石崩
고래 싸움 등 터지니 이게야 예사련만 | 無怪鯨鯢鬪出陸
별안간 바다 끊어 큰 봉새 날아든다 | 不虞海運值搏鵬
오래도록 이날 밤이 안 샐까 근심이라 | 但愁此夜久未曙
이제 더욱 혼돈한들 뉘라서 분간할꼬 | 從今混沌誰復徵
이곳에 신령 있어 삼엄한 경계 퍼니 | 無乃玄冥劇用武

땅 깊이 문이 닫혀 서산에 얼음 어네 | 九幽早閉虞淵冰
저 하늘 한 덩이가 뒤집혀 도는 듯이 | 恐是乾軸旋斡久
서북이 기울고 지구가 휘둘리네 | 遂傾西北隳環組
세 발 까마귀⁷⁴ 날기도 빨리 하네 | 三足之鳥太迅飛
뉘라서 그 발 하나를 놋줄에 달아맬까 | 誰呪一足繫之繩
해약(바다 귀신)의 옷과 띠에 검은 빛이 듣는 듯 | 海若衣帶玄漪滴
수비(바다의 여신)의 쪽질머리 차갑기 짹이 없네 | 水妃鬢鬟寒凌凌
큰 고기 설렁이며 용마처럼 달려올 제 | 巨魚放蕩行如馬
붉은 갈기 푸른 등성이 어찌 그리 터벅하고 | 紅鬢翠鬣何鬱鬢
하늘이 만물 낼 제 뉘라서 참간했나 | 天造草昧誰參看
미친 듯이 고함 치며 등불 켜고 보련다 | 大咷發狂欲點燈
창날 같은 혜성 꼬리 불살을 드리운 듯 | 攪搶擁彗火垂角
나무 위에 부엉이는 그 울음이 얕미워라 | 禿樹啼鶲尤可憎
잠깐 만에 바다 위에 작은 명을 생긴 듯이 | 斯須水面若小癮
용의 발톱 그릇 닿아 독이 나서 아픈 듯이 | 誤觸龍爪毒可疼
그 빛깔 점점 커져 만 리를 뻗치누나 | 其色漸大通萬里
물결 위 붉은 무늬 꿩 가슴 모습일레 | 波上邃量如雉膺
아득한 이 천지가 이제야 경계 생겨 | 天地茫茫始有界
붉은 빛 선 하나가 나누어 두 층 되네 | 以朱畫一爲二層
어둠 세계 깨어나서 온누리가 물든 듯이 | 梅澞新醒大染局
만상에 빛이 스며 비단 무늬 이루었네 | 千純濕色縠與綾
산호수 찍어 내니 검은 숯을 구우련가 | 作炭誰伐珊瑚樹
동녘에 빛 오르자 찌는 듯 뜨거워라 | 繼以扶桑益熾蒸
염제는 풀무 불어 입이 응당 비뚤겠고 | 炎帝呵嚙口應喝
축옹이 부채 부쳐 오른팔이 피로하리 | 祝融揮扇疲右肱
새우 수염 길다 한들 불사르긴 가장 쉽고 | 鯰鬚最長最易爇

74 세 발 까마귀 : 태양 속에 까마귀가 깃들었다는 전설. 삼족오(三足鳥).

달팽이 집 굳다 한들 저절로 익어지네 | 蠕房逾固逾自胥
얇은 구름 조각 안개 동으로 모여들어 | 寸雲片霧盡東轍
찬란한 온갖 상서 제각기 나타내네 | 呈祥獻瑞各效能
옥황상제 뵙기 전에 갖옷을 던져 두고 | 紫宸未朝方委裘
도끼 그린 병풍 치고 잠자코 비껴 앉아 | 陳辰設黼仍虛凭
조각달이 가늘건만 계명성과 빛을 새워 | 繖月猶賓太白前
등 · 설⁷⁵의 나라일망정 장단을 다투도다 | 頗能爭長薛與滕
붉은 기운 점점 얇어 오색이 찬란쿠나 | 赤氣漸淡方五色
머나먼 곳 물결 머리 그 먼저 맑아지니 | 遠處波頭先自澄
바다 위 온갖 괴물 어딘지 도망치고 | 海上百怪皆遁藏
희화(태양을 몰고 가는 귀신)만 홀로 수레를 타는구나 | 獨留羲和將驂乘
둥글둥글 저 얼굴이 육만하고 사천 년에 | 圓來六萬四千年
오늘 아침 변하더니 네모도 나는구나 | 今朝改規或四楞
만 길이나 깊은 속에 뉘라서 떠올릴지 | 萬丈海深誰汲引
하늘에도 섬돌 있어 오르게 되었구려 | 始信天有階可陞
등림⁷⁶의 익은 과실 한 낱이 붉어 있어 | 鄭林秋實丹一顆
해 아드님 붉은 공이 꺼지고 반만 올라 | 東公綵毬蹙半登
과보(해와 경주하던 선인(仙人))도 뒤에 와서 쉬지 않고 혈떡이고
| 夸父殿來喘不定
여섯 용이 앞을 서서 자랑하기 그지없네 | 六龍前導頗誇矜
하늘 가이 어두워져 얼굴빛을 짜푸린다 | 天際黯慘忽顰蹙
햇바퀴를 힘껏 밀어 기운이 배가 솟네 | 努力推轂氣欲增
길기가 항아리라 바퀴처럼 못 궁글어 | 團末如輪長如瓮
솟았다 잠겼다 철석 소리 들리는 듯 | 出沒若聞聲硠硠

75 등 · 설 : 전국 때 두 개의 작은 나라. 《맹자(孟子)》에서 나온 말.

76 등림(鄧林) : 곤 도림(桃林)인데, 중국의 전설에 과보(夸父)라는 선인(仙人)이 해를 쫓아 가다가 목이 타서 죽을 때 지팡이를 던지며 등림이 이룩되었다 한다.

어제와 같이 환하게 만물을 보려면 | 萬物咸觀如昨日
뉘라서 두 손으로 한 번 들어 뛰올릴꼬 | 有誰雙擎一躍騰

라 하였다. 대개 해돋는 광경은 천변만화하여 사람마다 보는 바가 같지 않을뿐더러 반드시 바다에서 구경할 것만도 아니다. 내가 요동 별에서 날마다 해돋이를 보았는데 하늘이 개서 구름 없으면 햇덩이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열흘을 두고 보아도 날마다 같지 않다. 부사와 서장관은 오늘도 역시 구름이 가려서 보지 못하였다 한다.

오후에 더위가 심하더니 소낙비가 억수로 폭부었다. 우장웃이 찌는 듯하고 가슴이 그득한 것이 더위를 먹은 듯싶다. 잠자리에 들 때 큰 마늘을 갈아 소주에 타서 마셨더니, 그제야 배가 편하여 온전히 잘 수 있었다. 밤새 비가 멎지 않았다.

21일 정유(丁酉)

비오다 개다 하다.

강물에 막혀서 동관역(東關驛)에 머물렀다. 들으니 옆 사관에는 등주(登州)에서 온 이 선생(李先生)이란 자가 있어서 점을 잘 치고, 또 사람을 시켜 우리나라 사람을 보고자 한다 하기에 식후에 찾아갔다. 그의 점치는 법은 태을수(太乙數)⁷⁷를 본다 한다. 나는 그에게,

“이게 자미두수(紫微斗數)⁷⁸가 아니오.”

하고 물었더니, 이생(李生)은,

“이른바 ‘자미(紫微)’란 소수(小數)에 불과하오나, 이 태을(太乙)은 곧 태을의 일성(一星)이 자미궁(紫微宮 옥황이 살고 있는 궁전)에 있어서 천일생수(天一生水)⁷⁹에

77 태을수(太乙數) : 점술의 용어. 태을은 별의 이름.

78 자미두수(紫微斗數) : 점술의 용어. 자미는 별의 이름. 제왕에 해당한 성좌(星座).

79 천일생수(天一生水) : 하늘이 열릴 때 첫째로 물을 냉는다는 것.

에 속하므로 ‘태을’이라 하오. 그리하여 을(乙)이란 곧 일(一)이요, 수(水)는 조화의 근본이며, 육임(六壬)은 곧 물이요, 둔갑(遁甲) 역시 태을이라, 이는 《오월춘추(吳越春秋)》⁸⁰ 같은 책에 명험(明驗)이 많이 나타나 있고, 육십사괘(六十四卦)《역경(易經)》에 실린 네 개의 괘가 도시 이에 자나지 못하는 거요. 그러므로 장수(將帥)가 된 자로서 이 육임과 둔갑(遁甲)의 법을 모르면 기변(奇變)을 알지 못하는 법이오.”

한다. 내 본시 성미가 관상(觀相)이나 사주(四柱 生년·월·일·시) 같은 걸 좋아하지 않으므로 평생에 그 법을 알지 못하고, 또 그가 말한 육임⁸¹·둔갑⁸²이라는 것이 둑시 허망한 것이므로 사주를 내어 주지 않았다. 보아하니 그 자 역시 그의 술수를 과장하여 많은 복채를 낚으려다가 내 기색이 매우 냉담함을 살피고 다시 말하지 않았다. 방 맞은편에 한 노인이 안경을 쓰고 앉아서 글을 베끼고 있기에, 그 앞으로 다가서서 베끼는 것을 본즉, 모두 근세의 시화(詩話)이다. 노인이 안경을 늦추고 봇을 멈추면서,

“손님이 멀리 오셨으니 길에서 해랑(奚囊)⁸³이 필수 풍부하시리니 아름다운 글귀 두어 구를 남겨 주시지요.”

한다. 그 베끼는 글씨는 비록 옹졸하나 시화에는 제법 묘한 것이 더러 있고, 노인 역시 생김새가 밝고 아담하고 곁에 놓인 물건들도 정쇄하기에 구들에 들어앉아서 서로 성명을 대니, 노인 역시 등주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성은 축(祝)인데 이름은 잊어버렸다. 그가 우리나라 여자의 비녀를 지르는 법과 의복 제도를 묻기에, 나는,

“모두 중국 상고 시대의 것을 본받았습니다.”

하니, 축은,

“좋아요, 좋소이다.”

한다. 나는 그에게,

“그럼, 귀향(貴鄉)의 여복은 어떠하오니까.”

80 오월춘추(吳越春秋) : 한(漢) 조육(趙煜)의 저. 전국 때 오와 월의 역사를 소설체로 쓴 것.

81 육임(六壬) : 육(六)이 음수(陰數)인 동시에 임(壬)도 북방의 귀신이었다.

82 둔갑(遁甲) : 다른 사람의 눈에 자기의 몸을 못 보도록 한다는 술법.

83 해랑(奚囊) : 시구를 수집해 넣은 주머니. 당(唐) 천재 시인 이해(李賀)의 고사에서 나왔다.

한즉, 츄은,

“대략 같습니다. 풍습이, 여자가 시집갈 때면 쪽지만 하고 비녀는 꽂지 않으며, 빈부를 가릴 것 없이 평민(平民)의 부녀는 관(冠)을 쓰지 않고, 다만 명부(命婦)⁸⁴만이 관을 쓰는데, 제각기 남편의 직품(職品)에 따라서 잠이나 머리꽂이 역시 모자의 제도와 같이 충하가 있으며, 쌍봉차(雙鳳釵)가 제일 고귀하되, 그 중에도 비봉(飛鳳) · 입봉(立鳳) · 좌봉(坐鳳) · 즐봉(戢鳳) 등의 구별이 있고, 비취잠(翡翠簪)에도 모두 품직의 차이가 있으며, 처녀는 긴 바지저고리를 입다가 시집가면 적삼에다 큰 소매 달린 긴 치마를 입고 띠를 두릅니다.”

한다. 나는,

“등주가 여기서 얼마나 되며, 무슨 일로 이곳에 와 계시오.”

하니, 츄은,

“등주는 옛날 제(齊)의 지경으로 이른바 바다를 등진 나라라 하는 곳입니다. 육로는 북경까지 1천 5백 리지만 우리들은 배를 타고 면화(綿花)를 사러 금주(金州)에 가다 이곳에 지체하고 있습니다.”

한다. 그 베끼는 글 중에 다음과 같이 적힌 것이 있다.

나홍선(羅洪先 양명학파(陽明學派)의 대가)은 길수(吉水) 사람인데, 명(明)의嘉靖(嘉靖) 기축년(1529) 과거에 장원(壯元)했다.

주연유(周延儒)⁸⁵는 직례(直隸) 사람인데 만력(萬曆) 계축년(1613) 과거에 장원했다.

위조덕(魏藻德)⁸⁶은 통주(通州) 사람인데 숭정(崇禎) 경진년(1640) 과거에 장원했다.

그 중 연유는 명의 왕실을 크게 무너뜨렸고, 조덕은 적병에게 항복하였으나 죽음을 당했고, 나홍선은 문묘에 종사(從祀)되었으나 그는 20년 동안 성인의 도(道)를

84 명부(命婦) : 부녀로서 봉호를 받음이니 내명부와 외명부의 구별이 있다.

85 주연유(周延儒) : 내치(內治)와 외정(外政)에 많은 공이 있었으나, 위인이 용렬하여 나중에 사사(賜死)되었다.

86 위조덕(魏藻德) : 이자성에게 붙잡혀 굴복하였으나 피살되었다.

배운 힘이 마음속에 겨우 ‘장원(壯元)’ 두 글자를 잊어버렸을 정도이다.

또 근세의 유림(儒林)들을 열록(列錄)하였다.

육가서(陸稼書) 선생의 시호는 청헌(淸獻)이니,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하였다.

탕형현(湯荊峴)⁸⁷ 선생의 휘는 빈(斌)이요, 시호는 문정(文正)이요, 자는 공백(孔伯)이며, 호는 잠암(潛菴)이니, 문묘에 종사하였다.

이용촌(李榕村 용촌은 호(號)) 선생 광지(光地) 운운(云云).

위상추(魏象樞 청초의 직신(直臣), 자는 환극(環極))는 모두들 큰 선비라 일컫는다.

서섬포(徐蟾圃 청초의 학자. 섬포는 호) 건학(乾學) 운운(云云).

그리고 축 노인(祝老人)은 이야기를 멈추고 다시 글 베끼기에 바빴다. 그 옆에 다섯 권 책이 있어 고인의 생년 · 월 · 일 · 시를 적었는데 하우씨(夏禹氏) · 항우(項羽) · 장량(張良) · 영포(英布 한의 명장) · 관성(關聖 관우(關羽)) 등의 사주가 모두 적혀 있다.

내가 종이 몇 쪽을 빌려서 한 벼루에 대고 대강 초하는데 이때에 점쟁이 이(李)는 방에 있지 않았더니, 내 겨우 백 명 남짓 베꼈을 때 그가 밖에서 들어와서 보고는 크게 노하여 이를 빼앗아 찢으면서,

“천기(天機)를 누설하면 아니돼.”

하기에, 나는 한 번 걸껄 웃고 일어나 사관으로 돌아왔다. 손에는 오히려 찢은 나머지 종이쪽이 있다.

왕서공(王舒公 진 명제(晉明帝)의 명신)은 신유 11월 1일 진시(辰時)에 나다.

부정공(富鄭公 부필(富弼), 정공은 봉호)은 갑진 정월 20일 사시(巳時)에 나다.

소자용(蘇子容)은 경신 2월 22일 사시에 나다.

왕정중(王正仲 중(仲)은 중(中)인 듯, 명말의 절신(節臣))은 계해 정월 11일 신시(申

87 탕형현(湯荊峴) : 청(淸) 초의 명신. 형현은 자.

時)에 나다.

한장민(韓莊敏)은 기미 7월 9일 인시(寅時)에 나다.

채경(蔡京 송(宋)의 정치가)은 정해년 임인월 임진일 신해시에 나다.

증포(曾布 송대 증공(曾鞏)의 아우 채경에게 밀려났다)는 을해년 정해월 신해일 기해시에 나다.

그 중 한장민 · 왕정중은 어느 때 사람인지 알 수 없으나, 이 모두 귀인임은 짐작할 수 있겠다. 이른바 ‘천기 누설’이란 말은 비루하기 짝이 없다.

오후에 비가 잠깐 개기에 심심하여 한 상점에 들어갔다. 틀 안에는 반죽(斑竹)으로 난간을 두르고, 도미(茶簾 장미과에 속한 식물)로 짠 시렁 아래에 한 길 되는 태호석(太湖石)⁸⁸이 서 있다.

돌 빛은 파랗고 뒤에는 길 넘는 파초(芭蕉)가 심어져 있어서 비온 뒤의 빛깔이 더욱 산뜻해 보인다. 난간 가에 다만 사람 하나가 걸터앉아 있고, 책상 위에 놓인 붓과 벼루가 다 품질이 좋은 것들이다. 내가 그 자리에 들어 앉아 글을 써서 성명을 물었더니, 그는 손을 흔들며 대답하지 않고 곧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가버렸다.

내 생각에 그는 아마 주인이 아닌가보다 하였으나 태호석을 구경하느라고 잠깐 지체하였더니, 그 사람이 한 청년을 데리고 웃으며 들어온다.

청년이 내게 읍하여 앉히고 바삐 종이 한 쪽을 내어 만주 글자를 쓰기에, 나는,
“그건 모르오.”

한즉, 둘이 다 웃는다. 아마 주인이 글을 한 글자도 모르므로 나가서 맞은편 점포 청년을 데리고 온 모양이다.

그 청년은 비록 만주 글은 잘 아는 듯하나 한자(漢子)는 모르므로, 마침내 서로 말로 두어 마디 수작(酬酢)하였으나 피차에 얼버무려 넘기니, 이야말로 이른바 귀머거리 아닌 귀머거리요, 장님 아닌 장님이요, 병어리 아닌 병어리 꼴이다.

세 사람이 정좌(鼎坐)한즉 천하에 더할 나위 없는 병신들이다. 다만 서로 웃음으로 껄껄거리고 지나가는 판이다. 아까 그 청년이 만자(滿字)를 쓸 때 주인은 옆에서,

88 태호석(太湖石) : 양주(楊州) 태호에서 나는 돌. 구멍이 많고 주름살이 잡힌 것.

“동무가 먼 곳에서 찾아 오니 어찌 기쁘지 않겠소.”⁸⁹

하기에, 나는,

“나는 만주 글을 모르오.”

하니, 청년은,

“배운 것을 때로 복습하면 어찌 즐겁지 않겠소.”⁹⁰

한다. 나는,

“그대들이 《논어》를 이처럼 잘 외면서 어찌 글자를 모르나.”

하니, 주인은,

“남이 나를 몰라주더라도 노여워하는 뜻을 품지 않는다면 어찌 군자(君子)가 아니겠소이까.”⁹¹

하기에, 나는 시험삼아서 그들이 외운 석 장(章)을 써 보인즉, 그들은 모두 눈이 등 그레지며 들여다볼 뿐, 명하니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는 모양이다. 이윽고 소나 기가 퍼부어서 옆에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고 조용히 이야기하기에 좋으나, 둘이 다 글을 모르고 나 역시 북경 말에 서툴러서 어찌는 수 없다.

지척(咫尺) 사이에 비에 막혔으므로 더욱 마음이 갑갑하고 무료(無聊)하기 짹이 없다. 청년이 일어나 나가더니 조금 뒤에 그 비를 무릅쓰고 손에 능금 한 바구니, 달걀 지진 것 한 쟁반, 수란(水卵) 한 자배기를 들고 왔다. 그 자배기는 둘레가 칠 위(七圍 다섯 치)나 되고, 두께는 한 치, 높이는 서너 치 되는데 푸른 유리를 올리고 두 볼엔 도철(饕餮)⁹²의 무늬를 새겼으며, 입에는 큰 고리를 물렸는데 세숫대야로 쓰기에 알맞을 것 같으나 무거워서 멀리 가져 갈 수는 없게 생겼다.

그 값을 물으니 1초(鈔)라 한다. 1초는 1백 63푼이니 은(銀)으로 치면 겨우 서 돈에 지나지 않는다. 상삼(象三)의 말이,

“이계, 북경에선 두 돈밖에 주지 않으나 몹시 무거워서 옮겨가기 어렵습니다. 만일 우리나라에 가져 가면 희귀한 보배일 줄 뻔히 알면서도 어찌 할 수 없습니다.”

89 동무가……않겠소 : 《논어(論語)》 학이장(學而章)의 첫째 절(節).

90 배운……않겠소 : 《논어(論語)》 학이장의 둘째 절.

91 남이……아니겠소이까 : 《논어(論語)》 학이장의 셋째 절.

92 도철(饕餮) : 탐식하는 악수(惡獸)의 이름. 옛날 그릇에 흔히 이를 새겼다.

한다. 저녁 때 비가 쾌히 개기에 또 한 점포에 들렀더니, 역시 등주서 온 장사치 세 사람이 솜을 틀고 고치를 켜기 위하여 배로 금주(金州)를 다니는데, 대개 금주의 우가장(牛家庄)은 등주에서 수로로 2백여 리의 맞은 편이건만 순풍에 둑을 달아 쉽사리 왕래할 수 있다 한다. 셋이 모두 약간 글을 아나 다만 사납게 생긴데다 전혀 예의를 모르고 버릇없이 농담을 붙이기에 곧 돌아왔다.

22일 무술(戊戌)

개다.

동관역에서 떠나 이대자(二臺子)까지 5리, 육도하고(六渡河橋) 11리, 중후소(中後所) 2리, 모두 18리를 가서 점심 먹다. 중후소에서 일대자(一臺子) 5리, 이대자 3리, 삼대자(三臺子) 4리, 사하점(沙河店) 8리, 엽가분(葉家墳) 7리, 구어하둔(口魚河屯) 3리, 어하고(魚河橋) 1리, 석교하고(石橋河) 9리, 전둔위(前屯衛) 6리, 모두 48리이다. 전둔위서 묵었다. 이날 66리를 갔다.

배로 중후소하(中後所河)를 건너다. 옛날엔 성이 있었더니 중년에 허물어져서 방금 수축하는 중이다. 점포와 여염이 심양에 버금가겠고, 관제묘(關帝廟)의 장려함이 요동보다 나은데 매우 영힘이 있다 한다. 일행이 모두 예폐(禮幣)를 바치고 머리를 조아리며 제비를 뽑아 길흉을 점쳐본다. 창대가 참외 한 개를 놓고 무수히 절하고 또 그 참외를 소상 앞에서 제가 먹어버렸다. 제가 무엇을 빌었는지는 알 수 없겠으나, ‘가진 것이 적으면서 바라는 것은 너무 사치롭다.’⁹³는 옛말이 곧 이를 두고 이름이다. 문 안 조장(照牆)에 그린 파란 사자가 그럴 듯하다. 이는 감로사(甘露寺)의 것을 본뜬 것 같다.

오도자(吳道字)⁹⁴가 그리고, 동파(東坡 소식(蘇軾)의 호)가 찬(贊)을 지었는데, 그 글에,

93 가진……사치롭다 : 《사기(史記)》골계전(滑稽傳) 중에 실린 순우곤(淳于髡)의 말.

94 오도자(吳道字) : 당(唐)의 저명한 화가(畫家)인 오도현(吳道玄). 도자는 자.

위엄은 이빨에 보이고 | 威見齒
기쁨은 꼬리에 나타나네 | 喜見尾

하였으니, 이는 가히 잘 형용했다고 할 만하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텔모자는 모두 이곳에서 만드는 것이다. 그 공장은 모두 셋이 있는데, 한 집이 적어도 30~40칸은 되며 거기서 일하는 공인은 모두 백 명이 넘는다. 의주 상인들이 수없이 많이 와서 모자를 예약해 놓았다가 돌아갈 때 싣고 간다. 모자 만드는 법은 매우 쉽다. 양털만 있다면 나도 만들 것인데, 우리나라에선 양을 치지 않으므로 인민이 1년 내내 고기 맛을 모르고, 전국의 남녀 수는 수백 만이 넘는데 사람마다 텔모자 하나씩을 써야만 겨울을 날 수 있게 된다. 해마다 동지(冬至) · 황력(黃曆)⁹⁵ · 재자(賚資)⁹⁶ 등의 사행에 가지고 가는 은이 줄잡아도 10만냥은 될 것인즉, 10년을 계산하면 무려 백만 냥이다.

모자는 사람마다 삼동만 쓰다가 봄이 되어서 해지면 버리고 말 뿐인즉, 천 년을 가도 헐지 않는 은으로써 한겨울 쓰면 내어버리는 모자와 바꾸고 산에서 캐어 내는 한도 있는 은을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땅에 갖다 버리니, 그 얼마나 생각이 깊지 못한 일인가. 모자를 만드는 기술자들은 모두 웃통을 벗고 그 손놀림이 바람처럼 날쌔다. 우리나라에서 갖고 온 은화(銀貨)가 이곳에서 받은 사라지는 터 이므로 공장 주인이 각기 단골 손님을 정하여 의주(義州) 장사치가 오면 반드시 크게 주식(酒食)을 베풀어 대접한다는 것이다.

길에서 도사 세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은 짹을 지어 시장 골목으로 두루 돌아다니며 구걸한다. 그 중 하나는 머리에 구름 무늬를 놓은 검은 사(紗)로 만든 모난갓을 쓰고, 몸에는 옥색 추사(繡紗)로 지은 소매가 넓고 길이가 긴 도포와 푸른 항라바지를 입고, 허리에는 붉은 비단띠를 띠고 발엔 붉고 모난 비운리(飛雲履)⁹⁷를 신

95 황력(黃曆) : 역서(曆書)를 받으러 가는 사행. 본시 동지사가 받아왔던 것을 조선 현종(顯宗) 원년부터는 따로 가게 되었다.

96 재자(賚資) : 삼사의 격식을 갖추지 않고 역관 중에서 적당한 사람을 골라서 보내는 약식 사행.

97 비운리(飛雲履) : 신발 이름. 검은 능 바탕에 흰 견을 가지고 구름 모양으로 꾸몄다. 당의 백거이(白居

고, 등에는 옛 참마검(斬魔劍) 마귀를 베는 칼)을 지고 손에는 죽간(竹簡)을 들었는데, 흰 얼굴과 삼각(三角) 수염에 미목이 헌칠하다.

또 하나는 머리에 두 갈래 뿔상투를 짜고 붉은 비단을 감았으며, 몸에는 소매가 좁은 푸른 비단 저고리를 입고, 어깨에는 벽려(薜荔)⁹⁸를 걸치고, 두 무릎 위에는 호피(虎皮)를 대었으며, 허리에는 홍단 넓은띠를 띠고 발에는 청혜(靑鞋)를 신고, 등에는 비단으로 꾸민 오악도(五嶺圖) 오악을 그린 그림)의 족자를 지고 또 허리엔 금호로병을 찼으며, 손에는 도서(道書) 한 갑(匣)을 들었는데 얼굴은 희고 가냘프다. 또 하나는 머리를 말아서 어깨에 척 걸치고 금테를 둘렀으며, 몸은 검은 공단으로 지은 소매 넓은 장삼(長衫)을 입고, 맨발인 채 손엔 붉은 호로병을 들었다. 붉은 얼굴에 고리눈이요, 입 속으로 주문(呪文)을 외면서 간다. 저자 사람들의 기색을 살피건대 모두 그들을 싫어하는 모양이다.

석교하에 다다르니, 강물이 불어서 물과 언덕의 분간이 없다. 물은 그렇게 깊지 않으나 물살이 제법 세다. 모두들 말하기를,

“지금 곧 건너지 않으면 물이 차츰 더 불 걸.”

한다. 이에, 나는 정사의 가마에 들어 함께 건너서 저쪽 언덕에 닿아서 보니 말을 타고 건너는 이는 모두 모두 하늘을 쳐다보고 얼굴빛[顏色]이 푸르락누르락 한다. 서장관의 비장 조시학이 물에 떨어져 하마터면 죽을 뻔하여 모두들 몹시 놀랐다. 의주 상인 중에 돈주머니를 빼뜨린 자가 있어 물을 굽어 보면서, ‘아이구, 어머니’하고 통곡하는 자도 있었다 한다.

전둔위 시장에 연극이 열렸다가 막 파하려 한다. 시골 여자 수백 명이 모두 늙은 이들이었으나 오히려 차림새는 야단스럽게 꾸몄다. 연극하는 자는 망포(鱗袍) · 상흘(象笏) · 피립(皮笠) · 종립(櫻笠) · 등립(藤笠) · 종립(鬢笠) · 사립(紗笠) · 사모(紗帽) · 복두(幞頭) 같은 것이 완연히 우리나라 풍속과 다름없다. 도포는 자줏빛도 있고 방령(方領)은 검은 선을 둘렀으니, 이는 아마 옛날 당(唐)의 제도인 듯싶다. 아아, 슬프다. 신주(神州)가 육침(陸沉)한 지 이제 백여 년에 의관의 제도는 오

易)에서 비롯하였다 한다.

98 벽려(薜荔) : 풀 이름. 여기에서는 은사(隱士)들 옷의 일종.

히려 저 배우 연극의 사이에 남아 있으니 하늘이 마치 이에 무심하지 않는 성싶다.
무대에는 모두 ‘여시관(如是觀 불가(佛家)의 말)’이란 석 자를 써 붙였으니 이에서도 역시 그 숨은 뜻이 어디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겠다.

마침 지현(知縣 현(縣)의 장관) 한 사람이 지나는데, ‘정당(正堂)’이라 쓴 큰 부채 한 쌍, 붉은 일산 한 쌍, 검은 일산 한 쌍, 붉은 우산 한 개, 기(旗) 두 쌍, 대곤장 한 쌍, 가죽채찍 한 쌍을 가졌으며 지현은 가마를 타고 뒤에 활과 살을 가진 기병 5~6명이 따랐다.

23일 기해(己亥)

이슬비 내리다 곧 개다. 이날이 쳐서(處暑)이다.

전둔위에서 아침에 떠나 왕가대(王家臺)까지 10리, 왕제구(王濟溝) 5리, 고령역(高嶺驛) 5리, 송령구(松嶺溝) 5리, 소송령(小松嶺) 4리, 중전소(中前所) 10리, 모두 39리를 가서 점심을 먹었다. 중전소에서 대석교(大石橋)까지 7리, 양수호(兩水湖) 3리, 노군점(老君店) 2리, 왕가점(王家店) 3리, 망부석(望夫石) 10리, 이리점(二里店) 8리, 산해관 2리, 관에 들어 다시 10리를 가서 심하(深河)에 이르러 배로 건넜다. 거기에서 홍화포(紅花舗) 7리, 모두 47리이다. 이날 86리를 갔다. 홍화포에서 묵었다.

길가에 보이는 분묘(墳墓)들은 반드시 담을 둘렀는데, 그 둘레가 수백 보이고, 소나무와 벼드나무를 나란히 심어서 그 배포가 가지런하다. 묘 앞에는 모두 화표주(華表柱)가 서 있는데, 석물(石物)들을 보니 거의 전조(前朝) 귀인들의 무덤이다. 문은 셋이나 혹은 패루로 하였는데 그 제도는 비록 이전 조가(祖家)의 패루만은 못 하나 웅장하고 사치스러운 것이 많다. 문 앞에는 돌다리를 무지개처럼 놓고 난간을 둘렀다. 그 중 영원 서문 밖의 조대수(祖大壽)의 선영과 사하점의 섭씨(葉氏)의 분묘가 가장 웅장·화려한 것이다.

여인 셋이 있어 모두 준마를 타고 말 위에서 재주를 넘는데, 그 중에 열세 살난 소

녀가 가장 재빠르고 잘 탄다. 모두 머리에 초립(草笠)을 쓰고, 그 좌우(左右) · 칠보(七步) · 도쾌(倒掛) · 시쾌(尸掛)⁹⁹ 등 법은 날랩이 마치 나부끼는 눈송인 듯 춤추는 나비인 듯하다. 한녀(漢女)는 살 길이 막히면 대개 비력질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된다 한다.

또 들 위에 한 전진(戰陣)을 벌여 놓았는데, 진(陣) 네 귀퉁이에 각기 기 하나씩을 꽂았다. 비록 검(劍) · 극(戟) · 과(戈) · 모(矛) 따위는 없으나 사람마다 앞에 체바퀴 만한 큰 화살통을 놓고 모두 수백 개나 되는 화살을 꽂았다. 진의 모양은 똑바르고 기병은 모두 말에서 내려 진 밖에 흘어져 있다. 내가 말에 내려서 한 바퀴 둘러본 즉 다만 둘씩 늘어서 있을 뿐 중권(中權 참모부 같은 중심부)의 깃발이나 북소리도 없으려니와 또 천막을 친 것도 없다.

혹은 말하기를,

“성경장군(盛京將軍)이 내일 순시한다오.”

하고, 또는,

“성경 병부시랑(兵部侍郎)이 갈리어서 점심 참에 당도(當到)할 예정이므로 중전소(中前所) 참장(叅將)이 이곳에서 맞이하는데, 참장이 아직 이르지 아니하므로 진을 풀어 방금 신지(迅地)¹⁰⁰에 모이는 중이에요.”

한다. 들판 못에 붉은 연꽃이 한창이라 말을 멈추고 한참 구경했다. 왕가점에 이르니 산 위에 장성이 아득히 눈에 들어온다. 부사 · 서장관과 변 주부(卞主簿) · 정 진사(鄭進士)와 수종인 이학령(李鶴齡) 등과 함께 강녀묘(姜女廟)에 갔다가 다시 관 밖의 장대(將臺)를 거쳐 마침내 산해관에 들다. 저녁 나절에 홍화포(紅花舗)에 닿았다. 밤엔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잠을 설쳤다.

99 좌우(左右)……시쾌(尸掛) : 마상재(馬上才) 연기의 네 가지 종류 이름. 도쾌는 새의 이름.

100 신지(迅地) : 청의 병제(兵制)에 있는 일종의 군관구.

강녀묘기(姜女廟記)

강녀(姜女)의 성은 허씨(許氏)요, 이름은 맹강(孟姜)인데, 섬서(陝西) 동관(同官)에 사는 사람이다. 범칠랑(范七郎)에게 시집갔더니 진(秦)의 장군(將軍) 봉염(蒙恬)이 장성을 쌓을 때, 범랑(范郎)이 그 일에 역사하다가 육라산(六螺山) 밑에서 죽어 그 아내 맹강에게 혼몽되었다. 그리하여, 맹강이 손수 옷을 지어 혼자서 천 리를 가서 그 지아비의 생사를 탐지하다가 이곳에서 쉬며 장성을 바라보고 올어서 이내 돌로 화하였다 한다. 혹은 이르기를,

“맹강이 그 지아비의 죽음을 듣고 홀로 가서 그 뼈를 거두어 업고 바다에 들어간지 며칠 만에 돌 하나가 바다 가운데 솟아서 조수가 밀려 들어도 잠기지 않았다.” 한다. 둘 가운데 비석 셋이 있는데 거기 기록된 것이 모두 같지 않고, 또 허황한 말이 많다. 묘(廟)에는 소상을 세우고 좌우에 동남(童男)·동녀(童女)를 늘어 세웠다. 황제가 여기다 행궁(行宮)을 두었는데, 지난해 심양에 거동할 때, 지나는 행궁마다 죄다 중수하였으므로 단청이 아직도 휘황찬란하다. 묘에 문문산(文文山)¹⁰¹이 쓴 주련(柱聯)이 있고, 망부석(望夫石)에는 황제가 지은 시(詩)를 새겼으며, 돌 곁에는 진의정(振衣亭)이 있다. 당(唐) 왕건(王建)¹⁰²의 망부석시(望夫石詩)는 이 돌을 짚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지(地志)》에,

“망부석이 둘인데 하나는 무창(武昌)에 있고, 또 하나는 태평(太平)에 있다.”

하였으즉, 왕건의 짚은 것이 그 어느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또 진(秦)나라 때엔 아직 섬(陝)이란 땅 이름이 없었을뿐더러 강(姜)도 제녀(齊女)¹⁰³를 일컬은 것인즉, 허씨를 섬서 동관 사람이라 함은 더욱 터무니 없는 말이다. 행궁 섬돌에서 강녀묘에 이르기까지 돌난간을 둘렀고, ‘방류요해(芳流遼海)’라는 현판은 지금 황제의 글씨이다.

101 문문산(文文山) : 송말의 이름 높은 충신 문천상(文天祥), 문산은 호.

102 왕건(王建) : 당의 시인(詩人). 특히 궁사(宮詞)로 유명하였다.

103 강(姜)도 제녀(齊女) : 제(齊)는 강성의 고장이요, 또 미녀가 강성에 많기로 이름났다.

장대기(將臺記)

만리장성을 보지 않고서는 중국의 큐를 모를 것이요, 산해관을 보지 못하고는 중국의 제도를 알지 못할 것이요, 관 밖의 장대를 보지 않고는 장수의 위엄을 알기 어려울 것이다.

산해관을 1리쯤 못 가서 동향으로 모난 성 하나가 있다. 높이가 여남은 길, 둘레는 수백 보이고, 한 편이 모두 칠첩(七堞)으로 되었으며, 첨 밑에는 큰 구멍이 뚫려서 사람 수십 명을 감출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구멍이 스물 네 개이고, 성 아래로 역시 구멍 네 개를 뚫어서 병장기를 간직하고, 그 밑으로 굴을 파서 장성과 서로 통하게 하였다. 역관들은 모두 한(漢)¹⁰⁴의 쌍은 것이라 하나 그릇된 말이다. 혹은 이를 ‘오왕대(吳王臺)’라고도 한다. 오삼계(吳三桂)가 산해관을 지킬 때에 이 굴 속으로 행군하여 갑자기 이 대에 올라 포성을 내니, 관 안에 있던 수만 병이 일시에 고함을 질러서 그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관 밖의 여러 곳 돈대에 주둔했던 군대도 모두 이에 호응하여 삽시간에 호령이 천 리에 퍼졌다. 일행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첨 위에 올라서서 눈을 사방으로 달려보니, 장성은 북으로 뻗고 창해(滄海)는 남에 흐르고, 동으로는 큰 벌판을 다다르고 서로는 관 속을 엿보게 되었으니, 이 대만 큼 조망(眺望)이 좋은 곳은 다시 없을 것이다. 관 속 수만 호의 거리와 누대(樓臺)가 역력히 마치 손금을 보는 듯하여 조금도 가리어진 곳이 없고, 바다 위 한 봉우리가 하늘을 찌를듯 뾰족하게 솟아 있는 것은 곧 창려현(昌黎縣) 문필봉(文筆峯)이다. 한참동안 서서 바라보다가 내려오려 하니 아무도 먼저 내려가려는 사람이 없다. 벽돌 쌍은 충계가 높고 협해서 내려다 보기만 해도 다리가 떨리고 하인들이 부축하려 하나 몸을 돌릴 공간이 없어서 일이 매우 급하게 되었다. 나는 서쪽 충계로 먼저 간신히 내려와서 대 위에 있는 여러 사람을 쳐다보니, 모두 부들부들 떨며 어쩔 줄 모르고 있다. 대개 오를 때엔 앞만 보고 충계 하나하나를 밟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 위험함을 몰랐는데, 급기야 내려오려고 눈을 한번 들어 밑을 내려다 보니 저절로 현기증이 일어나니 그 허물은 눈에 있는 것이다. 벼슬살이도 이와 같아서

104 한(漢) : 혹은 한(汗)으로도 되었다.

바야흐로 위로 자꾸만 올라갈 때엔 한 계단이라도 남에게 뒤떨어질세라 혹은 남을 밀어젖히면서 앞을 다툰다. 그러다가 마침내 몸이 높은 곳에 이르면 그제야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 외롭고 위태로워서 앞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길이 없고, 뒤로는 천 길이나 되는 절벽이어서 다시 올라갈 의욕이 사라질 뿐 아니라 내려오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법이다. 이는 고금을 막론하고 모두 그렇다.

산해관기(山海關記)

산해관은 옛날의 유관(榆關)인데, 왕응린(王應麟)¹⁰⁵의 《지리통석(地理通釋)》에, “우(虞)의 하양(下陽), 조(趙)의 상당(上堂), 위(魏)의 안읍(安邑), 연(燕)의 유관, 오(吳)의 서릉(西陵), 촉(蜀)의 한락(漢樂)은 모두 그 지세로 보아서도 꼭 웅거해야 하고, 그 성으로 보더라도 꼭 지켜야 한다.”

하였다. 명(明)의 홍무(洪武) 17년(1384)에 대장군 서달(徐達)이 유관을 이곳에 옮겨 다섯 겹의 성을 쌓고 이름을 ‘산해관’이라 하였다. 태항산(太行山)이 북으로 달려가 의무려산(醫巫閭山)이 되었는데, 순(舜)이 열두 산을 봉(封)할 때 유주(幽州)의 진산(鎮山)으로 삼았다. 그 산이 중국의 동북을 가로막아 중국과 외국의 경계가 되었으며, 관에 이르러서는 크게 잘리어서 평지가 되어 앞으로 요동 벌을 바라보고, 오른편으로는 창해를 낀 듯하니, 이는 우공(禹貢)¹⁰⁶의, “오른편으로 갈석(碣石)을 끼었다.”

는 것이 곧 이를 두고 일컬음이다. 그리고 장성이 의무려산을 따라 굽틀굽틀 굽이쳐 내려와 각산사(角山寺)에 이르며, 봉우리마다 돈대가 있고 평지에 들어와서 관을 둔 것이다. 장성을 따라 다시 15리를 가서 남으로 바다에 들어서 쇠를 녹여 터를 닦아 성을 쌓고는 그 위에 삼첩(三簷) 큰 다락을 세워서 ‘망해정(望海亭)’이라 하니, 이는 모두 서중산(徐中山 서달의 봉호)이 쌓은 것이다. 이 관의 첫째 관은 옹

105 왕응린(王應麟) : 송의 저명한 학자. 자는 백후(伯厚).

106 우공(禹貢) : 《서경(書經)》의 편명. 중국 최초의 지리지(地理志).

성(甕城)이어서 다락이 없고, 용성의 남·북·동을 뚫어서 문을 내고 쇠로 만든 문 위의 홍예(虹霓) 이마에는 ‘위진화이(威振華夷)’라 새겼고, 둘째 관에는 4층의 적루(敵樓)로 되었는데 홍예 이마에 ‘산해관’이라 새겼고, 셋째 관은 삼첨 높은 다락에다 ‘천하제일관(天下第一關)’이라는 현판을 붙였다.

삼사(三使)가 모두 문무로 반(班)을 나누어 심양에 들어왔을 때와 같이 했다. 세관(稅官)과 수비(守備)들이 관 안의 익랑(翼廊)에 앉아서 사람과 말을 점고하는데, 전에 봉성의 청단(淸單 조사서(調查書))에 준한다. 대체 중국의 상인과 길손은 모두 성명과 사는 곳과 물화(物貨)의 이름과 수량을 등록하여 간사한 놈을 적발하며 거짓을 막음이 매우 엄하다. 수비들은 모두 만인인데, 붉은 일산과 파초선(芭蕉扇)을 가지고 앞에 병정 백여 명이 칼을 차고 늘어섰다.

십자가(十字街)에 성을 둘렀는데, 사면에 둑근 문을 내고 그 위에 삼첨 높은 다락을 세웠으며, ‘상애부상(祥靄搏桑)’이라 현판을 붙였으니 이는 옹정 황제(雍正皇帝)의 글씨다. 원수부(元帥府)의 문 밖에 돌사자 둘을 앉혔는데, 높이가 각기 두어 길이나 되며 여염과 저자의 번영함이 성경보다 낫고 수레와 말이 가장 많은데, 청춘 남녀들이 더욱 화려한 화장을 꾸몄으니 그 변화롭고 풍부한 품이 이제껏 보아온 중에 제일이라 하겠다. 대개 이곳은 천하의 웅관(雄關)이며 또는 서쪽으로 북경이 멀지 않은 까닭이다. 봉성으로부터 천여 리 사이에 보(堡)니, 둔(屯)이니, 소(所)니, 역(驛)이니 하여 나날이 성 몇 곳씩은 보아 왔건만, 이제 장성을 보고 나니, 그들의 시설이나 솜씨가 모두 이 관에서 본뜬 것이긴 하나 그들을 이 관에 비하면 어린 손자뻘밖에 되지 않는다. 아아, 슬프다. 몽염(蒙恬)이 장성을 쌓아서 되음을 막으려 하였건만 진(秦)을 망칠 호(胡)는 오히려 집안에서 자라났으며,¹⁰⁷ 서중산이 이 관을 쌓아 되를 막고자 하였으나 오삼계는 관문을 열고서 적을 맞아들이기에 급급하였다. 그리하여 천하가 일이 없는 지금, 부질없이 지나는 상인과 그네들의 비웃음을 사게만 되었으니, 난들 이 관에 대하여 다시 뭐라고 말할 것이 있으리오.

107 진(秦)을……났으며 : 진 시황이 당시에 진을 망칠 자는 호(胡)라는 비결을 믿어서 이 만리장성을 쌓았으나 사실 진을 망친 자는 호(胡)가 아니요, 집안에 생겨난 그의 아들 호해(胡亥)였다.



관내정사

관내정사(關內程史)

7월 24일 경자에 시작하여 8월 4일 경술에 그쳤다. 모두 11일 동안이다. 산해관(山海關)으로부터 연경까지 이르기가 모두 6백 40리다.

기을¹ 7월 24일 경자(庚子)

개다.

홍화포에서 떠나 범가장(范家庄)까지 20리를 가서 점심을 먹었다. 범가장에서 양하제(楊河堤)까지 3리, 대리영(大理營) 7리, 왕가령(王家嶺) 3리, 봉황점(鳳凰店) 2리, 망해점(望海店) 8리, 심하역(深河驛) 5리, 고포대(高舖臺) 8리, 왕가포(王家舗) 2리, 마봉포(馬棚舗) 7리, 유관(榆關) 3리, 모두 48리이다. 이날에는 68리를 걸었다. 유관(榆關)에서 묵다. 유관은 혹은 유관(渝關)이라고도 하며 지금의 임유현(臨渝縣)이다.

관내(關內)의 풍기는 관동에 비하여 아주 달라서 산천이 밝고 아름다우며 굽이굽이 그림 같다. 홍화포로부터 비로소 돈대가 있어 5리에 하나, 10리에 하나씩인데, 그 제도는 네모지고 바르며, 높이는 다섯 길 그 위에 집 3칸을 짓고, 곁에는 세 길 되는 깃대를 세웠으며, 돈대 밑에 다시 집 5칸을 지었다. 담 위에는 활집·살통과 표창(標鎗)·화포(火砲) 등을 그려 붙였고, 집 앞에는 도(刀)·창(鎗)·검(劍)·극(戟)을 늘어 꽂았으며, 무릇 봉화 드는 것과 망보는 일들에 관한 여러 가지 조목을 써서 벽에 둘러 붙였다.

1 가을 : '수택본'에는 이 위에 '성상 4년 경자'와 '청 건륭 45년'이라는 원주(原註)가 있으나, 여기서는 '박영철본'을 따랐다.

25일 신축(辛丑)

개다.

유관에서 떠나 영가장(營家庄)까지 3리, 상백석포(上白石舗) 2리, 하백석포(下白石舗) 3리, 오가장(吳家庄) 3리, 무령현(撫寧縣) 9리, 양장하(羊腸河) 2리, 오리포(午哩舗) 3리, 노가장(蘆家庄) 2리, 시리포(時哩舗) 3리, 노봉구(蘆峯口) 5리, 다붕암(茶棚菴) 5리, 음마하(飲馬河) 3리, 배음보(背陰堡) 3리, 모두 46리를 가서 점심을 먹었다. 배음보에서 쌍망점(雙望店)까지 8리, 요참(要站) 5리, 달자영(瑣子營) 3리, 부락령(部落嶺) 6리, 노룡새(蘆龍塞) 3리, 여조(驢槽) 13리, 누택원(漏澤園) 3리, 영평부(永平府) 2리, 모두 43리이다. 이날 89리를 걸었다. 영평부에서 잤다.

무령현을 지나자 산천이 더욱 명랑(明朗)한 기운을 띠고, 성안 거리에는 집집마다 금편(金篇) · 옥음(玉音)이요, 패루가 곳곳이 휘황찬란하다. 길 오른편 한 문 앞에 부사와 서장관의 하인들이 가마를 멎고 있다. 이는 곧 서 진사(徐進士) 학년(鶴年)의 집이다. 부사와 서장관이 지금 이 집에서 구경을 하고 있다 하기에 나도 말에서 내려 들어가니, 그 집이 사치스럽고 그릇들의 진기함이 과연 전날 들던 바와 다름없다. 학년은 십여 년 전에 죽고, 두 아들이 있어서 맏은 조분(苕芬)이요, 둘째는 조신(苕信)인데, 조신은 제법 문필(文筆)에 능하여 『사고전서(四庫全書)』²를 꾸미는 데 서사원(書寫員)으로 뽑혀서 방금 북경에 가 있고, 조분만이 집에 있긴 하나 문필이 매우 짧다. 당에 가득히 과친왕(果親王 청 세종의 일곱째 아들) · 아극돈(阿克敦 청 고종 때의 명신. 문장가) · 우민중(于敏中 청 고종 때의 학자. 정치가) · 악이태(鄂爾泰 청 태종 때의 명신) · 황삼자(皇三子 이름은 흥시(弘時)) · 황오자(皇五子 이름은 흥서(弘書). 화석공친왕(和碩恭親王)) 등의 시(詩)를 새겨 걸었다. 그들은 모두 흥경 제관(祭官)으로 가는 길에 이곳에 들러 묵고 시를 남기고 간 것이다. 우민중과 아극돈은 다 해내(海內)의 명필이라 일컬건만 과친왕(果親王)에 비

2 사고전서(四庫全書) : 청의 건륭 37년에 시작해서 천하의 서적을 모아, 16만 8천여 책을 경(經) · 사(史) · 자(子) · 집(集)의 네 종류로 나눠 정리한 것이다.

해 여간 손색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침실 문설주 위에 백하(白下)³ 윤 판서(尹判書) 순(淳)의 칠언 절구 한 수를 새겨 걸었고, 문 밖 설주 위에는 조 참판(曹參判) 명채(命采)⁴가 윤(尹)의 시를 차운(次韻)한 것을 새겨 걸었다. 윤공(尹公)은 우리나라의 명필이라, 한 점 한 획이 옛법 아닌 것이 없어, 그 천재의 화려하고 고운 품이 마치 가는 구름과 흐르는 물 같고, 먹빛이 짙고 연함과 획의 살찌고 여원 것이 알맞게 섞이었으나, 이제 그들의 글씨에 비해서는 손색이 없지 않음은 어인 까닭일까. 대개 우리나라에서 글씨를 익힘에는 옛날 사람의 참된 필적을 보지 못하고 한평생 본뜬 것이 기껏해야 금석문자(金石文字)에 지나지 않으니, ‘금석’이란 다만 고인의 글씨에 대하여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뿐, 그지없이 오묘(奧妙)한 그 붓 놀림의 신운(神韻)은 벌써 선천(先天)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본 글씨의 체세(體勢)에는 방불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뼈대가 뻣뻣해져서 전혀 필의(筆意)가 엿보이지 않으며, 그 먹빛이 짙을 때에는 묵저(墨猪)처럼 되고, 마를 때는 고등(枯藤)처럼 되니, 이는 다름 아니라 금석에 새긴 획이 습성에 젖어 있고 또 종이와 붓이 그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서 옛날부터 고려의 백추지(白磁紙 백지를 다크질 한 것) · 낭모필(狼毛筆)을 일컬었다 하나, 이는 특히 외국의 진기한 물건이라 해서 그런 것이지 실지로 쓰고 그리기에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니다. 종이도 먹빛을 잘 받고 붓길이 순순히 풀려남을 귀히 여기는 것이요, 반드시 단단하고 질겨서 찢어지지 않은 것만이 덕(德)이 됨은 아니리라. 서위(徐渭)⁵가 말하기를,

“고려 종이는 그림에는 맞지 않고 다만 돈[錢]처럼 두꺼운 게 좀 낫다.”

하였으니, 이와 같이 별로 좋지 않게 여겼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종이는 애초에 다듬지 않으면 결이 거칠어서 쓰기 힘들고, 다듬이질을 지나치게 하면 지면이 너무 뻣뻣해지므로 미끄러워서 붓이 머무르지 않고 딱딱하여서 먹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 종이가 중국만 못하다 함이요, 붓은 부드럽고 날씬하고 고르고 순하여 팔과 함께 잘 돌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요, 뻣뻣하고 강하고 뾰족하고 날카로운 것

3 백하(白下)……순(淳) : 조선 숙종(肅宗) 때의 서예가. 백하는 호요. 순은 이름. 자는 중화.

4 조 참판(曹參判) 명채(命采) : 조선 영조(英祖) 때 사람. 명채는 이름.

5 서위(徐渭) : 명(明)의 저명한 예술가. 시문과 서화에 모두 능하였으며. 자는 문장(文長).

은 좋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좋은 붓이라면 반드시 호주(湖州) 것을 말하는데, 이는 오로지 양호(羊毫)를 써서 다른 털을 섞지 아니한다. 양털은 다른 털에 비하여 가장 부드러우므로 부서지지 않고, 종이에 닿으면 먹을 마음대로 놀리는 것이 마치 효자(孝子)가 어버이의 뜻을 말하기 전에 벌써 알아차리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른바 ‘낭모필(狼毛筆)’이란 더욱 잘못인 것이, 이리가 무슨 짐승인지도 알지 못하고 어찌 그 꼬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는 곧 족제비의 속명(俗名) 광(廣)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하여 광(廣) 자에서 녹(犧) 변을 빼고 또 광(廣) 자에 서 염(犖)을 버리면 황(黃) 자가 되므로 이를 ‘황필(黃筆)’이라 한다. 이는 늘 굳세며 억세고 뺏뻣하여 부서질 염려가 있어 마치 동서를 가리지 않고 제멋대로 내닫는 철없는 아이 같다. 그러므로 우리 붓이 중국 것만 못하다 함이다. 종이와 붓이 이러한 데다가 안동(安東)의 마간석(馬肝石)⁶ 벼루에 해주(海州)의 후칠(厚漆)먹을 갈아서 왕희지(王羲之)의 《필진도서(筆陣圖序)》⁷를 체첩(體帖)으로 본받으니, 이 아무리 삼절법(三折法 세 번 붓을 꺾는 서법)을 쓰더라도 여원 뼈대가 메마르다. 아이들의 습자에 쓰는 분판(粉版)⁸이란 또 무엇들인지.

그 후당(後堂)이 매우 조용하고 깨끗하여 세간의 잡된 소리가 들리지 않고 강진향(降真香 열대산 향나무로 만든 향)으로 만든 와탑(臥榻)이 있는데, 탑 위에 진열해 놓은 것들은 여러 사람이 지닐 수 없는 진기(珍奇)한 물건들이었고, 시렁 위에 놓인 서화(書畫)는 그야말로 금권(錦卷) · 옥축(玉軸)으로 질서 있게 배치되었다.

정사 · 부사의 비장들이 함부로 어지러이 뽑아서 뛰라 떠들면서 빙 둘러서 펼쳐 보는 품이 마치 조보(朝報)를 펴보듯, 피륙을 말라 재는 듯이 접었다 꺾었다 하고, 함부로 날뛰는 양은 성을 무너뜨리고 전진을 떨어뜨리며, 적장을 베고 적기(敵旗)를 꺾어뜨리는 듯한 기세이다. 더구나 구경할 마음만이 바빠서 그 긴 것을 다 펴 보기 어려운즉,

“공연히 펴기 시작했네그려.”

6 마간석(馬肝石) : 경상북도 안동 독천(禿川)이라는 냇물 속에서 나는 유명한 벼룻돌.

7 왕희지(王羲之)의 《필진도서(筆陣圖序)》 : 왕희지는 진(晉)의 서예가. 중국의 대표적 명필. 희지는 이름, 자는 일소(逸少). 《필진도서》는 왕희지가 짓고 쓴 유명한 필첩.

8 분판(粉版) : 종이가 귀하므로, 널판에다 분을 칠하고 기름을 먹여서 종이로 대용하였다.

하고 도리어 만든 공장(工匠)을 탄하여,

“이렇게 긴 축(軸)을 무엇에 쓴단 말야. 병풍도 안 되겠고 죽자도 못 만들 것을.”

하고 투덜거린다. 그리고 어떤 이는,

“나는 그림을 모르네만, 그림이야 주홍빛 나는 까마귀가 가장 좋데그려.”

한다. 그리고 보니 환현(桓玄 진(晉)의 서화 애호가) 같은 사람은 자기 집에 손님이 와도 혹시나 붙여둔 서화를 더럽힐까 하여 기름과자를 대접하지 않았으니, 이야말로 참말 명사(名士)라 아니할 수 없겠다. 서편 벽 밑에서 별안간 군대가 행진하는 듯이 우당탕하는 소리가 나기에 깜짝 놀라서 돌아다 보니 여러 사람이 정(鼎) · 이(彝) · 준(尊) · 호(壺) 등의 고동(古董)을 제멋대로 들추는 것이다. 나는 하도 민망하여 바삐 문을 나섰다. 그 아래 윗집이 모두 금자(金字)로 현판을 달았기에, 장복 만 데리고 이집저집을 들렀으나 모두 주인이 없었다. 한 집에 이르니, 담 밑에 자죽(紫竹) 수십 대가 자라고 축대 아래에 벽오동(碧梧桐) 한 그루가 서 있으며, 그 서쪽에는 두어 이랑 되는 모난 뜻이 있되, 흰 돌로 난간을 만들어 못 가를 둘렀다. 못 가운데는 대여섯 자루 연밥이 떼 있고, 난간 가까이 거위 새끼 세 마리가 노닌다. 당 가운데는 주렴을 깊게 드리우고 주렴 속에는 뭇 사람의 지껄이고 웃는 소리가 와아 하고 들린다. 나는 곧 못 가에 이르러 잠깐 난간에 기대어 섰다. 온 당 안이 잠잠하여 쥐죽은 듯하고 주렴 너머로 엿보는 것이 어른거린다. 나는 못 가를 배회하면서 당 안을 향하여 연거푸 기침을 보냈더니, 이후고 한 동자가 당 뒤를 둘러 나오며 멀찌감치 서서 읍을 하고 소리를 높여.

“노장(老丈)께서는 무엇하러 여기를 오셨습니까?”

한다. 장복은,

“너희집 어른이 어디 계시관대 멀리서 오신 손님을 맞이하지 않느냐?”

하니, 동자는,

“아버지는 아까 일가 어른 이공(李公)과 함께 고려에서 온 양반들의 사관을 찾아 그들의 태의관(太醫官)을 만나러 가셔서 아직껏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하기에, 나는,

“너희 댁에서 의원을 찾을 때는 필시 집안에 우환이 있는 계로군. 내가 곧 태의관

이고 이미 이곳까지 온 김이니 진찰해 보아도 좋고, 또 진짜 청심환도 있으니 네 곁 가서 너의 아버지를 모셔 오너라.”

하였으나, 동자는 들은 체도 않고 웃을 빌려서 거위새끼를 몰아 새초롱에 넣고, 난 간에 세워 둔 낚싯대를 집어서 못 가운데 꺾어진 연잎을 끌어내어 우산처럼 들고 주척대며 가버린다. 주렴 안에는 일여덟 사람이 있는 듯한데, 뭐라고 소곤소곤하고는 또 입을 막고 가만히 웃는 소리가 들린다. 한참 서성거리다가 몸을 돌이켜 나오는데 장복을 돌아보니 그 귀밑의 사마귀가 요즘 더 커진 듯싶다. 조 주부(趙主簿) 명회(明會)와 함께 말을 나란히 타고 가면서,

“무령의 풍속이 좋지 못하군.”

하였다니, 조는,

“무령 사람들은 조선 사람을 귀찮은 손님으로 친답니다. 서학년은 성품이 본래 손님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처음으로 백하(白下) 윤공(尹公)을 만나 흥금을 터놓고 정성을 다해 대접하며, 그가 간직했던 서화를 내어 보였던 것이, 그 뒤로부터 무령 현 서 진사(徐進士)의 이름이 우리나라에 회자하여 해마다 사행(使行)이 반드시 찾아들른 것이 마침내 준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고을에 서씨집보다 더 나은 집들이 많고 또 손님을 좋아하는 주인도 다 학년만 못지 않으나, 공교로이 윤공이 먼저 학년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가진 것이 우리나라 재상도 당할 수 없음을 보고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기리어서, 그 뒤로부터 역관들이 으레 서씨집으로 찾아들게 됨은 역시 다시 다른 집을 귀찮게 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우리 사행은 반드시 하인 수십 명을 거느리는 까닭에 비록 두어 길 되는 문호(門戶)를 드나들 때에도 반드시 소리를 갖추어 알리고, 또 한 군데 몰리어 당에 오르면 물러나 기다릴 줄 모르는 것은 대청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년의 집에서도 그 접대가 차츰 전과 같지 못하던 것이 그가 죽은 뒤에는 아들들이 조선 손님을 아주 귀찮게 여기어서, 우리 사행이 올 무렵이면 좋은 그릇은 갈무리고 너저분한 것들만 벌여 놓아서 겨우 이때까지의 준례를 지킬 뿐이랍니다. 이제 그 옆집에서 피하고 숨은 것도 학년의 집처럼 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자 서로 한바탕 크게 웃었다. 윤공이 돌아온 뒤에 되놈의 새끼에게 재주를 팔았

다 하여 탄핵을 입은 것은 대개 이 시(詩)를 지은 까닭이다. 당시 언론(言論)의 지나침이 이 경지에 이르렀단 말인가.

유주(幽州)와 기주(冀州)의 산세는 맑은 기운이 서리었다. 태항산(太行山)이 서쪽으로 쫓아와서 연경(燕京)을 껴안은 듯하고, 의무려산이 동으로 달려서 후진(後鎮)이 되어 용이 나는 듯 봉이 춤추듯이 각산(角山)에 이르러 뭉툭 잘리어 산해관이 되었다. 관에 들어서자 뭇 산들은 더욱 대막(大漠)의 억세고 거친 기세를 벗어나서 남으로 탁트인 국면이 맑고 빼어나며 밝고 부드럽다. 창려(昌黎)에 이르자 모든 바닷가 고을들의 산기는 더욱 아름다웠다.

우공(禹貢)의 갈석(碣石)이 창려현(昌黎縣) 서쪽 20리 되는 가까운 곳에 있으니, 조조(曹操) 위 무제(魏武帝) 시(詩)의,

동으로 갈석에 다다라 | 東臨碣石
아득한 저 바다 구경코저 | 以觀滄海

라 함은 곧 이를 말함이다. 이 고을에는 한 문공(韓文公)⁹과 한상(韓湘)¹⁰의 사당이 있다. 『당서(唐書)』 본전(本傳) 한유전(韓愈傳)에는 문공을 등주(鄧州) 남양인(南陽人)이라 하였고, 『광여기(廣輿記)』 명(明) 육응양(陸應陽)의 저)에는 곧 창려인(昌黎人)이라 하였으며, 송(宋)의 원풍(元豐 송 신종(宋神宗)의 연호) 연간에 문공을 창려백(昌黎伯)으로 봉하였고, 원 지원(至元 원 세조(元世祖)의 연호)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곳에 사당을 세워서 지금도 문공의 소상(塑像)이 있다 한다. 내 평생에 문공을 몽상(夢想) 중에 그리워했으므로 여러 사람더러 함께 가 보자고 하였으나 응하는 이가 없으니, 이는 20리나 길을 돌아야 하기 때문이다. 혼자서 가기도 어려우니 한스러운 일이다. 지나는 길에 동악묘(東嶽廟)에 들렀다. 뜰에 비석 다섯이 있고 전각 위에는 금자(金字)로 ‘동악대제(東嶽大帝)’라 써 붙였고, 그 가운데에는 금신(金神) 둘을 앉혔는데, 모두 단정히 손을 모으고 홀(笏)을 잡았다. 후전(後

9 한 문공(韓文公) : 당(唐)의 저명한 문학가 한유(韓愈). 문공은 시호. 자는 퇴지(退之).

10 한상(韓湘) : 한유의 조카. 그의 자는 청부(清夫).

殿) 제도도 전전과 같은데, 여상(女像) 셋을 앉혔고 이름을 ‘낭랑묘(娘娘廟)’라 한다. 머리에는 모두 면류관을 썼다.

영평부(永平府)에 이르니, 성 밖으로 굽이쳐 흐르는 강물이 성을 둘러싸서 그 지형이 평양과 흡사하나 시원하게 툭 트인 것은 평양보다 더 낫다. 다만 대동강과 같이 맑은 물이 없을 뿐이다. 세인들의 전하는 말에,

“김 학사(金學士) 황원(黃元 고려 예종 때의 문장가)이 부벽루(浮碧樓)에 올라가서,

긴 성 저 한 편에는 용용히 흐르는 강물이요 | 長城一面溶溶水

넓은 벌 동쪽 머리엔 점점이 찍힌 뾰이로다 | 大野東頭點點山

의 두 구(句)를 읊고는 아무리 꿍꿍거려도 시상(詩想)이 메말라서 그 다음을 잊지 못한 채 통곡(痛哭)하고 누를 내려오고 말았다.”

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논평하기를,

“평양의 아름다운 경치가 이 두 글귀에 다 표현되었으므로 그 뒤 천 년이나 되는 오랜 시간을 지냈건만 다시 한 구라도 덧붙이는 이가 없다.”

한다. 그러나 나는 늘 이것이 좋은 글귀가 아니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용용(溶溶)’은 대강(大江)의 형세를 표현함에는 부족하고, ‘동두(東頭)’ · ‘점점(點點)’의 산이란 그 거리가 40리에 불과한데 어찌 대야(大野)라 이를 수 있으리오. 이제 이 글귀를 연광정(練光亭)의 주련(柱聯)으로 붙였으나, 만일 중국의 사신이 이 정자에 올라가서 읽어 본다면 반드시 대야의 글자를 웃을 것이다. 그런데 이곳 영평성루(永平城樓)는 그야말로,

넓은 벌 동쪽 머리엔 점점이 찍힌 뾰이로다

라고 할 만하다. 혹은 이르기를,

“영평도 역시 기자(箕子)가 수봉(受封)한 땅이다.”

하나, 이는 잘못이다. 영평은 곧 한(漢)의 우북평(右北平)이고, 당(唐)의 노룡새(盧龍塞)이다. 옛날에는 아주 궁벽한 땅이었던 것이 요(遼) · 금(金) 때로부터 북경에

가까이 있어서 거리와 점포의 번영함이 다른 곳보다 더하고, 진사(進士)의 패액(牌額)이 무령에 비기어 훨씬 많다. 영평부 앞 원문(輶門 병영 앞에 세운 문)에 ‘고지 우북평(古之右北平)’이라 써 붙였다.

어두워진 뒤에 정 진사(鄭進士)와 함께 조용히 거닐다가 우연히 한 집에 드니, 마침 등불을 켜놓고 고려진공도(高麗進貢圖 조선 사행을 그린 그림)를 새기는 중이다. 지나온 길의 바람벽에 흔히 이 그림을 붙인 것을 보았는데, 모두 너절한 그림에다 추하게 찍어 내어 괴상스럽고 가소롭다. 그 그림에 홍포(紅袍)를 떨쳐 입은 것은 서장관이요, [몇십 년 전에는 당하관(堂下官)이 홍포를 입더니, 이제는 푸른 것으로 변했다.] 흑립(黑笠)을 쓴 건 역관이요, 얼굴이 흡사 중과 같으면서 입에 담뱃대를 문 것은 전배(前排)의 비장이요, 곱슬수염에 고리눈은 군뢰(軍牢)이다. 이제 여기서 새기는 것도 추악하기 그지없어서 얼굴이 모두 원숭이처럼 되었다. 당(堂) 가운데에 세 사람이 있으나 더불어 이야기할 만한 자가 못 된다. 탁자 위에 돌병풍[研屏]이 놓여 있는데, 높이가 두 자 남짓, 너비는 한 자쯤 되는 화반석(花斑石)이다. 강산(江山) · 수목(樹木) · 누대(樓臺) · 인물(人物) 등을 그려 새겼으되, 모두 돌 무늬를 따라 천연스럽게 빛깔을 내어 그 미묘한 품이 신경(神境)에 들 지경이다. 강진향(降真香)으로 받침대를 만들어 세웠다.

이때 소주(蘇州) 사람 호응권(胡應權)이란 자가 화첩(畫帖)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걸장에는 어지러운 초서(草書)를 썼으되 먹통이 거듭 앉아 비늘지고 더할나위 없이 해져서, 한 푼어치도 못 되어 보이건만 호생(胡生)의 거조를 보니 마치 세상에 다시 없는 보배인 듯 사뭇 조심조심하여 이를 받들고 끓어앉아서 여닫는 데도 오직 까듯이 한다. 정군(鄭君)이 침침한 눈으로 두 손에 이를 움켜 쥐고 책장을 풍우처럼 재빨리 넘기니, 호생이 얼굴을 찡그리며 못마땅해 하는 기색이다. 정군이 다보고는 획 짚어 던지면서,

“겸재(謙齋)¹¹나 현재(玄齋)¹²가 모두 되놈의 호이구먼.”

하기에, 나는 웃으면서,

11 겸재(謙齋) : 조선 숙종 때 저명한 화원(畫員) 정선(鄭敞)의 호. 자는 원백(元伯).

12 현재(玄齋) : 겸재의 제자인 화원 심사정(沈師正)의 호. 자는 이숙(頤叔).

“아니 보아도 잘 알 일이지.”

하고, 호생더러,

“당신은 이걸 어디서 구하셨소.”

하고 물으니, 그는,

“아까 초저녁 때 귀국 김 상공(金相公)¹³이 우리 점포에 오셔서 팔고 갔소. 김 상공은 믿음직한 사람이옵고 또 나와는 정분이 자별하여 친형제나 다름 없습니다. 문은(紋銀 품질이 우수한 은) 3냥 5푼으로 샀으니 만일 장황(裝潢)을 고쳐 놓으면 7냥은 살히 가리다. 다만 그런 이의 관지(款識)가 없사오니, 바라옵건대 선생께서 이를 일일이 고증해서 적어 주시옵소서.”

하고는, 이내 품 속에서 붉은 주사 한 흘(笏)을 꺼내어 패물로 주며, 화자(畫者)의 소전(小傳)을 간곡히 부탁한다. 주인도 주과를 내어 왔다. 대개 우리나라의 서화 권 중에는 연호(年號)도 없고 이름을 적기도 꺼리며, 시축(詩軸)의 끝에도 흔히 들 '강호산인(江湖散人)'이라 하였을 뿐 어느 때 어느 곳 아무 성 어떠한 사람의 솜씨인지 알 길이 없다. 이제 이 책 가운데도 간단한 두 글자씩 된 별호(別號)가 적혀 있기는 하나 분명하지 않아서 누가 누군지를分辨할 수 없으므로, 정군이 겸재·현재를 되놈이라 한 것도 괴이한 일은 아니다. 정군은 한어(漢語)가 서투른데다 또 이가 성기어서 달걀 볶음을 매우 좋아하므로, 책문에 들어온 뒤로 늘 하는 한어라고는 다만 '초란(炒卵)'뿐인데, 그나마 혹시 말할 때 잘못 비어질까, 듣는 사람이 잘못 들을까 두려워하여, 가는 곳마다 사람을 만나면 문득 '초란' 하고 불러 보아서 그 혀끝이 돌아가는가를 잘 가늠하므로, 정(鄭)을 '초란공(炒卵公)'이라 부르게 되었다.[우리나라 광대놀음에 탈쓴 것을 '초란(俏亂)'이라 부르는데, 중국말로 계란볶음이라는 '초란'과 발음이 근사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곧 가서 한 쟁반을 지져 가지고 왔다.

그러나 행적이 마치 음식을 빼앗아 먹은 것같이 되었으므로 한바탕 웃고 나서 주인에게 사연을 말하고 값을 치르려 하니, 주인이 도리어 몹시 부끄러워하는 얼굴

13 김 상공(金相公) : '상공'은 애초에는 '정승'이라는 의미지마는, 여기서는 상인들끼리 서로 높여서 하는 말.

로,

“여기는 음식점이 아니어요.”

하고 자못 노여워하는 기색까지 있기에 나는 곧 대강 그림 옆에 적힌 별호(別號)를
상고하여 그들의 성명을 적어서 사례하였다.

열상화보(列上畫譜)

이조화명도(二鳥和鳴圖). 총암(冲菴 호).

김정(金淨)의 자는 원충(元沖)이요, 명(明) 가정(嘉靖)때 사람이다.¹⁴

한림와우도(寒林臥牛圖)

김식(金埴).¹⁵

석상분향도(石上焚香圖)

이경윤(李慶胤)¹⁶은 학림정(鶴林正)이다.

녹죽도(綠竹圖), 단은(灘隱 호).

이정(李霆)의 자는 중섭(仲燮)이요, 석양정(石陽正)이니, 익주군(益州君)의 지자
(枝子)이다.

묵죽도(墨竹圖)

위와 같다.

노안도(蘆雁圖)

이징(李澄)의 자는 자함(子涵)이요, 호는 허주재(虛舟齋)니, 학림정(鶴林正)의
아들이다.

노선결기도(老仙結綦圖), 연담(蓮潭 호).

14 김정……사람이다 : 이와 같은, 연암의 적은 그림에 대한 모든 해설은, ‘박영철본’에는 소주(小註)로
되었으나, ‘주설루본’에 의하여 별행(別行) 대자(大字)로 하였다. 다음의 것도 모두 이에 따랐다.

15 김식(金埴) : 조선 선조(宣祖) 때 화가. 자는 중후(仲厚), 또는 치온(致溫)이요, 호는 퇴촌.

16 이경윤(李慶胤) : 조선 인조(仁祖) 때의 종실(宗室). 학림정은 봉호요, 자는 계길(季吉)이며, 호는 낙촌
(駱村).

김명국(金鳴國)이니, 명(明) 천계(天啓) 연간 사람이다.

연강효천도(煙江曉天圖)

임지사자도(臨紙寫字圖), 공재(恭齋 호).

윤두서(尹斗緒)의 자는 효언(孝彦)이니, 강희(康熙) 연간 사람이다.

춘산등림도(春山登臨圖), 겸재(謙齋 호).

정선(鄭敏)의 자는 원백(元伯)이니 강희 · 건륭 연간 사람이다. 나이 80이 넘어 서도 겹돌보기 안경을 끼고 촛불 아래에서 가는 그림을 그려도 털끝만큼도 그릇 됨이 없었다.

산수도(山水圖)

네 폭인데, 겸재.

사시도(四時圖)

여덟 폭인데, 겸재.

대은암도(大隱巖圖)

겸재. 이 위의 것은 모두 ‘정선(鄭敏)’ · ‘원백(元伯)’이라는 소인(小印)이 있다.

부장임수도(扶杖臨水圖), 종보(宗甫).

조영석(趙榮祐)의 자는 종보요, 호는 관아재(觀我齋)니, 강희 · 건륭 연간 사람이다.

도두환주도(渡頭喚舟圖), 진재(眞宰 호).

김윤겸(金允謙)의 자는 극양(克讓)이니, 강희 · 건륭 연간 사람이다.

금강도(金剛圖), 현재(玄齋 호).

심사정(沈師正)의 자는 이숙(頤叔)이니, 강희 · 건륭 연간 사람이다.

초충화조도(草蟲花鳥圖)

여덟 폭인데, 현재. ‘심사정사인(沈師正私印)’과 ‘현재(玄齋)’라는 소인이 있다.

심수노옥도(深樹老屋圖), 낙서(駱西).

윤덕희(尹德熙)의 자는 경백(敬伯)이니, 공재(恭齋)의 아들이다.

백마도(白馬圖)

군마도(羣馬圖)

팔준도(八駿圖)

춘지세마도(春池洗馬圖)

쇄마도(刷馬圖)

이상은 모두 낙서의 ‘윤덕희사인(尹德熙私印)’과 ‘낙서(駱西)’라는 소인이 있다.

무중수죽도(霧中睡竹圖), 수운(笛雲 호).

유덕장(柳德章). ‘수운사인(笛雲私印)’이 있다.

설죽도(雪竹圖)

‘수운(笛雲)’이란 두 글자와 ‘수운(笛雲)’의 인이 있다.

검선도(劍仙圖), 인상(麟祥).

이인상(李麟祥)의 자는 원령(元靈)이요, 호는 능호관(凌壺觀)이니, ‘이인상(李麟祥)’의 인이 있다.

송석도(松石圖), 원령.

‘인상(麟祥)’이란 인과 ‘기미삼월삼일(己未三月三日)’이란 소지(小識)가 있다.

난죽도(蘭竹圖), 표암(豹菴 호).

강세황(姜世晃)의 자는 광지(光之)니, ‘표암광지(豹菴光之)’의 인이 있다.

목죽도(墨竹圖)

위와 같다.

추강만범도(秋江晚泛圖), 연객(烟客).

허필(許必)의 자는 여정(汝正)이니, ‘연객(烟客)’이라는 소인이 있다.

26일 임인(壬寅)

개다. 오후에 우레 일고 비바람이 몹시 불었으나 곧 멈추었다.

영평부에서 청룡하(青龍河)까지 1리, 남허장(南墟庄) 2리, 압자하(鴨子河) 7리, 범가점(范家店) 3리, 난하(灘河) 2리, 이제묘(夷齊廟) 1리, 모두 16리를 가서 점심을 먹었다. 이제묘에서 망부대(望夫臺)까지 5리, 안하점(安河店) 8리, 적홍포(赤紅舗)

7리, 야계타(野雞塹) 5리, 사하보(沙河堡) 8리, 조장(棗莊) 10리, 사하역(沙河驛) 2리, 모두 45리이다. 이날 61리를 가서 사하역 성 밖에서 잤다.

이날 아침 일찍 영평부를 떠날 때 새벽 바람이 선선하였다. 성 밖의 강가에 장이 섰는데, 온갖 물건이 거리에 꽉 차고 수레와 말이 즐비하였다. 장판에 들어가서 능금 두 개를 사노라니 옆에 대상자를 멘 자가 있어서 상자를 여니 수정합(水晶盒) 다섯이 나오고, 합마다 뱀 한 마리씩 들었다. 뱀은 모두 그 합 속에 도사리고 있는데 머리 내민 것이 마치 솔뚜껑에 꼭지 달린 듯이 한복판에 솟아 있고 두 눈이 반들반들하다. 검은 놈이 한 마리, 흰 놈이 하나, 초록색이 둘, 빨간 놈이 하나, 모두가 합 밖에서 환히 들여다 보이긴 하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분간하기 어렵기에 물어보니, 대답이 시원하지 않다. 대개 이를 악창(惡瘡)에 쓰면 기이한 효과가 난다 한다. 또 다람쥐 놀리는 자, 토끼 놀리는 자, 곰 놀리는 자의 여러 가지 놀이가 있는데 모두 비렁뱅이들이다.

곰은 크기가 개만 한데 칼춤도 추고 창춤도 추며, 사람처럼 서서 다니기도 하고, 절도 하며 끓어앉기도 하며, 머리를 조아리기도 하여 사람이 시키는 대로 온갖 시늉을 다하나, 꼴이 몹시 흉악하고 그 민첩함도 원숭이보다 못하다. 토끼와 다람쥐 놀이는 더욱 재롱스럽고 또 사람의 의도를 잘 알아차리긴 하나 길이 바빠서 상세히 구경하지 못하였다.

도사(道士) 둘과 동자 하나가 장판에 비럭질하며 다니는데 운관(雲冠 도사 관의 일종)을 쓰고 하대(霞帶 도사 띠의 일종)를 띠고 눈매가 청수한데, 손으로 영저(鈴杵)¹⁷를 흔들며 입으로 주문(呪文)을 외고, 그 행동이 괴특하여 사람인가 귀신인가 의심스럽다.

여자 셋이 바야흐로 길차림을 차리고 말을 타고 달린다.

배로 청룡하(青龍河)와 난하(灤河)를 건넜다. 따로 ‘이제묘기(夷齊廟記)’ · ‘난하범주기(灤河泛舟記)’ · ‘고죽성기(孤竹城記)¹⁸’가 있다.

이제묘에서 먼저 떠나서 야계타(野雞塹)에 거의 다 갔을 무렵에 날씨가 찌는 듯하

17 영저(鈴杵) : 중이 가지는 악기(樂器)의 일종. 송 태종(宋太宗) 때 인도(印度)에서 왔다 하였다.

18 이제묘기……고죽성기(孤竹城記) : 모든 본에 다 보이지 않으니 의심되는 일이다.

고 한 점 바람기도 없더니, 노(盧) · 정(鄭) · 주(周) · 변(卞)의 여러 사람들과 앞서 거니 뒷서거니 이야기하며 가는데, 손등에 갑자기 한 종지 찬물이 떨어지며 마음과 등골이 함께 선듯하기에 사방을 둘러 보았으나 아무도 물을 끼얹는 이는 없었다.

다시 주며 같은 물방울이 떨어지며 창대(昌大)의 모자 챙을 쳐서 그 소리가 탕하고, 또 노군의 갓 위에도 떨어졌다. 그제야 모두들 머리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니, 해 옆에 바둑돌만 한 작은 구름장이 나타나고 은은히 맷돌가는 소리가 나더니, 삽시간에 사면 지평선(地平線)에 각기 자그마한 구름이 일되 마치 까마귀 머리 같고 그 빛은 유난히 독해 보인다. 그리고 해 곁에 검은 구름이 이미 해 둘레의 반쯤을 가렸고, 한 줄기 흰 번갯불이 벼드나무 위에 번쩍하더니 이내 해는 구름 속에 가리고 그 속에서 천둥하는 소리가 마치 바둑판을 밀어치는 듯 명주를 찢는 듯하다. 수많은 벼들이 다 어둠침침하여 잎마다 번갯불이 번쩍인다.

여렷이 일제히 채찍을 날려 길을 재촉하나 등 뒤에 수많은 수레가 다투어 달리고, 산이 미친 듯 뒤집히는 듯, 성낸 나무가 부르짖는 듯하여 하인들은 손발이 떨리어, 급히 우장을 껴내려 하나 얼른 부대끈이 풀리지 않는다. 비 · 바람 · 천둥 · 번개가 가로 휘몰아쳐 지척을 분별할 수 없을 지경이다. 말은 모두 사시나무 떨듯 하고 사람은 숨길이 급하여 할 수 없이 멀머리를 모아서 뻥 둘러 섰는데 하인들은 모두 얼굴을 말갈기 밑에 가리고 섰다.

가끔 번갯불에 비치는 데 보니, 노군이 새파랗게 질리어 두 눈을 꼭 감고 곧 숨이 넘어갈 것 같다. 조금 뒤에 비바람이 좀 몇자 서로 바라보니 얼굴이 모두 흙빛이었다. 그제야 비로소 양편에 있는 집들이 보이는데 불과 40~50보밖에 안 되는 곳에 두고서도 비가 막 쏟아질 때에는 피할 줄 알지 못하였다. 여러 사람들은,

“조금만 더했더라면 거의 숨막혀 죽을 뻔했군.”

한다. 점(店)에 들어가서 잠깐 쉬려니 하늘이 맑게 개고 바람과 햇빛이 산뜻하였다. 간단히 술잔을 나누고는 곧 떠났다. 길에서 부사를 만나서,

“어디서 비를 피하셨소.”

하고 물었더니, 부사는,

“가마문이 바람에 떨어졌기 때문에 빗발이 가로 들이쳐서 한데 선 것이나 다름 없었소. 빗방울 크기가 주발(酒鉢)만큼 하니 대국은 빗방울조차 무섭소그려.”

한다. 나는 계함더러,

“나는 오늘에야 더욱 사전(史傳 역사에서 전하는 기록)을 믿지 않으우.”

하였더니, 정 진사가 말을 채찍질하여 앞으로 나서면서,

“무슨 말씀이오?”

하기에, 나는,

“항우(項羽)가 아무리 노하여 고함친다 하더라도 어찌 이 우레 소리를 당할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史記)》에 적천후(赤泉侯)¹⁹의 인마가 모두 놀라서 수리(數里)를 물러섰다 하였으니, 이는 거짓말이 아니고 무엇이오. 항우가 비록 눈을 부릅떴다 하기로서니 이 변갯불만 못했을 터인즉, 여마동(呂馬童 한의 장수)이 말에서 떨어졌다 함은 더욱 못 믿을 일이오.”

하니, 여럿이 모두 크게 웃었다.

이제묘기(夷齊廟記)

난하(灤河) 기슭에 자그마한 언덕을 ‘수양산(首陽山)’이라 하고, 그 산 북쪽에 조그만 성이 있으니 ‘고죽성(孤竹城)’이라 한다. 성문에는 ‘현인구리(賢人舊里)’라 써 붙였고, 문 오른편 비석에는 ‘효자충신(孝子忠臣)’이요, 왼편 비에는 ‘지금칭성(至今稱聖)’이라 새겼으며, 묘문(廟門) 앞 비석에는 ‘천지강상(天地綱常)’이요, 문 남쪽 비에는 ‘고금사표(古今師表)’라 하였다. 그리고 문 위에는 ‘상고일민(上古逸民)’이라란 현판이 걸렸고, 문 안에 비석 셋, 뜰 가운데 비석 둘, 섬돌 좌우에 비석 넷이 있으니, 모두 명(明) · 청(清) 때의 어제(御製)들이다.

뜰에는 고송(古松) 수십 그루가 서 있고, 섬돌 가에는 흰 돌로 난간을 둘렀다. 가운

19 적천후(赤泉侯) : 한(漢)의 장수 양무(楊武)의 봉호. 항우가 죽을 때 그 시체를 찢어서 가진 다섯 장수 중의 한 사람이다.

데에 큰 전각이 있어 ‘고현인전(古賢人殿)’이라 하고, 전각 속에 곤룡포·면류관을 갖추고 홀을 들고 섰는 것이 곧 백이(伯夷)·숙제(叔齊)²⁰이다.

전 문에는 ‘백세지사(百世之師)’라 써 붙였고, 전 안에는 큰 글자로 ‘만세표준(萬世標準)’이라 쓴 것은 강희제의 글씨요, 또 ‘윤상사범(倫常師範)’이라 한 것은 옹정제의 글씨이다. 전 가운데 간직한 보기(寶器)들은 만력(萬曆) 때 물건이 많다. 그 주련(柱聯)에는,

인을 찾아서 인을 행했으니 만고의 맑은 바람 고죽국이요

| 求仁得仁萬古清風孤竹國

몹쓸로 몹쓸을 바꿨다 하니²¹ 천추의 외론 절개 수양산이로다

| 以暴易暴千秋孤節首陽山

하였고, 뜰에 두 문이 있으니 동쪽에는 ‘염완(廉頑)’이요, 서쪽에는 ‘입나(立懦)’라 하였으며, 또 작은 문 둘이 있으니 원편은 ‘관천(盥薦)’이요, 오른편은 ‘재명(齊明)’이라 하였고, 그 문을 나서면 당(堂)이 있어 ‘읍손(揖遜)’이라 하였으며, 비석이 있는데 이는 성화(成化) 명 헌종(明憲宗)의 연호(연간)에 세운 것이다. 비 뒤에 대(臺)가 있어 ‘청풍(淸風)’이라 하고, 문 둘이 있어 하나는 ‘고도풍진(高蹈風塵)’이요, 또 하나는 ‘대관환우(大觀寰宇)’라 새겨 붙였으며, 대 위에는 각(閣)이 있어 ‘재수지미(在水之湄)’라 하였고, 그 주련(柱聯)에는,

뫼들은 인자처럼 고요하고²² | 山如仁者靜

바람은 성인인 양 맑디맑다²³ | 風似聖人清

하였다, 또,

20 백이(伯夷)·숙제(叔齊) : 은(殷) 고죽군(孤竹君)의 아들. 백이는 형, 숙제는 아우로 어버이가 죽자 서로 자리를 사양하였고, 주 무왕이 은을 칠 때에 반대하여 수양산에 숨어서 고사리를 캐어 먹었다.

21 인을……하니 : 백이·숙제의 채미가(采薇歌) 중에서 나오는 구절.

22 뫼들은……고요하고 : 《논어(論語)》에, “인자(仁者)는 뫼를 사랑한다” 하였다.

23 바람은……맑디맑다 : 《논어》에, “백이는 성인 중의 맑은 이다” 하였다.

가산 가수는 고죽나라에 | 佳山佳水孤竹國
난형 난제의 성인 나시다 | 難兄難弟古聖人

라고 한 것이 있다. 대 위에 문 둘이 있어 하나는 ‘백대산두(百代山斗)’요, 또 하나는 ‘만고운소(萬古雲霄)’라 하였다. 명(明)의 현종 순황제(憲宗純皇帝) 때에 백이에게는 소의청혜공(昭義清惠公), 숙제에게는 숭양인혜공(崇讓仁惠公)이란 시호를 주었다. 중국에서 수양산(首陽山)이라 하는 곳이 다섯 군데가 있으니, 하동(河東)의 포판(蒲坂)인 화산(華山)의 북쪽 하곡(河曲)²⁴의 어름에 산이 있어 ‘수양’이라 하였고, 혹은 농서(隴西)에도 있다 하며, 혹은 낙양(洛陽) 동북쪽에도 있다 하고, 또 언사(偃師) 서북쪽에도 이제묘가 있다 하며, 또는 요양(遼陽)에도 수양산이 있다 하여, 모든 전기(傳記)에 나타났다. 그러나 《맹자(孟子)》에는,

“백이가 주왕(紂王)²⁵을 피하여 북해(北海) 가에 살았다.”

하였고, 우리나라 해주(海州)에도 수양산이 있어서 백이 · 숙제를 제사지내나, 이는 중국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일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기자(箕子)가 동으로 조선에 온 것은 오로지 주(周)의 판도 안에 살기 싫어함이요, 백이도 차마 주의 곡식을 먹을 수 없음인즉, 혹은 그가 기자를 따라와서 기자는 평양에 도읍하고 백이 · 숙제는 해주에 살지나 않았는가.’

그리고 우리나라 항간에서 전하는 말에,

“대련(大連) · 소련(少連)²⁶이 해주 사람이다.”

하였으니, 이를 무엇으로 고증할 수 있을까.

문과 담장에 당(唐) · 송(宋) 역대의 치제문(致祭文)을 많이 새겨 놓은 것을 보아서는 이 묘가 영평에 있은 지 오래임을 알 수 있다. 어떤 이는,

“홍무(洪武) 초년에 영평부 성 동북쪽 언덕에 옮겨 세웠다가 경태(景泰) 명 경종(明

24 하곡(河曲) : 황하가 북에서 남으로 흐르다가 또 동으로 굽이치는 곳.

25 주왕(紂王) : 은(殷)의 말왕(末王). 중국 고대의 대표적 폭군.

26 대련(大連) · 소련(少連) : 《예기(禮記)》중에 나오는 인물. 이들 형제는 동이(東夷)의 아들로서, 상주질 잘하기로 유명하였다.

景宗)의 연호) 연간에 다시 이곳에 세웠다.”

한다. 행궁(行宮)이 있어 그 제도는 강녀묘·북진묘의 행궁과 같으나 지키는 자가 금하므로 그 내용을 구경하지 못하였다.

난하범주기(灘河泛舟記)

난하는 장성 북쪽 개평(開平)에서 처음 나와, 동남쪽으로 흘러서 천안현(遷安縣) 지경을 거쳐 노룡새(蘆龍塞)에 이르러 칠하(漆河)와 합하고, 다시 남쪽으로 흘러 낙정현(樂亭縣)에 이르러서 바다로 들어간다. 요동·요서에 ‘하(河)’라고 이름한 물 치고는 모두 흐린 것인데, 다만 이 난하만이 고죽사(孤竹祠) 고죽군(孤竹君)의 사당) 밑에 이르러 깊게 고여서 호수가 되어 그 맑은 빛이 거울 같다. 고죽성은 영평부 남쪽 10여 리 되는 곳에 있는데, 《후한서(後漢書)》의 군국지(郡國志)에,

“우북평(右北平) 영지(令支)에 고죽성이 있다.”

하였고, 그 주(注)에,

“백이·숙제의 본국(本國)이다.”

하였다. 난하의 남쪽 기슭에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솟아 있고, 그 위에는 청풍루(清風樓)가 있는데, 누 아래 강물이 더욱 맑으며 강 한복판에 작은 섬이 있고, 섬 가운데 돌을 병풍처럼 쌓고 그 앞에 고죽군(孤竹君)의 사당이 있으며, 사당 아래 배를 띄우니, 물 맑고 모래 희며, 들 넓고 숲 깊숙한데, 물가에 수십 호 되는 집이 모두 그림자가 호수 속에 박혔고, 고기잡이 배 서너 척이 한창 그물을 사당 밑에 치고 있다. 물을 거슬러 올라가니, 중류에 대여섯 길 되는 돌봉우리가 있어 이름은 ‘지주(砥柱)’라 하는데, 기암괴석이 빽 둘러싸서 우뚝우뚝 서 있으며, 교청새·뜸부기 같은 물새 떼 수십 마리가 모래 위에 늘어 앉아 깃을 다듬고 있다. 배에 함께 탄 사람들이 이 경치를 돌아보고 기뻐하면서,

“강산이 그림 같으오.”

하기에,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대들은 강산도 모르고 그림도 모르는구려. 어디 강산이 그림에서 나온 것인가. 그림이 강산에서 나왔지. 흔히들 흡사하다느니 같다느니 유사하다느니, 닮았다느니 똑같다느니 하는 말들은 모두 같다는 의미를 말함이다. 그러나 비슷한 것으로 써 비슷한 것을 비유함은 실은 같을 성싶어도 같은 것이 아닌거요. 옛사람이 강(양자강)²⁷(揚子江)에서 나는 요주(瑤柱)²⁷를 여지(荔支 남방에서 나는 과실)와 같다 하고, 서호(西湖)²⁸를 서자(西子 서시(西施))와 같다 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다시 말하기를, 담채(淡菜 조개의 일종)는 용안(龍眼 용안수(龍眼樹)의 열매)과 같고, 전당(錢塘)²⁹은 비연(飛燕)³⁰과 같다 하니, 어찌 그럴 수 있겠소.”

석호석기(射虎石記)

영평부에서 남쪽으로 10여 리를 가면 가파른 언덕에 드러난 바위가 있다. 비스듬히 보면 빛깔이 희고, 그 밑에는 비석이 있어 ‘한비장군석호처(漢飛將軍射虎處)’라 새겨 있다. 나는, “청의 건륭 45년 가을 7월 26일에 조선인(朝鮮人) 아무아무는 이를 구경하다”라고 썼다.

27 요주(瑤柱) : 조개의 일종. 껍질이 얇고 길게 생겼으며, 줄이 방사선으로 낫다.

28 서호(西湖) : 절강성(浙江省) 항주(杭州)에 있는, 경치 좋기로 유명한 호수.

29 전당(錢塘) : 항주에 있는 경치 좋은 호수.

30 비연(飛燕) : 한 성제(漢成帝)의 황후 조비연(趙飛燕). 몸이 나는 제비처럼 가볍다 하여 붙인 이름.

27일 계묘(癸卯)

개다. 아침에 잠깐 서늘하였으나 낮에는 몹시 더웠다.

사하역(沙河驛)에서 홍묘(紅廟)까지 5리, 마포영(馬舖營) 5리, 칠가령(七家嶺) 5리, 신점포(新店舗) 5리, 건초하(乾草河) 5리, 왕가점(王家店) 5리, 장가장(張家莊) 5리, 연화지(蓮花池) 10리, 진자점(榛子店) 5리, 모두 50리를 가서 점심을 먹었다. 진자점에서 연돈산(烟墩山)까지 10리, 백초와(白草塗) 6리, 철성감(鐵城坎) 4리, 우란산포(牛欄山舗) 4리, 판교(板橋) 6리, 풍윤현(豐潤縣) 20리, 모두 50리이다. 이날 1백 리를 가서 풍운성 밖에 묵었다.

어제 이제묘 안에서 점심 먹을 때 고사리 넣은 닭찜이 나왔는데, 맛이 매우 좋고 또 길에서 변변한 음식을 먹지 못한 끝이라 별안간 입맛이 당기는 대로 달게 먹었으나, 그것이 구례(舊例)인 줄은 몰랐다. 오후에 길에서 소나기를 만나서 겉은 춥고 속은 막히어 먹은 것이 내려가지 않고 가슴에 그득히 채하여, 한번 트림을 하면 고사리 냄새가 목을 찌르는 듯하여 생강차를 마셔도 속이 오히려 편하지 않았다.

“이 한창 가을에 철 아닌 고사리를 주방(廚房)은 어디서 구해 왔는고.”

하고 물었더니, 옆에 사람이 말하기를,

“이제묘에서 점심 참을 대는 것이 준례가 되어 있사오며, 또 사시를 막론하고 여기서는 반드시 고사리를 먹는 법이옵기에 주방이 우리나라에서 마른 고사리를 미리 준비해 가져와 여기에서 국을 끓여서 일행을 먹이는 것이 이젠 벌써 하나의 고사(故事)로 되었답니다. 10여 년 전에 건량청(乾糧廳)³¹이 이를 잊어버리고는 갖고 오지 않아서 이곳에 이르자 궐공(闕供)되었으므로, 건량관(乾糧官)이 서장관에게 매를 맞고 물 가에 앉아서 통곡하면서 푸념하기를, ‘백이 · 숙제, 백이 · 숙제야. 나하고 무슨 원수냐. 나하고 무슨 원수냐’라고 하였답니다. 소인(小人)의 소견으로는 고사리가 고기만 못하며, 또 듣자온즉 백이들은 고사리를 뜯어 먹고 굶어죽었다 하오니, 고사리는 참 사람 죽이는 독물인가 하옵니다.”

하니, 여러 사람들이 모두 허리를 잡았다. 태희(太輝)란 자는 노 참봉의 마두(馬頭)

31 건량청(乾糧廳) : 면 길을 가는 데 마른 양식을 준비하는 부서.

인데 초행일뿐더러 위인이 경망해서, 조장(棗庄)을 지나다가 대추나무가 비바람에 꺾이어 담 밖에 넘어진 것을 보고는, 그 풋열매를 따 먹고 배앓이로 설사가 멎지 않아서, 한창 속이 허하고 몸이 달고 마음이 답답하고 목이 타는 듯하다가, 급기야 고사리독이 사람 죽인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몸부림치면서,

“아이고, 백이 · 숙채(熟菜 삶은 나물)가 사람 죽이네. 백이 · 숙채가 사람 죽인다.”

하니, 숙제(叔齊)와 숙채(熟菜)가 음이 서로 비슷한지라, 또한 당에 가득한 사람들 이 깔깔거리고 웃었다.

내 일찍이 백문(白門 서울 부근의 지명)에 살 때이었다. 때마침 숭정(崇禎) 기원(紀元) 뒤 137년, 세 돌째 맞이한 갑신년(甲申年)이며, 3월 19일은 곧 의종 열황제(毅宗烈皇帝)가 순사(殉社 국가와 함께 죽음)한 날이다. 시골 선생님이 동리 아이 수십 명을 거느리고 성서(城西 서울 서대문 밖)에 있는 송씨(宋氏)의 셋방살이 집에 찾아가서 우암(尤菴) 송 선생(宋先生 송시열(宋時烈))의 영정에 절하고, 초구(貂裘)³²를 내어서 어루만지며 강개함을 이기지 못하여 눈물을 흘리는 이까지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성 밑에 이르러서 팔을 뽑내며 서쪽을 향하여,

“되놈.”

하고 불렀다. 그리고는 선생님이 이에 여수(旅酬)³³를 별이되 고사리나물을 차렸다. 이때 마침 주금(酒禁)이 내렸으므로 꿀물로서 술을 대용하여 그림 놓은 자기주발에 담았으니, 그 주발의 관지(款識)에는 ‘대명(大明) 성화(成化)에 만든 것이다’라고 새겼다. 여수하는 자가 꿀물을 따를 때면 반드시 머리를 숙여 주발을 들여다보곤 한다.³⁴ 이는 《춘추(春秋)》의 의리를 잊지 않기 때문이라 한다. 이에 서로 시(詩)를 읊었다. 그 중 한 동자(童子)가 쓰기를,

32 초구(貂裘) : 초피 두루마. 효종의 하사품인데, 북벌 곧 청을 칠 때 요(遼) · 계(薊)의 풍설(風雪)에 입으라 하였다.

33 여수(旅酬) : 제사를 마친 뒤 술잔을 나누는 일종의 음복놀이.

34 여수하는……한다 : ‘대명성화(大明成化)’라는 글자를 새겼으므로, 대명을 잊지 않음이 곧 《춘추》의 대의라는 것이다.

무왕도 만약 패해서 죽었다면 | 武王若敗崩
아득한 천 년 뒤에 주왕에겐 역적이 되올 것을 | 千載爲紂賊
여망이 어이하여 백이를 구하고도³⁵ | 望乃扶夷去
역적을 옹호했다 하여 별을 받지 않았던고 | 何不爲護逆
춘추의 큰 의리를 이제껏 떠들건만 | 今日春秋義
되놈으로 간주하면 되놈의 역적일 걸 | 胡看爲胡賊

하였다. 모두들 한바탕 웃었다. 그 선생님이 섭섭한 표정으로 한참 있다가,
“아이들은 불가불 일찍부터 《춘추》를 읽혀야 돼. 아직 그게 무엇인지 분간을 못
하므로 이 따위의 괴상한 말들을 하는 게야. 어디 한번 즉경(卽景)이나 읊어 보아
라.”
하자, 또 한 동자가 짓기를,

고사리 캐고 캔들 배 부르단 거짓말이 | 採薇不眞飽
백이도 나중에는 주려서 죽었다오 | 伯夷終餓死
꿀물이 몹시 달아 술보다 나을지니 | 蜜水甘過酒
이것 마시자 죽는다면 그 아니 원통하리 | 飲此亡則冤

하였다. 선생은 눈썹을 찡그리면서,
“어어, 이게 또 무슨 괴상한 수작이여.”
하니, 만좌의 사람들이 또 한번 크게 웃었다. 그리한 지도 어언간 17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때의 늙은이들도 다 가버린 오늘날에 다시 백이의 고사리로 이런 말썽
이 생겨서, 타향(他鄉)의 풍등(風燈) 아래에서 옛 이야기를 하다보니 끝내 잠을 잊
고야 말았다.

새벽에 떠나 길에서 상여(喪輦)를 만났다. 널 위에 흰 수탉을 놓았는데 닭이 해를

35 여망이……구하고도 : 백이·숙제가, 무왕이 주왕을 치려 함을 말렸을 때, 무왕의 좌우가 모두 그를
죽이려 하자, 여망(呂望)이 홀로 그를 의사(義士)라 하여 놓아주었다.

치며 울고 있다. 연이어 상여를 만났으나 모두 닭을 놓았으니 이는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라 한다.

길 곁에 넓이 수백 이랑이나 되는 못이 있는데 연꽃은 벌써 지고 사람들이 각기 조그마한 배를 타고 들어가서, 마름·연밥·연근 같은 것을 캐고 있었다. 돼지 수십 마리를 몰고 가는 이가 있는데, 그 모는 법이 마소 다루는 것과 같다. 길 가 백여 리 사이에 아름드리 베드나무가 수없이 많이 자빠져 있다. 이는 어제 비바람에 쓰러진 것이다.

진자점(榛子店)에 이르렀다. 이 점은 본래 기생이 많기로 이름난 곳이다. 강희 황제가 일찍이 천하의 창기를 염금하여 양자강(揚子江)·판교(板橋) 같은 곳의 창루(娼樓)·기관(妓館)들이 모두 쑥대밭이 되었는데, 이곳만이 남아 있어서 그를 ‘양한적(養閒的)’이라 이름하는데 얼굴이 그럴싸하고 음악도 곧잘 한다. 재봉(再鳳)과 상삼(象三)이 후당(後堂)으로 들어가며 나를 보고는 빙긋 웃음을 띤다. 나도 그 뜻을 짐작하고 가만히 그 뒤를 밟아가서 문틈으로 들여다본즉 상삼이 벌써 한 여인을 끼고 앉았다. 이는 전부터 안면이 있는 모양이다. 청년 둘이 의자에 마주 걸터 앉아서 비파를 타고 한 여인은 의자 위에서 봉(鳳) 부리에 금고리를 물린 저를 불고 있는데, 부리에는 금고리가 달렸고 금고리에는 붉은 수술을 드리웠다. 재봉은 그 아래에 서서 손으로 수술을 어루만지고 있고, 또 한 여인은 주렴을 걷고 나오더니 손에 박자 판을 들고 재봉을 부축하여 앉히려 하였으나 재봉은 듣지 않았다. 한 늙은이가 주렴을 걷고 서서 재봉을 향하여,

“안녕하시오.”

한다. 나는 곧 밖에서 큰 기침 한번을 내며 가래침을 뺐었다. 방안에 있던 사람들 이 모두 크게 놀란다. 상삼과 재봉이 서로 보고 웃으며 곧 일어나 문을 열고 나를 맞아들인다. 내가 문안으로 머리를 들이밀며,

“안녕들 하시오.”

했더니, 늙은이와 두 젊은이가 일제히 일어나서 웃으며,

“예, 안녕하십니까.”

하고 답하니, 세 양한적도 모두들,

“천복(千福)을 누리시옵소서.”

한다. 재봉은 노랑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은 여인을 가리키며,

“저 이름은 유사사(柳絲絲)입니다. 병신년(丙申年)에 이곳을 지날 때 나이 스물넷에 그야말로 일색이었던 것이 이제 5년 동안에 얼굴이 아주 그냥 망가져서 보잘것 없이 되었습니다그려.”

한다. 상삼은,

“유사사는 일찍이 열네 살부터 소리 잘하기로 이름을 날렸답니다.”

하고, 검은 웃옷에 주홍치마를 입은 여인을 가리키며,

“저 이름은 요청(亥青)이고 올해에 나이 스물다섯입니다. 작년부터 이곳에 와 있는 산동 여자입니다.”

한다. 나는 검은 저고리에 초록치마를 입은 그 중 제일 앳되보이는 여인을 가리켰더니, 상삼은,

“그는 처음 보는 여인이어서 이름이나 나이를 모르겠습니다.”

한다. 세 기생이 모두들 특별한 자색은 없으나 대체로 당화(唐畫) 미인도(美人圖) 중에서 보이는 여인과 같았다. 그 늙은이는 곧 관(館) 주인이고, 두 청년은 모두 산동에 온 장사치들이다. 나는 상삼에게 눈짓하여 그들에게 음악을 아뢰도록 했더니, 상삼이 그 청년을 보고 뭐라고 하자 한 청년은 노래하고 요청은 홀로 박자판을 치며 소리를 맞추어 합창할 때, 다른 기생들은 모두 부는 것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 듣기만 한다. 한 청년이 자리를 옮겨, 나더러,

“알아 들으시는지요?”

하기에, 나는,

“잘 모르네.”

하였더니, 그는 글로 써서 보이며,

“이 사곡(詞曲)은 ‘계생초(雞生草)’라 부르고, 가사는,

전조에 낳은 장수 모두들 영웅이라 | 前朝出了英雄尉
도원의 의를 맺어 그 성은 유 · 관 · 장³⁶을 | 桃園結義劉關張
그 셋이 뜻이 맞아 제갈량을 군사 삼고 | 他三人請了軍師諸葛亮
신야와 박망파를 불사라 버리고선 | 火燒新野博望屯
상양성을 또 깨뜨렸네 | 炮打上陽城
노천을 원망하건대 주유³⁷를 낳았으니, 제갈량이 또 웬일인고
| 怨老天既生瑜又生亮

라고 하였습니다.”

한다. 그 청년이 글은 제법 아는 모양이나 얼굴은 못생겼다. 그는 스스로 소개하기를,

“저는 신성(新城)³⁸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성은 왕(王)이요, 이름은 용표(龍標)라 합니다.”

한다. 나는,

“자네가 혹시 왕서초(王西樵) 사록(士祿) 선생의 후손되시는 이인가?”

했더니, 그는,

“아니올시다. 저희는 민가(民家) 출신으로서 장사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한다. 그 청년이 또 한 곡조를 부를 때 모든 기생들이 혹은 박자판을 치고, 혹은 비파를 뜯고, 또는 봉저[鳳笛]를 불어서 소리를 맞춘다. 왕용표는,

“공자(公子)께선 이를 아십니까?”

하기에, 나는,

“모르네. 이건 무슨 사(詞)라 하나.”

했더니, 용표는 글로 써 보이기를,

36 유 · 관 · 장 : 중국 역사 소설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중에 나오는 유비(劉備) · 관우(關羽) · 장비(張飛) 등의 결의형제의 고사(故事).

37 주유(周瑜) : 주유가 죽을 때에, “하늘이 이왕 주유를 낳았으니 어찌 또 제갈량을 낳았을꼬” 하며 비탄하였다.

38 신성(新城) : 직례성(直隸省) 무극현(無極縣)에 있는 지명.

“이 곡조는 ‘답사행(踏莎行)’이라 하옵니다. 그리고 그 가사는,

세월은 문틈의 말달리기 티끌이나 곧 아지랑이 | 日月隙駒塵埃野馬
동으로 흐른 강물 쉴 줄 모르누나 | 東流不盡江河瀉
명리를 다투던 건 예로부터 헤어보니 | 向來爭奪名利人
백년이 채 못 되어 몇몇이나 남았던고 | 百歲幾個長存者

라고 하였습니다.”

한다. 유사사는 그 뒤를 이어서,

고기잡이 나무꾼의 싸늘한 이야기가 | 漁樵冷話
옳고 그름 예 있으니 《춘추》만 못잖으리³⁹ | 是非不在春秋下
술 부어 마시면서 시구를 길이 읊어 | 自斟自飲自長吟
알아 줄 이 적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 不須贊嘆知音寡

라고 부르는데, 그 소리가 사뭇 구슬퍼서 남의 창자를 에이는 듯싶고, 참으로 들보의 티끌이 저절로 나부낀다.⁴⁰ 상삼이 다시 이어서 창(唱)하기를 청하니, 유사사가 눈을 흘기며,

“채소 사는지요, 더 달라게.”

한다. 그 청년은 손수 비파를 뜯으면서 유사사더러 노래 계속하기를 권한다. 그 소리는 더욱 보드랍고 아리땁다. 왕용표는 또 글을 써서 보이었다.

“이 곡조는 ‘서강월(西江月)’이라 하며, 가사는,

39 고기잡이……못잖으리 : 초동과 어부의 쑥덕공론이 《춘추》대의를 부르짖는 이들의 이론만 못하지 않다는 말.

40 들보의……나부낀다 : 유향(劉向)의 〈별록(別錄)〉에, “우공(虞公)이 맑은 새벽에 노래를 부르면, 그 소리가 들보 위의 티끌을 움직였다” 하였다.

쓰르라미 울음소리 세월이 바쁘구나 | 蟬蛄忍忍甲子
모기가 날아들 제 산천이 어지러라 | 蚊蝶擾擾山河
거센 바람 소낙비가 밤 사이 지나가고 | 疾風暴雨夜來過
그제야 눈 떠보니 한 날도 없구나 | 轉眼都無一個

라고 한 것입니다.”

하고, 요청은 곧 그 뒤를 이어서 창(唱)을 하였다.

항아리 속 빛은 술을 다하도록 마시고서 | 且盡尊中美酒
달 아래 높은 노래 고요히 들어 보소 | 閑聽月下高歌
공명이랑 부귀마저 마침내 그 무언고 | 功名富貴竟如何
닥쳐 오는 뒷일일랑 그 아예 묻지 마오 | 莫問收場結果

그 소리는 매우 거세어서 유사사의 가냘픔만 못하였다. 나는 그제야 곧 일어서서 나올 때 재봉 역시 뒤를 따랐다. 재봉이 나에게 말하기를,
“상삼이 관주(館主)에게 은(銀) 두 냥, 대구어(大口魚) 한 마리, 부채 한 자루를 주었답니다.”

한다. 이곳에서 식암(息菴) 김공(金公) 식암은 김석주(金錫胄)의 호)이 보았다는 계문란(季文蘭)의 시를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다.[그 일은 <피서록(避暑錄)>중에 보인다.]

연로(沿路) 수천 리 사이에 부녀들의 말소리들은 모두 연연(燕燕) · 앵앵(鶯鶯)⁴¹이 고 하나도 거친 목소리는 듣지 못했다. 그야말로,

아리따운 님이시여 있는 곳을 몰랐더니 | 不識佳人何處在
눈썹 그리는 그 소리 주렴 넘어 들리는 듯 | 隔簾疑是畫眉聲

41 연연(燕燕) · 앵앵(鶯鶯) : 둘 다 유명한 기생의 이름.

이 곧 그것이었다.

나는 한번 그들의 앳된 노래소리를 듣고 싶어 했더니, 이제 그 부르는 사곡(詞曲)의 의미는 짐작할 수 있겠으나, 오히려 성음(聲音)은 분변하지 못할뿐더러, 더욱이 그 곡조를 알지 못하므로 차라리 듣지 않았을 때 여운(餘韻)을 지니고 있으니만 같지 못했다.

저녁 나절에 풍윤성(豐潤城) 아래에 이르다. 주인 집 뒷문이 해자를 향해서 열리고 문 앞엔 몇 그루 실버들이 가렸다. 정사(正使)는,

“지난 정유년(丁酉年 1777) 봄에 사신으로 갔다 돌아오는 길에 일찍이 이 집에 머물면서 서장관 신형중(申亨重)[이름은 사운(思運)이다.]과 함께 이 베드나무 밑에서 한담한 일이 있었다.”

하고, 가마에서 내려 곧 뒷문 밖에 자리를 평게 하고 모든 비장들과 잠깐 술을 나눴다. 그 해자의 넓이는 십여 보나 되는데 벼들 그늘이 짙어서 땅 위에 치렁치렁 드리우고 물가에 남실남실 잠기었다. 성(城) 위엔 3층 높은 다락이 구름 위에 솟아 보일락말락한다.

드디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성에 들어가 다락에 올라 구경할 제, 그 이름은 ‘문창루(文昌樓)’라 하였는데 문창성군(文昌星君 별 이름을 딴 귀신 이름)을 모셨다 한다.

길에서 초인(楚人) 임고(林皋)를 만나 함께 호형항(胡廻恒)의 집에 가서 촛불을 밝히고, 차수(次修 박제가(朴齊家)의 자)가 쓴 무관(懋官 이덕무(李德懋)의 자)의 시(詩)를 구경하고 저녁 식사를 마친 뒤에 다시 오기로 약속할 제,

“혹 성문이 닫히지나 않을까요?”

하고 물었더니,

“곧 닫겠지만 반 시간도 못 되어 다시 연답니다.”

하고 답한다. 저녁 뒤에 촛불을 들고 다시 가보니 성문이 닫히지 않았다. 이때 우리를 따라 온 하인들은 더부룩한 맨머리로 거리에 삐빡하게 쏘다니며 말먹이 풀을 구하는 모양이었다.

호(胡)와 임(林) 두 사람이 반기며 나와서 맞이한다. 방안엔 벌써 주안상을 차려 놓

았다. 그는,

“이형암(李炯菴 형암은 이덕무의 일호(一號))과 박초정(朴楚亭 초정은 박제가의 호)이 모두 잘 지내십니까?”

하고 물기에, 나는,

“모두 편하지요.”

하였더니, 임생(林生)은,

“박(朴)과 이(李) 그 두 분은 참으로 인품이 맑고 재주가 높은 선비지요.”

하기에, 나는,

“그들은 모두 나의 문생(門生)이지만 그 변변하지 않은 글 재주를 이다지 칭찬할 게야 뭐 있겠소.”

하였더니, 임생은,

“옛말에 정승의 문하엔 정승이 나고 장수의 문하엔 장수가 난다더니 과연 혀된 말이 아니군요.”

하고, 그는 또,

“형암 · 초정 두 분이 일찍이 무술년(戊戌年 1778) 황태후(皇太后) 진향(進香)⁴² 때 이곳을 지나다 하룻밤 쉬어 갔습니다.”

한다. 임과 호 그 둘이 비록 정성껏 대접하는 셈이나 전연 글을 모르고 게다가 호생(胡生)은 얼굴마저 단아하지 못하여 시정배의 모습을 면치 못했고, 임생은 긴 수염에 장자(長子)의 풍도가 없진 않으나, 다만 수작하는 사이에 장사치들의 행투가 바이 가시지 못했다. 호생은 내게 송하선인도(松下仙人圖)⁴³를 주고, 임생 역시 그림 부채 한 자루를 선사하기에 각기 부채 한 자루와 청심환 한 개씩을 주어서 감사의 뜻을 표했다. 술을 몇 잔 하였다. 그 곁에는 유리등(琉璃燈) 한 쌍이 있어서 제법 아름다워 보였다. 밤이어서 다른 골동품은 구경하지 못할 것이므로, 나는 곧장 일어서면서 돌아오는 길에 다시 찾기를 약속했다. 임생이 문에 나와 전송하며 제법 섭섭한 모양이다. 사관에 돌아와 호생이 선사한 민강(閩薑 복건산(福建產) 생

42 황태후(皇太后) 진향(進香) : 황태후의 탄일 열흘 전에 황제가 향을 바치는 예식.

43 송하선인도(松下仙人圖) : 고송(古松) 밑을 거니는 선인을 그린 것.

강) · 국다(菊茶) · 굴병(橘餅 굴 말린 것) 등을 내어서 장복으로 하여금 푸욱 달여 소주에 타서 두어 잔을 마시니 그 맛이 유달리 좋았다.

성 밖에 사성묘(四聖廟)가 있고 옹성(甕城) 안에 백의암(白衣菴)이 있으며, 앞 네거리엔 패루(牌樓) 둘이 있고, 초루(譙樓)⁴⁴에는 관제(關帝)⁴⁵의 소상을 모셨다.

28일 갑진(甲辰)

아침에 갔다가 오후엔 바람과 우레가 크게 일었으나 우세(雨勢)는 앞서 야계타에서 만난 것만 못했다.

풍윤성(豐潤城)에서 새벽에 떠나 고려보(高麗堡)까지 10리, 사하포(沙河舗) 10리, 조가장(趙家庄) 2리, 장가장(蔣家庄) 1리, 환향하(還香河) 1리인데, 환향하의 일명은 어하교(魚河橋)였고, 거기에서 민가포(閔家舗) 1리, 노고장(盧姑庄) 4리, 이가장(李家庄) 3리, 사류하(沙流河) 8리를 가서 점심을 먹으니 모두 40리였고, 또 사류하로부터 양수교(亮水橋)까지 10리, 양가장(良家庄) 5리, 입리포(里舗) 5리, 시오리둔(十五里屯) 5리, 동팔리포(東八里舗) 7리, 용읍암(龍泣菴) 1리, 옥전현(玉田縣) 7리, 모두 40리인데 이날에는 80리를 가서 옥전성(玉田城) 밖에서 잤다. 옥전은 옛 이름이 유주(幽州)요, 무종국(無終國)이 이에 있었는데 곧 소공(召公)의 봉지(封地)이다. 《정의(正義 당 공영달(孔穎達)이 지은 경전 주석서)》에 이르기를,

“소공은 애초에 무종에 봉했다가 나중엔 계주(薊州)로 옮겼다.”

하였고, 시서(詩序)⁴⁶에는,

“부풍(扶風) 옹현(雍縣) 남쪽에 소공정(召公亭)이 있으니, 이곳이 곧 소공의 채읍(采邑 식읍(食邑))이다.”

하였으나, 어느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다.

44 초루(譙樓) : 면 적진(敵陣)을 바라보기 위하여 세운 문 위의 높은 누각.

45 관제(關帝) : ‘수택본’에는 ‘관공(關公)’이라 기록되어 있다.

46 시서(詩序) : 공자의 제자 복상(卜商)이 지은 《시경(詩經)》 각 편의 해제.

고려보에 이르니, 집들이 모두 땀 이엉을 이어서 몹시 쓸쓸하고 검소해 보인다. 이는 묻지 않아도 고려보임을 알겠다. 앞서 정축년(丁丑年 병자호란 다음 해, 1637)에 잡혀 온 사람들이 저절로 한 마을을 이루어 산다. 관동 천여 리에 무논이라고는 없던 것이 다만 이곳만은 논벼를 심고, 그 떡이나 옛 같은 물건이 본국(本國)의 풍속을 많이 지녔다. 그리고 옛날에는 사신이 오면 하인들의 사 먹는 주식치고는 값 받지 않는 일도 없지 않았고, 그 여인들도 내외하지 아니하며, 말이 고국 이야 기에 미칠 때에는 눈물을 짓는 이도 많았다. 그러므로 하인들이 이를 기화로 여겨서 마구잡이로 주식을 토색질해서 먹는 일이 많을뿐더러, 따로이 그릇이며 의복 등속을 요구하는 일까지 있으며, 또 주인이 본국의 옛 정의를 생각하여 심하게 지키지 않으면 그 틈을 타서 도둑질하므로, 그들은 더욱 우리나라 사람들을 꺼려서 사행이 지날 때마다 주식을 감추고 즐겨 팔지 않으며, 간곡히 청하면 그제야 팔되 비싼 값을 달라 하고 혹은 값을 먼저 받곤 한다. 그럴수록 하인들은 백방으로 속여서 그 분풀이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서로 상극이 되어 마치 원수 보듯 하며 이곳을 지날 때면 반드시 일제히 한 목소리로,

“너희 놈들, 조선 사람의 자손이 아니냐. 너희 할아버지가 지나가시는데 어찌 나와서 절하질 않느냐.”

하고 욕지거리를 하면, 이곳 사람들도 역시 욕설을 퍼붓는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리어 이곳 풍속이 극도로 나쁘다 하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었다. 길에서 소낙비를 만났다. 비를 피하느라고 한 점포에 들었더니 차를 내어 오고 대접이 좋았다. 비가 한동안 멎지 않고 천둥 소리가 드높아진다. 그 점포의 앞마루가 제법 넓고 뜰도 백여 보나 되는데, 마루 위에는 늙고 짧은 여인 다섯이 바야흐로 부채에 붉은 물감을 들여서 처마 밑에 말리고 있었다. 이때 별안간 말몰이꾼 하나가 알몸으로 뛰어드는데 머리엔 다 해진 병거지를 쓰고, 허리 아래엔 겨우 한 토막 형겼을 가릴 뿐이어서 그 꼴은 사람도 아니요, 귀신도 아니고 그야말로 흥측했다. 마루에 있던 여인들이 왁자그르 웃고 지껄이다가 그 꼴을 보고는 모두 일거리 를 벼리고 도망쳐 버린다. 주인이 몸을 기울여 이 광경을 내다보고는 얼굴을 붉히더니, 교의에서 벌떡 뛰어내려 팔을 걷고 철석하고 그의 뺨을 한 대 때렸다. 말몰

이꾼은,

“말이 허기가 져서 보리찌꺼기를 사러 왔는데 당신은 왜 공연히 사람을 치오.”

한다. 주인은,

“이 녀석, 예의도 모르는 녀석. 어찌 알몸동이로 당돌하게 구는 거야.”

한다. 말몰이꾼이 문 밖으로 뛰어나갔으나 주인은 오히려 분이 풀리지 않아서 비를 무릅쓰고 뒤를 쫓아 나갔다. 그제야 말몰이꾼이 몸을 돌이켜 웨 소리를 내며 한번 그의 가슴을 움켜잡고 치니, 주인이 흉탕 속에 나가 넘어지는 것을 다시 양가슴을 한 번 걷어차고 달아나버렸다. 주인이 꿈쩍도 하지 못하고 마치 죽은 듯하더니, 이윽고 일어나서 아픔을 못 이겨 비틀거리며 걸어오는데,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었으나 분풀이할 곳이 없어서 씨근거리면서 도로 돌아와, 곱지 않은 눈시울로 나를 보는데 입으로 말은 못하나 풍세가 매우 사납다. 나는 그럴수록 넌지시 눈을 내리뜨고 사색을 가다듬어 늠름히 범하지 못할 기세를 보인 후에, 이윽고 얼굴빛을 부드럽게 해서 주인더러,

“하인이 매우 무례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봅니다만 다시 마음에 두지 마시지요.”

했더니, 주인이 곧 노염을 풀고 웃으며,

“도리어 부끄럽습니다. 선생, 다신 그 말씀 마십시오.”

한다. 우세(雨勢)가 점차 드높고 오래 앉았으니 몹시 답답하였다. 주인이 방으로 들어가더니 웃을 갈아입고 8, 9세쯤 되어 보이는 계집애를 데리고 나와서 내게 절을 시킨다. 아이 생김새가 한악(悍惡)해 보인다. 주인이 웃으며,

“이게 제 셋째 딸년입니다. 전 사내아이를 두지 못했답니다. 선생께선 보아 하니 너그러우신 어른이시니까 성심껏 이 아이를 선생께 바치오니, 수양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하기에, 나도 웃으며,

“실로 주인의 후의에 감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이 그렇지 않은 것이. 나로 말하면 외국 사람으로 이번에 한번 왔다 가면 다시 오기 어려운즉, 잠깐 동안 맺은 인연이 나중에 서로 생각하는 괴로움만 남길지니 이는 한갓 부질없는 일이오.”

했더니, 주인은 그래도 굳이 수양아비가 되어 달라 하나 나 역시 굳이 사양했다. 만일 한 번 수양딸을 삼으면 돌아갈 때 으레 연경의 좋은 물건을 사다 주어서 정표를 삼아야 하니, 이는 실로 마두(馬頭)⁴⁷들의 사이에 항용이 있는 일이라 한다. 괴롭고도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비가 잠시 멎고 산들바람이 일기에 곧 일어나 문을 나가니 주인이 문까지 나와서 읍하고 작별하는데 제법 섭섭한 모양이다. 청심한 한 개를 내주었더니, 그는 두세 번 사양하기를 마지않는다. 이곳 여인들은 발에 검은 신을 신었으니 대체 기하(旗下) 만주 사람(下人)들인 듯싶다.

용읍암(龍泣庵)에 이르니 그 앞 큰 나무 밑에 건달패 여남은 명이 더위를 피하는데, 도끼를 돌리는 자도 있거니와, 비파 타고 저[笛] 불며 《서유기(西遊記)》놀음을 하는 판이었다.

저녁에 옥전현(玉田縣)에 이르니 무종산(無終山)이 있다. 혹은 이르기를,
“연 소왕(燕昭王)⁴⁸의 사당이 이곳에 있었다.”

한다. 성중에 들어가서 한 점포를 조용히 구경하고 있는 즈음에 어디서인지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므로, 곧 정 진사와 함께 그 소리를 따라 들어가 보니 낭각 아래에 젊은이 대여섯이 늘어 앉아서, 혹은 저와 피리를 불며 혹은 현악(絃樂)을 타는 이도 있다. 방 가운데에는 한 사람이 교의 위에 단정히 앉았다가 우리를 보고 일어나 읍하는데, 얼굴이 제법 단아하고 나이는 쉰 남짓해 보이며 수염이 희끗희끗하다.

이름을 써 보이니 그는 머리를 끄덕일 뿐 성명을 물어도 대답하지 않는다. 네 쪽 벽엔 이름난 사람들의 서화가 가득 걸리었다. 주인이 일어나 작은 감실(龕室)을 여니, 그 속에 주먹 만한 옥으로 새긴 부처가 들어 있고 부처 뒤에는 관음상(觀音像)을 그린 조그마한 장자(障子)를 걸었는데, 그 화제(畫題)에는,

“태창(泰昌) 원년(元年 1620) 춘삼월(春三月)에 제양(除陽) 구침(邱琛)은 쓴다.”
라고 써었다. 주인이 부처 앞에 나아가 향을 피우고 절을 한 뒤에 감실문을 닫고 도로 교의 위에 앉더니, 그 성명을 글씨로 써 보인다.

47 마두(馬頭) : 역마(驛馬)의 일을 맡아 보는 사람.

48 연 소왕(燕昭王) : 전국 시대 연(燕)의 임금. 소왕은 시호요, 이름은 평(平).

“전 심유봉(沈由朋)입니다. 소주(蘇州)에 살고 있으며, 자는 기하(箕霞)요, 호는 거천(巨川)이며, 나이는 마흔여섯입니다.”

그는 매우 말수가 적으며 조용한 기상을 지녔다. 나는 곧 그를 하직하고 일어나 문을 나오려는 즈음에, 얼핏 보니 탁자 위에 구리를 녹여서 사슴을 만든 것이 있는데, 푸른 빛이 속속들이 스민 듯하고 높이는 한 자 남짓 되며 또 두어 자 남짓한 연병(研屏)에 국화를 그렸고, 그 곁에는 유리를 붙였는데 솜씨가 매우 기교하였으며, 서쪽 바람벽 밑에 푸른 꽃항아리가 있고 계다가 벽도화(碧桃花) 한 가지를 꽂았는데, 검은 왕나비 한 마리가 그 위에 앉았기에 애초에는 만든 것이려니 하였더니, 상세히 본즉 비취 바탕에 금무늬가 진짜 나비로서 꽃잎 위에 다리를 붙여서 말라 버린 지 벌써 오래된 것이었다.

그리고 벽 위에 한 편의 기문(奇文)이 걸려 있는데, 백로지(白鷺紙)에다 가늘게 써서 격자(格子)를 만들어 가로 붙인 것이 한 폭 벽에 가득하였다. 글씨 역시 정미롭기에 그 밑에 다가서서 한 번 읽어 본즉, 가히 절세(絕世)의 기이한 글이라 이르겠다.

나는 다시 자리에 돌아와서,

“저 벽 위에 걸린 글은 어떤 사람이 지은 거요.”

하고 물었더니, 주인은,

“어떤 이가 지은 것인지를 모릅니다.”

한다. 정군은,

“이는 아마 근세(近世)의 작품인 듯싶은데, 혹시 주인 선생께서 지으신 게 아닙니까?”

하니, 심유봉은,

“저는 글을 한 줄도 모른답니다. 지은이의 성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즉, 대체 한(漢)이 있는 줄도 모르는 놈이 어찌 위(魏)인지 진(晉)인지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한다. 나는,

“그럼, 이게 어디에서 났단 말씀이오.”

했더니, 심은,

“며칠 앞서 계주(薊州) 장에서 사온 것입죠.”

한다. 나는,

“베껴 가도 좋습니까?”

하였더니, 심은 머리를 끄떡이며,

“관계없습니다.”

한다. 종이를 가지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고 저녁 뒤에 정군과 함께 간증 방 안에
는 별써 촛불 두 자루를 켜 놓았다. 내가 벽 가까이 가서 격자를 풀어 내리려 하였
더니, 심은 심부름하는 사람을 불러서 내려 준다. 나는 다시,

“이게 선생이 지으신 게 아니오.”

하였더니, 심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저는 거짓이 없기야 마치 저 밝은 촛불과 같답니다. 전 오래 전부터 부처님을 섬
기고 있기 때문에 부질없는 말은 삼가고 있습니다.”

한다. 나는 그제야 정군에게 부탁하여 그 한가운데에서 쓰기 시작하게 하고 나는
처음부터 베껴 내려가는 판이었다. 심은,

“선생은 이걸 베껴 무얼 하시려오.”

하기에, 나는,

“돌아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한 번 읽혀서 모두들 허리를 잡고 한바탕 웃게 하
려는 거요. 아마 이걸 읽는다면 입 안에 든 밥알이 별처럼 날아갈 것이며, 튼튼한
갓끈이라도 썩은 새끼처럼 끊어질 것이야.”

하고 말을 마쳤다. 사관에 돌아와 불을 밝히고 다시 훑어 본즉, 정군이 베낀 곳에
그릇된 것이 수없이 많을뿐더러, 빠뜨린 글자와 글귀가 있어서 전혀 맥이 닿지 않
으므로 대략 내 뜻으로 고치고 보충해서 한 편을 만들었다.

호질(虎叱)

범은 착하고도 성스럽고, 문채롭고도 싸움 잘하고, 인자롭고도 효성스럽고, 슬기롭고도 어질고, 엉큼스럽고도 날래고, 세차고도 사납기가 그야말로 천하에 대적할 자 없다.

그러나 비위(佛胃)⁴⁹는 범을 잡아먹고, 죽우(竹牛 짐승 이름)도 범을 잡아먹고, 박(駮)⁵⁰도 범을 잡아먹고, 오색 사자(五色獅子)⁵¹는 범을 큰 나무 선 산꼭대기에서 잡아먹고, 자백(茲白)⁵²도 범을 잡아먹고, 표견(鷙犬)⁵³은 날며 범과 표범을 잡아먹고, 황요(黃要)⁵⁴는 범과 표범의 염통을 꺼내어 먹고, 활(猾)⁵⁵[뼈가 없다.]은 범과 표범에게 일부러 삼켜졌다가 그 뱃속에서 간을 뜯어먹고, 추이(酋耳)⁵⁶는 범을 만나기만 하면 곧 찢어서 먹고, 범이 맹용(猛墉 짐승 이름)을 만나면 눈을 감은 채로 감히 뜨질 못하는 법이다. 그런데 사람은 맹용을 두려워하지 않되 범은 무서워하지 않을 수 없음을 보아서는 범의 위풍이 몹시 엄함을 알 수 있겠구나.

범이 개를 먹으면 취하고 사람을 먹으면 조화를 부리게 된다. 그리고 범이 한 번 사람을 먹으면 그 창귀(張鬼)가 굴각(屈閣 창귀 이름)이 되어 범의 겨드랑이에 붙어 살면서, 범을 남의 집 부엌으로 이끌어 들여서 솔전을 핥으면 그 집 주인이 갑자기 배고픈 생각이 나서, 밤중이라도 밥을 지으려 하게 되며, 두 번째 사람을 먹으면 그 창귀는 이올(彝兀 창귀 이름)이 되어 범의 광대뼈에 붙어 살며, 높은 데 올라가서 사냥꾼의 행동을 살피되, 만일 깊은 골짜기에 함정(陷阱)이나 묻힌 화살이

49 비위(佛胃) : 짐승 이름. 비비(狒狒)의 일종.

50 박(駮) : 말과 같은 짐승인데, 《산해경(山海經)》에, “몸은 희고 꼬리는 검으며 외뿔에 범처럼 생겼으며, 어금니와 발톱을 가졌고, 호표를 먹는다” 하였다.

51 오색 사자(五色獅子) : 호회(虎薈)에, “누런 털에 오색이 친란하고, 꿀은 사자와 같다” 하였다.

52 자백(茲白) : 《급총궐서(汲冢闕書)》에, “꼴이 말 같으며, 톱니가 날카로워서 호표를 먹는다” 하였다.

53 표견(鷙犬) : 거수국(渠搜國)에 있는 개. 일명은 노견(露犬)인데, 날아서 호표를 먹는다 하였다.

54 황요(黃要) : 개의 일종. 표범과 비슷하고, 허리 이상은 누르고 이하는 검으며, 작은 놈은 청요(青要)라 하는데, 요(要)는 요(腰)와 같다.

55 활(猾) : 범의 입에 들어가도 범이 물지 못한다. 그러면 범의 뱃속에서부터 먹어 나온다.

56 추이(酋耳) : 범의 일종. 크고 꼬리가 길다 한다.

있다면, 먼저 가서 그 틀을 벗겨 놓으며, 범이 세번째 사람을 먹으면 그 창귀는 육흔(鬻渾 창귀 이름)이 되어 범의 턱에 붙어 살되 그가 평소에 알던 친구들 이름을 자꾸만 불러댄다.

하루는 범이 창귀들을 모아 놓고 분부를 내리되,
“오늘도 별씨 해가 저무는데 어디서 먹을 것을 취한단 말이냐.”

한다. 굴각은,

“제가 진작 점쳐 보았더니 뿔 가진 것도 아니고 날짐승도 아닌 검은 머리한 것이,
눈[雪] 위에 발자국이 비틀비틀 성긴 걸음을 하며 뒤통수에 꼬리가 붙어서 꽁무니
를 못 감추는 그런 놈입니다.⁵⁷”

하고, 이올은,

“저 동문(東門)에 먹을 것이 있사오니 그 이름은 ‘의원(醫員)’이라 한답니다. 그는
입에 온갖 풀을 머금어서 살과 고기가 향기롭고, 서문(西門)에도 먹을 것이 있사오
니 그 이름은 ‘무당(巫堂)’이라 한답니다. 그는 온갖 귀신에게 아양부려 날마다 목
욕재계해서 고기가 깨끗하온즉, 이 두 가지 중에서 마음대로 골라 잡수시죠.”

했다. 그제야 범이 수염을 거스리고 낯빛을 붉히며,

“에에, ‘의(醫)’란 것은 ‘의(疑)’인만큼 저도 의심나는 바를 모든 사람들에게 시험해
서 해마다 남의 목숨을 끊은 것이 몇만 명으로 셀 수 있고, ‘무(巫)’란 ‘무(誣)’인만
큼 귀신을 속이고 인민들을 유혹하여 해마다 남의 목숨을 끊은 것이 몇만 명으로
셀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뭇 사람의 노여움이 뺏속까지 스며들어 그것이 화하여
금잠(金蠶)⁵⁸이 되었으니, 독이 있어 먹을 수 없다.”

했다. 이에 유흔은 또,

“저 숲속(유림(儒林))에 살코기가 있사온데 그는 인자한 염통과 의기(義氣)로운 쓸
개에 충성스러운 마음을 지니고 순결한 지조를 품었으며, 악(樂)은 머리 위에 이고
있고, 예(禮)는 신처럼 꿰고 다닌답니다. 뿐 아니라 그는 입으로 백가(百家)의 말들

57 뿔……놈입니다 : 사람을 가리킨다.

58 금잠(金蠶) : 《박물지(博物志)》에, “남방 사람이 금잠을 기르는데, 촉금(蜀錦)을 먹이고, 그 뚫을 음식
속에 넣으면 독이 있다” 하였다.

을 외며 마음속으로는 만물의 이치를 통했으니, 그의 이름은 ‘석덕지유(碩德之儒
높은 덕망을 지닌 유학자)’라 하옵니다. 등살이 오붓하고 몸집이 기름져서 오미(五
味)를 갖추어 지녔답니다.”

한다. 범이 그제야 눈썹을 치켜 세우고 침을 흘리며 하늘을 쳐다보고 싱긋 웃으면
서,

“짐(朕)이 이를 좀 상세히 듣고자 한다.”

하였다. 모든 창귀들이 서로 다투어가며 범에게 추천한다.

“일음(一陰) · 일양(一陽)을 도(道)라 하옵는데, 저 유(儒)가 이를 페뚫으며, 오행
(五行)이 서로 낳고 육기(六氣)⁵⁹가 서로 이끌어 주옵는데, 저 유가 이를 조화시키
나니, 먹어서 이보다 맛좋은 것이 없으리다.”

범이 이 말을 듣자 문득 추연(愀然)히 낯빛을 붉히며 기쁘지 않은 어조로서,
“아니다. 저 음(陰)과 양(陽)이란 것은 한 기운에서의 죽고 삶에 불과하거늘, 그들
이 둘로 나뉘었으니 그 고기가 잡(雜)될 것이요, 오행은 각기 제 바탕이 있어서 애
당초 서로 낳는 것은 아니거늘, 이제 그들은 구태여 자(子) · 모(母)로 갈라서 심지
어는 짜고 신맛들에 이르기까지 분배(分配)시켰으니 그 맛이 순(純)하지 못할 것이
요, 육기는 제각기 행하는 것이어서 남이 이끌어 줌을 기다릴 것이 없거늘, 이제
그들은 망녕되어 재성(財成) · 보상(輔相)⁶⁰이라 일컬어서 사사로이 제 공을 세우려
하니, 그것을 먹는다면 어찌 딱딱하여 가슴에 체하거나 목구멍에 구역질이 나지
않겠느냐.”

하였다.

때마침 정(鄭)의 어느 고을에 살고 있으면서 벼슬을 좋아하지 않는 척하는 선비 하
나가 있으니, 그의 호는 ‘북곽선생(北郭先生)’이었다. 그는 나이 마흔에 손수 교정
한 글이 1만 권이요, 또 구경(九經)⁶¹의 뜻을 부연(敷衍)해서 책을 엮은 것이 1만 5

59 육기(六氣) : 음(陰) · 양(陽) · 풍(風) · 우(雨) · 회(晦) · 명(明).

60 재성(財成) · 보상(輔相) : 《역경(易經)》에, “천지의 도를 마련해 이룩하며, 천지의 의(宜)를 도와 준다”
하였다.

61 구경(九經) : 《역경(易經)》 · 《서경(書經)》 · 《시경(詩經)》 · 《춘추좌전(春秋左傳)》 · 《예기(禮記)》 · 《주례
(周禮)》 · 《효경(孝經)》 · 《논어(論語)》 · 《맹자(孟子)》.

천 권이나 되므로, 천자(天子)가 그의 의(義)를 아름답게 여기고, 제후(諸侯)들은 그의 이름을 사모하였다.

그리고 그 고을 동쪽에는 동리자(東里子)라는 얼굴 예쁜 청춘과부 하나가 살고 있었다. 천자는 그의 절조(節操)를 가륵히 여기고 제후(諸侯)들은 그의 어짊을 연모하여, 그 고을 사방 몇 리의 땅을 봉하여 ‘동리과부지려(東里寡婦之間)’라 하였다.

동리자는 이렇게 수절(守節)하는 과부였으나 아들 다섯을 두었는데 각기 다른 성(姓)을 지녔다. 어느 날 밤 그 아들 다섯 놈이 서로 노래처럼 된 말로서,

강 북편에 닭 울음 소리 | 水北雞鳴

강 남쪽엔 별이 반짝이네 | 水南明星

방 안 소리 자아하니 | 室中有聲

북곽선생 어인 일고 | 何其甚似北郭先生也

하고는 성 다른 형제 다섯이 번갈아서 문 틈으로 들여다보았다. 동리자가 북곽선생께 청하기를,

“오랫동안 선생님의 덕을 연모하였답니다. 오늘 밤엔 선생님의 글 읽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하옵니다.”

한다. 그제야 북곽선생은 옷깃을 여미고 끓어앉아서 시(詩) 한 장(章)을 읊었다.

병풍에는 원양새요 반짝반짝 반딧불을 | 鴛鴦在屏耿耿流螢

가마솥과 세발솥은 무얼 본떠 만들었나⁶² | 維鑪維鑄云誰之型

흥이라⁶³ | 興也

62 가마솥과……만들었나 : 밭 없는 가마솥과 세발솥은 그 모형이 다 다르다. 이로써 성 다른 다섯 아들에게 비하였다. 대체 다섯 아이들이 성도 다르고 얼굴도 같지 않으니, 이는 어떤 잡놈들과 관계해서 이런 것들을 낳았다는 의미.

63 흥이라[興也] : 육의(六義)의 하나. 먼저 어떤 다른 물건을 읊어서 그 목적하고 있는 것을 끄집어 일으키는 것으로, 예를 들면 원양새를 먼저 이끌어서 남녀의 사견을 전개하는 것이다.

그 꿀을 본 다섯 아들은 서로 말하기를,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과부의 문엔 함부로 들지 않는다’ 하였는데 북곽선생은 어진이라서 그런 일 없을 거야.”

“나는 듣자 하니, 이 고을 성문이 헐어서 여우가 구멍을 내었다고 하더군요.”

“나는 들은즉, 여우가 천 년을 묵으면 환생(幻生)하여 능히 사람 시늉을 할 수 있다 하니, 그놈이 필시 북곽선생으로 둔갑한 것일게다.”

하고, 다시 서로 의논하되,

“나는 듣건대, 여우의 갓을 얻는 자는 천금의 장자가 되고, 여우의 신을 얻는 자는 대낮의 그림자를 감출 수 있고, 여우의 꼬리⁶⁴를 얻는 자는 남을 잘 피어서 누구라도 그를 기뻐한다 하니, 우리 저 여우를 잡아 죽여서 나눠 갖는 게 어떨꼬.”

하고, 이에 다섯 아들이 함께 어미의 방을 에워싸고 들이쳤다. 북곽선생이 크게 놀라서 뺑소니를 칠 제 남들이 행여 제 얼굴을 알아볼까 해서 한 다리를 비틀어서 목덜미에 얹고 도깨비처럼 춤추고 귀신처럼 웃으며 문밖으로 나와서 들이뛰어 가다가 별판 구덩이에 빠지니 그 속에는 뚩이 가뜩 채워져 있었다. 간신히 휘어잡고 기어 올라서 목을 내밀고 바라본즉 범이 어흉하며 길을 가로막았다. 범이 이맛살을 찌푸리며 구역질하고 코를 싸 쥐고 머리를 원편으로 돌리며,

“에퀴이, 그 선비 구리도다.”

한다. 북곽선생이 머리를 조아리며 앞으로 엉금엉금 기어 나와서 세 번 절하고 끊어앉아서 고개를 쳐들고 여쭈되,

“범님의 덕이야말로 참 지극하시지요. 대인(大人)은 그 변화를 본받고⁶⁵ 제왕(帝王)은 그 걸음을 배우며,⁶⁶ 남의 아들 된 이는 그 효성을 본받고,⁶⁷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하며⁶⁸ 그 거룩하신 이름은 신룡(神龍)과 짹이 되어 한 분은 바람을, 또 한 분은

64 여우의 꼬리 : 꼬리라 하였지마는, 사실은 삶을 일컬었다.

65 대인(大人)은……본받고 : 《역경(易經)》에 나오는 구절.

66 제왕(帝王)은……배우며 : 《송사(宋史)》〈태조기(太祖紀)〉 나오는 말.

67 남의……본받고 : 《서경(書經)》 채침(蔡沈)의 주(註)에 나오는 말.

68 장수는……취하며 : 무관직에는 범호(虎) 자를 많이들 쓴다. 예를 들면 촉한(蜀漢) 때의 오호대장(五虎大將)과 같은 것.

구름을 일으키시니.⁶⁹ 저 같은 하토(下土)의 천한 신하 감히 하풍(下風)에 있습니다.”

한다. 범은 이 말을 듣자 꾸짖는다.

“에에, 앞에 가까이 오질 말렸다. 앞서 내 들은즉, ‘유(儒)’란 것은 ‘유(讞)’라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네가 평소에는 온 천하의 모든 나쁜 이름을 모아서 망녕되어 내게 덧붙이더니, 이제 다급해지자 낮간지럽게 아첨하는 것을 그 뉘라서 곧이 듣겠느냐. 대개 천하의 이치야말로 하나인만큼 범이 진정 몹쓸진대 사람의 성품도 역시 몹쓸 것이요, 사람의 성품이 착할진대 범의 성품도 역시 착할지니, 너희들의 천만 가지의 말이 모두 오상(五常)⁷⁰을 떠나지 않으며 경계나 권면이 언제나 사강(四綱)⁷¹에 있긴 하나, 저 도회지나 큰 고을에 코 베이고 발 잘리고 얼굴에 먹바늘을 뜰 뜨고 다니는 것들은 모두 오륜(五倫)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람이란 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뱃줄이며 먹바늘이며 도끼며 톱 따위를 공급하기에 겨를이 없었지만 그 나쁜 짓들은 막을 길이 없었다. 그러나 범의 집에는 본래 이러한 악독한 형벌이 없으니, 이로써 본다면 범의 성품이 사람보다 어질지 아니하냐. 그리고 범은 나무와 푸새를 씹지 않고, 벌레나 물고기를 먹지 않으며, 강술 같은 좋지 못한 것을 즐기지 않고, 새끼나 기르는 것 같은 자잘구레한 것도 차마 먹지 않는다. 그리고는 산에 들어가면 노루나 사슴을 사냥하고, 들에 나가면 마소를 사냥하되, 아직 구복(口腹)의 누(累)를 입거나 음식의 송사를 일으키거나 한 일은 없으니, 범의 도(道)야말로 어찌 광명정대하지 아니하냐. 범이 노루나 사슴을 먹으면 너희들 사람은 범을 미워하지 않다가도, 범이 만일 마소를 먹는다면 사람들은 원수라고 떠들 어대니, 이것은 아마 노루와 사슴은 사람에게 은혜로움이 없지만, 저 마소는 너희들에게 공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들은 저 마소의 태워 주고 일해 주는 공로도, 따르고 충성하는 생각도 다 저버리고 다만 날마다 푸줏간이 미어지도록 이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그 뿔과 갈기까지 남기지 않고도 다시 우리들의 노

69 신룡(神龍)과……일으키시니 : 《역경》에 나오는 말.

70 오상(五常) : 부의(父義) · 모자(母慈) · 형우(兄友) · 제공(弟恭) · 자효(子孝).

71 사강(四綱) : 예(禮) · 의(義) · 염(廉) · 치(恥).

루와 사슴을 토색질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산에서 먹을 것이 없고 들에서도 끼니를 굽게 하니, 하늘로 하여금 이를 공평하게 처리하게 한다면 너희를 먹어야 하겠는가, 놓아 주어야 되겠는가. 대개 제것 아닌 것을 취함을 도(盜)라 하고, 남을 못살게 굴고 그 생명을 빼앗는 것을 적(賊)이라 하나니, 너희들이 밤낮을 헤아리지 않고 쏘다니며 팔을 걷어붙이며 눈을 부릅뜨고, 함부로 남의 것을 차취하고 훔쳐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며 심지어는 돈을 형이라 부르고,⁷² 장수되기 위해서 아내를 죽이는 일⁷³까지도 있은즉, 이러고도 인륜의 도리를 논할 수 있을 것인가. 뿐만 아니라 메뚜기에게 그 밥을 빼앗고 누에한테서 옷을 빼앗으며, 별을 제압하여 꿀을 약탈하고, 심한 자는 개미 알을 젓담아서 그 조상께 제사하니⁷⁴ 그 잔인하고도 박덕함이 너희들보다 더할 자 있겠는가. 너희들은 이(理)를 말하며 성(性)을 논하면서 특하면 하늘을 일컬으나, 하늘이 명(命)한 바로써 본다면 범이나 사람이 다 한가지 동물이요, 하늘과 땅이 만물을 낳아서 기르는 인(仁)으로써 논한다면 범과 메뚜기 · 누에 · 별 · 개미와 사람이 모두 함께 길러져서 서로 거스를 수 없는 것이요, 또 그 선악으로써 따진다면 뻔뻔스레 별과 개미의 집을 노략질하고 굽어 가는 놈 이야기말로 천하의 큰 도(盜)가 아니며, 함부로 메뚜기와 누에의 살림을 빼앗고 훔쳐가는 놈이야말로 인의(仁義)의 큰 적(賊)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범은 아직 표범을 먹지 않음은 실로 차마 제 겨레를 해칠 수 없는 까닭이다. 그런데 범이 노루나 사슴 먹는 것을 헤아려도 사람이 노루와 사슴을 먹는 이만큼 많지 못할 것이며, 범이 마소 먹는 것을 헤아려도 사람이 마소를 먹는 이만큼 많지 못할 것이며, 범이 사람을 먹는 것을 헤아려도 사람이 저희들끼리 서로 잡아먹는 이만큼 많지 못할 것이다. 지난해 관중(關中 中국의 섬서성(陝西省) 지방)이 크게 가뭄었을 때 사람들끼리 서로 잡아먹는 것이 몇만 명이요, 그 앞서 산동(山東)에 큰 물이 났을 적에도 사람들끼리 서로 잡아먹는 것이 역시 몇만 명 있었으니까. 그러나 서로 잡아먹음이 많기야 어찌 저 춘추 전국 시대만 하였으랴. 춘추 그 때엔 명색이나마 정의를 위해

72 돈을……부르고 : 옛날 돈이 구멍이 났으므로 공방형(孔方兄)이라 하였고, 또는 돈을 가형(家兄)이라 한 이도 없지 않았다. 진(晉)나라 노포(魯褒)의 〈전신론(錢神論)〉에 나오는 말들.

73 장수되기……일 : 전국 때 명장 오기(吳起)의 고사.

74 개미……제사하니 : 《예기》〈내칙편(內則篇)〉에 나오는 일.

서 싸운다는 난리가 열일곱 번이요, 원수를 갚는다고 일으킨 싸움이 서른 번에 그들의 피는 천리를 물들였고 죽어 자빠진 시체는 백만이나 되었다. 그러나 범의 집에선 물이나 가뭄의 걱정을 모르므로 하늘을 원망할 것도 없고, 원수와 은혜를 모두 잊고 지내므로 다른 물건에게 미움을 입지 않고, 천명을 알고 그에 순종하므로 무당이나 의원의 간교함에 혹하지 않고, 타고난 바탕 그대로 지녀서 천명을 다하므로 세속의 이해에 병들지 아니하니, 이것이 곧 범이 착하고도 성스러운 것이다. 그뿐일까. 그 한 곳의 아롱진 것을 엿보더라도 족히 그 문(文)을 온 천하에 보일 수 있겠고, 척촌의 병장기(兵仗器) 하나 지니지 않고 발톱과 날카로운 이빨만을 쓰는 것은 이로써 무(武)를 천하에 빛내는 것이었다. 범과 원승이를 그릇에 그린 것은 효(孝)를 천하에 넓히는 것이었으며, 하루에 한번 사냥하여 까마귀·솔개·참개구리·말개미 따위와 함께 그 대궁[饋 먹다 남은 음식]을 나눠 먹으니, 그 인(仁)이 야말로 이루 다 쓸 수 없겠고, 고자질하는 자는 먹지 않으며, 병폐한 자도 먹지 않고, 상제된 자도 먹지 않으니,⁷⁵ 그 의(義)야말로 이루 쓸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이야말로 불인(不仁)하기 짹이 없다는 것이다. 저 틀과 함정으로도 오히려 모자라서 저 새 그물과 작은 노루 그물과 물고기 그물과 큰 물고기 그물과 수레 그물과 삼태 그물 따위들을 만들었으니, 이는 애당초 그물을 뜯 자야 말로 뚜렷이 천하에 화근을 퍼뜨린 놈일 것이다. 게다가 큰 바늘이니, 절창이니, 날 없는 창이니, 도끼니, 세모난 창이니, 한 길 여덟 자 창이니, 뾰족 창이니, 작은 칼이니, 긴 창이니 하는 것들이 생기고, 또 화포(火礮)란 것이 있어서 터뜨린다면 소리가 화산(華山)을 무너뜨릴 듯 그 불 기운은 음양을 누설하여 그 무서움이 우레 보다 더하거늘, 이러고도 그 못된 꾀를 마음껏 부리지 못하여서 이제는 보드라운 털을 뺏아서 아교를 녹여 붙여 날을 만들되, 끝은 대추씨처럼 뾰족하고 길이는 한 치도 못 되게 하여, 오징어 거품에다 담그었다가 세로 가로로 멋대로 치고 찌르되, 그 굽음은 세모창 같고, 날카로움은 작은 칼 같고, 열腮은 긴 칼 같고, 갈라짐은 가지창 같고, 곧음은 살 같고, 팽팽하기는 활 같아서, 이 병장기가 한 번 변뜩이면 모

75 고자질하는……않으니 : 이 세 가지를 먹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나라 재래로부터 내려오는 속담.

든 귀신들이 밤중에 곡(哭)할 지경이라니,⁷⁶ 그 서로 잡아먹기로도 가혹함이 뉘라
서 너희들보다 더할 자 있겠느냐.”

한다. 북곽선생이 자리를 떠나 한참 옆드렸다가 일어나 엉거주춤하더니, 두 번 절
하고 머리를 거듭 조아리며,

“전(傳)에 이르기를 비록 아무리 못난 사람일지라도 목욕재계를 한다면 상제(上帝)
라도 섬길 수 있다”⁷⁷ 하였사오니, 이 하토(下土)에 살고 있는 천신(賤臣)이 감히 하
풍(下風)에 섭니다.”

하고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들판, 오래도록 아무런 분부가 없으므로 실로 횡송기
도 하고 적이 두렵기도 해서, 손을 맞잡고 머리를 조아리며 쳐다본즉 동녘이 밝았
는데, 범은 벌써 어디론지 가버리고 말았다. 마침 아침에 밭갈려 온 농부가,
“선생님, 무슨 일로 이 꼭두새벽에 들판에다 대고 절은 웬 절이시옵니까.”
하고 묻는다. 북곽선생은,

“내 일찍이 들으니

하늘이 높다 하되 | 謂天蓋高
머리 어찌 안 굽히며 | 不敢不跼
땅이 비록 두텁단들 | 謂地蓋厚
얕디디지 않을쏘냐⁷⁸ | 不敢不躊

하였네그려.”

하고는 말 끝을 흐려 버렸다.

76 보드라운……지경이라니 : 붓으로 문자를 써서 온갖 못된 짓을 다한다는 비유. 옛날 창힐(倉頡)이 한
자(漢子)를 처음 짓자, 귀신이 밤에 울었다 하였다.

77 아무리……있다 : 《맹자(孟子)》〈이루편(離婁篇)〉에 나오는 한 구절.

78 하늘이……않을쏘냐 : 《시경(詩經)》에 나오는 글귀.

호질후지(虎叱後識)⁷⁹

연암씨(燕巖氏) 가로되,

“이 편(篇)이 비록 지은이의 성명은 없으나 대체로 근세 중국 사람이 비분(悲憤)함을 참지 못해서 지은 글일 것이다. 요즘 와서 세운(世運)이 긴 밤처럼 어두워짐에 따라 오랑캐의 화(禍)가 사나운 짐승보다도 더 심하며, 선비들 중에 염치를 모르는 자는 하찮은 글귀나 주워 모아서 시세에 호미(狐媚)하니, 이는 바로 남의 묘혈(墓穴)을 파는 유학자(儒學者)로서 사랑 같은 짐승으로도 오히려 먹기를 달갑게 여기지 않은 것이 아닐는가 싶다. 이제 이 글을 읽어 본즉, 말이 많이들 이치에 어긋나서 저 거협(胠篋) · 도척(盜跖)⁸⁰과 뜻이 같다. 그러나 온 천하의 뜻있는 선비가 어찌 하문들 중국을 잊을 수 있겠는가. 이제 청(淸)이 천하의 주인이 된 지 겨우 네 대째건마는 그들은 모두 문무가 겸전하고 수고(壽考)를 길이 누렸으며, 승평을 노래한 지 백 년 동안에 온 누리가 고요하니, 이는 한(漢) · 당(唐) 때에도 보지 못했던 일이었다. 이처럼 편안히 터를 닦고 모든 건설하는 뜻을 볼 때에 이 또한 하느님의 배치(配置)한 명리(命吏 제왕을 일컬음)가 아닐 수 없겠다. 옛날 어느 학자가 일찍이 하늘이 순순(諱諱)히 명령하신다는 말씀을 의심하여 성인(맹자)에게 질문했더니, 그 성인은 똑똑히 하느님의 뜻을 받아서,

‘하느님은 말씀으로 하진 않으시고 모든 실천과 사실로서 표시하는 거야.’⁸¹

하셨으니, 소자(小子)⁸² 일찍이 이 글을 읽다가 이곳에 이르러선 꽉 의심스러웠다. 이제 나는 감히 묻노니,

“하느님께선 모든 실천과 사실로써 그의 의사를 표시하실진대, 저 오랑캐의 제도로써 중국의 것을 뜯어 고친다는 것은 천하의 커다란 모욕인만큼 저 인민들의 원통함이 그 어떠하며, 향기로운 제물과 비린내 나는 제물은 각기 그들의 닦은 덕

79 호질후지(虎叱後識) : 다른 ‘본’에는 이 소제가 없었던 것을, 이제 ‘주설루본’을 죽어 추록하였다.

80 거협(胠篋) · 도척(盜跖) : 모두 《장자》의 편명. 《남화경(南華經)》〈외물편(外物篇)〉에 나오는 말.

81 옛날……거야 : 《맹자》〈만장편〉에 나오는 구절. 여기서 ‘어느 학자란 맹자의 제자인 만장(萬章)을 말함.

82 소자(小子) : 연암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한 말.

(德)에 따라 다른 것이니, 백신(百神)은 그 어떤 냄새를 응감할 것인가.”

요컨대, 사람으로서 보면 중화(中華)와 이적의 구별이 뚜렷하겠지마는 하늘로서 본다면 은(殷)의 우관(冔冠)이나 주(周)의 면류(冕旒)도 제각기 때를 따라 변하였거니, 어찌 반드시 청인(淸人)들의 홍모(紅帽)만을 의심하리오. 이에 천정(天定) · 인중(人衆)의 설(說)⁸³이 그 사이에 유행되고는, 사람과 하늘의 서로 조화되는 이(理)는 도리어 한 걸음 물러서서 기(氣)에게 명령을 받게 되며, 또 이런 문제로써 옛 성인의 말씀에 체험하여도 맞지 않으면 문득 이르기를,

‘이건, 천지의 기수(氣數)가 이런 것이야.’

한다. 아아, 슬프다. 이것이 어찌 참으로 기수의 소치라 이르고 말 것인가. 아아, 슬프다. 명(明)의 왕택(王澤)이 끊인 지 벌써 오래여서 중원의 선비들이 그 머리를 고친(치발(雜髮)) 지도 백 년의 요원한 세월이 흘렀으되, 자나깨나 가슴을 치며 명실(明室)을 생각함은 무슨 까닭인고. 이는 차마 중국을 잊지 못함이다. 그러나 청이 저를 위한 계책도 역시 허술하다 하리로다. 그는 전대(前代) 오랑캐 출신의 말주(末主)들이 항상 중화의 풍속과 제도를 본받다가 쇠망했음을 징계하여 철비(鐵碑)를 새겨서 전정(箭亭 파수 보는 곳)에 묻었으나, 그들 평소에 하고 버리는 말 가운데에는 언제나 스스로 그의 옷과 병거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음이 없건마는, 오히려 다시 강약의 형세에만 마음을 두니 그 어찌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는가. 저 문왕(文王)처럼 깊은 꾀와 무왕(武王) 같은 높은 공렬로도 오히려 말주(은의 주왕(紂王))의 쇠퇴함을 구해 내지 못했거늘, 하물며 구구(區區)하게 저 의관 제도의 하찮은 것을 고집해선 무엇할 것인가. 그들의 옷과 병거지가 진정 싸움에 경편하다면 저 북적(北狄)이나 서융(西戎)의 그것인들 아니될 이유는 없을 것인즉, 그들은 의당 힘껏 저 서북쪽의 오랑캐들로 하여금 도리어 중국의 옛 습속을 따르게 한 연후에야 비로소 천하에 홀로 강한 체할 것이어늘, 이제 온 천하의 인민들을 모두 욕된 구렁에 몰아넣고는 홀로 호령하되,

‘잠깐 너희들의 수치를 참으면 우리를 따라 강하게 될지어다.’

⁸³ 천정(天定)……설(說) : 《귀잡지(歸潛志)》에,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하늘도 막아 낼 수 없고, 하늘이 정해 놓은 것은 사람이 어쩔 수 없다” 하였다.

하나, 나는 그 ‘강하다’는 것이야말로 알 수 없는 일이다. 굳이 의관 제도만으로 강함이 된다면, 저 신시(新市) · 녹림(綠林)⁸⁴ 사이에 그 눈썹을 붉게 물들이거나⁸⁵ 또는 그 머리 수건을 노란 빛깔로 고쳐서⁸⁶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했던 도적놈⁸⁷이라야 되는 것은 아니리라. 가령 어리석은 인민들로 하여금 한번 일어나서 그들이 씌워 주었던 병거지를 벗어서 땅에 팽개친다면, 청 황제(清皇帝)는 벌써 천하를 앉은 자리에서 잃어버리게 될지니, 지난날 이를 믿고서 스스로 강하다고 뽐내던 것이 도리어 망하는 실마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된다면 그 빗돌을 새겨 묻어서 후세에 경계한 일이야말로 어찌 부질없는 짓이 아니리오. 이 편은 애초엔 제목(題目)이 없으므로 이제 그 글 중에 ‘호질(虎叱)’이란 두 글자를 따서 제목을 삼아 두어 저 중원의 혼란이 맑아질 때까지 기다릴 뿐이다.”

하였다.

29일 을사(乙巳)

개다.

옥전현(玉田縣)에서 새벽에 떠나 서팔리보(西八里堡)까지 8리, 오리둔(五里屯) 7리, 채정교(采亭橋) 5리, 대고수점(大枯樹店) 10리, 소고수점(小枯樹店) 2리, 봉산점(蠶山店) 3리, 별산점(鱉山店) 12리, 송가장(宋家庄)을 구경하고 모두 47리를 가서 점심 먹고, 또 별산점에서 이리점(二里店)까지 2리, 현교(現橋) 5리, 삼가방(三家坊) 2리, 동오리교(東五里橋) 16리인데, 이 다리의 일명은 용지하(龍池河) 어양교(漁陽橋)라 한다. 거기에서 계주성(薊州城)까지 5리, 서오리교(西五里橋) 5리, 방균점(邦困店) 15리, 모두 50리를 가서 방균점에서 묵었다.

84 신시(新市) · 녹림(綠林) : 이 둘은 모두 당시의 소위 유적(流賊)이 출몰하는 근거지.

85 눈썹을……물들이거나 : 적미적(赤眉賊). 서한(西漢) 말년의 유적.

86 머리……고쳐서 : 동한(東漢) 말기의 황건적(黃巾賊).

87 도적놈 : 옛날 지배 계급의 역사에서는, 정의를 들고 일어서서 항쟁하는 농민들은 모두 도적이라 일컬었다.

산 오목한 곳에 큰 나무가 있는데 몇 백 년 동안을 잎이 피어나지 않으나 가지나 줄기가 썩지 않으므로 사람들은 모두 ‘고수(枯樹)’라 일컫는다. 송가장의 성 둘레는 2리, 명(明)의 천계(天啓) 연간에 송씨(宋氏)들이 쌓은 것이다. 그들의 이른바 외랑(外郎)이란 서리(胥吏 아전(衙前))의 별칭(別稱)인데, 송씨가 이 지방의 큰 성바지에서 그 일족이 몇 백 명이요, 살림이 모두 넉넉하여 명·청이 교체될 즈음에 저희들끼리 이 성을 쌓아서 거례들을 모아 지키었다. 성 가운데엔 대(臺) 셋을 세웠는데 높이가 각기 여남은 길이나 되고 문 위엔 다락을 세웠고, 집 뒤에는 네 층 높은 다락이 있고, 맨 꼭대기엔 금부처를 모셨다. 난간에 기대어 멀리 바라보니 눈앞이 시원스레 트이었다. 청인(淸人)이 처음 이곳을 들어올 때 온 문중을 모아서 성을 사수하였고, 천하의 대세가 정한 뒤에도 곧 나가 항복하지 않았으므로, 청인이 이를 미워하여 해마다 은(銀) 1천냥을 벌로 받치게 하였더니, 강희 말년에 이르러서는 그 대신으로 말먹이 풀 1천 단씩을 내게 하였다.

성중에는 아직도 큰 집 여남은 채가 모두 송씨들이며 노비들도 오히려 오륙백 명이나 된다 한다.

계주(薊州) 성안엔 인물들이 변화하니 실로 북경 동쪽의 거진(巨鎮)답다. 산 위엔 안녹산(安祿山)⁸⁸의 사당이 있고 성중엔 돌로 세운 패루 셋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금자(金字)로 대사성(大司成)이라 새기고, 그 아래엔 국자좨주(國子祭酒 국자감(國子監)의 벼슬 이름) 등 ‘삼대고증(三代誥贈)’이라고 나란히 써서 붙였다. 이곳의 술맛은 관동에서 으뜸이라 하므로 한 주루(酒樓)에 들어가 여러 사람과 함께 흥금을 터놓고 한번 취토록 마셨다. 독락사(獨樂寺)에 들어간즉, 정전(正殿)의 제액(題額)은 자비사(慈悲寺)였고, 그 뒤엔 2층 다락이 서 있는데 그 가운데엔 아홉 길이나 되는 금부처를 세웠고, 그 머리 위엔 작은 금부처 수십 개를 앉히었다. 다락 밑엔 한 부처를 누인 채 비단 이불을 덮어 두었는데, 그 다락의 현판엔 ‘관음지각(觀音之閣)’이라 하고, 그 윗편엔 조그마한 글자로 ‘태백(太白)’이라 써 붙였다. 혹자는 이르기를,

88 안녹산(安祿山) : 본래 당 나라 때의 잡호(雜胡)로서, 당 현종(唐玄宗) 때 양귀비의 눈에 들어 몇 개 절 도사(節度使)를 겸임했다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후계자 문제로 아들 경서(慶緒)에게 시해되었다.

“저기 이불 덮은 채 누운 것은 부처님이 아니고 이백(李白)이 취해서 자는 소상(塑像)입니다.”

한다. 행궁(行宮)이 있긴 하나 굳게 잠그고는 구경을 허락하지 않는다. 객관에 돌 아온즉, 문밖엔 장사치들이 구름처럼 모여드는데, 말과 나귀에다 서책·서화·콜동 등을 실었고, 곰을 놀리는 등 여러 가지 재주를 구경했다. 그러나 뱀 놀리는 자 범 놀리는 자도 있었던 모양이나 벌써 흩어져 버렸으므로 미쳐 보지 못해서 한스러운 일이다. 앵무새를 파는 자가 있으나 날이 저물어서 그 텔빛을 상세히 볼 수 없으므로 막 등불을 찾아 오는 동안에 그 자가 그만 가버려서 더욱 유감이었다.

30일 병오(丙午)

개다.

방균점(邦困店)에서 별산장(別山庄)까지 2리, 곡가장(曲家庄) 2리, 용만자(龍灣子) 3리, 일류하(一柳河) 2리, 현곡자(現曲子) 2리, 호리장(胡李庄) 10리, 백간점(白幹店) 2리, 단가점(段家店) 2리, 호타하(濠沱河) 5리, 삼하현(三河縣) 5리, 동서조림(東西棗林) 5리, 모두 46리를 가서 점심 먹고, 조림에서 백부도장(白浮屠庄)까지 6리, 신점(新店) 6리, 황친점(皇親店) 6리, 하점(夏店) 6리, 유하점(柳河店) 5리, 마이핍(馬已乏) 6리, 연교보(烟橋堡) 7리, 모두 41리이다. 이날 84리를 가서 연교보에서 묵었다.

계주는 옛날 어양(漁陽)이다. 그 북에 반산(盤山)이 있는데 위태로이 솟은 봉우리가 깎아 세운 듯하고, 봉우리마다 위가 폐지고 아래가 가늘어서 그 꼴이 소반과 같으므로 ‘반산’이란 이름을 얻었고, 또 일명 오룡산(五龍山)이라고도 한다. 내 앞서 원중랑(袁中郎)⁸⁹의 <반산기(盤山記)>를 읽다가 기승(奇勝)한 곳이 많음을 알았더니, 이제 기어코 한번 올라가 보고 싶었지만 함께 갈 사람이 없으니 하는 수 없었다.

89 원중랑(袁中郎) : 명의 저명한 문학가. 원광도(袁宏道). 중랑은 그의 자.

그 산이 비록 가파로우나 몇백 리를 웅장(雄壯)하게 서려 있을뿐더러 겉은 바위가 입혔지만, 속은 살진 흙이어서 과실 나무들이 극히 많으므로 연경(燕京)에서 날마다 소비하는 대추·밤·감·배 등속이 모두 이곳에서 나는 것이라 한다.

어양교(漁陽橋)에 다다르니 길 왼편에 양귀비(楊貴妃)의 사당이 있어서 산꼭대기에 자리잡은 안녹산의 사당과 서로 마주 보고 섰다. 천하에 돈 있는 자가 아무리 많다손 치더라도 하필이면 이런 추잡한 사람들의 사당을 지어서 명복(冥福)을 빙단 말인가.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아무리 복을 구한단들 사곡해선 안 되리라 | 求福不回

하였으니, 이런 것이야말로 돈만 헛되이 버렸다 하겠다. 혹은 이르기를,

“성인(公자)도 정(鄭)나라·위(衛)나라의 음시(淫詩)를 뽑아버리지 않아서 후세 사람의 경계를 삼지 않았던가. 뿐만 아니라 계주 금병산(錦屏山) 석벽에는 양옹(揚雄)이 반교운(潘巧雲)을 베는 상(像)⁹⁰도 있다.”

고 변명한다. 백간점에서 구경하러 온 수재(秀才) 하나를 만나서 서로 이야기할 제그는,

“안녹산 역시 명사랍니다. 그가 앵두를 두고 읊은 시에,

앵두 알 한 광주리 | 櫻桃一籃子

파랑 노랑이 반씩일세 | 半青一半黃

절반은 회왕(안녹산의 아들)에게 | 一半寄懷王

절반은 주지(안녹산의 스승)에 나눠 보내고저 | 一半寄周摯

하였기에, 어떤 이가 청하기를,

90 양옹(揚雄)이……상(像) : 중국 고전 소설 《수호지(水滸誌)》에 나오는 양옹이, 그의 애인 반교운이 행실이 부정하다고 하여 금병산에서 짤려 죽였다.

‘당신의 주지(周摯) 구를 회왕(懷王) 구와 바꾸었으면 운(韻)이 맞지 않겠소.’⁹¹

하였더니, 녹산은 크게 노하여,

‘그게 무슨 말야. 주지로 하여금 우리 집 아이 위에 누르게 한단 말이야.’

했으니, 이 정도의 시인을 어찌 사당이 없고야 배기겠소.”

하고는, 서로 더불어 한바탕 웃었다.

지나는 길에 향림사(香林寺)에 들어갔다. 불전(佛殿)에는 ‘향림암(香林菴)’이라 씌어 있고 그 위에는 금자로서 ‘향림법계(香林法界)’라 씌었으니, 이는 강희 황제의 글씨이다. 순치(順治) 청 세조(世祖)의 연호)의 아우 누이가 청상과부로서 여승이 되어 이 암자에 있다가 나이 아흔이 넘어서 죽었다 한다. 그리고 이 암자에는 모두 비구니(比丘尼)만이 살고 있었다. 뜰 가운데에는 줄기가 흰 소나무 두 그루가 있어 높이가 수십 길이나 되며, 나무 껍질의 비늘도 푸른 채 희다. 암자 동편에는 작은 탑 다섯이 있고 그 좌우에는 역시 흰 소나무 세 그루가 있어서 푸른 빛이 뜰에 가득 차고, 바람 소리가 마치 물결처럼 서늘함을 돋운다. 그리고 보니 ‘백간점’이라는 이름도 아마 흰 줄기 소나무에서 말미암은 듯싶다.

차츰 연경이 가까워지자 거마 울리는 소리가 메마른 하늘에 우레 소리인 듯하고, 길 양편에는 모두 부호가들의 무덤인데, 담을 둘러서 마치 여염집같이 즐비하고 담 밖에는 하수를 이끌어 해자를 만들었고, 문 앞의 돌다리는 모두 무지개처럼 공중에 떠 있는 듯하고, 가끔 돌로 패루(牌樓)를 만들어 세웠다. 그리고 해자 가의 갈대 사이엔 때로 콩깍지만 한 작은 배가 매여 있고, 다리 아래에는 여기저기 고기 그물을 쳐놓았다. 담 안에는 수목이 울창한데 가끔 기왓골이나 쳐마 끝이 보이기도 하고, 혹은 지붕 위의 호리병 박 꼽대기가 솟아 오르기도 하였다.

점방에서 잠깐 쉬노라니 올 밖에 예쁜 아이들 수십 명이 떼를 지어 노래하며 가는데, 비단저고리에 수놓은 바지를 입고 옥같이 맑은 얼굴에 살결이 눈처럼 희다. 혹은 박자판을 치고, 혹은 피리를 불며, 혹은 비파를 뜯고, 나란히 서서 천천히 노래한다. 모두들 곱고도 아름다운 치장이다. 이들은 모두 연경의 거지들로서 거리로 돌아다니며 멀리서 온 장사치들에게 하룻밤 배개를 같이하고 몇백 냥의 돈을 받는

91 당신의……않겠소 : 그 두 글귀를 바꾸면 황(黃) 자와 왕(王) 자가 같은 양(陽) 운이 된다.

일이 있다 한다.

길 옆에 삿자리를 걸쳐서 햇빛을 가리고 군데군데 놀이 하는 곳을 만들었는데, 《삼국지(三國志)》를 연출(演出)하는 자, 《수호전(水滸傳)》을 연출하는 자, 《서상기(西廂記)》를 연출하는 자가 있어서, 높은 소리로 그 사(詞)를 부르고 음악이 이에 따른다. 온갖 장난감들을 별여놓고 파는데 모두들 어린이들의 일시적 장난감이었지만, 그 재료가 희귀한 것일뿐더러 만든 솜씨가 하나도 교묘하지 않은 게 있으며, 어떤 것은 손만 거쳐도 깨질 물건인데도 그 수공은 몇 낭이나 좋이 된다. 탁자 위에는 관공(關公)의 상을 몇만 개나 별여놓았는데 칼을 가로 잡고 말을 탔으나 그 크기는 겨우 두어 치밖에 안 되며, 모두 종이로 만들어 교묘하기 짹이 없다. 이는 아이들 장난감인데 이렇게 많음을 보니 다른 것을 짐작할 수 있겠다. 하도 황홀·찬란한 것들을 많이 보았는지라 이목과 정신이 함께 피로할 지경이었다.

배로 호타하를 건너서 삼하현 성중에 들어가 손용주(孫容洲) 유의(有義)⁹²의 댁을 찾았더니, 용주는 벌써 달포 전에 산서(山西)에 가고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 집은 성 동편 관왕묘(關王廟) 곁으로 대여섯 칸 초가집이니 그의 가난함을 짐작할 수 있겠다. 손 심부름하는 아이도 없이 주렴 너머로 부인의 목소리가 마치 연연(燕燕)·앵앵(鶯鶯)처럼 아름답다.⁹³ 그는,

“저희 집 주인께선 어떤 글방 훈장으로 맞이되어 산서 지방에 가시고는 제 홀로 딸년 하나 데리고 살고 있는 형편이옵니다. 조선서 멀리 오신 선생님께서 이런 누지(陋地)에 왕립하셨는데도 공손히 맞아들이지 못하여 죄송하옵니다.”

하고는 또 사람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그제야 담현(湛軒 홍대용의 호)의 편지와 정표를 내어 주렴 앞에 놓고 나온다. 담이 허물어진 곳에 나이 열대여섯 살 되어 보이는 계집애 하나가 섰는데, 그 흰 얼굴에 조출한 목덜미, 아마 용주의 딸님인 듯싶다.

삼하현은 옛날 임후(臨晦)이다.

92 손용주(孫容洲) 유의(有義) : 연암의 친구 홍대용(洪大容)이 전년에 왔을 때에 깊이 사귀었던 학자. 용주는 호요, 유의는 이름.

93 마치……아름답다 : 이 부분은 다른 본에는 모두, “몹시 분명하지 않다”로 되었으나, ‘다백운루본’을 썼다.

8월 1일 정미(丁未)

아침엔 개고 찌는 듯 덮다가 오후에는 비가 오다 몇다 했고, 밤엔 큰비가 우레치며 내리다.

연교보에서 새벽에 떠나서 사고장(師姑庄)까지 5리, 등가장(鄧家庄) 3리, 호가장(胡家庄) 4리, 습가장(習家庄) 3리, 노하(潞河)⁹⁴ 4리, 통주(通州) 2리, 영통교(永通橋) 8리, 양가갑(楊家閭) 3리, 관가장(關家庄) 3리, 모두 35리를 가서 점심을 먹고, 거기에서 다시 삼간방(三間房)까지 3리, 정부장(定府庄) 3리, 대왕장(大王庄) 3리, 태평장(太平庄) 3리, 홍문(紅門) 3리, 시리보(是里堡) 3리, 파리보(巴里堡) 2리, 신교(新橋) 6리, 동악묘(東岳廟) 1리, 조양문(朝陽門) 1리, 서관(西館)에 드니 모두 27리이다. 이날 모두 62리를 걸었다. 압록강으로부터 연경까지 모두 33참(站) 2천 30리⁹⁵였다.

새벽에 연교보를 떠나 변(卞) · 정(鄭) 여러 사람과 먼저 갔다. 몇 리를 가지 않아서 날이 벌써 밝아지는데 별안간 우레 같은 소리가 우렁차게 공중을 울린다. 이는 노하(潞河)의 배 속에서 나는 포성이라 한다. 아침노을이 어린 곳으로 멀리 바라본 즉, 뚝대들이 총총히 늘어선 갈대 같고, 벼드나무 위에는 옛목과 풀뿌리 따위가 많이 걸렸는데, 이는 한 열흘 전에 연경에 큰비가 내려서 노하가 넘치어 민가 몇만호를 쓸어가고, 물에 휩쓸린 사람과 짐승이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한다. 내 이제 말 위에서 담뱃대를쥔 채 팔을 뻗쳐서 벼드나무 위의 물 찬 흔적을 가늠해 본즉, 땅에서 두서너 길 뒷직하다. 물가에 다다르니 물이 넓고도 맑으며 배가 빽빽이 들어선 것이 장성(長城)의 웅대함과 견줄 만하고 큰 배 십만 척에 모두 용(龍)을 그렸는데, 호북(湖北)의 전운사(轉運使) 운수(運輸)를 맡은 벼슬 이름(이름)가 어제 호북의 곡식 3백만 석을 싣고 왔다 한다. 한 배에 올라가서 그 대략의 제도를 구경하니, 배 길이는 모두 여남은 발이나 되고 쇠못으로 장치하였으며, 그 위에는 널빤지를 깔아서 충 집을 세웠으며 곡물들은 모두 선창 속에 그냥 쏟아 넣었다.

94 노하(潞河) : 통주(通州)에서 천진(天津)까지 이르는 운하.

95 2천 30리 : 《통문관지(通文館志)》에는 2천 49리.

집은 모두 아로새긴 난간, 그림 기둥, 아롱진 들판, 수놓은 지게문으로 꾸미어, 그 제도가 물의 건물과 다름없이 밑은 창고이고 위에는 다락으로 되었으며, 그 패액(牌額) · 주련(柱聯) · 장유(帳帷) · 서화(書畫) 등이 모두 아득히 신선의 세계였다. 지붕에는 쌍돛을 높이 세웠는데 돛은 가는 등(藤)으로 엮어 몇 폭이나 되고, 온 배에 연분(鉛粉)을 기름에 타서 두껍게 바르고, 그 위에 노란 칠을 입혔으므로 한 방을 물도 스며들지 않으니 비가 내려도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이다.

선기(船旗)에는 ‘절강(浙江)’이니 ‘산동(山東)’이니 하는 배 이름이 크게 씌었으며, 물을 따라 1백 리를 내려오는 사이에 배들은 마치 대밭처럼 빼빼하게 들어 섰으되, 남으로 직고해(直沽海)에 줄곧 통하여 천진위(天津衛)를 거쳐 장가만(張家灣)에 모 이게 된다. 그리하여 천하의 선운(船運)들이 모두 통주(通州)에 모여들게 되니, 만일 노하의 선박들을 구경하지 못한다면 이 나라 수도의 장관(壯觀)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삼사(三使)와 함께 한 배에 오르니, 그 양쪽에는 채색 난간을 두르고 그 앞에는 휘장을 드리우고 창을 세워서 문을 만들고, 양편에는 온갖 의장(儀仗) · 기차(旗幟) · 도창(刀鎗) · 검극(劍戟) · 봉인(鋒刃) 등을 세웠는데 모두 나무로 만들었고, 방 안에는 관(棺) 하나가 놓이고 그 앞에는 교의와 탁자가 늘어 놓였으며 탁자 위에는 온갖 제기(祭器)를 벌여 놓았다. 상주는 푸른 들판 아래에 걸터앉았는데 몸에는 무명 옷을 입었고 머리는 깎지 않아서 두어 치나 자란 것이 마치 중과 같은 모양이다.

남과 수작을 즐기지 않고 앞에는 《의례(儀禮)》 한 권을 놓았다. 부사가 그 앞으로 다가서서 읍하니 상주가 역시 읍하여 답례하고 이마를 조아리며 일어났다 엎드렸다 하다가 다시 교의에 앉는다. 부사가 나더러 그와 필담(筆談)하여 보라 하기에 나는 그제야 부사의 성명과 관함을 써 보이었더니, 상주 역시 머리를 조아리며 쓰되,

“저의 성은 진(秦)이요, 이름은 경(璟)이옵고, 가계(家系)는 호북(湖北)이옵니다. 선친(先親)께옵서 북경에 벼슬하여 한림원(韓林院) 수찬(修撰)을 지내시고 금년 칠월 구일에 세상을 버리시자, 임금께옵서 토지(土地)와 돌아갈 배를 내리시옵기에

고향으로 유해(遺骸)를 모시고 돌아가는 길이옵니다. 상복이 몸에 있으므로 손님을 접대하질 못하와 죄송합니다.”

한다. 부사가 글씨로 그의 나이를 물었으나 진경은 대답하지 않는다. 부사가 또 글씨로,

“중국서는 누구든지 모두 삼년상(三年喪)을 치르시는지요.”

하고 물었더니, 진경은,

“성인께옵서 인정을 따라 예를 제정하였사온즉 저같이 불초한 자도 힘껏 따르고자 하옵지요.”

한다. 부사는,

“상제(喪制)는 모두들 주자(朱子)의 학설을 따르는가요?”

했더니, 진경은,

“그렇습니다. 모두 문공(文公 주희(朱熹)의 시호)을 따르지요.”

한다. 창 밖에 아롱진 대 난간이 사창에 비치어 영롱하고, 옆 배에서 흘러나오는 풍류 소리가 소란하며, 갈매기 날고 내와 구름 끼고 누대(樓臺)의 아름다움이 모두 선창에 어리고 흰 모래톱 아득한 언덕에는 바람을 안은 둑들이 나타났다 껴졌다 한다. 사람으로 하여금 슬며시 이것이 곧 부가(浮家) · 범택(泛宅)들인 줄로 알고도 마치 저 변화한 도시 한 가운데 화려한 방안에 몸을 담고서, 강호(江湖) 경물(景物)의 아름다운 낙(樂)을 겹누르는 듯싶었다. 부사가 몸을 돌려 미소를 지으며,

“저야말로 월파정(月波亭) 상주⁹⁶라고 이르겠군.”

하기에, 나 역시 가만히 웃었다.

정사가 사람을 보내어 구경할 것이 있으니 얼른 오라 하기에 곧 부사와 함께 일어 날 제, 등 뒤에 무엇이 툭하는 소리가 나기에 돌아다본즉, 부사의 비장 이서구(李瑞龜)가 넘어져서 겨우 짚은 듯이 웃고 있다. 대개 배 위에 깐 널빤지가 얼음처럼 미끄러워 발 붙이기가 힘들다. 부사가 젤젤텔 좌우로 부축하고 가다가 이를 돌아다본다는 것이 그만 옆의 사람들까지 함께 쿵하고 넘어졌다.

96 월파정(月波亭) 상주 : 당시 우리나라에서 유행되던 말인데, 황주(黃州) 월파정에 놀러 온 풍류적인 상주(喪主).

휘장 안에서 네 사람이 한창 투전을 하고 있기에 나는 들여다보았으나 모두 만주 글자여서 도시 알 수 없다, 혹은,
“이것의 이름은 마조(馬吊)⁹⁷랍니다.”

한다. 깊숙한 곳에 탁자를 늘어놓고 그 위에 준(尊) · 호(壺) · 고(觚) · 관(罐) 등의 그릇을 진열했는데 모두 기이하게 생긴 물건들이다. 또 한 문을 나선즉, 정사와 서장관이 널빤지에 앉아서 선장 속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 안이 곧 주방(廚房)인데, 흰 베로 머리를 감싼 늙은 부인 둘이 가마솥에 녹두나물 · 무 · 미나리 등속을 삶아서 다시 찬물에 헹구고 있고, 또 나이 열여섯쯤 되어 보이는 처녀 하나가 있는데 아리따운 얼굴이 견줄 데 없다. 낯선 손님을 보고도 조금도 수줍은 태가 없이 찬찬하고 다소곳이 제 맡은 일만 하고 있는데, 고운 깁옷의 주름은 안개처럼 어른어른하고 하얀 팔목은 연뿌린양 민듯하다. 아마 진씨(秦氏)의 차환(叉鬟)으로서 아침상을 보살피고 있는 모양이었다. 배 양편에는 파초선(芭蕉扇)을 두루 꽂았는데 ‘한림(翰林)’ · ‘지주(知州)’ · ‘정당(正堂)’ · ‘포정사(布政使)’라 썼으니, 이는 모두 죽은 이의 이력들이었다.

강 가운데에는 이곳저곳 벗놀이가 한창이다. 작은 배에 혹은 붉은 일산을 평고, 혹은 푸른 휘장을 두르고는 삼삼오오(三三五五) 서로 짹을 지어 각기 다리 짧은 교의에 기대기도 하고, 혹은 평상 위에도 앉아서 책권이며 그림축이며 향로며 차도구들을 벌여 놓았고, 혹은 봉생(鳳笙)이나 용관(龍管)을 불고, 혹은 평상에 의지하여 글씨와 그림도 치고, 더러는 술 마시며 시 읊기도 하는데, 그들이 반드시 모두가 고인(高人) · 운사(韻士)들은 아니겠지만, 그윽하게 아취가 있어 보인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오른즉, 수레와 말이 길을 막아서 다닐 수가 없다.

동문에서 서문까지 줄곧 5리 사이에 외바퀴 수레 몇 만 채가 꽉 차서 몸 돌릴 곳이 없다. 말에서 내려 한 점방으로 들어가니 기려하고 번창함이 벌써 성경(盛京) · 산해관 따위에는 비길 것이 아니었다.

길이 비좁아 간신히 조금씩 나아가 본즉, 시문(市門)의 현판에는 ‘만수운집(萬艘雲集)’이라 하였고, 한길 위에 이층 높은 누(樓)를 세우고는 ‘성문구천(聲聞九天)’이라

97 마조(馬吊) : 투전 40장을 가지고 노는 중국의 놀음감.

써붙였다. 성 밖에는 창고 셋이 있는데 그 제도를 성곽과 같이 해서, 지붕은 기와로 이었고 그 위에는 공기창을 내어서 나쁜 기운을 내보내게 하고, 벽에도 곁 구멍을 뚫어서 습기가 가시게 하고 강물을 끌어들여 창고를 둘러 해자[壕]를 만들었다. 영통교(永通橋)에 이르렀는데, 이 다리는 일명 팔리교(八里橋)라 한다. 길이가 수백 발, 너비는 여남은 발이요, 무지개 문의 높이도 여남은 발이나 되는데, 좌우에는 난간을 돌리고 그 위에는 사자 몇백 마리를 앉혔는데, 그 새김의 정미로움이 마치 도장(圖章) 꼭대기의 가는 무늬와 같았다. 다리 밑에 선박들은 줄곧 조양문(朝陽門 북경의 동북문) 밖에 닿아서 다시 작은 배로써 물문을 열고 태창(太倉)에 끌어들인다 한다.

통주에서 연경까지 40리 사이는 돌을 깎아서 길에 깔았다. 쇠 수레바퀴가 서로 맞닿는 소리가 더욱 커서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이 아찔하게 한다. 길가 양편에는 모두 무덤인데 담이 잇달고 나무가 울창하여 봉분은 보이지 않는다.

대왕장(大王庄)에 이르러서 잠깐 쉬고 곧 떠났다. 길 왼편에 돌 패루 세 칸이 있기 때문에 말에서 내려 그 만든 양을 보니, 이는 곧 통국유(修國維 청 강희 때의 충신)의 무덤이었다. 패루에는 그의 벼슬들을 나란히 새겨 붙였고, 윗층에는 여러 가지 조칙을 새겼다. 곧 다리를 건너 문 안에 들어서니 좌우에 여덟모난 화표주(華表柱 망주석)를 세우고 그 위에는 돌 사자를 새겼다. 가운데에는 길을 쌓아 올려서 총대 높이가 한 발이나 되며, 길 좌우에는 늙은 소나무 수십 그루가 섰고, 3층 돌대를 쌓고 그 위에 큰 비석 열셋을 세웠는데, 모두 통씨(佟氏) 삼대의 훈벌(勳閥)을 표창한 조칙(詔勅)들이다. 통국유의 일명은 융과다(隆科多)라고도 하며 그 아내는 하사례씨(何奢禮氏)이다. 북쪽 담 밑에 봉분 여섯이 나란히 있는데, 땅을 입히지 않고 밑은 둑글고 위는 뾰족하게 석회로 번질번질하게 발랐다. 누런 기와로 이은 집 수십 칸이 있는데 단청이 이미 우중충하며, 총계는 무너지고 채색한 주렴은 해졌는데, 집 안에는 박쥐똥이 가득할 뿐 텅 비고 괴괴하여 지키는 자도 보이지 않는다. 이는 마치 깊은 산중의 낡은 절과 같다. 매우 괴이한 일이다.

아마도 훈벌이 혁혁하였던 집안이었으나 이제는 자손이 없어서 그런 것인 듯싶다. 동악묘(東嶽廟)에 이르러 심양에 들어갈 때처럼 삼사가 옷을 갈아입고 반열을 정

돈하였다. 이때 통역관 오림포(烏林哺) · 서종현(徐宗顯) · 박보수(朴寶秀) 등이 벌써 그 가운데에 와서 기다린다. 그들은 모두 망포(蟒袍) · 수보(繡補 청 관리의 예복)에다 목에는 조주(朝珠)⁹⁸를 걸고, 말을 타고 앞을 인도하여 조양문에 이르니, 그 제도는 산해관과 다름없으나 다만 상세히 볼 수 없었다. 검은 먼지가 공중에 자욱하니 수레에 물통을 싣고 곳곳마다 길바닥에 물을 뿌린다.

사신은 곧장 예부(禮部)를 찾아 표문(表文)과 자문(咨文)을 바치러 갔다. 나는 그와 헤어져서 조명회와 함께 먼저 사관으로 갔다. 순치(順治) 초년에 조선 사신의 사관을 옥하(玉河) 서쪽 기슭에다 세우고 옥하관(玉河館)이라 일컬었더니, 그 뒤에 악라사(鄂羅斯)가 점령한 바 되었다. 악라사는 이른바 대비달자(大鼻獮子)인데 하도 사나우므로 청인도 그들을 누를 길이 없어서, 할 수 없이 회동관(會同館)⁹⁹을 건어 호동(乾魚衡衢)에다 세우니, 이는 곧 도통(都統) 만비(滿丕)¹⁰⁰의 집이었다. 만비가 도륙당할 때에 집안 사람이 많이 자결하였으므로 그 집에 귀매(鬼魅)가 많았다 한다. 혹은 우리나라 별사(別使 임시 사행(使行))와 동지사가 한꺼번에 맞부딪치면서 서관(西館)에 나누어 들게 되었다. 연전에 별사가 먼저 건어호동에 들었으므로 금성위(錦城尉)가 마침 동지사로 와서 서관에 머문 일도 있었다. 지난해 건어호동에 있는 회동관이 불타 버리고 여태까지 다시 세우지 못했으므로 이번 결음에도 서관에 옮겨 들게 되었다.

아아, 슬프다. 옛 역사에 이르기를,

“문자(文字)가 생기기 전엔 연대(年代)와 국도(國都)를 상고할 수 없다.”

하였으나, 문자가 생긴 이후 21대(代)¹⁰¹ 3천여 년 동안에 천하를 다스림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술법으로 하였을 것인가. 이는 곧 그들의 이른바 유정(惟精) · 유일

98 조주(朝珠) : 청의 제도에 5품(品) 이상과 한림(翰林) · 중서(中書) 등이 가슴에 달게 된 1백 8개의 구슬.

99 회동관(會同館) : 외국 사신을 접대하는 곳. 나중에는 사린관(四隣館)과 합쳐서 회동사역관(會同四譯館)이라 하였다.

100 만비(滿丕) : 청 강희 때의 외교관. 아라사와 조약을 맺을 때에도 참가하였다.

101 21대(代) : 원(元) 이전 21조(朝)의 소위 정사(正史)를 21사(史)라 하였다.

(惟一)¹⁰²이란 심법(心法)으로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천하를 다스림에는 요(堯) · 순씨(舜氏)가 있음을 알고, 홍수를 다스림에는 하우씨(夏禹氏)¹⁰³가 있음을 알며, 정전(井田) 제도¹⁰⁴를 마련함엔 주공씨(周公氏)가 있음을 알고, 학문의 선전 엔 공자씨(孔子氏)가 있음을 알고, 재정과 세금을 골고루 마련함엔 관중씨(管仲氏)¹⁰⁵가 있음을 알았을 뿐이다. 나는 알지 못하겠구나. 그 밖에 또 다시 얼마나 많은 성인이 그 머리를 짜냈으며, 또 얼마나 많은 성인이 그 심력을 기울였으며, 또 얼마나 많은 성인이 그 총기를 다했던고. 뿐 아니라 또 얼마나 많은 성인이 벌써 저 21대 3천여 년 동안 문자(文字)가 창조되기 전에 이를 기초(起草)하고 이를 빛내고 이를 수정하였던고. 생각하건대, 이러한 여러 성인이 그 생각과 그 심력과 그 총기를 다 기울여서 기초하고 빛내고 수정하였으니, 그들은 장차 이것으로써 자기의 사리(私利)를 취하려 하였음일까, 아니면 길이길이 만세를 두고 모든 백성들과 그 행복을 함께 누리고자 하였음일까.

그리하여,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의 심술(心術)이 같지 못하고 사업(事業)이 각기 다르면 이를 곧 ‘우인(愚人)’이라 지목하였을 뿐더러, 그를 일찍이 집과 나라를 망친 자라고 시종 헐뜯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대체로 마음의 음탕함과 귀와 눈의 영리함이 도리어 성인을 능가하므로, 더욱이 후세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겉으로는 그의 몸을 배격하면서도 은근히 그의 공훈을 본받고, 또 겉으로는 그 사람을 욕하면서도 속으론 그 이익점을 얻는 것이다. 그리하여 천하의 온갖 기이한 기술과 음탕한 솜씨가 날로 부풀어오른 법이다.

보라, 대개 궁궐을 옥과 구슬로 꾸민 자는 이른바 결(桀) · 주(紂)가 아니었으며, 산을 허물어 골을 메우고 만 리의 장성을 쌓은 자는 이른바 몽염(蒙恬)¹⁰⁶이 아니었으

102 유정(惟精) · 유일(惟一) : 《서경(書經)》에, “인심(人心)은 오직 정미고, 도심(道心)은 오직 위태롭다” 하였는데, 이 몇 구절에 동방 천고 성인의 정신이 표현되었다.

103 하우씨(夏禹氏) : 9년 동안 치수 사업에 공적이 많아서 순(舜)의 선양을 받아 임금이 되었다.

104 정전(井田) 제도 : 중국 고대의 농촌 경리에 적용하던 일종의 토지 제도.

105 관중씨(管仲氏) : 전국 제(齊)의 정치가. 특히 경제에 밝았다. 종(仲)은 그의 자요, 이름은 이오(夷吾).

106 몽염(蒙恬) : 진(秦)의 유명한 장수. 진 시황을 도와서 장성을 쌓아 흥노(匈奴)를 물리쳤다.

며, 천하에 곧은 도로를 닦은 자는 이른바 진 시황(秦始皇)이 아니었으며,¹⁰⁷ 천하의 일이 법(法)이 아니고는 아니 된다 해서 드디어 나무를 옮겨 보기도 하고,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 것까지 간섭하여 그 제도를 통일시킨 자는 이른바 상양(商鞅)¹⁰⁸이 아니었던가. 대개 이 네댓 사람들은 그의 역량과 재주와 정신 · 기백과 계획과 시설이 족히 천지를 움직일 만하였던 만큼, 애초에는 모든 성인들과 함께 이 우주 사이에서 나란히 설 수 있으련마는, 불행히 서계(書契 文字)가 이미 이룩된 뒤에 나왔기 때문에, 그들의 공로와 이익의 누림은 오로지 뒷사람에게로 돌아가고, 그 몸은 화단(禍端)이 되어 길이 우부의 이름을 들게 되었으니, 어찌 슬픈 일 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나는 더욱 알지 못하겠구나. 저 21대(代) 3천여 년의 사이에는 몇 명의 걸 · 주와, 몇 명의 봉염과, 몇 명의 진 시황과, 몇 명의 상양이 있어서, 그 서계가 이룩된 이후의 것을 본받았던 것인가. 서계가 이룩된 뒷일이 그러하니, 서계가 이룩되기 전의 일도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찌하여 이를 아는가 하면, 옛날에 진시황이 육국(六國)¹⁰⁹의 것을 본떠서 아방궁(阿房宮)¹¹⁰의 전전(前殿)을 크게 지었으니, 본뜬다는 것은 저 환쟁이들의 이른바 모사(摹寫)가 곧 그것이다. 육국의 선비들이 그들의 임금을 유세(遊說)할 때에는 모두 걸 · 주를 욕하지 않은 이가 없었건마는, 그 실에 있어서는 앞서 이른바 궁궐을 옥과 구슬로 꾸몄다는 것이 마침내는 족히 저 장화대(章華臺 전국 초(楚)의 누각)와 황금대(黃金臺 전국 때 연 소왕(燕昭王)의 궁전)의 부분이 되는 동시에, 장화대 · 황금대는 역시 아방궁의 윤곽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항우(項羽)가 이에 한번 불질러서 곧 평지의 재가 되고 만 것은 족히 뒷세상의 토목(土木) 공사(工事)만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한 거울이 되었음직하다. 그 본심은 이왕 내가 이에 살지 못할 바에는 다른

107 도로를……아니었으며 : 진 시황이 6국을 통일한 뒤에, 함곡관(函谷關)을 중심으로 하여 각처에 곧은 길을 냈다.

108 상양(商鞅) : 진의 정치가. 그는 법치(法治)를 주장하여 처음 법을 행할 때에, 나무 기둥을 남문에 세우고 그것을 북문까지 옮기면 상금을 준다 하여 백성의 믿음을 얻었다. 마침내 진 효공(秦孝公)을 도와서 부국 강병하였으나, 지나치게 가혹한 법을 만들었으므로 나중에는 실패하였다.

109 육국(六國) : 전국 때의 진(秦)을 제외한 초(楚) · 제(齊) · 연(燕) · 조(趙) · 한(韓) · 위(魏).

110 아방궁(阿房宮) : 중국 진 시황이 지은 궁전 이름. 그 뒤 항적(項籍)이 관중에 들어와서 이 궁을 불살랐으나, 석 달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았다.

사람이 와서 차지함을 싫어했던 것에 불과할 뿐이니, 그렇다면 저 팽성(彭城)의 도시 또한 아방궁이 될 것이었으나, 다만 미처 하지 못하였을 따름이었다. 그리고 소하(蕭何)¹¹¹가 미양궁(未央宮 한 고조의 궁궐)을 크게 공사할 때에, 한 고제(漢高帝 고제는 유방의 묘호)는 귀와 눈이 없지는 않았건마는, 짐짓 모르는 체하다가 궁궐이 다 이룩된 뒤에는 도리어 소하를 꾸지람하였으니,¹¹² 이 꾸지람이 실로 옳다면 어째서 소하를 당장 죽여 저자에 조리돌리지 않았으며, 또 궁궐을 불질러 태워 버리지 아니하였던고. 이로써 미루어 볼 것 같으면, 앞서 육국의 것을 본떠서 아방궁의 전전을 지은 것은 곧 미양궁을 위하여 터를 닦은 것에 지나지 않은 셈이었다.

내 이제 조양문에 들어서자, 곧 저 요·순의 이른바 유정·유일의 마음씨가 이러하고, 하우씨의 홍수 다스림이 이러하고, 주공의 정전이 이러하고, 공자의 학문이 이러하고, 관중의 이재(理財)가 이러하였음이 눈에 선하게 띄었으며, 걸·주가 옥과 구슬로 궁궐을 세운 것도 이런 방법에 지나지 않고, 몽염이 산을 허물어서 골을 메운 것도 이런 방법에 지나지 않으며, 진 시황이 곧은 길을 닦은 것도 이런 방법에 지나지 않고, 상양이 제도를 통일시킨 것도 이런 방법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았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 성인이 일찍이 율(律)·도(度)·양(量)·형(衡) 등을 하나로 통일시켜서 둑근 것은 그림쇠에 맞도록, 모난 것은 곡척(曲尺)에 맞도록 하고, 곧은 것은 먹줄에 맞추었기에, 천하에 퍼지자 천하가 이를 쫓고, 걸·주에게 주어도 걸·주 역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으며, 성인이 일찍이 높은 언덕에 넘실거리는 홍수를 다스릴 제, 그 삼태기에 삽질하는 번거로움과 부착(斧鑿)의 날카로움과, 기술자의 교묘함과 역부의 많음이, 어찌 뼈를 헐고 골을 메워 만 리의 장성을 쌓음에 그치었으며, 성인이 일찍이 천하의 밭이란 받은 죄다 금을 그어 정전의 제도를 만들면서, 그 밭두둑과 도랑 사이에는 수레 몇 채가 달릴 수 있도록 마련하였으즉, 그 곧고 바름이 어찌 천 리의 한길을 닦음만 못하였으며, 성인이 일찍이 그 문인(門人)의 물음에 대답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말씀하셨으나, 이는 다만 말로만 하였을 뿐 몸소 행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후세의 임금들이 반드시 그 학문

111 소하(蕭何) : 진(秦)의 관리로서, 한 고제(漢高帝)를 도와 천하를 평정하고 재상이 되었다.

112 모르는……꾸지람하였으니 : 《사기(史記)》에 나오는 한 고제와 소하의 고사.

이 성인보다 나은 것이 아니로되 곧 이를 행할 수 있었다. 그러니 이 역시 어찌 중화(中華)의 민족만이 그러하리오. 이적(夷狄)의 출신으로서 중원의 임금이 된 자치고, 일찍이 도(道)를 물려받아서 행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며, 또 의식(衣食)이 넉넉한 뒤에야 예절을 지킬 수 있다 하였으즉,¹¹³ 후세의 임금들 중에 그 나라를 튼튼히 하고 그 군사를 굳세게 하고자 한 자가, 차라리 각박하고 인정머리 없다는 이름을 무릅쓸지언정, 어찌 그 자신을 위해서 사리를 탐했다고 이를 수 있겠는가. 또 그 심술의 위험·미묘한 때를 논하여 본다든지, 혹은 그 사업을 공사(公私)의 사이에서 분간한다면, 저들에게 곧 이른바 정일(精一)의 방법을 일았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그 공리(功利)의 효과를 누림에 있어서는, 비록 그 방법이 이적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모아서 행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정일을 본받지 않음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앞서 이른바 재지와 역량이 하늘과 땅을 움직일 수 있다 함이 오늘날의 중국을 이룩한 것이며, 21대 3천여 년 동안의 모든 제도를 이에서 가히 상고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그들은 나라 이름을 ‘청(清)’이라 하고, 수도를 ‘순천부(順天府)’라 하니, 천문으로 보면 기(箕)·미(尾) 두 별의 사이였고, 지리로 말한다면 우공(禹貢)에서 이른바 기주(冀州)의 터전으로서, 고양씨(高陽氏 오제(五帝)의 하나인 전옥(顓頊))는 유릉(幽陵)이라 하였고, 도당씨(陶唐氏 요(堯))는 유도(幽都), 우(虞)는 유주(幽州), 하(夏)·은(殷)은 기주(冀州), 진(秦)은 상곡(上谷)·어양(漁陽)이라 하였으며, 한(漢)의 초기엔 연국(燕國)이라 하였다가 뒤에는 나누어서 탁군(涿郡)이라 했고, 또 고쳐서 광양(廣陽)이라 하였으며, 진(晉)·당(唐)에서는 범양(范陽)이라 하였고, 요(遼)는 남경이라 하였다가 뒤에는 고쳐서 석진부(析津府)라 하였으며, 송(宋)은 연산부(燕山府)라 하였고, 금(金)은 연경(燕京)이라 했다가 곧 중도(中都)라 고쳤으며, 원(元)은 대도(大都)라 하였고, 명(明)의 초년엔 북평부(北平府)라 하였다가, 태종 황제(太宗皇帝 청 태조의 8남)가 이에 수도를 옮기고 순천부(順天府)라 고쳤더니, 이제 청(清)은 이내 이곳에 수도를 세웠다. 그 성 둘레는 40리, 왼쪽에 창해(滄海)가 돌리고, 오른편에는 태항산(太行山)을 끼고, 북으로 거용관(居庸關)을 베

113 의식(衣食)이……하였으즉 : 관이오(管夷吾)의 《관자(管子)》에 나오는 구절.

고, 남으로는 하수(河水) · 제수(濟水)가 웃깃처럼 되어 있다. 성문의 정남은 정양(正陽), 오른편은 승문(崇文), 원편은 선무(宣武), 동남은 제화(齊化), 동북은 조양(朝陽), 서남은 평택(平澤), 서북은 서직(西直), 북동은 덕승(德勝), 북서는 안정(安定)이고, 외성(外城)에 문이 일곱 있으며, 자금성(紫禁城) 황제가 거처하는 궁성(宮城)에는 문이 셋 있고, 궁성(宮城)은 17리인데 문이 넷이며, 그 전전(前殿)을 태화(太和)라 하여 오로지 한 사람만이 살고 있으니, 그의 성(姓)은 애신각라(愛新覺羅)요, 그 종족은 여진(女眞) 만주부(滿洲部)요, 그 위(位)는 천자(天子)요, 그 호(號)는 황제(皇帝)이고, 그 직책은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었으며, 그가 자신을 일컬을 때는 ‘짐(朕)’이라 하고,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그를 높여서 ‘폐하(陛下)’라 하며, 말씀을 내면 ‘조(詔)’라 하고, 명령을 내리면 ‘칙(勅)’이라 하며, 그 갓은 흥모(紅帽)이고, 그 옷은 마제수(馬蹄袖)¹¹⁴이며, 그는 국통(國統)을 이은 지 벌써 네 대였고, 연호(年號)를 세워 ‘건륭(乾隆)’이라 한다. 이 글을 쓴 자가 누구인가 하면 조선에서 온 박지원(朴趾源)이고, 쓴 때가 언젠가 하면 건륭 45년 가을 8월 초하루이다.

동악묘기(東嶽廟記)¹¹⁵

동악묘는 조양문 밖 1리에 있다. 그 건물의 웅장하고 화려함은 여태까지 보던 중 처음이다. 성경의 궁궐도 이에 비기면 어림없었다. 묘문(廟門)의 건너편에는 두 패루가 섰는데 파란 유리벽돌과 초록빛 유리벽돌로 쌓았다.

그 찬란하고 휘황함이 앞서 본 돌집을 능가한다. 이 사당은 원(元)의 연우(延祐 원인종(元仁宗)의 연호) 연간에 비로소 세웠고, 명(明)의 정통(正統 명 영종(明英宗)의 연호) 대에 더 넓혔다. 그 가운데에는 인성제(仁聖帝 동악태제(東嶽太帝)의 별

114 마제수(馬蹄袖) : 만인(滿人) 옷의 소매 모양을 형용하여 말한 것이다.

115 동악묘기(東嶽廟記) : 다른 본에는 모두 ‘관내정사’의 편말에 있었으나, ‘주설루본’에 의하여 여기로 옮겼다.

칭) · 병령공(炳靈公 동악태제의 셋째 아들) · 사명군(司命君 사람의 목숨을 맡은 귀신)과 네 승상(丞相 태제를 모신 네 정승)의 소상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원(元)의 소문관(昭文館) 태학사(太學士) 정봉대부(正奉大夫) 비서감경(秘書監卿) 유원(劉元 원의 저명한 조각가)이 만든 소상으로서, 유원은 그 만드는 교묘한 법이 천하에 짹이 없었다.

요즘 청의 강희 경진(1700) 3월에 불이 나서 전(殿) · 무(廡)와 함께 사당 가운데 있던 모든 소상이 다 불타 버리고, 다만 양편의 도원(道院)만 남아 있었다. 강희 황제는 특히 내탕금(內帑金 황제의 사용금)을 내리고, 아울러内外의 대소 관원들에게 명하여 비용을 돋게 하고, 유친왕(裕親王)으로 하여금 그 공사를 감독하게 하여 비로소 이룩하자 황제가 친히 거동하였고, 옹정 황제와 지금 황제 역시 내탕금을 내어 이를 수리하였다.

그 제일전(第一殿)에는 ‘영소화육(靈昭化育)’이라 써 붙였는데, 동악태제가 곤룡포와 면류관을 갖추었고, 모신 제신(諸神)은 왼편에 문(文), 오른편에 무(武)가 늘어 섰다.

탑(塔) 앞에는 몇 섬들이 쇠항아리를 놓아서, 심지 네 개에 불을 댕겨 둔 채 철망(鐵網)을 둘렀다. 그리고 등불 앞에는 한 길이나 되는 쇠화로를 놓고 침향(沉香)을 태웠다. 그리하여 검은 등에 푸른 불꽃이 번뜩이고, 전자(篆字)처럼 얹힌 연기가 푸르며, 술을 드리운 휘장에는 쇠풍경이 맹그랑 울리는데, 전각은 침침해서 꿈속 같다. 그 제이전(第二殿)에는 여성(女像) 셋이 앉았는데, 역시 구슬로 꾸민 술을 드리웠고, 양편에서 모신 자도 모두 여선(女仙)들이다.

그 제삼전(第三殿)에는 무슨 신(神)을 본뜬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낭무(廊廡)에는 72조(曹) 36옥(獄)을 벌여놓은 것이 기괴하여 천태만상이었다. 대(臺) 위에 놓인 값진 모든 그릇들은 거의 송(宋) · 원(元) 시대의 관지(款識)가 많고, 뜰 가운데에는 큰 비석 1백여 개가 섰는데, 조맹부(趙孟頫)¹¹⁶가 쓴 것이 많고, 또 그 아우 세연(世延)과 우집(虞集)¹¹⁷이 쓴 것도 있었다. 동서의 제일항(第一行)에 선 비석은 모

116 조맹부(趙孟頫) : 원의 저명한 서예가. 맹부는 이름이요, 자는 자昂(子昂).

117 우집(虞集) : 원의 문학가. 집은 이름이요, 자는 백생(伯生).

두 누런 기와로 덮고, 그 위에는 고루(鼓樓)를 설치했는데, 동쪽의 것은 ‘별음(鼈音)’이라 하고, 서쪽의 것은 ‘경음(鯨音)’이라 하였다.

2일 무신(戊申)

개다.

간밤에 뇌성 벽력과 함께 내린 비를 겪고서, 아직 수리하지 못한 객관의 창호지가 떨어졌으므로, 새벽에 찬바람이 들어와서, 감기가 조금 들고 입맛을 잃었다.

아침 일찍 아문(衙門)에 모두들 모여드니, 이들은 예부(禮部) · 호부(戶部)의 낭중(郎中 낭관)과 광록시(光祿寺)¹¹⁸의 관원이었다. 쌀과 팔 대여섯 수레와 돼지 · 양 · 닭 · 거위 · 채소 등 속이 바깥 뜰에 가득히 쌓았다. 그 부(部)의 관원이 교의를 나란히 하여 앉았는데, 아무도 감히 떠드는 자가 없었다.

정사에게는 날마다 관(館)의 친(饌)으로 거위 한 마리, 닭 세 마리, 돼지고기 다섯 근, 생선 세 마리, 우유 한 병, 두부 세 근, 백면(白麪) 두 근, 황주(黃酒) 여섯 항아리, 엄채(醃菜 김치) 세 근, 다엽(茶葉) 넉 냥, 오이지 넉 냥, 소금 두 냥, 청장(清醬) 여섯 냥, 감장(甘醬) 여덟 냥, 초(醋) 열 냥, 향유(香油) 한 냥, 화초(花椒 산초) 한 돈, 등유(燈油) 세 병, 납초 석 자루, 내수유(奶酥油 우유로 만든 낙농 제품) 석 냥, 세분(細粉) 근 반, 생강 닷 냥, 마늘 열 뿌리, 빙과(蘋果 능금) 열다섯 개, 배 열다섯 개, 감 열다섯 개, 말린 대추 한 근, 포도 한 근, 사과 열다섯 개, 소주 한 병, 쌀 두 되, 나무 서른 근, 또 사흘마다 몽고양(蒙古羊) 한 마리씩을 준다.

그리고 부사와 서장관에게는 날마다 두 사람 어울려서 양(羊) 한 마리, 거위 각기 한 마리, 닭 각기 한 마리, 생선 각기 한 마리, 우유 어울려서 한 병, 고기 어울려 세 근, 백면 각기 두 근, 두부 각기 두 근, 엄채 각기 세 근, 화초 각기 한 돈, 다엽 각기 한 냥, 소금 각기 한 냥, 청장 각기 여섯 냥, 감장 각기 여섯 냥, 초 각기 열 냥, 황주 각기 여섯 항아리, 오이지 각기 넉 냥, 향유 각기 한 냥, 등유 각기 한 종

¹¹⁸ 광록시(光祿寺) : 식량(食糧)과 찬품(饌品)의 제절을 맡은 관부.

지, 쌀 각기 두 되, 빈과 어울러 열다섯 개, 사과 어울러 열다섯 개, 배 어울러 열다섯 개, 포도 어울러 닷 근, 말린 대추 어울러 닷 근, 그 밖의 과실은 닷새 만에 한 번씩 준다. 부사에게는 날마다 나무 열일곱 근, 서장관에게는 열닷 근씩을 준다.

그리고 대통관(大通官) 3명과 압물관(押物官) 24명에게는 날마다 각기 닭 한 마리, 고기 두 근, 백면 한 근, 엄채 한 근, 두부 한 근, 황주 두 항아리, 화초(花椒) 닷 푼(分), 다엽 닷 돈, 청장 두 냥, 감장 넉 냥, 향유 너 돈, 등유 한 종지, 소금 한 냥, 쌀 한 되, 나무 한 근씩을 주고, 또 득상(得賞) 종인(從人)¹¹⁹ 30명에게는 날마다 각기 고기 근 반, 백면 반 근, 엄채 두 냥, 소금 한 냥, 등유 어울러 여섯 종지, 황주 어울러 여섯 항아리, 쌀 한 되, 나무 너 근씩을 주고, 무상(無賞) 종인 2백 21명에게는 날마다 각기 고기 반 근, 엄채 넉 냥, 초 두 냥, 소금 한 냥, 쌀 한 되, 나무 너 근씩을 주었다.

3일 기유(己酉)

개다.

해 뜬 뒤에 비로소 관문(館門)을 연다. 나는 곧 시대·장복과 함께 관을 떠나 첨운 패루(瞻雲牌樓) 밑까지 걸어와서 태평거 하나를 세내었는데, 나귀 한 마리가 끌고 간다. 아까 주방(廚房)에서 하룻동안 쓸 것을 주기에, 시대로 하여금 돈으로 바꾸어서 차에 실으니, 은(銀) 두 냥이 돈 2천 2백 닭이었다. 시대는 오른편에, 장복은 뒤에 태우고는 빨리 달려서 선무문(宣武門)에 이르니, 그 제도가 조양문과 같다. 원편은 상방(象房 코끼리를 기르는 곳)이요, 오른편은 천주당(天主堂)¹²⁰이다. 문으로 나와 오른편으로 굽어서 유리창(琉璃廠)¹²¹에 들어간즉, 첫 거리에 오류거(五柳

119 득상(得賞) 종인(從人) : 상을 탈 자격을 지닌 수행원.

120 천주당(天主堂) : 당시 북경에는 네 천주당이 있었는데, 연암이 찾아간 곳은 곧 선무문 안 서천주당(西天主堂)이었다.

121 유리창(琉璃廠) : 북경성 남부에 있는 거리. 본래는 해왕촌(海王村)이었으나, 유리가마가 있으므로 이

居)¹²²라는 세 글자의 간판이 붙었다. 이는 곧 도옥(屠鉢)¹²³의 책사이다. 지난해에 무관(懋官)들이 이 책사에서 책을 많이 샀다 해서 꽤 흥미 있게 오류거를 이야기하더니, 이제 이곳을 지나고 보니 마치 옛 친구를 만난 듯싶다. 그리고 무관이 나를 떠나보낼 때에 또 말하기를,

“만일 당원항(唐鴛港)[낙우(樂宇)]을 찾으려거든, 먼저 선월루(先月樓)에 가서 그 남쪽 조그만 거리로 돌아들면 둘째 번 대문이 곧 당씨(唐氏)의 댁이랍니다.”

하였다. 곧 차를 몰아 양매서가(楊梅書街)에 이르러 우연히 육일루(六一樓)에 올랐다가 유황포(俞黃圃)[세기(世奇)]를 만나서 잠깐 이야기할 제, 서문포(徐文圃)[황(璜)]와 진립재(陳立齋)[정훈(庭訓)] 등이 마침 자리에 있었다. 그들은 모두 아담한 선비이기에 날을 골라 이곳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수레를 돌려 북쪽 골목으로 들어가니, 길가에 금자로 ‘선월루(先月樓)’라 쓴 것이 별안간 수레 앞에 눈부시게 보인다. 이 역시 책사이다. 곧 수레에서 내려 두 하인과 함께 당씨(唐氏)의 집을 찾아갔는데, 마치 익숙한 곳을 찾듯이 했다. 문 앞에 하인 셋이 나오더니,

“대감께선 아침 일찍 아문(衙門)에 나가셨답니다.”

한다. 나는,

“그럼, 어느 때쯤이나 돌아오실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묘시(卯時)에 나가셔서 유시(酉時)면 돌아오십니다.”

한다. 그 중 한 사람이,

“잠깐 외관(外館)에 올라 땀을 들이시지요.”

하기에 곧 따라가니, 옹졸한 학구(學究) 한 사람이 나와 맞이한다. 그의 성은 주(周)라고 기억되나 이름은 잊어버렸다. 앞서 듣건대, 원항이 아들 다섯을 두었는데 모두들 잘났다더니, 이제 두 아이가 방에서 나와 공손히 읍하는 것을 보니, 묻지

름지었다. 명 때부터 서화와 골동의 저자로 유명하였다.

122 오류거(五柳居) : 유리창의 서문 가까이 있는 서사(書肆). 주인 도정상(陶正祥)은 서지학(書誌學)에 밝아서, 사고전서(四庫全書) 중에 강남(江南)의 희서(稀書)를 많이 바쳤다.

123 도옥(屠鉢) : 이문조(李文藻)의 <유리창서사기(琉璃廠書肆記)>에는, 오류거의 주인이 ‘도씨(陶氏)’로 되어 있다.

않아도 원항의 아들임이 틀림없기에 나는 그 두 아이의 나이를 물었더니, 맏이는 열셋, 다음은 열하나였다. 나는 곧,

“형의 이름은 장우(張友)고, 아우의 이름은 장요(張瑤)가 아니냐?”

하고 물었더니, 둘이 함께,

“예에, 그렇습니다. 어른께선 어찌 아시옵니까?”

한다. 나는,

“너희들이 글 잘 읽는다 하여 이름이 해외(海外)에까지 들리기에.”

하였다. 조금 뒤에 그 집 하인이 파초잎 모양으로 생긴 흰 주석 쟁반을 받들고 나와서 더운 차 한 그릇, 빈과(蘋果) 세 개, 양매탕(楊梅湯) 한 그릇을 은근히 권한다. 그리고 하인이 그 집 늙은 마나님의 말씀을 전갈하되,

“지난해 조선 어른 두 분이 가끔 제 집에 놀러 오셨는데, 지금도 평안하신지요. 만일 청심환 가지고 오신 게 있으시면 한 두 개 주십시오.”

한다. 나는,

“마침 지니고 온 것이 없사오니, 뒷날 다시 올 때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답을 전했다. 앞서 듣기애, 당씨의 늙은 마나님은 늘 동락산방(東絡山房)에 있으며, 나이가 여든이 넘어도 근력이 오히려 좋다더니, 이제 하인이 멀리 손으로 가리키며,

“노마나님이 방금 중문에 나오셔서, 귀국 사람들의 옷차림을 구경하시고 계십니다.”

한다. 나는 바로 보기가 겸연쩍어서 못 본 체하고는, 붉은 종이로 만든 중머리 부채 두 자루와 여러 가지 빛깔의 시전지(詩箋紙)를 내어 장우와 장요에게 나눠 주고, 열흘 안으로 다시 오리라 약속하고 곧 일어나 문을 나섰다. 돌아보니 마나님이 오히려 중문에 섰고 아환(丫鬟) 둘이 옆에서 부축하고 있다.

멀리서 바라보니, 학발(鶴髮)이 그 머리를 덮었으나 몸이 웅건해 보이고, 아직도 화장과 보물 꾸미개를 폐하지 않았다. 두 하인의 말이,

“아까 당씨의 여러 하인이 우리들을 좌우로 에워싸서 뜰 가운데에 세워 놓고, 늙은 마나님이 우리 옷을 벗겨서 그 제도를 보겠다 하므로, 소인들이 황공하여 감히 바

로 치어다보지 못하고, ‘날이 더워서 입은 것이 단지 홀적삼뿐입니다’ 하니, 그는 돌려 세워 보기도 하고 모로 세워 보기도 하고는, 다시 여러 하인을 시켜 깃고대·도련을 들추어보고, 술과 먹을 것을 내어다 먹입니다. 소인들의 의복이 이렇게 남루해서 부끄러워 죽을 뻔했습니다.”

한다. 돌아오는 길에 회자관(回子館 이슬람 교당)에 들러 구경하였다.

4일 경술(庚戌)

개다. 더위가 심하여 삼복(三伏)이나 다름 없었다. 수레를 몰아 정양문을 나와서 유리창을 지나면서,

“이 창(廠)이 모두 몇 칸이나 되는지요?”

하고 물었더니, 어떤 이가,

“모두 27만 칸이나 된답니다.”

하고 답한다. 대개 정양문에서부터 가로 뻗어 선무문에 이르기까지의 다섯 거리가 모두들 유리창이었고, 국내와 국외의 모든 보화가 이에 쌓였다.

내 그제야 한 누(樓) 위에 올라서 난간에 기대어 탄식하였다.

“이 세상에 진실로 저를 아는 사람 하나를 만났다 하더라도 한이 없을 것이다. 아아, 인정은 대체 제 몸을 알고자 하되 이를 알지 못하면, 때로는 커다란 바보나 또는 미치광이처럼 되어서, 저 아닌 남이 되어 저를 보아야만 저도 비로소 다른 물건과 다를 바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경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몸이 움직이는 곳마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것이다. 성인은 이 방법을 지녔으므로 세상을 버리고도 아무런 고민이 없으며, 외로이 서 있어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는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남이 나를 알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여운 뜻을 품지 않는다면 어찌 군자(君子)가 아니겠느냐’ 하였고, 노담(老聃 노자(老子))도 역시, ‘나를 알아 주는 이가 드물다면 나는 참으로 고귀한 존재이다’ 하였으니, 이렇듯이 남이 나를 몰라 보았으면 하여, 혹은 그의 의복을 바꾸기도 하려

니와, 혹은 그 얼굴을 못 알아보게 하고, 혹은 그 성명을 갈아 버린다. 이는 곧 성(聖) · 불(佛)과 현(賢) · 호(豪)들이 세상을 한 개의 노리개로 보아서, 비록 천자의 자리를 준다 하더라도 그의 즐거움과 바꾸지 않는 깊닭이다. 이러한 때에 천하에 혹시 한 사람만이라도 저를 아는 이가 있다면, 그의 자취는 드러나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실(實)에 있어서는, 천하에 단지 한 사람만이라도 그를 알아 주는 이가 없음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요(堯)가 미복(微服)으로 강구(康衢)에서 놀았으나 격양가(擊壤歌)¹²⁴를 부르는 늙은이가 나타났고, 석가(釋迦)가 얼굴을 달리 하였으나 아난(阿難 석가의 유품가는 제자)이 그를 알았고, 태백(太伯)¹²⁵은 몸에 그림을 띠서 놓아 남만(南蠻)으로 도피하였으나 중옹(仲雍)¹²⁶이 뒤를 따랐고, 예양(豫讓)¹²⁷은 몸에 칠을 하였으나 그 벗이 알았고, 삼려대부(三閭大夫)¹²⁸는 얼굴이 파리했을 때에 어부(漁夫)가 알았고, 치이자(鴟夷子 범려(范蠡)의 호)가 오호(五湖)에 둘 때 서시(西施)가 따랐고, 장록(張祿)¹²⁹은 객관에서 가만히 걸을 때 수가(須賈)¹³⁰를 만났고, 장자방(張子房)은 이교(圯橋 다리 이름)에서 조용히 걸을 때 황석공(黃石公)을 만났다.¹³¹ 이제 내 이 유리창 중에 홀로 섰으니, 그 옷과 갓은 천하

124 격양가(擊壤歌) : 요가 미복으로 큰 거리를 미행하였을 때에, 격양하던 농부가 친송의 노래를 불렀다.

125 태백(太伯) : 주(周)의 왕자로서, 그 자리를 아우에게 양보하여 남만으로 도피하였다.

126 중옹(仲雍) : 태백의 아우, 곧 우중(虞仲). 태백이 자기에게 임금 자리를 양보함을 보고 자기도 뒤를 따랐다.

127 예양(豫讓) : 전국 때 지백(智伯)의 신하. 지백이 죽자,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몸에 옷칠을 하고 입에 속을 머금어서 문동이와 병어리로 행세하였을 때, 그의 아내는 알아보지 못하였으나 그의 벗 중에는 아는 이가 있었다.

128 삼려대부(三閭大夫) : 전국 초(楚)의 정치가이며, 문학가 굴평(屈平). 삼려대부는 벼슬. 자는 원(原), 또는 영균(靈均). 그가 정체에서 추방된 뒤에 어부사(漁父辭)를 지었는데, 그 중에 어부와 문답한 말이 있다.

129 장록(張祿) : 전국 때 진(秦)의 정치가 범저(范雎)의 변성명.

130 수가(須賈) : 전국 때 위(魏)의 고관. 일찍이 범저를 박대했는데, 진(秦)에 사신갔을 때에 범저를 만나서 그의 궁곤을 측은히 여겨 선물을 주었으나, 실은 그때 범저는 이미 진의 승상이 되었는데 궁곤을 가장하여 수가를 속였다.

131 장자방(張子房)은……만났다 : 자방은 장량(張良)의 자. 황석공은 장량에게 비서(秘書)를 전해 준 도사. 장량이 창해(滄海)의 역사(力士)로 하여금 진시황을 저격(狙擊)하게 하고는 조용히 이 다리에서 걸을 때, 황석공이 비서(秘書)를 주었다.

에 모르는 바이요, 그 수염과 눈썹은 천하에 처음 보는 바이며, 반남(潘南 연암의 관향)의 박(朴)은 천하에 일찍이 듣지 못하던 성일지라도, 내 이에서 성(聖)도 되고 불(佛)도 되고 현(賢)도 되고 호(豪)도 되어, 그 미침이 기자(箕子)나 접여(接輿)와 같기로,¹³² 장차 그 누가 와서 이 천하의 지락(至樂)을 논할 수 있겠는가. 어떤 이가 문기를, ‘공자께서 송(宋)을 지나갈 때¹³³에 무슨 관(冠)을 쓰셨을까’ 하기에, 나는, ‘아마 우물과 창고와 평상과 거문고¹³⁴가 벌여 있고, 그는 앞에 있었던 것이 별안간 뒤에 있었을 것이며,¹³⁵ 또 물고기 가죽이나 표범 무늬처럼 별의별 변덕이 많았을 테니,¹³⁶ 누가 그 참된 모습을 알 수 있으리오’ 하고는 깔깔 웃었다. 그러므로 그는 이르기를, ‘선생님께서 계시니 회(回)가 감히 죽을 수 있겠습니까’¹³⁷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볼 때, 공자가 천하의 지기(知己)를 논한다면 오직 안자(顏子) 안회를 높여 부르는 말) 한 사람이 있었을 따름일 것이다.”

132 그 미침이……같기로 : 세상에 뜻을 잃고 미친 척하고 산 사람. 은(殷) 말의 기자는 거짓 미쳐서 종이 되었고, 접여는 전국 초(楚)의 광사(狂士) 육통(陸通).

133 공자께서……때 : 공자가 일찍이 송의 광(匡) 땅 사람에게 습격을 당해서 미복으로 지나갔다.

134 우물과……거문고 : 《맹자(孟子)》에 나오는 순(舜)과 상(象)의 고사. 여기서는, 이 네 가지는 학자의 일상생활에 보통 있을 수 있는 것임을 의미한다.

135 그는……것이며 : 공자의 제자 안회(顏回)가 공자의 학문이 변화 무궁하여 포착할 수 없음을 찬송한 말로, 《논어》에 실렸다.

136 물고기……테니 : 《역경》에 “군자는 표변(豹變)한다” 하였다.

137 선생님께서……있겠습니까 : 이 한 구절은, 공자가 미복으로 송을 지나치다가 안회가 뒤쳐졌던 것을 죽은 줄만 알았다고 하였을 때에 안회가 답한 말인데, 《논어》에 실렸다.



막부행정록

막북행정록(漠北行程錄)

8월 5일 신해(辛亥)에 시작하여 8월 9일 을묘(乙卯)에 그쳤다. 모두 닷새 동안이다. 연경(燕京)으로부터 열하(熱河)에 이르기까지이다.

막북행정록 서(漠北行程錄序)¹

열하는 황제의 행재소(行在所 군주가 임시 머무는 곳)가 있는 곳이다. 옹정 황제 때에 승덕주(承德州)를 두었는데, 이제 건륭 황제가 주(州)를 승격시켜 부(府)로 삼았으니 곧 연경의 동북 4백 20리에 있고, 만리장성(萬里長城)에서는 2백여 리이다. 《열하지(熱河志)》²를 상고해 보면,

“한(漢) 시대에 요양(要陽) · 백단(白檀)의 두 현(縣)으로 어양군(漁陽郡)에 속하였고, 원위(元魏) 때에는 밀운(密雲) · 안락(安樂) 두 군(郡)의 변계로 되었고, 당대(唐代)에는 해족(奚族)의 땅이 되었으며, 요(遼)는 흥화군(興化軍)이라고 하여 중경에 소속시켰고, 금(金)은 영삭군(寧朔軍)으로 고쳐서 북경에 소속시켰으며, 원(元)에서는 고쳐서 상도로(上都路)에 속하였다가 명(明)에 이르러서는 타안위(朵顏衛)의 땅이 되었다.”

하니, 이는 곧 이때까지 열하의 연혁(沿革)이다. 이제 청(清)이 천하를 통일하고는 비로소 열하라 이름하였으니 실로 장성 밖의 요해의 땅이었다. 강희 황제 때로부터 늘 여름이면 이곳에 거동하여 더위를 피하였다. 그의 궁전들은 채색이나 아로새김도 없이 하여 피서산장(避暑山莊)이라 이름하고, 여기에서 서적을 읽고 때로는 임천(林泉)을 거닐며 천하의 일을 다 잊어버리고는 짐짓 평민이 되어 보겠다는 뜻이 있는 듯하다. 그 실상은 이곳이 험한 요새이어서 몽고의 목구멍을 막는 동시에 북쪽 변새 깊숙한 곳이었으므로 이름은 비록 피서(避暑)라 하였으나, 실상인즉

1 막북행정록 서(漠北行程錄序) : 이 소제는 다른 본에는 없었으나, 이제 ‘주설루본’에 의하여 추록하였다.

2 《열하지(熱河志)》 : 열하의 지지(地志)이니, 건륭 42년에 고종의 칙명에 의하여 엮었다.

천자 스스로 북호(北胡)를 마음이었다. 이는 마치 원대(元代)에 해마다 풀이 푸르면 수도를 떠났다가, 풀이 마르면 남으로 돌아옴과 같음이다. 대체로 천자가 북쪽 가까이 머물러 있어서 자주 순행하여 거동을 하면, 북방의 모든 호족들이 함부로 남으로 내려와서 말을 놓아 먹이지 못할 것이므로 천자의 오고 감을 늘 풀의 푸름과 마름으로써 시기를 정하였으니, 이 피서라는 이름도 역시 이를 이름이었다. 올봄에도 황제가 남방을 순행하였다가 바로 북쪽 열하로 온 것이다.

열하의 성지와 궁전은 해로 더하고 달로 늘어서, 그 화려하고 튼튼하고 웅장함이 저 창춘원(暢春苑)이라든가 서산원(西山苑) 들보다도 지나친다. 뿐만 아니라 그 산수의 경치도 오히려 연경보다 나으므로 해마다 이곳에 와서 머물게 되었으며, 애초에는 외적을 막기 위했던 곳이 도리어 방탕한 놀이터로 발전되었다. 이제 우리나라 사신이 갑자기 열하로 오라는 명을 받아서 밤낮 없이 달려 닷새 만에야 겨우 다달았으니, 그 노정을 짐작하건대 4백여 리뿐이 아닐 것이다. 열하에 와서 산동도사(都司) 혁성(郝成)과 함께 이정의 원근을 논할 제 그도 역시 열하에 처음 온 모양이다. 그의 말이,

“대개 구외(口外)에서 북경이 7백여 리이나, 강희 황제 이후로 해마다 이곳에 피서하여 석왕(碩王 황제의 아들) · 액부(額駙)³와 각부 대신(閣部大臣)들이 닷새마다 한번씩 조회하게 마련되었는데, 길에 빠른 여울, 사나운 큰물, 높은 고개, 험한 언덕이 많아서 모두들 그 험하고도 면 곳으로의 발섭(跋涉)을 꺼리므로 강희 황제가 일부러 참(站 차참(車站))을 줄여 4백여 리를 만든 것이지 그 실은 7백 리나 됩니다. 그러나 모든 신하들이 늘 말을 달려와서 일을 품하므로, 막북(漠北)을 문앞처럼 여기고 몸이 안장 위에 떠날 겨를이 없으니, 이는 성군(聖君)이 편안할 때 오히려 위태로움을 잊지 않으려는 뜻이랍니다.”

하니, 그의 말이 근사한 듯싶다. 그리고 고염무(顧炎武)의 <창평산수기(昌平山水記)>에,

“고북구역(古北口驛)으로부터 북으로 56리를 가서 청송(青松)이란 곳이 한 참(站)

3 액부(額駙) : 부마(駙馬)의 만주어. 예를 들면 화석공주(和碩公主)에 장가든 사람을 화석액부(和碩額駙)라 한다.

이고, 또 50리를 가서 고성(古城)이라 하는 곳이 한 참이며, 또 60리를 가서 회령(灰嶺)이란 곳이 한 참이고, 또 50리를 가서 난하(灘河)라 하여 한 참이다.”

하였으나, 이제 난하를 건너서 열하까지 40리인즉, 고북구(古北口)로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모두 2백 56리이다. 이를 보더라도 벌써 56리가 《열하지》에 기록된 것 보다 많다.

구외(口外)의 노정(路程)이 서로 이렇게 어긋나니 장성 안이야 더욱 그러할 것을 짐작할 수 있겠다. 이제 이 걸음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처음일뿐더러 밤낮을 헤아리지 않고 달려와서 마치 소경이 걷는 것이나 꿈결에 지나치는 것 같아서, 역참이며 돈대를 일행 중에 아무도 자세히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 《열하지》를 상고하니 4백 20리라 하였으즉, 그를 죽을 수밖에 없다.

가을⁴ 8월 5일 신해(辛亥)

개고 덥다.

아침 사시(已時)에 사은겸진하정사(謝恩兼進賀正使)⁵를 따라 연경으로부터 열하길을 떠날 때 부사 서장관과 역관 세 사람, 비장 네 사람, 또 하인들, 모두 일흔넷이고, 말이 모두 천마섯 필이다. 그 나머지는 모두 서관(西館)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

애당초 책문을 들어선 뒤로, 길에서 자주 비를 만나고 물이 막히어 통원보(通遠堡)에서는 앉아서 5~6일을 허비했으므로 정사가 밤낮으로 근심하였다. 나는 때마침 그 건너편 구들에 묵었으므로 비 소리가 들리는 밤이면 곧 불을 밝히고 밤을 새웠다. 그리하여 휘장을 넘어 나에게 말로,

“천하 일은 알 수 없는 것일세. 만일 우리 일행을 열하까지 오라고 하는 일이 있다

4 가을 : '수택본'에는 이 위에 '건륭 45년 경자'라는 한 구절이 있으나, 그를 따르지 않았다.

5 사은겸진하정사(謝恩兼進賀正使) : 사은사(謝恩使)와 진하사(進賀使)를 겸한 정사. 곧 박명원을 말한다.

면 날짜가 모자랄 것인즉, 그때에는 장차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설사 열하로 가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마땅히 만수절(萬壽節 황제의 탄일)은 대어 가야 할 것인데, 다시 심양과 요양의 사이에서 비에 막히는 일이 있다면, 이야말로 속담(俗談)에 밤새도록 가도 문에 닿지 못하였다⁶는 격이 아니겠는가.”

하고 걱정하였다. 그러다가 밝은 날 백방으로 물 건널 계책을 세울 제 여러 사람들 이 이를 말리면, 그는 곧,

“나는 나랏일로 왔으니 물에 빠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는 내 직분이라, 또한 어찌하리.”

한다. 이로부터 아무도 감히 물이 많아서 건너지 못하겠다는 말이 없었다. 때마침 더위가 심하고, 또 이곳에는 비오지 않은 날에도 마른 땅이 갑자기 물바다를 이루는 일이 일쑤이니, 이는 모두 저 천리 밖에서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물을 건널 때면 모두 몸이 떨리고 앞이 깁깝하여, 낯빛을 잊고 하늘을 우러러 가만히 잠깐 동안 목숨을 빌지 않은 자 없었으며, 그리하여 저쪽편에 도달한 뒤에야 비로소 서로 돌보며 축하의 말들을 나누되 마치 죽을 고비를 겪고 난 사람이나 만난 듯이 하였으나, 다시 앞 물이 지나간 물보다 더하다는 말을 듣고는 더욱 놀라서 서로 돌보며 생각이 막연할 뿐이었다. 그러면 정사는,

“제군들은 걱정마소. 이 역시 왕령(王靈)이 도우시리.”

하고는, 불과 몇 리도 못 가서 다시 물을 건너게 되고, 어떤 때에는 하루에 여덟 번이나 건너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쉴 참을 뛰어가며 쉴 새 없이 달렸으므로 말이 많이 더위에 쓰러지고, 사람 역시 모두 더위를 먹어서 토하고 싸게 되면, 문득 사신을 월망하되,

“열하 갈 일이야 만무할 텐데 이렇듯 한 더위에 쉴 참을 뛰어감은 전례에 없는 일이에요.”

하며, 투덜거리고, 혹은,

“나랏일이 아무리 중하다손 정사께선 늙고 또 쇠약하신 분이 이렇게 몸을 가벼이 하시다가 만일 덫나시기나 하면 도리어 일을 그르치는 거요.”

6 밤새도록……못하였다 : 우리나라에서 많이 유행되는 말.

하고, 또는,

“지나치게 서두르면 도리어 더딘 법이라오.”

하고, 또는,

“앞서 장계군(長溪君)이 진향사(進香使)로 왔을 때 책문 밖에서 물이 막혀 침상(寢牀)을 조개어서 밥 지으며 열이례를 묵었어도 쉴 참을 뛰어가는 일은 없었다오.”

하고, 옛 일까지 끌어대곤 하였다. 그리하여 8월 초하룻날 연경에 닿아서 사신은 곧 예부(禮部)에 가서 표문과 자문(咨文)을 바치고 서관에서 나흘을 묵었으나 별다른 지시가 없으므로 그제야 모두들,

“과연 아무런 염려는 없나보다. 사신이 매양 우리 말을 곧이 안 들으시더니 글쎄 그런 것을. 아무튼 일이야 우리들이 잘 알지. 참대로 왔어도 열사흘날 만수절에야 넉넉히 대어 올 것을.”

하며, 빤정거리었다. 그리하여 더욱 열하는 염에도 두지 않았으며, 사신도 차츰 열하고 갈 걱정을 놓기 시작하였다.

초나흘날, 나는 구경 나갔다가 저녁 때 취하여 돌아와서 이내 곤히 잠들어서 밤중에야 잠깐 깨었다. 남들은 별써 깊이 잠들었고 목이 뽑시 마르기에 상방(上房)에 가서 물을 찾았다. 방안에는 촛불을 밝혔는데, 정사가 내 오는 기척을 듣고는 불러서,

“아까 잠깐 졸았더니 꿈결에 열하 길을 떠났는데 행리(行李)가 역력하데그려.”

하시기에, 나는,

“길 뜨신 뒤로 열하가 늘 생각에 떠올랐으므로 이제 비록 편안히 계시어도 오히려 꿈에 오르는가 보지요.”

하며 대답하고, 물을 마시고 돌아와서 이불에 들어 곧 코를 골았다. 꿈결에 별안간 여러 사람의 벽돌 밟는 발자국 소리가 마치 담이 허물어지고 집이 쓰러지듯이 요란스레 들리므로 깜짝 놀라서 별떡 일어나 앉으니,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린다. 내 하루 종일 나가 돌아다니다가 밤에 돌아와 누우면 매양 관문(館門)이 깊이 잠긴 것을 생각할 제 마음이 읊적하여 여러 가지 망념에 사로잡히곤 했다.

이는 곧 옛날 원 순제(元順帝)가 북으로 도망갈 제 그제야 고려의 사신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니 사신은 관을 나서서야 비로소 명 나라의 군대가 온 천하를 점령한 줄 알았고, 가정(嘉靖) 때에는 임답(俺答 달단(韃靼)의 추장)이 갑자기 수도를 에워싼 일이 있다고 한다. 어젯밤에 내가 변군·내원과 이 이야기를 하고 웃었다. 이제 저렇듯 요란스러운 발자국 소리가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으나 큰 변고가 일어난 것은 틀림없는 듯싶다. 급히 웃을 주워 입을 제 시대(時大)가 달려 와서,

“이제 곧 열하로 떠나게 되었답니다.”

한다. 그제야 내원과 변군도 놀라 깨어서,

“관에 불이 났소.”

하기에, 나는 짐짓 장난으로,

“황제가 열하에 거동하여 연경이 비어서 몽고 기병(騎兵) 십만 명이 쳐들어 왔다 오.”

했더니, 변군들이 놀라서,

“아이고.”

한다. 내가 곧 바삐 상방으로 간즉 온 관이 물끓듯 한다. 통관(通官) 오림포(烏林哺) · 박보수(朴寶秀) · 서종현(徐宗顯) 등이 달려와서 모두 황급하여 얼굴빛을 잊고서 혹은 제 가슴을 두드리고 혹은 제 뺨을 치며 혹은 제 목을 끊는 시늉을 하며 외치고 울면서,

“이제야 카이카이[開開]요.”

한다. ‘카이카이’는 목이 달아난다는 말이었다. 또 펄펄 뛰며,

“아까운 목숨 달아난다.”

한다. 아무도 그 까닭을 묻지 못하나 그 하는 짓거리는 몹시 흥측하고 웅파스러웠다. 이는 대체로 황제가 날로 조선 사신을 기다리다가 급기야 주문(奏文)을 받아 보고는, 예부가 조선 사신을 행재소(行在所)로 보낼 것인가 또는 아니 보낼 것인가를 품하지 않고서, 다만 표문만 올렸음을 노하여 감봉(減俸) 처분을 내렸으므로, 상서(尚書) 이하 연경에 있는 예부의 관원들이 황송하여 어쩔 줄을 모르고 다만 얼른 짐을 꾸리고 인원을 줄이어서 빨리 떠나도록 독촉할 따름이었다.

이에 부사와 서장관이 모두 상방에 모여서 데리고 갈 비장을 뽑는데, 정사는 주 주

부 명신(命新), 부사는 정 진사 창후(昌後), 이 낭청(李郎廳) 서귀(瑞龜)를 지명하고, 서장관은 조 낭청(趙郎廳) 시학(時學)을 데리고 수역 홍 첨추(洪僉樞) 명복(命福)과 조 판사(趙判事) 달동(達東), 윤 판사(尹判事) 갑종(甲宗)이 수행하기로 하였다. 나는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첫째 면 길을 겨우 쫓아 와서 안장을 끄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피곤이 가시지 않은 데다가 다시 면 길을 떠남은 실로 견딜 수 없는 노릇이요, 둘째는 만일 열하에서 바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황경(皇京) 구경이 낭패가 되는 것이다. 전례에 황제가 우리나라 사행을 각별히 생각하여 빨리 돌아가도록 분부한 특별 은전이 있었으니, 이번에도 십중팔구는 바로 돌아보낼 염려가 없지 않다 하고 내가 주저하던 차에, 정사가 나더러,

“자네가 만 리 연경을 멀다 않고 온 것은 널리 구경하고자 함이거늘, 이제 열하는 앞서 온 사람들의 보지 못한 곳일뿐더러 돌아간 뒤에 열하가 어떻더냐고 묻는 이가 있다면 뭐라 대답할 것인고. 그리고 연경은, 온 사람치고는 다 본 바이지만 이번 길이야말로 좀처럼 얻기 어려운 기회이니 꼭 가야만 할 것이 아닌가?”

하기에, 나는 드디어 가기로 정하였다. 그리하여 정사 이하로 직함과 성명을 적어서 예부로 보내어 역말 편에 먼저 황제에게 알리기로 하였으나, 나의 성명은 단자(單子) 속에 넣지 않았으니, 이는 별상(別賞)⁷이 있을까 보아서 피혐(避嫌)한 것이었다.

그제야 인마를 점고(點考)할 때 사람은 밭이 모두 부르트고, 말은 여위고 병들어서 실로 대어갈 것 같지 아니하다. 이에 일행이 모두 마두를 없애고 견마잡이만 데리고 가기로 하여 나도 하는 수 없이 장복을 떨어뜨리고 창대만 데리고 가기로 했다. 변군과 노 참봉(盧叅奉) 이점(以漸), 정 진사(鄭進士) 각(珏), 건량 판사(乾糧判事) 조학동(趙學東) 등은 관문 밖에서 손 잡고 서로 작별할 제 여러 역관들도 다투어 와서 손을 잡으며 무사히 다녀 오기를 빌었다. 남아 있고 떠나고 하는 이 마당에 자못 처연함을 금치 못하였으니, 이는 함께 외국에 와서 또 다시 외국에서 헤어지게 되는 만큼 인정이 어찌 그렇지 않으리오. 마두들이 다투어 빈과(蘋果)와 배를 사서 드리므로 각기 한 개씩을 받았다. 그들은 모두 첨운페루(瞻雲牌樓) 앞까지

7 별상(別賞) : 청의 황제가 유상(有賞) 종인(從人)에 주는 상사(賞賜).

이르러서 말 머리에서 절하고 작별할 때, 각기,

“귀중하신 몸 조심하소서.”

하고는, 눈물을 짓지 않는 이가 없었다.

지안문(地安門)에 드니, 지붕은 누런 유리기와를 이었고 문안 좌우에는 시전이 번화·장려하여, 이른바 수레바퀴가 서로 부딪치고 사람 어깨가 서로 스치고 땀은 비 같으며, 소매는 천막을 이루었다⁸는 말이 곧 이를 이름이었다. 문을 나서서 다시 꼬부라져 북으로 자금성(紫禁城)을 끼고 돌아 7~8리를 갔다. 자금성은 높이가 두 길이며 밑바닥을 돌로 깔고 벽돌로 쌓아 올리고, 누런 기와를 이고 주홍빛 석회를 칠했는데, 벽은 마치 대패로 민 듯하고 그 윤기가 왜칠(倭漆)한 것 같았다. 길 가운데 대여섯 발 되는 높은 돈대가 있고 그 위에는 삼층 다락이 있는데, 그 제도는 정양문루(正陽門樓)보다도 훌륭하고 돈대 밑에는 붉은 난간을 둘렀으며 문이 있으나 모두 잠기었고 병졸들이 지키고 섰다. 혹자가 말하기를,

“이것이 곧 종루(鍾樓)입니다.”

한다. 거기에서 30~40리를 가서 동직문(東直門)을 나서니 내원이 따라와서 슬피 작별하여 가고, 장복은 말 등자를 붙잡고 흐느껴 울며 차마 헤어지기 어려워한다. 내가 돌아가라 타이른즉 또 창대의 손목을 잡고 서로 슬피 우는데 눈물이 마치 비 내리듯 한다. 이 만 리를 짹지어 와서 하나는 가고 하나는 떨어지니, 인정이 그렇지 않을 수 없겠다. 나는 이내 말 등에서 생각하기를,

“인간의 가장 괴로운 일은 이별이요, 이별 중에도 생이별(生離別)보다 괴로운 것은 없을 것이다. 대개 저 하나는 살고 또 하나는 죽고 하는 그 순간의 이별이야 구태여 괴로움이라 할 것이 못 된다. 왜냐하면 예로부터 인자한 아버지와 효성스러운 아들, 믿음 있는 남편과 아름다운 아내, 정의로운 임금과 충성스러운 신하, 피로 맺은 벗과 마음 통하는 친구들이 그의 역책(易簱)⁹할 때에 마지막 교훈을 받들거나 또는 궤석(几席)에 기대어 말명(末命)을 받을 즈음, 서로 손을 잡고 눈물 지

8 수레바퀴가……이루었다 : 전국 때 제(齊)의 수도 임치(臨淄)의 변화함을 설명한 말. 《사기(史記)》에 나온다.

9 역책(易簱) : 공자의 제자 증참(曾參)이 운명할 때에 제자를 시켜 자리를 바꿨으므로, 스승의 운명을 역책이라 한다.

며 뒷일을 정녕히 부탁함은 이 천하의 부자·부부·군신·봉우가 다 한가지로 겪는 바이요, 이 세상 사람의 인자와 효도, 믿음과 아름다움, 정의와 충성, 혈성(血誠)과 지기(知己)에 솟아나온 정리는 한결같을 것이다. 이것이 사람마다 한가지로 겪는 바이요, 사람마다 한결같이 솟는 정이라면 이 일은 곧 천하의 순리일 것이다. 그 순리를 행함에 있어서는 삼년(三年) 동안을 아버지의 도(道)를 고치지 말라¹⁰ 하였고, 또는 구원(九原)에서 다시 살려 일으켰으면 함¹¹에 불과하였고, 살아 남은 자의 괴로움을 논한다면 부모를 따라서 죽으려는 이,¹² 아들을 여의고 눈이 먼 이,¹³ 분(盆)을 두들기며 노래 부르는 이,¹⁴ 거문고 시위를 끊은 이,¹⁵ 숯을 머금고 병어리된 이,¹⁶ 슬퍼 울어 성(城)을 무너뜨린 이¹⁷ 들도 있거니와, 나랏일을 위하여 몸이 망쳐져 죽은 뒤에야 만 이¹⁸도 없지 않으나 모두 죽은 이에겐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인즉, 역시 그들에게 괴로움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천고에 임금과 신하의 사이로는 반드시 부견(苻堅 전진(前秦)의 임금)과 왕경략(王景略 부견의 승상), 당 태종(唐太宗)과 위 문정(魏文貞 당 태종 때의 직신인 위징(魏徵)의 시호)이라 일컬으나 나는 아직 경략을 위하여 눈이 멀고 문정을 위하여 시위를 끊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노라. 오히려 무덤의 풀이 어울리기 전에 그 채찍을 던지고¹⁹ 그 비(碑)를 넘어뜨려 구원(九原)에 깊이 간직한 사람에게 부끄러울 바가 있었은즉,²⁰ 이로써 보

10 삼년(三年)……말라 : 《논어》에 나오는 말.

11 구원(九原)에서……함 : 《예기(禮記)》에 나오는 조문자(趙文子)의 말.

12 살아……이 : 《효경(孝經)》에 나오는 실사.

13 아들을……이 : 《복상(卜商) 즉 자하(子夏)의 고사.

14 분(盆)을……이 : 《남화경(南華經)》에 나오는 장주(莊周)의 고사. 아내가 죽으매 분을 두들기며 노래하였다.

15 거문고……이 : 종자기(鍾子期)가 죽으매 백아(伯牙)가 거문고 줄을 끊고 뜯지 않았다.

16 숯을……이 : 예양(豫讓)이 그의 임금 지백(智伯)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숯을 머금어 병어리가 되었다.

17 슬퍼……이 : 기량(杞梁)이 죽으매 그 아내가 울어서 성을 무너뜨렸다.

18 나라……이 : 제갈량(諸葛亮)의 〈출사표(出師表)〉에서 나온 구절.

19 무덤의……던지고 : 부견이 처음에는 왕맹을 써서 국세가 크게 떨치고 강북을 통일했으나, 그의 유언을 지키지 않고 남으로 진(晉)을 치다가 패하여 나라가 망했다.

20 비(碑)를……있었은즉 : 위징이 죽은 뒤에 당 태종이 몹시 슬퍼하였으나, 고구려 정벌을 반대했다 하여 나중에는 그 묘비(墓碑)를 넘어뜨리었다가, 고구려 정벌에 실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를 뉘우쳐서 다시 세웠다.

면 살아 남은 자로서 괴로움을 느끼지 못한 이도 없지 않으리라. 또 세상 사람이 흔히들 사생의 즈음에 대하여 너그럽게 위안하는 말로,
“순리(順理)로 지냄이 옳지.”

한다. 그 순리로 지낸다는 말은 곧 이치를 따르라는 말이다. 만일 그 이치를 따를 줄 안다면 이 세상에는 별써 괴로움이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는 살고 또 하나는 죽고 하는 그 순간의 이별이야 구태여 괴로움이라 할 것이 못 된다.”

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별의 괴로움은 하나는 가고 하나는 떨어지는 때의 괴로움보다 더함이 없을 것이다. 대개 이러한 이별에 있어서는 별써 그 땅이 그 괴로움을 돋우는 것이니, 그 땅이란 정자(亭子)도 아니며, 누각(樓閣)도 아니며, 산도 아니며 들판도 아니요, 다만 물을 만나야만 격에 어울리는 것이다. 그 물이란 반드시 큰 것으로 강과 바다거나 또는 작은 것으로 도랑과 개천이어야 됨은 아니고, 저 흘러가는 것이라면 모두 물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천고에 이별하는 자 무한히 많건마는 유독 저 하량(河梁)²¹을 일컫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결코 소무(蘇武)²² · 이릉(李陵)²³만이 천하의 유정(有情)한 사람이 아니건만 특히 그 하량이란 곳이 이별하는 지역으로 알맞았던 것이며, 그 이별이 그 지역을 염었으니 괴로움이 가장 심한 것이다. 저 하량은 내가 아노니, 아마 얕지도 않고 깊지도 않으며, 잔잔하지도 않고 거세지도 않은 그 물결이 돌을 이끌어 안고 흐느껴 우는 듯하며, 바람도 불지 않는, 비도 내리지 않는, 음산하지도 않는, 별도 쪼이지 않는, 그 햇볕이 땅을 감돌아 어슴프레 해미 끼고 하수 위의 다리는 오랜 세월에 곧장 허물어지려 하고, 물 가의 나무는 늙어서 가지 없이 고목이 되려 하고, 물 언덕 모래톱은 앉았다 섰다 할 수 있고, 물 속에는 물새가 있어 떴다 잠겼다 노닐며, 이 가운데 사람

21 하량(河梁) : 북방 오랑캐 땅에 있는 하수의 다리. 소무와 이릉이 이에서 작별할 때에, 이릉이 소무에게 물어 준 시가 천고에 비장강개하기 짹이 없었다.

22 소무(蘇武) : 한 무제(漢武帝)의 명신으로서 흥노(匈奴)에게 사절로 갔었는데, 그들에게 억류당하였다가 10년 만에 돌아왔다.

23 이릉(李陵) : 한 무제의 명장이요, 이광(李廣)의 손자로서, 흥노를 치다가 실패하여 흥노에게 머물고 있었다.

은 넷도 아니요, 셋도 아님에도 서로 묵묵히 말없는 이 이별이야말로 천하의 가장
큰 괴로움이 아닐 수 없으리라. 그러므로 별부(別賦)²⁴에 이르기를,

말 없이 마음 아픔 | 黯然銷魂
이별에서 더할쏜가 | 唯別而已

하였으니, 어찌 그 표현이 이렇게 멎이 없을까. 천하의 어떤 이별치고 누가 말없지
않는 이 있으며, 마음 아프지 않는 이가 있으리오. 이는 다만 한 개의 별(別) 자에
대한 전주(箋注)에 지나지 않을 말이니 그다지 괴로움이 될 것이 없으리라. 특히
이별하는 일 없이 이별하는 마음을 지닌 자는 천고에 오직 시남료(市南僚)²⁵ 한 사
람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는 이르기를,

“그대를 보내려 갔던 이가 저 아득한 강둑으로부터 돌아오니, 그대의 모습은 이로
부터 멀어졌구나.”

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천고의 애끓을 만한 말이었다. 왜냐하면 이는 곧 물에 다
다라서 이별함이니 그야말로 이별이 땅을 얻은 까닭이다. 옛날 유우석(劉禹錫)²⁶이
상수(湘水) 가에서 유종원(柳宗元)²⁷과 헤어졌다가 그 뒤 5년 만에 우석이 옛길로
부터 계령(桂嶺)을 나와 다시 앞서 이별하던 곳에 이르러 시를 읊어서 유(柳)를 슬
퍼하기를,

24 별부(別賦) : 남북조(南北朝) 때 유명한 문학가 강엄(江淹)이 이별의 슬픔을 묘사한 작품 이름.

25 시남료(市南僚) : 장주(莊周)의 『남화경(南華經)』 중에 나오는 사람.

26 유우석(劉禹錫) : 당(唐)의 문학가. 자는 몽득(夢得).

27 유종원(柳宗元) : 당의 문학가. 자는 자후(子厚). 일찍이 유주 자사(柳州刺使)로 좌천되었다.

내 말은 구슬피 숲 가린 채 울건마는 | 我馬嘆林嘶

임 싣고 감돈 배는 산 너머 아득하구나 | 君帆轉山滅

하였으니, 천고의 귀양살이꾼이 무한히 많건마는 이것이 가장 괴롭게 여겨진은 오로지 물가에서 이별한 까닭이리라.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땅이 좁은 곳이라 살아서 멀리 이별하는 일이 없으므로 그리 심한 괴로움을 겪은 일은 없으나, 다만 뱃길로 중국에 들어갈 때가 가장 괴로운 정경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대악부(大樂府)²⁸ 중에 이른바 배따라기곡(排打羅其曲)²⁹이 있으니 우리 시골 말로는 배가 떠난다는 것이다. 그 곡조가 몹시 구슬퍼서 애끓는 듯하다. 자리 위에 그림배를 놓고 동기(童妓) 한 쌍을 뽑아서 소교(小校)³⁰로 꾸미되, 붉은 옷을 입히고, 주립(朱笠) · 패영(貝纓)에 호수(虎鬚)와 백우전(白羽箭 흰 깃을 단 화살)을 꽂고, 원손엔 활시위를 잡고, 오른손엔 채찍을 쥐고, 먼저 군례(軍禮)를 마치고는 첫 곡조를 부르면 뜰 가운데에서 북과 나팔이 울리고, 배 좌우의 여러 기생들이 채색 비단에 수놓은 치마들을 입은 채 일제히 어부사(漁父辭)³¹를 부르며 음악이 반주(伴奏)되고, 이어서 둘째 곡조, 셋째 곡조를 부르되, 처음 격식과 같이 한 뒤에 또 동기가 소교로 꾸며 배 위에 서서 배 떠나는 포를 놓으라고 창한다. 이내 닻을 거두고 뜻을 올리는데 여러 기생들이 일제히 축복의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에,

닻 들자 배 떠난다 | 碇舉兮船離

이제 가면 언제 오리 | 此時去兮何時來

만경창파에 가는 듯 돌아오소³² | 萬頃蒼波去似回

28 대악부(大樂府) : 소악부(小樂府)에 비하여 장형(長型)이다.

29 배따라기곡(排打羅其曲) : 추탄(楸灘) 오윤겸(吳允謙)이 지었다 한다.

30 소교(小校) : 군교(軍校)를 따라서 죄인을 잡는 사령(使令).

31 어부사(漁父辭) : 중국 굴평(屈平)이 지은 것도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우리나라 농암(蘿巖) 이현보(李賢輔)나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의 것인 듯싶다.

32 닻……돌아오소 : 이것이 곧 배따라기곡이다.

하였으니,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눈물지울 때이다. 이제 장복은 어버이와 아들의 친함도 아니요, 임금과 신하의 의도 아니요, 남편과 아내의 정도 아니요, 동창과 친구의 사귐도 아니거늘, 그 살아서 헤어지는 괴로움이 이러한즉, 이는 그 이별하는 땅이 오로지 강이나 바다, 또는 저 하수의 다리에서만이 이러한함은 아니었으리라. 실로 이국이나 타향치고서 이별에 알맞은 땅이 아닌 것이 없는 까닭이리라. 아아, 슬프외다. 앞서 소현세자(昭顯世子 인조의 맏아들)께서 심양에 계시을 때 당시 신료(臣僚)들이 머물고 떠날 즈음이나 사신의 오가는 무렵이면 그 심회 어 떠하였으리. 임금이 욕되매 신하된 자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것도 이 경지면 오히려 혈후(歟後)한 말일지니, 그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가며, 어떻게 참고 보내며 어떻게 참고 놓았겠는가.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통곡할 때였던 것이다. 아아, 슬프도다. 내 비록 이나 벼룩 같은 미천한 신민(臣民)이건마는 백 년이 지난 오늘에 시험조로 한번 생각해 볼 때에도 오히려 정신이 싸늘하고 뼈가 저리어 부러질 것 같거늘, 하물며 그 당시 자리에 일어서서 절하고 하직할 즈음이리오. 하물며 그 당시 걸림이 많고 혐의 또한 깊어서, 눈물을 참고 소리를 머금으며, 얼굴엔 슬픈 표정을 드러내지 못할 때이리오. 하물며 그 당시 떨어져서 머무른 여러 신하가 아득히 떠나가는 이들의 행색을 바라볼 제 저 요동의 넓은 들판은 가이 없고, 심양의 우거진 나무들은 아득한데, 사람은 팔날처럼 작아지고 말은 지푸라기처럼 가늘어서, 시력이 다하는 곳에 땅의 끝, 물의 마지막이 하늘에 닿도록 아련하게 지경이 없으니, 해가 저물어 관문을 닫을 때에 그 간장이 어떠하리. 이런 이별일진대 어찌 반드시 물가만이 이에 알맞은 땅이 되리오. 정자도 좋고, 누각도 좋고, 산도 좋고, 들판도 좋을지니, 어찌 반드시 저 흐느껴 우는 물결과 어슴프레 해미 낀 햇볕만이 우리의 괴로운 심정을 자아낼 것이며, 또 하필이면 저 무너지려는 다리, 오똑한 망가진 고목만이 우리 이별의 마당이 될 것인가. 이 경지에 이르러서는 비록 저 그림 기둥에 현란스러운 문지방과 푸른 봄철에 밝은 날씨라도 모두들 우리를 위한 애끓는 이별의 땅이 될 수 있겠고, 또는 우리를 위한 가슴치고 통곡할 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럴 때를 만나서는 제가 비록 돌부처라도 머리를 돌릴 것이요, 쇠로 된 간장일지라도 다 녹고 말 것이니, 이는 또 우리나라에서 정사(情死)함에 제일 알맞

은 때일 것이리라.”

하고는,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20여 리를 갔다. 성문 밖은 꽤 쓸쓸한 편이어서 산천이 눈에 드는 것이 없다. 해는 이미 저물었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수레바퀴를 쫓아간다는 것이 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벌써 수십 리나 돌림길을 걸었다.

양편에 옥수수가 하늘에 닿을 듯 아득하여 길은 함(函) 속에 든 것 같은데, 웅덩이에 고인 물에 무릎이 빠진다. 물이 가끔 스며 흐르도록 구덩이를 파 놓았는데 물이 그 위를 덮어서 보이지 않으므로 마음을 가다듬고 조심하여 길을 따라 소경처럼 용을 쓰고 앞으로 나아간즉, 밤이 벌써 깊었다. 손가장(孫家庄)에서 저녁을 먹고 머물다. 동직문(東直門)은 그 지름길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십 리 돌림길을 걸었다.

6일 임자(壬子)

아침에 갔다가 차츰 덥더니 낮에는 크게 비바람치며 천둥과 번개를 치다가, 저녁 나절에 개다.

새벽에 길을 떠나다. 역정(驛亭) 표목에 순의현계(順義縣界)라 쓰였고, 또 수십 리를 가니 표목에 회유현계(懷柔縣界)라 쓰였는데, 그 현성(縣城)은 길에서 십여 리 혹은 7~8리 떨어져 있다 한다.

수(隋)의 개황(開皇 수 문제(隋文帝)의 연호) 연간에 말갈(靺鞨 수 · 당 때의 만주족 칭호)이 고구려와 싸워서 지자 그 부장(部將 추장과 같음) 돌지계(突地稽)³³가 팔부(八部)를 거느리고 부여성(扶餘城)으로부터 그 부락을 통틀어 귀순(歸順)하였으므로, 새로이 순주(順州)를 두어서 이에 수용하였더니, 당 태종(唐太宗) 때에 오류성(五柳城)을 주치(州治)로 하고 돌리극한(突利可汗) 동돌궐(東突厥)의 추장(주장)을 우위

33 돌지계(突地稽) : 수 문제(隋文帝) 때 말갈의 추장으로, 수 나라에 귀화하여 순주 도독(順州都督)이 되었다.

대장군(右衛大將軍)으로 삼아서 그 무리를 거느리고 순주를 도독(都督)하게 하였으며, 개원(開元) 당 현종(唐玄宗)의 연호) 때에는 탄한주(彈汗州)를 두었고, 천보(天寶) 당 현종(唐玄宗)의 연호) 이후로는 귀화현(歸化縣)이라 고쳤으며, 후당(後唐) 장종(莊宗) 이존육(李存勗)의 묘호) 때 주덕위(周德威)³⁴가 유수광(劉守光)³⁵을 쳐서 순주를 점령하였다 하니, 생각하건대 순의(順義) · 회유(懷柔) 두 고을의 땅이 곧 옛날의 순주인 듯싶다. 우란산(牛欄山)이 그 서북 삼백 리에 뻣쳐 있는데, 옛 늙은 이의 전해 내려오는 말에,

“옛날에는 금소[金牛]가 그 골짜기에서 나오고 선인(仙人)이 이를 타고 노닐었다 하며, 돌이 마치 구유처럼 생긴 것이 있어서 이름을 음우지(飲牛池)라 하고, 이 뵔를 또한 영적산(靈蹟山)이라 부른다.”

한다. 그 산 동쪽에서는 조하(潮河)가 백하(白河)와 합하여 동북에 호로산(狐奴山)이 있고, 또 서북엔 도산(桃山)의 다섯 봉우리가 깎아지른 듯이 마치 손가락을 세운 것 같다. 다시 수십 리를 가서 백하를 건너는데 백하의 근원은 새문(塞門) 밖에서 흘러 나와 석당령(石塘嶺)에서 장성을 뚫고, 황화(黃花)의 진천(鎮川), 창평(昌平)의 유하(榆河) 등 새문 밖의 모든 물과 합하여 밀운성(密雲城) 밑으로 지나간다. 원(元)의 승상(丞相) 탈탈(脫脫)이 일찍이 수리(水利)에 능한 자를 뽑아서 둑을 내고 논을 풀어 해마다 곡식 백여만 섬을 거두었더니 뒤에 명(明)의 태감(太監) 조길상(曹吉祥)³⁶이 몰수한 땅으로 국영 농장을 삼자, 세민(細民)들이 이로 말미암아 업을 잃고, 백하의 수리도 마침내 폐지되었다. 금(金)의 알리불(斡離不)³⁷이 순주에 들어와서 괴약사(郭藥師)³⁸를 백하에서 깨뜨렸다 하니 곧 이곳이다. 물살이 세고 빛이 탁하니, 이는 대체 새외(塞外)의 물은 모두 누런 빛이다. 다만 작은 배 두 척 밖에 없는데, 모래톱에 다투어 건너려는 자의 수레가 수백 대요, 인마가 수없이 서

34 주덕위(周德威) : 후당의 명장. 자는 진원(鎮遠).

35 유수광(劉守光) : 후량(後梁)의 난신(亂臣) 폐자(悖子).

36 조길상(曹吉祥) : 명 영종(明英宗) 때의 사례 태감(司禮太監)으로, 삼대영(三大營)을 총독하여 석형(石亨)과 더불어 위복(威福)을 누리었으나, 나중에 반란을 꾀하다가 죽음을 당하였다.

37 알리불(斡離不) : 금 태조(金太祖) 아골타(阿骨打)의 둘째 아들.

38 괴약사(郭藥師) : 요(遼)가 망할 때 원군(怨軍)의 괴수.

있다. 올 때 길에서 본즉, 막대를 가로 질러서 누런 궤(櫃) 수십 개를 나르고 있는데, 혹은 뾰족하고 혹은 넓적하고 혹은 길쭉하고 혹은 높다란 것들이다. 여기에는 모두 옥그릇을 실었는데 회자국(回子國 회교국)에서 조공 바치는 것이었으며 북경에서 짐꾼을 세내어서 나르고 회자 너덧 사람이 이를 거느리고 가는 판이다. 그 생김새는 벼슬아치인 듯하며 그 중 한 사람은 회자국의 태자(太子)라 하는데, 그 몰골이 웅건하고 사나워 보인다. 누런 궤짝을 배 속에 메어다 놓고 방금 삿대를 저어서 언덕에서 떠나려 할 순간에 주방(廚房)과 구인(驅人 말몰이꾼)들이 펼쩍 배에 뛰어 올라 말을 포개어 놓은 궤짝 위에 세웠다. 배는 이미 길을 떠났고 언덕에 있는 회자는 놀라서 소리 치고 발을 구르나 주방과 구인들은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먼저 건너려고만 한다. 내가 수역에게 말하니 수역이 크게 놀라서,

“빨리 내려.”

호령하고, 회자들 역시 어지러이 지껄여 대면서 배를 돌리게 하여 그 궤짝을 모두 메어 내렸으나 한 마디도 우리나라 사람과 다투는 일이 없었다. 중류(中流)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한 조각 검은 구름이 생겨 거센 바람을 품고 남에서부터 굴러 오더니 삽시간에 모래를 날리고 티끌을 자아올려 연기와 안개처럼 하늘을 덮어서 지척을 분별하지 못할 지경이다. 배를 내려서 하늘을 쳐다본즉, 검으락푸르락하고 여러 겹 구름이 주름잡듯 하였는데, 독기를 품은 듯 노염을 피는 듯 번갯불이 그 사이에 얹히어서 올올이 번쩍이는 금실이 천 송이 만 떨기를 이루었으며, 벽력과 천둥이 휘감고 겹겹이 싸여서 마치 검은 용이라도 뛰어 나올 듯싶다. 밀운성을 바라보니 겨우 몇 리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채찍을 날려서 빨리 말을 몰았으나, 바람과 우레가 더욱 급하여지고 빗발이 비껴치는 것이 마치 사나운 주먹으로 후려갈기는 듯하여 형세가 지탱할 수 없으므로, 재빨리 길가 낡은 사당에 뛰어 들었다. 그 동편 월랑(月廊)에 두 사람이 책상을 사이에 놓고 교의에 걸터 앉아서 바삐 문서(文書)를 다루고 있으니, 이는 밀운 역리(驛吏)가 오가는 역말들을 적는 것이었다. 하나는 한자(漢字)로 쓰고 또 하나는 만주 글자로 번역하는데, 그 중에서 내 눈에 얼핏 조선(朝鮮)이란 글자가 보이기에 들여다보니, 곧,

“황제의 명령을 받들어 북경에 있는 병부(兵部)로부터 조선 사신들에게 건장한 말

을 주어서 험난함이 없게 하며, 또는 그들 행리(行吏)의 필수품을 공급하라.”
는 내용이다. 이윽고 사신이 비를 피하여 뒤이어서 들어왔으므로 내 수역을 끌어서 그 종이를 보이매 수역이 사신에게로 가져 갔다. 이에 그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그들은,

“저희들은 모르는 일입니다. 저희들은 다만 오가는 문서를 장부와 견주어 맞춰볼 따름입니다.”

하고, 대답한다. 그 문서에 이른바 건장한 말이란 찾아볼 곳도 없거니와 설령 그 말을 준다 한들 모두 몹시 날세고 건장해서 불과 한 시간에 70리를 달리니, 이는 그들의 이른바 비체법(飛遞法)이다. 길에서 역말의 달리는 것을 보니, 앞에서 선창하기를 노래하듯 하면 뒤에서 응하기를 마치 범을 쫓는 듯이 하는데, 그 소리가 산골과 벼랑을 울리면 말이 일시에 굽을 떼어 바위·시내·숲·덩굴을 가리지 않고 훌훌 날뛰며 달리는데, 그 소리가 마치 북 치는 듯 소낙비가 퍼붓는 듯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쥐처럼 잔약한 과하마(果下馬)³⁹ 따위를 견마 잡히고 부축하여서도 오히려 떨어질까 두려워하는데, 하물며 이렇게 날뛰는 역말이야 누가 능히 탈 수 있겠는가. 만일 황제의 명령으로 억지로 이를 타게 한다 해도 도리어 걱정거리 일 것이다. 대개 황제가 근신(近臣)을 보내어서 우리 사신을 영접 두호하게 한 것이 방금 이곳을 지나쳤는데 길이 서로 어긋난 모양이다.

비가 좀 멎기에 곧 길을 떠났다. 밀운성 밖을 감돌아서 7~8리를 갔다. 별안간 건장한 호인(胡人) 몇이 모두 건장한 나귀를 타고 오다가 손을 내저으며,

“가지 마시오. 앞으로 5리쯤에 시냇물이 크게 불어서 우리도 모두 되돌아오는 길이오.”

하고, 또 채찍을 이마에까지 들어 보이며,

“이마만큼 높으니 당신네들 두 날개가 돋쳤나요.”

한다. 이에 서로 돌아보며 낯빛을 잃고 모두 길 가운데서 말을 내려 섰으나, 위에서는 비가 내리고 아래로는 땅이 질어서 잠시 쉴 곳도 없다. 그제야 통관과 우리

39 과하마(果下馬) : 과실나무 가지 밑을 타고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작은 말. 《삼국지(三國志)》 <위지(魏志) 동이전(東夷傳)> 중에 나오는 한반도의 말.

역관들을 시켜서 물을 가보게 하였다. 그들이 돌아와서,

“물 높이가 두어 발이나 되어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한다. 벼드나무 그늘이 촘촘하고 바람결이 몹시 서늘한데 하인들의 흉웃이 모두 젖어서 덜덜 떨지 않는 자가 없다. 비가 잠깐 개자 길 원편 벼드나무 밖에 새로 지은 조그만 행전(行殿)⁴⁰이 보이므로 곧 말을 달려 그리로 들어가서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기로 하였다. 대개 연경으로부터 길가에 삼십 리마다 반드시 행궁(行宮)이 하나씩 있어서 창름(倉廩)과 부고(府庫)까지도 다 갖추어 있다. 그러나 이 성 밖에 이미 행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십 리도 못 되는 이곳에 또 이 집을 둔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 제도의 거대하고 사치함과 현란한 품이 여느 대목 따위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듯싶으나 다만 내 몸이 춥고 배가 주려서 두루 구경할 경황이 없었다.

때마침 해는 홍라산(紅螺山)에 지는데 온 산 봉우리 겹겹이 쌓인 푸른 빛이 한덩이 붉은 빛으로 물들고, 아계(丫髻) · 서곡(黍谷) · 조왕(曹王)의 여러 산이 금빛 구름과 수은 안개 사이에 뻗 둘러섰다. 《삼국지(三國志)》⁴¹에,

“조조(曹操)가 백단(白檀)을 거쳐 오환(烏桓)을 유성(柳城)에서 쳐부셨으므로 지금 까지 그 산 이름을 조왕(曹王)이라 하였다.”

는 것이 곧 이를 이름이었고, 유향(劉向)⁴²의 《별록(別錄)》에는,

“연(燕)에 서곡(黍谷)이란 땅이 있으나 추워서 오곡(五穀)이 나지 않더니 추연(鄒衍)⁴³이 율(律)을 불어서 온기(溫氣)가 생기었다.”

하였고, 《오월춘추(吳越春秋)》에는,

“북쪽으로 한곡(寒谷)을 지나쳤다.”

하였으니, 곧 이곳을 이름이다. 내 어렸을 때 과체시(科體詩) 과거 볼 때 짓는 시체(詩體)를 짓다가 서곡의 취율(吹律)을 써서 고실(古實)을 삼았더니 이제 눈으로 바로 그 산을 바라보게 되었다.

40 행전(行殿) : 군주가 지방을 순시할 때 임시 거처하는 곳. 행재소(行在所). 행궁(行宮).

41 삼국지(三國志) : 진(晉)의 진수(陳壽)가 지은 위(魏) · 촉(蜀) · 오(吳) 삼국의 역사.

42 유향(劉向) : 한(漢)의 종실(宗室)로서 저명한 학자.

43 추연(鄒衍) : 전국 시대 제(齊)의 음양가(陰陽家). 통소를 불어서 추운 날씨가 따뜻해지게 하였다.

역관이 제독(提督)과 통관과 더불어 의논하되,

“이제 이미 앞으로 물을 건널 수 없고 물러나도 밥 지을 곳이 없는데 해가 또한 저무니 어찌하면 좋을까.”

하니, 오림포(烏林晡)가,

“여기는 밀운성에서 겨우 5리밖에 안 되는 곳이니 사세가 부득불 도로 성으로 들어가서 물 빠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다. 오림포는 나이가 70이 넘어서 그 중 춥고 주림을 못 견디는 모양이다. 대개 새북(塞北) 길을 제독 이하의 여러 사람이 전에 가본 일이 없으므로, 길도 모르고 해는 저물어 사람의 그림자도 드물어지자 그 아득히 갈 바를 모름이 우리와 다름이 없다. 내 먼저 밀운성에 이르렀는데 길가의 물이 벌써 말 배에 닿았다. 성문에서 말을 세우고 일행을 기다려서 함께 들어가니, 뜻밖에 쌍등·쌍총불을 들고 와서 맞이하는 이가 있고, 또 기병(騎兵) 10여 명이 앞에 와서 환영하는 듯이 보이었다. 이는 곧 밀운 지현(知縣)이 몸소 와서 맞이함이다. 통관이 먼저 가서 주선한 것이 불과 몇 마디 말이 끝나기 전인데 이처럼 그 거행이 재빠르다. 중국의 법이 비록 왕자(王子)나 공주(公主)의 행차라도 민가(民家)에 머무르지 못하므로 그 사관은 반드시 점방이 아니면 사당이다. 이제 이 고을에서 우리 일행의 숙소로 정해진 곳은 관묘(關廟)인데, 지현은 문까지 와서 곧 돌아가고 관묘인즉 인마를 들일 수는 있으나 사신이 거접할 곳은 없었다. 이때 밤이 이미 깊어서 집집마다 문을 닫아 걸었으므로, 오림포가 백 번 천 번 두드리고 부르고 한 끝에 겨우 나와서 응대하는 이가 있으니 이는 곧 소씨(蘇氏)의 집이었다. 이 고을 아전으로서 집이 훌륭하기가 행궁이나 다름없다. 그 주인은 이미 죽고 다만 열여덟 살 나는 아들이 있는데, 눈매가 청수하여 속세의 풍상(風霜)을 겪지 않은 사람 같다. 정사가 불러서 청심 환 한 개를 주니 그는 무수히 절하나 몹시 놀라서 두려워하는 기색이다. 이에 마침 잡이 들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이가 있어 나가보니, 사람 지껄이는 소리와 말 우는 소리가 요란한데 모두 생전 처음 듣는 소리요, 급기야 문을 열자 벌떼처럼 뜰에 가득 찬 사람들이 이 어디 사람들인가. 이른바 조선 사람이라고는 이곳에 온 일이 없으므로 북로(北路)에서는 처음 보니, 그들은 아마 안남(安南) 사람인지 일본(日

本) · 유구(琉球) · 섭라(暹羅) 사람인지 분간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쓴 모자는 둥근 테가 몹시 넓어서 머리 위에 검은 우산을 받은 것 같으니, 이는 처음 보는 것이라, “이 무슨 갓일까 이상하다” 했을 것이며, 그 입은 도포는 소매 가 몹시 넓어서 너풀거리는 품이 마치 춤추는 듯하니, 이 또한 처음 보는 것이라, “이 무슨 옷이랴, 이상한지고” 했을 것이요, 그 말소리도 혹은 ‘남남(喃喃)’ 하고 혹은 ‘너니(呢呢)’ 또는 ‘각각(閣閣)’ 하니 이 역시 처음 듣는 소리라, “이 무슨 소리라 아릇한지고” 했을 것이다. 처음 본다면 비록 주공(周公)의 의관(衣冠)이라도 오히려 놀라울 것이거늘, 하물며 우리나라 제도가 몹시 크고 고색이 창연할까보노. 그리고 사신 이하의 복장이 모두들 달라서 역관들의 복장, 비장들의 복장, 군뢰들의 복장이 각기 따로따로 되어 있고, 역졸(驛卒) · 마두배는 맨발 벗고 가슴을 풀어 헤치고는 얼굴은 햇볕에 그을리고 옷은 해져서 엉덩이를 가리지 못하였으며, 악자하게 지껄이며 대령하는 소리는 너무도 길게 빼니 이 모두 처음이라. “이 무슨 예법이랴. 이상하고 아릇한지고”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한 나라 사람이 함께 온 것을 모르고 아마 남만(南蠻) · 북적(北狄) · 동이(東夷) · 서옹(西戎) 들이 함께 제 집에 들어온 줄로 알았을 것이니, 어찌 놀랍고 떨리지 아니하리오. 이는 비록 백주에라도 넋을 잃을 것이거늘 하물며 아닌밤중이리오. 비록 깨어 앉았어도 놀라울 것이거늘 하물며 잠결에서리오. 또 더군다나 열여덟 살 약관(弱冠)의 어린 사내이겠는가. 비록 세상 일을 싫도록 겪은 여든 살 노인일지라도 필시 놀라서 와들와들 떨며 졸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역관이 와서,

“밀운 지현이 밥 한 둥이와 채소 · 과실 다섯 쟁반, 돼지 · 양 · 거위 · 오리고기 다섯 쟁반, 차 · 술 다섯 병을 보내왔고, 또 떨나무와 말먹이도 보내왔습니다.”

한다. 정사는,

“그래, 떨나무나 말먹이는 받지 않을 이유가 없겠지만는, 밥과 고기 들은 주방이 있으니 남에게 폐를 끼칠 게 있겠어.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부사님과 서장관 나리께 여쭈어 결정짓는 게 옳을 거야.”

하였다. 수역은,

“이곳을 들어오면 동팔참(東八站)으로부터 으레 공궤(供饋)가 있는 법이랍니다. 다만 이렇게 익힌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제 이곳에 도로 오게 된 것은 비록 뜻밖의 일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들이 지주(地主)의 체면으로서 이를 제공하였으즉 무슨 이유로 그를 물리칠 수 있사오리까.”

한다. 이러한 차에 부사와 서장관이 들어와서,

“이건 황제의 명령도 없은즉 어찌 받을 수 있겠어요. 마땅히 돌려보냄이 옳겠습니다.”

한다. 정사도,

“그렇겠소.”

하고는, 곧 명령을 내려 그를 받기 어려운 뜻을 밝히게 하였다. 이제 여남은 일부들이 꺭 소리도 없이 다시 지고 가버렸다. 서장관이 또 하인들에게,

“만일 한 줌의 떨나무나 말먹이를 받는다면 반드시 무거운 매를 내릴 거야.”

하고, 엄격히 단속하였다. 얼마 아니 되어서 조달동(趙達東)이 와서,

“군기 대신(軍機大臣) 복차산(福次山)이 당도하였답니다.”

하고 여쭙는다. 대개 황제가 특히 군기 대신을 파견하여 사신을 맞게 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가 바른 길로 덕승문(德勝門)에 들어가자 우리의 일행은 벌써 동편 바른 문을 통과하였으므로 서로 어긋나게 된 것이다. 복차산은 밤낮을 헤아리지 않고 뒤를 쫓아 온 것이다. 그는,

“황제께옵서 사신을 고대하고 계시오니 반드시 초아흐렛날 아침 일찍 열하에 도달하여 주시오.”

하며, 두세 번 거듭 부탁하고 가버린다. 군기(軍機)란 마치 한(漢)의 시중(侍中)과 같아서 늘 황제 앞에 모시고 앉았다가, 황제가 군기에게 명령을 내리면 군기가 하나하나를 의정대신(議政大臣)에게 전달하곤 한다. 그가 비록 계급은 낮으나 황제에게 가까운 직책을 맡았으므로 ‘대신(大臣)’이라 일컬었다. 복차산의 나이는 스물 대여섯쯤 되는데 키는 거의 한 길쯤이고 허리가 날씬하고 눈매가 가늘어서 매우 풍치가 있어 보이었다. 그는 말이 끝난 뒤에 화고(花糕) 하나를 먹고는 곧 말을 달리며 떠나버렸다.

그리고 벽돌이 깔린 대청이 넓고도 통창하였으며 탁자 위의 모든 물건은 위치가 정돈되었다. 하얀 유리 그릇에 불수감(佛手柑)⁴⁴ 세 개를 담았는데 맑은 향내가 코를 찌른다. 10여 개의 교의는 모두 무늬 있는 나무로 꾸몄으며, 서편 바람벽 밑에는 등자리와 꽃방석·양털보료 등이 깔려 있고, 구들 위에는 붉은 텔방석을 깔았으되 길이나 너비가 알맞게 되어 있고, 침대 위에 깔린 자리는 말총으로 쌍룡을 수놓았으되 오색이 찬란하였다. 두 하인이 그 위에 누워 있음을 보고 시대를 시켜 깨웠으나 곧 일어나지 않자 시대가 크게 호통하여 쫓아버렸다. 나는 이때 하도 피로하기에 잠깐 그 위에 누웠더니 별안간 온 몸이 가려워 견디기 어렵기에 한 번 굽자굽주린 이들이 더덕더덕하였다. 곧 일어나 옷을 털고 나서,

“밥이 이미 익었느냐.”

하고, 물었다. 시대는,

“애초부터 밥을 지은 일이 없답니다.”

하면서, 빙그레 웃는다. 대체로 이때는 밤이 곧 달구리여서 한 그릇 물이나 한 움큼 떨나무도 사울 곳이 없으니, 비록 저 사자(獅子) 어금니같이 흰 쌀과 높게 쌓인 은이 있다 하더라도 밥을 익힐 길은 없었다. 그리고 부사의 주방은 낮에 벌써 비내리기 전에 시내를 건넜으므로 영돌(永矣)[상방의 건량고(乾糧庫) 지기이다.] 이부사와 서장관의 주방을 겸하였으나 밥을 지을 기약은 아득하였다. 하인들이 모두 춥고 굽주려서 혼수 상태에 빠졌다. 나는 그들을 채찍으로 갈겨 깨웠으나 일어났다가 곧 쓰러지곤 한다. 하는 수 없어서 몸소 주방에 들어가 살펴본즉 영돌이 홀로 앉아 공중을 쳐다보면서 긴 한숨을 뽑는다. 남은 사람들은 모두 종아리에 고삐를 맨 채 뻗고 누워 코를 곤다. 마침 간신히 수솟대 한 움큼을 얹어서 밥을 지으려 했으나 한 가마솥의 쌀에 반 통도 못 되는 물을 부었으니 결코 끓을 리 없거니와 도리어 가소로운 일일 뿐이다. 이윽고 밥을 받아 본즉 물이 쌀에 스며들지 못 하였으니 그 생(生)과 숙(熟)이야 말할 나위도 없었다. 그리하여 한 순갈을 들지 못한 채 정사와 함께 술 한 잔씩을 마시고 곧 길을 떠났다. 이때 닦은 서너 화를 쳤다. 창대가 어제 백하를 건너다 말굽에 밟혀서 발굽철이 깊이 들어 쓰리고 아픔을 이기지

44 불수감(佛手柑) : 중국 복건(福建)과 광동(廣東) 등지에서 자라는 상록관목의 과실. 곤 굴의 일종.

못하여 신음하고 있으나, 그의 대신으로 견마잡을 자도 없어서 일이 극히 낭패스러웠다. 그렇다 해서 촌보를 옮기지 못하는 그를 중도에다 떨어뜨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므로, 비록 잔인하기 짝이 없으나 하는 수 없이 기어서라도 뒤를 따라 오게 하고 스스로 고삐를 잡고 성을 나섰다. 사나운 물결이 길을 훑쓸고 간 나머지 어지러운 돌이 이빨처럼 날카로웠다. 손에는 등불 하나를 가졌으나 거센 새벽 바람에 꺼져버렸다. 그리하여 다만 동북쪽에서 흘러내리는 한 줄기 별빛만을 바라보며 전진하였다. 앞 시냇가에 이른즉, 물은 이미 물려갔으나 아직 말 배꼽에 닿았다. 창대는 몹시 춥고 주린데다 발병이 나고 졸음을 견디지 못하는 채 또 차가운 물을 건너게 되어 그저 걱정되기 짝이 없었다.

7일 계축(癸丑)

아침에 비가 조금 뿌리다가 곧 개다.

목가곡(穆家谷)에서 아침 식사를 끝내고 남천문(南天門)을 나섰다. 성은 큰 재 마루터에 있고 그 후미진 곳에 문을 내었는데 이름은 신성(新城)이다. 옛날 오호(五胡)⁴⁵ 때 석호(石虎 후조(後趙)의 임금)가 단요(段遼)를 추격하자 단요가 모용황(慕容皝) 북연(北燕)의 임금과 함께 도로 반격하여 석호의 장수 마추(麻秋)를 쳐서 죽인 곳이 곧 이곳이었다.

이로부터 잇달아 높은 고개를 넘게 되어 오르막은 많으나 내리막이 적어지는 것을 보아 지세가 점차 높아짐을 알겠고 물결은 더욱 사나웠다. 창대가 이곳에 이르자 통증을 견디지 못하여 부사의 가마에 매달려 울면서 하소연하고 또 서장관에게도 호소하였다 한다. 이때에 나는 먼저 고북하(古北河)에 이르렀으므로 부사와 서장관이 이르러 창대의 딱하고 민망스러운 꼴을 얘기하면서, 나에게 달리 구처(區處) 할 좋은 꾀를 생각해 보기로 권하였으나 실은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이후고 창대가

45 오호(五胡) : 북방의 다섯 개 종족, 곧 흥노(匈奴) · 갈(羯) · 선비(鮮卑) · 저(氐) · 강(羌)이 중국 내부에 들어와서 집권하던 시대.

엉금엉금 기다시피 따라 왔다. 이는 중로에서 말을 염어 타고 온 모양이다. 곧 돈 2백 닢과 청심환 다섯 알을 주어서 나귀를 세내어 뒤를 따르게 하였다.

드디어 냇물을 건넜다. 이 물의 또 하나의 이름은 광형하(廣硎河)였으니 이곳이 곧 백하의 상류였다. 물세가 변방에 이를수록 더욱 사나우므로 건너기를 다투는 거마들이 모두 용기중기 서서 배 오기를 기다린다. 제독과 예부 낭중(禮部郎中)이 손수 채찍을 휘두르면서 이미 배에 오른 사람들까지도 몰아쳐 내리게 하고는 우리 일행을 먼저 건너 주게 하였다.

저녁 나절에 석갑성(石匣城) 밖에서 밥을 지었다. 이 성의 서쪽에 갑(匣)처럼 생긴 돌이 있다 하여 역(驛) 이름까지도 ‘석갑’이라 하였다 한다. 그리고 옛날 유수광(劉守光)이 도망왔다가 사로잡힌 데가 곧 이곳이었다. 식사가 끝나자 곧 떠났다. 날은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하였다. 산길은 심한 굴곡이 거듭되었다. 왕기공(王沂公)⁴⁶이 일찍이 거란(契丹)에 올린 서한 중에,

“금구전(金溝淀)에 이르러 산을 감돌아 들어 오르고 또 오르되 이표(里標)나 척후(斥堠)도 없으므로 말이 달리는 시간을 따져서 대체로 90리쯤 가서 고북관(古北館)에 이르렀습니다.”

고 하였다는는데, 이제 벌써 금구전은 어디인지를 알 길이 없을뿐더러 새북의 노정이 멀고 가까운 것에 대하여는 옛사람도 역시 아리송한 모양이다.

때마침 대추가 반쯤 익었는데 마을마다 대추나무로 올타리가 이룩되었으며, 혹은 대추나무 밭이 보여 마치 우리나라의 청산(青山) · 보은(報恩)과 같았고, 대추는 모두 한 줌이 넘을 만큼 컸다. 그리고 밤나무 역시 숲을 이루었으나 밤톨이 극히 자잘하여 겨우 우리나라 상주(尙州)의 것과 비슷하였다. 옛날 소진(蘇秦)이 연 문공(燕文公)⁴⁷을 유세하던 말 중에,

“연(燕)의 북쪽에 밤과 대추의 생산지가 있는데 ‘천부(天府)’라 이른답니다.”

하였으니, 아마 이는 고북구(古北口)를 두고 이른 듯싶다.

마을 거리를 지날 때마다 남녀 구경꾼이 몰려들었다. 나이 조금 지긋한 여인치고

46 왕기공(王沂公) : 송의 문학가 왕중(王曾). 기공은 봉호.

47 연 문공(燕文公) : 전국시대 연의 임금. 소진의 말을 들어서 6국을 연합하여 종장(從長)이 되었다.

혹이 목에 달리지 않은 자 없는데, 큰 것은 거의 뒤옹박처럼 되었고, 더러는 서넛 이 주렁주렁 달린 이가 없지 않아서 대개 열에 7~8은 모두 그러하였고, 짧은 계집 애들과 얼굴 고운 여인은 흰 분을 발랐으나 목에 달린 뒤옹박처럼 생긴 혹을 가릴 수는 없었다. 그리고 남자 중에도 늙은이는 가끔 커다란 혹이 달렸다. 옛 말에, “진(晉)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가 누렇고, 험한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목에 혹이 달린다.”

하였고, 또,

“안읍(安邑)은 진(晉)의 땅으로, 대추가 잘 되므로 그들은 단 것을 많이 먹어서 이가 모두 누렇다.”

하였으나, 이제 이곳에는 대추나무밭이 이룩되었으나 여인들의 하얀 이가 마치 박씨를 쪼개 세운 듯하니 이는 잘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의방(醫方)에 이르기를,

“산협(山峽)의 물은 흔히들 급히 내리흐르므로 오래도록 마시면 혹이 많이 생긴다.”

하였으나, 이제 이곳 사람들의 혹이 많음은 험한 곳에 살고 있는 까닭이겠지마는, 유독 여인에게 많이 볼 수 있음은 어인 일인지 알 길이 없겠다.

잠시 성안에서 말을 쉬었다. 시전(市塵)과 거리가 제법 변화하긴 하였으나 집집마다 문이 닫혔으며, 문밖에는 양각등(羊角燈)을 달아 오롱조롱 별빛과 함께 오르내리곤 한다. 때는 이미 밤이 깊었으므로 두루 구경하지 못하고 술을 사서 조금 마시고 곧 나섰다. 어두운 가운데 군졸 수백 명이 나타났다. 이들은 아마 검색하려고 지키고 있는 듯싶다. 세 겹의 관문(關門)을 나와서 곧 말에서 내려 장성에 이름을 쓰려고, 패도(佩刀)를 뽑아 벽돌 위의 짙은 이끼를 긁어 내고 붓과 벼루를 행탁 속에서 꺼내어 성 밑에 벌여놓고 사방을 살펴보았으나 물을 얻을 길이 없었다. 아까 관내(關內)에서 잠시 술 마실 때 몇 잔을 남겨서 안장에 매달아 밤 샐 때까지를 준비한 일이 있기에, 이를 모두 쏟아 밝은 별빛 아래에서 먹을 같고, 찬 이슬에 붓을 적시어 여남은 글자를 썼다.⁴⁸ 이때는 봄도 아니요 여름도 아니요 겨울도 아닐뿐더

48 여남은……썼다 : 그 제자(題字)는 〈산장잡기(山莊雜記)〉중의 야출고북구기(夜出古北口記)에 실렸다.

러, 아침도 아니요 낮도 아니요 저녁도 아닌 곤 금신(金神)이 때를 만난 가을에다
닭이 울려는 새벽이었으니, 그 어찌 우연한 일일까보나. 이에서 또 한 고개에 올랐다.
초승달은 이미 졌는데, 시냇물 소리는 더욱 요란히 들렸으며, 어지러운 봉우리
는 우중충하여 언덕마다 범이 나올 듯 구석마다 도적이 숨은 듯할뿐더러, 때로는
우수수하는 바람이 머리카락을 나부낀다. 따로 야출고북구기(夜出古北口記)에 적
은 것이 있다.[<산장잡기(山莊雜記)> 속에 들어 있다.]

물가에 다다르니 길이 끊어지고 물이 넓어서 아득히 갈 곳을 찾을 수 없는데 다만
너덧 허물어진 집들이 언덕을 의지하여 서 있었다. 제독이 달려가서 말에서 내려
손수 문을 두드리며 백천 번 거듭 그 주인을 불러 호통쳤다. 그는 그제야 대답하
며 문을 나와 자기 집 앞에서 곤 건너기를 가르쳐 준다. 돈 5백 닢으로 그를 품사
서 정사의 가마 앞을 인도하게 하여 마침내 물을 건넜다. 대개 한 강물을 아홉
이나 건너는데 물 속에는 돌에 이끼가 끼어서 몹시 미끄러우며, 물이 말 배에 넘실
거려 다리를 옹송그리고, 발을 모아 한 손으로 고삐를 잡고 또 한 손으로는 안장을
꽉 잡고, 끌어 주는 이도 부축해 주는 이도 없건마는 그래도 떨어지지 않는다. 내
이에 비로소 말을 다루는 데는 방법이 있음을 깨달았다.

대개 우리나라의 말 다루는 방법은 몹시 위태로운 것이다. 옷소매는 넓고 한삼(汗衫)⁴⁹ 역시 길므로 그것에 두 손이 휘감겨서 고삐를 잡거나 채찍을 드날리려 할 때
모두 거추장스러움이 첫째 위태로움이다. 그런 형편이므로 부득이 딴 사람으로 하
여금 견마를 잡히게 되니, 온 나라의 말이 벌써 병신이 되어 버린다. 이에 고삐를
잡은 자가 항상 말의 한쪽 눈을 가려서 말이 제멋대로 달릴 수 없음이 둘째 위태
로움이다. 말이 길에 나서면 그 조심함이 사람보다 더하거늘 사람과 말이 서로 마
음이 통하지 않으므로 마부(馬夫) 자신이 편한 땅을 디디고 말을 늘 위태한 곳으
로 몰아넣으므로 말이 피하려는 곳을 사람이 억지로 디디게 하고, 말이 디디고 싶
어하는 곳에서 사람이 억지로 밀어버리니, 말이 되받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항상 사
람에게 노여운 마음을 품은 까닭이니, 이는 셋째의 위태로움이다. 말이 한 눈은 이
미 사람에게 가려졌고 남은 또 한 눈으로 사람의 눈치를 살피노라고 온전히 길만

49 한삼(汗衫) : 소매 끝에 붙여 드리우는 흰 헝겊.

보고 걷기 어려우므로 잘 넘어지기 일쑤이니, 이는 말의 허물이 아닌데도 채찍을 함부로 내리치니 이는 넷째 위태로움이다. 우리나라 안장과 뱃대끈의 제도는 워낙 둔하고 무거운데 더군다나 끈과 띠가 너무 많이 얹히었다. 말이 이미 등에 한 사람을 싣고 입에 또 한 사람이 걸려 있으니, 이는 말 한 펠이 두 펠의 힘을 쓰는 것이 라 힘에 겨워서 쓰러지게 되니 이는 다섯째 위태로움이다. 사람이 몸을 씀에도 바른편이 원편보다 나음을 보아서 말 역시 그러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의 오른 귀가 사람에 눌리어 아픔을 참을 수 없으므로 할 수 없이 목을 비틀어서 사람과 함께 한 옆으로 걸으며 채찍을 피하려는 것이다. 사람은 곧 말이 그 목을 비틀어서 옆으로 걷는 것을 사납고도 날랜 자태라 하여 기뻐하기는 하나 실은 말의 본정이 아니니 이는 여섯째 위태로움이다. 말이 채찍을 늘 받아 오니 그 바른편 다리만이 짹지게 아플 것임에도 불구하고 탄 사람은 무심히 안장을 베티고 앉아 있고, 견마잡이는 갑자기 채찍질하므로 몸을 뒤쳐서 사람을 떨어뜨리게 하고는 도리어 말을 책망하나, 이 역시 말의 본의가 아니니 이는 일곱째 위태로움이다. 문무를 막론하고 벼슬이 높으면 반드시 좌견(左牽)을 잡히니 이는 무슨 법인지, 우견(右牽)이 이미 좋지 않거늘 하물며 좌견이며, 짧은 고삐도 불가한데 하물며 긴 고삐이겠는가. 사삿집의 출입에는 혹시 위의를 갖출 법도 하거니와 심지어 임금의 어가를 모시는 신하로서 다섯 길이나 되는 긴 고삐로써 위엄을 보이려 함은 옳지 않은 일이다. 그리고 이는 문관(文官)도 불가한데 하물며 영문(營門)으로 나아가는 무장(武將)이겠는가. 이는 이른바 스스로 얹을 줄을 찬다는 겪이니 이 곧 여덟 가지의 위태로움이다. 무장이 입는 옷을 철릭[帖裏]이라 하는데 이는 곧 군복이다. 세상에 어찌 명색이 군복이면서 소매가 중의 장삼처럼 넓단 말인가. 이제 이 여덟 가지의 위태로움이 모두 넓은 소매와 긴 한삼 때문이거늘, 오히려 이러한 위태로움에 편안히 지내려 하니 아아, 슬프구나. 이는 설사 백락(伯樂)⁵⁰으로 바른편에 견마잡하고 조보(造父)⁵¹로 원편에 따른다 한들 이 여덟 가지의 위태로움을 그대로 둔다면 비록 준마(駿馬)가 여덟 필일지라도 배겨내지 못할 것이다. 옛날 이일(李鎰)이 상주(尙州)에 진찰

50 백락(伯樂) : 주(周)나라 때 말을 잘 다루던 사람.

51 조보(造父) : 주 목왕(周穆王)의 팔준(八駿)을 잘 길들인 사람.

때 멀리 숲 사이에서 연기가 오름을 바라보고는 군관 한 사람을 시켜 가보게 하였더니, 그 군관이 좌우로 쌍견(雙牽)을 잡히고 거들먹거리고 가다가 뜻밖에 다리 밑에서 왜병 둘이 내달아 말의 배를 칼로 베고 군관의 목을 베어가 버렸다.[만력 임진년 왜구가 왔을 때의 일이다.] 그리고 서애(西厓) 유성룡공(柳成龍公)⁵²은 어진 정승인데, 그가 『징비록(懲比錄)』을 지을 때에 이 일을 기록하여 비웃었다. 그런데도 그 잘못된 습속을 그런 난리와 어려움을 겪고도 고치지 못하였으니, 심하구나. 습속의 고치기 어려움이여. 내 이 밤에 이 물을 건넘은 세상에서 가장 위태로운 일이다. 그러나 나는 말만을 믿고 말은 제 발을 믿고 발은 땅을 믿어서 견마잡히지 않는 보람이 이와 같구나. 수역이 주부더러 하는 말이,

“옛사람이 위태로운 것을 말할 제 소경이 애꾸말을 타고 밤중에 깊은 물가에 섰는 것이라고 하지 않소. 정말 우리들 오늘 밤 일이 그러하구려.”

한다. 나는 곧,

“그게 위태롭긴 위태로운 일이지만 위태로움을 잘 아는 것이라곤 할 수 없소.”

했다. 그 들은,

“어째서 그렇단 말씀이오.”

한다. 나는,

“소경을 볼 수 있는 자는 눈 있는 사람이라 소경을 보고 스스로 그 마음에 위태로이 여기는 것이지, 결코 소경이 위태로운 줄 아는 것이 아니오. 소경의 눈에는 어떠한 위태로움도 보이지 않는데 무엇이 위태롭단 말이오.”

하고는, 서로 깔깔대고 웃었다. 따로 일야구도하기(一夜九渡河記)를 적은 것이 있다. [〈산장잡기(山莊雜記)〉 속에 들어 있다.]

52 서애(西厓) 유성룡공(柳成龍公) : 임진왜란 당시에 영상까지 지낸 저명한 정치가. 서애는 호요, 자는 이현(而見).

8일 갑인(甲寅)

개다.

새벽에 반간방(半間房)에서 밥 지어 먹고, 삼간방(三間房)에서 잠깐 쉬었다. 가끔 산기슭에 화려한 사당과 절들이 보이는데 혹은 아흔아홉 층의 백탑(白塔)이 있다. 그 탑과 사당을 지은 자리를 살펴보아도 아무런 아름다운 경개가 없는 혹은 산등성이 또는 물이 흘러 떨어지는 곳에 거만의 돈을 허비하였음은 대체 무슨 뜻인지. 이런 것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으며, 그 제작의 웅장함과 조각의 공교로움과 단정의 찬란함이 모두 똑같은 수법이어서 하나만 보면 다른 것은 모두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니, 일일이 기록할 것조차 없겠다.

차츰 열하에 가까워지니 사방에서 조공(朝貢)이 모여들어서, 수레·말·낙타 등이 밤낮으로 끊이지 않고 우렁대고 쿵쿵거려서 울리는 수레바퀴 소리가 마치 비바람 치는 듯하다. 창대가 별안간 말 앞에 나타나 절한다. 몹시 반가웠다. 제 혼자 뒤떨어질 때 고개 위에서 통곡하자 부사와 서장관이 이를 보고 측은히 여겨 말을 멈추고 주방에게,

“혹시 짐이 가벼운 수레가 있어 저를 태울 수 있겠느냐?”

하고 물었으나 하인들이,

“없소이다.”

하고 대답하므로, 민망하게 여기고 지나갔을 뿐이더니 또 제독이 이르매 더욱 서럽게 울부짖으니, 제독이 말에서 내려 위로하고 그 곳에 머물러 있다가 지나가는 수레를 세내어 타고 오게 하였다. 어제는 입맛이 없어 먹지 못하니 제독이 친히 먹기를 권하고 오늘은 제독이 자기가 그 수레를 타고 자기가 탔던 나귀를 창대에게 주었으므로 이에 따라 올 수 있었다. 그 나귀가 매우 날쌔어 다만 귓가에 바람 소리가 일 뿐이었다 하기에 나는,

“그 나귀는 어디다 두었느냐?”

하고 물었더니,

“제독이 저더러 이르기를, ‘네 먼저 타고 가서 공자(公子)를 따르되 만일 길에서 내

리고 싶거든 지나가는 수레 뒤에 나귀를 매어 두라. 그러면 내가 뒤에 가면서 찾을 테니 염려 말라' 하더이다. 그리하여 삽시간에 50리를 달려 고개 위에서 수레 수십 바리가 지나가기에 나귀에서 내려 맨 나중 수레 뒤에 매어 주었습니다. 차부가 묻기에 멀리 고개 남쪽 지나 온 길을 가리켜 보였더니 차부[車人]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더이다."

한다. 제독의 마음씨가 매우 아름다우니 고마운 일이다. 그의 벼슬은 회동사역관 예부정찬사낭중 홍려시소경(會同四譯官禮部精饌司郎中鴻臚寺少卿)이요, 그 직 품은 정사품(正四品) 중현대부(中憲大夫)였으며, 그 나이는 이미 60에 가까웠다. 그러나 외국의 한 마부를 위하여 이토록 극진한 마음씨를 보임은 비록 우리 일행을 보호함이 직책이라 하겠지만, 그 처신의 간략함과 직무에 충실함이 가히 대국의 풍도를 엿볼 수 있겠다. 창대의 발병이 조금 나아서 견마를 잡고 갈 수 있게 되었음은, 또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삼도량에서 잠깐 쉬고 합라하(哈喇河)를 건너 황혼이 될 무렵에 큰 재 하나를 넘었다. 조공 가는 수많은 수레가 길을 재촉하면서 달린다. 나는 서장관과 고삐를 나란히 하며 가는데, 산골짜 속에서 갑자기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두세 마디 들려온다. 그 많은 수레가 모두 길을 멈추고서 함께 고함을 치니, 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듯 싶다. 아아, 굉장하구나. 따로 〈만방진공기(萬方進貢記)〉[〈산장잡기〉 속에 들어 있다. '수택본'에는 없다.]를 썼다.

이곳에 이르기까지 온 나흘 밤낮을 눈을 붙이지 못하여 하인들이 가다가 발길을 멈추면 모두 서서 조는 것이었다. 나 역시 졸음을 이길 수 없어, 눈시울이 구름장처럼 무겁고 하품이 조수 밀리듯 한다. 혹시 눈을 뻣히 뜨고 물건을 보나, 벌써 이상한 꿈에 잠기고, 혹은 남더러 말에서 떨어질라 일깨워 주면서도, 내 자신은 안장에서 기울어지고는 한다. 포근포근 잠이 영기고 아롱아롱 꿈이 짙을 때는, 지극한 낙이 그 사이에 스며 있는 듯도 하였다. 그리하여 때로는 온 몸이 날아갈 듯하고 두뇌가 맑아져서, 그 견줄 곳 없는 묘한 경지야말로 취리(醉裏)의 건곤이요, 몽중(夢中)의 산하(山河)였다. 또 때는 가을 매미 소리가 가느다란 실오리를 뽑고, 태공에 흩어진 꽃봉오리가 어지러이 떨어지며, 그 아득한 마음은 도교(道教)의 내관(內

觀 묵상(默想))과 같고, 놀라서 깨 때는 선가(禪家)의 돈오(頓悟)와 다름없었다. 팔십일난(八十一難)⁵³이 삽시간에 걷히고, 사백사병(四百四病)⁵⁴이 잠깐에 지나간다. 이런 때엔, 비록 추녀가 몇 자가 넘는 화려한 고대광실에 석 자를 끈 큰 상을 받고 예쁜 계집 수백 명이 모시고 있는 즐거움이나,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한 구들목에 높지도 낮지도 않은 베개를 베고, 두껍지도 얕지도 않은 이불을 덮고, 깊지도 얕지도 않은 술잔을 받으면서, 장주(莊周)도 호접(蝴蝶)도 아닌 꿈나라로 노니는⁵⁵ 그 재미와는 결코 바꾸지 않으리라. 길가에 돌을 가리키며,

“내, 장차 우리 연암(燕巖) 산중에 돌아가면, 일천하고도 하루를 더 자서 옛 희이 선생(希夷先生)⁵⁶보다 하루를 이길 것이고 코 고는 소리가 우레 같아 천하의 영웅으로 하여금 젓가락을 놓치고,⁵⁷ 미인으로 하여금 놀라게 할 것이다. 그러지 못한다면 이 돌과 같으리라.”

하다가 한번 꾸벅하면서 깨니, 이 또한 꿈이었다. 그리고 창대도 가면서 이야기하기에, 나 역시 대꾸하다가 가만히 살펴보니, 헛소리를 자주한다. 대개 제가 여러 날 동안 주린 끝에 다시 크게 추위에 떨다가 학질에 걸린 듯 인사를 차리지 못할 지경이었다. 이때에 밤은 이미 이경(二更) 즈음이다. 마침 수역과 동행하였는데, 그의 마부도 역시 별별 떨고 크게 앓으므로 함께 말에서 내렸다. 다행히 앞 참(站)이 5리밖에 남지 않았다 하므로, 병든 두 마부를 각기 말에 싣고, 흰 담요를 꺼내어 창대의 온몸을 둘러싸고 띠로 꼭꼭 묶어서 수역의 마두더러 부축하여 먼저 가게 하고, 수역과 더불어 걸어서 참에 이르니, 밤이 이미 깊었다. 이곳에는 행궁이 있고 여염과 시전이 극히 변화하였으나, 그 참의 이름은 잊었다. 아마 화유구(樺榆溝)인 듯싶다. 객접에 이르니 곧 밤을 내어 왔으나, 심신이 피로하여 수저가 천근

53 팔십일난(八十一難) : 중생(衆生)이 도를 통하기에 여든한 가지의 장애가 있다. 불가에서 나온 말.

54 사백사병(四百四病) : 지(地) · 수(水) · 화(火) · 풍(風)이 각기 일백여덟 가지의 병이 있다 한다. 《유마경(維摩經)》에서 나온 말.

55 장주(莊周)도……노니는 : 《남화경(南華經)》에서 나온 몇 구절.

56 희이 선생(希夷先生) : 송의 은사 진단(陳搏), 희이는 호요, 자는 도남(圖南). 그는 한 번 잠들면 천 날 씩 오래 잤다 한다.

57 천하의……놓치고 : 유비(劉備)가 조조(曹操)와 함께 영웅을 논하다가, 조조가 자기를 영웅이라 지적 할 때 유비는 수저를 떨어뜨렸다.

이나 되는 듯 무겁고, 혀는 백 근인 양 움직이기조차 거북하다. 상에 가득한 소채나 적구이가 모두 잠 아닌 것이 없을뿐더러, 촛불마저 무지개처럼 뻔쳤고 광채가 사방으로 퍼지곤 한다. 이에 청심환 한 개로써 소주와 바꾸어 마시니, 술맛이 또한 좋아서, 마시자 곧 훈훈히 취하여 퇴연(頹然)히 베개를 이끌어 잡들었다.

9일 을묘(乙卯)

개다.

아침나절 사시(巳時)에 열하에 들어 태학(太學)에 머물렀다. 그 날 달구리에 먼저 떠나서 수역과 동행하였다. 길에서 난하(灘河)가 건너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수역이 오는 사람마다 붙들고 난하의 소식을 물었다. 그들은 모두,

“예니레 기다려야 한번 얻어 건널 수 있을 것입니다.”

한다. 강가에 이르니, 거마가 구름처럼 모인 것이 무려 천이며 만인데, 물은 넓고 거세어서 흙탕물이 소용돌이치며 흘러 행궁 앞이 제일 물살이 세다. 난하는 독석구(獨石口)에서 나와 옛 홍주(興州)의 지경을 거쳐 북예(北隸)에 들어가는 것이다. 《수경(水經)》 주(註)에 이르기를,

“유수(濡水)는 어옹진(禦戎鎮)에 나와서 사야(沙野)를 거치며 굽이굽이 돌아서 1천 5백 리쯤 흘러 장성에 듈다.”

하였다. 겨우 작은 배 너덧 척이 있었다. 사람은 많고 배는 작으므로 건너기 어려운 것이다. 말 탄 사람들은 모두 옆은 물결을 골라서 건너지만, 수레는 그리 할 수 없었다. 석갑(石匣)에서 가마 탄 자 하나를 만났다. 따르는 사람이 10여 기요, 네 사람이 어깨에 가마채를 메고 5리에 한 번씩 교대하는데, 말 탄 사람이 내려서 서로 바꾸어 메곤 하였다. 우리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는데, 병부 시랑(兵部侍郎)의 행차라 한다. 가마는 녹색 우단(羽緞)으로 가리고 삼면에 유리를 붙여서 창을 내었으나, 탄 사람은 늘 깊이 들어앉았으므로 얼굴은 볼 수 없었다. 모자를 벗어 창 한 구석에 걸어 놓고 종일토록 책을 읽고 있다. 어제는 종자(從者)를 부르니까 종자가

갑(匣) 속에서 책 하나를 꺼내어 바쳤는데, 그 제목은 《오자연원록(五子淵源錄)》이었다. 창 안에서 손을 내밀어 이를 받는데, 그 팔뚝이나 손가락이 옥같이 희었다. 또 창 안에서 《이아익(爾雅翼 송 나안(羅顏)의 저)》 한 권을 내준다. 그 목소리나 손길이 모두 여인 같다. 이곳에 이르자 가마에서 내리고, 가마 안의 책을 꺼내어 종자들이 나누어 품 속에 간직하며, 그 사람은 다시 말을 타는데, 참으로 미남자였다. 미목이 시원하고 몇 줄기 흰 윗수염이 듬성듬성하다. 가마는 휘장을 걷고, 종지를 태웠던 말들은 모두 물에 등등 떠서 건넌다. 모자에 푸른 새깃을 꽂은 사람이 언덕 위에 서서 채찍을 들어 지휘하여 먼저 우리 일행을 건너게 하는데, 비록 짐작에다 ‘진공(進貢)’이니 ‘상용(上用 황제의 어용(御用))’이니 하는 글자를 쓴 기(旗)를 꽂은 것이라도 먼저 건너지 못하게 하였다. 혹시 먼저 뛰어오른 자의 차림새가 관원인 듯하여도, 반드시 채찍으로 몰아 내어 버린다. 이는 곧 행재 낭중(行在郎中)으로, 황제의 명을 받들어 이 건너는 일을 간검하는 자이다. 다만 쌍교(雙橋) 넷이 있어 그 크기가 집채만한데, 바로 배 안으로 메고 들어가는 것이 마치 무거운 산을 들어서 알[卵]을 누르는 듯싶다. 그러하므로, 낭중들도 채찍을 거두고 한 걸음 물러서서 그의 날카로운 위세를 피하곤 한다. 그 가마꾼들의 눈에는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물도 없을뿐더러, 사람도 뜨이지 아니하고 외국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고, 다만 그가 맨 가마만이 있을 뿐이니, 알지 못하겠노라. 그 가운데 어떠한 보물이 들었건대, 가마꾼이 그처럼 세를 쓸까.

강을 건너 10여 리를 가니, 환관(宦官) 셋이 와서 박보수(朴寶樹)와 더불어 말머리를 대고 몇 마디 수작하고는, 곧 말을 돌려 가버린다. 또 한 내시가 오림포(烏林ழ)와 나란히 타고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오림포가 가끔 낮빛을 변하고 놀라워하는 기색을 보일 때, 박보수와 서종현(徐宗顯)이 말을 달려서 옆을 가면 오림포가 손짓하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보아, 무슨 비밀한 이야기인 듯싶다. 그 내시 역시 말을 달려 가 버린다.

한 산모롱이를 지나치니, 언덕 위에 돌을 깎아 세운 듯한 봉우리가 탑처럼 마주 서 있어서, 하늘의 기교한 솜씨를 보이는 듯 높이가 백여 길이나 된다. 그리하여 쌍탑산(雙塔山)이란 이름을 얻은 것이다. 연달아 내시가 와서, 사행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알아보고 간다. 예부에서 태학에 들라는 뜻을 먼저 알리려 왔다.

며칠 동안 산골 길을 다니다가 열하에 들어가니, 궁궐이 장려하고 좌우에 시전이 10리에 뻗쳐 실로 새북(塞北)의 한 큰 도회이다. 바로 서쪽에 봉추산(捧捶山)의 한 봉우리가 우뚝 솟았는데, 마치 다듬잇돌과 방망이 같은 것이 높이 백여 길이요, 꽃꽃이 하늘에 솟아서 석양이 옆으로 비치어 찬란한 금빛을 뿜고 있다. 강희 황제가 이를 ‘경추산(磬捶山)’이라 고쳐 이름지었다 한다. 열하성(熱河城)은 높이 세 길이 넘고, 둘레가 30리이다. 강희 52년(1713)에 돌을 섞어서 얼음 무늬로 쌓아올리니, 이는 이른바 가요문(哥窯紋)이었다. 인가의 담도 모두 이 법으로 하였다. 성 위에 비록 방첩(防堞)을 쌓긴 하였으나 여느 담과 달름이 없으며 지나온 여러 고을의 성곽(城郭)만도 오히려 못하였다. 그리고 이곳에 삼십육경(三十六景)⁵⁸이 있다 한다. 한 나라의 옛 요양(要陽) · 백단(白檀) · 활염(滑鹽) 세 고을의 땅이니, 한 경제(漢景帝)가 이광(李廣)⁵⁹에게 조칙을 내려 말하기를,

“장군은 군사를 거느리고 동으로 달려 백단에서 깃발을 멈추라.”

한 것이 곧 이곳을 이름이다. 거란의 아보기(阿保機)⁶⁰가 활염(滑鹽)의 허물어진 성을 고쳐 쌓았는데, 세속 사람들은 이를 ‘대홍주(大興州)’라 일렀고, 명 나라 상우춘(常遇春)⁶¹이 마속(兀速 원(元)의 명장)을 전녕(全寧)으로 몰아서 깨뜨리고 대홍주로 나아가 머물렀다 함은 곧 이곳이다.

지난해에 태학(太學)을 새로 지었는데, 그 제도는 연경과 다름없었다. 대성전(大成殿)과 대성문(大成門)이 모두 겹쳐마에 누런 유리기와를 이었고, 명륜당(明倫堂)은 대성전의 오른편 담 밖에 있으며, 당(堂) 앞 행각(行閣)에는 일수재(日修齋) · 시습재(時習齋) 등의 편액이 붙어 있고, 그 오른편에는 진덕재(進德齋) · 수업재(修業齋) 등이 있었다. 뒤에는 벽돌로 쌓은 대청이 있고, 그 좌우에 작은 재실이 있어서, 그 오른편엔 정사가 들고 왼편엔 부사가 들었다. 그리고 서장관은 행각 별재(別齋)에 들고 비장과 역관은 한 재실에 모두 들었으며 두 주방은 진덕재에 나누어 들었

58 삼십육경(三十六景) : <피서록(避暑錄)> 첫머리에 상세히 적혀 있다.

59 이광(李廣) : 북방 홍노족과 70여 회를 싸워서 이긴 한의 명장.

60 아보기(阿保機) : 요 태조(遼太祖) 야율아보기(耶律阿保機).

61 상우춘(常遇春) : 명 태조(明太祖) 때의 명상(名相).

다. 대성전 뒤와 좌우에 둘려 있는 별당(別堂) · 별재 들은 이루 다 기록하기 어려울 만큼 많고도 또 모두 화려하기 그지없는데, 우리 주방으로 인해 많이 그슬리고 더럽혀졌으니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따로 〈승덕태학기(承德太學記)〉⁶²를 썼다.

62 승덕태학기(承德太學記) : 일문(逸文)이 되었다. ‘박영철본’ 권지 십오(卷之 十五) 끝 보유(補遺) 중에 도 〈열하태학기(熱河太學記)〉라는 편목(篇目)이 남아 있으나, 역시 일문으로 되었다.



태학유관록

태학유관록(太學留館錄)

전편(前篇)에 9일 을묘(乙卯)를 계속하여 14일 경신(庚申)에 그쳤다. 모두 옛새 동안이다.

기울 8월 9일 을묘(乙卯)

사시(已時)에 태학(太學)에 들었다. 사시 이전의 일은 이미 길에서 적었고, 사시 이후의 것은 관(館)에 머무른 일을 기록하기로 했다. 이날 몹시 더웠다. 말에서 내려 곧 후당(後堂)으로 들어섰다. 한 노인이 모자를 벗고 교의에 걸터앉았다가 나를 보고 교의에서 내려.

“수고하십니다.”

하며 맞이한다. 나도 읍하여 답례하고 좌정한 뒤, 노인이 내게,

“벼슬이 몇 품(品)이나 되시는지요.”

하고 묻기에, 나는,

“선비의 몸입니다. 귀국에 관광차로 삼종형(三從兄) 대대인(大大人)을 따라 이곳에 온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중국 사람들은 정사를 ‘대대인’이라 하고, 부사를 ‘얼대인[乙大人]’¹이라 하니, 얼[乙]은 둘째라는 의미였다. 그는 또 나에게 성명을 묻기에 써 보이니, 그는 또,

“영형(令兄) 대인의 존명(尊名)과 관직과 품계(品階)는?”

하고 묻기에, 나는,

“명함은 박명원(朴明源)이요, 일품(一品), 부마(駙馬), 내대신(內大臣)이에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는 또,

1 가을 : 이 위에 ‘경자(庚子)’라는 두 글자가 있었으나, ‘박영철본’에 의하여 삭제하였다.

2 얼대인[乙大人]……의미였다 : 이 부분은 ‘주설루본’에 의거하였다. ‘박영철본’에는 ‘얼대인[二大人]’으로 되었다.

“영형(令兄) 대인께선 한림(翰林) 출신이십니까?”

하므로, 나는,

“아니에요.”

하였다. 노인이 붉은 명함 한장을 내어 보이며,

“저는 이와 같습니다.”

한다. 오른편에 가는 글씨로,

“통봉대부(通奉大夫 종삼품(從三品)) 대리시경(大理寺卿)³ 치사(致仕) 윤가전(尹嘉銓).”

이라 써어 있다. 나는,

“공(公)이 이미 공사(公事)를 그만두셨다면 무슨 일로 멀리 변새 밖에 나오셨나요?”

하였더니, 그는,

“황제의 명을 받들었답니다.”

한다. 또 한 사람이,

“저 역시 조선 사람이옵니다. 천명(賤名)은 기풍액(奇豐額)이옵고, 경인년(庚寅年 1770) 문과(文科)에 장원하여 현재 귀주 안찰사(貴州按察使)로 근무 중입니다.”

한다. 윤공(尹公)은,

“이제 사해(四海)가 한 집안이라, 문을 나서면 모두 동포 형제가 아니옵니까. 고려의 박인량(朴寅亮)⁴이 혹시 존문(尊門)의 명망 높은 어른이 아니시옵니까.”

하기에 나는,

“아닙니다. 주죽타(朱竹垞)⁵의 〈채풍록(採風錄)〉 중에 나타난 박미(朴瀟)라는 어른이 저의 5대조(代祖)랍니다.”

했더니, 기공(奇公)은,

“과연 문망(文望)이 높으신 상경(上卿)이시구려.”

3 대리시경(大理寺卿) : 최고 법원장(法院長)에 해당하는 벼슬.

4 박인량(朴寅亮) : 고려 문종(文宗) 때 문장가로서, 송에 사신으로 가 문장으로써 이름을 날렸으므로, 송에서 그의 문집을 출판하기까지 하였다.

5 주죽타(朱竹垞) : 주이준(朱彝尊). 죽타는 호.

하고, 윤공은 또,

“왕어양(王漁洋)⁶의 《지북우담(池北偶談)》 중에 그 어른의 시문(詩文)을 상세히 실었습니다. 이른바 제비와 기러기가 서로 등지고,⁷ 말과 소도 상관이 없는 곳이었는데,⁸ 이제 하늘이 주신 연분이 공교로워 이곳 새북(塞北)에서 평수(萍水)의 종적이 서로 만나게 되었으니, 이는 곧 책에 나오는 어른의 후손이구려.”

한다. 좌중에 있던 한 사람이 감탄하는 어조로,

“그의 시를 읊고 그의 책을 읽고도 그의 인품을 몰랐다니 될 일입니까.”⁹

한다. 기공은,

“비록 옛 어른은 가셨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의 전형(典刑)은 남아 있지 않소.”

하며, 이어서,

“귀국의 연사(年事)는 어떻습니까.”

한다. 나는,

“유월에 압록강을 건너서 가을이 아직 멀었으므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올 때엔 우순풍조(雨順風調)하였습죠.”

하였다. 좌중(座中)에 또 한 사람은 성명이 왕민호(王民皞)라는 거인(舉人)이다.

그는,

“조선은 땅이 얼마나 너릅니까.”

한다. 나는,

“옛날 기록에는 5천 리라 하였지만, 단군의 조선은 당요(唐堯)와 한 때였고, 기자(箕子)의 조선은 주 무왕(周武王 희발(姬發)) 때에 봉한 나라였으며, 위만(衛滿)의 조선은 진(秦) 때에 연(燕)의 백성들을 이끌고 피란왔기에 모두들 부분적으로 한 쪽만을 점유하였으니, 땅이 5천 리가 다 차지 못하였을 것이며, 전조(前朝) 때엔

6 王어양(王漁洋) : 어양은 왕사진(王士禛)의 호.

7 제비와……등지고 : 두 후조(候鳥)가 남북의 추향이 다름을 일렀다.

8 말과……곳이었는데 : 《좌전(左傳)》에, “풍마우(風馬牛)가 서로 미치지 못한다” 하였는데, 풍은 주(注)에, “암수가 서로 유인함이다” 하였으니, 이는 초자(楚子)가 제후(齊侯)에게 보낸 말로써, 제와 초의 거리가 멀다는 의미.

9 그의……일입니까 : 《맹자(孟子)》에 나오는 구절(句節).

고구려 · 백제 · 신라 등을 합하여 고려가 되었으니, 동서가 천 리요 남북이 3천 리였습니다. 중국의 역사책 중에 조선의 민물(民物)과 요속(謠俗)을 적은 것이 실지와 달라서, 모두 기자 · 위만 때의 조선이요, 오늘의 조선은 아닙니다. 그리고 역사 를 쓴 이가 대체로 외국 일은 간략하게 하므로, 한갓 옛날의 기록을 죽을 따름이었으나, 그 토풍(土風)과 국속(國俗)이란 제각기 시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오로지 유교(儒教)를 승상하여 예악(禮樂)과 문물(文物)이 모두 중화(中華)를 본받았으므로, 예로부터 ‘소중화(小中華)’라는 이름이 있었으며, 나라의 규모라는가 사대부(士大夫)의 행신 · 범절이 전혀 조송(趙宋)¹⁰과 다름없습니다.”

했더니, 왕군(王君)은,

“군자지국(君子之國)이라 할 만하구려.”

하고, 윤공은,

“아아, 찬란하게도 태사(太師)¹¹의 유풍(遺風)이 남았으니 가히 존경할 만하구려. 《시종(詩綜)¹²}에 실려 있는 영존선공(令尊先公)께서는 어째서 소전(小傳)이 없었는지요.”

하기에, 나는,

“비단 우리 선인(先人)의 자호와 관작이 빠졌을 뿐만 아니고, 그 중 소전이 있다는 이도 대개가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저의 5대조의 휘(諱)는 미(彌)요, 자는 중연(仲淵)이며, 호는 분서(汾西)라 하여, 문집 네 권이 국내에서 간행되어 있고, 명(明)의 만력(萬曆) 때 어른이시며, 소경왕(昭敬王)¹³의 부마(駙馬)로 금양군(錦陽君)이요, 시호는 문정공(文貞公)이라 합니다.”

했다. 윤공은 이를 품속에 거둬 넣으며,

“이것으로 빠진 곳을 보충하여야죠.”

하고, 왕 거인(王舉人)은,

“여느 잘못된 곳도 바로잡아 주셔야죠.”

10 조송(趙宋) : 송 태조 조광윤(趙匡胤)의 성인 조(趙)를 붙여서 다른 송과 구별하였다.

11 태사(太師) : 기자(箕子)가 일찍이 은의 태사 벼슬에 있었다.

12 시종(詩綜) : 《명시종(明詩綜)》. 주이준(朱彝尊)의 저.

13 소경왕(昭敬王) : 조선 선조(宣祖)의 시호.

하고, 기공도,

“옳습니다. 이는 하늘이 주신 좋은 기회입니다.”

한다. 나는,

“나는 본디 기억력이 분명하지 못해서 책을 놓고 고증(攷證)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다. 기공이 왕 거인을 돌아보며 뭐라 수작하고, 윤공 역시 서로 이야기한 끝에,
이윽고 왕 거인이 곧 ‘명시종(明詩綜)’이란 석 자를 써서,

“이리 오너라.”

하고 부르자, 한 청년이 앞에 와 절한다. 왕 거인이 그 종이쪽지를 주니, 청년이 받아 들고 재빨리 어디로 가버린다. 아마 다른 곳에 빌리러 보냄인 듯하다. 그 청년이 곧 돌아와 끓어앉아서,

“없습니다.”

한다. 기공이 또 한 사람을 불러 그 종이쪽지를 주자, 곧 돌아와서 뭐라 말하니 왕 거인은,

“새외(塞外)엔 워낙 책점이 없더군요.”

한다. 나는,

“우리나라 이달(李達)¹⁴이란 이가 있는데, 그의 호는 손곡(蓀谷)입니다. 이에 이달의 시(詩)를 싣고, 또 따로 손곡의 시를 실었으니, 이는 그의 호를 보고서 딴 사람의 성명으로 잘못 알고 나누어 실은 모양입니다.”

했더니, 세 사람이 크게 웃고 서로 돌아보며,

“옳아, 그렇구먼요. 치이(鷗夷)나 도주(陶朱)가 애초에 한 사람 범려(范蠡)이거든요.”

한다. 윤공이 갑자기 바삐 일어서면서 붉은 명함 석 장과 자기가 지은 구여송(九如頌)¹⁵을 내어 주며,

14 이달(李達) : 조선 중종(中宗) 때 시인. 자는 익지(益之). 고죽(孤竹) 최경창(崔慶昌), 옥봉(玉峯) 백광훈(白光勳)과 함께 삼당(三唐)의 시파를 이루하였다.

15 구여송(九如頌) : 구여는 《시경(詩經)》〈소아(小雅) 천보편(天保篇)〉에 나오는 아홉 가지의 축복, 곧 여산(如山) · 여부(如阜) · 여강(如岡) · 여릉(如陵) · 여천방지(如川方至) · 여월항(如月恒) · 여일승(如日升) · 여남산수(如南山壽) · 여송백무(如松柏茂).

“선생의 수고를 빌려 영형(令兄) 대인께 뵈옵고자 하옵니다.”

하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일어서며,

“윤대인(尹大人)께서 방금 조정에 나가시니 후일 다시 만납시다.”

한다. 윤공은 이미 모복(帽服)을 갖추어, 조주(朝珠)를 걸고, 나를 따라 나와서 정사의 방 앞에 이르렀다. 아까 문에서 나오는 길에 나는 아득히 그가 이곳에 들을 것을 몰랐었다. 대체 다른 사람들이 모두 윤공이 방금 조정에 나간다 하였을 뿐, 윤공의 명함 내놓는 것이 그같이 간솔하기로, 곧 나를 따라올 줄은 나도 생각지 못 하였던 것이다. 정사는 밤낮으로 시달린 나머지 겨우 눈을 붙이었고, 부사와 서장관은 내가 소개할 바 아니며, 더욱이 우리나라 대부들은 생(生)으로 존귀한 체함이 대단하여, 중국 사람을 보면 만인(滿人) · 한인(漢人)의 구분도 없이 모두 휩쓸어 되놈으로 보고, 한갓 마음만 도도한 체하는 것이 애초부터 몸에 밴 습속이 되어 버렸다. 그가 어떠한 호인(胡人)이며 무슨 지체인지 알기 전에 벌써 그를 반겨 맞이할 리도 없거니와, 비록 서로 만난다 하더라도 필시 견양(犬羊)과 같이 푸대접할 것이며, 또한 나를 불길하게 여길 것이다. 윤공이 뜰에 서서 기다리므로 일이 매우 난처하게 되었다. 내가 그제야 정사에게 들어가 말하였다. 정사는,

“나 혼자서 만날 수는 없으니 어쩌면 좋을까.”

한다. 나는 몹시 늙은 손님이 뜰에 오래 서 있음을 딱하게 여겨서 나가,

“정사께서 밤낮을 가리지 않으시고 먼 길을 오시느라 매우 피로하시므로 삼가 맞이하지 못하오니, 다른 날에 몸소 나아가 사례하려 하옵니다.”

하였다. 윤공은 곧,

“그렇습니까.”

하고 한 번 읍하고 나가는데, 그 기색을 살펴보니 매우 머쓱한 모양이었으며, 표연히 가마를 타고 가버렸다. 그 가마 차림의 휘황찬란한 품이 참으로 귀인이 타는 것이다. 종자(從者) 10여 명이 모두 비단옷에 수놓은 안장을 하고 가마를 호위하고 가는데, 향내 바람이 멀리 풍기곤 한다.

통관이 당번한 역관에게,

“귀국에서도 부처를 존경하는지요. 국내의 절은 얼마나 있죠?”.

하므로, 수역이 들어와 사신에게 여쭙되,
“통관의 이 말은 허투루 하는 것이 아닌 듯하오니 뭐라 대답하오리까.”
한다. 삼사가 의논하여 수역으로 하여금,
“우리나라 습속에는 본디 부처를 송배하지 않았으므로, 시골엔 혹 절이 있으나 서
울이나 도회에는 없는 거요.”

하고 대답하게 지시하였다. 조금 뒤에 군기장경(軍機章京) 소림(素林)이 관중(館
中)에 왔으므로, 삼사가 캉[炕]에 내려 동면으로 앉았다. 이는 지세를 따른 것이었
다. 소림이 황제의 조서(詔書)를 입으로 전달한다.

“조선 정사는 이품(二品) 끝의 반열(班列)에 서라.”

이는 진하(陳賀)하는 날의 조정에서의 좌차(座次)를 미리 일러 줌인데, 이는 전에
없던 일이라 한다. 그리고 소림은 나는 듯이 몸을 돌려 가버렸다. 또 예부(禮部)에
서 관중에 말을 전해 왔다.

“사신의 우반(右班)에 오름은 전례에 없는 은전(恩典)인즉, 의당 황감하옵다는 인
사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니, 이 뜻으로 예부에 글월을 내면 곧 황제께 올리겠소.”
사신은 곧,

“배신(陪臣)¹⁶이 사신으로 와서 비록 황제의 지극하신 은총을 입사와 황감하기 그
지없사오나, 사사로이 사례함은 도리에 어긋남일까 하오니¹⁷ 어떠하오리까.”

했더니, 예부에서,

“무엇이 해롭겠소.”

하고 잇달아 독촉이 빗발치듯 한다. 황제는 나이가 높고 또 재위(在位)한 지 오래
여서 권세가 한 손에 있고, 총명이 쇠하지 않았으며 기혈이 더욱 왕성하였다. 그
러나 해내가 태평하고 임금의 자리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시새우고 사납고 엄하고
가혹한 일이 많을뿐더러, 기쁘고 성냄이 절도가 없으므로 조정에 선 신하들은 모
두 그때그때 잘 꾸며대는 것을 상책으로 삼고, 오로지 황제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만을 시의(時義)에 맞는 일인 줄로 알아, 이제 예부에서 정문(呈文)을 이다지 재

16 배신(陪臣) : 제후(諸侯)의 대부가 천자를 대하여 스스로 일컫는 말.

17 사사로이……하오니 : 인신(人臣)은 외교(外交)가 없다는 의미.

촉하는 것도 대체로 그러한 의미에서 나온 일로서, 그들의 거조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지시가 오로지 예부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다. 당번 역관의 말이, “전년 심양에 사신갓을 때도 글월을 올려서 사례한 일이 있사온즉, 이번 일도 그와 다를 것이 없을 듯하오이다.”

한다. 이에 부사와 서장관이 서로 의논하여 글월을 만들어서 예부에 보내어, 곧 황제에게 바치게 하였다. 예부에서 또 내일 오경(五更)에 궐내에 들어가서 황은(皇恩)을 사례하게 하니, 이는 이품과 삼품으로 우반(右班)에 참하(參賀)하게 된 은혜를 사례하라 함이었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에 다시 윤공(尹公)의 우소(寓所)를 찾았더니, 왕군(王君)은 이미 다른 방으로 옮겨 갔고, 기공(奇公)은 중당(中堂)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윤공과 더불어 기공의 처소에서 이야기하였다. 윤공은 얌전하고도 소탈한 사람이다. 그는,

“아까는 몹시 바빠서 이야기를 마치지 못하였으니, 바라건대 시종의 빠지고 잘못된 곳을 들려 주셔서 선배의 소루한 점을 보충하도록 하여 주시오.”

한다. 나는,

“우리나라 선유(先儒)들은 바다 저 한 편 구석에서 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도록 한 곳을 떠나지 못하고는, 반딧불처럼 나부끼고 벼섯처럼 말라서, 겨우 하잘것없는 시편(詩篇)으로써 큰 나라의 책에 실리게 됨은 실로 영광스럽고 다행한 일이나, 우물에 떨어진 모수(毛遂)¹⁸가 있는가 하면, 좌중을 놀라게 하던 진공(陳公)¹⁹이 있다는 것은 불행히도 너무 지나친가 봅니다. 우리나라 선유(先儒) 중에 이선생 이(珥)²⁰라는 어른이 있으니, 그의 호는 율곡(栗谷)이요, 또 이 상공(李相公) 정귀(廷龜)²¹라는 이가 있으니, 그의 호는 월사(月沙)인데, 시종에는 이정귀의 호가 ‘율곡’

18 모수(毛遂) : 모수는 전국 때 평원군(平原君) 조승(趙勝)의 식객(食客)으로, 초(楚)에 유세(遊說)하여 진(秦)을 물리친 변사(辯士). 그와 같은 이름을 가진 이가 우물에 빠졌다 한다.

19 진공(陳公) : 진공은 곧 한(漢)의 명사 진번(陳蕃). 자는 유자(孺子). 그가 일찍이 재명(才名)이 있어서 좌객들을 놀라게 했는데, 그와 같은 이름을 지닌 이가 있었다.

20 이선생 이(珥) : 이이를 말한다. 조선 선조 때의 유학자 · 정치 이론가. 자는 숙현(叔獻).

21 이상공(李相公) 정귀(廷龜) : 이정귀를 말한다. 조선 선조 때의 정치가 · 문학가. 자는 성징(聖徵).

이라 잘못 적혔고, 월산대군(月山大君)²²은 공자(公子)인데, 그의 이름이 ‘정(婷)’이므로 여자인 줄로 잘못 알았으며, 허봉(許筠)²³의 누이동생 허씨(許氏)²⁴는 호가 난설현(蘭雪軒)인데, 그 소전(小傳)에는 여관(女冠 여도사(女道士))이라 하였으니, 우리나라엔 본디 ‘도관(道觀)’이니 ‘여관’이니 하는 것이 없으며, 또 그의 호를 경번당(景樊堂)이라 하였으나, 이는 더욱 잘못된 일입니다. 허씨가 김성립(金誠立)에게 시집갔었는데, 김성립의 얼굴이 오종종하게 못생겼으므로 그 벗들이 그를 놀리어 그 아내가 두번천(杜樊川)²⁵을 연모한다 하여 조롱한 것입니다. 대개 규중(閨中)의 음영(吟詠)이 본시 아름답지 못한 일인데, 더욱이 두번천을 연모한다고 유전(流傳)하였으니 어찌 원통하지 않으리까.”²⁶

했다. 윤·기 두 분이 모두 크게 웃었다. 문 밖에 아이놈들이 무슨 까닭인지도 모르고 모두 늘어서서 따라 웃는다. 이는 이른바 웃음소리만 듣고 따라 웃는다²⁷는 격이다. 알지 못하겠노라, 그들의 웃음이 무슨 일인지. 나 역시 웃음을 참지 못하였다.

영돌(永矣)이 찾아왔으므로 일어서 나오니, 두 사람이 문 밖까지 나와 전송하여 주었다. 때마침 달빛이 뜰에 가득하고, 담 너머 장군부(將軍府)에서는 이미 초경(初更) 넉 점을 치는 야경 소리가 사방으로 울린다. 상방(上房)에 들어가니 하인들이 휘장 밖에 누워 코를 골고 정사도 이미 잠들었다. 짧은 병풍 하나를 격하여 나의 잠자리를 보아 놓았다. 일행 상하가 닷새 밤을 꼬박 새운 끝이므로 이제 깊이 잠든 모양이다. 정사 머리맡에 술병 둘이 있기에 흔들어 보니, 하나는 비고 하나는 차 있었다. 달이 이처럼 밝은데 어찌 마시지 않으리. 마침내 가만히 잔에 가득 부어 기울이고, 불을 불어 꺼버리고서 방에서 나왔다. 홀로 뜰 가운데 서서 밝은 달빛을

22 월산대군(月山大君) : 조선 성종(成宗)의 형. 월산은 봉호. 자는 자미(子美).

23 허봉(許筠) : 조선 선조 때 문학가. 자는 미숙(美叔). 허균(許筠)의 형.

24 허씨(許氏) : 조선의 탁월한 여류 문학가 허초희(許楚姬).

25 두번천(杜樊川) : 당(唐)의 풍류 미남으로 유명한 시인 두목(杜牧). 번천은 호요, 자는 목지(牧之).

26 두번천을……않으리까 : 허씨의 호 경번은 번천을 연모한 것이 아니라 옛 선녀(仙女) 번부인(樊夫人)을 연모한 것이다. 연암이 이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지 않음이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27 웃음소리만……웃는다 : 우리나라 속담.

쳐다보고 있노라니, 할할하는 소리가 담 밖에서 들린다. 이는 낙타가 장군부(將軍府)에서 우는 소리였다. 드디어 명륜당(明倫堂)으로 나왔다. 나와 본즉, 제독과 통관의 무리가 각기 턱자를 끌어다 둘을 한데 붙여 놓고 그 위에서 잠들었다. 제 비록 되놈이기로 무식함도 심하다. 그 누워 자는 자리인즉, 곧 선성(先聖) · 선현(先賢)께 석전(釋奠)이나 석채(釋菜)를 거행할 때 쓰는 턱자인데, 어찌 감히 이를 침상으로 대용할 수 있으며, 또 어찌 차마 누워 잘 수 있으랴. 그 턱자들은 모두 붉은 칠을 하였는데 백여 개가 있었다.

오른편 행각에 들어가니, 역관 세 사람²⁸과 비장 네 사람²⁹이 한 구들에 누워 자는데 목덜미와 정강이를 서로 걸치고 아랫도리는 가리지도 않았다. 천둥소리처럼 코를 골지 않는 자가 없는데, 혹은 병을 거꾸러뜨려 물이 쏟아지는 소리요, 혹은 나무를 켜는데 톱니가 깊히는 소리였으며, 혹은 혀를 끌끌 차며 사람을 꾸짖는 시늉이요, 혹은 꽁꽁거려 남을 원망하는 정경이다. 만리 길을 함께 고생하고 와서 자나 먹으나 떠남이 없으매, 그 정분이야말로 친형제와 다름없이 사생을 같이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짬든 모습을 볼 때엔 한 자리에 꿈이 다르고, 그의 간담(肝膽)은 초(楚) · 월(越)처럼 먼 것을 깨달았을 뿐이다. 담뱃불을 붙이고 나오니, 개 소리가 표범 소리인양 장군부에서 들려 온다. 그리고, 야경 치는 소리가 마치 깊은 산중 접동새 소리같이 울렸다. 뜰 가운데를 거닐며, 혹은 달려도 보고 혹은 발자국을 크게 떼어 보기도 해서 그림자와 서로 희롱하였다. 명륜당 뒤의 늙은 나무들은 그늘이 짙고, 서늘한 이슬이 방울방울 맷혀서 잎마다 구슬을 드리운 듯, 구슬마다 달빛이 어리었다. 달 밖에서 또 삼경의 두 점을 쳤다. 아아, 애석하구나. 이 좋은 달밤에 함께 구경할 사람이 없으니, 이런 때에는 어찌 우리 일행만이 모두 잠들었으랴. 도독부(都督府)의 장군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도 곧 방에 들어가, 쓰러지듯이 베개에 머리가 저절로 닿았다.

28 역관 세 사람 : 홍명복 · 조달동 · 윤갑종.

29 비장 네 사람 : 주명신 · 정창준 · 이서귀 · 조시학.

10일 병진(丙辰)³⁰

개다.

영들이 나를 깨웠다. 당번 역관과 통관이 모두 문 밖에 모이어, 연방 때가 늦었다고 재촉한다. 나는 겨우 눈을 붙였다가 떠드는 소리에 잠이 깨었다. 야경 소리가 아직도 들려 온다. 노곤한 몸에 달콤한 졸음으로 꼼짝하기 싫은데, 아침 죽이 머리맡에 놓여 있다. 억지로 일어나서 따라가 보니 광피사표페루(光被四表牌樓)가 있다. 등불 빛에 좌우의 시전(市塵)이 보이나, 연경보다는 어립없고 심양·요동에도 미칠 수 없었다.

궐(闕) 밖에 이르렀으나, 날이 오히려 새지 않았으므로 통관이 사신을 인도하여 큰 묘당에 들어 쉬게 하였다. 이는 지난해 새로 세운 관제묘(關帝廟)이다. 중첩된 누각과 깊은 전당, 굽은 행각, 겹친 결채들의 조각이 공교롭고 단청이 어리어리하다. 중들이 모여들어 서로 다투어 구경하고 있다. 묘(廟) 안에는 이곳저곳에 연경의 벼슬아치들이 와서 머물러 있고, 왕자(王子)들도 이 속에 많이 와 붙여 있다 한다.

당번 역관이 와서,

“어제 예부에서 알린 것은 다만 정사와 부사의 사은(謝恩)만을 말하였으니, 이는 대저 황제가 명을 내려 정사·부사만을 우반(右班)에 승참(陞叅)하게 함이며, 따라서 그 은혜를 사례하는 것이므로 서장관은 사은하는 일이 없을 듯하다.”

한다. 이에 서장관은 관제묘에 머물고, 정사와 부사는 궐내로 들어갈 제 나도 따라 들어갔다. 모든 전각에는 단청을 꾸미지 않았고, ‘피서산장(避暑山莊)’이라 편액을 붙였는데, 오른편 결채에 예부 조방(朝房)³¹이 있어서 통관이 이에 인도한다. 한인(漢人) 상서(尙書) 조수선(曹秀先)³²이 교의에서 내려와 정사의 손을 잡고 매우 반기는 뜻을 보이며,

“대인(大人)은 앉으시죠.”

30 병진(丙辰) : 이 ‘병진’ 두 글자는 ‘일재본’에 의하여 추록했는데, 다른 여러 본에는 탈락되었다.

31 조방(朝房) : 조회하러 들어갈 때의 대기실.

32 조수선(曹秀先) : 당시 예부 상서. 자는 빙지(氷持)요, 호는 지산(地山).

한다. 사신은 손을 들고 사양하여 주인이 먼저 앉기를 청하였으나, 조공(曹公) 역시 손을 들어 연방,

“대인께서 먼저 앉으시죠.”

한다. 사신은 굳이 사양하기 4, 5차에 이르렀으나, 조공은 더욱 사양을 계을리 하지 않는다. 정사와 부사가 할 수 없이 먼저 강[炕]에 올라앉았다. 그런 다음에야 조공이 비로소 교의에 걸터앉아서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우리 사신의 의관 그의 모복(帽服)에 비기면 가위 풍채로운 선인(仙人)이라 할 수 있겠으나, 말이 통하지 못하고 행지(行止)가 서툴러서 수어 수작이 저절로 뻣뻣하고 서먹하여, 저네들의 세련되고 은근한 솜씨에 비기면 그 생경(生硬)함이 도리어 중후한 태도를 갖게 된다. 정사는,

“서장관의 거취(去就)는 어떻게 하오리까.”

하였다니, 조공(曹公)은,

“오늘 사은엔 함께 할 것이 아니고, 후일 하반(賀班)에는 함께 나와도 좋겠습니다.”

하고는 곧 일어선다. 통관이 또,

“만인(滿人) 상서(尙書) 덕보(德甫)³³가 들어옵니다.”

하기에, 사신이 문에 나와서 맞아 읍하니, 덕보 역시 읍하여 답례하고 발을 멈추어,

“행리(行李) 무양(無恙)하신지요. 어제 황상께서 내리신 각별한 은총을 잘 아시는지요.”

하므로, 사신은,

“황恩(皇恩)이 거룩하와 영광이 그지없소.”

하였다. 덕보는 웃으면서 뭐라 지껄였으나, 그 말소리가 목에 걸리는 듯 깽깽하여 ‘옹(甕)’인지 ‘잉(盞)’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대개 만주 사람들의 말은 이 따위가 일쑤이다. 그도 말을 마치고 곧 가버린다. 내옹관(內饔官)이 찬(饌) 세 그릇을 내어 왔는데, 설기와 돼지고기 적과 과실 들이다. 떡과 과실은 누런 쟁반에 담

33 덕보(德甫) : 소작락덕보(素綽絡德保). 보(甫)는 보(保)의 그릇된 것이다. 자는 중용(仲容).

고, 돼지고기는 은쟁반에 담았다. 예부낭중(禮部郎中)이 곁에 있다가,

“이는 황제의 아침 찬에서 세 그릇 물려 온 것이오.”

한다. 얼마 안 되어 통관이 사신을 인도하여 전문 밖에 나아가 삼배구고두(三拜九叩頭)³⁴의 예를 행하고 돌아온다. 어떤 사람이 앞에 나와서 읍하며,

“이번 황은(皇恩)이야말로 망극하오이다.”

하고, 그는 또,

“귀국은 의당 예단(禮單)을 더 보내야 할 것이오. 그러면, 사신과 종관(從官)에게 도 두 번째로 상품이 내릴 것이다.”

한다. 그는 곧 예부 우시랑(禮部右侍郎) 아숙(阿肅)인데, 만주 사람이었다. 사신은 조방(朝房)에 다시 들고, 나는 먼저 나왔다. 대궐 밖에는 수레와 말이 빽빽이 들어섰는데, 말은 모두 담을 향하여 즐비하게 늘어섰으되 굴레도 없고 고삐도 없는 것이 마치 나무로 만들어 세운 것 같았다. 문 밖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좌우로 갈라서는데, 지껄이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다. 모두들,

“황자(皇子)가 오시는 거요.”

한다. 한 사람이 말을 탄 채 궐내로 들어가는데,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말에서 내려 걸어가는 것이었다. 이가 소위 황륙자(皇六子) 영용(永瑢)이다. 흰 얼굴에 얹은 자욱이 낭자하고, 콧날은 낮고 작으나 볼이 몹시 넓으며, 흰 눈에 눈자위가 세 거풀 지고, 어깨가 넓고 가슴이 떡 벌어져서 체격이 건장하긴 하나, 전혀 귀기(貴氣)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는 글을 잘하고 글씨와 그림에도 능하여, 지금 《사고전서(四庫全書)》총재관(總裁官)이며, 민망(民望)이 그에게 쏠린다 한다. 내 일찍이 강녀묘(姜女廟)에 들어갔을 때, 그 벽 위에 황삼자(皇三子)와 황오자(皇五子)의 시(詩)를 깊이 간직한 것을 보았다. 황오자의 호는 등금거사(藤琴居士)라 하며, 시가 몹시 쓸쓸하고 글씨마저 가냘파서, 재주는 있으나 황왕가(皇王家)의 부하고 귀한 기상이란 엿볼 수 없었다. 그리고, 등금거사는 호부 시랑(戶部侍郎) 김간(金簡)의 생질이요, 간(簡)은 상명(祥明)의 종손(從孫)이다. 상명의 조부는 본시 의주(義州) 사람으로 중국에 들어갔으며, 상명은 벼슬이 예부 상서에 이르렀고, 옹정(雍正) 때

34 삼배구고두(三拜九叩頭) : 세 번 무릎을 꿇고 절하며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중국 최대의 경례.

사람이다. 간(簡)의 누이동생이 궁중에 들어가서 귀비(貴妃)가 되어 총애를 받았었다. 건륭제의 뜻은 다섯째 아들에게 뒷일을 맡기려 하였는데, 연전에 일찍 죽어버리고 지금은 영용이 총애를 독차지하여서, 지난해에 서장(西藏)에 가서 반선(班禪)³⁵을 맞아 왔다 한다. 그 죽은 아들이 읊은 시(詩)는 뜻이 몹시 스산하고, 그 남은 아들의 것도 귀기(貴氣)가 전혀 없으니, 폐하(陛下)의 집안 일이 어찌 될지 모를 노릇이다.

가산(嘉山) 사람 득룡(得龍)은 마두로 연경에 드나든 지 40년이어서 중국말에 능숙하였다. 이 날 많은 사람 중에서 멀리 나를 부르기에 사람들을 밀치고 가보니, 마침 한 늙은 몽고왕(蒙古王)과 서로 손잡고 이야기가 한창이었다. 몽고왕은 모자에 흥보석(紅寶石)을 달고 공작(孔雀)의 깃을 꽂았으며, 나이는 여든 하나요, 키가 거의 한 길[6척]이나 되는 장신인데, 허리가 구부러지고, 얼굴 길이는 한 자 남짓한데, 검은 바탕에 회백색이다. 몸을 부들부들 떨며 체머리를 흔드는 것이 아무런 보잘것이 없어 마치 금방 거꾸러지려는 썩은 나무등걸 같은데, 전신의 원기(元氣)가 모두 입으로 나오는 듯하다. 그 늙은 모양이 이러하니, 그가 설사 목돌(冒頓)일지라도 두려울 것이 못 된다. 따른 자가 수십 명이건만 부축하지도 않는다. 또 한 몽고왕이 있는데, 건장하고 기운이 세어 보이기에 득룡과 함께 가서 말을 붙이니, 그는 내 갓을 가리키며 무엇인지 묻고는 말도 채 알아듣지 못한 사이에 가마를 타고 횡 가버린다.

득룡이 그들 귀인(貴人)마다 찾아가서 읍하고 말을 붙이니, 모두 읍으로 답례하며 대꾸하여 준다. 득룡이 나더러도 저와 같이 해 보라 하나, 내 처음 배워서 어색할 뿐더러, 또 관화(官話)가 서툴러서 어찌할 수 없었다. 곧 관제묘에 들어간즉, 사신이 이미 나와서 옷을 갈아 입고 있었다. 드디어 함께 관(館)으로 돌아왔다.

아침 식사가 끝난 뒤에 후당(後堂)으로 들어갔다. 왕 거인(王舉人) 민호(民皞)가 나와 맞는다. 왕 거인의 호는 혹정(鵠汀)³⁶이었으며, 산동도사(山東都司) 학성(郝

35 반선(班禪) : 서장의 국교인 라마교의 교주요, 최고 통치자. 다음 반선시말(班禪始末)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36 혹정(鵠汀) : '鵠'의 음은 흔히들 '곡'으로 읽었으나, 이제 원음을 따랐다.

成)³⁷과 한 구들에 거처한다. 성(成)의 자는 지정(志亭)이요, 호는 장성(長城)이라 한다. 혹정이 우리나라 과거제도를 물으면서,

“어떠한 문자로 무슨 글을 지어 바치는지요.”

하기에, 나는 약간 그 대략을 일러 주었다. 그는 또 혼인에 대한 예식을 묻기에, 나는,

“관(冠) · 혼(婚) · 상(喪) · 제(祭)는 모두 주자(朱子)의 가례(家禮)를 따릅니다.”

하였더니, 혹정은,

“가례는 주부자(朱夫子)가 완성하지 못한 책이므로, 중국에서도 반드시 이것만을 죽지는 않습니다.”

하고, 그는 또,

“귀국의 아름다운 점 몇 가지를 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기에, 나는,

“우리나라가 비록 바다 한쪽 구석에 자리잡았으나, 역시 네 가지 좋은 점이 있답니다. 온 나라 풍속이 유교(儒教)를 승상함이 첫째요, 땅에 황하(黃河)처럼 큰 수해의 걱정이 없음이 둘째요, 고기와 소금을 다른 나라에서 빌리지 않음이 셋째요, 여자가 두 지아비를 섭기지 아니함이 넷째 좋은 일입니다.”

하였다. 지정(志亭)이 혹정을 돌아보며 서로 뭐라 중얼중얼하더니, 이윽고 혹정은, “진실로 좋은 나라야구려.”

하고, 지정은,

“여자가 지아비를 바꾸지 않는다니, 온 나라가 모두 그럴 수야 있겠습니까.”

한다. 나는,

“온 나라의 미천한 농사백성이나 하인들까지 모두 그러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명색이 사족(士族)이라 하면, 비록 아무리 가난하고 또 삼종(三從)³⁸의 길이 이미 끊어졌다 하더라도, 평생 과부의 절개를 지켜 변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기품이 비

37 학성(郝成) : '郝'의 음은 흔히들 '혁'으로 읽으나, 이에서는 원음을 쓴았다.

38 삼종(三從) : 《의례(儀禮)》에 나오는 말. 여자가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시집가서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었을 때에는 아들을 따르는 것.

복 · 하천에게까지도 미쳐서, 저절로 풍속을 이룬 지 4백 년이 되었습니다.”

하였다니, 지정은,

“금령(禁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하기에, 나는,

“별로 드러난 금령은 없습니다.”

하였다. 흑정은,

“중국에서도 이 풍속이 막심한 폐단을 이루어서, 어떤 이는 납채(納采)만 하고 초례(醮禮)를 이루지 않았다거나, 성례만 하고 아직 첫날밤을 치르지 아니하였는데도, 불행히 사고가 있으면 평생토록 과부의 절개를 지켜야 하는데, 이런 건 오히려 나은 편이고, 심지어는 세의(世誼)가 두터운 집 사이면 아이가 뱃속에 들었을 때 이미 언약한다거나, 또는 더벅머리 때 부모끼리 말이 있었다가 불행하면, 독약을 마시거나 목을 매어서 같이 따라 합장되기를 구하니, 이는 예(禮)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므로, 군자(君子)들은 그런 것을 시분(尸奔)³⁹이라 기롱하기까지도 하고, 또는 절음(節涙)⁴⁰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국법(國法)으로 이를 엄격히 단속하여 그 부모에게 죄를 주기로 하였으나, 마침내 습속을 이루었으며, 동남 지방이 더욱 심합니다. 그러므로, 유식한 집안에서는 여자가 성년(成年)이 된 뒤에 비로소 혼인을 말하니, 이는 요즈음 일입니다.”

한다. 나는,

“《유계외전(留溪外傳)》에 보면, 효자가 간(肝)을 내어서 그 아버이의 병을 낫게 한 일이 있으며, 조희건(趙希乾 명말의 저명한 효자)은 가슴을 빼개고 염통을 꺼내다가 잘못 그 창자에 한 자 남짓 생채기를 내면서 이를 끊어 삶아서 그 어머니의 병을 고쳤으나, 나중에 그 상처가 아물어 아무런 일이 없었다 하니, 이를 본다면 손가락을 끊었다든지 뚫을 맛보았다⁴¹ 함은 오히려 대단하지 않은 일이었으며, 눈 속

39 시분(尸奔) : 시체를 따라서 음분(淫奔)하는 것.

40 절음(節涙) : 절개를 구실로 한 서방질.

41 뚫을 맛보았다 : 남북조 시대 유검루(庾黔婁)의 고사.

에서 죽순(竹筍)을 캐내었다⁴²거나 얼음 구멍에서 잉어[鯉魚]를 잡았다⁴³거나 하는 일들도 어리석은 사람이라 생각됩니다.”

하였더니, 혹정은,

“이런 일이 많습죠.”

하고, 지정은,

“최근에도 산서(山西)에서 어떤 효자의 정문(旌門)을 세웠다는데, 그 일인즉 이상 하더군요.”

하고, 혹정은 또,

“눈 속에서 죽순을 캐고 얼음 구멍에서 잉어를 잡은 일이 진실이라면, 이는 천지의 기운이 온통 문란해진 것이지요.”

하고는 서로 한바탕 크게 웃었다. 지정은 또,

“육수부(陸秀夫)가 임금을 업고 바다에 들어간 것⁴⁴과, 장세걸(張世傑 송말의 충신)이 향을 피워 배가 뒤집히기를 원한 것과, 방효유(方孝孺)가 그 십족(十族)의 멸함을 달갑게 받은 것⁴⁵과, 철현(鐵鉉)이 기름을 튀게 하여 사람을 데계 한 것⁴⁶ 같은 것은 모두 범상하지 않은 일이었으나, 그렇지 않으면 죽히 마음에 쾌하달 것이 못 되니, 뒷세상의 충신(忠臣)과 열사(烈士)가 되는 것도 그 역시 어려운 노릇입니다.”

하고, 혹정은,

“천지가 개벽한 지 오래여서, 뛰어나게 쾌한 일이 아니면 이름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남화노선(南華老仙 장주(莊周))의 말에, ‘한숨지으면서 효도를 말하는 것이 된다.’ 함은 이를 두고 말함이었지요.”

한다. 나는,

“아까 왕(王) 선생께서 천지의 기운이 온통 문란하다고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단

42 눈 속에서……캐내었다 : 맹종(孟宗)의 고사.

43 잉어[鯉魚]를 잡았다 : 왕상(王祥)의 고사.

44 육수부(陸秀夫)가……것 : 송말의 충신. 최후에 애산(厓山)에서 임금을 업고 바다로 들어갔다.

45 방효유(方孝孺)가……받은 것 : 명초의 학자. 자는 희직(希直). 연왕(燕王)의 즉위조서(即位詔書)의 기안을 거부하고는, 온 집안이 학살당했다.

46 철현(鐵鉉)이……한 것 : 명초의 명장. 연왕에게 사로잡혀서 악형을 당했다.

술을 고아서 소주를 만든다면 전내기 술[醇]을 말할 수 없을 것이요, 입으로 담배를 피운다면 다시는 매운 맛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만일 깊이 꼬집고 캐어 말한다면, 절의(節義)를 배척하는 의론이 세상에 다시 일고 말 것입니다.” 하였더니, 흑정은 또,

“그렇습니다. 귀국 부인의 의관 제도는 어떠합니까?”

하고 묻기에, 나는 대강 저고리 · 치마와 또 머리의 쪽찌는 법을 이야기하고, 원삼(圓衫)⁴⁷ · 당의(唐衣)⁴⁸ 같은 것은 턱자 위에 그 제도를 대충 그려서 보였더니, 두 사람이 모두 좋다 하였다. 지정은,

“달리 약속한 곳이 있어서 잠시 나갔다 곧 돌아올 터이니, 선생께서 조금 더 앉아 계십시오.”

하고는 이내 일어나 벼린다. 흑정은 지정을 극도로 칭찬하여,

“그는 무인(武人)이기는 하지만, 문학이 넉넉하여 당세에 드문 사람입니다. 지금 사품(四品) 병관(兵官)이거든요.”

하고, 그는 또,

“귀국 부인도 역시 발을 뚫습니까?”

하고 묻기에, 나는,

“아뇨, 중국 여자들의 활굽정이처럼 생긴 신은 차마 볼 수 없더군요. 휘뚱거리며 땅을 디디고 가는 꼴이, 마치 보리씨를 뿌리는 것처럼 외로 혼들고 오른쪽으로 기우뚱거려, 바람도 없는데 저절로 쓰러지곤 하니 이게 무슨 꼴이에요.”

하였더니, 흑정은,

“이로 인하여 도륙을 당하였음은 가히 세운(世運)을 짐작할 수 있으리다. 전조(前朝) 명대(明代)엔 그 죄가 부모에게 미쳤고, 본조(本朝)에 와서도 이에 대한 금령(禁令)이 몹시 엄격하였으나, 끝끝내 이를 막을 수 없음은 대개 남자는 따르지만 여자는 따르지 말라⁴⁹는 때문이에요.”

47 원삼(圓衫) : 옛날 여자 예복의 일종. 연두색 길에 자주색 깃을 달고 색동을 달아 지었다.

48 당의(唐衣) : 역시 옛날 여자 예복의 일종. 거죽은 초록빛, 안은 다흥빛이고, 깃과 고름은 자주색이며, 앞은 짧고 뒤는 길게 지었다.

49 남자는……말라 : 청초에 한족이 만족에 대하여 십부종(十不從)을 부르짖었는데, 그 열 가지의 첫째가

한다. 나는,

“모양이 흉하고 걸음이 불편한데, 왜 하필이면 그걸 합니까.”

하였더니, 혹정은,

“만주 계집들과 한가지로 보일까봐 그런 게죠.”

하고는 곧 봇으로 지워 버리고 그는 또 이어서,

“죽어도 고치지 않는답니다.”

한다. 나는,

“삼하·통주 사이에서, 늙은 거지 여인이 머리에 가득히 꽃을 꽂고 발을 싸맨 채 말을 따라오면서 구걸하는데, 마치 오리가 배불리 먹은 것처럼 뒤통뒤통 넘어질 듯하니, 내 보기에는 도리어 만주 여자보다도 흉하더군요.”

하였더니, 혹정은,

“그러니까 삼액(三厄)이라 하였습죠.”

한다. 나는,

“삼액이란 무슨 말씀이에요.”

하였더니, 혹정은,

“남당(南唐)⁵⁰ 때 장소랑(張宵娘)⁵¹이 송궁(宋宮)에 사로잡혀 왔는데, 궁인(宮人)들이 모두 그 작은 발이 뾰족한 게 보기 좋다 하여, 다투어서 형겼으로 발을 팽팽하게 싸매어, 마침내 풍속이 이룩되었습니다. 원(元)의 시절엔 중국 여자들이 발을 싸맴으로써 스스로 표적을 삼았으며, 명(明)에 이르러선 이를 금했으나 소용이 없었지요. 그러나 만주 계집들이 중국 여자들의 발 싸맨 것을 비웃어 회음(誨淫)⁵²이라 하지만, 이는 실로 억울한 일입니다. 이것이 족액(足厄)이오. 홍무(洪武) 때에 고 황제(高皇帝)가 가만히 신락관(神樂觀 도관(道觀)의 이름)에 거동하여, 한 도사

곧, “남자는 그들을 따르되 여자는 따르지 말라”는 것이었다.

50 남당(南唐) : 오대 때 남경에 수도를 정했던 나라.

51 장소랑(張宵娘) : 남당 후주(後主)의 궁인. 초승달같이 작은 발로 금련(金蓮) 위에서 춤추어서 후주의 마음을 고혹하게 하였으나, 남당이 망하매 송에게 사로잡히었다.

52 회음(誨淫) : 그 발의 좁은 것으로 모든 사내들의 음탕한 생각을 맹동시킬 수 있다는 것. 《역경(易經)》에, “여인이 얼굴을 곱게 차림은 음란을 지도하는 것이다” 하였다.

(道士)가 실로 망건(網巾)을 떠서 머리칼을 싸매는 것이 보기에 편리할 듯해서, 이를 빌려 거울 앞에서 써 보고 크게 기뻐하여 마침내 그 제도를 천하에 명령하였답니다. 그 뒤부터 말 갈기로써 실을 대신하여 꼭 올라매어서 자국이 낭자하게 났으며, 이를 호좌건(虎坐巾)이라 함은 그 앞이 높고 뒤가 낮아서 흡사 범이 쭈그리고 앉은 것 같음을 이름이었고, 또 수건(囚巾)이라 함은 당시에도 별씨 이를 옳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서 천하의 두액(頭額)이 모두 그물 속에 갇혔다 함이었으니, 대개 불편히 여긴 이가 많았던 것입니다.”

하고는 붓으로 내 이마를 가리키며,

“이게, 두액(頭厄)이 아니어요.”

하기에, 나는 웃으면서 그의 이마를 가리켜,

“이 번쩍번쩍하는 건 무슨 액(厄)이에요.”

하였다. 혹정은 별안간 슬픈 낯빛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곧 천하두액(天下頭額) 이하의 글자를 모두 까맣게 지워 버리었다. 그리고 그는 또,

“이 담배는 만력(萬曆) 밀년에 양절(兩浙 절동(浙東) · 절서(浙西)) 사이에 널리 퍼졌는데,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이 답답하고 취하여 넘어지게 하는 천하의 독초(毒草)입니다. 먹어서 배가 부른 것도 아니건만, 천하의 좋은 밭에 갈아서 이문(利文)이 좋은 곡식과 다름없고, 부인이며 어린아이들까지도 즐겨 피우지 않는 이가 없을뿐더러, 그 좋아하는 정도가 저 기름진 고기나 또는 차나 밥을 능가하더군요. 쇠끌과 불이 함께 입을 뜰질하니, 이 또한 세운(世運)이지요. 이보다 더한 변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생께서도 이것을 즐기시는 편이지요.”

한다. 나는,

“네.”

하자, 혹정은 또,

“저는 이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에 한 번 시험삼아 피어 보았더니, 곧 취하여 쓰러질 것 같고 구역질이 나서 죽을 뻔했습지요. 이야기로 구액(口厄)이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아마 귀국에서도 사람마다 이를 피우겠죠.”

한다. 나는,

“네. 그러나, 부형이나 존장 앞에서는 감히 피우지 못합니다.”

하였다. 혹정은,

“그럴 터이죠. 독한 연기를 피움이 남의 앞에서 불공(不恭)한 일이거든, 하물며 부형 앞에서이겠습니까.”

한다. 나는,

“비단 그래서 그럴 뿐만 아니라, 입에 긴 대를 물고 어른 앞에 나아감은 몹시 거만스럽고 무례하기 때문이에요.”

하였다. 혹정은,

“그럼, 토종(土種)입니까. 혹은 중국서 사가는 것입니까?”

한다. 나는,

“만력 연간에 일본(日本)으로부터 들어와서, 지금은 토종이 중국 것과 다름없답니다. 청(淸)이 아직 만주(滿州)에 있을 때에, 담배가 우리나라에서 들어갔으며, 그 씨는 본시 일본으로부터 왔으므로 남초(南草)라 이른답니다.”

하였다. 혹정은,

“이는 본시 일본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서양(西洋) 배편으로 온 것입니다. 서양 아미리사아(亞彌利奢亞 아메리카)의 임금이 여러 가지 풀을 맛보아서, 이것으로 백성들의 입병을 낫게 하였다죠. 사람은 비장(脾臟)이 토(土)에 속하였으므로, 허랭(虛冷)해서 습기가 차면 벌레가 생기고, 그것이 입에까지 번지면 당장에 죽는답니다. 이에 불로써 벌레를 쳐서, 목(木)을 이기고 토(土)를 도와 장기(瘴氣)를 이겨내고 습기를 덜어서 신효를 거두었으므로, 영초(靈草)라 일렀답니다.”

한다. 나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남령초(南靈草)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만일 그 신효함이 이와 같다면, 수백 년 동안에 온 세상이 다 함께 즐겨 피우는 것도 역시 운수가 그 사이에 있는가봐요. 선생의 이른바 세운이라 하심이 실로 좋은 말씀입니다. 만일 이 풀이 아니었더라면, 천하 사람이 모두 입장으로 죽었을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였더니, 혹정은,

“저는 담배를 즐기지 아니하여도, 나이 예순에 아직 입병이란 없고, 지정 역시 즐

기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대체로 허황하여 이익을 낚는 데 교묘하니, 어찌 그 말을 다 곤이 듣겠습니까.”

한다. 이윽고 지정이 돌아와서, 흑정의 필담 중에, ‘저는 담배를 즐기지 아니하여 도’와 ‘지정 역시 즐기지 않습니다’라는 구절에 먹으로 동그라미를 치고, “그거 아주 독하지요.”

하고는 서로 웃었다. 나는 이에 하직하고 숙소로 돌아왔다.

군기 대신(軍機大臣)이 황제의 명령을 받들고 와서 전갈하기를,

“서번(西番)의 성승(聖僧)⁵³에게 가보지 않겠느냐.”

하매, 사신은,

“황제께서 작은 나라를 중국과 다름없이 보시니, 중국의 인사(人士)와는 스스럼없이 오가도 무방하지만, 여느 외국 사람과는 함부로 사귀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이오.”

하였다. 군기 대신이 가버린 뒤, 사신들은 얼굴에 수심을 띠었고, 당번 역관들은 황황히 분주하여 마치 숙취(宿醉)가 덜 깐 사람 같았다. 그리고 비장들은 공연히 성을 내어서,

“황제의 일 괴악하거든. 반드시 망할 거야, 반드시 망하지. 오랑캐니까 그렇지. 명나라 때야 어디 이런 일이 있었나.”

하고, 수역(首譯)은 백망(百忙) 중에서도 비장을 향하여,

“《춘추(春秋)》 대의를 논할 때가 아닐세.”

하고 핀잔주었다. 얼마 아니 되어 군기 대신이 또 말을 달려와서 황제의 명령을 거듭 전갈하기를,

“이는 중국 사람과 마찬가지니 즉시 가보라.”

한다. 이에 사신이 서로 의논하여, 혹은,

“가보는 것은 결코 중난(重難)한 일이야.”

하고, 또는,

53 서번(西番)의 성승(聖僧) : 라마교 승려. 서번은 티베트를 중심한 중앙아시아 지방을 총칭해 부르는 지명. ‘蕃’은 다른 본에 ‘蕃’으로 된 것이 있으나 그릇되었다.

“글을 예부에 보내어 이치로 따지자.”

하고, 당번 역관은 말끝마다,

“예, 예.”

할 뿐이었다. 나는 본시 한산한 몸으로서 구경할 뿐, 사행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간섭이 없었으려니와, 또 이때껏 내게 묻는 일도 없었다. 이때 내 마음속으로 하도 희한하여,

“이는 참으로 좋은 기회이다.”

하고는, 또 손가락 끝으로 공중에 무수히 권주(圈朱)를 치며,

“좋은 제목(題目)이다. 이런 때 사신이 만일 소장을 올린다면, 그 의로운 명성이 천하에 떨치어서 크게 우리나라를 빛내리로다.”

하고, 또 스스로 묻기를,

“그렇다고 군사를 낼 것인가.”

하고, 또 스스로 답하기를,

“이건 사신의 허물이니, 어찌 그 나라에 노여움을 옮길 것인가. 그러나, 사신이 그 빌미로 진(滇 운남의 별칭) · 검(黔 귀주의 별칭)이니 운남(雲南) · 귀주(貴州)니 하는 곳으로 귀양살이가는 것쯤이야 하는 수 없는 일일 테지. 그리되면 내 혼자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 서촉(西蜀)과 강남(江南)의 땅을 내 곧 밟게 되리로다. 강남은 오히려 가깝되, 저 교주(交州 안남 하내(安南河內))니 광주(廣州 광동(廣東))니 하는 곳은 연경에서 만여 리 길이나 된다니, 내 구경이 이처럼 난만(爛漫)하여지리.”

하고, 하도 마음속으로 기뻐서 곧 밖으로 뛰어나가 동상(東廂) 밑에 서서 이동(二同)건糧(乾糧)의 마두 이름 을 불러 내어,

“얼른 술을 사오려무나. 너는 돈일랑 아끼지 말아라. 내 이제부터 너와 이별이다.”

하고, 술을 마시고 들어갔으나, 아직껏 의논이 정하여지지 않았는데, 예부의 독촉이 성화(星火) 같아서 비록 하원길(夏原吉)⁵⁴의 위풍(威風)일지라도 배겨 낼 수 없으므로, 안장과 말을 정돈하는 사이에 저절로 늦어져서 해가 이미 기울었다. 낮이

54 하원길(夏原吉) : 명의 홍무 때 명신. 다섯 조정을 역사(歷事)하였으며, 대신의 풍도(風度)가 있었다.

지나면서 날씨가 몹시 뜨거웠다. 행재소의 대궐문을 거쳐 성을 돌아서 서북으로 향해 반도 못 갔을 무렵에, 별안간 황제의 명령이 내렸다.

“오늘은 이미 늦었으니, 사신은 돌아가서 다른 날을 기다리라.”

이에 서로 돌아보며 놀라서 되돌아섰다.

소위 성승(聖僧)이란 서번의 승왕(僧王)인데, 호는 반선불(班禪佛)이요, 또 장리불(藏理佛)이라고도 하며, 중국 사람들은 거개 그를 존신(尊信)해서 활불(活佛)이라 일컫는다.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마흔두 대 전신(轉身)⁵⁵이라 하며, 전신(前身)은 중국에서 많이 태어났고, 나이는 지금 마흔셋이오.”

한다. 지난 오월 스무날에 열하로 맞아 와서, 따로 궁궐을 짓고 스승으로 섬기는 것이다. 혹은 이르기를,

“그의 하인들이 많아서, 이곳에 들어온 뒤에 점차 떨어져 남았으나, 그를 따라온 자가 그래도 수천 명이 넘으며, 그들은 모두 비밀히 병장기를 감추고 있건만 황제 만이 이를 깨닫지 못한다.”

한다. 이는 공연히 인심을 소란하게 하고자 하는 말인 듯싶다. 또 거리의 아이들이 부르는 황화요(黃花謠)는 이를 두고 말함이라 한다. 그리고 그 시(詩)는 육리자(郁離子)⁵⁶가 지은 것이다.

55 전신(轉身) : 라마교에서 말하는 전생(轉生). 반선이 죽는 순간 국내 다른 집에서 아기로 다시 태어나면, 그 아기를 찾아 길러서 후계자로 삼는다 한다.

56 육리자(郁離子) : 명 유기(劉基)의 별호. 이내 그의 저서의 이름이 되었다.

붉은 꽃 다 지고 누런 꽃 피는구나 | 紅花落盡黃花發

붉은 꽃이란 붉은 모자를 가리킴이었고, 몽고와 서번은 모두 누런 모자를 쓰는 것을 이름이었다. 또 한 노래에,

원래는 옛 물건이니 누가 정말 주인인고 | 元⁵⁷是古物誰是主

라 하였으니, 이 두 노래를 보면 모두 몽고를 두고 부름이다. 몽고는 방금 마흔 여덟 부가 강하고, 그 중 토번(吐番)이 가장 사납다. 토번은 서북의 호족(胡族)이었으며, 몽고의 별부(別部)로서 황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자였다.

박보수(朴寶樹)가 예부에 가서 일을 탐문하고 와 하는 말이,

“황제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나라는 예(禮)를 알건만 사신은 예를 모르네그려’ 하더군요.”

하고는 보수와 통관들이 모두 가슴팍을 치고 울면서,

“우리들은 죽습네그려.”

하나, 이는 통관 무리들이 일쑤 잘하는 벼룩이라 한다. 비록 털끝만한 작은 일일지라도, 황제의 명령이라면 문득 죽는다고 야로를 하기가 일쑤인데, 하물며 중로에서 돌아가라 함은 마음에 언짢음을 뜻함에라. 또 예부에서 전하는 말 중,

“예(禮)를 모르네.”

라는 구절은 곧 불평을 띤 말인즉, 통관들이 가슴을 치며 우는 것도 공연한 공갈만은 아니겠으나, 그 거조가 흥측하고 월패스러워 사람들로 하여금 요절하게 한다.

우리나라 역관들도 두렵긴 할 테지만, 조금도 까딱하지 않았다.

저녁에 예부에서 알려 오기를,

“내일 식후에나 모레 아침결에 황제께서 사신을 만나보실 테니, 일찍 서둘러서 늦지 말라.”

한다. 저녁 뒤에 윤헝산(尹亨山)을 찾았다. 마침 홀로 앉아서 담배를 피우다가, 손

57 원(元) : ‘원(元)’은 ‘원 나라’라는 의미로도 통한다.

수 담아 불을 붙여서 내게 권하고는,

“영형 대인께서 귀중하신 몸 안녕하십니까?”

한다. 나는,

“황제 덕택에 별고는 없으시답니다.”

하였더니, 그는 또 《계림유사(鷄林類事)》⁵⁸를 물기에 나는,

“이는 열수(冽水) 지방의 방언(方言)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하였다. 윤공(尹公)은 또,

“귀국에 《악경(樂經)》이 있다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하는 중에 기공(奇公)이 와서 ‘악경’이란 글자를 보고는 역시,

“귀국에 또 안부자(顏夫子 안회(顏回))가 지은 책이 있으나, 중국에 오는 사신(使臣)이 이 두 책을 지니고 오면 압록강(鴨綠江)을 건너지 못한다 하니, 정말 그렇습니까.”

한다. 나는,

“공자가 계신텐데 안회(顏回)가 어찌 책을 지었으리까.⁵⁹ 또 진(秦)이 《시(詩)》·《서(書)》를 불살랐으니 어찌 《악경》만이 빠졌을 수 있으리까.”

하였더니, 기공은,

“참 그럴 터이죠.”

한다. 나는 또,

“중국은 문명(文明)이 집중되는 곳이니, 만일 우리나라에 참으로 이 두 가지 책이 있어서 가져 오려는 자가 있었다면, 이는 모든 신령이 두호할 일이거늘, 어찌 강물을 잘 건너지 못하였으리까.”

하였다. 윤공은,

“옳은 말씀이에요. 《고려지(高麗志)》가 일본(日本)에서 나왔으니까요.”

하기에, 나는,

58 계림유사(鷄林類事) : 송(宋) 손목(孫穆)이 우리나라 고사(故事)를 적은 책. 계림은 경주(慶州)의 고호.

59 공자가……지었으리까 : 《논어》에 나오는 안회의, “선생님이 계시니 제가 어찌 죽을 수 있겠습니까”라는 말을 해학조로 이용하였다.

“《고려지》라니, 몇 권이나 됩디까?”

하였더니, 윤공은,

“난완(蘭琬) 무공련(武公璣)이 초(鈔)한 《청정쇄어(蜻蜓瑣語)》에 고려서목(高麗書目)이 있습니다.”

한다. 기공이 나를 이끌고 나와서 달을 구경하는데, 이때 달빛이 낮같이 밝았다.
나는,

“달 속에 만일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면, 달에서 땅을 바라보는 이 있어서, 그 난
간(欄干) 밑에 비겨 서서 우리와 함께 땅의 빛이 달에 가득함을 구경할 터이죠.”

하였더니, 기공이 난간을 치면서 기이한 말이라 일컬었다.

11일 정사(丁巳)

개다.

새벽에 사신이 궐내로 들어갔다. 덕상서(德尙書)가 사신과 인사를 나눈 뒤에,
“내일은 의당 만나보시겠다는 명령이 내릴 것이나, 오늘 역시 반드시 없으리라고
는 기필할 수 없겠으즉, 잠깐 조방(朝房)에 앉아서 기다리십시오.”

한다. 사신이 모두 조방에 들어간즉, 황제가 또 어찬(御饌) 세 그릇을 내리었는데,
그 내용은 어제 것과 같았다. 나는 궐문 밖에 나가서 천천히 걸어다니면서 구경하
였다. 어제 아침보다 더 분답하여 검은 티끌이 공중에 가득하며, 길가 다방(茶房)
과 주점(酒店)에 수레와 말이 들끓었다.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으므로 속이 혀혔
하여 혼자 사관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한 젊은 중이 준마(駿馬)를 타고서 흑단(黑
綬)으로 만든 방관(方冠)을 쓰고 공단으로 지은 도포(道袍)를 입었는데, 얼굴도 아
름답고 의관의 차림도 말쑥한 품이, 중인 것이 아까웠다. 의기가 양양하게 지나치
다가, 아주 큰 노새를 타고 오는 한 사람과 만나 말 위에서 서로 손잡고 반기더니,
중이 별안간 성낸 빛을 띠었다. 그러다가 둘이 다 목소리를 높이더니 마침내 말 위
에서 서로 때리었다. 중이 두 눈을 사납게 부릅뜨며 한 손으로 가슴을 움켜잡고,

또 한 손으로 머리를 팬다. 노새 탄 자는 몸을 기울이며 약간 비키더니, 모자가 떨어져서 목에 걸렸다. 그 역시 몸이 건장하고 머리와 수염이 약간 희끗희끗한데, 그 기색을 살피니 중에게 조금 끌리는 모양이다. 둘이 서로 붙안은 채 안장에서 떨어져 땅에 뒹굴었다. 처음엔 노새 탔던 자가 종을 가로탔으나, 나중에는 종이 뒤쳐서 위에 올랐다. 제각기 한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어 서로 때릴 수는 없고, 다만 얼굴에 침을뱉을 뿐이다. 노새와 말은 마주 우두커니 서서 움직이지 않는다. 둘이 한 덩어리가 되어 길을 굴러갈 뿐, 에워싸 구경하는 사람도 없고, 풀에 말리는 자도 없었다. 서로 쳐다보고 내려다보면서 헐떡헐떡할 뿐이다.

한 과일점에 들렸다. 마침 새로 난 과일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노전(老錢 중국의 엽전(葉錢) 일백(一陌)[열여섯 니이 우리나라 한 돈에 해당된다.]으로 배 두 개를 사 가지고 나오니, 맞은편 술집의 깃대가 헌함 앞에 펼려이고, 은호(銀壺) · 주병(酒瓶)이 처마 밖에 너울너울 춤을 춘다. 푸른 난간이 공중에 걸쳤고, 금빛 현판은 햇빛에 어린다. 좌우의 푸른 술기[酒旗]에는,

신선의 옥패 소리 이곳에 머물렀고 | 神仙留玉佩
공경의 금초구는 끌러서 주는구나 | 公卿解金貂

라 써어 있다. 다락 밑에는 수레와 말이 몇이 놓여 있고, 다락 위에선 사람들의 웅얼거리는 소리가 마치 별과 모기 폐 같았다. 나는 발걸음 가는 대로 다락 위로 올라가니, 계단이 열둘이었다. 탁자를 사이에 놓고 교의에 앉아 혹은 서넛, 혹은 대여섯 사람들이 끼리끼리 둘러앉았는데, 모두 몽고나 회자(回子)들이요, 무려 수십 패였다. 몽고 사람의 머리에 쓴 것은 마치 우리나라 쟁반 같고, 모자가 없으며, 그 위에는 양털로 꾸몄는데 누렇게 물들였다. 혹은 것을 쓴 자도 없지 않으나, 그 모양은 우리나라 전립(氈笠)과 같은데, 혹은 등(簾)으로 하고, 혹은 가죽으로 하여 안팎에 금을 칠하고, 혹은 오색 빛깔로 구름무늬 같은 것을 그렸다. 모두 누런 웃옷에 붉은 바지를 입었고, 회자는 대체로 붉은 옷을 입었으나, 또한 검은 옷도 많았다. 붉은 전(氈)으로 고깔을 만들어 썼으나, 모자가 너무 길어서 다만 앞뒤에 차

양을 달았을 뿐, 그 모양이 마치 돌돌 말린 연잎이 물 속에서 갓 나온 것 같고, 또 약을 가는 쇠 연[鐵研]과 같이 두 끝이 뾰족하여 가볍고 부박해서 우스꽝스러워 보인다. 내가 쓴 갓은 전립(氈笠)[이른바 갓이란 병거지이다.]과 같은데 은으로 술을 새기고 꼭지에 공작 깃을 꽂았으며, 턱을 수정 끈으로 매었으니, 두 오랑캐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 것인가. 만주족이고 한족이고 간에 중국 사람이라곤 한 사람도 다 락 위에 없었다. 두 오랑캐들의 생김생김이 사납고도 더러워서, 올라온 것이 후회가 되기는 하나, 이미 술을 청했는지라 그 중 한 좋은 교의를 골라서 앉았다. 술심부름꾼이 와서,

“몇 냥(兩)어치 술을 마시렵니까?”

하고 묻는다. 여기서는 술 무게를 달아 파는 것이다. 나는,

“넉 냥만 쳐 오려무나.”

하고 가르쳐 주었다. 심부름꾼이 가서 술을 데우려 하기에, 나는,

“데워선 못 써. 찬 것 그대로 달아 와.”

했더니, 술심부름꾼이 웃으면서 부어 와서 먼저 작은 잔 들을 탁자 위에 벌여 놓으므로, 나는 담뱃대로 그 잔을 쓸어 엎어 버리고,

“큰 술잔을 가져 와.”

하여, 모두 부어서 대번에 다 들이켰다. 못 되놈들이 서로 돌아보면서 놀라지 않는 자가 없었다. 대개 내가 쾌하게 마시는 것을 장하게 여기는 모양이었다. 중국의 술마시는 법이 매우 암전하여서, 비록 한여름에도 반드시 데워 먹을뿐더러, 심지어 소로(燒露 소주)라도 끓이며, 술잔은 은행 알만한데도 오히려 이빨에 대어서 조금씩 마시고, 탁자 위에 남겨 두었다가 때때로 다시 마시며, 단번에 쭈욱 기울이는 법이 없고, 되놈들도 이와 같아서, 세속에서 이른바 큰 종지나 사발에 따라 마시는 일은 아주 없었다. 내가 찬 술을 달래서 넉 냥쯤을 단숨에 마신 것은, 이것으로 저들을 두렵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대담한 척하려 함이니, 이는 실로 겁쟁이 짓이요, 용기가 아니었다. 내가 찬 술을 달랄 때 여려 되가 이미 3분(分)쯤 놀랐는데, 단번에 마시는 것을 보고는 크게 놀라서, 도리어 저쪽에서 나를 두려워하는 기색이다. 주머니에서 8푼을 꺼내어 심부름꾼에게 술값을 치러 주고 나오려는데, 여러 되가

모두 교의에서 내려 머리를 조아리며 다시 한 번 앓기를 권하고는, 그 중 한 사람이 제 자리를 비워서 나를 불들어 앓힌다. 저희는 호의로 하는 것이나, 나는 벌써 등에 땀이 배었다. 내 어릴 때 하인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술 먹는 것을 보았는데, 그 주령(酒令) 중에,

“자기 집을 지나치면서도 들어가 본 적 없이 나이 일흔에 생남하고 보니, 등이 땀에 젖었구려.”

라는 구절이 있었다. 내 성미가 본디 웃음을 참지 못하므로, 사흘 동안 허리가 시큰거렸다. 오늘 아침에 만 리 변새에서 문득 뜻 되놈과 더불어 술을 마시매, 만일 주령을 세운다면 정말,

“등에 땀이 솟는다.”

하여야 의당할 것이라. 한 되놈이 일어나 술 석 잔을 부어 탁자를 두드리면서 마시기를 권한다. 나는 일어나 그릇에 남은 차(茶)를 난간 밖에 버리고는, 그 석잔을 모두 부어 단숨에 쭈욱 들이켜고, 몸을 돌려 한 번 읊한 뒤 큰 걸음으로 충충대를 내려오는데, 머리끝이 으쓱하여 무엇이 뒤를 따라오는 것 같았다. 나와서 길 가운데 서서 위층을 쳐다보니, 웃고 지껄이는 소리가 요란하다. 아마 내 말을 하는 모양이다.

사관에 돌아오니 점심때가 아직 멀었기에 윤형산(尹亨山)의 처소에 들렀더니, 조정에 나가고 없었다. 다시 기 안찰(奇按察)을 찾았으나, 역시 없었다.

또 왕혹정(王鵠汀)을 찾았더니, 혹정이 구정시집서(毬亭詩集序) 한 수(首)를 내어 보이는데, 글도 그리 잘 되지 못하였고, 또 전편이 오로지 강희 황제와 지금 황제의 성덕(盛德) · 대업(大業)을 기술한 것으로, 그들을 요 · 순처럼 높인 것이 지나치게 번거롭다. 미처 다 읽기 전에 창대가 와서,

“아까 황제께서 사신을 불러 보시고, 또 활불(活佛)을 가보라 하십니다.”

한다. 나는 밥을 재촉하여 먹고 의주 비장(義州裨將)과 함께 궐내에 들어가서 사신을 찾았으나, 이미 반선(班禪)의 처소로 가고 없었다. 곧 궐문을 나오니, 황륙자(皇六子)가 문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문 밖에 매어 두고, 구중들과 더불어 바쁜 걸음으로 들어간다. 어제는 말을 탄 채 그대로 들어가더니, 오늘은 말에서 내리는 것이

무슨 까닭인지 알 수 없다. 궁성을 끼고 왼편으로 돌아드니, 서북쪽 일대의 궁관(宮觀)과 사찰(寺刹)들이 면면이 눈에 들어온다. 혹은 너덧 층 누각도 있으니, 이는 이른바,

상강에 배를 타고 굽이굽이 돌아들 제 | 帆隨相轉
형산 아홉 봉우리 그 얼굴 다 뵈누나 | 望衡九面

가 곧 이를 이름이리라. 군포(軍舡)가 있는 곳마다 숙위(宿衛)하는 장정들이 모두 나와서 구경하다가, 내가 혼자서 방황하고 있음을 보고 서로 다투어 서북쪽을 멀리 가리켜 준다. 그제서야 내를 끼고 가니, 물가에 흰 군막이 수천이나 있는데, 모두 수자리 사는 뚉고병이었다. 또 북녘으로 눈을 돌려 멀리 하늘 가를 바라본즉, 두 눈이 별안간 어지러워진다. 반공에 우뚝 황금건물[金屋]이 솟았는데, 구름 속에 들어가 햇빛에 눈이 부신 까닭이다. 강에는 거의 1리(里)나 되는 다리가 놓였으며, 난간을 꾸민 단청이 서로 어리었고, 몇 사람이 그 위로 다니는 것이 아련히 그림 같다. 이 다리를 건너고자 하니, 모래 위로 사람이 급히 오면서 손을 휘젓는 것이, 건너지 말라는 것 같다. 마음은 몹시 바빠서 말을 곧장 채찍질하였으나, 오히려 더딘 것 같으므로 마침내 말에서 내려 강을 따라 올라가니, 돌다리가 있고 그 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오가기에 문을 들어서니, 기이한 바위와 이상한 돌들이 총총으로 쌓였고, 그 솜씨의 교묘함은 사람 아닌 귀신의 수법인 듯싶다.
사신과 당번 역관은, 궐내에서 바로 왔으므로 내게 미처 알리지 못한 것을 애석히 여기던 차에 내가 나타난 것이 뜻밖이어서, 모두들 내게 구경 벽(癖)이 심하다고 조롱한다.

연경의 숲 사이에도 자주 · 다흥 · 초록 · 파랑 등 여러 빛깔의 기와로 이은 집이 드러나 보이고, 더러는 정각(亭閣) 꼭대기에 금빛 호로병을 세운 것은 있었으나, 지붕 위에 금기와를 올린 것은 못 보았다. 이제 이 전(殿)에 덮은 기와가 비록 순금인지 도금인지는 알 수 없겠으나, 2층 대전(大殿)이 둘, 다락 하나, 문 셋이었고, 그 나머지 정각은 여러 빛깔로 된 유리기와인데, 이에 비기면 무색하여 보잘것이 없

었다. 동작대(銅雀臺)의 기와는 가끔 캐어서 고연(古研)으로 쓰나, 이는 가마에 구운 것이요, 유리가 아니었다. 유리기와는 어느 때 비롯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시인(詩人)이 이른바,

“옥섬돌에 금지붕이여.”

하고 떠들던 것이 정말 오늘 내가 보는 것과 같음인지, 그 일이 사전(史傳) 중에 나타난 것으로는,

“한 성제(漢成帝)가 소의(昭儀)를 위하여 집을 짓는데, 그 체(砌)를 모두 구리로 하여 황금을 입히었다.”⁶⁰

하였는데, 안사고(顏師古)⁶¹가 이에 주(註)를 내어,

“체(砌)란 문지방이니, 구리를 그 위에 입히고, 게다가 또 금을 입히었다.”

하였고, 또 사전에 이르기를,

“바람벽 가운데엔 가끔 황금항(黃金缸)을 해 박고는, 남전산(藍田山)에서 나는 옥과 진주와 비취(翡翠)의 날개로 하였다.”⁶²

하였는데, 복건⁶³은 이르기를,

“강(缸)이란 벽 가운데 가로지르는 것이다.”

하였고, 진작(晉灼)⁶⁴은,

“금환(金環)으로 꾸민 것이다.”

하였다. 대체로 영인(伶人) 혼(玄)⁶⁵이나 반맹겸(班孟堅)⁶⁶의 무리가 몇 번이나 힘껏 황금(黃金)이란 글자를 되풀이하여, 천 년 뒤에 한번 책을 펼치면 오히려 눈부시고 휘황할 지경이다. 그러나, 이들은 벽이나 문지방에 금칠한 정도임을 보고, 역사를 쓰는 이들이 지나치게 과장했을 뿐이리라. 참으로 소의(昭儀)의 자매(姊妹)에게 이

60 한 성제(漢成帝)가……입히었다 : 《한서(漢書)》에 나오는 말이다. 소의(昭儀)는 궁녀의 벼슬 이름으로, 당시의 소의는 곧 조비연(趙飛燕) 자매(姊妹)를 가리킨다.

61 안사고(顏師古) : 당 태종(唐太宗) 때의 학자. 《한서》의 주석을 냈다.

62 바람벽……하였다 : 《한서》에 나오는 말이다.

63 복건(服虔) : 전한 말기의 학자. 자는 자신(子慎).

64 진작(晉灼) : 진(晉)의 학자. 《한서음의(漢書音義)》를 지었다.

65 영인(伶人) 혼(玄) : 영인의 이름인데, 시대는 미상. 영인은 악관(樂官) 혹은 배우.

66 반맹겸(班孟堅) : 《한서(漢書)》의 저자 반고(班固). 맹겸은 자.

집을 보였던들, 반드시 몸부림치며 침대에 쓰러져 울고 밥을 먹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설사 성제(成帝)가 화려하게 하고 싶어하였더라도, 안창(安昌)⁶⁷ · 무양(武陽)⁶⁸의 무리가 모두 유자(儒者)인지라, 반드시 옛 경서를 이끌어 붙여서 이를 반대했을 것인즉, 성제의 역량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을 것이었고, 또 설혹 그 뜻대로 되었다 하더라도, 반맹견의 필력(筆力)으로써 과연 어떻게 포장(舡張)하였을까. 알지 못하겠다. 대뜸,

“금전(金殿)이 어리어리하구나.”

하지 않았겠느냐. 필시 이를 지워 버렸을 것이요, 또,

“금궐(金闕)이 하늘 높이 솟았다.”

고 하였겠지. 그리고 나서는 한번 읊어 보고 또 지워 버렸을 것이요, 또,

“2층 대궐을 세우고 기와에 황금을 칠했다.”

하였거나, 또는,

“임금께서 황금전(黃金殿)을 세웠다.”

라 하였을까. 비록 양한(兩漢) 때 문장이라 하였지만, 그는 늘 작은 제목을 커다랗게 과장하니, 이는 천고 작가(作家)들에게 끼친 한(恨)이 아닐 수 없겠다. 예를 들면, 저 궁실을 잘 그린다고 하더라도 궁실에는 사면이 있고 또 안팎이 있으며, 또 덧놓이고 겹친 곳도 없지 않다. 이에 비록 서양의 그림이 제아무리 교묘하단들, 다만 한 면을 그렸으니 남은 세 면은 그릴 수 없을 것이요, 밖은 그려도 속은 그릴 수 없으며, 복전(複殿) · 첨사(疊榭)와 회랑(回廊) · 중각(重閣)은 단지 그 날아갈 듯한 처마와 아련한 대마루를 모사했을 뿐이요, 그 파고 새김이 섬세하여 털끝 같으니, 그림으로는 이를 그려 낼 수 없는 것이 곧 천고 화가(畫家)가 끼친 한이리라. 그러므로, 우리 공부자께서 이미 이 두 가지에 대하여 탄식하시되,

“글월은 말을 다할 수 없고, 그림은 뜻을 다할 수 없다.”⁶⁹

하였던 것이다. 천하에 사관(寺觀)이 만을 해아리지만, 금을 입힌 것은 다만 산서

67 안창(安昌) : 성제의 스승 안창후 장우(張禹).

68 무양(武陽) : 성제 때의 재상 무양후 설선(薛宣).

69 글월은……없다 : 《역경(易經)》〈계사전(繫辭傳)〉에서 나온 구절.

(山西) 오대산(五臺山)의 금각사(金閣寺)가 있을 뿐이다. 당 대종(唐代宗 이예(李豫)) 대력(大曆) 2년(767)에 왕진(王縉)⁷⁰이 정승이 되어, 중서성(中書省) 부첩(符牒)을 내려서 오대산의 중 수십 명을 사방에 흘어 보내어 시주(施主)를 모아 이를 짓게 하되, 구리쇠로 기와를 굽고 금을 입히어서 그 비용이 여러 만금인데, 그 집이 아직도 남아 있다 한다. 이제 이 기와 역시 구리쇠로 굽고 금을 씌웠을 것이다.

내가 요양의 거리에서 잠시 쉴 제, 모두들 다투어,

“황금, 갖고 오셨지요.”

하고 물기애, 나는,

“금은 토산(土產)이 아니오.”

하였더니, 그들은 모두 비웃는다. 심양 · 산해관 · 영평 · 통주를 지나칠 때에도 모두들 금을 묻지 않는 자가 없었다. 내가 번번이 처음같이 대답하면, 그들은 문득 제 모자 꼭대기를 가리키면서,

“이게, 조선 금이라오.”

한다. 연암(燕巖)에 있는 우리 집이 송도(松都)에 가까워서 가끔 그 곳에 드나들었는데, 송도는 곧 연상(燕商) 연경에 드나드는 장사치)을 기르는 곳이었으므로, 해마다 칠팔월로부터 시월까지의 사이에 금값이 폭등하여, 한 푼쯤에 엽전으로 마흔다섯닢, 또는 쉰닢씩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을 쓸 곳이 별로 없으며, 문무(文武) 이품(二品) 이상의 금관자나 금띠로 말하더라도, 늘 만드는 것이 아니요, 흔히들 서로 벌려쓰고, 또 시집가는 색시의 가락지나 머리꽂이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인즉, 금은 천하기가 흙이나 다름없을 것이어늘, 그 귀함이 이러함은 어인 까닭일까.

내가 압록강을 건너기 전에, 박천(博川) 땅에 이르러 말을 길 옆에 세우고 벼드나무 밑에서 땀을 들일 제, 남부여대(男負女戴)하고 가는 사람들이 폐를 지었는데, 모두 8~9세 되는 사내와 계집아이들을 데리고 마치 흥년에 유리하여 가는 것 같기에 이상히 여겨서 물은즉,

“성천(成川) 금광으로 가는 것이옵니다.”

한다. 그 기계를 보니, 나무 바가지 하나, 포대 하나, 끌 하나일 뿐인데, 끌로 파내

70 왕진(王縉) : 당의 시인 왕유(王維)의 아우. 자는 하경(夏卿). 대종 때 정승으로 불교를 독신하였다.

어 포대에 담으며 바가지로 이는 것이다. 온종일 흙 한 포대만 일면 별로 애쓰지 않아도 먹을 수 있으며, 조그만 계집아이들이 더욱 잘 파서일뿐더러, 눈이 밝아서 금을 잘 얻곤 한다. 나는 그들에게,

“하루 종일 하면 금을 얼마나 얻는 거요.”

하였더니, 그들은,

“그건 재수에 달렸지요. 혹은 하루에 여남은 알을 얻는 일도 있고, 재수가 없으면 서너 알에 그치며, 재수가 트이면 삽시에 부자가 된답니다.”

한다.

“그럼, 그 알이 어떻게 생겼던고.”

하였다,

“거의 피 낱알만합지요.”

한다. 이는 농사짓기보다 이익이 나오니, 한 사람이 하루에 얻는 금이 적어도 예닐곱 푼쯤은 되어서, 돈으로 바꾸면 두세 냥이나 되므로, 비단 농사꾼들 태반이 농장을 떠나 이에 모여들 뿐 아니라, 사방의 건달패와 놈팽이들이 달려와 저절로 부락이 이루어져 무려 십여만 명이 들끓고, 쌀이나 기타 여러 가지의 물건이 모여들어, 술과 밥이며 떡과 옛 같은 것을 파는 장사들이 산골에 가득 차 있다 한다. 나는 알지 못하겠노라. 그 금이 어디로 가며, 그 캐낸 금이 많은데도 그 값이 더욱 오름이 무슨 까닭일까. 이제 이 기와에 물들인 것이 우리나라 금인지 아닌지 어찌 알 수 있으랴. 청초의 세폐(歲幣)에 제일 먼저 금을 면제하였음은, 토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만일 간상배가 법을 어기고 가만히 이를 팔다가, 혹시 이것이 청의 조정에 알려지게 된다면, 비단 사단이 생길 염려가 있을 뿐 아니라, 황제가 이미 황금으로 지붕을 칠하였으니 우리나라에 금광을 열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는가. 대(臺) 위의 작은 정각의 창호는 모두 우리나라 종이로 도배하였다. 창 틈으로 들여다보니 아무 것도 없이 텅 비었고, 혹은 교의 · 탁자 · 향로 · 화병 등이 모두 운치 있어 보인다. 사신들이 하인들을 문 밖에 남겨 두고서 함부로 들어오지 말도록 엄명하였는데, 조금 뒤에 모두 기어올라왔다. 역관과 통관들이 크게 놀라서 꾸짖어 도로 나가게 하자, 그들은,

“저희들이 감히 함부로 들어왔겠습니까. 문지기가 오히려 저희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저어하는 듯이 인도해서 올라온 것이옵니다.”

한다. 찰십륜포(札什倫布)⁷¹와 반선시말(班禪始末)의 기록이 따로 있다.

정사가 말하기를, 아침나절 사찬(賜饌)이 있은 뒤 조금 지나서 인대(引對)하겠다는 명령이 내려서, 통관이 인도하여 정문 앞에 이르렀더니, 그 동쪽 협문에 시위(侍衛)하는 여러 신하들이 섰거나 혹은 앉아 있었다. 덕상서와 낭중 몇 사람이 와서, 사신의 출입을 주선하는 절차를 지휘하고 갔다. 이윽고 군기 대신이 황제의 뜻을 받들어,

“그대의 나라에도 사찰이 있으며, 또 관제도 있는지?”

하고 묻더니, 얼마 아니 되어 황제가 정문으로 해서 문 안의 벽돌을 깔아 놓은 위에 나앉았다. 교의와 탁자도 나오지 않고, 다만 평상에 누런 보료를 깔았으며, 좌우의 시위는 모두 누런 옷을 입었는데, 그 중에서 칼을 찬 자는 서너 쌍에 불과하고, 누런 일산을 받들고 선 자는 두 쌍이다. 그들은 모두 엄숙한 표정으로 조용하다. 먼저 회자(回子)의 태자가 앞으로 나와 몇 마디 아뢰고 물러간 뒤에, 사신과 세통사(通事)를 나오라 하매 모두 나아가 무릎을 꿇었다. 이는 무릎이 땅에 닿을 뿐, 뒤를 붙이고 앉은 것은 아니다. 황제가,

“국왕(國王)께서 평안하신가?”

하고 물으니, 사신은 공손히,

“평안하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황제는 또,

“만주말을 잘하는 이가 있는가.”

하매, 상통사(上通事) 윤갑종(尹甲宗)이,

“약간 아옵니다.”

하고 만주말로 대답하였더니, 황제가 좌우를 돌아보며 기뻐하며 웃었다. 황제는 모난 얼굴에 희맑으면서 약간 누런 빛을 띠었으며, 수염이 반쯤 희고, 나이는 예순쯤 된 듯싶다. 애연히 춘풍화기를 지녔다. 사신이 반열(班列)에 물려서자, 무사 예

71 찰십륜포(札什倫布) : 반선 라마 활불이 살고 있는 곳.

닐곱이 차례로 들어와 활을 쏘는데, 살 하나를 쏘고는 반드시 꽂아앉아서 고함을 친다. 그리하여 과녁을 맞힌 자가 두 명인데, 그 과녁은 마치 우리나라의, 풀로 만든 과녁과 같으면서 한복판에 짐승 한 마리를 그렸다. 활쏘기가 끝나자 황제가 곧 돌아갈 제, 내시들은 모두 물러가고 사신도 역시 물러갔다. 문 하나를 채 못 나와서 군기(軍機)가 와서,

“사신은 곤장 칠십륜포(札什倫布)로 가서 반선(班禪) 액이더니(額爾德尼)⁷²를 봐라.”

하고 황제의 전갈을 내린다. 옛 역사를 상고하건대, 서번(西番)은 멀리 사천(四川) · 운남(雲南)의 밖에 있는데, 이른바 서장(西藏)의 땅이다. 대체로 변방에 있어서, 중국과 거리가 더욱 멀었다. 강희 59년(1720)에 책망아라포원(策妄阿喇布垣)⁷³이 납장한(拉藏汗)⁷⁴을 유인하여 죽이고 그 성지(城地)를 점령하여, 묘당을 헐어 버리고 번승(番僧)을 해산시켰다. 그래서 도통(都統) 연신(延信)을 평역장군(平逆將軍)으로, 갈이필(噶爾弼)을 정서장군(定西將軍)으로 삼고는, 장병(將兵)을 거느리고 새로 봉한 달라이라마[達賴喇嘛]를 보내어 서장 일대를 평정한 뒤에, 황교(黃敎 라마교의 별칭)를 진흥시켰다 한다. 소위 황교라는 것이 무슨 도(道)인 줄은 알 수 없겠으나, 대개 몽고 제부(諸部)가 숭배하는 교이므로, 서장이 혹시 침략의 걱정이 있으면, 강희 황제 때부터 친히 육군(六軍)을 거느리고 영하(寧夏 감숙성(甘肅省)에 있는 지명)까지 이르러 장수를 보내서 구월하여 동란을 진정시킨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건륭 을미(1775)에 사락목(素諾木)⁷⁵이 금천(金川)⁷⁶에서 반기를 들었을 때, 황제가 서장 길이 막힐까보아 두려워해서 아계(阿桂)⁷⁷를 정서장군으로, 풍승액(豐昇額) · 명량(明亮)을부장(副將)으로, 해란찰(海蘭察) · 서상(舒常)을 참찬(參贊)으로, 복강안(福康安) · 규림(奎林) 등을 영대(領隊)로 삼아 군사를 이끌고

72 액이더니(額爾德尼) : 반선의 이름.

73 책망아라포원(策妄阿喇布垣) : 신강 지방에 있던 준갈이(準噶爾) 부족의 장수.

74 납장한(拉藏汗) : 몽고 부족의 추장. 청해고시한(青海固始汗)의 손자.

75 사락목(素諾木) : 건륭 때 대금천(大金川)의 토사(土司).

76 금천(金川) : 사천성(四川省) 서북 변경에 있는 물 이름.

77 아계(阿桂) : 아국돈(阿克敦)의 아들. 자는 광정(廣廷).

쳐서 평정하였으니, 이 역시 서장을 위함이다. 대개 서장의 땅은 황제가 친히 보호하는 곳이요, 그 사람은 천자가 스승으로 섬긴다. 또 황(黃)으로 그 교의 이름을 지은 것은, 혹시 황제(黃帝)·노자(老子)의 도(道)를 숭배함이 아닌가 싶었다.

서장 사람들의 옷과 갓은 모두 누르므로, 몽고 사람이 이를 본받아서 역시 누런 빛을 송상한다. 그렇다면 황제의 시기함과 사나움이 어찌 유독 이 황화요(黃花謠)를 꺼리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액이더니(額爾德尼)는 서승(西僧)의 이름이 아니라, 서번 땅에서도 이런 이름이 있으니, 괴이하고도 황당(荒唐)하여 그 요령을 얻기 어려운 일이다. 사신은 비록 역지로 나아가 반선(班禪)을 보았으나 마음속으로는 불평을 품었으며, 당번 역관인즉 오히려 일이 날까보아 급급히 미봉(彌縫)하는 것을 다행으로 알았고, 하인들은 모두 마음속으로 번승과 황제를 욕하고 비방하였다. 왜냐하면, 만국의 공통된 군주로서 한 가지의 거조라도 삼가지 않을 수 없다.

태학(太學)에 돌아오매, 중국의 사대부들은 모두 내가 반선을 만나 보았음을 영광으로 생각하였거니와, 또한 그 도술(道術)의 신통(神通)함을 극구 칭찬하지 않는 자 없었으니, 그들의 희세(希世) 부회(傳會)의 기풍이 이러하였다. 대개 예로부터 세도의 승침(昇沈)이나 인심의 선악이, 모두 윗사람으로부터 인도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학지정(郝志亭)의 집에서 잠시 술을 마셨다. 이날 밤에는 달이 유난히 밝았다.[수작한 이야기는 <황교문답(黃敎問答)>에 실기로 한다.]

12일 무오(戊午)

개다.

새벽에 사신이 조반(朝班)에 들어가 광대(廣大)의 노래를 들었다. 나는 몹시 졸음이 오므로, 이내 누워서 편안히 잤다. 아침밥이 끝난 뒤에 천천히 걸어서 궐내에 들어간즉, 사신은 조회에 참여한 지 이미 오래고, 당번 역관 및 모든 비장은 뒤에 떨어져 궁문 밖 낮은 언덕 위에 머물러 있으며, 통관들 역시 이곳에 앉아서 들어

가지 못하였다. 음악 소리가 담장 안 가까이 새어 나오기에 좁은 문틈으로 엿보았으나,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담장을 돌아 여남은 걸음을 가서 작은 일각문(一角門)이 있는데, 한 쪽은 열려 있고 또 한 쪽은 닫혀 있다. 내가 조금 들어가서 보려 한즉, 군졸 몇이 말리며 문 밖에서 바라보기만을 허용한다. 문 안 사람들은 모두 문을 등진 채 즐비하게 섰는데, 조금도 자리를 옮기지 않고 마치 허수아비를 세워놓은 듯하였으며, 엿보려고 하여도 작은 틈도 없기에 다만 그들 머리 사이 빈 곳으로 바라본즉, 은은히 한 더미 푸른 뵐에 솔과 잣나무가 울창한데 잠깐 눈을 돌린 사이 별안간 어디론지 사라져 버린다. 또 채삼(彩衫)에 수포(繡袍)를 입은 자가, 얼굴에는 붉은 연지를 바르고 허리 이상이 사람들 머리 위로 헌걸차게 솟았으니, 아마 초헌(貂軒)을 탄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무대(舞臺)의 거리는 멀지 않으나 그늘지고 깊숙하여 마치 꿈속에 성찬(盛饌)을 만난 것처럼 먹어도 맛을 알 방법이 없었다. 문지기가 담배를 달라기에 곧 내어 주었다. 또 한 사람이 내가 오랫동안 발꿈치를 들고 선 것을 보고는 결상[凳]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올라서서 바라보게 하기에, 나는 한 손으로 그의 어깨를 잡고 또 한 손으로 문지방을 짚고 섰었다. 출연하는 자들은 모두 한인(漢人)의 의관(衣冠)으로 차렸으며, 4, 5백 명이 함께 몰려들었다가 또 물러서면서 일제히 노래를 부른다. 내가 디디고 선 결상은 마치 헛대를 탄 오리처럼 되어 오래 서 있기 어렵기에, 돌아나와 작은 언덕의 나무 그늘 밑에 앉았다. 이 날은 몹시 더웠으나, 구경꾼들은 빽빽하게 둘러서 있었다. 그들 중에 수정꼭지를 여러 개 단 사람이 있었으나, 그가 어떤 관원(官員)인지는 알 길이 없었다. 한 청년이 문을 나서니, 사람들이 모두 그를 피한다. 그 청년이 잠시 발을 멈추고 종자(從者)에게 무슨 말을 하는데, 돌아보는 모습이 몹시 사나워 보였다.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 잠자코 있었다. 두 군졸이 채찍을 갖고 와서 사람을 몰아내니, 회자(回子) 하나가 앉았다가 성내며 일어나서 두 군졸의 뺨을 치고 한주먹으로 때려 눕혔다. 청년 관원은 눈을 흘기면서 어디로 사라져 버린다. 남들에게 물은즉, 수정꼭지 단 자는 곧 호부상서(戶部尙書) 화신(和珅)⁷⁸이라 한다. 눈매가 곱고 준수한 얼굴에 기운이 날카로웠으나, 다만 덕기가 없으며, 나이는 이제 서른

78 화신(和珅) : 만인. 성은 유희록(鉞祐祿)이고, 자는 치재(致齋).

하나라 한다. 그는 애초 난의사(鑾儀司)⁷⁹ 호위 군졸 출신으로, 성격이 몹시 교활하여 윗사람의 비위를 잘 맞추었으므로, 불과 대여섯 해 사이에 갑자기 귀한 자리를 얻어서 구문(九門)⁸⁰을 통령하는 제독이 되어, 병부 상서(兵部尙書) 복용안(福融安)⁸¹과 함께 언제나 황제의 좌우에 붙어 있으므로, 그 세력이 조정에 펼쳤다. 이시요(李侍堯)⁸²가 해명(海明)의 뇌물 먹은 것을 적발하여 우민중(于敏中) 청 건륭 때의 고관)의 집을 몰수하고 아계(阿桂)를 내친 것이 모두 화신의 힘이었는데, 이런 일은 모두 올봄과 여름 사이의 일이었다. 사람들이 함부로 눈을 뜨고 바로 보지 못한다. 그리고 황제가 이제 여섯 살 나는 딸을 화신의 어린 자식에게 약혼시켰는데, 황제의 나이가 늙어서 성격이 점차 조급해져 노염이 잦으므로 좌우에게 매질하기가 일쑤였으나, 그가 이 어린 딸을 가장 사랑했으므로, 황제가 크게 성낼 때면 궁인이 번번이 이 어린 딸을 껴안고 와서 황제 앞에 놓는다. 그러면 황제가 노염을 그친다 한다.

이날 조회 반열에는 차와 음식이 세 차례나 내렸다. 사신 역시 그들과 마찬가지로 떡 한 그릇을 얻어먹었다. 누런 것과 흰 것 두 층으로 꾸었는데, 네모가 반듯하였으며, 그 빛은 마치 누런 밀랍(蜜蠟)과 같았다. 단단하고 가늘고도 매끄러워 칼이 잘 들지 않았으며, 그 위층이 더욱 육처럼 윤기가 나고 기름기가 흘렀으며, 떡 위에는 한 선관(仙官)을 만들어 세웠는데 수염과 눈썹이 생동하는 듯 도포와 홀(笏)이 화려했고, 그 좌우에는 또 선동(仙童)을 세웠는데 그 조각이 몹시 기묘하였다. 이들은 대개 밀가루에다 사탕가루를 섞어 만든 것이다. 땅에 묻는 허수아비를 만드는 것도 옳지 않다⁸³ 하였거늘, 하물며 이 인조(人造) 사람을 어찌 차마 먹을 수 있겠는가. 사탕 여덟은 가지를 결들여 담은 것이 한 그릇, 또 양고기가 한 그릇이

79 난의사(鑾儀司) : 황제의 거동 때에 필요한 사무와 의장(儀仗)을 맡은 관서.

80 구문(九門) : 황성의 각 성문을 지키는 장군.

81 복용안(福融安) : 복강안(福康安)의 잘못인 듯하다.

82 이시요(李侍堯) : 청의 건륭 때에 높은 벼슬을 지냈으나 뇌물 먹기를 좋아하였다.

83 땅에……않다 : 《맹자(孟子)》〈양혜왕장구(梁惠王章句) 상(上)〉 제4에서 맹자가 ‘공자의 말씀’이라고 인용하고 있다. “공자께서 ‘처음 나무 허수아비[俑]를 만든 자는 그 자손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는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례에 썼기 때문입니다.[仲尼曰，始作俑者，其無後乎。爲其象人而用之也]”라고 하였다.

다. 또 조정 진신(縉紳)들에게 채색 비단과 수놓은 주머니 등을 주었는데, 사신에게는 채단이 다섯 필, 주머니가 여섯 쌍, 담뱃대가 하나이고, 부사와 서장관에게는 각기 조금씩 줄여 차등이 있었다.

이날 저녁에는 구름이 끼어 달빛이 흐리었다.

13일 기미(己未)

새벽에 비가 잠시 뿌리다가 마침내 꽤 청하였다.

사신이 만수절 하반(賀班)에 참가하려 오경(五更)에 대궐로 들어갔다. 나는 포근히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 조용히 걸어서 대궐 밑에 이르렀다. 누런 보가 덮인 걸방 집 일곱을 권문 앞에 두고 쉰다. 짐 속에는 옥으로 만든 그릇과 골동이 담겨 있고, 또 보통 사람만큼 커다란 금부처 하나를 앉혀 놓았으니, 이들은 모두 호부상서 화신이 진상한 것이라 한다. 이 날도 음식을 세 차례나 내리고, 또 사신에게 백자(白瓷)로 만든 차호(茶壺) 하나, 차종(茶鐘) · 대(臺)까지 갖추어 한 별, 실로 뜯 빙랑(檳榔) 주머니 하나, 칼 하나, 자양(紫陽)에서 만든 주석 차호 하나씩을 주었고, 또 저녁에 작은 황문(黃門 환시(宦侍))이 와서 모난 주석 항아리 하나를 내렸다. 통관이,

“이건 차(茶)야.”

하고 설명해 주자, 황문은 곧 달려가 버린다. 누런 비단으로 항아리 마개를 봉했기에, 떼고 본즉 빛이 누르면서도 약간 불어 술과 같았다. 서장관이,

“이건, 정말 황봉주(黃封酒)야.”

한다. 맛이 달고 향내가 풍겨 술 기운이란 전혀 없었다. 다 따르자, 여지(荔支) 여남은 개가 떠오른다. 모두들,

“이건, 여지로 빚은 것이야.”

하고 각기 한 잔씩 마시고는,

“참 좋은 술이구려.”

한다. 비장과 역관들에게 찻잔이 이르니 마시지 않는 자도 있거니와, 대번에 들이 키는 이가 없다. 이는 너무 지나치게 취할까 보아서 그런 것이다. 통관들이 목을 내밀며 침을 흘린다. 수역이 남은 것을 얻어서 주었더니 돌려가며 맛보고는,

“아름다운 궁중 술이야.”

하며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윽고 일행이 서로 돌아보며,

“취했어, 취했구먼.”

한다. 이날 밤에 기공(奇公)을 찾았을 때 한 잔을 따라서 보였더니, 기공은,

“이건 술이 아닌 여지즙(荔支汁)이랍니다.”

하며 깔깔대고는, 곧 소주 대여섯 잔을 내어 거기다가 타니, 맑은 빛깔 매운 맛에 이상한 향내가 배로 풍긴다. 이는 대개 여지 향내가 술 기운을 얻어서 더욱 은은한 향내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아까 꿀물을 마시고 향내를 논한 것이나 여지즙을 맛 보고 취함을 말하는 것이, 곧 종 소리를 듣고서 해를 측량함⁸⁴이나 매실나무를 바라보고 갈증을 푸는 것⁸⁵과 무엇이 다르리오.

이날 밤, 달빛이 유난히 밝았다. 기공과 함께 명륜당(明倫堂)으로 나가 난간 밑을 거닐었다. 나는 달을 가리키면서 물었다.

“달의 몸뚱이는 언제나 둥글어 햇빛을 빙 둘러 받고 보니, 이 때문에 지구(地球)에서 본 달이 찬다가 기울었다 하는 것이 아닐까. 오늘 저녁 저 달을 온 세계가 한가지로 본다면, 보는 장소에 따라서 달은 살지고 여위며 깊고 열음이 있지 않을까. 별은 달보다 크고, 해는 땅덩이보다 크되, 보기에는 그와 달라 보이는 것이 멀고 가까운 까닭이 아닐까. 만약에 이것이 참말이라면, 해와 땅과 달 등은 모두 허공에 둑둥 뜬 별들로 보임이 아닐까. 별에서 땅을 볼 때에도 역시 그렇게 보일 것이 아니겠는가. 땅의 한 줄이 해와 달을 함께 뛰어서 반짝반짝하는 세 낱이 마치 저하고(河鼓)⁸⁶와 같지 않겠는가. 땅껍질에 붙어 있는 가지가지의 만물은 어떤 것이

84 종 소리를……측량합 : 출전 미상.

85 매실나무를……푸는 것 :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에 나오는 조조(曹操)의 고사. 즉 행군 중 군사들이 갈증을 느끼자 조조가 저 고개를 넘으면 매실나무가 있다고 말하여 군사들이 그 말에 입에 침이 둘 아 갈증을 풀었다.

86 하고(河鼓) : 견우성(牽牛星)의 북쪽에 있는 삼태성(三台星).

고 모양이 모두 둥글둥글할 뿐, 하나도 네모진 것은 볼 수가 없는데, 다만 방죽(方竹)⁸⁷과 익모초(益母草) 줄기가 네모졌지마는, 이것 역시 네모 반듯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은즉, 네모 반듯한 물건은 과연 찾을 수 없거늘, 무엇 때문에 땅에 대해서 만 네모난 물건이라고들 하였을까. 만일에 땅덩어리를 네모졌다고 하면, 저 월식(月蝕)을 할 때에 달을 겹게 먹어 들어가는 변두리가 왜 활동처럼 둥글게 보일까. 땅덩이가 네모지다고 우기는 자는 뭐나 방정(方正)해야 된다는 대의(大義)에 입각해서 물체(物體)를 이해시키려 함이요, 땅덩이가 둥글다고 주장하는 자는 실제에 뵈는 형태를 믿고 다른 뜻은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보아서, 땅덩이란 실제 물체는 둥글고, 대의로 말한다면 모나다는 것이 아닐까. 해와 달은 오른쪽으로 수레바퀴처럼 돌고 돌아, 도는 궤도가 해는 크고 달은 작으며, 도는 속도가 늦고 빠름이 없어 한 해와 한 달은 일정한 도수에 맞거늘, 해와 달이 땅을 둘러싸고 원편으로 돈다는 말은 우물 속에서 보는 지식이 아닐까. 땅덩이의 본바탕이란 둥글둥글한 허공에 걸려, 사방도 없고 아래위도 없이 마치 쌔기 돌 듯 돌다가 햇빛을 처음 받은 곳을 날이 샨다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지구가 더 돌아, 처음에 해와 마주 대하는 데는 차차 어긋나 가며 멀어져서, 오정도 되고 해가 기울기도 하여 밤과 낮이 되는 것이 아닐까. 비유해 말하자면, 창구멍이 뚫어진 곳으로부터 햇살이 새어 콩 날알만하게 비친다고 하자. 창 아래는 맷돌을 햇살 비치는 자리에 놓고, 바로 햇살 비치는 자리에 먹으로써 표를 해 두고는, 그 다음에 맷돌을 돌리고 보면 먹 자국은 햇살 비치는 곳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고서 서로 떨어져 사이가 멀어져 갈 것인가. 맷돌짝이 한 바퀴를 돌아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오면, 햇살 비치는 자리와 먹 자국은 잠시 마주 포개어졌다가는 또 다시 떨어지게 될 것이니, 지구가 한 바퀴 돌아 하루가 되는 것도 이런 이치가 아닐까. 또 등불 앞에 놓인 물레를 가만히 두고 보면, 물레바퀴가 돌 적에는 물레바퀴의 군데군데가 등불 빛을 받고 있으나, 그렇다고 등불이 물레바퀴를 돌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리라. 지구의 밝고 어두운 이치도 역시 이런 것이 아닐까. 그러면 해와 달은 애초부터 뜨고 지는 것이 아니요, 또 오가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땅이 움직여 돌지를 않고 얹

87 방죽(方竹) : 네모진 대나무. 중국에서 난다.

제나 한 자리에 박혀 있다고 너무 믿기 때문에 생긴 착각이 아닐까. 명백한 이론을 찾지 못하면, 이 땅의 춘·하·추·동을 가리켜 그 방위를 따라 노는 것이라고 해버렸으니, 결국 논다는 것은 나가고 물러서고 하는 것을 말함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미 논다고 할 바엔 차라리 돈다고 함이 어떨까. 저 착각을 한 자는 이렇게 말하리라. 땅덩이가 돌 때는 땅 위에 실렸던 일체 물건들은 엎어지고 자빠지고 기울어져 떨어질 터이라고. 만일에 쏟아져 떨어진다면 어느 땅에 떨어질 것인가. 만일에 그렇다면, 저 허공에 달린 별들과 은하(銀河)는 기운을 따라 돌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떨어져 쏟아지지 않고 그대로 있을까. 움직이지도 않고, 돌지도 않고, 생명도 없는 덩이진 물건이, 어째서 썩지도 부서지지도 흘어지지도 않고 그대로 남아 견딜 것인가. 땅덩이 거죽에 생물들이 붙어서 살 때는, 공과 같은 물체의 표면에다 발을 붙이고 어디서나 머리에 하늘을 이고 있는 것을 비겨 본다면, 수많은 개미와 별들이 혹시는 꽂꽃이 선 바람벽에 기어가기도 하고, 혹은 천장에 붙어서 사는 것을 누가 바람벽에 가로 붙어 섰다고 할 것이며, 누가 천장에 거꾸로 붙어 섰다고 할 것인가. 지금도 이 땅덩이 밑에는 역시 바다가 있을 터인데, 만일에 땅 거죽에 붙어 사는 생물들이 아니 떨어지는가 의심을 한다면, 땅 밑 바다는 누가 둑을 쌓아 두었다고 물이 아니 쏟아지고 그대로 있을 것인가. 저 하늘에 총총한 별들은 그 크기가 얼마씩이나 될 것이며, 역시 거죽 껍질은 지구나 다름없지 않을까. 별도 껍데기가 있을진대 생물이 붙어 살 터이니, 역시 그러할까. 만일에 생물이 있다면, 따로 또 세상을 배판해 놓고 새끼까지 쳐가면서 살지나 않을는지. 지구는 둥글게 생겨 원래 음양이 없을 터인데, 해로부터 불기운을 받고 달로부터 물기운을 얻어, 흡사 살림꾼이 동쪽 이웃에서 불을 빌리고 서쪽 집에서 물을 얻는 것이나 다름없으매, 한 쪽은 불이요 또 한 쪽은 물이라 하여 이를 소위 음양이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를 억지로 오행(五行)이라 이름붙여 저마다 서로 상생한다 하고 서로 상극한다고 하나, 큰 바다에 풍랑이 일 때에 불꽃이 너울너울 타

오르는 현상은 무슨 까닭이라 할까.⁸⁸ 얼음 속에는 누에⁸⁹가 살고, 불 속에는 쥐⁹⁰가 살고, 물 속에는 고기가 살아서, 저들 각종 생물들은 어디나 붙여 있는 곳을 제각기 땅이라 한다. 만일에 달 속에도 세계가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어떤 두 명의 달세계의 사람이 난간 머리에 마주 서서 달빛 아닌 땅빛의 차고 기우는 이야기를 속삭이지 아니한다고 누가 증명할 것이라.”

기공은 깔깔대며,

“참 기이한 이야기요. 땅이 둥글다는 이야기는 서양 사람들이 처음 말했지만 땅덩이가 돈단 말은 하지 않았는데, 선생의 이 학설은 선생이 터득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스승으로부터 이어받으신 것인가요.”

한다. 나는,

“사람의 일도 모르는 터에 하늘 일을 어찌 알겠소. 나는 본디 도수(度數)의 학(學)에 어두우니까요. 비록 칠원옹(漆園翁 장주(莊周)의 별칭)의 깊은 생각으로서도 아득한 우주에 관한 지식은 덮어 두고 해설을 하지 않았더군요. 이것은 실로 내가 터득한 지식이 아니라 귀동냥이랍니다. 우리 친구에 홍대용(洪大容)이라는 사람이 있어 호는 담현(湛軒)인데, 그의 학문은 좁지 않아서 일찍이 나와 함께 달구경을 하면서 장남 삼아 이런 이야기를 터뜨렸답니다. 대체로 활당하여 종잡기 어려우나 비록 성지(聖智)를 지닌 이라도 이 학설을 깨뜨리기는 어려울까 합니다.”

하였더니, 기공은 크게 웃으며,

“남의 꿈속 길을 동행할 수야 없지요. 당신의 친구 되시는 담현 선생(湛軒先生)께서는 이에 관한 저서가 몇 권이나 됩니까.”

한다. 나는,

“아직 저서는 없나 봅니다. 선배 되시는 김석문(金錫文)⁹¹이란 분이 있어서 일찍이

88 끈……할까 : 옛사람들은 바다에 풍랑이 심할 때 일광(日光)의 반사로 일어나는 현상을 불꽃으로 보았다.

89 얼음 속에는 누에 : 빙잠판(冰蠶). 《습유기(拾遺記)》에서 나오는 전설.

90 불 속에 쥐 : 화서(火鼠). 《산해경(山海經)》에서 나온 전설.

91 김석문(金錫文) : 조선 숙종(肅宗) 때의 학자. 자는 병여(炳如)요, 호는 대곡(大谷). 《역학도해(易學圖解)》를 지었으며 만년에 표천 다대곡(多大谷)에 살았다.

삼환부공설(三丸浮空說)⁹²을 말했는데, 그 친구가 특히 장난 말 삼아 이 학설을 부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실제로 보아 얻은 것이 이렇다는 것도 아니요, 또 일찍이 남더러 꼭 이것을 믿어 달라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나 역시 오늘 밤 달구경을 하다가, 문득 그 친구 생각이 나서 말을 한바탕 늘어놓고 보니, 그 친구를 만나본 듯도 합니다.”

했다. 대개 여천(麗川)은 한인(漢人)과는 다르기 때문에, 담현이 일찍이 항주(杭州) 인사들과 섞여 논 옛 일들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었다.⁹³ 기공은 또 나에게, “김석문 선생이 지은 시(詩) 중에서 아름다운 것 몇 구만 들려 주실 수 없을까요.” 하기에, 나는,

“그에게 아름다운 시구가 있다는 것은 못 들었습니다.”

했다. 기공은 나를 이끌고 자기 방으로 들었다. 벌써 촛불을 네 자루나 켜 놓고, 큰 교자상에 음식을 잘 차려 두었다. 특별히 나를 위해서 차린 것이다. 향고(香糕) 세 그릇, 각색 사탕 세 그릇, 용안육(龍眼肉) · 여지(荔枝) · 낙화생(落花生) · 매실(梅實) 서너 그릇, 닭 · 거위 · 오리 들을 주등이와 발이 달린 채로, 또 통돼지를 껍질 만 벗겨서 용안육 · 여지 · 대추 · 밤 · 마늘 · 후추 · 호도 · 살구씨 · 수박씨 등을 섞어 쪄서 떡같이 만들었는데, 맛은 달고 매끄러우면서도 너무 짜서 먹기는 어려웠다. 떡이나 과실들은 모두 자 넘어 높이 괴었다. 이후고 다 물리고는, 다시 채소와 과실만 각기 두 접시씩 차리고, 소주 한 주전자로 시름시름 따라 가면서 조용히 이야기들을 하였다.[이야기는 〈황교문답(黃敎問答)〉 중에 실려 있다.] 닭이 두 쪽째 나 울어서 자리를 파하고 숙소에 돌아와 누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하인들이 벌써 일어나라고 깨운다.

92 삼환부공설(三丸浮空說) : 해와 달과 땅과의 세 개 동근 방울이 공중에 떠서 있다는 학설.

93 담현이……없었다 : 홍대용은 북경에서 항주(杭州)의 선비 육비(陸飛) · 엄성(嚴誠) · 반정균(潘庭筠) 등을 만나서 막역의 벗을 맺었다.

14일 경신(庚申)

개다.

삼사는 밝기 전에 대궐에 들어가고, 홀로 실컷 자고는 아침에 일어나 윤형산(尹亨山)을 찾아갔다가, 거기서 다시 왕혹정(王鵠汀)을 찾아 함께 시습재(時習齋)로 들어가서 악기(樂器) 구경을 했다. 거문고나 비파는 모두 길고도 넓으며, 붉은 비단에 솜을 넣어서 주머니를 만들었고, 거죽은 붉은 털 천으로 쌌다. 종(鍾)과 경(磬)은 시령에 달아매여 있는데 역시 두툼한 비단으로 덮었고, 비록 죽어(柷敔)⁹⁴ 같은 따위라도 다들 별스러운 비단으로 집을 만들어 넣어 두었다. 대개 거문고와 비파 등속은 그 본이 너무 크고 칠이 지나치게 두꺼웠으며, 절대와 통소 등속은 궤짝 속에 넣고 단단히 채워 구경할 길이 없었다. 혹정은,

“악기를 보관해 두기는 매우 까다로워 습기 있는 곳을 피해야 되고, 또 너무 건조한 것도 좋지 않을뿐더러, 거문고 위에 앉은 티끌은 사자학(獅子瘡)이라 하고, 거문고 줄 위의 손때는 앵무장(鸚鵡瘡)이라 하며, 생황(笙簧)의 부는 구멍에 말라 붙은 침은 봉황과(鳳凰過)라 하고, 종이나 경에 앉은 파리똥은 나화상(癩和尙)이라 한답니다.”

한다. 웬 얼굴이 곱게 생긴 청년 하나가 바쁘게 들어오더니, 눈을 부라리고 나를 보면서 내 손에 든 작은 거문고를 빼앗아 급히 집에 넣는다. 혹정은 퍽 두려워하는 얼굴로 내게 눈짓하여 나가자는 것이다. 그 청년은 별안간 웃으면서 나를 붙들고 청심환을 달라 한다. 나는 없다고 대답하면서 곧 나왔다. 그 자는 몹시 무안한 기색이다. 사실인즉, 내 허리 전대 속에는 환약 여남은 알이 있었지마는, 그의 벼룩이 꽈씸하여 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혹정에게 한 번 읍하고는 가버린다. 나는, “그는 누구여요.”

하고 물었다. 혹정은

“그는 윤태인(尹泰人)을 따라서 북경에서 온 자랍니다.”

한다. 나는,

94 죽어(柷敔) : 풍류를 시작하거나 그칠 때 치는 나무로 만든 악기.

“그가 악기에 무슨 참견을 하나요.”

하였더니, 흑정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단순히 조선 환약을 짜내기 위하여 염치를 돌보지 않고 선생을 속이려고 든 것이니, 선생은 마음에 거리끼실 것 없으시죠.”

한다. 나는 생각 없이 문 밖을 나섰다. 수백 필의 말 떼가 문 앞을 지나간다. 한 목동(牧童)이 큰 말에 올라앉아 수숫대 한 개비를 쥐고 따라간다. 또 뒤따라 소 3,40 마리가 가는데, 코도 뛰지 않고 뿔도 잡아 매지 않고, 뿔은 모두 한 자 남짓씩 길며 빛깔은 푸른 것이 많았다. 또 당나귀 몇십 마리가 따라가는데, 목동이 방망이 같은 막대기를 가지고 맨 앞의 푸른 놈을 힘껏 한 대 후려갈기니까 소가 씩씩거리며 달려갈 제, 모든 소도 그 뒤를 따르는데, 마치 대오가 행진하는 듯하였다. 이는 대개 아침나절 방목하기 위하여 끌고 나서는 것이었다. 한가한 때에 다니면서 살펴보니, 집집마다 대문을 열고 말이니 나귀니 소니 양 들을 몇십 마리씩 몰아 내놓는다. 돌아와서 우리 사관 밖에 매어 둔 말의 꼴을 보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내 일찍이 정석치(鄭石癡 석치는 호요, 자는 성백(城伯))와[이름은 철조(哲祚)요, 벼슬은 정언(正言)이며, 술을 잘 마시고 서화에도 능하다.] 함께 우리나라 말 값의 높낮 이를 이야기하다가, 내가,

“불과 몇십 년이 안 가서 베갯머리에서 조그마한 담뱃대통을 말 구유로 삼아 말을 먹이게 될 것이야.”

하였더니, 석치는,

“그게 무슨 말이야.”

하고 반문하기에, 나는 웃으면서,

“서리배 병아리를 여러 번 번갈아 씨를 받아서 너덧 해를 지나면, 베개 속에서 울음을 우는 꼬마닭이 되는데, 이 놈을 침계(枕鷄)라고 부른다네. 말도 역시 종자가 작아지기 시작하면 맨 나중은 침마(枕馬)가 아니 되리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하였다. 석치는 크게 웃으며,

“우리들이 점차 더 늙어가면 새벽 잠이 자꾸만 없어지는 터에 베개 속에서 닦 울음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또 베개말을 탄 채 뒷간길을 가도 무방하겠군. 그러나 요

즘 시속에 말 흘레붙이는 것을 대기(大忌)로 알아, 기르는 말이 수놈 암놈 할것없이 모두 동정으로 늙어 죽거든. 국내의 말이 그래도 몇만 필이나 되는데, 그 놈들에게 흘레를 안 붙이면, 기르는 말이 어떻게 변식될 것인가. 이리하여 국내에서는 해마다 말 몇만 필을 잃게 되니, 이러고는 몇십 년이 못 가 배개말이고 뭐고 다 절종이 될 것이야.”

하고는 둘이 서로 웃으며 희담을 한 일이 있었다.

실상 내가 연암(燕巖)에 살 곳을 마련한 것은, 일찍부터 목축(牧畜)에 뜻을 두었던 때문이다.

연암에 자리잡으니, 첨첨산중에 양쪽이 편평한 골짜기인데다가, 수초(水草)가 매우 좋아서 마소 · 노새 · 나귀 등 몇백 마리를 치기에 넉넉하였다. 나는 일찍부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한 적이 있었다.

“우리나라가 이토록 가난한 것은 대체로 목축이 제대로 되지 못한 까닭이다. 우리나라에서 목장이라야 가장 큰 곳으로 다만 탐라(耽羅 제주도)가 있을 뿐인데, 그 곳의 말들은 모두 원 세조(元世祖 흘필렬(忽必烈))가 방목한 종자로서, 4, 5백 년을 두고 내려오면서 종자를 한 번도 갈지 않고 보니, 비록 애초에는 용매(龍媒 준마(駿馬)) · 악와(渥洼 신마(神馬))와 같은 우수한 종자일지라도, 마침내는 과하(果下) · 관단(款段 꼬마 말의 이름)과 같은 꼬마말이 될 것은, 이치에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 과하와 관단을 대궐 지키는 장사들에게까지 내주니, 고금 천하에 이런 느림뱅이와 꼬마말을 타고 적진을 향하여 달리는 꼴이 어디 있을 일인가. 이것이 첫째로 한심한 일이다. 대궐 안에서 먹이는 말로부터 장수들이 타는 말에 이르기까지 토산 말이란 하나도 볼 수 없고, 모두가 요동 · 심양 등지로부터 사서 들인 말들로서, 한 해에 새로 생기는 말이라고는 네댓 필에 지나지 않는 형편이니, 만일 요동 · 심양 길이 끊어지는 날이면 어디에서 또 말을 얻을 것인가. 이것이 둘째로 한심한 일이다. 임금이 거동할 때 배종하는 반열에는, 백관들이 말을 많이 빌려 타기도 하고, 혹은 나귀를 타고도 임금의 뒤를 따르게 되어, 이 꼴로서는 위의 를 갖추지 못하게 되니, 이것이 셋째로 한심한 일이다. 문신들로서 초현(貂軒)⁹⁵

95 초현(貂軒) : 종이품(從二品) 이상 문관이 타던 외바퀴 달린 가마.

을 탈 수 있는 자 이상은 말을 탈 일도 없고, 또 말을 집 안에서 먹이기도 어려워서 탈 것을 없애 버리고, 자제들이 걷지 않으려고 겨우 작은 나귀나 한 마리쯤 먹 이게 된다. 옛날에는 백 리의 강토에 불과한 나라라도, 대부(大夫)쯤 되면 타는 수레 열 대쯤은 가지는 법이다. 그래도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둘레가 몇천 리나 되는 나라로서, 경(卿) · 상(相)급쯤 된다면 타는 수레 백 대쯤씩은 갖추어야만 할 것이 거늘, 이제 우리나라 대부의 집안에서 수레 열 대는 그만두고라도 단 두 대인들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이것이 넷째로 한심한 일이다. 삼영(三營)⁹⁶의 초관(哨官)들은 다들 백 명 졸개의 장이 되는 터에 말 한 필을 가질 형세가 못 되고 보니, 한달에도 세 번씩 치르는 훈련에는 임시로 삯말을 내어 타게 된다. 삯말을 타고 전쟁에 나간다는 소리는 아예 이웃 나라에 들릴 수 없는 창피이다. 이것이 다섯째 한심한 일이다. 서울 영문에 있는 장수들이 이러할 바에야, 팔도(八道)에 나누어 둔 기병들이란 이름만 남고 실상은 없을 것은 이로써도 뻔한 일일 것이다. 이것이 여섯째 한심한 일이다.

국내에 있는 역말들이란 모두가 토산 말들로서, 그 중에서 좀 낫다는 놈이라도 한번 사신(使臣) 손님이라도 치르고 나면 죽거나 병이 들고 만다. 왜냐하면, 그런 사신 손님들이 타는 쌍가마가 잔뜩 무거운데다가, 네 명의 교군(驕軍)은 으레 말에다가 몸을 실듯이 양 옆에 붙어서 탄 사람이 까불려 흔들리지 못하도록 가마채를 붙잡고 간다. 말 등에 실린 짐이 이토록 무거우니, 말은 짐을 피하듯이 빨리 안 달릴 수 없게 되었고, 말이 달릴수록 짐은 더욱 눌려지기 때문에 말이 죽지 않으면 병이 든다는 것이다. 죽은 말이 날로 불어나니, 따라서 말 값은 뛰어오른다. 이것이 일곱째 한심한 일이다. 말 등에다 짐을 싣는다는 것은 별씨 틀려먹은 노릇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수레가 국내에서 다니지 못하고 보니, 관청에서고 민간에서도 짐이란 짐은 말 잔등이 아니고는 못 실어 나를 줄만 알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말 이야 죽든 말든 많이 심기에만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부득불 힘을 쓸 만큼 먹이를 먹인다고 더욱 여물죽을 많이 먹이게 된다. 그러므로 말 정강이가 힘을 못 쓰고 발굽은 물씬물씬해져, 한 번만 흘레를 겪으면 뒤를 못 가누게 되므로, 요즘 세속에

96 삼영(三營) : 훈련원(訓練院) · 금위영(禁衛營) · 어영청(御營廳)의 합칭. 삼군영(三軍營) · 삼군문.

서는 흔히 들 말이 훌레붙어 새끼 치는 것을 금한다. 이러고서야 말이 어디서 생길 것인가. 이는 다름이 아니라, 말을 다루는 솜씨가 틀렸고, 말을 먹이는 방법이 옳지 못했으며, 좋은 종자를 받을 줄 모르고, 일 맡은 관원이 목마에 무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도, 채찍을 잡고 나았은 자마다 국내엔 좋은 말이 없다고 떠든다. 그 래, 정말 국내엔 쓸 만한 말이 없단 말인가. 이런 한심한 일이 이루 다 손꼽을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면, 말을 다루는 솜씨가 틀렸다는 말은 무엇을 두고 이름이었던가. 무릇 생물들의 성질이란, 사람이나 다름없이 고달프면 쉬고 싶고, 답답할 때엔 시원한 데를 찾고 싶으며, 굽은 놈은 폐고 싶고, 가려우면 긁고 싶을뿐더러, 그놈들은 비록 사람이 먹을 것을 주면 먹는다 하더라도, 때로는 제 마음대로 편한 것을 찾고 싶은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그러므로, 말도 반드시 이따금 굴레와 고삐를 풀어 놓아 물가 같은 시원한 곳에 놀게 해서 답답증을 풀도록 할 것이니, 이것이 곧 생물의 성질에 따라 그 뜻을 맞추어 주는 것이거늘, 우리나라에서 말 먹이는 법이란, 북띠나 굴레가 단단하지 않은가 염려하여 이것을 될수록 졸라 매어서, 빨리 물 때에도 말은 견마 잡는 고통을 벗어날 수 없고, 쉴 때만 해도 긁는 재미나 땅에 둉구는 맛을 얻어 볼 수 없으며, 사람과 말 사이는 언제나 뜻이 통하지 못하여 사람은 툭하면 욕질이 일쑤요, 말은 자나깨나 사람을 상대로 살기(殺氣)가 등등하니, 이런 것이 다 말을 다루는 솜씨가 틀렸다는 것이다. 또 말을 먹이는 방법이 옳지 못하다는 말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인가. 무릇 목마른 고통은 배고픈 고통보다도 심한 법이다. 우리나라 말들은 아직껏 찬 물을 안 먹이고 있다. 말의 성질인즉, 익힌 음식을 가장 싫어하니, 이는 말에게 더운 것은 병이 되기 때문이다. 콩이나 여물죽에 소금을 뿌리는 것은, 먹이를 짜게 하여 물을 켜도록 하려는 때문이요, 물을 켜도록 하는 것은 오줌을 잘 누도록 하기 때문이요, 오줌을 잘 누도록 하는 것은 몸에 지닌 열을 풀게 함이요, 냉수를 먹이는 것은 정강이를 굳세게 만들고 발굽이 단단하게 만들기 위함이거늘, 우리나라 말들은 삶은 콩과 꽂인 죽을 먹어, 종일을 달리면 벌써 신열을 못 이겨 병이 되고, 그리하여 한 끼라도 건너뛰어 죽을 못 먹게 되면 시들부들 몸을 못 가누며 느림뱅이 걸음을 걸어 길 낭패를 보기가 십상이다. 이것은

모두가 더운 죽을 먹인 탓이다. 이보다도 군마가 되고 보면 더운 죽을 먹인다는 것은 더욱 실책이다. 이것을 일러서 말 먹이는 방법이 틀렸다는 것이다.

그러면 또 무엇을 가리켜 종자를 잘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인가. 말이란, 어떻든 커야지 작은 종자는 못 쓰는 법이요, 건강해야지 약해선 못 쓰며, 준수해야만 되지 노둔해서는 못 쓰는 법이다. 말에다가 무거운 짐을 싣고 면 길을 달리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만일 그것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토산말로써는 단 하루의 보통 집 안 일도 치러 내지 못할 것이요, 또한 나라의 무비(武備)와 군용(軍容)을 돌보지 않는다면 모르겠으나, 만일 그것이 필요하다면 이꼴인 토산말로써는 단 하루도 군사를 치러 내지 못할 것이다. 오늘로 보아 우리와 청국(淸國) 두 나라는 태평으로 지나는 사이, 암놈 수놈 아울러 몇십 필쯤 청구한다 해서 저 큰 나라에서 이것쯤을 아끼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외국으로부터 말을 구해 들여, 이것을 사사로 기른다는 것이 좀 혐의찍어 보인다면, 해마다 드나드는 사신들 편에 가만히 사들일 수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서울 근교에 널찍한 수초(水草) 좋은 땅을 골라, 10년 동안을 두고 새끼를 쳐 가면서 점차로 탐라를 비롯한 국내의 여러 군데에 목장을 퍼뜨려 종자를 개량해야 할 것이며, 또 새끼를 치게 하는 방법으로서는 반드시 《주례(周禮)⁹⁷}와 월령(月令)⁹⁸으로 표준을 삼아야 할 것이니. 《주례》에는 대개 말을 먹이는 데 수놈이 4분의 1을 차지한다 하였는데, 그 주석(注釋)에는, 그의 비위에 알맞게 하고 싶어함이니 생물은 기질이 같으면 마음도 같다고 했다. 그리고 정사농(鄭司農)⁹⁹은 이르기를, ‘4분의 1이라는 말은 암놈 세 마리에 수놈 한 마리를 끼운다는 말이다’ 했다. 월령에 보면, 늦은 봄 삼월쯤 되어 종마(種馬)와 종우(種牛)를 암놈 있는 목장에다 풀어 놓는다 하였는데, 진혜전(秦蕙田)¹⁰⁰은 말하기를, ‘말 먹이는 사람이 종마를 교대하여 부리되 그 몸을 너무 피로하지 않게 하여 기운과 혈기를 안정되게 할 것이요, 또 말을 맡은 관리는 반드시 여름에는 수놈을 치워 두

97 주례(周禮) : 십삼경(十三經)의 하나. 주공(周公)이 지었다 전하므로 그렇게 이름하였다.

98 월령(月令) : 《예기(禮記)》의 한 편명으로 매달마다 정치적 행사에 관한 요강을 적어 놓은 것.

99 정사농(鄭司農) : 후한(後漢)의 명신 정중(鄭衆). 사농은 그의 벼슬. 《주례》의 해석이 있다.

100 진혜전(秦蕙田) : 청의 건륭 때 저명한 학자. 경술(經術)과 독행(篤行)으로 이름났다. 자는 수봉(樹峯).

호는 미경(味經)

어야 한다' 하였다. 암말이 새끼를 뱉을 때에는 수놈이 암놈 곁에 못 가도록 하는 것을 말 번식시키는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모두, 옛 임금들이 때를 맞춰서 생물을 길러 생물의 제 특성을 살린다는 뜻이다. 이제 중국에서는, 매년 봄날이 화창하고 풀들이 푸릇푸릇 돋을 때 수놈 목에다가 방울을 달아서 내놓아 흘레를 붙이면, 수놈 임자는 흘레의 대가로 닷 돈씩을 받게 된다. 그리하여, 말이나 노새 새끼를 낳을 때 수놈으로 준수한 놈을 낳으면, 또 다시 닷 돈을 받는다. 낳은 새끼가 신통하지 못하거나 텔빛이 좋지 못하고 길들이기도 어려울 때는, 아비말은 반드시 불알을 까벼려 쉽게 종자를 퍼뜨리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종자를 특별히 크고 성질이 길들이기 좋은 것으로만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목장을 감독하는 관리들이 이런 생각을 못하고, 덮어놓고 토산말로만 종자를 받기 때문에, 낳으면 낳을수록 종자는 자꾸만 작아지게 되어, 필경은 뚩통이나 나뭇짐 한 짐도 변변히 견디지 못할 만큼 되었으니, 하물며 한 나라의 군국(軍國)의 수요에 이바지할 수 있으랴. 이런 것이 곧 좋은 종자를 못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또 관직에 있는 자가 목마에 무식하다는 말은 무엇을 두고 이른 것인가. 우리나라 벼슬하는 양반들은 일반 허드렛일은 알려고도 않으려는 베.ToTable들이 있어서, 옛날 어디서는 여렷이들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가 마부에게, 말에게 콩을 좀 더 주라는 말을 한 마디 했다가, 사람이 좀스럽다고 이조(吏曹)의 전랑(銓郎) 좌랑(佐郎)에게 베림을 받은 일까지 있었고, 요즘은 어떤 학사가 평소에 말을 사랑하는 베.ToTable이 있어, 말을 잘 고르는 법이 백락(伯樂)이나 다름없었으나,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옛적에는 양고기 잘 굽는 도위(都尉)¹⁰¹가 있다더니, 지금 세상에는 말 잘 다루는 학사가 있네 그려’ 하며 비방하여, 까다롭기 짹이 없다. 한 나라의 큰 정책으로 이를 고려하지 않고, 도리어 수치로 삼아 하인들의 손에만 맡겨 두고 있으니, 비록 그 직책은 감목(監牧)이라고는 하지마는 사람은 유품(流品)이어서, 목마의 지식이라고는 조금도 없다. 이것은 실로 능력이 없다기보다도 배우기를 사리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들어서, 관원들이 목마에 무식하다고 나무라는 것이다.

101 양고기……도위(都尉) : 후한 때 유현(劉玄)의 고사. 벼슬을 몹시 남발하여 양의 염통 요리를 하는 자는 도위를 주었고, 양의 머리로 요리를 잘하는 자에게는 관내후(關內侯)를 주었다.

옛날 당(唐)의 초기(初期)에, 암컷 수컷이 섞인 말 3천 필을 적수(赤水)의 언덕에서 몰아 내어 농우(隴右 감숙성의 서쪽)에다 옮기고는, 태복(太僕 목축을 맡은 고관) 장만세(張萬歲 당 태종 때 저명한 목축가)로 하여금 감목하게 하였다. 정관(貞觀)으로부터 인덕(麟德 당 고종(唐高宗)의 연호)까지 이르는 동안에 말은 70만 필로 번식되었는데, 무후(武后)¹⁰² 때는 말이 줄어들었으나, 당 명황(唐明皇 당 현종(唐玄宗)) 때에 아직도 24만 필이 남아 있었다. 그리하여 왕모중(王毛仲)¹⁰³ · 장경순(張景順) 등으로 한구사(閑廄使)를 삼아 여남은 해 동안을 먹인 결과, 43만 마리로 불었다. 개원(開元) 13년(725)에는 명황이 동쪽으로 가서 태산(泰山)에 제사할 제, 말 몇만 필을 텔빛에 따라 대열을 지어 놓은 것이, 멀리서 바라보면 비단필처럼 보였다고 하니, 이것은 담당한 관직에 적당한 사람을 얻었기 때문이다. 참으로 말을 좋아하고 말을 잘 먹일 줄 아는 자를 얻어 목마하는 행정을 맡긴다면, 비록 말 잘 치는 학사라는 기룡을 들을망정, 태복 벼슬감으로서는 맞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연암 박 선생님이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다. 기공의 심부름하는 이가 나를 가리켜 준다.

그는 곧 내게 읍하면서 몹시 기뻐하는 얼굴이, 마치 옛 벗을 만나는 듯하였다. 그는,

“저는 바로 광동(廣東) 안찰사(按察使) 왕노야(汪老爺)의 청지기온데, 우리 댁 노야께옵서 그저께 선생님을 만나뵙고는 떡도 기뻐하시와, 내일 정오쯤은 꼭 다시 찾아뵙겠다고 하시면서, 절강(浙江)에서 만든 부채에 금칠로 서화 그런 것을 올리겠다고 하십니다.”

한다. 나는,

“전일은 왕공(汪公)의 과분한 사랑을 입고서도 아무런 대접을 못했는데, 먼저 귀한 선물까지 받는다는 것은 도리어 당치 않은가 하오.”

102 무후(武后) : 측천무후(則天武后) 무조(武曌).

103 왕모중(王毛仲) : 고려(高麗) 사람으로 당 현종 때의 유명한 목축가.

했더니, 그는,

“제가 이번에 갖고 온 것은 아닙니다. 노야께서 오실 적에 몸소 지니고 오시겠답니다. 명일 정오 선생님께서는 부디 다른 데 출입하시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한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약속하지요. 그런데 댁은 고향이 어디고, 성함은 뉘신지요.”

하였더니, 그는,

“저는 강소(江蘇) 사람이요, 성은 누(屢), 이름은 일왕(一旺)이며, 호는 원우(鴛圩)라 한답니다. 일찍이 왕노야를 쫓아서 광동에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귀국을 떠나신 지가 몇 해나 되셨는지요.”

한다. 나는,

“금년 오월에 고국을 떠났습니다.”

하였더니, 누(屢)는,

“우리 광동에 비하면, 오히려 문 밖이나 다름없군요.”

하고는, 그는 또,

“귀국 황제의 연호(年號)는 뭐라 부릅니까?”

한다. 나는

“무슨 말씀이오.”

하고 되물었더니, 누는,

“황제의 기원 연호 말이외다.”

한다. 나는,

“우리나라는 중국의 기원을 쓰고 보니, 어찌 따로이 연호가 있겠소. 금년이 곧 건륭 45년이죠.”

하였더니, 누는,

“귀국의 임금은 중국과 대등한 천자가 아니옵니까?”

한다. 나는,

“만국이 한 천자를 받들고, 천지가 모두 대청(大清)이요, 해와 달이 다 건륭인가봅니다.”

하였더니, 누는,

“그러시다면 관영(寛永)¹⁰⁴이니 상평(常平)¹⁰⁵이니 하는 연호는 어디에서 난 것이옵니까?”

한다. 나는,

“그게, 무슨 말씀이오?”

하였더니, 누는,

“제가 바다에서 표류해 온 귀국의 배에서 보았는데, 관영통보(寛永通寶)라는 돈을 잔뜩 실었습니다.”

한다. 나는,

“그건, 일본(日本) 사람들이 참칭한 연호요, 우리나라의 것은 아니오.”

하였더니, 누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의 행동거지라든지 말하는 태도로 보아서는, 얼굴만 풍후하고 맑은 듯하나, 어딘지 무식해 보인다.

당초 그의 묻는 바가 무슨 깊은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니요, 돈이란 워낙 금물인데도, 그가 묻는 까닭은 금물(禁物)이라고 해서 물은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를 정말 친자가 있는 나라로만 알았기 때문에 시방의 연호까지도 물었던 것이요, 그가,

“귀국 황제.”

하고 묻는 그 한 마디 말에 벌써 그의 무식을 알 수 있겠고, 또 비록 관영이니 상평이니 하는 것들을 우리나라 연호로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못 쓸 것을 쓰는 것인 줄도 모르는 모양이다.

또 우리나라의 표류한 배가 돈을 실었다손 치더라도 그리 이상해할 일도 아니지만, 관영통보를 한 배나 가득 실었을 리야 어디 있을 것인가. 그는 필시 관영통보를 구경하고 또 상평통보를 구경했던 것이 뒤범벅이 되어, 모두 우리나라 돈인 줄만 알았던 모양이다.

104 관영(寛永) : 일본 후수미(後水尾) · 명정(明正) 천황 때의 연호(1624~1643).

105 상평(常平) : 상평통보(常平通寶). 조선 인조(仁祖) 11년에 처음 지었고, 숙종(肅宗) 때 두 번째 지었던 엽전.

그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책력을 쓰는 줄도 몰랐고, 돈을 보고는 우리나라에도 연호가 있는 줄만 알았던 모양으로, 특별히 다른 의심을 갖고 내 속을 떠 보려고 물었던 것이 아님을 알았다.

누가 차를 다 마시자,

“내일은 부디 다른 데 출입을 맡아 주세요.”

하고 거듭 부탁한다. 내가 고개를 끄덕인즉, 그는 곰곰 섭섭해하는 빛을 보이면서 한 번 읊하고 가버린다. 나는 수역을 보고,

“돈을 금하는 것은 대관절 무슨 까닭이오?”

하고 물었더니, 수역은,

“별반 약조된 일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안에서는 중국 돈을 쓰는 것을 금했고, 또 작은 나라로서 돈을 따로 지어 쓴다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하기에, 나는,

“옛날 제 태공(齊太公) 여상(呂尚)의 봉호(封號)이 경중(輕重) 구부(九府)¹⁰⁶를 두었지마는, 주(周)의 천자가 이를 금한 적이 없었고, 또 돈을 근래에 와서 쓰기 시작하기는 숙종(肅宗 이돈(李燉)) 경신년(庚申年 1680)이니까, 올해는 벌써 101년이나 지났은 즉, 청(淸)의 초기에 두 나라가 맷은 약조에도 이런 금법이 들지 않았던 것 같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세종(世宗 이도(李祿)) 때 돈을 한번 지어서 한 7, 8년 동안이나 쓰다가는, 민간에서 불편하다고 하여 다시 저폐(楮幣)¹⁰⁷를 쓰게 되었고, 인조(仁祖 이종(李宗)) 때 와서 두 번째로 돈을 지었다가 진작 말았으나, 모두 민간에서 불편하다 해서 그랬던 것이지, 청(淸)을 두려워하여 그랬던 것은 아니다. 이제 북도 지방은 돈을 금하고 무명을 돈으로 삼아 쓰고 있으니, 국경이 가깝다 해서 그런 것이요, 관서(關西) 지방으로는 의주로부터 압록강 가의 여러 고을까지 아직 한 번도 돈을 금한 적이 없으니, 이것도 알쏭달쏭하여 종잡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표류된 배가 지닌 돈을 금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였더니, 수역은,

106 구부(九府) : 모든 재물과 돈을 관리하는 아홉 곳의 관부.

107 저폐(楮幣) : 지폐(紙幣). 한 장에 쌀 서 되.

“그렇습니다. 지금도 역원(譯院 통역을 맡은 기관)에서는 몇 해를 두고 임시 변법으로 중국 돈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우리나라 은(銀)은 자꾸만 귀해지고 중국 물건 값은 날로 비싸지니, 이로써 역원의 손해는 막심하지요. 은 한 냥으로 중국 돈 7초(鈔)를 바꾸고 보니, 만일 중국 돈을 통용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만들 수고도 없이 돈은 저절로 헐해질 것이요, 이익은 막대해질 것입니다.”

한다. 주 주부(周主簿)가 있다가,

“조선통보(朝鮮通寶)는 한(漢)의 오수전(五銖錢)¹⁰⁸보다도 더 잘 되었을뿐더러, 돈 중에는 가장 오래된 돈이기 때문에, 귀신이 붙어 점치는 돈으로 쓴다죠.”

하기에, 나는,

“오래 돼서 귀신이 붙다니.”

하였다니, 주(周)는,

“이 돈은 기자(箕子) 때 돈으로, 중국 사람들이 보면 의당히 커다란 보물로 삼을 텐데, 애석도 하이, 이걸 못 갖고 와서.”

한다. 나는,

“이건, 세종 때 지은 돈이야. 기자 때에 해자(楷子)가 어디 있었어. 송(宋) 동유(董廸)¹⁰⁹의 전보(錢譜)에 의하면 우리나라 돈이 네 가지 실렸는데, 삼한중보(三韓重寶) · 삼한통보(三韓通寶) · 동국중보(東國重寶) · 동국통보(東國通寶)만 실렸지 조선통보는 실리지 않은 것을 보면, 그 돈이 오랜 적 돈이 아닌 것을 알 것이네.”

하고 설명해 주었다.

오후에는 세 분의 사신이 대성전(大成殿)에 배알하였다. 주자(朱子)의 석차를 높여 십철(十哲)¹¹⁰의 아래자리에 모셔 두었다. 위패(位牌)는 모두 번들번들한 붉은 칠을 하고 금자로 썼는데, 옆에는 만주글자로 썼다. 대성문(大成門) 바깥벽에는 검은 빗돌을 둘러 세우고, 강희 · 옹정과 지금 황제의 훈시와 친히 지은 학규(學規)를 새겨 두었으며, 마당에 세운 빗돌은 작년에 세웠다는데, 역시 황제가 세운 것이라 한다.

108 오수전(五銖錢) : 한 무제(漢武帝) 때 삼수전(三銖錢)이 지나치게 가볍다 해서 새로 지은 돈.

109 동유(董廸) : 북송 밀년의 학자. 자는 언원(彦遠).

110 십철(十哲) : 공자의 뛰어난 10명의 제자. 안연(顏淵) · 민자진(閔子騫) · 중궁(仲弓) · 재아(宰我) · 자공(子貢) · 염유(冉有) · 계로(季路) · 자유(子游) · 자하(子夏).

그리고 대성전 뜰에는 한 길 남짓 되는 향정(香鼎)을 두었는데, 아로새긴 솜씨는 말할 수 없이 정교했다. 전각 안에는 위패 앞마다 작은 향로 한 개씩을 두었는데, 모두 건륭(乾隆) 기해제(己亥製)라 새겨져 있다. 위패 앞마다 붉은 운문단(雲紋綬) 휘장을 드리웠고, 양쪽 행랑채 안 위패들 앞에 차려 놓은 것도 본전의 내용과 다름 없이 장엄하고도 화려한 품이 이루 다 형용할 수 없었다. 삼사는 돌아와 각기 청심환 몇 알과 부채 몇 자루씩을 추 거인(鄒舉人) 사시(舍是)와 왕 거인(王舉人) 민호(民皞)에게 보냈다.

승정(崇禎) 갑술년(1634) 6월 20일에 명(明)의 칙사(勅使) 노유령(盧有齡)이 우리나라로 나왔는데, 그는 바로 환관(宦官)이다. 그는 24일에 성균관(成均館)에 나아가 참배를 하면서 참렬했던 유생들에게, 백금 오십냥을 내놓은 일이 있었다. 이제 우리 사신들이 큰 나라에 와서 성묘(聖廟)를 배알하면서 공부하는 두 명 거인에게, 겨우 변변하지도 못한 환약과 부채 따위를 선물로 보낸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나는 몸소 두 선비가 있는 숙소를 찾아서,

“창졸간에 나선 나그네의 처지라, 아무 것도 지닌 것이 없어 변변하지 못한 환약과 부채를 올린다는 것은 부끄럽기 짹이 없습니다.”

하고 말했더니, 두 거인은 허리를 굽히고 사례를 한다.

“주인된 도리로 인도한 것이 무슨 수고랄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이토록 분에 넘치는 선물을 주시니 충심으로 감사하옵니다.”

저녁을 치른 뒤에, 왕혹정(王鶴汀)이 학도 아이를 시켜 붉은 종이 편지 쪽지를 한 장 보내 왔다. 그 사연에는,

“왕민호는 삼가 연암 박 노선생(朴老先生)님께 부탁을 드리나이다. 수고스러우시겠사오나 여기 천은(天銀) 두 냥을 보내오니, 청심환 한 알만 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뜻이다. 나는 보내온 은을 곧 돌려 보내면서 진짜 청심환 두 알을 보냈다.

저녁 으스름녘에, 황제로부터 사신은 황성(皇城)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일행은 부산하게 밤이 이슥하도록 길 떠날 치장을 차렸다. 밤에 기려천(奇麗川)과 작별하였다. 여천은,

“18일에 열하를 출발하여 25일에는 북경에 도착해서, 26, 7, 8 사흘 동안은 두루 작별 인사를 다니고, 9월 6일에는 선산에 성묘를 갔다가 9일에는 집으로 돌아와, 11일에는 귀주(貴州)로 떠날 터인데, 떠나는 전날은 집에서 기다릴 터이니 꼭 왕립해 주십시오.”

하기에, 나는 응락하고, 다시 왕혹정에게 작별차로 들렀다. 혹정은 눈물을 지으면서,

“이 밤에 길이 이별을 하면, 또 뵈올 기약이 없겠소이다. 더구나 다가올 밝은 달밤에는 그 심회를 어찌하오리까.”

한다. 이는 전일, 추석날 달밤에 명륜당에서 만나 이야기를 하자고 약속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학지정(郝志亭)의 처소를 찾았더니, 지정은 다른 곳에 자리 나가고 없어 서운하기 짹이 없었다. 또 윤헝산(尹亨山)에게 들렀더니, 형산은 눈물을 닦으면서,

“내 나이 늙고 보니, 이제야 아침 이슬이나 다름없나 봅니다. 선생은 아직 좋은 나

이로, 또 다시 연경 걸음이 계시게 된다면 응당 오늘 밤 생각을 하실 거외다.”

하고는 술잔을 들어 달을 가리키면서,

“달 아래 이 이별을 하고 보니, 다른 날 만 리 밖에 계신 선생이 그리울 적엔 저 달을 보고 선생을 대하는 듯하리다. 보아하니, 선생은 술도 잘 자시고, 또 한창 시절에 호색하실 테라, 이제부턴 부디 몸조심하시와 수련의 길을 찾도록 하시옵소서. 저는 18일에 연경으로 돌아갈 테니, 선생이 만일 그 때까지 귀국하시지 않으셨거든, 다시 한 번 찾아 주십시오. 동단쾌루(東單牌樓) 둘째 골목[衢衢] 둘째 집 대문 위에 대경(大卿 대리시경(大理寺卿)) 편액이 붙어 있는 것이 곧 저의 집이을시다.”

한다. 그리고는 서로 약수하고 하직하였다.



환연도중록(還燕道中錄)¹

8월 15일 신유(辛酉)에 시작하여 20일 병인(丙寅)에 그쳤다. 모두 6일 동안이다.

가을 8월² 15일 신유(辛酉)

날씨가 맑고 잠깐 서늘하였다.

사신들이 서로 의논하되,

“이제 우리의 사정은 마땅히 연경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나, 예부에서는 우리나라 사신을 경유하지 않고 가만히 정문(呈文)의 사연을 고쳤다니, 이는 비단 눈앞의 일 이 해괴할 뿐 아니라, 이를 그대로 두고 변명하지 않는다면 장래의 폐단이 클 것인 즉, 마땅히 다시 예부에 글을 제출하여 그들이 몰래 고친 것을 밝힌 연후에 길을 떠나야겠다.”

하고는, 곧 역관에게 시켜서 예부에 글을 제출하니, 제독(提督)이 크게 두려워했는데, 대개 덕상서(德尙書)에게 먼저 통했던 때문이다. 상서 등도 크게 두려워하여 우리에게 위협을 더하되,

“이 일에 대한 허물을 장차 우리 예부에 넘기고자 하는 거냐. 예부에서 죄를 얻는다면 너희 사신인들 좋겠는가. 그리고 너희들 전주(轉奏)한 정문이야말로 사연이 모호하여 전연 성의를 표한 실상이 없었으나, 내 실로 너희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도로 꾸며 진달해서 그 영광스럽고 감격한 뜻을 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도리어 이렇게 한단 말이냐. 이는 실로 제독의 과오가 더 크겠지.”

하고는, 정문을 떼어 보지도 않고 물리쳤다. 사신이 그제야 제독을 맞이하여 예부에 대한 모든 사정을 상세히 물은즉, 그 이야기가 몹시 장황해서 알아듣기 어려워 한참 동안을 며칠하고만 말았을 뿐이다. 그리고 예부에서는 사람을 보내어 곧 길

1 환연도중록(還燕道中錄) : ‘다백운루본’에는 이 편이 〈진덕재야화(進德齋夜話)〉의 뒤에 위치하였으나, 여기에서는 ‘박영철본’을 따랐다.

2 가을 8월 : ‘수택본’에는 이 한 구절이 탈락되었다.

떠날 것을 재촉하되,

“사신 일행의 떠나는 시간을 적어서 곧 위에다 아뢰겠다.”

하니, 이다지 떠나기를 재촉함은 대개 다시 글을 제출하지 못하게 하려는 수단이다.[이에 대한 일은 〈행재잡록(行在雜錄)〉 중에 상세히 보인다.]

아침밥이 끝난 뒤에 곧 길을 떠났다. 해가 벌써 점심나절이 지났다. 돌이켜 생각해건대, 저 뽕나무 아래에 사흘 밤을 묵은 일³도 오히려 추억에 남았다는 데, 하물며 나는 우리 부자(夫子 공자)님을 모시고 옛새 밤을 지난 것임에랴. 또 더군다나 그 자고 나온 곳이 신선하고 화려하여 저절로 잊히지 않는다. 내 일찍부터 과거를 폐하여 하찮은 진사(進士) 하나도 이루지 못했은즉, 비록 국학(國學)에 몸을 수양하고자 한들 얻을 수 없음도 사실이거늘, 이제 별안간 나라를 떠나서 만 리 머나먼 변새 밖에 와 옛새 동안을 노닐어 마치 나에게만 고유한 일인 것같이 생각되니, 이 어찌 우연한 일이겠느냐. 뿐 아니라 우리나라 선비 중에 능히 멀리 이 중국의 한복판에서 돌아 본 이로서 신라의 최고운(崔孤雲) 치원(致遠)⁴이나 고려의 이익재(李益齋) 제현(齊賢)⁵과 같은 이도 비록 서쪽(西蜀) · 강남(江南)의 땅을 두루 밟았으나, 새북(塞北)에야말로 이를 길이 없었음은 사실이다.

이로부터 천백년(千百年) 뒤일지라도 몇 사람이나 다시 이곳에 걸음을 할는지도 모르는 일이겠는데, 나의 이번 걸음에는 기정(沂鄭) · 영빈(潁濱)의 수레 자국과 말발자국이 모두 선하게 눈앞에 벌였으니, 아아, 슬프도다. 사람이 이 세상에 나서 아무런 질정(質定)된 일이 없음이 어찌 이러할 줄이야 알았으리오.

광인점(廣仁店) · 삼분구(三坌口)를 거쳐 쌍탑산(雙塔山)에 이르러서 말을 멈추고 한 번 바라본즉, 참으로 기절(絶)하기 짹이 없다. 바위들은 결과 빛이 마치 우리나라 동선관(洞仙館)⁶의 사인암(舍人巖 바위 이름)과 같고, 높이 솟은 탑의 모습은 금강산(金剛山)의 증명탑(證明塔)과 같이 뾰족하게 둘이 마주 섰는데, 아래위의 넓

3 저 뽕나무……일 : 불교에서 인연설을 설명할 때에 쓰는 고사.

4 최고운(崔孤雲) 치원(致遠) : 우리나라 한문학의 문을 연 초조(初祖), 고운은 호요, 치원은 이름.

5 이익재(李益齋) 제현(齊賢) : 고려의 저명한 정치가 · 문학가. 익재는 호요, 제현은 이름이며, 자는 종사(仲思). 그의 시와 사(詞)는 우리나라 몇천 년 이래의 제일이다.

6 동선관(洞仙館) : 황해도 동선령(洞仙嶺)에 있다.

이가 똑같아서 남에게 의지할 아무런 생각도 없는 듯이 짹짐도 없고, 기울어짐도 없는 채, 정직 단엄하고 교려 웅특(巧麗雄特)하여 햇빛과 구름 기운이 마치 비단처럼 찬란할 뿐이다. 난하(灘河)를 건너서 하둔(河屯)에서 묵었다. 이날 모두 40리를 걸었다.

16일 임술(壬戌)

개다.

아침에 일찍 길을 떠나 왕가영(王家營)에서 점심을 먹고 황포령(黃舗嶺)을 지날 때, 나이 스무 남은 살 된 어떤 귀족 청년 하나가 붉은 보석과 푸른 것으로 장식한 모자를 쓰고 검은 말을 탄 채 달려가는데, 그 앞에 한 사람이 가고 뒤에 따른 자가 기병 30여 명이나 되며, 모두들 금안(金鞍) · 준마(駿馬)에 의관의 차림이 선명하고도 화려하고, 혹은 화살을 지기도 하고, 혹은 조총(鳥銃)을 메기도 하고, 혹은 다창(茶鎗)을 받들기도 하였으며, 혹은 화로를 들고서 번개처럼 달리면서도 벽제(辟除) 소리 한 마디 내지 않는데, 다만 말굽 소리만이 들릴 뿐이다. 그 구종군에게 물었더니 그는,

“황제의 친 조카 예왕(豫王)이십니다.”

하고, 대답한다.

그 뒤에는 태평거가 따라가는데, 힘센 노새 세 필로 명예를 짓고는 초록빛 천으로 걸을 가지고 사면엔 유리를 붙여서 창을 내었으며, 그 위에는 파란 실그물로 얹고 네 모서리에는 술을 드리웠다. 대체 귀족들이 탄 가마나 수레는 모두 이런 것들로 꾸며서 그 계급을 표시하였다. 그 수레 속은 마치 보일 듯하나 뵈지는 않고, 다만 여인의 소리가 흘러나오더니, 얼마 아니 되어 노새가 멎고 오줌을 흘리는 순간, 우리의 말도 오줌을 눈다. 수레 속으로부터 여인이 북쪽 차창을 열고 다투어 가며 얼굴을 내미는데, 아름답게 풍친 머리에는 구름이 얹힌 듯, 귀를 꿰 구슬들은 별이 흔들리듯 노란꽃과 파란 줄구슬이 꿈인 듯이 얹히어, 예쁘고도 화려함이 마치 낙

수(洛水)의 놀란 기러기와 같은데, 잠자코 창을 닫고 선뜻 가버린다. 그들은 모두 셋인데, 예왕을 모시는 궁녀(宮女)라 한다. 마권자(馬圈子)에 이르러서 묵었다. 이 날에는 80리를 걸었다.

17일 계해(癸亥)

개고 따뜻하다.

새벽에 길을 떠나 청석령(青石嶺)을 지날 때, 때마침 황제가 계주(薊州)동릉(東陵)⁷에 거동하게 되었으므로, 벌써 도로와 교량을 닦되 한가운데에는 치도(馳道)를 쌓고, 각 고을에서 미리 역군을 징발하여 높은 데는 깎고 깊은 곳은 메우되, 맷돌로 다지고 흙손으로 바른 듯 마치 베[布]를 펴놓은 듯싶고, 표목을 세웠으되 조금 굽은 것도 없고 기운 것도 없으며, 치도의 넓이는 두 길이요 좌우의 협로(夾路)는 각기 한 길 남짓 하다. 《시경》에 이르기를,

주 나라 가는 길이 숫돌처럼 바르구나 | 周道如砥

라 하였더니, 이제 이 길이 숫돌처럼 되었으니 그 비용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흙을 메고 물을 지는 이들이 가는 곳마다 폐를 이루어서, 허물어지면 곧 흙으로 보수하되, 한 번 말굽이 지나간 곳이면 벌써 흙손질하고는, 나무를 새끼로 어긋나게 끓어 치도 위로 다니는 자들을 금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드시 그 나무를 거꾸러뜨리며 놋줄을 끊어 버리고는 가버린다. 나는 곧 마부에게 타일려 치도 밑으로 가게 했다. 이는 감히 못해서 그런 것이겠는가마는, 역시 차마 못 할 일이기 때문이다. 길 한편에는 반드시 두어 걸음마다 돌담을 쌓았는데, 높이는 어깨에 닿을 정도이고, 넓이는 대략 여섯 자쯤 되는데, 마치 성(城)에 치첩(雉堞)

7 동릉(東陵) : 청 능묘의 총칭. 세조의 효릉(孝陵), 성조의 경릉(景陵), 고종의 유릉(裕陵), 문종의 정릉(定陵), 목종의 혜릉(惠陵)이 모두 이어 있다.

이 있는 듯싶으며, 교량치고는 난간이 없는 게 없고, 돌난간에는 천록(天祿 상상으로 생긴 짐승)이나 사자 모양을 앉혔는데, 모두들 입을 열어 생동하는 듯싶고, 나무 난간인즉 단청이 눈부시다. 물이 넓은 곳엔 나무쪽을 짜서 광주리처럼 만들되 돌레는 거의 한 칸, 길이는 한 길쯤 되게 해서, 물가의 자갈을 채워 물속에 굳게 꽂아서 다리 기둥을 만들었고, 난하(灤河)나 조하(潮河)에는 모두 수십 척의 큰 배를 띠워서 부교(浮橋)로 삼았다.

아침밥을 삼간방(三間房)에서 먹을 제 우리 일행이 점방에 들렀는데, 어제 길에서 만난 예왕(豫王)이 관왕묘에 들렸으므로, 우리가 든 점방과 아래위 사이다. 그들은 모두 다른 점방에 흘어져 떡 · 고기 · 술 · 차 따위들을 사서 먹곤 한다. 내가 우연히 관왕묘를 구경하기 위하여 걸어서 들어간즉, 문에는 지키는 자도 없이 뜰 안이 물을 끼얹은 듯 아무런 사람 하나도 없이 괴괴하였다. 나는 애당초 예왕이 그 속에 머무른 줄을 몰랐던 것이다. 뜰 가운데에는 석류가 주렁주렁 달려 있고, 낮은 솔은 용이 서린 듯이 굼틀굼틀한다. 내가 그 곳을 바장이며 두루 구경하고 섬돌을 디디고 마루턱으로 오르려는 즈음에, 어떤 한 아름다운 청년이 모자를 벗은 채 맨머리로 문밖으로 쫓아나와 나를 보고 웃으며 맞이하되,

“씬쿠[辛苦].”

하니, 이 말은 대체로 나를 위로하는 뜻이다. 나는,

“하오아[好阿].”

하고 답하였다. 이는 곧 우리나라 사람들의 안부(安否)를 묻는 인사의 말이다. 그 섬돌 위에는 아로새긴 난간이 있고, 난간 아래에는 교의 둘이 있으며, 그 가운데에 붉은 탁자를 놓고는, 나에게 “쥐이쥐(坐着)”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손님에게 앉기를 청함이다. 혹은 “칭취(請坐) 칭취”라고도 하고, 혹은 “쥐저 쥐저”라고 거듭 부르기도 하려니와, “칭(請) 칭 칭”을 잇달아 내기도 하니, 이는 정중하고도 간곡함을 표함이다. 그리고 길가에 오면서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마다 주인들은 모두 그렇지 않은 이가 없으니, 이는 대개 손님을 접대하는 예식이다. 그리고 그 청년이 모자를 벗고 사복(私服)을 입었으므로, 나는 애초에 그가 주승(主僧)이 아닌가 하였는데, 급기야 상세히 살펴본즉, 그가 곧 예왕인 듯하다. 나는 그래도 아는 척하

지 않고 심상하게 봐 버리고, 그도 역시 교만하고 고귀한 서슬을 보이지 않으나, 붉은 빛이 얼굴에 부풀어올랐음을 보아서 아침 술을 많이 마셨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그는 곧 손수 술 두 잔을 따라서 나에게 권한다. 나는 연거푸 두 잔을 기울였다. 그는 나더러,

“만주 말을 할 줄 아세요.”

하고 묻기에, 나는,

“모릅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가 별안간 난간 밑을 향해서 한번 토하자, 술이 마치 폭포처럼 쏟아진다. 문안을 돌아보며,

“량아(涼阿 시월하다).”

한다. 웬 늙은 환시[老闌] 하나가 방안에서 담비 갖옷[貂裘] 한 벌을 갖고 나오더니, 손으로 나에게 나가라는 시늉을 하기에, 나는 곧 일어서서 나오며 난간 머리를 돌아본즉, 그는 오히려 난간에 비켜 앉았다. 그의 행동은 몹시 경박하고 얼굴은 유달리 창백하여, 조금도 위엄이 없이 마치 시정배의 아들 같았다.

아침밥이 끝난 뒤에 곧 떠나서 몇십 리를 나아갔다. 뒤에 백여 명이나 되는 말탄 사냥꾼이 멀리 산 밑을 바라보며 달린다. 독수리를 안은 자 10여 명이 산골에 흘러 져 갔다. 한 사람은 큰 독수리를 안았는데, 독수리의 다리는 마치 사냥개 뒷다리처럼 살지고, 누런 비늘이 정강이에 번쩍인다. 검은 가죽으로 머리를 싸매고 눈을 가렸으며, 그 남은 것들도 모두 눈을 가렸으니, 이는 그것들이 행여나 물건이 눈에 뜨이면 함부로 퍼덕이다가 다리에 생채기를 내거나 또는 위협을 느낄까 보아서 그런 것이고, 또는 그렇게 해야만 눈 정기를 기르는 동시에 사나운 성질을 그대로 지니기 때문이다. 나는 그제야 말에서 내려 모래 위에 앉아서 담뱃대를 털어 담뱃불을 붙였다. 그 중 활과 살을 몸에 두른 자 하나가 역시 말에서 내려 담배를 넣더니 불을 청한다. 나는 그제야 그에게 말을 물었더니, 그는,

“황제의 조카 예왕께옵서, 열다섯 살 되는 황손과 또 열한 살 되는 황손 둘을 데리고 열하로부터 북경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사냥하시는 것이옵니다.”

하기에, 나는,

“그럼, 소득이 얼마나 되우.”

하였더니, 그는,

“사흘 동안에 겨우 독수리 한 마리를 얻었답니다.”

한다. 그 즈음에 별안간 옥수수대 꺾이는 소리가 나며 등골이 서늘해진다. 말 탄 이 하나가 나는 듯이 밭 가운데로부터 달려 나오는데, 화살을 힘껏 버틴 채 안장 위에 엎드려 달리되 그의 희디흰 얼굴은 눈인양 눈부신다. 담배 태우던 자가 그를 가리키며,

“저이가 열한 살에 드는 횡손입니다.”

한다. 그는 토끼 한 마리를 쫓아 달렸는데, 토끼는 달리다가 모래 위에 넘어져 누워서 네 발을 모은다. 말을 빨리 달려 쏘았으나 맞히지 못하였다. 토끼는 다시 일어나 산 밑으로 달음질친다. 그제야 백여 명이 달려가 에워싸니, 아득한 평원에 티끌이 공중을 가리고 총소리가 진동하더니, 별안간 에워쌌던 것을 풀고 가버릴 제티끌 그림자 속에 일단(一團)의 무엇이 감돌더니 아득히 그 자취가 보이지 않는다. 과연 토끼를 잡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말 달리는 법에 있어서는 어른이나 아이를 불구하고 모두 타고난 천재들이다.

대개 책문으로부터 연산관(連山關)에 이르기까지 높은 뿌와 험한 재가 많고 숲이 울밀하여 가끔 새들이 지저귀더니, 요동에서 연경까지 2천 리 사이에는, 공중에는 나는 새가 끊이고 땅에는 달리는 짐승도 눈에 보이지 않았다. 때마침 장마지고 날씨가 찌는 듯하나, 벌레나 뱀이 숲속에 다니는 것도 보지 못하였거니와, 개구리 소리도, 두꺼비 뛰노는 것도 보이지 않으며, 벼가 한창 누럴 때이지만 참새 한 마리가 내리지 않고, 물가 모래톱 근방에도 물새 한 마리가 보이지 않으며, 다만 이제 묘(夷齊廟) 앞 난하(灘河)에서 비로소 두 쌍의 갈매기를 보았다. 그리고 까마귀 · 까치 · 솔개 따위는 흔히 도시 중에 모여들에도 불구하고, 이 연경에선 역시 드물게 보이니 결코 우리나라 그것들의 공중을 가지고 나는 것과는 같지 않음을 느꼈다. 애초에는 이러한 변새의 수렵(狩獵) 지역에는 반드시 금수가 많으리라 생각하였더니, 이제 이곳의 모든 산은 갈수록 초목이 없고 새 한 마리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아서, 비로소 호인들이 사냥으로써 생명을 유지함이 이와 같음을 알았다.

그러나 그들은 장차 어느 곳에서 사냥을 하겠는지, 짐승들을 이렇게 절종시켰음은 이치에 맞는 일인지, 또는 짐승들이 별도로 도피할 곳이 있는지는 알 수 없겠다.

강희 황제가 위에 오른 지 20년 만에 오대산(五臺山)에 놀러 갔을 때 범이 숲속에서 뛰어나오매, 황제가 친히 쏘아서 죽였다. 그 때 산서(山西) 도어사(都御史) 목이 새(穆爾賽)와 안찰사(按察使) 고이강(庫爾康)이 황제에게 여쭈어 그 땅 이름을 석호천(射虎川)이라 하고, 범의 가죽은 대문수원(大文殊院)에 간직하여 이제까지 전하고 있으며, 그는 또 친히 화살 서른 개를 쏘아서 토끼 스물아홉 마리를 잡았고, 그가 송정(松亭)에서 사냥할 때에 큰 범 세 마리를 쏘아 죽였는데, 모두들 그림을 그려서 민간에서 서로 팔고 사니, 이는 실로 신기한 기예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여러 공자(公子)들이 사냥할 때 재빨리 달리는 것을 구경한즉, 대체로 그들의 가법(家法)이 그러함을 알겠다. 만일 그 때 옥수수밭 속에서 범 한 마리가 뛰어나왔더라면, 비단 그가 기뻐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 리의 길을 멀리 온 나로 하여금 한 번 유쾌하게 했을 것인데, 이제 그렇지 못하였음이 한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장성 밖에 다다르니, 뵐에 잇달아서 성을 쌓았으므로 높낮이와 굽이가 생겼고 그 요충지(要衝地)에는 속이 텅 빈 돈대를 세웠는데, 높이는 예닐곱 발, 너비는 열네 몇 발이나 되었다. 그런데 대체로 요충지에는 4, 50걸음 만에 돈대가 하나씩 있고, 조용한 곳에는 2백 걸음 만에 돈대 하나씩을 두었으며, 돈대마다 백총(百總 현대의 소위(少尉)에 해당)이 지키고, 열 돈대를 천총(千總 중위에 해당)이 지키게 마련이다.

그리하여 1, 2리(里) 사이마다 방울 소리가 들린다. 만일 한 사람이 일이 있을 때에는 좌우에서 횃불을 들어 서로 나누어 전하매, 수백 리 사이에도 모두 재빨리 알아채고 예비하게 되었으니, 이는 모두 척남궁(戚南宮)⁸이 끼쳐 준 책략이라 한다.

옛날 육국(六國) 때에도 역시 장성이 있었다. 조(趙)의 이목(李牧)⁹이 흉노(匈奴)를 크게 깨뜨려 10여만 명의 기병을 죽이고 침람(檻櫈)을 전멸시키며, 임호(林胡) ·

8 척남궁(戚南宮) : 명의 명장 척계광(戚繼光). 남궁은 봉호인 듯하고, 자는 원경(元敬).

9 이목(李牧) : 전국 시대의 명장. 염파(廉頗)와 같이 치는 명장.

누번(樓煩)¹⁰ 등을 깨뜨리고 장성을 쌓되, 대(代)와 음산(陰山)으로부터 고궐(高闕)에 이르기까지 새 문을 만들어 운중(雲中) · 안문(雁門) · 대군(代郡) 등의 여러 고을을 두었고, 진(秦)은 의거(義渠) 감숙성 지방에 있던 부족(부족)를 멸한 뒤에 비로소 농서(隴西) · 북지(北地) · 상군(上郡) 등지에다 장성을 쌓아서 호족을 막았으며, 연(燕)은 또 동호(東胡)를 깨뜨려서 천 리를 넓히고 역시 장성을 쌓되, 조양(造陽)으로부터 양평(襄平)에 이르기까지 상곡(上谷) · 어양(漁陽) · 우북평(右北平) · 요동(遼東) 등의 여러 고을을 두었다. 그리하여 진 · 연 · 조 세 나라가 모두 저 세 곳에 새문을 둔 지가 오래고, 각기 장성을 쌓았으되 그 실에 있어서는 서로 잇달리어 북 · 동 · 서에 뻗은 것이 별씨 만 리나 되었더니, 진(秦)이 천하를 통일하고 천자가 되자 곧 몽염(蒙恬)으로 하여금 장성을 쌓되 지세를 따라 험한 곳을 이용하여 변새지를 눌러서, 임조(臨洮)로부터 요동에 이르기까지 만 리에 뻗었으니, 생각하건대 몽염이 옛성을 모두 증수(增修)한 것이었던가. 또는 연 · 조의 옛 성터에다 새로 쌓았던 것인지는 알 수 없겠다. 몽염의 말에,

“이 성은 임조에서 시작되어 요동까지 잇달렸다.”

하였으니, 이 성이 만여 리에 뻗은 그 사이에 지맥(地脈)을 끊지 않을 수 없겠고, 또 사마천(司馬遷)이 북변(北邊)에 가서 몽염이 쌓은 장성을 보매 그 역정(驛亭)과 돈대가 모두 산을 끊고 골을 메운 것을 보고 그가 가벼이 백성의 힘을 허비하였음을 책망하였다. 그렇다면 이 성은 정말 몽염이 쌓은 것으로, 연 · 조의 옛것이 아닌지도 모르겠다. 이 성은 모두 벽돌로 쌓았으며, 벽돌은 모두 한 기계에서 찍어 낸 것으로서 두껍고 얇음이나 크고 작은 것이 조금도 차이가 없고, 성 밑 돈대는 돌을 다듬어서 쌓았으되 땅 밑에 포갠 것이 다섯이요, 땅 위에 포갠 것이 셋이라 한다. 그 돈대는 가끔 무너진 곳이 있었다. 그 높이는 댓 길쯤 되나, 흙을 섞지 않고 오로지 벽돌에 석회를 발랐는데, 종이를 가린 듯이 얇아서, 겨우 벽돌을 이어붙인 것이 마치 나무에 아교를 합친 듯싶다. 성의 안팎이 대파로 깎은 듯하되, 아래는 넓고 위는 좁아서 비록 대포(大礮)와 충차(衝車)라도 갑자기 깨뜨리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대개 그 바깥 벽들은 비록 이지러졌으나, 그 속에 쌓은 것은 그대로 남아

10 첨람(簷瀨)……누번(樓煩) : 전국 때 조(趙) 곤 지금의 산서성 서북에 있던 부족.

있었다.

담결핵(痰結核)을 다스리는 데에는 천년 묵은 석회에다가 초를 타서 떡을 만들어 붙이곤 한다. 묵고 오래 된 석회로는 장성이 유품이었으므로, 으레 사신이 오가는 편에 이를 구했던 것이다. 내 일찍이 젊었을 때 주먹만큼 큰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보고 결코 그 참된 것이 아님을 발견하겠다. 길가의 모든 성의 제도는 모두들 장성과 다름없으니, 어디에서 주먹처럼 큰 석회를 얻을 수 있겠으며, 또한 어찌 일부러 새외로 멀리 돌아서 구득하였겠는가. 이는 우리나라 길가의 무너진 성 밑을 지나다가 주운 것에 지나지 않으리라 생각될 뿐이다.

돌아오는 길에 고북구(古北口)에 들렀다. 내 저번에 새문을 나갈 때에는 마침 밤이 깊어서 두루 구경하지 못하였다니, 이제 그와 반대로 대낮이므로 수역과 더불어 잠깐 모래 벌판에 쉬다가 곧 첫째 관(關)으로 들어섰다. 말 수천 필이 관문이 메도록 서 있고, 둘째 관문을 들어갔더니 군졸 4, 50명이 칼을 차고 빽 둘러섰고, 또 두 사람이 의자를 맞대고 앉았다. 나는 수역과 함께 말에서 내려 조용히 걸었다. 그들은 기쁜 얼굴로 재빨리 앞에 와서 몸을 굽히며 읍하고 위안의 말을 간곡히 보내는데, 그 하나는 머리에 수정관(水晶冠)을 썼고, 또 하나는 산호관(珊瑚冠)을 썼다. 그들은 모두 수비하는 참장(參將)이라 한다.

석진(石晉)¹¹의 개운(開運) 2년(945)에 거란주(契丹主) 덕광(德光)이 침입하여 호북구(虎北口)로 돌아오다가, 진(晉)이 태주(泰州)를 치러 갔다는 말을 듣고 다시 군사를 통틀어서 남쪽으로 내려갈 제, 거란주가 수레 속에서 철요기(鐵鷂騎)¹²의 기병(騎兵)에게 명령을 하고 말에서 내려 진군(晉軍)의 농각(鹿角)¹³을 빼고 들어갔었다. 대개 장성(長城)을 둘러 구(口)라는 이름을 지닌 곳이 무려 몇백이나 되었는데, 태원(太原 산서성에 있다) 분수(汾水)의 북에 역시 호북구라는 지명이 있으니, 그 때 덕광(德光)의 군사가 기양(祁陽)으로부터 북으로 항해 갔던 바, 그 길이 아니고 보니 유주(幽州) · 단주(檀州)의 호북이 곧 이 관(關)이라 생각된다. 당(唐)의 선

11 석진(石晉) : 오대 때의 후진(後晉). 석은 그의 성.

12 철요기(鐵鷂騎) : 거란의 기병대 이름인 듯하다.

13 농각(鹿角) : 군대에서 쓰는 나무로 만든 방어물(防禦物)의 일종.

조에 호(虎)라는 휘(諱)가 있으므로, 당에서 호(虎)를 고쳐 고북구라 하였다. 송인(宋人)이 지은 《사료행정록(使遼行程錄)》에 이르기를, “단주(檀州)로부터 북으로 80리를 지나고, 거기에서 또 80리를 가서 호북구관(虎北口關)에 이르렀다.”

하였으니, 단주의 고북구 역시 호북구라고 일컬었던 것이다. 송(宋) 선화(宣和) 3년(1121)에 금인(金人)이 요병을 고북구에서 깨뜨렸고, 가정(嘉定) 2년(1209)에 몽고(蒙古)가 금(金)에 침입하여 고북구에 이르매 금인은 물러가서 거용관(居庸關)을 지켰으며, 원(元)의 치화(致和) 원년(1328)에 태정제(泰定帝 애손철목이(也孫鐵木爾))의 아들 아속길팔(阿速吉八)이 상도(上都 칠합이(察哈爾)다룬현(多倫縣))에서 임금이 되어 군대를 보냈는데, 도(道)를 나누어 연(燕)의 철첩목아(鐵帖木兒)와 대도(大都 북경)에서 싸울 때에 탈탈목아(脫脫木兒)는 고북구를 지키다가 상도의 군대와 더불어 의흥(宜興)에서 싸웠고, 명(明)의 홍무(洪武) 22년(1389)에 연왕(燕王)에게 명령을 내려 군사를 거느리고 고북구로 나가서 내안불화(乃顏不花)를 이도(迤都)에서 쳤고, 영락(永樂) 8년(1410)에는 고북구 소관(小關)의 어귀와 대관(大關)의 바깥 문을 메워서 겨우 사람 하나 말 한 필을 용납하게 되었다는데, 이제 이 관은 다섯 겹이나 되는 문이 있으나 아무런 메운 흔적이 없음을 발견하였다.

대개 이 관은 천고의 전쟁을 치른 마당이므로, 천하가 한 번 어지러우면 곧 백골(白骨)이 되처럼 포개어지게 되니, 이야말로 진실로 이른바 호북구였다. 이제 태평이 계속된 지 1백여 년이나 되어서 네 경내(境內)에 병혁(兵革)의 어지러움을 보지 못하였을뿐더러, 삼과 뽕나무가 빽빽이 서 있으며, 개와 닭 울음이 멀리 들리어, 이와 같이 풍족한 휴양(休養)과 생식(生息)이야말로 한(漢) · 당(唐) 이후로는 일찍이 보지 못한 일이었으니, 그들은 무슨 덕화(德化)를 베풀었기에 이 경지에 이르렀을까. 그러나 그 높음이 극도에 달하면 반드시 허물어짐은 이치가 으레 그러한 것인만큼, 이곳 백성이 전쟁을 치르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으즉, 아아, 앞으로 다가올 토봉(土崩) · 와해(瓦解)도 걱정이 아닐 수 없구려.

이 관(關)은 대개 끼 위에 자리잡아, 비록 수많은 뛷봉우리가 뻥 둘렀으나 큰 사막이 오히려 눈앞에 보인다. 《금사(金史)》를 참고하면,

“정우(貞祐) 2년(1214)에 물이 넘쳐 흘러, 고복구의 쇠로 만든 관문을 허물어 버렸다.”

하였으니, 대개 되놈들이 중국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그의 나라가 상류(上流)에 웅거하여 형세가 병 목을 거꾸로 달아 놓은 것처럼 된 까닭이다. 내 어렸을 때에 어떤 어른이 백곤(伯鯀)¹⁴의 홍수(洪水)를 메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증(辨證)한 것이 기억에 떠올랐다.

“중국에 커다란 근심 두 가지가 있으니, 곧 하(河)와 호(湖)이다. 대개 백곤의 재주나 힘이나 인격이나 슬기 그 어느 것이나 저 되놈이 멋대로 날뛸 것을 알고도 남음이 있었으므로, 그는 유주(幽州)와 기주(冀州)를 소개(疏開)하고 항산(恒山)과 대군(代郡)을 파서 구주(九州)의 물을 이끌어 사막에 끌어 대고는, 중국으로 하여금 도리어 그 상류에 웅거하여 되놈[湖]을 견제하기를 꾀하였다. 그리하여 당시의 사악(四岳)¹⁵ 역시 그의 제안을 옳게 여겨 한 번 시험해 보려 하였으니, 이는 이른바 ‘시험해 보고 말 것이다’¹⁶가 곧 그것이다. 그러므로 요(堯)는 비록 물을 거꾸로 따냄이 옳다고 여기지 않았건마는, 백곤의 변론이 몹시 강력하므로 반박을 하지 못하였으며, 우(禹)도 물의 역행이 마땅한 일이 아님을 알았지마는, 백곤의 재주와 슬기가 심히 뛰어났으므로 감히 간하지도 못하였으니, 이는 이른바 ‘명령을 어기고 화합을 깨뜨린다’¹⁷가 곧 그것이었던 것이다. 대개 백곤의 사람됨이 사납고도 꿋꿋하였을뿐더러, 제 마음대로 의견을 주장하되, 오로지 되놈으로써 중국 만세의 걱정을 삼아, 저 높은 데까지도 물에 잠길 것은 눈앞의 둘째 일로 보고서, 지형도 측량하지 않고 공비도 아낌 없이 기어코 거꾸로 개울을 파서 거슬러 흐르게 하였으니, 이는 이른바 물이 거슬러 행함을 강수(洚水)라 하므로, ‘강수란 곧 홍수(洪水)이다’¹⁸라는 말이 곧 그것이다. 그러나 개울도 치고 구덩이도 파려니와, 소개도 하

14 백곤(伯鯀) : 하우씨(夏禹氏)의 아버지로서 9년의 홍수를 맡아 다스리다가 실패하여 귀양살이를 당한 사람.

15 사악(四岳) : 요(堯)의 때에 있었다는 사방 산악을 맡은 책임자.

16 시험해……것이다 : 《서경(書經)》에 나오는, 백곤의 치수에 관한 말의 한 구절.

17 명령을……깨뜨린다 : 《서경(書經)》에 나오는, 백곤의 치수에 관한 말의 한 구절.

18 강수란 곧 홍수(洪水)이다 : 《맹자(孟子)》의 <고자편(告子篇)>에서 나온 한 구절.

고 씻어 내기도 하는 도중에 지세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흙이 저절로 메워지게 되었으니, 이가 이른바, ‘백곤이 홍수를 메웠다.’¹⁹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가 유독 무슨 마음으로 이처럼 커다란 물을 메워서 스스로 죄과를 범하였으며, 또 당시의 사악과 십이목(十二牧)은 어찌하여 한 목구멍에서 나다시피 그를 역천(力薦)하였으며, 또 요로서도 어떻게 차마 9년 동안이나 두고 보면서 그가 패할 것을 기다렸을까. 아아, 백곤이 만일 이 공업을 이루하였더라면, 중국이 되놈을 막는 것이나 하(河)를 막는 계책이 한꺼번에 이루어 만세를 두고 힘을 입히는 동시에, 그의 커다란 공로와 거룩한 사업이 당연히 우(禹)의 우위에 올랐을 것을.” 하였다. 그러나 이제 이곳 지형을 살펴본즉, 이는 맹랑한 말이다. 그리고 이백(李白)의 시에 이르기를,

황하수 깊은 물이 하늘 높이 내리는 듯²⁰ | 黃河之水天上來

이라 하였으니, 대개 그 지형이 서편이 높아서 황하가 마치 하늘 위로 내려 흐르는 듯싶다는 것이다.

관내(關內) 점방에서 점심을 먹게 되었다. 그 벽 위에 황제의 어필 칠절(七絽) 한 수가 붙어 있었다. 이는 공민(孔敏)에게 내린 것이다. 황제가 일찍이 남으로 순행하고는 곧장 열하로 돌아올 제, 모든 공씨(孔氏)가 나와서 배알하기에 황제가 이 시를 읊어 권장하였다. 그리하여 공씨의 문장(門長) 공민이 이에 발(跋)을 달았는데, 황제의 은악(恩渥)과 영총(榮寵)을 극도로 포장하였을뿐더러, 벌써 돌에 새겨 널리 찍어서 이 점주(店主)에게 한 별을 주고 갔다 한다.

그 시는 비록 변변하지 못하나 글씨는 묘하게 썼다. 점주가 나에게 이를 사라고 조르기에 시험조로 그 값을 물었더니, 그는 돈 서른냥을 부른다. 식사가 끝난 뒤 곧 떠나서 셋째 관문에 들어갔다. 양편 벼랑에 석벽이 깎은 듯이 높이 서 있고, 그 가운데에는 차 한 대가 지나칠 수 있게 되었으며, 아래에는 깊은 시내와 커다란 바위

19 백곤이……메웠다 : 《서경》에 나오는, 백곤의 치수에 관한 말의 한 구절.

20 황하수……듯 : 《이태백집(李太白集)》장진주(將進酒).

가 더덕더덕하였다. 기공(沂公) 왕중(王曾)과 정공(鄭公) 부필(富弼)이 일찍이 거란에 사신같 제 역시 이 길을 경유하였으므로, 그의 행정록(行程錄) 중에, “고북구는 양편에 준험한 석벽이 있고, 그 사이에는 길이 났으되, 겨우 수레를 용납할 만하다.” 하였음을 보아서 그가 이곳으로 지나간 것을 알 수 있겠다. 한 소사(蕭寺)에서 쉴 때, 거기에 영빈(穎濱)소철(蘇軾)²¹의 시가 새겨져 있었다.

어지런 뼈가 둘렀으니 갈 곳 없음 의아하더니 | 亂山環合疑無路
가는 길 얹힌 채 시내 곁을 둘러 있네 | 小徑繁回長傍溪
꿈속에 잠긴 듯이 서쪽 길을 헤매니 | 彷彿夢中尋蜀道
홍주에서 동편 골이 봉주에선 서라네 | 興州東谷鳳州西

《송사(宋史)》를 참고해 보면,

“원우(元祐 1086~1094) 연간에 소철이 그의 형 소식(蘇軾)을 대신하여 한림학사(翰林學士)가 되었고, 얼마 아니 되어 예부 상서(禮部尚書)의 직을 대리하여 거란에 사신갔으므로, 그의 관반(館伴)시독학사(侍讀學士) 왕사동(王師同)이 능히 소순(蘇洵)²² · 소식의 글과 소철의 복령부(茯苓賦)를 외웠다.”

하였으니, 이 시는 곧 문정공(文定公 소철의 시호)이 사신으로 갈 때에 이곳으로 지나치다가 쓴 것이라. 살고 있는 중은 겨우 둘뿐이고, 난간 밑에는 바야흐로 오미자(五味子) 두어 쟁을 말리고 있기에, 내 우연히 두어 낱을 주워서 입에 넣었다. 한 중이 주시(注視)하더니, 별안간 크게 노하여 눈을 부릅뜨며 호통하는데, 그의 행동이 몹시 흥쾌(흥快)하였다. 나는 곧 일어서서 난간 가로 비켜 섰다.

마침 마두(馬頭) 춘택(春宅)이 담뱃불을 붙이려 들어섰다가, 그 꼴을 보고는 크게 노하여 줄곧 앞으로 다가서며,

“우리 영감께옵서 더운 날씨에 찬물 생각이 나셔서, 이 자리에 가득 찬 것들 중에

21 소철(蘇軾) : 송의 문학가. 연빈은 호요, 철은 이름이며, 자는 자유(子由). 소식은 아우.

22 소순(蘇洵) : 송의 문학가. 순은 이름. 자는 명윤(明允)이요, 호는 노천(老泉)이며, 소식의 아버지.

서 불과 몇 알 아니 되는 것을 씹어 침을 돋우려 함이거늘, 너같이 양심 없는 이 까까중놈아, 하늘에도 높은 하늘이 있고, 물에도 깊은 물이 있거늘, 이 당나귀처럼 높낮이도 분간하지 못하고 얕은 것과 깊은 것도 측량한 줄 모르는 이런 무례한 놈, 이게 무슨 꼴이냐.”

하며 꾸짖는다. 중은 모자를 벗어 던졌다. 입가에는 흰 거품이 부풀어 오르고 어깻죽지를 기웃거리면서 까치걸음으로 앞으로 나서서,

“너희들 영감 내게 무슨 감정이 있어, 하늘 높다 하나 너나 두려워하지, 나는 두려울 게 없어. 제 아무리 관노야(關老爺)²³가 현령(顯靈)하고 태세(太歲)가 문에 들었다²⁴ 하더라도, 난 그가 두려울 게 없어.”

한다. 춘택이 곧 그에게 뺨 한 대를 치고 이어서 수없이 우리나라의 무리한 욕지거리를 더한다. 중이 그제야 뺨을 손으로 가리고 비틀거리며 들어가 버린다. 나는 목청을 높여 춘택에게 요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였다. 춘택은 오히려 분기를 이기지 못하여, 곧장 그 자리에서 싸워 죽이고 말 기세였다. 한 중은 부엌문에 서서 웃음을 머금은 채 편을 들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역시 밀리지도 않는다. 춘택은 또한 주먹으로 그를 두들겨 엎고는,

“우리 영감께옵서 이 일을 만세야(萬歲爺 황제를 높여서 하는 말) 앞에 여쭙는다면, 네놈의 대가리를 쪼개 버리든지, 그렇지 않다면 이 절을 소탕하여 깨끗이 평지를 만들겠어, 이놈.”

하며 호통친다. 중은 옷을 툭툭 털고 일어나며,

“너희 영감 말이야, 공짜로 오미자를 훔치고, 또 네놈을 시켜 사발처럼 모진 주먹을 보내니, 이게 무슨 도리야.”

하며 꾸짖으나, 그의 기색은 차차 죽어 간다. 춘택은 더욱 기를 내어,

“무슨 공짜야. 기껏해야 한 말이 되겠느냐, 한 되가 되겠느냐. 그까짓 눈꼽처럼 작은 한 알 때문에 우리 영감님의 높으신 위신을 깨았단 말이냐. 만세야께옵서 만일이 일을 아신다면 너같은 까까중놈의 대가리통을 대번에 쪼개 버릴 거야. 그리고

23 관노야(關老爺) : 관우(關羽)의 혼령. 노야는 높여서 하는 말.

24 태세(太歲)……들었다 : 살(殺)이 들었다는 말.

우리 영감께옵서 이 일을 만세야께 여쭙는다면, 네놈이 우리 영감은 두렵지 않다
지마는 만세야도 두렵지 않단 말이냐.”

하고, 폭언을 퍼부었다. 그제야 중이 기가 죽어서 다시 앙갚음의 말도 내지 못한다. 춘택은 또 무수히 옥지거리를 하는데, 세력을 피며 걸핏하면 만세야를 팔아 댄다.

이때에는 응당 만세야의 두 귀가 가려웠으리라 생각된다. 대개 춘택이 말끝마다 황제를 일컬으니, 그가 헛 세력을 믿고 성세를 과장하는 꼴이야말로 사람으로 하여금 절도(絕倒)하게 할 일이다. 그 중은 진짜 그를 두려워하여, 만세야라는 석 자를 듣자 마치 뇌성이나 귀신을 본 것처럼 떨 뿐이었다.

그제야 춘택이 벽돌 하나를 뽑아서 중에게 던지려 한다. 두 중은 별안간 웃음을 지으며 달아나 숨어 버렸다가, 곧 산사(山楂 아가위) 두 낱을 갖고 와서 오히려 웃는 얼굴로 바치며 청심환을 요구한다.

그리고 보면, 애초에 이러한 짓은 청심환을 얻기 위함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의 마음씨를 따져 본다면, 실제로 나쁘다 이르지 않을 수 없겠다. 나는 곧 청심환 한 알을 주었더니, 중은 머리를 무수히 조아리곤 한다. 그 염치 없는 일이 심하였다. 대체 산사는 살구처럼 굵기는 하지마는, 몹시 시금털털하여 먹을 수 없었다.

옛 성인은 남의 물건을 사양하고 받으며 취하고 주는 것을 심히 삼갔으니, 말하기를,

“만일 옳은 일이 아니라면, 비록 한낱 지푸라기라도 함부로 남에게 주지도 않을뿐 더러, 남에게 받지도 않는 거야.”

하였던 것이다. 대체 한 낱의 지푸라기로 말한다면, 천하에 지극히 작고도 가벼운 물건이어서, 족히 만물 중에서 손꼽을 존재조차 없겠으니, 어찌 이것으로써 사양하고 받는다든지 취하고 준다든지 하는 순간을 논할 나위가 될까보냐. 그러나 성인(聖人)은 이와 같이 엄청나게 심한 말씀을 하여 마치 이에 커다란 염치와 의리가 존재하는 듯 말하였음을 이상하게 여겼더니, 이제 이 오미자로 인하여 일어난 일을 체험하고 나서, 비로소 성인의 한낱 지푸라기를 이끈 말씀이 과연 지나치게 심함이 아님을 깨달았으니, 아아, 성인이 어찌 나를 속이겠느냐. 두어 낱의 오미자는

실로 한낱 지푸라기와 같은 물건이 전마는 저 완패(頑悖)한 중이 나에게 무례(無禮)한 행위를 한 것은 가위 횡역(橫逆)의 경지에 이른 것이다.

그리하여 이로 말미암아 다투기 시작하여서 주먹다짐에까지 이르렀을 뿐더러 바야흐로 그들이 싸울 때에는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제각기 생사를 분간하지 않았으니, 이때를 당해서는 비록 두어 날의 오미자일망정 재화가 산더미처럼 높았던 만큼 이는 결코 천하에 지극히 가늘고도 가벼운 물건이라 얕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옛날 춘추(春秋) 전국(戰國) 때에 종리(鍾離)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초(楚)의 여인과 뽕 따기를 다투다가 종말에는 두 나라의 전쟁을 일으켰던 일²⁵이 연상된다. 이제 그를 이 일에 비한다면, 두어 날의 오미자가 벌써 성인이 이른바 한낱의 지푸라기보다 많았을 뿐더러 그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초의 여인이 뽕 따기 다툼과 다름 없음을 보아서, 만일 이때에 그들이 싸우는 도중에 목숨을 잃은 사변이 생겼더라면, 어찌 군사를 일으켜 문책할 일이 없었을 것을 누가 예측하겠느냐.

내 일찍이 학문이 추출하고도 얇아서 애초에 갓을 바로잡고 들메 끈을 매는 혐의²⁶를 삼가지 못하여 스스로 공짜로 오미자를 먹었다는 모욕을 취하였으니, 어찌 부끄럽고도 두려움을 이루 말할 수 있으리오.

길가에서 빈 차가 열하로 달려가는 것이 날마다 몇천 몇만인지 모를 만큼 많았으니, 이는 황제가 장차 준화(遵化) 역주(易州) 등지에 거동하는 까닭으로 짐바리를 실으러 가는 것이다. 그리고 몇천의 탁타(橐駝)가 폐를 지어 물건을싣고 나온다. 이놈들은 대체 한결같이 크고 작은 놈이 없이 모두 짧은 흰 빛에 약간 누런 빛을 띠었으며, 짧은 털에 머리는 말과 다름 없으나 작은 눈매는 양과 같고, 꼬리는 마치 소와 같이 생겼다. 그리고 다닐 때에는 반드시 목을 움츠리고 머리를 쳐들되 마치 나는 해오라기처럼 생겼고, 무릎에는 두 마디가 생겼으며, 발은 두 쪽으로 조개졌고, 걸음은 학처럼, 소리는 거위 소리 같았다. 옛날 가서한(哥舒翰)²⁷이 서하(西河)에 머무르고 있을 때, 그 주사관(奏事官)이 장안(長安)으로 향할 때마다 흰 탁타

25 옛날……일 : 《사기(史記)》에 나오는 구절.

26 갓을……혐의 : 일명씨가 지은 군자행(君子行) 중에, “오이밭에서는 들메 끈을 매지 말 것이요, 오얏나무 밭에서는 갓을 바로잡지 말 것이다” 했는데, 군자는 혐의로운 일을 애당초 하지 않는다는 뜻.

27 가서한(哥舒翰) : 당 현종 때 장수로서 서장 지방에 공을 세웠다.

를 타고 하루에 5백 리를 달린 일도 있거니와 석진(石晉)의 개운(開運) 2년에 부언경(苻彥卿)이 거란 철요(鐵鶴)의 군사를 크게 깨치매 거란 임금이 해차(奚車)를 타고 달아날 제 뒤에 적병이 급하게 쫓아오기에 덕광(德光)이 탁타 한 마리를 잡아 그를 태워서 달아났다 하였는데, 이제 탁타의 걸음걸이를 보건대, 몹시 더디고도 둔하니 뒤에 쫓아오는 적군에게 포로를 면하기 어려울 듯싶다. 혹시나 그놈들 중에서도 석계륜(石季倫)²⁸의 소와 같이 잘 달리는 놈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고려 태조(太祖) 때에 거란이 탁타 40마리를 바쳤으나, 태조는 거란이 워낙 무도(無道)한 나라라 하여 다리 밑에 매어놓은 지 10여일 만에 모두 굽어 죽었으니, 거란은 비록 무도한 나라라 할지라도 탁타야 무슨 죄가 있겠는가. 대체 탁타는 하루에 소금 몇 말과 꼴 열 단쯤을 먹기는 일쑤인 만큼 나라에서 세운 목장이 몹시 빙곤할뿐더러 꼬마 목노(牧奴)가 그를 기르기가 어려움은 물론이요, 또는 그를 이용하여 물건을 싣고자 하여도 도시의 건물마저 낮고 좁으며 문과 거리가 더욱 비좁아서 그를 수용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니, 실로 이는 쓸데없는 물건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제까지도 그 다리 이름을 탁타교라 하여 개성(開城)유수부(留守府)에서 3리쯤 가서 있는데, 다리 곁에 돌을 세워 탁타교(橐駝橋)라 새겼으나, 토인(土人)들은 탁타교라 부르지 않고 모두 약대다리(若大多利)라 한다. 이는 사투리로 약대는 탁타, 교량은 다리이기 때문이다. 이에서 또 와전되어 야다리(野多利)라 부르는 것이 일쑤이다.

내 처음 개성에 놀러 갔을 때 탁타교를 물었으나, 어느 곳에 있는지를 아는 이가 없었으니 아아, 사투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함부로 되었음이 이와 같구려. 이날 80리를 갔다.

28 석계륜(石季倫) : 중국 고대 춘추 시대 진(晉)의 부호 석승(石崇). 계륜은 자.

18일 갑자(甲子)

아침에는 개더니 늦게 가는 비가 잠시 내렸으나, 곧 멎고 오후에는 바람과 우레가 크게 일어 소낙비가 쏟아졌다.

아침에 떠나서 차화장(車花莊) · 사자교(獅子橋)를 지났는데, 행궁(行宮)이 있었다. 목가곡(穆家谷)에 이르러 점심 식사를 마치고, 곧 떠나서 석자령(石子嶺)을 지나 밀운(密雲)에 이르매, 청실(淸室)의 모든 왕과 보국공(輔國公 황실로서 봉작을 받은 자)과 수없는 관원이 북경으로 돌아가는 자가 길에 잇달았다. 백하(白河)에 이르매, 나루에 모여든 사람들이 서로 먼저 견너려고 시끄럽게 다투는데 이들을 한꺼번에 견너주기가 어려우므로 바야흐로 부교(浮橋)를 매는 것이다. 모든 배들은 대개 돌을 운반하는 것이었고 사람을 견너주는 배는 다만 한 척이 있을 뿐이다. 앞서 이곳을 지날 때에는 군기(軍機)가 나와 맞이하고 낭중(郎中)은 견너는 일을 감독하고 황문(黃門)은 길을 인도하였으며, 제독과 통관들의 기세가 당당하여 물가에서 채찍을 들어 친히 지휘하였으되, 그야말로 산하(山河)를 움직일 지경이더니, 이제 연경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그들 근신(近臣)의 호송도 없거니와 황제 또한 한 마디 위로의 말씀이 없었다. 이는 대체로 사신들이 부처님 뵙기를 꺼려한 까닭으로 이러한 푸대접을 받은 것이다. 그들의 기색을 살펴보면, 갈 때와 올 때의 대우가 다름을 나는 느꼈다. 대개 저 백하(白河)는 그저께 견너던 물이었으며 모래 언덕은 전날 발을 멈춘 곳이었고, 제독의 수중에 가진 채찍이나 물 위에 떠 노는 배까지도 올 때의 것들과 다름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독은 입을 다물고 통관마저 머리를 숙였을 뿐이었으며, 저 강산은 아무런 변함이 없건만 세태의 염량(炎涼)은 완연히 눈앞에 떠오른다.

아아 슬프도다. 대개 시세의 믿지 못할 것이 이러하구려. 그리고 세력이 있는 곳에는 모두들 달음질쳐서 따르곤 하였으나, 눈 한번 끔벅할 사이에 시세는 옮겨지고, 일은 식어져서 전연 빙자할 곳 없이 되어 마치 저 진흙에 빠진 소가 바다로 들어가는 듯이 얼음산이 햇빛을 만나 녹듯이 천고의 모든 일이 거의 이와 다름 없으니, 어찌 슬프지 않을까보냐. 이렇게 생각하는 차에 별안간 어지러운 구름이 공중

을 덮으면서 바람과 우레가 크게 일었다. 그러나 오히려 갈 때에 비하여 그처럼 가공할 위세는 아니었다. 그러나 다만 갈 때나 올 때가 모두 이려함을 보아서 이상한 일이라 아니할 수는 없겠다. 옛 역사를 더듬어 보건대,

“명(明)의 친순(天順) 7년(1463)에 밀운(密雲) 회유현(懷柔縣)에 홍수가 나서 백하가 몇 길이나 불어 올라 밀운의 군기고(軍機庫)와 문서방(文書房)이 표류되었다.” 하였으니, 아마 이곳은 옛 전쟁터로서 맹풍(盲風) · 괴우(怪雨)가 일기 일쑤여서 분노한 번개와 우레와 그 침울한 원혼이 오히려 풀리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길을 지나오는 곳마다 그들의 배는 제도가 한결같지 않았음은 물론 이 백하의 배는 마치 우리나라의 나룻배와 비슷하면서 어떤 것에는 톱으로 배 한 허리를 에워서 몇 채를 노끈으로 묶어 하나를 만든 것이 있었다. 그 끝이 하나만으로서도 이상한데 거기다 셋을 연결한 것은 더욱 그려함을 느꼈다.

글자를 만드는 데는 상형(象形)이 가장 많았음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배 주(舟)자의 변에는 도(舠)니 첨(牒)이니 작(祚)이니 항(航)이니 맹(艋)이니 정(艇)이니 함(艦)이니 뭉(艨)이니 하는 따위가 모두 그 끌을 따라서 이름을 지은 것이 가지마다 모두 그렇거늘, 어쩐지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배는 걸오(桀傲)니 나룻배는 날오(捏傲)니 커다란 배는 만장이(漫藏伊)니 곡식을 실은 배는 송풍배(松風排)니 하였을 뿐 아니라, 바다에 출범(出帆)할 때에는 당돌이(唐突伊) 상류에 들 때에는 물우배(物遇排)라 하였고, 또 관서(關西)에서는 배를 마상이(馬上伊)라 일컫는다. 그 제도는 비록 각기 같지 않으나, 다만 선(船)의 한 글자로 통일되어 있을 뿐이요, 또 비록 도(舠) · 첨(牒) · 작(祚) · 맹(艋) 등의 글자를 차용(借用)하였으나, 그 이름과 실물은 맞지 않는 것이다.

때마침 사오십 필의 기병이 회오리바람처럼 달려온다. 그 기세가 꺽이나 사나워 우리나라의 피로하고 잔약한 말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그들은 한꺼번에 배에 오른다. 가장 뒤에 따르는 기병 하나가 팔에는 푸른 매를 끼고 채찍을 드날려 단번에 배에 뛰어오르려다가 말의 뒷굽이 미끄러져 안장채를 맨 채 물속에 떨어지자 한 번 덤벙거리며 다시 솟구쳐 일어서려다가 할 수 없이 가라앉아 힘없이 몸을 굴려 이윽고 물 위에 솟아 지친 몸을 이끌고 배에 오른다. 그리고 매는 마치 기름 항

아리에 던져진 나방과 같고, 말은 오줌에 빠진 쥐와 같았을뿐더러 그 고운 옷과 화려한 채찍이 애처롭게도 물망을 져 몸들 곳이 없음에도 오히려 말만을 채찍질하자 매는 더욱 놀라 날뛴다. 대개 제몸을 과장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깊음이 즉시에 이르고 마는 것을 보아서 족히 경계하여야 함을 느꼈다. 물을 건넌 뒤에 그를 따르는 기병에게 물었더니, 그는 말 등에서 몸을 겨우뚱하면서 채찍으로써 진흙 위에 다가,

“그이는 사천장군(四川將軍)이랍니다. 나이가 늙어서 용맹이 줄었답니다.”

한다. 부마장(駙馬莊)에 이르러서 묵었다. 객점은 그 성 밑에 있고 성은 곧 회유현(懷柔縣)이다. 밤에 문을 나서 뒷간으로 향하였다. 때마침 그들은 20, 30명씩 또는 4백여 명씩 한 곳에 몰려 달릴 제 한 대열마다 등불 하나가 앞을 인도한다. 그들은 아마 모두 귀족인 듯싶다. 그리하여 수레와 말소리가 밤새 끊이지 않았다. 이날 모두 65리를 갔다.

19일 을축(乙丑)

개었다 가끔 비가 뿌리다가 늦어서 갤으나 날씨가 몹시 뜨거웠다.

새벽에 회유현을 떠나 남석교(南石橋)에 이르러서 점심을 먹었다. 비로소 흥시(紅柿)를 맛보았다. 그 꼴을 보니 네 골이 쪘는데다 또 턱이 생긴 것이 마치 우리나라의 이른바 반시(盤柿)와 다름없으나, 다만 달고 연하기 짹이 없고 또 물이 많았다. 이 감은 계주(薊州)의 반산(盤山)에서 나는데, 그곳 울창한 숲이 모두 감·배·대추 따위라 한다. 임구(林溝)를 지나 청하(淸河)에 이르러서 묵었다. 이곳에는 곧 한 길이 나옴을 보아서 갈 때의 길이 아님을 알았다. 길에 한 묘우(廟宇)에 들렀다. 강희 황제의 어필로,

“좌성 우불(左聖右佛)”

이라 쓰여 있으니, 좌성은 곧 관운장(關雲長)을 말함이다. 그리고 좌우의 주련(柱聯)에는 그의 도덕과 학문을 높이 찬양하였다. 대개 그들이 관공(關公)을 숭봉한

것은 명(明) 초기의 일이었으며, 심지어 그의 이름을 휘하여 패관(碑官) 기서(奇書)들까지도 모두 관모(關某)라 일컫는다. 그리하여 명(明) · 청(淸)의 즈음에는 공이(公移)와 부첩(簿牒)까지도 관성(關聖)이니 관부자(關夫子)니 하고 높여 불렀다. 그 그릇됨과 아비함을 그대로 쫓아서 천하의 사대부(士大夫)들이 모두 그를 학문하는 이로 높여 왔던 것이다. 대개 소위 학문이란 삼가 생각함과, 밝게 변증(辨證)함과, 상세히 물음과, 널리 배움²⁹을 이름이다. 그리하여 한갓 덕성(德性)만을 높임에 그쳐서는 아니 되므로 문학(問學)³⁰을 거듭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비록 옛날 하우씨(夏禹氏)가 아름다운 경고에 절하고 촌음(寸陰)을 아낀 것이나, 안자(顏子)가 허물을 거듭 범하지 않고 노여움을 남에게 옮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의 마음이 추솔한 점이 없지 않다고 하였으즉, 학문의 극치(極致)에 이르러서도 객(客)된 기운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객기(客氣)를 온전히 제거함에 있어서의 제몸의 사욕(私慾)을 누르며 잃어버렸던 것을 예법의 행동 안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방법을 써야 할 것이다. 대체 ‘나’라는 것이 벌써 사욕에 지나지 않으니, 만일 일호라도 그 사욕이 몸에 따르면 성인은 반드시 그를 마치 원수나 도적처럼 간주하여 기어코 끊어 없애버려야 한다. 그러므로 《서경(書經)》에는, “상(商)을 쳐서 기어코 이겨야 하겠다.”

하였고, 《역경(易經)》에는 또,

“고종(高宗)³¹이 귀방(鬼方)을 쳐서 3년 만에 이겼다.”

하였으나, 전쟁을 3년 동안이나 이끌어 가면서도 반드시 이기고 만다는 것은 실로 싸움을 이기지 못한다면, 나라가 나라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까닭이리라. 그러므로 제몸의 사욕이 이긴 뒤에서야 비로소 예법으로 돌아올 것이니, 이 돌아온다는 말은 일호라도 미진한 것이 없음을 의미함이다. 예를 들면 저 해와 달이 때로는 다 먹혔다가 다시 그 둥근 형태로 돌아올 수 있고, 또 잃었던 물건을 도로 추심(推尋)하면 그 무게가 조금도 감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29 삼가 …… 배움 : 《중용(中庸)》에 나오는 몇 구절.

30 문학(問學) : 송(宋)의 철학가 육구연(陸九淵)은 존덕성(尊德性)을 주장하였고, 주희(朱熹)는 도문학(道問學)을 주장하였다.

31 고종(高宗) : 은(殷)을 중흥시킨 임금 무정(武丁). 고종은 묘호.

이 경지에 이르러서는 결코 슬기와 어짊과 용맹의 세 달덕(達德)을 갖추지 않는 이로서는 이 학문이란 이룩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 관공(關公)과 같은 정의와 용맹 이야기로 자기의 사욕을 이기기 전에 벌써 예법에 돌아온 분이겠지만, 다만 이제 그를 학문한 분으로 일컫는 것은 다만 그가 《춘추(春秋)》에 밝았던 까닭이리라. 그리하여 그가 일찍이 오(吳) · 위(魏)의 참적(僭賊)을 엄격히 배격했던바, 그가 어찌 스스로 망녕되게 높여 준 '제(帝)'라는 칭호를 마음 편히 차지할까 보니. 그의 영혼이 천추에 살아 있다면 반드시 이런 따위의 명분에 어긋난 일을 받지 않을 것이요, 만일 그의 영혼이 이미 사라졌다면 이렇게 아첨해 본들 무엇이 유익하리오. 그리고 그들 오경박사(五經博士)³² 역시 성현의 후예로서 이어받는 것이었으므로, 동야씨(東野氏 주공(周公)의 후예) · 공씨(孔氏 공자의 후예)를 비롯하여 안씨(顏氏 안회(顏回)의 후예) · 증씨(曾氏 증참(曾參)의 후예) · 맹씨(孟氏 맹가(孟軻)의 후예) 등은 으레 모두 성인의 후예니 현인의 후예니 하였고, 관씨(關氏 관우의 후예)의 박사(博士) 역시 성인의 후예라 하여 동야씨 · 공씨의 사이에 참렬시켰으니 심히 부당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전(滇 운남성(雲南省))에 문묘(文廟)가 있는데 왕희지(王羲之)를 주로 모셨으니, 이는 그를 서성(書聖)이니 필종(筆宗)이니 하여 높였음에 그릇됨을 깨닫지 못함이다.

성도(聖道)가 더욱 멀고 오랑캐들이 바꾸어 가며 중국의 임금이 되었으므로 제각 기 제 방법으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여 바른 학문이 아득히 끄나풀처럼 끊어지지 않을 뿐인즉, 어찌 천년 후의 사람들이 저 《수호전(水滸傳)》으로써 정사(正史)를 삼지 않을 줄 알리오. 혹은 이르기를,

"남만(南蠻) · 북적(北狄)이 줄곧 중국의 임금 노릇을 한다면, 왕 우군(王右軍)³³을 문묘에 주사(主祀)함도 가할 것이며, 《수호전》으로써 정사(正史)를 삼는다 하더라도 아니 될 것 없을 것인 동시에, 비록 공(孔) · 안(顏)을 내쫓아 버리고 석가(釋迦)를 들여 모신다 하더라도, 나는 아무런 유감이 없을 거요."

하고는, 서로 한바탕 크게 웃고 일어섰다. 연경으로 돌아가는 관원들이 이곳에 이

32 오경박사(五經博士) : 한 무제(漢武帝) 때 실시한 유학. 오경에 능통한 학자에게 준 학위 혹은 관직.

33 왕 우군(王右軍) : 왕희지(王羲之). 우군은 그의 벼슬.

르러서는 더욱 많아졌음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빈 차가 열하로 향하는 것이 밤낮으로 끊어지지 않았다. 마부나 역군들 중에 일찍이 서산(西山)에 가본 자는 멀리 서남쪽에 둘려 있는 돌산을 가리키며,

“이게 곧 서산이야.”

한다. 구름 속에 출몰하는 천백(千百)의 봉우리가 보일락말락하고 산 위에는 흰 탑이 뾰족뾰족 공중에 솟았으며 병풍처럼 둘린 산들은 그림폭에 푸른 빛이 뜨는 듯이 얹히었다. 그들 둘이 서로 수작하는 말을 들어본즉,

“저 수정궁(水晶宮) · 봉황대(鳳凰臺) · 황학루(黃鶴樓) 등에 붙어 있는 그림이 모두 이를 모방해 그린 거야.”

한다. 강 남쪽에 넓은 호수(湖水)가 열리고 흰 돌을 깎아 다리를 만들었는데, 수기(繡綺)니 어대(魚岱)니 십칠(十七)이니 하는 다리들이 모두 넓이 수십 보에 길이 백여 길이었으며, 굼틀굼틀 무지개처럼 누웠으며 좌우에는 돌 난간이 둘려 있는데, 용을 그린 배와 비단으로 꾸민 듯이 다리 밑에 출몰한다. 이는 40리나 되는 먼 곳의 물을 이끌어서 호수를 만들었으며 폭포가 돌 틈에서 뿜으니, 이가 곧 옥천(玉泉)이다. 황제가 강남(江南)에 거동할 때나 또는 막북(漠北)에 머물 적에도 반드시 이곳을 거치며 이 샘물을 마신다 한다. 이 샘의 물맛이 천하에 첫째이므로 연경의 팔경(八景) 중에 옥천수홍(玉泉垂紅)이 그 하나라 한다. 마부 취만(翠萬)은 이미 다섯 차례나 왔고, 역졸 산이(山伊)는 두 번이나 구경하였다 하므로, 곧 돌과 서산으로 가기로 약속하였다.

20일 병인(丙寅)

개다.

새벽에는 잠깐 비가 뿌렸으나 곧 멎고 일기가 약간 서늘하다.

아침에 떠나 20여 리를 가서 덕승문(德勝門)에 이르렀다. 이 문의 제도는 조양(朝陽) · 정양(正陽) 등 아홉 문과 다름없을뿐더러 흙탕이 심하여, 만일 그 가운데에

한 번 빠진다면 솟아나기 어려우리라 생각된다. 양(羊) 수천 마리가 길에 빽빽하게 몰려드는데, 다만 몇 명의 목동(牧童)이 앞에서 이끌 뿐이다.

덕승문은 곧 원(元)의 건덕문(建德門)인데, 명(明)의 홍무(洪武) 원년(1368)에 대장군(大將軍) 서달(徐達)이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한다. 문 밖 8리 되는 곳에 토성(土城)의 옛 터가 있으니, 이는 원대에 쌓았던 것이다. 정통(正統) 14년(1449) 10월 기미에 야선(夜先 '夜'를 '也'로도 쓴다)이 상황(上皇 현존한 황제의 아버지를 말함. 당시는 명 영종(明英宗))을 모시고, 토성에 올라 통정사참의(通政司叅議) 왕복(王復)을 좌통정(左通政)으로 삼고, 중서사인(中書舍人) 조영(趙榮)을 태상시소경(太常寺少卿)으로 삼아서 상황을 토성에 나와 뵙게 하였으니 곧 이곳이었다. 그리고 《명사(明史)》를 참고하면,

“야선이 상황을 끼고 자형관(紫荊關)을 깨뜨리고 줄곧 경사(京師)를 엿볼 제 병부 상서(兵部尙書) 우겸(于謙)이 석형(石亨)과 더불어 부총병(副摠兵) 범광무(范廣武)를 거느리고 덕승문 밖에 진을 벌여 야선을 막을 제, 병부의 사무를 시랑(侍郎) 오녕(吳寧)에게 맡기고, 모든 성문을 닫고 친히 싸움을 독려하되, ‘싸움에 임하여 장수가 군졸을 돌보지 않은 채 먼저 물러서는 자 있다면, 그 장수를 벨 것이요, 군사로서 장수를 돌보지 않은 채 먼저 물러서는 자 있다면, 후대(後隊)가 전대(前隊)를 죽일 것이다’ 하고 호통쳤다. 이에 장수와 군졸들이 각기 반드시 죽을 것을 짐작하고 그 명령을 따랐다. 그리고 경신(庚申)에 적군(敵軍)이 덕승문을 엿보기에 우겸이 석형으로 하여금 빈 집 속에 군사를 매복하고는 기병 몇에게 시켜 적을 꾀었다. 이에 적이 기병 1만 명을 거느리고 와서 접근하자 복병이 일어나 야선의 아우 발라(李羅)가 포탄에 맞아 죽었다. 그런 지 닷새 만에 야선이 가끔 도전하였으나, 응하지 않았을뿐더러 또 싸워도 이롭지 못하였기 때문에 강화를 청하였으나, 마침내 뜻대로 되지 않으므로 할 수 없이 상황을 모시고 북으로 떠났다.”

하였으니, 이제 이 문 밖의 여염이나, 시전이 변화하고 화려함이 정양문 밖과 다름 없고 또 승평(昇平)한 지 날이 오래되어 이르는 곳마다 모두 그러하였다.

관(館)에서 묵었다. 역관·비장과 일행 중의 하인들이 모두 길 원편에서 대기하다가 말에서 내려 다투어 손을 잡으며 그간의 노고를 위로한다. 그러나 다만 내원이

보이지 않는다. 대개 그는 멀리 나와 맞이하기 위하여 홀로 먼저 밥을 먹고 동문으로 잘못 가버렸으므로 서로 어긋났다 한다. 창대가 장복을 보더니, 그 사이 서로 떠났던 괴로움을 말하기 전에 대뜸,

“너 별상금(別賞金) 얼마나 갖고 왔니.”

하자, 장복 역시 안부하기 전에 얼굴에 가득찬 웃음으로,

“넌, 상금이 몇냥이더냐.”

하며 반문한다. 창대는,

“천 냥이야, 의당 너와 반분해야지.”

한다. 장복은 또,

“넌, 황제를 뵈었니.”

하자, 창대는,

“뵈었고 말고. 황제 말이야, 그 눈은 호랑이, 그 코는 화롯덩이 같고, 옷을 벗은 채 발가숭이로 앉아 있는데그려.”

한다. 장복은 또,

“그의 쓴 것은 무엇이던.”

하매, 창대는,

“황금 투구를 썼지 뭐야. 그리고 나를 부르더니 커다란 잔에 술을 부어 주며, 넌 서방님을 잘 모시고 험한 길을 꺼리지 않고 왔다니, 기특도 하이 하데그려. 그리고 상사님께 일품 각로(一品閣老)요, 부사께 병부상서(兵部尙書)로 높여 주데그려.”

한다. 이는 모두 거짓말 아닌 것이 없으나 비단 장복이 이에 속았을 뿐 아니라, 하인들 중에 제법 사리를 아는 자치고도 믿지 않는 이 없었다. 변군(卞君)과 조 판사(趙判事)가 나와 환영한다. 곧 서로 이끌고 길 걸 주루(酒樓)에 올랐다. 파란 기에 옛 시 두 구를 썼다.

서로 만나 의기 높아 님과 함께 마시려니 | 相逢意氣爲君飲
 높은 다락 수양 밑에 말을 매고 오르려네³⁴ | 繫馬高樓垂柳邊

이제 수양버들에 말을 매고 높은 다락에 올라 술을 마시매, 더욱 고인의 시 읊음이 즉사(卽事)를 묘사함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 참된 뜻이 완연히 나타나 있음을 느끼곤 하였다. 이 다락은 아래위 모두 마흔 칸에 아로새긴 난간과 그림 기둥에 단청이 눈부시고 분벽(粉壁) · 사창(紗窓)이 아득히 신선이 살고 있는 곳 같았다. 그리고 그 좌우에는 고금의 법서(法書)와 명화(名畫)가 많이 진열되어 있고, 또 술자리에서 읊은 아름다운 시구가 많이 붙어 있었다. 이는 대개 조신(朝臣)들이 공무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또는 해내의 명사들이 석양(夕陽)에 모여들어 수레와 말이 구름처럼 많을 제, 술이 취한 뒤 시 읊기는 물론이요, 글씨와 그림의 고하를 논평하여 온 저녁을 뚭으면서 다투어 그 아름다운 시구와 글씨 · 그림을 남기기를 날마다 이리하였으나, 어제 남긴 것이 오늘 다 팔리곤 한다. 이런 일을 술집에서 몹시 부러워하므로 서로 다투어서 그 교의 · 탁자 · 그릇 · 골동 들을 사치하게 벌여놓을뿐더러 온갖 화초를 줄지어 놓아 시의 자료로 이바지하였으며, 좋은 먹과 아름다운 종이, 보배로운 벼루, 부드러운 붓들은 으레 그 가운데에 갖추어 있었다. 옛날 양무구(楊無咎)³⁵가 어떤 기생집에 들렀을 제, 짧은 바람벽 위에 절지매(折枝梅) 한 폭을 그려 붙였더니, 오가는 사대부들이 이를 감상하기 위하여 일부러 이 집을 찾아 들었으므로, 그 기생의 문호가 더욱 번영하였다. 그러나 그 뒤 이 그림을 도적에게 잃어버리자 찾아드는 수레와 말이 점차 적어졌다 하였고, 또 장 일인(張逸人)³⁶은 일찍이 최씨(崔氏)의 주로(酒罇)³⁷에,

34 서로 …… 오르려네 : 당시(唐詩).

35 양무구(楊無咎) : 청의 양무구(楊無咎)인 듯하나 불명.

36 장 일인(張逸人) : 이름은 미상. 일인은 은사(隱士).

37 주로(酒罇) : 술항아리. 혹은 흙을 돋우어서 술 항아리를 두는 곳.

무릉성 깊은 곳에 죄씨 집 아름다운 술 | 武陵城裏崔家酒
 이 인간에 없을 것이 하늘 위나 있었던고 | 地上應無天上有
 구름인 양 이 내 몸이 한 말 그냥 마시고서 | 雲遊道士飲一斗
 백운 깊은 저 동구에 취한 채 누웠다오 | 醉臥白雲深洞口

라는, 시 한 절을 썼으므로 손님이 더욱 많이 찾아들었다 한다. 대개 중국의 명사와 대부들은 기생집과 술집에 출입함을 혐의롭게 여기지 않았으므로, 여씨(呂氏)의 가훈(家訓)³⁸ 중에서 다방과 술집에 나들며 거니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술 마시는 것을 연하여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더할 수 없는 독음(毒飲)이었으나, 그 소위 술집이란 모두 항아리 구멍처럼 생긴 들창에 새끼로 얹은 문에 지나지 못하였으며, 흔히들 길 왼편 소각문(小角門)에 새끼로 발을 들이고 체바퀴로 등롱(燈籠)을 만들어서 단 것이 반드시 술집임을 알게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인(詩人)들의 시중에 나타난 파란 기(旗)는 모두 실상이 아니었으니, 나는 여태까지 술집 등마루에 나부끼는 깃발 하나를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술 배는 너무나 커서 반드시 커다란 사발에 술을 따라 이맛살을 찌푸리며 한꺼번에 기울이곤 한다. 이는 무작정 술을 뱃속에 따르는 것이요, 마시는 것은 아닐 것이며 배 불리기 위함이요, 취미를 돋우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한 번 술을 마시면 반드시 취하게 되고, 취하면 문득 주정을 하게 되고 주정이 나면 문득 서로 격투를 시작하여, 술집의 항아리와 사발들을 남김없이 차 깨뜨려 버린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는 소위 풍류(風流) · 문아(文雅)의 모임이라는 참된 취지가 아랑곳없을뿐더러 도리어 중국의 술 마심이야 아무런 배불릴 것이 없음을 비난하는 것이 일쑤이다. 이제 이런 술집을 압록강 동편에 옮겨 본다 하더라도 하루저녁을 참지 못하여 벌써 그 보배로운 그릇과 골동을 두들겨 깨고, 아름다운 화초를 꺾고 밟아 버릴 것이 가장 아까운 일이리라 생각된다. 그 실례 하나를 들어 보면, 이주민(李朱民)³⁹은 풍류 · 문아를 지닌 선비로서 한평생 중국을 기갈(饑渴)처럼 연모하였

38 여씨(呂氏)의 가훈(家訓) : 송의 학자 여조겸(呂祖謙)의 가훈. 가훈은 가정에서 자녀에게 훈계하는 글.

39 이주민(李朱民) : 연암의 친우. 주민은 자인 듯하나 이름은 미상.

지마는, 유독 술마심에 있어서는 중국의 옛법을 기뻐하지 않아 술잔의 대소와 술의 청탁을 해아리지 않고, 손결에 닿으면 곧 기울여 입을 벌리고 한꺼번에 따르곤 하면, 친구들은 이를 ‘복주(覆酒 술을 엎어 버린다는 뜻)’라 하여 아학(雅譏)을 삼곤 하였다. 이번 걸음에 그가 같이 오기로 되었으나, 어떤 이가,

“그는 주정을 부려서 가까이할 수 없겠어요.”

하고, 고자질하였다. 그러나 내 일찍이 그와 함께 10년 동안을 마셨으되, 얼굴에 단풍 빛 오른 적이나 입에 감거품 게워 내는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이 마실수록 더욱 암전해지고, 다만 그의 술 엎는 방법이 조금 결점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주민은 늘,

“옛날 두자미(杜子美)도 술을 엎었다오. 그의 시에 이르기를, ‘아이야, 이리 나오너라 장중배를 엎으련다[呼兒且覆掌中杯]’라고 하였으니, 이건 입을 벌리고 누워 아이들로 하여금 술을 입에다 엎는 게 아니겠어.”

하고, 증거를 댄다. 그러면 온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허리를 꺾곤 하였다. 이제 만리 타향에서 별안간 친구의 옛 일이 기억에 떠오른다. 알지 못하겠다, 주민이 이날 이 시간에 어느 집 술 자리에 앉아서 왼손으로써 잔 잡고, 다시 이 만리 타향에 노니는 나를 생각할련지.

갈 때에 들렀던 객관을 다시 찾았다. 바람벽 위에 붙었던 몇 폭의 주련(柱聯)과 좌우(座右)에 머물러 둔 생황(笙簧) · 철금(鐵金) 등이 모두 무양하였으니, 옛 시에,

병주를 바라보며 나의 고향 이곳이요⁴⁰ | 却望并州是故鄉

가 곧 이를 두고 말함이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조 주부(趙主簿) 명위(明渭)가 자기 방에 기이한 구경이 있다 하기에 나는 곧 그와 함께 가 보았다. 문 앞에 화초 십여 분(十餘盆)을 진열하였는데, 그 이름은 모두 알 수 없겠고, 흰 유리 항아리의 높이는 두 자쯤이고 침향(沈香)으로 만든 가산(假山)의 높이 역시 두 자쯤 되어보이

40 병주를……이곳이요 : 당 시인 가도(賈島)의 시구로서, 고향을 떠나 병주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또 여행을 하고 보니, 제이의 고향인 병주를 원 고향으로 여겼다는 뜻이다.

고, 석옹황(石雄黃)⁴¹으로 만든 필산(筆山 붓을 꽂는 도구의 일종)의 높이는 한 자 넘고, 또 청강석(青剛石) 필산이 있어 대추나무로 밑받침을 했는데 저절로 괴강성(魁罡星)의 무늬가 이룩되었을뿐더러 흑단(黑檀)으로 다리를 달았다. 그 값은 화은(花銀)⁴² 30냥이라 한다. 또 기서(奇書) 몇십 종이 있는데, 《지부죽재총서(知不足齋叢書 청(淸) 포정박(鮑廷博)의 편)》·《격치경원(格致鏡源 청 진원룡(陳元龍)의 저(著))》등은 모두 값이 지나치게 비쌌다.

대개 조군(趙君)은 이십여 차나 연행(燕行)을 하였으므로, 북경이 제집처럼 되었고, 또 한어(漢語)에 매우 익숙할뿐더러 물건을 매매할 때에도 심한 에누리를 하지 않는 까닭으로 단골 손님이 많아서 그가 거처하는 방에 그들을 진열하여 청상(清賞)에 이바지함이 예사이다. 연전 창성위(昌城尉)[황인점(黃仁點)이다.]가 정사로 왔을 때 건어호동(乾魚衡術)에 있는 조선관(朝鮮館)에 화재가 나서 예비했던 장사치들의 모든 물건이 모두 재가 됐는데, 조군의 방어가 더욱 심하였다. 이는 매매된 물건을 제외하고도 불에 탄 것들이 모두 희귀한 골동과 서책이어서 그 가격을 따진다면 3천냥의 거액이었으며, 그는 모두 융복사(隆福寺)나 유리창(琉璃廠) 중에서 옮겨 온 물건이다. 모든 단골 손님이 조군의 방을 빌려서 진열한 것이어서 그 보상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며, 그들은 앞에서 겪은 일을 경계하지 않고 이제 또 이 방을 빌려 진열하되, 조금도 전과 다름없게 하여 조군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에서 족히 중국 풍속이 결코 악착하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겠다.

밤에 태학관에서 묵었다. 여러 역관이 모두 내 방에 모여들었다. 약간의 주찬이 있었으나, 행역(行役)한 나머지 전혀 입맛을 잃었다. 모든 사람이 내 곁에 놓인 봉침을 흘겨보곤 한다. 아마 그 가운데에 먹을 것이나 없을까 하는 표정이다. 나는 곧 창대를 시켜 보를 끌러서 속속들이 헤쳐 보게 했으나, 아무런 다른 물건이 없고 다만 갖고 왔던 붓과 벼루가 있을 뿐, 그 두툼하게 보인 것이 모두 필담(筆談) · 난초(亂草)로 된 유람할 때의 일기(日記)에 지나지 않는다. 그제야 여러 사람이 모두 석연히 웃음을 지으며,

41 석옹황(石雄黃) : 유화물(硫化物)로 만든 광석(礦石).

42 화은(花銀) : 청에서 사용하던 은화의 일종.

“난 괴이하게 여겼어, 갈 때엔 아무런 행장이 없더니, 이제 돌아올 젠 짐이 어찌
이렇게 부풀었어.”

하고, 장복 역시 창대더러,

“별상금(別賞金)은 어디다 두었어?”

하며, 몹시 섭섭한 표정을 지었다.

경개록

경개록 서(傾蓋錄序)¹

내 사신을 따라 북으로 장성을 나서서 열하에 이르렀다. 그 땅은 본시 왕정(王庭)이 있는 곳이나 그 백성들은 되놈들과 섞여 살았으므로 이야기할 만한 자가 없었다. 이제 태학에 들어 묵게 되매 중원의 사대부들 역시 먼저 여기에 와서 묵는 이가 많았다. 이는 역시 하반(賀班)에 참례하려 온 것이다. 그들과 함께 한 관에 묵자 하니 저절로 밤낮으로 서로 만나게 되는 동시에 어차피 다 나그네의 신세로서 서로 변갈아 주객(主客)이 된 지 무릇 6일 만에 서로 헤어졌다. 옛말에 이르기를, “백두(白頭)에 처음 만났으나 마음은 새롭고 일산을 기울이자 곧 옛 친구와 같다.”²라고 하였다. 이제 한 마디 짧은 말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록하여 이 경개록(傾蓋錄)을 쓰기로 하였다.

1 경개록 서(傾蓋錄序) : ‘박영철본’에는 이 소제(小題)가 없었으나 여기에서는 ‘주설루본’을 따랐다.

2 백두(白頭)에……같다 : 《공자가어(孔子家語)》에 나오는 몇 구절.

경개록(傾蓋錄)

왕민호(王民皞)는 강소(江蘇) 사람이다. 이때 나이는 54세였고, 사람됨이 몹시 질박하여 아무런 꾸밈이 없었다. 지난해에 그가 승덕부(承德府)에 태학을 창건하는 일로 한번 연경에 갔으며, 올해 봄에 일이 끝나매 황제가 친히 석채례(釋菜禮)를 행하였다. 그는 거인(舉人)의 몸으로서 이곳에 수양하여 올해 4월 회시(會試)에 응하지 않았고, 8월 중에 황제가 7순(旬) 대경(大慶)을 맞이하자 거듭 회시를 보였으나 그는 역시 응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어째서 과거를 보려 가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나이가 들었으니까요. 백두로서 고시장에 나타난다는 건 선비로서는 부끄러운 일 이거든.”

한다. 왕군(王君)은 순후한 장자(長者)였고 호는 흑정(鵠汀)이라 한다. 따로 〈흑정 필담(鵠汀筆談)〉과 〈망양록(忘羊錄)〉을 썼다. 그의 키는 7척이 넘고, 자못 궁수(窮愁)에 싸인 태도를 숨기지 못한 채 가끔 한숨을 내뿜곤 하였다. 단지 한 종이 있어서 서로 의뢰하였을 뿐이다. 어느 날 나를 초대하여 함께 식사하였다.

학성(郝成)은 흡(歙) 안휘성(安徽省)의 지명 사람이다. 그의 자는 지정(志亭)이요, 호는 장성(長城)이다. 현재 산동도사(山東都司)로 근무중이다. 그는 비록 무인(武人)이었으나 학문이 넓고 아는 바가 많으며, 키는 8척이요, 붉은 수염과 번쩍이는 눈동자에 골상이 비범(精緊)하였다. 나와 함께 밤낮 이야기를 잇달았으나 조금도 피로한 빛을 짰지 않았다. 그의 저서는 대개 시화(詩話)로 되어 있다.

윤가전(尹嘉銓)은 직례(直隸) 박야(博野)[옛 조(趙)의 땅이다.] 사람이다. 그의 호는 형산(亨山)이라 하고, 통봉대부(通奉大夫)대리시경(大理寺卿)으로 치사(致仕)하였으니 이때 나이는 일흔이다. 올해 봄에 글을 올려 물러가기를 청하매 황제가 특히 2품(品)의 관모(官帽)와 의복을 하사하여 괴이었다. 그는 시와 글씨, 그림에 조예가 깊고, 그의 시는 정성시산(正聲詩刪) 중에 많이 실려 있다. 그가 《대청회전(大清會典)》을 편찬할 때 한림(翰林)편수관(編修官)으로 있었으며, 또 황제와 동경

(同庚 동갑)이었으므로 더욱이 괴임을 입어 특명을 받들고 행재소(行在所)에 왔을 제 희대(戲臺)에서 악곡을 듣고서 <구여송(九如頌)>을 지어 바치매 황제가 크게 기뻐하여 81종의 극본(劇本) 중에 가장 먼저 이 <구여송>을 연출하였으니 그는 황제의 시 벗이라 한다.

나에게 <구여송> 한 본을 주었으니 이미 간행된 것이다. 그리고 그는 어느 날 상자 속에서 부채 하나를 꺼내어 그 자리에서 괴석(怪石)과 총죽(叢竹)을, 그리고 위에 5절(絕) 시를 써서 내게 주고는 이어서 주련(柱聯) 한 쌍을 써 주었다. 또 어느 날 그는 양(羊) 온 마리를 짜놓고 왕 거인(王舉人)과 나를 초청하여 함께 먹게 하고 그 밖에도 온갖 옛과 과실들을 섞어 내왔다. 이는 특히 나를 위해 마련한 것이다. 그의 키는 7척이 넘고 얼굴과 자태가 아담하고도 조출(雅潔)하였으며, 두 눈동자가 맑은 채 안경을 쓰지 않고서도 가는 글씨를 잘 쓰고 그림을 잘 그렸다.

그는 몹시 건강하여 겨우 쉰 살이 넘은 듯싶으나 수염과 머리칼은 하얗게 희었으며 대체로 간솔 화락한 사람이다. 내게 연경으로 돌아가거든 반드시 서로 찾아 줄 것을 다짐하면서 그 집 있는 곳을 그려 보여 주고는 또 내게 술을 끊을 것과 여색(女色)을 멀리 할 것을 부탁한다. 내 그 뒤 연경에 돌아와 그에 대한 물의(物議)를 들어보니 모두들 그를 백부(白傅)³에게 견주었다.

그때 마침 그가 황제(皇帝)를 모시고 역주(易州)에 있어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하였으므로 끝내 서로 만나 작별하지 못하였다. 따로 그와 함께 고금의 악률(樂律)과 역대의 치란에 대한 문답이 있어서 모두 <망양록(忘羊錄)> 중에 실었다.

경순미(敬旬彌)의 자는 양루(仰漏)였고 뭉고 사람이다. 현재 강관(講官 교수(教授))으로 있으며 나이는 서른아홉이다. 키는 7척이 넘고 얼굴은 희면서 눈이 깊고 눈썹이 짙으며, 손가락은 파뿌리(葱根)처럼 되었으니 미남자라 이르지 않을 수 없겠다. 나와 옛새 동안 같이 있었으나 한번도 이야기 자리에 오는 적이 없었다. 만(滿) · 한(漢)을 논할 것이 없이 남에게 정성껏 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유독 이 사람 하나가 제법 오만한 듯싶었다.

추사(鄒舍)는 산동 사람이었으며 거인(舉人)이다. 왕혹정(王鵠汀)과 태학에서 수양

3 백부(白傅) : 당의 저명한 문학가 백거이(白居易). 부는 태자소부(太子少傅). 자는 낙천(樂天).

하는 중이다. 그때 연경에서 모임이 있어서 이곳에 머물던 선비 70명이 모두 그곳으로 떠나고, 다만 이 왕(王) · 추(鄒) 둘만 잔류하였다. 그의 사람됨이 몹시 강개하여 시휘(時諱)를 피하지 않을뿐더러 얼굴이 괴이하고 행동이 거세었으므로 남들은 그를 광생(狂生)이라 지목하여 싫어하는 이가 많았다.

기풍액(奇豐額)은 만주 사람이며, 자는 여천(麗川)이다. 현재 귀주 안찰사(貴州按察使)로 있으며 나이는 37세이다. 그는 애초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중국에 들어간 지 이미 네 대째였으나 본국에서의 문망(門望)이나 조상은 알 길이 없고, 다만 그의 본성(本姓)이 황씨(黃氏)임을 알 뿐이라 한다. 키가 8척에 얼굴이 희고 풍도(風度)가 아름다운데 곧장 위의를 잘 꾸미며, 넓은 학문에 글 잘하고 또 해학과 웃음을 잘 지었다. 불교를 몹시 배격하고 의논을 가짐이 제법 올바르긴 하나 사람됨이 교만하여 온 세상이 안중에 없다. 태학사(太學士)이시요(李侍堯)가 운남(雲南) · 귀주(貴州)의 총독(總督)이 되었을 때 귀주 안찰사해명(海明)이 2백 냥의 뇌물을 바쳤던 것이 발견되자 이시요를 가두게 되고 해명은 사형을 면하여 흑룡강(黑龍江)에 귀양살게 되었으므로 여천이 해명의 자리를 대신한 것이다. 내 우연히 그의 거처를 지나다가 누렇게 칠한 궤짝 수십 쌍을 발견하였으나 모두 아무 물건도 들어있지 않았다. 아마 만수절(萬壽節)의 공물을 다 바친 것인 듯싶었다. 나와 함께 이야기하다가 이별의 말이 나오자 문득 눈물을 흘리곤 한다. 혹자는 이르기를, ‘풍액이 화신(和珅)에게 아부하여 해명을 밀어뜨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였다’ 한다. 내 연경에 돌아와 그의 집을 찾아 귀주로 떠나는 길에 작별하였다.

왕신(汪新)의 자는 우신(又新)이었으며, 절강(浙江) 인화(仁和)에 살고 있었다. 현재 광동 안찰사(廣東按察使)로 있다가 나의 성명을 여천(麗川)에게서 듣고는 여천과 함께 찾아온 것이다. 여천의 자리에서 서로 만나 한번 보자 곧 마음을 기울여 옛 친구와 다름없게 되었다. 그의 키는 7척이 넘고, 성긴 수염에 얼굴빛이 검으면서 더러워 별다른 위의는 없었으나 성격이 진솔 그대로 아무런 꾸밈이 없었다. 나와 같은 해, 같은 달에 났으나 나보다는 열 하루 뒤졌을 뿐이다. 나는 그에게, “오서림(吳西林) 영방(穎芳)이 무양(無恙)하신지요?”
하고 물었더니, 그는,

“오서림 선생께선 오중(吳中)의 고사(高士)입니다. 나이 80입니다마는 오히려 건강하셔서 저서를 쉬지 않는답니다.”

한다. 나는 또,

“육조음(陸篠飲)⁴ 비(飛) 그분도 무양하시지요.”

하였더니, 그는 놀라는 어조로,

“알지 못하겠노라. 존형(尊兄)께서 오(吳) · 육(陸)을 어떻게 아시는지요.”

한다. 나는,

“조음 말씀이세요. 그가 건륭 병술년(1766) 봄에 과거 보러 연경에 머물렀을 때 우리나라 어떤 선비(洪大容)을 가리킵니다. 그를 여저(旅邸)에서 만난 일이 있어서 그의 시문과 서화가 동한(東韓)에 많이 회자(瞻炙)되고 있답니다.”

하였다. 그는,

“조음이야 말로 기이한 선비지요. 올해 회갑(回甲)이에요. 그는 강호에 불우한 채 쓸쓸히 시와 그림으로 생명을 삼고, 산수로 벗을 삼을뿐더러 술마시어 크게 취한다면 광가(狂歌) · 분매(噴罵)를 일삼는답니다.”

한다. 나는,

“무엇에 분개하여 타매(唾罵)를 한답니까?”

하였더니, 그는 대답을 회피하기에, 나는 또,

“그럼, 엄구봉(嚴九峯)⁵ 과(果) 그 분은 어떻게 되었는지요.”

하고 물었다. 그는,

“내 시골을 떠난 지 오래되어서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육(陸)은 저의 지극히 친한 벗이었으며 모두들 그를 유헤원(陸解元)이라 부르죠. 그리고 그를 당백호(唐伯虎)⁶와 서문장(徐文長)⁷에게 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호(西湖)를 떠나지 않은 지 서른 해에 부귀가 극치에 달하였답니다. 그리고 저는 시골을 떠난 지 10년 만에 다만 바람결에 그의 소식을 들었으나 그는 차와 술

4 육조음(陸篠飲) 비(飛) : 조음은 호요, 비는 이름. 자는 해원(解元).

5 엄구봉(嚴九峯) 과(果) : 구봉은 호요, 과는 이름.

6 당백호(唐伯虎) : 명의 저명한 문학가 당인(唐寅). 백호는 자요, 또는 자장(子張). 호는 육여(六如).

7 서문장(徐文長) : 역시 명의 저명한 문학가 서위(徐渭). 문장은 자요, 또는 천지(天池).

에 취미를 붙였으며, 대체로 뜻을 얻은 사람이어서 저처럼 풍진 속에 골몰하진 않을 것입니다.”

한다. 그리고 그는 이를 뒤에 다시 와서 미진한 기쁨을 다하기로 다짐한다. 여천이 왕(汪)에게,

“박공(朴公)께서 술을 좋아하시니 모름지기 야자주(椰子酒)를 사시우.”

한다. 그는 머리를 끄덕인다. 여천이 또,

“연암(燕巖)께서 성격이 양(羊)을 좋아하질 않구 낙화생(落花生)을 즐기시던구먼.”

한다. 그는 또 머리를 끄덕인다. 그제야 문에 나가 그를 보낸다. 여천이 나를 돌아보며,

“이야말로 해량(海量)이여유.”

한다. 이는 주량(酒量)이 많음을 이름이다. 이튿날 왕이 하인을 보내어,

“내일은 다른 곳에 가지 마시고 꼭 기다려 주십시오.”

하며, 거듭 부탁하였으나, 이튿날 갑자기 연경으로 떠나게 되어서 그와 다시 만나 보기 못하였다.

파로회회도(破老回回圖)는 몽고 사람이었고, 자는 부재(孚齋)였으며, 아호는 화정(華亭)이다. 현재 강관(講官)으로 있으며 나이는 47세이다. 그는 강희 황제의 외손(外孫)이다. 키가 8척에 긴 수염이 심히 성하였고, 얼굴이 여원데다가 누르고 바싹 말랐으며, 그의 학문은 깊고도 넓었다.

내 그를 주루(酒樓)에서 처음 만났는데 사람됨이 제법 점잖았으며 모신 하인(下人) 30여 명의 그 의모(衣帽) · 안마(鞍馬) 차림이 호화 찬란한 것을 보아서 그가 병관(兵官)을 겸한 것인 듯싶고 그의 얼굴 역시 장군(將軍)처럼 생겼었다.

호삼다(胡三多)는 승덕부(承德府) 민가(民家)[한인(漢人)을 민가라 한다.]의 작은 아이다. 날마다 아침 일찍 책을 끼고 와서 왕혹정(王鵠汀)에게 글을 배운다. 나이는 방금 열두 살이지만 얼굴이 맑고 빼어나 조금도 속기(俗氣)가 없을뿐더러 예절에 익숙하고 거동이 조용하였다. 부사가 그에게 명하여 복숭아를 두고 시를 짓게 하였더니 운(韻)을 청하여 그 자리에서 지었는데 문장과 이치가 함께 원만하여 븐 두 자루를 상 탔다. 그가 또 운을 청하여 즉석에서 읊어 감사한 뜻을 표하였다. 어

느 날 사신이 모두 일찍 조반에 들어가고 방이 빈 채 나 혼자서 남아 있게 되었다.
삼다가 와서 이야기하였다. 내 마침 망건(網巾)을 벗고 누웠을 제 삼다가 망건을
갖고 상세히 들여다보고서 심히 번거롭게 파고 묻기에, 나는,

“한 개의 되놈도 오히려 많거늘 하물며 셋일까보냐.”⁸

하고, 농담을 걸었다. 삼다는 곧,

“한 땅덩이에 두 임금이 없사온데 어째서 일소(一少)라 하였답니까.”

하고, 응구 대첩한다. 이는 대개 왕일소(王逸少 王羲之)의 자(字)를 이름이었다. 중국 사람들은 글자의 음(音)이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글자로 멋대로 쓰곤 한다. 이는 비록 말이 유창하진 못하나 재치 빠르고도 숙성하지 않다고는 이를 수 없으리라. 엄청나게 큰 통관박보수(朴寶樹)의 노새가 달음질쳐 마당 가운데서 뛰노는 것을 보고 삼다가 재빨리 나가 그 턱의 목살을 쥐고 가니 노새가 머리를 숙인 채 굴레를 순하게 받는다. 또 어느 날 정사가 창을 비껴 앉았을 제 삼다가 그 앞을 지나치기며 정사가 그를 불러 환약과 부채를 주었더니 삼다가 절하고 사례하면서 이내 정사의 성명과 관품을 물었다. 그 당돌함이 이러하였다.

조수선(曹秀先)은 강서(江西) 신건(新建) 사람으로 자는 지산(地山)이다. 현재 예부 상서(禮部尙書)이고, 나이는 60세 남짓 되었다. 어제 내가 사신의 뒤를 따라 그를 조방(朝房)에서 만났고, 다음날 내가 우연히 한 곳 새로 창건한 관후묘(關侯廟)에 들렀더니 그 동무(東廡)에 한 학구(學究)가 네댓 명 동자들을 가르치고 있기에 나는 그에게,

“이곳이 넓고도 통창하니 경대부(卿大夫) 몇 분이나 와 있는지요.”

하고 물었더니, 그 학구는,

“현재 예부 조대인(曹大人)께서 이곳에 계시답니다.”

한다. 내가 그에게 종이와 먹을 빌려 명함을 써서 통자(通刺)하였다. 학구는 곧 일어나 재빨리 가 버린다. 나는 그곳을 향하여 멀리 바라보고 있었다. 그 학구가 섬돌 위에 나서서 손을 들어 나를 부르기에 나는 섬돌 밑에 이르렀다. 조공(曹公)이 벌써 문 밖에 나와 서로 맞이할 제 손수 나를 이끌어 교의 위에 앉힌다. 나는 머뭇

8 한 개의……셋일까보냐 : 호삼다(胡三多)의 세 글자 풀이.

거리며 굳이 사양하였으나 그 역시 굳이 앉기를 청한다. 나는,

“공(公)은 귀인이시오니 먼 나라에 사는 제가 감히 주객(主客)의 예를 차리겠사옵니까.”

하였다. 그는,

“당신은 공사(公事)로 이곳에 오신 거요.”

하기에, 나는,

“아니올시다. 상국(上國)에 관광(觀光)하러 온 것이올시다.”

하였다. 그는 또,

“그럼 벼슬은 몇 품이나 되시오.”

한다. 나는,

“전 수재(秀才)입니다. 사신의 뒤를 따라왔을 뿐 아무런 직책은 없답니다.”

하였더니, 그는 황망히 나를 이끌어 앉히면서,

“아무런 직책이 없으시다면 선생은 곧 나의 존빈(尊賓)이고, 제대로 접대해 드릴 예식이 있으니 선생은 굳이 사양하지 마시오.”

하고는, 이내,

“귀국의 선거(選舉) 제도는 어떠하죠. 대비(大比)⁹에 몇 명이나 뽑으며 시험에는 어떤 식의 문제로써 하시는지요.”

하고 묻는다. 그는 바야흐로 과제(科題)를 쓰는 모양이다. 그는 스스로 안경을 끄 집어 내어 한편으로는 귀에 걸며, 한편으로는 재빨리 쓰곤 한다. 얼마 아니되어 30여 명이 별안간 들어와서 일자(一字)로 늘어서더니 그 중 이마가 번쩍번쩍하는 한 사람이 한편 무릎을 꿇고서 일을 여쭙는데 극도로 공손하여 그 와서의 거리가 30여 보나 되었으나 말할 때에는 반드시 손으로써 입을 가리곤 한다. 그러나 조(曹)는 아랑곳하지 않고 재빨리 필담(筆談)을 쓰면서 그의 여쭙는 일을 수용하는 것이었다. 이마 번쩍이는 자가 잠깐 일어났다가 다시 앉아서 여쭙기를 끝내고는 스스로 교의 하나를 이끌어 멀리 동쪽 바람벽 밑에 앉는다. 그리고 그 늘어섰던 자

9 대비(大比) : 3년 만에 한 차례씩 보이는 과시. 곧 식년시(式年試). 뒤에는 흔히들 향시(鄉試)를 대비라 하였다.

들도 일시에 물리가고 얼마 아니되어 일을 여쭙던 자 역시 하직 인사없이 일어서 가 버린다. 온 집이 다시 사람 없는 듯이 괴괴하였다. 나는 그때 조와 마주 앉았었고, 그 학구는 한쪽 편에 앉았는데, 그의 나이는 50세 남짓하고 머리에는 풀모자 를 썼으며 필담을 들여다본다. 별안간 한 사람이 명함을 드리는데 첫 머리에 신수 호남(新授湖南)이라는 네 글자가 보이고 그 밑 몇 글자는 소매에 가렸고 끝에는 어 사윤적(御史尹績)의 넉 자였다. 조가 붓을 던지고 일어나 재빨리 문을 나간다. 학구가 나를 이끌되 마치 잠깐 피해 달라는 시늉이다. 나는 학구를 따라 나와서 다시 아까 들었던 방에서 기다렸다. 윤적(尹績)이 조와 함께 들어가더니 얼마 아니되어 윤적은 앞에 서고 조는 뒤를 따라 나가기에 나는 마음속으로 손님 떠나보낸 뒤에는 의당 돌아와 나와 조용히 이야기하겠지 하고는 오래도록 기다렸으나 돌아오지 않는다. 괴이하여 학구더러 물으니 벌써 대궐에 들어간 것이다. 조의 얼굴은 늙고도 더러워서 아무런 위의가 엿보이지 않으나 사람됨이 개제(愷悌)하고 평화로웠다. 내 연경에 돌아온 뒤에 중국의 사대부가 많이들 조공(曹公)을 두고, “지산선생(地山先生)의 문장과 학문이야말로 당세에 으뜸이시지.”

하고 기리면서, 또 그를 구양영숙(歐陽永叔)¹⁰에게 견주기도 한다. 그리고 장정옥(張廷玉)¹¹이 《명사(明史)》를 엮을 때에 조가 역시 사국(史局)에 참여하였으니, 그는 대개 묵은 인물이었던 것이다. 그 뒤에 다시 관묘(關廟)에 들렀으나 그 학구도 어 디론지 가 버렸다. 학구의 성명은 잊어버려서 이에 기록하지 못하겠으나 대개 한인(漢人)이었으며, 글이 짧아서 겨우 필담을 하긴 하나 오래도록 들여다보고 연구한 뒤에서야 무슨 말인 줄을 알 정도였다.

왕삼빈(王三賓)은 복건 사람으로 나이는 스물다섯이다. 그는 윤형산(尹亨山)의 구종이거나 또는 기력천(奇麗川)의 하인인 듯싶다. 글을 잘 알며 그림에도 명수이다.

10 구양영숙(歐陽永叔) : 송의 저명한 문학가 구양수(歐陽脩). 구양은 성이요, 영숙은 자.

11 장정옥(張廷玉) : 청의 사학가. 명사의 편찬 사업을 맡은 대표자.

심세편

심세편(審勢編)¹

나는 생각하기를,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중국에 노는 이로, 다섯 가지 허망(虛妄)된 일이 있다. 지별(地闕)로 서로 뽑내는 것은 애초에 우리나라의 더러운 관습이므로, 유식한 이가 국내에 있을 때에도, 오히려 양반(兩班) 이야기를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하물며 외국의 토성(土姓)으로서 도리어 중국의 오래된 종족을 깔보려 하니, 이는 첫째의 허망이다. 중국의 붉은 모자나 이상한 소매는 비단 한족이 부끄러워 할 뿐이 아니라, 만인들 역시 부끄러워하는 바이다. 그러나 그들의 예속(禮俗)이나 문물(文物)은 사이(四夷) 중에서 오히려 당할 자 없음은 사실이다. 그리하여 그들과 조금도 벼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한 줌만큼 작은 상투 하나로써 스스로 천하에 뽑내려 하니, 이는 둘째의 허망이다. 옛날, 월정(月汀) 윤공(尹公) 근수(根壽)²가 명(明)에 사신갔다가 길에서 어사(御史) 왕도곤(汪道昆)³을 만나, 길가에 피해서 숨을 죽이고 그의 행진(行塵)을 바라본 것만으로써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였다더니, 이제 중국이 비록 변하여 오랑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천자의 칭호는 오히려 고쳐지지 않은 만큼, 그들 각부(閣部)의 대신들은 곧 천자의 공경(公卿)인 동시에, 반드시 옛날이라 해서 더 높다든지, 또는 이제라고 해서 더 깎이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신들은 제대로 관장(官長)을 뵈는 예식은 두고도, 그들의 조정에서 절하고 읍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여, 문득 모면하기를 일삼아서 이것이 드디어 하나의 규례가 이룩되었으며, 설혹 그들을 만나면 대체로 거만한 것으로써 고상한 취미를 삼고 공손한 것은 욕이라 생각하는 모양이니, 그들이 비록 이에 대하여 가혹하게 추궁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어찌 우리쪽의 무례함을 우습게 여기지 않겠는가. 이는 셋째 허망이다. 우리나라 사람은 문자(文字)를 안 뒤로부터 중국의 것을 빌려 읽지 않는 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 역대

1 심세편(審勢編) : 이 편은 여러 본에 모두 〈망양록(忘羊錄)〉 및 〈혹정필담(鶴汀筆譚)〉 위에 있었으나 이제 연암의 본편 중에 말한 바에 의하여 이곳에 옮겼다.

2 월정(月汀) 윤공(尹公) 근수(根壽) : 조선 선조(宣祖) 때 명신. 월정은 호요. 근수는 이름. 자는 자고(子固).

3 왕도곤(汪道昆) : 명 세종(明世宗) 때 명신. 도곤은 이름이요, 자는 백옥(伯玉).

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치고 어느 것이나 꿈 가운데 꿈을 점침이 아닌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공령(功令)의 남은 기습(氣習)으로써 억지로 운치(韻致) 없는 시문을 쓰면서, 별안간 ‘중국에는 문장이 없더구먼’ 하고 헐뜯으니, 이는 넷째 허망이다. 중국의 선비들은 강희(康熙) 이전에는 모두 명(明)의 유민이었으나, 강희 이후에는 곧 청실(淸室)의 신하와 백성임이 틀림없는 만큼, 실로 그 정부에 충성을 다하여 법률을 존중하되, 보통 때에 언론이라도 외국 사람들에게 그 정부를 반대하는 말을 세운다면, 이들은 곧 이 세상의 난신(亂臣)이요, 적자(賊子)임은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은 한번 중국의 선비를 만난 때에, 그들이 그 임금의 은택을 자랑함을 보고는, 정반대로 문득 ‘일부(一部)의 《춘추(春秋)》를 이제야 읽을 곳이 어디 있겠어’ 하고는, 말마다 연(燕) · 조(趙)의 저자에 옛날과 같은 강개(慷慨)한 선비가 없음⁴을 탄식하니, 이는 다섯째의 허망이다.

그리고, 중국의 선비들은 세 가지 남보다 어려운 것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들은 한번 거인(舉人)이 되면 경(經) · 사(史)의 전체에 대한 가지가지의 변증(辨證)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백가(百家) · 구류(九流)⁵에 이르기까지라도 그 원류(原流)는 대략 섭렵해서 물음에 막힘이 없나니, 그렇지 않으면 죽히 선비가 될 수 없는 까닭이니, 이것이 첫째의 어려움이었고, 그들의 인간적인 면은 생각이 너그럽고 행동이 속되지 않으며, 예법에 익숙하여 아름다운 얼굴에다 교만한 태도를 나타내지 않으며, 게다가 몸을 낮추어 가면서 남을 받아들이어 대국의 체면을 잃지 않으니, 이것이 둘째의 어려움이었고,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먼 일이나 가까운 일이나를 막론하고 법을 두려워하지 않음이 없으니, 법을 두려워하므로 벼슬에 조심하고, 벼슬에 조심하므로 제도가 한결같으며, 사민(四民)이 각기 업(業)을 나누어서 자치에 힘쓰지 않는 자가 없게 되니, 이것이 셋째의 어려움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와 같은 다섯 가지의 허망을 가진 것은实로 중국 사람이 저희들끼리 멸시함에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나 그들끼리의 멸시하는 내용을 따진다면 이 역시 중국의 과오는 아닐뿐더러, 그들이 애초부터 지니고 있는 세

4 연(燕)……없음 : 전국 때에 연(燕) · 조(趙)에는 나라를 잃고 비분강개하는 이가 많았다.

5 백가(百家) · 구류(九流) : 춘추 전국 시대 전후에 유행되던 여러 학파.

가지의 어려움은 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결코 멀시하지 못할 일이다. 옛날 진경지(陳慶之) 남북조 때 양(梁)의 명장)가 위(魏)로부터 남쪽으로 돌아온 뒤에 북방 사람들을 매우 존중하게 여기기에, 주이(朱翼 남북조 때 양의 학자)가 괴이하게 여겨서 물었더니, 경지는,

“진(晉) · 송(宋) 이후로 낙양을 황무한 지역(地域)으로 본 것은 곧, 장강 이북이 모두 이적(夷狄)이 되었다고 생각하였으나, 이제 낙양에 이르러, 비로소 예법을 갖춘 사족들이 모두 중원에 있으니 예의의 풍부하고 인물들이 변영하며, 듣고 본 것을 이루 다 전할 수 없겠어.”

하고 답하였으니, 이로 미루어 본다면 망양(望洋)의 탄식⁶을 금하지 못함은, 지금이나 예나 마찬가지임을 새삼스레 깨달았다. 내가 열하에 있을 동안에 중국의 사대부들과 접촉이 자못 많았었다.

그리하여 보통 때 서로 이야기하는 중에서도, 날마다 전일에 알지 못하던 바를 안 것이 꽤 많았다. 그러나 시정(時政)의 잘잘못이나 또는 민정(民情)의 향배에 대하여는 비록 알려고 애써도 방법이 없었다. 옛글에 말하기를,

“그 나라의 예법을 살펴보고는, 그들의 정치를 알 것이며, 그 나라의 음악을 듣고는, 그들의 도덕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진리는 백세를 지난 뒤에 백세 이전의 왕(王)을 비교해 보더라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⁷

하였으니, 이에 벌써 자공(子貢)⁸의 기술과 계찰(季札)의 슬기가 없은즉, 비록 여러 가지의 악기(樂器)와 춤추는 도구가 날마다 앞에 벌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정치와 도덕이 나온 근본을 알 방법이 없을 것인데, 하물며 먼 옛날의 음률을 범론(泛論)해서 어찌 그 당시 정치의 고하를 알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너절하고도 번잡한 혐의를 해아리지 않고 짐짓 이러한 사리에 닿지 않고 막연한 질문을 하는 것은 무슨 이유냐 하면, 대개 중국 선비들의 천성은 과장을 좋아하고 학문에 해박함을 귀하게 여겨서, 그들의 이론은 경(經) · 사(史)에 드나들며 파리채를

6 망양(望洋)의 탄식 : 해약(海若)이라는 물귀신이 바다의 넓음을 바라보고 탄식하였다는 《남화경》에 나오는 말.

7 그 나라의……것이다 : 《맹자(孟子)》에 나오는 말.

8 자공(子貢) : 전국 때 오(吳)의 협인(賢人).

휘두르고 바람을 내었으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첫째 말씨가 아름답지 못한데다가 또한 질문에 급해서 대뜸 시국에 관한 일을 이야기하려 들며, 또는 스스로 옛 의관의 차림을 자랑하여 그들이 부끄러워하는가 또는 부끄러워하지 않는가를 살필 뿐이었고, 혹은 대뜸 만나면,

“당신들은 민족적인 사상(思想)을 지녔느냐?”

고 물어서, 그들로 하여금 말문이 막히게 하니, 이런 일들은 비단 저희들만이 싫어 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실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의 환심을 사려면, 반드시 대국의 명성(名聲)과 교화(教化)가 격려함을 극히 칭찬하여, 먼저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며, 또 중국과 우리들과의 사이가 일체가 되었는 듯이 하여, 그 혐의쩍은 것을 피하되, 한편으로는 그들의 예악(禮樂)에 뜻을 붙이며, 그 전아(典雅)함을 송배하는 듯이 할 것이요, 또 한편으로는 역대의 역사를 들출지 인정, 최근의 일에는 언급하지 말 것이다. 그리고 뜻을 공손히 하여 배우기를 원하되, 그로 하여금 마음 놓고 이야기할 기회를 주고는, 거짓으로 모르는 척하여 그의 마음을 울적하게 하여 본다면, 그의 미첩(眉睫) 사이에는 진실인지 허위인지가 저절로 나타날 것이며, 보통 웃고 지껄이는 사이에 그의 정실을 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내가 그 영향을 문자(文字)의 밖에서 얻은 것이리라.

아아, 슬프도다. 중국의 유학은 점차 줄어듦에 따라서 온 천하의 학문이 한 갈래로 나오지 않게 되어, 주(朱 주희(朱熹)) · 육(陸)⁹의 나눔이 벌써 수백 년이 되어 서로 협뜯으며 미워하기를 원수와 같더니, 명(明)의 말기에 이르러서 천하의 학자가 모두 주자를 송배하였으므로, 육씨(陸氏)를 따르는 이가 드물게 되었다. 그러다가 청(淸)이 중국의 주인이 되자, 가만히 학술(學術)의 종주(宗主)가 있는 곳과, 또 당시 그를 따르는 수효가 많고 적음을 살펴서 많은 편을 죽어 힘껏 송배하여, 주자를 십칠(十哲)의 동렬에 올려 모시고는 천하에 외치기를,

“주자의 도덕은 곧 우리 제실(帝室)의 가학(家學)이야.”

하매, 천하 사람들 중에는 이에 만족하여 열복(悅服)하는 이도 있거니와, 또는 이를 가장하여 출세의 길을 바라는 자도 없지 않았다. 그러니 이른바 육씨의 학문

9 육(陸) : 송의 학자 육구연(陸九淵). 자는 자정(子靜)이고, 호는 상산(象山).

은 거의 끊어지고 말았다.

아아, 슬프도다. 그들이 어찌 주자의 학문을 알아서 그 올바른 것을 터득하였으리오. 이는 곧 천자의 높은 지위로서 거짓 숭배하였음이니, 이는 그 뜻이 한갓 중국의 대세를 살펴서 재빨리 남보다 먼저 이를 차지하여, 온 천하 사람의 입을 재갈먹여서 감히 자기들에게 오랑캐라는 이름을 씌우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다.

어째서 그런 줄 알았는가 하면, 일찍이 중국을 높이며 오랑캐를 배격하였음을 보고서 재빨리 논문(論文)을 써서 송 고종(宋高宗 조구(趙構))이 《춘추(春秋)》의 정의를 알지 못하였음을 배격하였으며, 진회(秦檜)¹⁰가 강화를 주장한 죄악을 성토하였고, 주자가 모든 글에 집주(集注 유학 경전의 주석)하였다던 것을 보고는, 곧 천하의 선비를 모아서 천하의 글을 증집하여 《도서집성(圖書集成)》·《사고전서(四庫全書)》 등을 만들고는 온 천하 사람들에게,

“이는 곧 주자의 말씀이며 또는 주자의 끼치신 종지(宗旨)들이야.”

하고 외쳤다. 그가 걸핏하면 주자를 드높이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천하 사대부의 목덜미를 걸터타고는 그들의 목구멍을 조른 채 그 등마루를 어루만지면, 천하의 사대부들은 모두들 그 위협과 어리석게 하는 술법에 휩쓸리어, 구구(區區)하게 예문이나 제도의 가운데에 눌어붙어서 스스로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어떤 이가 말하기를,

“청인(清人)이 별씨 중국의 예문을 승상하면서도 이내 만주의 옛 풍속을 변경하지 않음은 무슨 이유인가.”

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어어, 이것만으로도 그들의 뜻을 알 수 있지 않아.”

하고 답한다. 그러나 그들은,

“나는 결코 천하의 이권(利權)을 사랑함이 아니야. 나는 오로지 명실(明室)만을 위하여 커다란 원수를 갚으며 커다란 치욕을 씻어 주려고 함이야. 그리고 천하에는 오랫동안 텅 비어 있는 이치가 없을 것인즉, 나는 천하를 위해서 중국을 지키다가 중국의 주인이 생긴다면 모든 것을 겨두어 가지고 동쪽으로 돌아갈 것이야. 그러

10 진회(秦檜) : 송말의 매국적(賣國賊). 회는 이름.

므로 나는 감히 우리 조상의 옛 제도를 고치지 못하는 거야.”

하고 변명할 것이요, 또 어떤 이가 말하기를,

“저들이 자기의 옛 습속을 그대로 가진다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겠지만, 어째서 천하를 휩쓸어서 억지로 그들의 법을 따르게 하는 거야.”

한다면, 어떤 이는,

“그럼 이것만으로도 그들의 뜻을 알 수 있잖아.”

하고는 답한다. 그러나 그들은,

“대개, 제왕(帝王)이란 문자(文字)라든가 수레의 궤도(軌道)라든가 모든 제도를 통일할 따름인만큼, 청(淸)의 신하가 된 자는 마땅히 시왕(時王)의 제도를 따를 것이요, 청의 신하가 되지 않는 자라면 시왕의 제도를 따르지 않으면 그만이야.”

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동남 지방은 어디보다도 개명을 하여, 반드시 온 천하 중에 그들이 먼저 일을 일으킬 걱정이 있을뿐더러, 그들의 성격은 경조하고도 부박하여 이론을 좋아하므로, 강희 황제가 강소 · 절강 지방에 여섯 차례나 순행하여 기만히 모든 호걸의 사상을 눌렀으며, 지금 황제는 그 뒤를 밟아서 다섯 차례나 순행하였고, 천하의 큰 걱정은 늘 북쪽 오랑캐에게 있으므로 그들을 항복받은 뒤에도 강희 황제가 열하에다가 행궁(行宮)을 세우며, 몽고의 강력한 군대를 이에 주둔시켜 놓으니, 이는 실로 중국의 군사를 괴롭히지 않고도 호(胡)로써 호를 방비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군비(軍費)는 생략되나 국방은 굳센 것이므로 황제가 친히 통솔하여 지키고 있는 것이며, 서번(西藩)이 비록 강한(強悍)하나 다만 황교(黃敎)를 몹시 두려워함을 보고는, 황제는 곧 풍속을 따라서 몸소 스스로 그 교를 믿어서, 그 법사(法師)를 모셔다가 집을 찬란하게 꾸며서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는, 게다가 명목만 ‘왕(王)’이라 빌려 주어서 그의 세력을 조개었으니, 이는 곧 청인(淸人)이 사방을 제어하는 교묘한 방법이다.

그리고 그들은 다만 중국에 대하여 마치 무관심한 듯싶으나 역시 그런 것은 아니다. 대개 그는, 온 천하의 세민(細民)들이야 그들에게 세금(稅金)만 협하게 해 준다면 곧 안정될지니, 그렇다면 그들은 도리어 우리의 병거지와 의복의 제도를 편리

하게 여겨서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다만 천하 사대부의 사상을 억누를 방법이 없는 만큼 고식적으로나마 주자의 학문을 높여서, 허랑한 선비들의 마음을 크게 위안시킨다면, 그들 중에 호걸은 감히 노여워할지언정 말은 할 수 없을 것이며, 그 중 야비하고 아유하는 자는 시체(時諦)를 따라서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꾀할 것이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불언 중에 중국 선비의 사상을 약체화시키고,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문화인의 대우를 받게 하되, 저 진(秦)의 간유(坑儒)와 같은 행위를 취하지 않고도, 그들의 선비는 문자 교정하는 사무에 골몰하게 하며, 진의 분서(焚書)와 같은 정책을 떠나서도 그들의 서적은 실제적으로는 취진국(聚珍局)에서 흘어지게 된 셈이다.[건륭은 《사고전서(四庫全書)》의 책판을 가리켜 취진판(聚珍板)이라 하였다.] 아아, 슬프도다. 이는 곧, 이른바 구서(購書)의 재앙(災殃)이 분서에 비해서 심하다¹¹는 말은, 이를 말함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중국 선비들은 가끔 주자 반박하기에 조금도 거리낌없는 모기령(毛奇齡)에 대해서도 어떤 이는 그를 ‘주자의 충신’이라 하고, 혹은 그는 ‘위도(衛道)의 공이 있다’ 하고, 또는 ‘은가(恩家)를 도리어 원망함이다’ 했으니, 이런 것들을 보아서도 족히 그들의 미의를 짐작할 것이다. 아아, 주자의 도덕은 마치 해가 중천에 떠오른 것과 마찬가지여서 세계 만국(萬國)이 모두 우러러보는 바이거늘, 저 황제가 사사로이 송배했다 한들 주자에게는 아무런 누가 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선비들이 이다지 부끄러워하는 것은, 대개 그들이 거짓 높여서 세인을 억누르려 하는 자구(資具)로 쓰는 데에 격분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가끔 한두 가지 집주(集注)의 그릇된 곳을 빙자하여, 백년 동안의 번민하고 원통한 기운을 씻으려는 것인즉, 이로써 가히 지금의 주자를 반박하는 자는, 실제로 옛날 육씨(陸氏)의 학문을 하는 이와는 차별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뜻을 짐작하지도 못하고, 잠깐 중국 선비를 접견할 때에, 대수롭지 않는 말이라도 약간만 주자에 관계된다면, 곧 깜짝 놀라서, 문득 그들을 상산(象山 육구연(陸九淵)의 호)의 무리라고 배격하고는, 돌아와 국내의 사람들에게 이르되,

“어어, 중국에는 육학(陸學)이 한창 성하여 사곡한 학설이 쉴 날이 없더구먼.”

11 구서(購書)의……심하다 : 모기령(毛奇齡)의 말인 듯하다.

한다. 그러면 듣는 이 역시 이에 대한 시말도 연구해 보지 않은 채 이런 말들을 듣자 마음에는 노여움이 먼저 생기고 만다. 아아, 슬프도다. 사문난적(斯文亂賊)의 성토는 비록 먼 중국에까지 미치지는 않을지라도, 이단(異端)을 용납한 과오는 실제로 사람에게 용서받기가 어려운 것이다.

엄계(罨溪)¹² 꽃나무 아래에서 술을 조금 마시고 <망양록(忘羊錄)>과 <혹정필담(鵠汀筆談)>을 교열(校閱)하여 차례를 정하다가, 이내 봉을 꽂이슬에 풀어서 이 의례(義例)를 만들어 뒷날 중국에 놀러가는 이로 하여금, 그들 중에서 터놓고 주자를 반박하는 이를 만나거든, 그가 반드시 비상한 선배인 줄 알고, 부질없이 이단이라고 해서 배척하지 말며, 말을 잘하여 점차로 그 속까지 스며든다면, 아마 이로 인하여 천하의 대세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12 엄계(罨溪) : 연암서당(燕巖書堂) 앞에 있는 시내 이름.

망양록

망양록 서(忘羊錄序)¹

아침에 윤헝산(尹亨山)가전(嘉銓)과 왕혹정(王鵠汀)민호(民皞)를 따라서 수업재(修業齋)²에 들어가 악기(樂器)를 훑어보고 돌아오다가 형산의 처소에 들렀더니 윤공은 양을 통째로 쪄 놓았는데, 이것은 오로지 나를 위해서 차린 것이다. 바야흐로 악률(樂律)이 고금에 같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느라고 음식 차려 놓은 지가 오래지만 서로 먹으라 권하지 못했는데, 얼마 있다가 윤공이 양을 아직 쪄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심부름하는 자가 대답하기를, 차려 놓은 것이 벌써 식었다고 하므로, 윤공은 자기가 정신을 못 차리고 두서가 없었다고 사과한다. 나는,

“옛날, 공자는 소(韶)를 듣노라고 고기맛을 잊었다³더니, 이제 나는 대아(大雅)⁴의 이야기를 듣다가 양 온 마리를 잊었습니다.”

했더니, 윤공은,

“이른바 장(藏)과 곡(穀)이 모두 양을 잊었다⁵는 것이 올시다.”

하여, 서로 크게 웃었다. 이에 그 필담(筆談)한 것을 모아서 망양록(忘羊錄)이라 이름한다.

1 망양록 서(忘羊錄序) : '박영철본'에는 이 소제(小題)가 없으나, '주설루본'을 따라서 추록하였다.

2 수업재(修業齋) : 열하 태학 명륜당의 오른편에 있는 집 이름.

3 공자는……잊었다 : 《논어(論語)》에 나오는 구절. 소(韶)는 순(舜) 때의 음악 이름.

4 대아(大雅) : 형산을 가리켜서 광달(宏達)하고도 아정(雅正)한 학자라는 뜻. 이는 대개 학자들이 서로 상대방을 높여서 하는 말.

5 장(藏)과……잊었다 : 《남화경(南華經)》에 나오는 말로 '장과 곡 두 사람이 양을 치는데, 장은 글을 읽고 곡은 노름을 하다가 둘이 다 양을 잊었다' 하였다.

망양록(忘羊錄)

나는,

“오음(五音)으로 정명(正名)을 삼고 육률(六律)로 혀위(虛位)를 삼아, 소리가 날 적에 헤아려서 맞는 소리를 율(律)이라 하고 맞지 않는 것을 율이 아니라고 한다면, 마땅히 고금에 다름이 없을 것이요, 아악(雅樂)과 속악(俗樂)의 구별이 없을 터인데, 시대마다 각각 음악과 풍아(風雅)가 변천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혹시 악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고금의 다름이 있어 소리와 율이 여기에 따라 변하는 것인가요?”

했더니, 혹정은,

“아닙니다. 저는 이 학문에 본래 어둡습니다만, 그래도 한두 가지의 의견은 없지 않아서, 항상 학문이 올바른 군자에게 한 번 시정을 받고자 하던 터입니다. 소리는 목구멍과 혀와 입술과 이로부터 나와서 그 형상이 각각 다르고 보니 악기의 음도 또한 따라서 다르므로, 억지로 이름을 붙여서 소리에 따라 분배해 놓았으니, 오직 그 정한 이름이 있는 연후에야 그 변하는 바를 가히 알 수 있을 것이요, 그 변하는 바를 안 연후에야 만 가지를 불어도 소리가 같지 아니하고, 닮은 소리를 음의 이름에 맞추어 표준을 삼을 수 있을 것이니, 이것이 5음의 이름이 생긴 까닭입니다. 그러나 그 변하는 것으로써 본다면 음이 하필 다섯 가지뿐이겠습니까. 백 음이라 한대도 가할 것입니다. 또 율이란 법률의 율과 같은 것이니,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미 고저(高低)와 청탁과 크고 가는 구분이 있을진대, 귀로 들을 수 있는 악기를 만들어 일정한 법을 만들었으니, 비유하건대 문법(文法)에는 물론 차등이 있으나 각각 법칙에 맞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직 그 소리가 나는 것을 기다려서 거기에 맞추어야 비로소 표준을 삼을 수 있으므로 6율은 혀위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차등이 있는 것으로써 헤아린다면 어찌 여섯 가지에만 그치겠습니까. 천 룰이라 한대도 가할 것입니다. 제가 비록 무엇이 궁(宮)이고 우(羽)인지,

무엇이 종(鍾)이요 무엇이 여(呂)인지⁶ 모르지만, 만일 기장 알로 치수를 재고⁷ 갈대 태운 재로 분분히 후기법(候氣法)⁸을 하는 것은 또한 의심스럽다고 봅니다.” 한다. 나는,

“악기로 비유해 말하자면 골짜기와 같고, 소리로 비유한다면 바람과 같을 것이니 골짜기를 고칠 수 없는 것으로 안다면 바람도 부는 것이 변함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거센 바람과 화한 바람, 회오리 바람과 싸늘한 바람의 구별이 있을 따름이니, 이로써 의논한다면 음률이 고금에 달름이 있는 것은 악기가 고쳐진 것이 있어서 소리가 변한 것이나 아닐까요.”

했다. 혹정은,

“그렇습니다. 율이 연해서 조(調)가 되고, 조가 어울려 강(腔)이 되고, 강이 합하여 곡(曲)이 되는데, 율에는 간성(姦聲)이 없어도 조에는 편벽된 소리가 있으니, 과연 한 골짜기 바람 중에도 거세고 화하고 회오리와 찬 구별이 있고 새벽과 밤과 아침과 낮의 변화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그 곡조의 정취(情趣)가 달라짐과 듣는 자가 달라지는 데 따라 때때로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여 비로소 고금의 달름과 정성(正聲) · 음성(淫聲)의 구별이 생깁니다. 당(唐) · 우(虞) 시절에 백성의 풍속이 맑을 때에는 귀에 즐거운 음악이 소(韶) · 호(濩)⁹의 곡조였으나 또 그들에게 배척당한 바를 가히 알 수 있는 것이요, 유(幽) · 여(厲)¹⁰의 시절에는 민속(民俗)이 음탕해서, 그들의 귀에 즐거운 음악은 상(桑) · 복(濮)¹¹의 곡조였으니, 또 그들에게 배척된 바를 가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세 잡극(雜劇)에, 서상기(西廂記)를 할 때에는 지리해서 졸음이 오다가도, 모란정(牡丹亭)¹²을 연출하면 정신이

6 무엇이……여(呂)인지 : 십이율(十二律)의 하나.

7 기장……재고 : 중국 고대에서는 악기의 일정한 치수를 극히 정확하게 맞추기 위하여 관악기의 빈 곳의 적(積)을 헤아릴 때는 천연 산물로서 그 크기가 가장 고르고 변화가 없다고 치는 검정 기장 낱알로 써 척도의 표준으로 삼았다.

8 갈대……후기법(候氣法) : 《후한서(後漢書)》〈율력지(律曆志)〉에 나오는 후기할 때에 쓰는 것.

9 소(韶) · 호(濩) : 우순(虞舜)과 은탕(殷湯) 때의 음악 이름.

10 유(幽) · 여(厲) : 주(周)의 폭군.

11 상(桑) · 복(濮) : 상은 상간(桑間), 복은 복상(濮上), 《시경》에 나오는 음탕한 노래.

12 모란정(牡丹亭) : 명의 탕현조(湯顯祖)가 지은 전기소설(傳奇小說) 모란정환흔기(牡丹亭還魂記).

나서 고쳐 듣게 됩니다. 이것이 비록 시정의 하찮은 일이라 하더라도 족히 민속의 취향(趣向)이 때를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대부들은 고악(古樂)을 부흥(復興)할 것을 생각하여 강(腔)을 고치고 조(調)를 바꿀 줄을 모르고, 졸지에 모든 악기를 부숴서 원음(元音)을 찾고자 한다면 사람과 악기가 한꺼번에 망하게 되고 말 것이니, 이것이 화살을 따라서 과녁을 그리고, 취하는 것을 싫어하면서 술을 얹지로 마시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한다. 나는,

“제가 심양에 이르렀을 때 생황(生簧)을 부는 사람이 있기에, 이것을 취해서 한번 불어 보았더니 과연 우리나라의 음에 맞았고, 연음(聯音 여러 음의 배열)이나 기조(起調)¹³가 우리나라 율에 맞았습니다. 그 뒤 곧 북경에 들어와 유리창(琉璃廠)에서 또 한번 불어 보니 이 생황도 그 소리나는 구멍이나 또 부는 구멍들의 금엽(金葉)이 여와씨(女媧氏)¹⁴ 때의 옛 제도와 변함이 없는지 모르겠으니 웬일일까요.”

했더니, 혹정은,

“이것은 만든 구조에 달린 것이니 저는 아직 이 악기를 손에 들고 자세히 구경한 적이 없습니다.”

한다. 형산은,

“어찌 변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팔음(八音) 중에서 포(匏)는 곧 생황(笙簧)이 이 것인데, 별써 오래 전부터 대뿌리를 잘라서 포(匏) 대신으로 쓴답니다.”

한다. 혹정은,

“율례(律呂)가 변하는 것은 악기의 죄가 아닙니다. 상(桑)과 복(濮)도 그 부는 악기가 관악(管籥)이 아니면 모르거니와, 만일 그 부는 것이 반드시 관악일 때는 그 제도는 마땅히 당·우 시절의 옛 법일 것이요, 그 치는 바가 종경(鍾磬)이 아니면 모르거니와 그 치는 바가 반드시 종경일 때는 그 음률도 응당 소·호의 옛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하는 조(調)가 무슨 음으로부터 나와서 음이 연하며, 율에 화한 연후에 정음(正音)과 간성(姦聲)이 비로소 갈라질 것입니다. 합쳐지는바 간(姦)

13 기조(起調) : 일정한 율에 맞추어 음이 처음 시작되는 음계.

14 여와씨(女媧氏) : 뱀의 몸에 사람 머리를 한 전설상의 인물. 중국 고대에 생황(笙簧)을 지었다고 함.

이 어떤 심정에 감동되어 곡조가 된 후에야 고금 음악이 구별될 것이며, 그 음률이 잘 맞고 맑은 것은 정음이요, 음탕하고 슬프고 사나운 것은 간성이 될 것입니다. 이제 무슨 악기이고 단 한 개의 음과 한 개의 음을 가지고서야 어찌 소·호를 의논 할 것이며 또한 어떻게 상·복이라 이를 것입니까.”

한다. 나는,

“오음(五音) 소리를 한번 얻어들을 수 있을까요?”

했더니, 혹정은,

“저는 입으로 능히 소리를 내지는 못합니다만 그 형상을 들은 바 있습니다. 광대하고 웅심한 소리는 예로부터 궁음(宮音)이라 하고, 지나치게 높고 조급한 소리는 예로부터 상음(商音)이라 하고, 정확하고 뚝 그치는 것은 예로부터 각음(角音)이라 하고, 빠르고도 치솟는 소리는 예로부터 치음(徵音)이라 하고, 가라앉고 가는 소리는 예로부터 우음(羽音)이라 불렀습니다. 소리가 난다는 것은 모두 칠정(七情)을 거쳐서 나지 않는 것이 없으며, 또 변궁(變宮)·변상(變商)·변각(變角)·변치(變徵)·변우(變羽) 소리가 있으니, 음은 소리를 따라 화해서 마음에 느끼는 바 바르고 편벽된 데 따라서 음이 변하고 율이 맞고 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다. 나는,

“그 음에는 혹시 선악(善惡)이 있을까요?”

했더니, 혹정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반문을 한다. 나는,

“궁음(宮音)처럼 광대하고 웅심한 것은 선(善)이요, 상음(商音)같이 조급한 소리나 치음(徵音)같이 빠른 소리는 착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했더니, 혹정은,

“아닙니다. 5음은 모두 바른 소리입니다. 소위 광대하고 웅심하며 조급하고 빠르다는 것은 다만 여러 가지 소리의 본질을 형용한 것뿐이요, 그 작용인즉 바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궁도 아니요, 상도 아니요, 각도 치도 우도 아닌 것을 간음(間音)이라 하여 5음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이것이 곧 간성(姦聲)입니다. 5음은 변해

서 반음(半音)이 되고, 또 반을 쪼개서 반의 반음으로 되나 이러고도 근본되는 율을 잃지 않을 때는 맑고 탁한 음이 서로 화하고, 높고 낮은 음이 서로 응하여 음이 서로 연하고, 조가 생긴 연후에야 그 음악의 선악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한 가지 일로써 증명할 수 있으니, 궁은 맨처음 정음으로 나와서 임금의 상(像)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파(琵琶)에서 새로 나는 궁성이 기조만 되고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왕영언(王令言)¹⁵은 수양제(隋煬帝)가 대궐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았다¹⁶니, 어찌 궁성에 무슨 나쁜 것이 있었겠습니까. 이같이 한번 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것은 연음(連音)과 기조(起調)의 죄입니다. 왕망(王莽)이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명당(明唐)에 바쳤더니, 그 소리가 슬프고 사나워서 듣는 자가 나라를 일으킬 음악이 아니라 하였고, 진후주(陳後主) 진숙보(陳叔寶)는 무수곡(無愁曲)을 지었는데, 듣는 자가 슬퍼하고 원망하는 듯,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고, 수(隋)의 개황(開皇) 수문제(隋文帝) 양견(楊堅)의 연호(연호) 초년에 새로운 음악으로 만보(萬寶)라는 것이 나오자 항상 음탕하고 사납고도 슬프더니 필경 천하가 오래지 않아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대개 음악을 만들 때는 언제나 궁음 자리에서 조가 시작한다는 말은, 소리가 상음에서 시작될 때는 상이 궁음이 되고, 각음에서 시작될 때는 각이 궁음이 되고, 치음에서 시작될 때는 치가 궁음이 되고, 우음에서 시작될 때는 우가 궁음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한다. 형산은,

“유송(劉宋)¹⁷ 순제(順帝) 유준(劉準) 때 상서령(尚書令) 왕승건(王僧虔)은 황제에게 아뢰기를, ‘지금의 청상(清商)은 실상 동작삼조(銅爵三租) 위(魏)의 대표적 음악)에서 나온 것으로 이것이 남겨놓은 풍류다운 음은 양양(洋洋)해서 귀에 넘치고 있어 소리가 알맞고 고르고 단아한 것이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었으나, 수년 동안에 없어진 곡조가 반이나 되고, 민간에서는 서로 다투어 새 잡곡(雜曲)을 만들어 음탕하고 시끄럽기가 한이 없으니, 마땅히 유사(有司)를 시켜서 이것을 모두 고치

15 왕영언(王令言) : 수 양제(隋煬帝) 때의 저명한 음악가.

16 수양제(隋煬帝)가……알았다 : 수 양제의 성명은 양광(楊廣). 그 뒤 과연 강도(江都)에서 시해당했다.

17 유송(劉宋) : 유유(劉裕)가 창건한 남송(南宋).

고 보철(補綴)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는데, 대개 위(魏)는 한(漢)을 계승했고 한은 진(秦)을 이었으니, 진의 수도 형산은 주(周)의 형산에서 멀지 않거든, 하물며 진의 음악은 열국(列國)에서 으뜸이 되었으니 마땅히 그 유풍(流風)과 여운(餘韻)이 오히려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진서(晉書)》 악지(樂志)¹⁸에 이른바 비무(鼙舞)는 한(漢)의 시절에는 잔치 자리에서 쓰던 춤이요, 강좌(江左)에서는 옛날에는 아악(雅樂)이 없었습니다. 양홍(楊泓)은 말하기를, ‘처음에 강남(江南)에 와서 백부무(白符舞)¹⁹를 보았는데 혹은 백부구무(白鳩鳩舞)라고도 하여 이것은 오(吳)의 사람들이 손호(孫皓 오(吳)의 말주(末主))의 학정(虐政)을 걱정하여 지은 것으로, 그 곡조에 「흰 비둘기는 우글우글, 갈석(북방의 지명)에만 녹을 주네(白鳩濟濟獨綠碣石)」란 구절이 있습니다. 혹은 말하기를, ‘백부구무는 곧 백부(伯符 손책(孫策)의 자)가 창춤을 잘 추어서 당할 자가 없었으므로 강동(江東) 사람들이 손랑(孫郎 손책을 가리킴)이 온다는 말을 듣고 모두 혼이 나갔다가, 그가 나라를 정한 뒤에 강동 어린이들은 드디어 노래를 지어 전했다’고 합니다. 동작삼조란 말은 위 무제(魏武帝 조조(曹操))가 업(鄴)에다 동작대(銅爵臺)를 세우고 스스로 악부(樂府)를 지어 악기에 맞추었다 합니다. 문제(文帝 조비(曹丕))와 명제(明帝 조예(曹叡)) 무렵에는 청상령(清商令 음악을 맡은 기관)을 두어 이를 관리하게 하였는데, 소리가 알맞고 고르고 단아한 품이 비록 반드시 왕승건의 말과는 같지 않다 하더라도 지나간 옛 날이 오히려 멀지 않으며, 그들의 남겨놓은 풍류다운 음은 양양하여 아직도 귀에 기득하다는 말은 이를 두고 이른 것입니다. 진씨(晉氏)가 도읍을 파천(播遷)²⁰한 뒤로부터 중원(中原)의 옛 음악은 저절로 유리(流離)하게 되어 부견(苻堅 전진(前秦)의 임금)이 한·위의 청상악(清商樂)을 얻게 되자 전진(前秦 부건(符健)이 창립한 나라)과 후진(後秦 요장(姚萇)이 창립한 나라)에 전했고, 송 무제(宋武帝 유유(劉裕)의 묘호)가 관중(關中)을 평정하자 악공(樂工)과 악기들을 모두 강남으로 옮겼습니다. 그 뒤에 수(隋)가 진(陳)을 평정하자 이것을 모두 얻게 되어 다시 중원으로

18 《진서(晉書)》 악지(樂志) : 당(唐)의 방교(房喬) 등의 저.

19 백부무(白符舞) : 마상(馬上)에서의 무악(舞樂).

20 진씨(晉氏)가……파천(播遷) : 사마염(司馬炎)이 세운 서진(西晉)이 낙양(洛陽)에서 건강(建康)으로 옮겼다.

들어오게 되었으니, 이상이 악기에 대한 고금의 연혁입니다. 수에서는 강남에서 얻은 악공과 악기를 본래 화하(華夏)의 정성(正聲)이라 하여 청상이란 옛 칭호를 따라 관서(官署)까지 두었으니, 그것을 통틀어 청악(淸樂)이라고 합니다. 내 옛 친구에 태산(太山)에 사는 비불(費黻)이 있었으니 그의 자는 운기(雲起)요, 호는 노재(魯齋)로서 율례(律呂)에 정통하고 밝아 『삼뇌정의(三籟精義)』 30권과 『청상리동(淸商理董)』 30권을 지었습니다. 제가 『대청회전(大淸會典)』을 짓는 데 참가했을 때 비불은 친국(纂局)에 와서 자기가 지은 악학(樂學)에 관한 여러 가지 책을 바치고 성음(聲音)과 악기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되 그림으로 그리고 글로 쓰기도 하여 역대 아악의 변천을 하나도 빠짐없이 아는 것이 마치 손바닥에 있는 손금 세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직 혼자서만 알 뿐이요, 다른 사람으로서는 그 이론을 알아들을 수 없었고, 또 그 글 속에는 당시의 대신들에게 저촉되는 데가 많았을 뿐더러 또는 비군을 좋아하지 않는 자가 있어서 그 글이 마침내 위에 전달되지 못 하매, 식자들은 지금까지 이것을 애석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나이 젊었을 때 한번 보았지만 능히 자세히 해득할 수 없었고, 그후로 해가 오래고 보니 모두 잊어버렸으니 더욱 가석한 일입니다.”[형산이 이 글을 써서 혹정에게 보이니, 혹정은 연상 고개를 끄덕이면서 두 사람이 한참 수작이 오가곤 한다. 아마 비불의 이야기를 하는 것만 같았다.]

한다. 나는,

“구라파의 동현(銅鉉) 소금(小琴)은 어느 때부터 나왔던가요?”

했더니, 혹정은,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모릅니다만 아마 백년이 넘어서부터지요.”

한다. 형산은,

“명(明)의 만력(萬曆) 때 오군(吳郡)에 사는 풍시가(馮時可)가 서양 사람 리마두(利瑪竇)²¹를 북경에서 만났을 때 그 거문고 소리를 들었고, 또 자명종(自鳴鍾)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미 기록에 남아 있으니, 대개 만력 시대에 처음으로 중국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모두 역법(曆法)에 정통하고 기하(幾何)를 아는 데

21 리마두(利瑪竇) : 1580년 중국에 온 이탈리아 선교사 마테오 럿치.

는 세밀하고 자세해서, 무엇이나 물건을 제조하는 데는 모두 이 방법을 쓰고 있답니다. 중국에서 기장낱을 포개 놓고 크기를 측량하는 일 같은 것은 도리어 추잡한 노릇입니다. 또 그들의 문자는 소리로 뜻을 삼아, 새와 짐승의 소리나 바람과 빗소리까지도 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 없이 혀로 이것을 형용해 냅니다. 저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능히 팔방(八方)의 풍속을 알고 만국 말을 통한다’ 하는데 이 거문고를 천금(天琴)이라 하고 있습니다.”

한다. 나는,

“그 빨간 글씨로 표해 놓은 것은 무엇인가요.”

하고 물었더니, 혹정은,

“그것은 줄을 고르는 음악의 부호입니다. 그런데 귀국에도 이 거문고가 있습니까?”

한다. 나는,

“원래 중국에서 사 가지고 온 것인데 처음은 줄을 맞추지 못해서 다만 그 줄마다 나는 땅뚱 하는 소리가 소반 위에 구르는 구슬 소리 같아서, 노인들의 잠 안 올 때나 어린애 울음 그치는 데 가장 좋았지요.”

했더니, 두 사람은 크게 웃었다. 그는 또,

“귀국의 금슬(琴瑟)은 어떻습니까?”

하고 묻기에, 나는,

“금과 슬이 다 있습니다. 제 친구 홍대용(洪大容)의 자는 덕보(德保)요, 호는 담현(湛軒)인데 음률에 능하여 금슬을 잘 탈 줄 압니다. 우리나라 금슬은 중국과 다르고, 타는 방법 역시 다릅니다. 옛날 신라 시대에, 거문고를 만들었더니 현학(玄鶴)이 와서 춤을 추었다 하여 이름을 현금(玄琴)이라고도 합니다. 또 가야금(伽倻琴)이란 것이 있어 큰 슬(瑟)의 반 쪼갠 것이 되고 줄은 열둘이 되어, 그 타는 법이 중국의 거문고 타는 모양과 비슷합니다. 담현은 처음으로 동현금(銅絃琴)의 소리를 골라서 가야금에 맞추었는데 지금은 금슬을 타는 악사들이 모두 이 본을 보고 현악이나 관악에 맞추고 있습니다.”

했다. 나는 또 묻기를,

“중국에는 아직도 소(韶) · 호(濩)²²의 곡조가 남아 있습니까?”

했더니, 형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다. 혹정은,

“대개 소 · 호의 시대는 어떠한 세계였던지, 그 시대 사람들이 지키는 떳떳한 도리와 시대의 유행과 풍속의 승상하는 바로써, 이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堯)를 임금으로 삼고 순(舜)을 신하로 삼고 고요(臯陶)를 스승으로 삼아서 당시의 사대부들 중에 총명하고 재주가 뛰어난 젊은이들을 골라서 학교에 넣었으니, 이른 바 생활로써 기질을 바꾸고 수양으로써 몸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또 가르친다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너그럽고 간략하고 온순하고 강직한 것으로써, 성정(性情)을 훈도(薰陶)하고 신기(神氣)를 고무(鼓舞)하여 심령과 총명을 어릴 때부터 깨우치고, 기(夔)와 같은 음악에 밟고 이치에 통하는 자가 전사(典司)하는 관원이 되어 있으면서 평소에 교양 받은 천하의 자제들을 데리고 일대의 음악을 만들었으니, 이는 당시 임금의 도덕과 정치를 상징하고 백성들의 추향(趨向)에 맞추었으니, 이런 음악으로써 상제(上帝)께 바치면 하늘이 즐거하고, 이런 음악을 종묘(宗廟)에 바치면 조상들이 감동했으며, 이로써 교회를 삼아 사방을 움직이면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한 가지 물건이라도 억눌림이 없이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도시 일단(一團) 평화스러운 기운뿐이니, 음악이 여기에 미친 것이 마땅하지요. 그 후 천 백 년을 지나서 우리 부자(公자) 같은 이가 나서 한번 그 음조(音調)의 가락과 음절의 여운(餘韻)을 들어 보고 나서 멀리 옛날을 상상하여 석달 동안 고기 맛을 잊어버렸다²³고 하거늘, 하물며 당시에 친히 그 춤추는 봉황을 본 사람이겠습니까. 그는 손이 춤추고 발이 뛰놀았을 것을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왕(武王) 주(周) 희발(姬發)의 묘호(묘호)의 시절은 어떤 세계였기에, 당시의 백성들을 주지(酒池) · 포림(脯林)²⁴ 속으로부터 견뎌 내어 한번은 그 나쁜 풍속을 씻기도 했지만, 전에 물

22 소(韶) · 호(濩) : 우순(虞舜)과 은탕(殷湯) 때의 음악.

23 한번……잊어버렸다 : 《논어》에 나오는 말.

24 주지(酒池) · 포림(脯林) : 폭군 은주(殷紂)의 고사. 술 못과 고기 숲.

든 더러운 풍속은 오히려 남아 있어 이같은 폐단을 단단히 고친다는 것은 진실로 일조일석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방폐를 모은 것이 산처럼 둘러섰다²⁵는 말은 별씨 순리로 나라를 전해 받은 것만 같지 못하고, 거칠고 억센 기풍을 발양했으니, 이는 또 너그럽고 간략하고 온순하고 강직한 데 비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로써 말하자면 대무(大武 주 무왕의 음악 이름)가 이루어진 것은 성왕(成王 희송(姬誦)의 묘호) · 강왕(康王 희교(姬釗)의 묘호)의 시대로서, 이 악곡에 무(武) 자 하나를 붙여 이름을 지었고 보니 부자(夫子)의 비평을 기다리지 않고서도 능히 진선(盡善)이 못 될 것은 가히 알 수 있습니다. 주(周)는 번영할 때를 당해서 비록 후기(後夔 순舜)의 풍악을 맡은 명신(名臣)으로 하여금 음악을 맡도록 했더라도 그 성취한 바는 여기에 지나지 못하고 마쳤을 것이다. 그런데 황우(皇祐 송 인종(宋仁宗)의 연호) · 원풍(元豐 송 신종(宋神宗)의 연호) 연간에는 범(范)과 마(馬)²⁶ 같은 여러 군자들이 옛날부터 있는 음악을 밝게 해득하지 못하고는 희미하게 고악(古樂)의 이치를 설명하면서 소소(素韻)의 구성(九成)²⁷ 같은 옛날 음악을 다시 부흥하려고 했지만, 당시의 도덕과 정치가 하늘과 사람의 마음에 합하는지를 몰랐습니다. 더구나 우스운 것은 채씨(蔡氏)²⁸의 《신서(新書 율려신서(律呂新書))》에는 원성(元聲)을 반드시 찾아낼 수 있다고 하였지만, 그 찾아낼 수 있다는 원성이 본률(本律)을 버리고 다시 어디에 있겠습니까. 설사, 채씨의 말과 같이 원성을 찾아내어 구성을 본떠서 만든다 하더라도, 당시의 임금들이 진실로 중화(中和)하는 덕과 육성하는 공로가 없고 본즉, 비유하건대 글제 없는 공령(功令)이요, 시동(尸童)²⁹이 제물(祭物)이라 할 것입니다.”

한다. 나는,

25 방폐를……둘러섰다 : 《서경(書經)》〈무성편(武成篇)〉에 나오는 구절. 무왕이 무력으로 은을 쳐서 평정했음을 말한 것이다.

26 범(范)과 마(馬) : 송의 학자요, 정치가. 범은 범중업(范仲淹), 자는 희문(希文). 마는 사마광(司馬光), 자는 군실(君實).

27 소소(素韻)의 구성(九成) : 소소는 곧 소악(韶樂)인데 그 풍류가 아홉 번 마치자 봉황이 와서 춤추었다 한다.

28 채씨(蔡氏) : 송의 학자 채원정(蔡元定). 자는 계통(季通).

29 시동(尸童) : 중국 고대 신주(神主)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제사에 동자를 신 대신으로 앉혔다.

“우(禹)는 목소리가 율이 되고 몸이 척도가 되었다 하고, 옛날에는 태자(太子)가 나면 태사(太史)는 음악으로 가르치고 소경으로 만져보게 했다 하니, 필시 일대의 음악은 임금의 목소리로 율을 삼았겠지요. 성인은 원기(元氣)를 타고났다 할 것이니, 성음을 내면 반드시 광대하고 화평하여 음률에 맞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인즉, 옛날의 성왕(聖王)은 역시 우와 더불어 다름 없이 소리가 음률일 것인데 홀로 우의 소리만 일컫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했더니, 혹정은,

“제왕들이 천하를 집으로 삼은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모태에서 떨어지자 시랑(狼)의 소리를 지르는 이도 있었는데, 그 소리는 마땅히 무슨 음률에 속하겠습니까. 사간(斯干)《시경(詩經)》의 편명)에서 이른바 황황(惶惶)한 울음 소리나 하(夏)의 계(啓)³⁰와 같은 고고(呱呱)의 소리³¹가 모두 음률에 맞았기 때문에 제후(諸侯)가 되고 천자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한다. 형산은,

“옛 기록에 이르기를, 무릇 소리가 시작될 때는 사람의 마음을 거쳐서 나는 것이라 하였으니, 대개 극히 귀하고 오래 사는 사람은 목소리가 큰 종소리와 같고 내뿜는 힘이 웅장하고 화창하여, 간혹 황종률(黃鍾律 육률에서 기본 표준음)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곧 척도가 되고, 소리가 음률이 된다고 하면 우의 언행이 터럭만큼도 어긋남이 없고 움직이면 곧 법도에 맞는다는 것을 극도로 친양해서 말한 것이요, 그 목소리의 청하고 탁한 것이 음률에 맞고 몸뚱이의 길고 짧은 것이 척도에 맞는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몸이 천하에 앞장 서서 인간의 윤리 도덕의 표준이 되고 보면 스스로 사방 억조 생민이 법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하니, 혹정은,

“윤 대인(尹大人)의 말씀이 지극히 옳습니다.”

한다. 형산은,

“귀국의 악률(樂律)은 어떠합니까? 혹 성신(聖神)이 임금의 스승이 되어 마음을 다

30 하(夏)의 계(啓) : 우(禹)의 아들로서 천자가 되었다.

31 고고(呱呱)의 소리 : 《사기(史記)》중에서 나오는 말.

하여 율을 만든 것인지요. 그렇지 않으면 중화의 것을 본뜬 것인지요. 종묘에 제사를 지낼 때에도 모두 음악을 쓰는지요. 또 춤은 몇 일(佾)³²을 쓰는가요?”

한다. 나는,

“우리나라 삼국 시절에는 비록 성악(聲樂)이 없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동이(東夷)의 향악(鄉樂)에 지나지 않았고, 당 중종(唐中宗 이석(李晳)) 때에 신라 악부(樂府)가 있었고 측천(則天) 때에 양재사(楊再思)가 자줏빛 옷을 입고 구려무(句麗舞)³³를 추었다고 하니 필시 속되고 고상하진 못했을 것이요, 송 휘종(宋徽宗 조길(趙佶)) 때에 우리나라에 대성악(大晟樂)³⁴을 보내 왔다고 하나 모두 세월이 오래되어 가히 상고할 수가 없습니다. 명의 홍무 때에는 우리나라에 팔음(八音)³⁵이 들어왔고, 춤은 육일(六佾)을 쓰게 되어 돌아가신 임금의 제사를 지내는 예법을 갖추었습니다. 악기는 처음에는 중국으로부터 나왔으나 그후는 국내에서 그것을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향음(鄉音)은 잘못 변하기 쉽고 옛날의 척도는 표준 삼기가 어려웠습니다. 선군(先君) 장현왕(莊憲王 조선 세종(世宗)의 시호)은 성덕(聖德)이 계시와, 상서롭게도 검은 기장과 고옥(古玉)을 얻어서 아악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중국 악기가 모두 고율(古律)에 맞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토산(土產)인 기장 알로써 헤아려 보아 과연 옛날 기록의 전하는 바에 착오가 없었다고 합니다.” 했더니, 형산은 의자에서 일어나 몸을 굽히면서,

“참으로 동방의 성덕 있는 임금이십니다. 귀국의 노래 몇 장(章)을 들을 수 없을까요?”

한다. 나는 몽금척(夢金尺)³⁶이라든가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³⁷와 같은 노래를 창출간에 외워서 대답할 수 없었고 또 기획(忌譖)해야 할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어

32 몇 일(佾) : 대열(隊列). 주(周)의 제도에 천자는 팔인 팔열의 팔일이요, 제후는 육인 육열의 육일.

33 구려무(句麗舞) : 고구려의 춤. ‘려(麗)’의 본음은 ‘리’였으나 뒤에 변해서 ‘려’가 되었다.

34 대성악(大晟樂) : 송 신종(宋神宗) 때 대성부(大晟府)에서 만든 음악.

35 팔음(八音) : 금(金) · 석(石) · 사(絲) · 죽(竹) · 포(匏) · 토(土) · 혁(革) · 목(木).

36 몽금척(夢金尺) : 조선 때 궁중(宮中) 연회에 쓰던 무악의 명칭.

37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 조선 세종 때 정인지(鄭麟趾) 등의 저. 조선의 창업을 칭송한 아유 작품. 최초에 한글을 이용하였으므로 귀중히 여긴다.

서 판 말로 돌린즉 형산도 역시 다시 묻지 않았다.

혹정은,

“귀국의 음조(音調)는 어떠한지 선생은 능히 형용(形容)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기에, 나는,

“저는 본래 소리 재주가 없어서 형용은 낼 수 없습니다만, 다만 그 음조가 느리고 길고 박자가 드문드문 합니다.”

했더니, 형산은,

“참으로 군자의 나라입니다.”

한다. 나는,

“제가 처음 요동에 왔을 때 길가에서 노랫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 들어가 보니 피리 한 사람, 통소 한 사람, 젓대 한 사람, 비파 한 사람, 월금(月琴) 한 사람이 노래에 맞추어 반주하고, 사발만 한 북을 가지고 박자를 맞추는데 피리 소리는 납 소리 같고, 젓대는 우리나라 우조(羽調)³⁸보다 청(淸)³⁹이 배나 높았습니다.”

했더니, 혹정은,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묻는다. 나는,

“소위 우조란 것은 오음(五音)에서 말하는 우조가 아니고 즉 가락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비 우(雨) 자를 써서 우조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나라 속악(俗樂)에는 또 계면조(界面調)⁴⁰가 있는데 이것은 우조를 뒤집은 음입니다. 청이 배나 된다고 한 것은 대개 율을 말할 때는 다들 청(淸)이라 하는데, 이것은 청 · 탁의 청이 아니요, 청이 배라고 하는 것도 본율(本律)보다 청이 갑절 높다는 말입니다.”

했다. 혹정은,

“그러면 본율의 반이군요.”

하기에, 나는,

38 우조(羽調) : 우리 옛 음악에서 곡조의 웅장하고 장쾌한 성질을 띤 장조(長調) 계통이다.

39 청(淸) : 우리 음악에서의 음정(音程).

40 계면조(界面調) : 우리 음악에서의 우아한 곡조 또는 슬프고 애끓는 듯한 느낌을 띤 비곡 계열로 양악의 단조(短調)에 해당한 것.

“어제 황제의 어전에서 하는 음악을 들으니, 역시 요동에서 들은 것과 비슷하고 또 징과 바로로써 박자를 맞추었습니다. 이것이 아악입니까. 왜 그 음조가 그렇게 높고 박자가 그렇게 빠릅니까?”

했다. 형산은,

“선생은 어제 대궐에 들어가셨던가요?”

하고 묻는다. 나는,

“아닙니다. 대궐에 들어가지는 않고 담 밖에서 들었을 뿐입니다.”

했다. 형산은,

“그것은 아악이 아닙니다. 이것은 연극을 놀 때에 하는 음악입니다. 아악에는 징과 바라를 쓰지 않습니다.”

한다. 나는,

“아악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형산은,

“대체로 명의 제도를 따라서 크게 조회를 할 때는 악공 예순 네 사람을 쓰는데, 인악(引樂)이 두 사람, 통소 네 사람, 비파 여섯 사람, 공후(箜篌) 네 사람, 진(篆) 여섯 사람, 방향(方響 강철편을 배열한 타악기) 네 사람, 두관(頭管 피리의 일종) 네 사람, 용적(龍笛 큰 젓대) 네 사람, 장고 스물네 사람, 큰 북 두 사람, 박자판이 두 사람입니다. 협률랑(協律郎 음악의 기술을 지닌 관원)은 먼저 모든 악기를 궁전 뜰 위에 차려놓고, 천자의 수레가 장차 떠나며 구름 깃발이 움직이려 할 때 협률랑은 기를 높이 들어 비룡인지곡(秘龍引之曲)을 연주합니다. 황제가 용상 위에 앉으면 음악은 그치고 찬관(贊官)⁴¹이 모두 국궁(鞠躬)하고 창을 하면, 협률랑은 풍운회지곡(風雲會之曲)을 아뢰고 합니다. 이 음악이 시작되면 백관은 머리를 조아려 절을 하며, 절을 마치고 일어나면 음악은 그칩니다. 화석친왕(和碩親王)이 전각 위로 올라가고 보국공(輔國公)들과 각로(閣老)들이 따라 올라가면 협률랑은 경황도(慶皇都)와 희승평(喜昇平)의 악을 아릅니다. 지금은 그 이름들이 비록 달라졌지만 악기는 바뀌지 않았고 소리 곡조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41 찬관(贊官) : 의례를 집행할 때 창홀(唱笏)하는 관원.

한다. 나는,

“악공들의 복색(服色)은 어떠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형산은,

“굽은 두건을 쓰고, 붉은 비단에 꽃을 그린 소매 넓은 장삼을 입고, 금칠한 띠를
띠고 붉은 비단으로 머리를 둘러 싸매고, 검정 가죽 신을 신었습니다.”

한다. 나는 다시,

“이것은 한인들의 제도와 같습니다그려.”

했더니, 형산은,

“아닙니다. 아악에는 비단이나 수놓은 망포(蟒袍) 같은 것을 쓰지 않고, 또한 번인(番人)의 모자도 쓰지 않습니다. 태상시(太常寺 음악을 맡은 기관) 아악에는 무릇 구주(九奏) · 팔주(八奏) · 칠주(七奏) · 육주(六奏)의 네 가지 등급이 있어 음탕하고 지나치고 흥하고 거만한 소리를 금하고 있습니다. 큰 제사 때는 악생이 72명이요, 무생(舞生)이 1백 30명인데 먼저 신악관(神樂觀)과 태화전(太和殿)에서 연습을 합니다. 한 시대에는 태상관(太常官)을 심히 중히 여겼으니 무릇 나라에 큰 정사가 있어서 승상(丞相)과 열후(列侯)와 구경(九卿)들에게 의논을 한다면 박사(博士)는 으레 이 의논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없으며 공경(公卿)과 장상(將相)들이 연명(聯名)해서 창읍왕(昌邑王)⁴²을 폐하자고 태후(太后)에게 청하는 글월 중에 이르기를, ‘신 창(斂)⁴³ 등은 삼가 박사와 더불어 의논했습니다’ 운운하였으니, 이것이 천하에 얼마나 큰 일이기에 반드시 먼저 박사의 말에 의거하고 있습니까. 지위는 낮고 사람은 미천하나 이같이 중히 여기는 것은 대개 그 천지신명과 종묘에 제사하는 예악(禮樂)의 근본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친례(贊禮 축문을 맡아 읽는 관원)는 곧 송(宋)의 대축(大祝)인데, 송에서도 역시 그 벼슬을 중하게 여겨 반드시 재상의 임자(任子)⁴⁴들을 임명하였으니, 이것은 귀족의 자손들을 추려서 가르친다는 옛 뜻일 것입니다. 명의 초년에는 역시 문학하는 선비로 여기에 처하게 했지만,

42 창읍왕(昌邑王) : 한(漢)의 폐왕(廢王) 유박(劉驥). 창읍은 봉호.

43 신 창(斂) : 장창(張斂). 당시의 대장군.

44 임자(任子) : 한의 제도에 이천석(二千石)의 벼슬 이상으로써 삼년의 임기가 차면, 자기와 자산 등급이 같은 사람의 아들 한 사람을 추천하여 낭(郎)을 삼았는데 이를 임자라 하였다.

후에는 누런 모자를 쓴 도사(道士)들로 자리를 채웠으니 이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옛날에 관리를 쓰는 데는 그 본업을 바꾸지 않았으며, 인재를 쓰는 데는 겸직을 시키지 않고 의례를 맡은 이(夷)⁴⁵나 음악을 맡은 기(夔)가 구별되어, 각각 한 가지 직책을 오로지 하여 이것으로써 몸을 마치도록 익히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와 기가 그 벼슬에 종신토록 있을 뿐 아니라, 대를 이어가면서 그 직책에 있는 것도 옳은바 태사(太史)나 음악 맡은 관리가 더욱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후세에 와서는 그 직책이 한결같지 못하여 위로는 기에게 미치지 못하고 아래로는 광대도 못 된 채 창졸간에 등용을 당하면, 마치 신부가 처음 와서 한 임에게 의탁 하듯이, 대궐 위에서 깃발을 들고 서 있는 거동이 마치 저 관청 섭돌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 나무와 같아서 참으로 우습습니다. 귀국의 음악을 맡은 관원도 응당 그럴 것입니다.”

한다. 나는,

“저의 이번 길이, 계찰(季札)⁴⁶이 주(周)의 고악을 감상한 것에 비하면 부끄럽습니다.”

했더니, 형산은,

“저의 옛날 친구 도규장(陶逵章)은 제(齊)에 사는 사람으로, 일찍이 태상관(太常官)으로 있으면서 나한테 보낸 편지에 우스개 소리로 자신을 조롱해서 말하기를, ‘도적이 해당(奚唐)의 서라 하는 말에 부끄러워하며,⁴⁷ 매양 전부(田父)가 원편으로 가라고 속일까 보아 의심합니다’⁴⁸ 하였으니, 이야말로 수풀 개구리가 음악을 이야기하고,⁴⁹ 대들보 위에 있는 제비가 ‘회여지지(誨汝知之)⁵⁰’를 가르쳐 주는 것이나

45 이(夷) : 순(舜) 임금 때 의례를 맡은 신하.

46 계찰(季札) : 전국 때 오(吳)의 어진 왕자로서 노(魯)에 초빙을 받아서 주(周)의 고악을 감상하였다.

47 도적이……부끄러워하며 : 출전 미상.

48 매양……의심합니다 : 항적(項籍)이 해하(垓下)에서 패하여 강동으로 갈 때에 전부에게 길을 물었는데, 전부가 일부러 속여서 원편으로 가게 하였다.

49 수풀……이야기하고 : 제(齊)의 공구(孔珪)가 숲을 깎지 않고 개구리 소리로써 양부(兩鄂)의 고취(鼓吹)를 대신한다 하였다.

50 대들보……회여지지(誨汝知之) : 《논어》의, ‘지지위지지(知之爲知之) 부지위부지(不知爲不知)’ 시지지 야(是知之也)’가 제비가 ‘지지배배’ 지저귀는 소리와 같다느 것이니 이는 설부(說部)에 나오는 왕안석

다름 없을 것입니다.”

하고는 서로 웃어대어 집이 떠들썩했다. 형산은,

“홍무(洪武) 초년에 처음으로 신악관(神樂觀)을 천단(天壇) 서쪽에 두고 음악과 무용을 가르쳤는데, 고황제(高皇帝)는 친히 산천에 지내는 제사에 나누어 쓰는 악장(樂章)을 만들고, 그 후에는 합쳐서 제사를 지내게 되자 다시 합사(合祀)하는 악장을 만들었으며, 또 예식이 이룩되자 노래 아홉 장을 불렀던 것입니다. 식자(識者)들은 그 음률들이 아직 옛날로 회복되지 못한 것을 병으로 여겼습니다. 상서(尙書) 도개(陶凱)와 협률랑냉겸(冷謙)에게 조서를 내려 아악을 제정하게 하고, 또 학사(學士) 송렴(宋濂)에게 명하여 악장을 만들게 했습니다. 무릇 원(圓)이나 능(陵)에 제사를 지낼 때는 음악을 쓰지 않고 또 교제(郊祭)나 종묘의 제사에는 악기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홍무 6년(1373)에 제사를 지내고 돌아오는 길에는 반드시 악생(樂生) · 무생(舞生)들을 앞세워 길을 인도하게 되고, 한림(翰林)들과 유신(儒臣)들에게 명하여 음악의 가사를 짓도록 하여 공경하고 삼가고 경계하는 뜻을 갖도록 했습니다. 황제는 밀하기를, ‘짐(朕)이 일찍이 한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후세의 악장들이 헛된 말로만 송미(頌美)하니, 이것은 귀신에게 아첨하는 것이냐, 당시의 임금에게 아첨하는 것이냐’ 하였습니다. 이에 유신들은 뜻을 받들어 감주(甘酒) · 준우(峻宇) · 색황(色荒) · 금황(禽荒)⁵¹ 등의 여러 곡조를 지었으니, 이것은 모두 장으로서 이름을 회난가(回鑾歌)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가히 음악의 근본을 알았다고 할 수 있으나 오히려 글에 응하는데 그치고 말았으니, 성률(聲律)에 이르러서는 당시의 식자들이 전부 틀렸다고 하였습니다. 또 12년(1379)에 조서를 내려, ‘짐이 한미한 처지에서 일어나 천하에 군림(君臨)하면서 상하의 신령들을 받들어 모시니, 만일 조금이라도 정성스럽지 않다면 생민들의 복을 비는 본정이 아닐 것이요, 또 영장(靈長)의 자리를 오래 유지하고 보전하지 못할 것이다. 옛날 성숙공(成肅公) 주문왕의 아들 성백(成伯)이 제물을 물려받고서 계으름을 부리는 것을 보고 군자들

(王安石)의 말이다.

51 감주(甘酒)……금황(禽荒) : 이 네 가지는 모두 《서경(書經)》〈오자지가(五子之歌)〉에 나오는 말들. 감주는 아름다운 술이요, 준우는 집을 광활하게 짓는 것이요, 색황은 여색에 음탕함이요, 금황은 사냥에 방탕하는 것이다.

은 그의 지위가 오래가지 못할 것을 알았다 하니 동작(動作)과 위의(威儀)의 범절도 정명(定命)이 이와 같거든, 하물며 음성이 나게 되는 윤인이 지성으로부터 감동되지 않음이 없음에랴. 귀신이 없다 하여 믿지 않는 자는 거짓이요, 귀신에 아첨하여 복을 비는 자는 혹했다 할 것이다. 짐이 신악관을 설치한 것은 음악을 갖추어 천지신명과 종묘의 신령께 제사지낼 따름이요, 구차히 전대의 제왕들이 허탄한 절차를 떠벌여 오래 사는 도를 맞아들이는 버릇을 본받음은 아니다. 설사 그런 도가 있다 할지라도 이는 마음을 맑게 닦고, 빨리 오고 빨리 가서 어려움과 장애가 없도록 하는 데 불과할 것이니, 만약에 과연 오래 사는 이치가 있었다면 은·주의 부로(父老)들이 어디로 갔으며 한·당의 기숙(耆宿)들은 어디 있는가' 하고는 이내 돌에 새겨 신악관 안에 세웠으니 이 비석을 보면, 가위 음악의 이치에 밝고 사리를 통달한 이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가류(道家流)를 이끌어서 운위한 것은 마침내 옛날 뜻을 받들지 못하고 보매, 우리 성조 인황제(仁皇帝 강희 황제)는 예로써 천지에 제사 지내는 음악과 만방을 협화(協和)하는 성대한 식전을, 누런 모자를 덮어쓴 저 도사들에게 맡겨 관리시킬 것은 못 된다고 하여 이에 모두 태상(太常)에게 돌리게 되었고, 또 정 세자(鄭世子)⁵²와 같이 음악에 밝은 이로서도 당시에는 능히 쓰이지 못했음을 깊이 애석하게 여겼으니, 오늘의 《율령정의(律呂精義)》 등 서적이 이것입니다. 큰 성인이 중화(中和)의 덕을 세우게 되니 음악은 본조(本朝)에 들어와서 비로소 대아(大雅)를 바로잡게 되었습니다.”

한다. 혹정은,

“귀국의 악기와 악공은 응당 고려의 옛것일 것이니 이것은 반드시 송의 숭녕(崇寧 송 휘종(宋徽宗)의 연호) 때 반포된 대성악(大晟樂)일 것입니다.”

하기에, 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것은 홍무 때에 들어온 것입니다.”

했다. 혹정은,

“홍무 때 나갔다는 것이 실은 대성악의 나머지입니까. 주자는, ‘숭녕 말년에 아첨한 자들의 모임에나 죄인들의 찌꺼기를 가지고 어찌 천하의 화평이라고 말할 수

52 정 세자(鄭世子) : 명의 정공왕(鄭恭王)의 세자 재육(載堉).

있으랴⁵³ 했습니다. 그러나 송이 이미 강남(江南)으로 건너간 뒤로 금 태종(金太宗 완안성(完顏晟))은 변경(汴京 송의 수도 개봉(開封))에 있는 악기와 악공을 모조리 거두어 북쪽으로 옮겨가 태화악(太和樂)이라고 이름을 고쳤으니, 이것도 그 실상은 대성악입니다. 금이 망함에 이르러 다시 또 남쪽 변채(汴蔡)로 옮기고 변채가 함락되자 중국의 옛 물건은 모두 원(元)으로 들어갔습니다. 원의 오래(吳萊 원의 음악을 맡은 관원)가 태상이 되어 쓴 음악은 본래 대성악의 유법(遺法)으로 옛날 악공을 가르쳐 종묘의 제사에 썼으므로 원의 악호(樂戶)⁵⁴의 자손은 대대로 하변(河汴)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명에 이르러서는 원을 쫓아내고 악공과 악기들을 모두 얻게 되었으므로 태상 악과 악관들이 익히던 음악은 오히려 대성악이라고 불러 심지어 여럿이 추는 춤이나 모든 놀음은 원의 옛 제도를 본받게 되었습니다. 명의 고황제(高皇帝)는 원의 정치를 일신하게 개혁하면서 대성악에 이르러서는 금은 송에 따랐고 원은 금에 따르고 보니, 그 전통이 이미 오래되어 중국의 옛 제도를 지키고 있다 하여 음악을 새로 고쳐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이로써 홍무 때에 반포된 것이 대성악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다. 나는 묻기를,

“옛날은 천자의 가운데 손가락 길이로 써 울을 만들어 땅속에 묻고 후기법(候氣法)을 썼다는데 이 이치는 어떤 것입니까?”

했더니, 혹정은,

“이것은 곧 방사(方士) 위한진(魏漢津)이 휘종(徽宗)의 손가락을 재어 대성악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한진은 본래 촉(蜀)의 천인 출신으로 그는 말하기를, 성왕(聖王)의 타고난 천품은 천지 음양으로 더불어 한 몸뚱이로서 목소리는 율이 되고 몸은 척도가 된다 하여, 휘종에게 청하여 가운데 손가락 세 마디의 길이로 황종률(黃鍾律)을 정하고 이로써 천지의 정리와 음양의 조화에 맞춘다 하였습니다. 당시에 채경(蔡京)이 유독 그 말을 기특히 여겨 갖은 아첨으로 황제를 달래어 먼저 솔

53 송녕…… 있으랴 : 주자가 당시 조정의 예악을 맡은 자들을 평한 말. 《주자대전(朱子大全)》에서 나오는 구절.

54 악호(樂戶) : 죄인의 처자를 적몰하여 음악을 전공하는 악공으로 삼은 집안.

여덟 개를 만들었으니 이것이 가장 가소로운 일입니다. 옛적에 처음 난 성왕이 비로소 말과 자를 만들면서 아무 것도 의거할 것이 없으므로 마침 손가락 마디로 율(律)을 삼았고 기장 알 개수를 세어 표준을 삼았습니다. 또 당시 세상은 사시 기후가 그 절후를 잊지 않고, 소위 바람은 나뭇가지에 울지 않고 바다는 물결이 일지 않았다⁵⁵ 하여 그런 기후가 사시의 기운을 얻었으니 이치가 괴이할 것은 없겠지만, 후세에 이르러서 임금이 어질어야 천지 기후도 고르고 생물이 자란다는 이치는 생각지도 않고, 다만 손가락으로써 율을 가늠하고 갈대 태운 재로써 좋은 기후를 얻고자 하니, 이것은 흰 바탕이 있은 뒤에야 채색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⁵⁶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격이요, 그 근본은 헤아리지 않고 끝만 가지런히 하려고 하는 격이니, 이러고서는 설사 절후에 맞추어서 어떤 기운이 뻗친다 하더라도 이 기운이 어디에 속하는 기운인지 모를 것이거든, 하물며 사람의 손가락 마디는 길고 짧음이 같지 않은즉, 숭녕의 손가락이 길어서 악률이 높아졌으므로 한진(漢津)은 크게 놀라서 그 무리 임종요(任宗堯)에게 가만히 이르기를, ‘율이 높은 것도 북비(北鄙 북쪽 변방)의 음악이라 북쪽이 요란하니, 천하에 장차 무슨 변이 생기는 게 아닌가’ 하였답니다. 음악이 이미 이루어지자 드디어 정강(靖康)의 화⁵⁷가 있었으니 음악이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한진 같은 소인이 비록 음률을 들을 줄 아는 재주가 있었다 하더라도 음악을 지을 덕이 없었고, 당시 사대부들이 또 한진의 재주만한 자도 없어 급급히 그에게 아부했으니, 주자가 배척한 아첨하는 자들의 모임이요, 죄인들의 찌꺼기란 것이 이것입니다.”

한다. 형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냉겸(冷謙)이 정했다는 음악과 춤은 홍무 6년의 일로서 대성률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대성악은 귀신을 맞는 첫 연주에는 남려(南呂)의 각음(角音)이니, 이는 대려(大呂)의 변조(變調)입니다. 홍무 때에 만든 태주(太簇)의 우음(羽音)은 중려조(中呂調)로, 냉겸의 칠균(七均)은 태족으로부터 이측(夷則) · 협종

55 바람은……않았다 : 요 · 순의 지치(至治) 시대의 일. 《사기(史記)》에 나오는 구절.

56 흰……있다 : 《논어》에 나오는 구절.

57 정강(靖康)의 화 : 정강은 송 흠풍(宋欽宗)의 연호. 정강 2년(1126) 금(金)이 송을 쳐들어와 송은 강남으로 쫓겨가게 되었다.

(夾鍾) · 무역(無射) · 중려(中呂)는 모두 정조(正調)인데 다만 청황종(淸黃鍾) · 청림종(淸林鍾)⁵⁸의 변조입니다. 본소리는 무겁고 커서 임금과 아비에 속하고, 응하는 소리는 가볍고 밝아서 신하와 자식에 속하였으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사청성(四淸聲)⁵⁹이라 하는데, 만일 사청성을 쓰지 않는다면 이것은 감응하는 음이 없어서 임금의 덕은 치밀여 신하의 도리는 끊어지고 아비의 도리는 없어지매 자식의 직분은 허물어지게 됩니다. 한진의 음률은 옛 제도에서 두 읊씩을 낮추어 임종(林鍾)을 궁음으로 할 때는 상음 · 각음이 정조(正調)가 되고, 그 나머지는 모두가 변조가 됩니다. 또 남려(南呂)가 궁음이 될 때는 오직 상음 하나만 정조가 되고 그 나머지는 모두 변조에 속합니다. 이것은 칠균 중에 변조가 다섯 가지로서, 의논하는 자는 이 때문에 임금의 도가 미세(微細)하게 되고 백성과 귀신과 사물의 힘이 떨치지 못한다 하는바 이것은 참으로 망국의 음률로서 슬프고 음란하고 원망하고 흐느끼게 되어 오래 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송잠계(宋潛溪 잠계)는 송렴(宋濂)의 호)가 말한, 한진이 만든 음악이 난세의 음악이라 한 것도 바로 이 까닭입니다. 주자가 건양(建陽) 땅 채원정(蔡元定)의 균조(勻調)와 후기의 방법이 치밀하고 통창한 것을 칭도하고, 자기의 예서(禮書) 중 악제(樂制) · 악무(樂舞) · 종률(鍾律) 등 각편을 대체로 채씨의 신서(新書)에 의거하여 고증하면서 부연해서 기술했습니다. 그러나 주자는 음률에 대하여도 그다지 명백히 해득하지 못하여, 오로지 채씨를 믿고 이른바 선입의 견해로서 한진을 배척한 것도, 음률을 감정하여 옳고 그름을 안 것이 아니라, 다만 그것이 채경의 주장한 것이라 하여 있는 힘을 다 들여 이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원정(元定)의 저서는 능히 행사에 시험해 보지 못했고, 한진의 음악은 그 당시에 밝게 시험을 했던 터로 그 후의 의논하는 이들은 그 일을 지적하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실상 채씨가 음악에 밝은 것은 고정(考亭 주희의 별칭)보다는 나으나 너무도 천착(穿鑿) · 집요(執拗)하게 다루었다는 평을 면치 못할 것이요, 한진의 음률을 감상하는 것이 원정보다 정밀하다 하지만, 그는 억지로 맞추고 아첨하

58 청황종(淸黃鍾) · 청림종(淸林鍾) : 음명 위에 청을 붙일 때는 표준 옥타브보다 한 옥타브 높은 음을 표시하는 말이다.

59 사청성(四淸聲) : 표준 옥타브보다 한 옥타브 높은 상황종(上黃鍾)으로부터 시작하여 넷째 협종(夾鍾)에 이르기까지 네 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고 있으며, 냉겸의 음악을 제정함에 이르러서는 비록 옛 제도를 곡진하게 답습했다 하겠지만 그 소리는 송·월의 율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회전(會典)을 편찬하는데 참가했을 때 여러 대가들을 연구하였는바, 홍무 때 제정한 것은 실상 대성악과도 판이하게 달라 왕노야(王老爺)가 말씀한, 귀국이 홍무 때 가져갔다는 대성악이 옛날 것이란 것은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다. 혹정은,

“어찌해서 그럴까요?”

하고 물으니, 형산은 웃으면서,

“그저 그렇지요.”

하고는 그는 또,

“대체로 중국의 악공은 진(晉) 시절에 망했고, 악기는 수(隋) 때에 망했으며, 잡곡과 백 가지 놀음이 아악을 어지럽게 만든 것은, 당 현종(唐玄宗)이 마땅히 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한다. 나는,

“원컨대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했더니, 형산은,

“춘추 시절에 세상은 비록 어지러웠으나, 지나간 옛날이 그다지 멀지 않아서 진·한 아래로 비록 큰 난리가 자주 일어났으나 화는 나라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악기나 악공을 판 데로 옮겨가지 않았고, 제도도 그대로 남아 있었으며, 나라를 가진 자도 창과 칼을 버리고 우선 생(生)과 용(鏞)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음악을 맡은 관원들은 세대와 더불어 함께 일어나고, 풍진(風塵)이 조금 밝아지면 다투어 악기를 안고 관직에 나와서 자손들에게까지 세업(世業)을 전하여, 마음대로 악기 다루는 법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진씨(晉氏)가 도읍을 옮기게 되자 다섯 가지 성이 섞이고 어지러워 사해가 쪼개어 무너지고,⁶⁰ 음악의 세밀한 기술은 도탄에 유리되었고, 석씨(石氏 후조(後趙)의 석륵(石勒))가 업(鄆)에 도읍하자 동작(銅爵)과 청상

60 진씨(晉氏)가……무너지고 : 서진(西晉)이 강남으로 쫓겨가자 강북에는 다섯 종족의 오랑캐가 서로 다투어 16개국이 명멸했다.

(清商)은 모두 표령(飄零)하여 없어지고 모용초(慕容超 남연(南燕)의 임금)는 이불(李佛)태악관(太樂官)을 잡아온 대신 그 어머니를 요진(姚秦)⁶¹에 바쳤으나 옛날 악공들은 모두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송 무황제(宋武皇帝 남조의 송)는 관내에 들어왔지만 그가 얻었던 악기와 악공은 가히 알 만한 것이요, 그는 또 바쁘게 동쪽으로 돌아갔으니 그가 옮겨간 것도 또한 가히 알 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일찍이 중원의 악기는 진(晉) 시절에 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서(隋書)》에 실려 있는 역대의 동척(銅尺)은 열다섯 가지나 되어 주척(周尺)을 비롯하여 한의 유흠(劉歆)⁶²이 만들었다는 동곡척(銅斛尺)과 동한(東漢) 건무(建武 광무제의 연호) 시절의 동척(銅尺), 진(晉)의 순우(荀彧)⁶³이 만든 율척(律尺) 조충지(祖沖之)⁶⁴의 동척들은 하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소위 주척은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신망(新莽)⁶⁵ 15년 동안에 만든 물건은 무엇이나 주(周)의 것을 모방하여 이름을 붙였으나 이미 위조가 많았고 또 맘대로 아침에 만들었다가 저녁에 부셔버려서 척도가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후세에 주척이라고 불리는 것이 왕왕 유흠이나 왕망의 무리가 만든 위조로써 우문씨(宇文氏)가 한번 가짜 주를 창건하자⁶⁶ 그가 가졌던 보물들은 바로 수의 소유로 돌아갔습니다. 수 문제(隋文帝)는 본래 학문을 좋아하지 않고 성질이 또 음악도 좋아하지 않았으나, 이미 천하를 얻고 본즉 부득이 음악을 제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패국공(沛國公) 정역(鄭譯)은 지음(知音)에 통하여 고악 십이율을 말하면서 궁음을 빨리 알아내어 칠성(七聲)을 각각 사용했으나 세상에는 통하지 못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주무제(周武帝)⁶⁷ 때에 백소지파(白蘇祇婆)는 원래 구자(龜茲) 지금의 신강(新疆) 지방 사람으로 비파를 잘 탔습니다. 한 균(勣) 가운데 칠성이 끼어 있었으니 소위 파타력(婆陀力)이란 중국말로 궁성(宮聲)이요, 계식

61 요진(姚秦) : 요씨(姚氏)에 의해 건국된 후진(後秦). 부진(苻秦)과 구분하여 요진이라 한다.

62 유흠(劉歆) : 서한(西漢)의 한학자. 흠은 이름이요, 자는 자준(子駿).

63 순우(荀彧) : 진의 학자. 육은 이름이요, 자는 자중(子曾).

64 조충지(祖沖之) : 남제(南齊)의 학자. 충지는 이름이요, 자는 문월(文遠).

65 신망(新莽) : 왕망(王莽)이 세운 나라 신(新).

66 우문씨(宇文氏)가……창건하자 : 우문씨는 북주를 세우고 스스로 주(周)의 종실이라 일컬었다.

67 주무제(周武帝) : 북주(北周) 우문옹(宇文邕). 무제는 묘호.

(雞識)이란 중국 말로 남려(南呂)요, 사식(姿識)이란 중국 말로 각성(角聲)이요, 후가람(侯加藍)이란 중국말로 응성(應聲)이니 즉 변치(變徵)요, 사렵(沙獵)이란 중국 말로 치성(徵聲)이요, 반침(般瞻)이란 중국 말로 우성(羽聲)이요, 이건(利筵)이란 중국 말로 변궁(變宮)이라 합니다. 정역은 그 법을 연구하여 12균 84조로 정하고, 또 7음 밖에 다시 한 가지 음을 더 정해서 응성이라 했습니다. 정역은 본래 무뢰배요, 교묘한 자로서 여러 번 나라를 파는 행동을 했다가 다시 반복하곤 했습니다. 문제는 처음엔 그를 좋아했다가 나중에는 미워하였으니, 정역의 쓴 법은 비록 그럴싸했으나 그 근본은 이악(彝樂)⁶⁸에서 나왔기 때문에 율은 조금 높으며 거칠고, 만보상(萬寶常 수(隋)의 음악가)이 만든 여러 악기는 정역의 것보다 두 율이 낮아서 그 소리가 맑고 고왔으므로 속된 귀에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모두 능히 자기의 기술로서 당세에 뜻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타(何妥) · 소기(蘇夔) · 우홍(牛弘)⁶⁹ 등은 제각기 봉당(朋黨)을 모아서 하타는 임금에게 아첨하여 황종이 임금의 덕을 상징한다고 하니, 무제는 그 말을 기뻐하여 황종 한 궁음만 쓰는 데 그치고 다른 율은 쓰지 않았습니다. 우홍 등은 당시 선궁음(旋宮音)을 쓰지 않는 문제의 뜻에 맞추어 아첨했고, 다시 전대의 금석(金石) 악기들은 부수고 녹여 없애버려서 이로부터 역대 악기의 전형(典刑)을 고증할 곳이 없게 되었으니, 이 까닭에 저는 중국의 악기가 수에 와서 망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초기에는 조효손(祖孝孫)에게 명하여 아악을 제정했는데 효손은 일찍부터 하타 · 소기의 무리와는 뜻이 맞지 않아 수의 시절에는 배척을 당했다가 당에 와서는 뜻을 꿨고, 장문수(張文收) 등과 더불어 의논하여 아악을 제정하는 데 퍽 전아(典雅)하다고 말했지만, 태종(太宗 이세민(李世民))은 공리에 급급하고 본래부터 음악은 좋아하지 않아서 음악이란 정치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였으니, 이것은 소박한 듯하면서도 실상은 고루한 것입니다. 더욱이 예악이 정치의 근본이 되는 줄은 모르고 배우(俳優)는 남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노리개로 인정했습니다. 장문수는 또 세상에 아첨하여

68 이악(彝樂) : 동이(東夷)의 음악. 연암은 흔히 이(夷)를 이(彝)로 썼다.

69 하타(何妥)……우홍(牛弘) : 모두 수의 학자. 하타의 자는 서봉(棲鳳), 소기의 자는 백니(伯尼), 우홍의 자는 이인(里仁).

하청(河清) · 경운가(景雲歌)를 짓고, 주안(朱雁)⁷⁰ · 천마(天馬)⁷¹를 본떠서 연악(燕樂) · 원회(元會)로 이름을 붙였으니 당 시절의 아악은 문현에 따라 숫자나 채우는데 그칠 뿐이었습니다. 현종(玄宗) 때 와서는 그가 음률을 잘 알았고 보니, 다시 좌우 교방(教坊)을 두고 황제의 이원(梨園) 제자라고 불러, 몸소 악공과 궁녀들을 거느리고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천보(天寶) 당 현종 후기의 연호) 연간의 전성기에는 매양 잔치를 베풀고, 고창(高昌)⁷² · 고려(高麗) · 천축(天竺) 인도의 별칭. 서북 인도) · 소륵(疏勒)⁷³ 등 여러 나라의 부(部)를 두었고, 코끼리춤, 말춤에 이르기까지 추게 되어 이에 역대로 내려오던 음악의 제도는 썻은 듯 없어졌습니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안녹산(安祿山)의 화가 있어 드디어 도탄에 빠지게 되었으니 이것은 당 현종이 음률에 밝았던 죄입니다.”

한다. 나는,

“예상우의곡(霓裳羽衣曲)이란 근자에 보는 <서상기(西廂記)>같은 잡극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형산은,

“그렇습니다. 예상우의 열두 편이 세상에 전하기로는, 하서절도사(河西節度使) 양경술(楊敬述)이 황제에게 바쳤는데 황제는 이것을 얻고서 매우 기뻐하여 드디어 스스로 이것을 연출하였다⁷⁴ 합니다. 이것이 후세 잡극의 시작으로서 그 소리가 느리고 슬프고 가늘었습니다.”

한다. 나는,

“송이 인후한 것으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승녕 이전은 아악이 응당 볼 만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70 주안(朱雁) : 한 무제(漢武帝)가 동해에 거동하여 기리기를 얻고서 지은 노래.

71 천마(天馬) : 한 무제 때에 악와(屋洼)에서 말이 나왔으므로 이 노래를 지었다.

72 고창(高昌) : 수(隋)의 때 신강 지방에 있었던 나라.

73 소륵(疏勒) : 역시 신강 지방에 있었던 나라.

74 하서절도사(河西節度使)……연출하였다 :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설이 있는데 이것은 악원(樂苑)에서 나오는 말이다. 악원에 예상우의곡은 개원(開元) 연간에 서량부절도(西涼府節度) 양경술이 바쳤다 하였다. 그러나 당일사(唐逸史)에는 나공원(羅公遠)이 현종과 함께 월궁에 이르렀을 때 선녀가 예상과 우의를 입고 광정에 춤추는 것을 구경하고 악공을 시켜 이 곡을 지었다 하였고, 또 일설에는 현종이 엽법선(葉法善)과 더불어 월궁을 구경하고 이 곡을 지었다 하였다.

했더니, 형산은,

“이것은 화현(和峴)⁷⁵이 제정한 아악으로서, 송 태조(宋太祖) 때에 주왕박(周王朴) 송의 음악가)이 만든 율척(律尺)을 서경(西京)에 있는 옛날 석척(石尺)에 비교하여 보니 조금 짧았으므로 악성(樂聲)이 좀 높아서 중화(中和)에 잘 맞지 않았습니다. 건덕(乾德) 4년(966)에 화현에게 명령하여 옛날 제도를 본떠 자를 만들었으니, 역사에서 말하기는, 화현의 아악은 음조가 화창하나 세상에 아첨하고 시세에 따르는 말이라 했습니다. 나라를 얻은 지 겨우 해를 지났을 뿐인데 무슨 인후한 것이 깊어서 그 빛이 사방을 뒤덮어 백성과 물건을 화락하게 했겠습니까. 화현이 말한 바 겸손한 태도로 나라를 얻었다고 하여 현덕승문(玄德升聞)⁷⁶의 춤을 만들었으니, 이 춤은 한 줄에 열여섯 사람씩을 여덟 줄로 세워 8일(佾)의 갑절을 만든 것이 더욱 우스운 일입니다. 현덕승문이라면 우빈(虞賓)은 어디에 있었습니까.”⁷⁷

하니, 혹정도 역시 크게 웃으면서 볶을 잡아 빨리 쓰기를,

“방(房)에 있지요.”

했다. 형산이 말하기를,

“대저 제왕이 음악을 모를 수는 없는 일이요, 또한 음악을 알아도 걱정입니다. 음악을 알지 못하면 수의 문제나 당의 태종같이 가위 정치는 성공했다 할 수 있는 임금으로서 비록 부득이 음악을 제정하기에 힘썼다 하지만 그의 근본 취지는 비루하기 짝이 없었고, 당의 명황이나 송의 도군(道君)⁷⁸ 같은 이들은 본래 음악을 잘 안다고 했으나 천보(天寶) · 정강(靖康)의 두 난리를 불러일으킨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대개 음악의 덕이란 후충(候蟲) · 시조(時鳥)와 같으며 음악의 재주란 시정(市井)과 같고, 음악의 사업이란 역사와 같으며, 음악의 이름이란 시호(謚號)와 같습니다.”

75 화현(和峴) : 송대의 학자. 자는 회인(晦仁).

76 현덕승문(玄德升聞)의 춤 : 순(舜)의 숨은 덕행이 요(堯)에게 달렸다는 것을 모방하여 지은 춤이다.

77 현덕승문이라면……있었습니까 : 빈은 요의 아들 단주(丹朱)가 불초하였으므로 천자의 위를 순에게 전하매 순은 단주를 국빈(國賓)의 예로써 대접하였는데 송 태조는 누구에게 전위를 받은 것이 아닌 만큼 이 현덕승문의 춤이란 적당하지 않다는 것.

78 송의 도군(道君) : 송 휘종(宋徽宗)의 스스로 일컬은 이름.

한다. 나는,

“어째서 후충과 시조라 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형산은,

“종사(螽斯)와 사계(沙雞 뱃뚜기)는 본래 같은 벌레요, 황조(黃鳥)와 창경(倉庚 꾀꼬리)은 본래 한 새인데, 때를 따라 변화해서 우는 소리가 각각 다르다는 말이지요.”

한다. 나는 또,

“시정이란 무슨 뜻인가요.”

하고 물었더니, 그는,

“저자에서는 인화를 볼 수 있고, 우물 터에서는 질서(秩序)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건을 서로 교역하는데, 팔고 사는 두 편 뜻이 맞는 것이 시도(市道)요, 뒤에 온 자가 먼저 온 자를 원망하지 않고 그릇을 벌여놓아 차례를 기다리다가 제 뜻에 찼을 때 그치는 것이 정도(井道)입니다. 무릇 역사의 대체는 정직해야 하고, 시호라고 하는 것은 잘잘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한다. 형산이 일어서서 조그마한 가죽 상자를 열고, 작은 검정 종이부채를 내어 나에게 보이는데, 그 표정이 너그러웠다.

또 아주 작은 사기합을 끄집어 내어 책상 위에 늘어놓는데, 무엇을 하려는지 그 뜻을 짐작할 수 없었다.

차례로 합을 여는데 보니, 석록색(石綠色) · 수벽색(水碧色) · 유금색(乳金色) · 니은색(泥銀色)의 물감들이 가득 차 있다.

그는 책상에 기대어 부채를 펴놓고, 노석(老石)과 함께 치죽(稊竹)을 그린다. 나는,

“저는 선생이 용면(龍眠)⁷⁹의 높은 솜씨를 가지신 줄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였더니, 형산은,

“그저 마음먹은 뜻을 표해 본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한다. 나는,

79 용면(龍眠) : 송의 화가 이공린(李公麟)의 호 용면거사(龍眠居士). 용면은 산 이름.

“저 뱀의 발등과 매미의 날개처럼 생긴 것이 문득 천 길을 뻗을 기세가 있어 보이는데요.”

하였더니, 형산은 크게 웃으며 이내 화제로서,

아름다운 푸른 대는 임의 풍채 보는 듯이⁸⁰ | 緑竹瞻君子
굽어진 저 언덕에는 임의 소리 듣는 듯이⁸¹ | 卷阿矢德音
이 부채를 펼쳐 내어 그림 한 폭 그려 들고 | 揮毫開便面
두 손을 맞잡으니 마음마저 같으이 | 握手得同心

라는 네 글귀를 쓰고 나서, 또 이름과 자를 새긴 작은 인(印)을 다른 종이에 찍어 도려내어 왼쪽에 붙이고는 접어서 나에게 주었다. 내가,

“옛날 음악은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말까요?”

하였더니, 혁정은 웃으면서,

“선생은 꽈이나 옛것을 좋아하는 주장이십니다. 대개 세상에서 음악을 말하는 자가 율을 말하면서도 시는 말하지 않고, 시는 말하면서도 덕은 말하지 않고, 덕은 말하면서도 가세(家世)는 말하지 않고, 가세는 말하면서도 풍속은 말하지 않고, 풍속은 말하면서도 운수는 말하지 않아, 의론만 분분하여 혀되어 상당(上黨) 양두산(羊頭山)에서 검정 기장을 찾는다든지,⁸² 진회(秦淮) 못가에 가서 가회법(葭灰法)을 한다⁸³ 하여, 음악은 필경 옛날의 고아한 것은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선궁률(旋宮律)이나 기조(起調)에 관한 법은 제가 본 바를 앞에서 대강 말했지만, 노래와 시에 있어서는 고인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유쾌한 사람은 웃지 않을 수 없고, 슬픈 자는 울지 않을 수 없고, 배고픈 자는 먹을 것을 찾지 않을 수 없고, 목마른 자는 물을 찾지 않을 수 없어, 허위와

80 아름다운……보는 듯이 : 《시경(詩經)》〈기옥편(淇澳篇)〉에 나오는 말.

81 굽어진……듣는 듯이 : 《시경》〈권아편(卷阿篇)〉에 나오는 말.

82 상당(上黨)……찾는다든지 : 산서성 상당 고을에 있는 산으로서, 악기와 수척을 맞추는 데 쓰는 검정 기장이 난다 한다.

83 진회(秦淮)……한다 : 강서성에 있는 강인데, 아름다운 갈대의 소산지.

가식이 없고 억지로 하는 일이나 구차한 것이 없습니다. 이같이 마음에 한번 감동되면, 비록 너무 즐거우면 음탕해지고, 너무 슬프면 병이 나는 폐단이 있지만, 모두가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지 않는 것이 없으니, 소위 시경 3백 편은 한 마디로 말해서 간사함이 없는 생각⁸⁴이란 이것입니다.

윤대인(尹大人)의 시(市) · 정(井)의 비유는 정말 음악의 실정을 얻은 것으로, 양쪽이 서로 팔고 사고 할 때에 값을 다투다가도 뜻에 맞지 않으면 매매는 성립될 수 없을 것이니, 사람을 협박하고 억지 흥정을 하는 것은 인화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경 3백 편은 모두 사람의 감정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바일 것입니다.[이상은 시를 논한 것이다.] 유천(維天)⁸⁵과 집경(執競)⁸⁶을 칙천(勅天)⁸⁷과 갹재(賡載)⁸⁸에 비하면, 진실(眞實)하고 소박(素朴)한 품이 좀 모자라나 문장의 화려한 면은 더욱 나을 것입니다. 한 · 위의 악가로서 안세(安世) · 방중(房中)⁸⁹을 비롯하여 주안(朱鴈) · 천마(天馬) · 삼조(三祖)⁹⁰ 같은 사장(詞章)들의 뜻을 너무 과장해 놓았으니 과연 유천 · 집경에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유하건대, 송사(訟事)를 듣는 것과 같아서, 이유가 바른 자는 모양이 씩씩하고 말이 간단하며 목소리는 화창한 것이요, 이유가 그른 자는 얼굴에 성이 나고 기색은 거칠며 말은 많고 소리가 떠들썩한 것입니다. 후세의 사신(詞臣)들이 이런 가사를 위조하는 데는 오로지 간사하고 아첨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보면, 이미 그 덕이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소리가 먼저 떨릴 것입니다. 귀신이 내릴 때나, 사람들이 화락할 때는 말할 것 없이, 노래를 부를 때는 기쁘지도 않은데 억지로 웃고, 슬프지도 않은데 억지로

84 시경……생각 :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말.

85 유천(維天) : 주 문왕(周文王)에게 제사하던 노래의 한 구인 유천지명(維天之命). 《시경》의 <주송(周頌)>에 나온다.

86 집경(執競) : 주 무왕(周武王) · 성왕(成王) · 강왕(康王)에게 제사하던 노래의 한 구인 집경무왕(執競武王). 《시경》<주송>에 나온다.

87 칙천(勅天) : 순(舜)의 노래 중의 한 구로 칙천지명(勅天之命). 《서경》<익직편(益稷篇)>에 나온다.

88 갹재(賡載) : 계속해서 이룩한다는 뜻인데, 고요(臯陶)가 순의 노래를 계속하여 화답한 노래. 《서경》<익직편>에 나온다.

89 안세(安世) · 방중(房中) : 한(漢) 방중(房中)에서 제사하던 노래의 일종.

90 주안(朱鴈)……삼조(三祖) : 한 무제(漢武帝) 때 지은 악장(樂章).

우는 것이나 다름 없을 것이니, 마음에 감동되어 우러나오는 소리처럼 화창하다 하겠습니까, 괴굴(愧屈)하다 하겠습니까. 그 말로 읊는 것도 이러할진대 음률의 소리야 가히 알 수 있을 것이며, 음률의 소리가 이러할진대, 소리에 조화된 음률이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또 서산(西山) 채씨(蔡氏)⁹¹가 말한, 이른바 원성(元聲)을 어디에 의거해서 찾을는지 모르지만, 이 원성이란 음률에 있는지요, 도덕에 있는지요. 이것은 도덕을 근본으로 삼은데다가 시를 짹지었을 것이요, 소리를 주장으로 삼고 율은 다음으로 삼았을 것입니다.[이상은 덕을 논한 것이다.] 군자가 나라를 창설하고 대를 이을 때는, 만세에 무너지지 않을 터전을 세우지 않는 이가 없어, 주공이 노(魯)를 다스리고, 태공이 제(齊)를 다스리던 것과 같았으나, 또한 말 손(末孫)이 불초(不肖)하고 본족, 그들 둘은 일찍이 이에 대하여 의론이 있었고,⁹² 그 자손의 일이 이미 백 세 앞서 변천될 줄을 알고, 음악에서도 역시 변천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상은 가세(家世)를 논한 것이다. 풍속에 이르러서는 사방이 각각 달라서, 소위 백 리에 풍(風)이 같지 않고 천 리에 속(俗)이 같지 않다는 것이 곧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정(刑政)으로도 미치지 못하고, 언어로도 달랠 수 없는 처지라도, 오직 음악만은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신기(神機)와 묘용(妙用)이야말로 바람처럼 움직이고 햇빛처럼 비치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고무시켜서 그 공화(功化)의 빠름이 우(羽) 춤을 두 뜰에서 춘 지 70일 만에 오랑캐가 감화되었다⁹³ 하니, 비록 이것을 일러 풍속을 바꾸어 단번에 도에 이르렀다 하여도 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남방의 부드러움과 북방의 강한 것을 바꿀 수 없을 것이요, 정성(鄭聲)의 음란한 것과 진성(秦聲)의 거센 것은 변할 수 없을 것이니, 이것은 제각기 향토의 소리를 기품으로 타고 났으므로 성인도 역시 풍속의 다른 바를 어찌지 못한다 하여, 정의 음탕한 소리를 내쳐 버리라⁹⁴ 하였을 때

91 서산(西山) 채씨(蔡氏) : 채원정(蔡元定). 서산은 호.

92 주공이……있었고 : 주공은 노를 다스리고, 태공은 제를 다스릴 때, 주공은 문치(文治)를 주장하였으나 후손이 문약(文弱)에 빠질 것을 예측했고, 태공은 무치(武治)를 주장하였으나 후손이 무단(武斷)이 있을 것을 예측하였다.

93 우(羽) 춤을……감화되었다 : 《시경》에 나오는 구절.

94 정의……버리라 : 《논어》에 나오는 구절.

틈이었던 것입니다.[이상은 풍속을 논한 것이다.] 성인도 능히 어찌지 못하는 것은 운수입니다. 영후(盈虧)와 소장(消長)은 하늘의 운수요, 고허(孤虛)니 왕상(旺相)이니 하는 것은 땅의 운수입니다. 오래되면 변화를 생각하고, 묵으면 새것을 찾고, 궁하면 통하고 싶어하는 것은 운수의 기회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칠일겁(七日劫) 찰나의 반대로 가장 오랜 세월)은, 우리 유교에서 말하는 5백 년의 일기(一期)인데, 이 기회에 성인이 탄생하면 시운이 잘 조화되어 천지간의 모든 일을 이룩할 때입니다. 하(夏)가 충성을 승상한 것이라든지, 은(殷)이 질박함을 승상한 것이라든지, 주(周)가 문화를 승상한 것이라든지, 영씨(嬴氏 진(秦)의 성)가 봉건(封建)을 파하고 정전법(井田法)을 없애어서 천고에 죄안(罪案)이 된 것은, 실상 시운의 어쩔 수 없었던 바였습니다. 기름진 고기는 사람마다 즐기는 바이지만, 오랫동안 앓는 사람에게는 비록 한 솥의 고깃국이나마 냄새만 맡아도 구역이 날 수 있고, 비록 풀 뿌리와 나무 열매라도 흔연히 입맛에 맞을 수 있습니다. 비록 노래를 잘 부르는 자라도, 한 곡조만 항상 부르면 들판 죄중도 자리에서 일어설 것이요, 법이 오래 되면 폐단이 생기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고칠 줄 모르는 자를 교주고슬(膠柱鼓瑟)이라 이르는 것이니, 이것은 인정이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순의 정치가 없이는, 비록 소무(韶舞)가 있더라도 찬성하고 반대하는 틈에서 귀신과 사람이 화합하기는 어려울 것이니, 이것은 성인도 세상 운수의 순환에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이상은 운수를 논한 것이다.] 무릇 글자가 생긴 지 오랜지라, 공자가 산정(刪定)하여 기술한 것이 곧 천지·시운의 한 개 커다란 변화라 할 것이니, 공자도 부득이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공자가 돌아가신 뒤로부터, 백가(百家)의 말이 분분히 그 사이에 섞여 나와, 그 책들도 몹시 많아서 사람마다 제각기 마음대로 하여, 조그마한 아이들까지도 함부로 천성(天性)이니 인명(人命)이니 하는 이굴(理窟) 속으로 데려가곤 해서 육예(六藝)를 현 갓처럼 보았기 때문에, 드디어 사도(師道)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가 없어지매, 옛날 사도(司徒)⁹⁵의 직분과 전악(典樂)⁹⁶의 관직은 협된 자리만을 그대로 두고는 구차한 협소리만 하게 되었습니

95 사도(司徒) : 주(周) 시대에 교육을 맡았던 관리.

96 전악(典樂) : 주 시대에 음악을 맡았던 관리.

다. 이로 말미암아 음악은 천한 광대에게 돌아가고, 귀인 자제로서 충명하고 준수한 자는 혗되어 무작(舞勺) · 무상(舞象)⁹⁷의 나이를 지내고 보니, 비록 상현(上絃)과 하관(下管)에 팔음(八音)이 잘 맞는다 하더라도, 어떤 것이 궁성 · 우성이 되고, 어떤 것이 종(鍾)과 여(呂)가 되는지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혹시 음률을 좋아하여, 여염집에서 거문고를 타고 젓대를 부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모두 부랑자(浮浪者)나 파락호(破落戶)를 면하지 못하고 보니, 자제들의 치욕으로 여기고, 부모들의 금하는 바가 되며, 향당(鄉黨)이 천히 여기는 바가 되어, 옛 성인들이 교육과 정치를 잘하는 데는 신기 · 묘용으로 알던 것이 오로지 광대나 천인들의 책임으로 되어 버렸으니, 만에 하나라도 이런 이치는 없을 것입니다.”

한다. 형산은,

“옳은 말씀입니다. 주(周)의 시절에는 국자(國子)에게 춤을 가르치는 데 대서(大胥)를 시켜서 춤추는 자리를 바로잡고 소서(小胥)를 시켜서 춤추는 항렬을 바로잡았으니,⁹⁸ 이 법이 한의 시대까지 있었습니다. 천하고 낮은 자의 자식들은 종묘의 제사 때 춤을 추는 데 참가하지 못했고, 무릇 무생(舞生)은 모두 2천 석(石)으로부터 6백 석에 이르는 관내후(關內侯)나 대부(大夫)의 적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얼마 지나지 않은 옛날이었으나, 그 선택하는 것이 일정했고, 교육을 위한 준비가 이같았습니다.”

한다. 나는,

“7균(勺)이니 12균이니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였더니, 형산은,

“균이란 것은 가지런하고 고른 것으로, 말하자면 운(韻) 자와 같습니다. 시를 짓는 자가 말하는 4운(四韻)이니 8운이니 10운이니 하는 것과 같습니다. 7균이란 것은 7성(聲)⁹⁹의 한 운이요, 12균이란 것은 12율의 한 운입니다. 옛날에는 운이란 글자

97 무작(舞勺) · 무상(舞象) : 주공(周公)이 지었다는 춤으로 어려서는 무작을 익히고, 장성해서는 무상을 익힌다고 했다.

98 대서(大胥)를……바로잡았으니 : 주(周) 시대에 음악을 맡은 관원.

99 7성(聲) : 궁(宮) · 상(商) · 각(角) · 치(徵) · 우(羽) · 변궁(變宮) · 변치(變徵).

가 없었으므로 균(均)¹⁰⁰이라 했습니다.”

한다. 형산은 다시,

“귀국에는 《악경(樂經)》이 있다더니 참말 그렇습니까?”

하고 묻는다. 나는,

“이것은 떠돌아다니는 말입니다. 중국에도 없는 것이 어찌 외국에 있겠습니까.”

하였더니, 혹정은,

“이것은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세상에서는 악경도 진(秦)의 불 속에 들어갔다고 한 탄하지만, 제 생각은 중국에도 처음부터 악경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다. 나는,

“사전(史傳 사마천의 《사기(史記)》)에는 기자(箕子)가 조선(朝鮮)으로 피해 올 적에 시(詩) · 서(書) · 예(禮) · 악(樂)과 의(醫) · 무(巫) · 복서(卜筮) · 공기(工伎)의 무리 5천 명을 데리고 함께 동쪽으로 나왔다 하였으니, 6예(藝)는 모두 진 시황(秦始皇)의 화염 속에 타지 않고 우리나라에 유전(流傳)되었다고 합니다.”

하였더니, 혹정은 웃으면서,

“이것은 본래 중국에서 호기(好奇)하는 인사가 꾸며서 만든 말입니다. 풍희(馮懸)¹⁰¹의 《고서세본(古書世本)》도 이런 것으로, 소위 《기자조선본(箕子朝鮮本)》이란 본래 기자를 조선에 봉할 때부터 전해 오던 고문 《서경(書經)》이라 하여 제전(帝典 《서경》의 요전(堯典)과 순전(舜典))으로부터 미자(微子 《서경》의 편명)까지에 그쳤고, 그 끝에는 다만 홍범(洪範 《서경》의 편명) 한 편을 붙였는데, 팔정(八政 홍범 중에 있는 말) 밑에는 52자를 더했습니다. 고정림(顧亭林)의 《일지록(日知錄)》에서, 왕추간(王秋澗)¹⁰²의 《중당사기(中堂事記)》에 의거하여 이미 위찬(僞撰)이란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한다. 나는,

“제가 심양에 들어온 뒤부터, 수재(秀才)를 만나면 문득 우리나라에 《고문상서(古

100 균(均) : ‘주택본’에는 ‘均’으로 되었다.

101 풍희(馮懸) : 후위(後魏)의 정치가. 희는 이름이요, 자는 진창(晉昌).

102 왕추간(王秋澗) : 원(元)의 학자 왕운(王惲). 추간은 호요, 자는 중모(仲謀).

文尚書》)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대개 기자가 조선으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혹은 위만(衛滿)이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데, 위만은 비록 저 스스로 상투를 묶고 오랑캐 옷을 입었다지만, 역시 저대로는 호걸로 자처하였을 뿐더러, 그 무리 수천 명 중에는 역시 선비로서 경서를 안고 진(秦)을 피하여 따라 나온 자가 없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인즉, 이치에 괴이할 것 없습니다. 그러나 고구려는 본래 무력을 숭상하여 다만 약탈을 좋아하고 보니, 설사 끼쳐진 경서가 있었더라도 이것을 받들어 소중히 여길 줄 몰랐을 것이고, 또 여러 차례 난리를 치른 나머지 우리나라에서 1천여 년 아래로 《고문상서》가 있다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하였다. 혹정은,

“선배 주석창(朱錫鬯)¹⁰³이 이미 변증한 바입니다. 주서(周書 《서경》의 편명) 공안국(孔安國)¹⁰⁴의 서문에, 성왕(成王)이 동쪽¹⁰⁵ [이] 한 점은 이(夷) 자인데, 그가 나를 대하였으므로 이를 피했다. 대체 그는 호(胡) · 노(虜) · 이(夷) · 적(狄) 등 글자는 모두 기晦하였다.]을 이미 치자 숙신(肅慎)¹⁰⁶이 와서 축하하니, 성왕은 영백(榮伯) 주(周)의 종실이요, 정치가)을 시켜 숙신에게 보내는 칙서(勅書)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 전기(傳記)에 의하면, 해동의 여러 종족들로서 구려(句麗 고구려의 약칭) · 부여(扶餘) · 간맥(駢貊) 등은 무왕이 상(商)을 쳐서 이겼을 때부터 교통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주(朱)는 《주서(周書)》의 〈왕회편(王會篇)〉에, 직(稷) · 신(慎) · 예(穢) · 양(良) 같은 나라는 처음으로 보이지만 구려니 부여 같은 이름은 없다 하여 《동국사(東國史)》에서 인용하기를, ‘구려의 건국이 한 원제(漢元帝 유석(劉奭)) 건소(建昭) 2년(B.C.37)이라면, 공안국이 황제의 명령을 받고 이 글을 쓸 때는, 구려와 부여는 중국과 아직 교통이 없었을 때이거늘, 더구나 주가 상을 쳤을 때 일까보냐’ 했습니다. 주자는 사람이 8세가 되어서 모두 소학에 들어가면, 예(禮) · 악(樂) · 사(射) · 어(御) · 서(書) · 수(數)에 관한 글을 가르쳤다¹⁰⁷고 했지만, 이 이

103 주석창(朱錫鬯) : 주이준(朱彝尊). 석창은 그의 자.

104 공안국(孔安國) : 한의 저명한 학자. 안국은 이름.

105 동쪽 : 여러 본에 모두 ‘동’으로 되어 있으나 그릇된 것이므로, 여기서는 ‘수택본’을 따랐다.

106 숙신(肅慎) : 고조선(古朝鮮)과 병립했던 북방족.

107 예(禮)……가르쳤다 : 대학장구 서(大學章句序)에 나오는 한 절.

야기는 옛날 세상의 학교를 말한 것으로서 고대에야 이런 글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소위 쇄소(灑掃)하고 응대(應對)하는 것은 예라는 것이요, 노래 부르며 춤추는 것은 악이요, 사·어·서·수도 이런 것으로 미루어 가히 알 수 있을 것이니, 6예(藝)를 가르쳤다는 것은 옳지만 6예의 글을 가르쳤다는 것은 후세 사람들의 억설일 것입니다. 옛날 세상에는 과녁으로 밝히고 채찍으로 가르쳤을 따름이니, 공자가 말한 학예에 논다¹⁰⁸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또 말하기를, “열다섯 살이 되면 천자의 맏자식과 중자(衆子)들을 비롯하여 공경(公卿) 대부(大夫)의 적자들과 민간의 준수한 아이들이 모두 대학에 들어갔다” 하였으니, 이는 옳은 말입니다. 또 이치를 연구하고, 마음을 바로잡고, 자기 몸을 닦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도리를 가르쳤다는 말¹⁰⁹은 후세의 억설일 것입니다. 6예를 강습하는 것이 곧 이치를 연구하고 마음을 바로잡는 실증이므로, 옛날 사람은 실천궁행에 힘쓰고 보니 이런 것은 저절로 터득했을 것인데, 어찌자고 15세 전에는 서둘러서 6예에 관한 글을 배우고, 15세 후에는 6예는 버리고 먼저 자기 몸을 닦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도리를 알아야만 했겠습니까. 알지 못하겠습니다. 상세(上世)에 어느 도학선생(道學先生)이 고을에 있는 학교나 서당마다 앉아서, 무슨 이학전서(理學全書)를 펴놓고 이것은 형이상(形而上)의 이론이요, 이것은 형이하(形而下)의 실천이라고 가르쳤겠습니까. 13세에 작(勺)춤을 추고 15세에 상(象)춤을 추며, 20세에 대하(大夏) 우(禹) 때의 무악(舞樂)춤을 춘다고 한 것은, 아마도 상고 세상에 있었던 소학·대학의 과목 순서가 이러하였음을 불과했을 터인데, 후세 선비들은 상세에는 6예에 관한 글이 본래 없었던 것을 알지 못하고, 입만 열면 제각기 진 시황을 욕하면서 불태우기 전에 있었던 완전한 경서가 모두 해외로 유락(流落)되었다고 의심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구구(歐九)¹¹⁰가 지었다는 일본도가(日本刀歌) 같은 것은 더구나 가소로운 일입니다. 대체 천지간에 가득 차 있는 사물이란, 형상과 동작과 정리와 환경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시험삼아 이것을 6예에서 따져 본다면, 예란 것은 실천을 해

108 학예에 논다 : 《논어》에 나오는 구절.

109 열다섯……가르쳤다는 말 : 《대학장구》 서문에 나온다.

110 구구(歐九) : 구양수(歐陽脩). 구(九)는 형제의 순서. 유분(劉蕡)이 일찍이 구양수를 평하기를, “아름다운 구구가 글을 많이 못 읽은 것이 한스러운 일이다” 하였다.

야 되는 것으로, 무엇이나 실천을 할 때는 반드시 자취가 있는 법입니다. 활을 쓸 때도 제 몸을 바로잡은 후에야 화살을 놓는 법이니, 이것이 활쏘는 형식입니다. 말고삐를 깍지끼듯 잡고 두 마리의 말이 춤추듯 뛰는 것은 말을 타는 법식이요, 하나에 돌을 더하면 셋이 되는바, 이로부터 1천 년을 가도록 이렇게 계산하면 이것은 수학의 기술이요, 글씨의 육의(六義)에는 형상을 본뜻 상형(象形)이 가장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음악만은 내용은 있지만 형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무릇 형체가 있다는 것은 굵직한 형적을 보인 것으로, 모두 언어로 형용할 수 있고 문자로 기록할 수 있지만, 형체가 없다고 한 것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멀고 아득한 사이에서 깨우쳐 교양시킬 수 있고, 황홀한 속에서 활동을 합니다. 감추면 조용하고, 소리를 내면 화(和)하고, 소리가 아름답게 모일 때는 예절에 맞고, 소리가 적중하는 것은 활쏘기와 같고, 고르기는 말타기와 같고, 빌려 쓰기는 글씨와 같고,¹¹¹ 숫자를 더하는 것은 수학과 같아서, 털끝 사이에서 감돌고 핏줄처럼 펴집니다. 올 때에는 어렵 풋하여 마중하고 싶고, 갈 때에는 묘연하여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더듬어도 얻을 것이 없고, 보아도 눈에 띠는 것이 없이, 사람으로 하여금 뼈까지 비통하도록 하고 내장까지 즐겁도록 하여, 가다가도 되돌아서서 못 잊는 것만 같고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질 때는 갑자기 딴 생각이 나는 듯합니다. 몹시 맑고 향내도 없으며 지극히 가늘고 보니 그림자도 없으며, 매양 빽빽하게 틈도 없고, 몹시 크고 보니 바깥이 없으며, 화목하니 흩어지지 않고, 아담하니 빛깔도 없으며, 신비스러우니 마음도 없고, 현묘(玄妙)하니 말도 없는바, 대개 가볍고 민첩한 말로써도 이것을 형용 할 수 없거늘, 하물며 문자의 조박(糟粕)으로써 될 것이겠습니까. 이러므로, 저의 생각에는 삼대(三代) 이래로 당초에 《악경(樂經)》이 없었다고 여깁니다.”

한다. 형산은 수없이 권주를 치고는,

“먼저 사람들이 알지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악기(樂記) 한 편은 도리어 추솔함에 족할 것입니다. 악기란, 본래 한(漢)의 선비들의 부랑(浮浪)한 글입니다.”

한다. 나는,

111 빌려……같고 : 육서(六書) 중에 가차(假借)의 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장(長) 자는 ‘길다’는 뜻을 빌려 서 ‘여론’의 뜻으로 쓰는 것.

“성인이 지은 책들은, 전성(前聖)의 도를 계승하고 뒤에 오는 학자들의 길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공자가 위(衛)로부터 노(魯)에 돌아와 시를 정리하고 예를 바로잡을 때에, 어찌 훌로 음악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저술한 것이 없을까요.”

하였더니, 혹정은 아무 말 없이 한참 있다가,

“그런 저술은 없습니다. 공자가 시를 정리하고 예를 바로잡았다는 것이 곧 악학(樂學)입니다. 음악의 본질은 시에 팔려 있는 것이요, 음악의 이용 역시 여기에 속합니다. 언어로 사람을 가르칠 때는 그 물정이 그릇되기 쉽고, 문자로 사람을 가르칠 때는 그 천기(天機)가 얇은 것입니다. 무릇 음악이란 것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이 빠르지만 촉박하지 않고, 나타나지만 드러나지 않고, 깊지만 어둡지 않고, 완곡하지만 굳센 수 있으며, 곧으나 굽힐 수 있으며, 부양(俯仰)하고, 감개(感慨)하고, 희희(歎歎)하고 간절해서, 그것을 사람이 들으면 두렵고, 떨리도록 놀랍고, 죽은 듯이 텅 비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언어와 문자 밖에 따로 말하기 어려운 말과 글자 아닌 글자를 빌려서, 높게는 하늘에 배합하고 낮게는 땅에 배합하며, 굴신하기는 귀신과 배합하고, 순환하기는 세시(歲時)와 배합하며, 만물을 윤택하게 함에는 우로(雨露)의 덕택을 빌리지 않고, 사람을 일깨움에는 일월의 빛을 기다릴 것이 없으며, 사람을 고동(鼓動)시킴에는 바람과 우레처럼 급하지 않고, 점차 스며들되 강물의 범람과는 달라서, 금·석·사·죽·포·토·혁·목의 소리가 효제(孝悌)·충신(忠信)·예의(禮義)·염치(廉耻)의 행실이 아니건만, 입으로 불고 손가락으로 타고 팔로 춤추고 발로 뛰는 것도 모두 사단(四端)이 유연(油然)하고 칠정(七情)이 한연(汗然)한 것은, 이 누가 시킨 것이겠습니까. 사람의 사지와 백체를 말없이 깨우쳐 준다는 것이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입니다. 대개 상세(上世)에는 문서가 넓지 못하여, 항간에서 부르는 노래를 나라에서 세운 학교로 끌어들여 글자를 맞추어 구절을 만들고 이것을 악기에 맞추었으므로, 옛적에는 대학에서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이 반드시 책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것이 곧 학문으로 되었었습니다. 점(點)의 슬(瑟)¹¹²과 회(回 안회(顛回))의 거문고가 있는 데는 유상(遺像 공자의 초상)이 훌로 남아 있고, 청묘(淸廟)

112 점(點)의 슬(瑟) : 공자의 제자 증점(曾點). 그는 슬을 잘 탔다. 《논어》에 나오는 말.

주문왕의 사당)에서 세 번 읊으면 문왕을 보는 듯하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5음이란 것이 소리의 문리(文理)라면, 6률이란 소리의 뜻일 것입니다. 몸은 각각인데, 똑같이 맞는 것은 소리의 덕행이요, 잡티 없이 순수하여 드러내는 것은 아(雅)하다는 것으로, 아하다는 것은 소리의 광휘(光輝)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특히 이같은 저작하지도 않은 책과 말도 없는 뜻에 유의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도록 해서, 성격이 좋은 자는 덕을 알게 되고, 성격이 나쁜 자는 음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인이 과거의 학문을 계승하고 뒤에 오는 후진들을 계시하는 뜻일 것입니다. 아래서 저는 《악경(樂經)》이란 처음부터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다. 나는,

“6예에, 음악에 관한 저서가 없었다는 것은 이미 들은 말입니다. 그러나 악보(樂譜)는 있는가요?”

하였더니, 형산은,

“가석하게도 고보(古譜)는 모두 타버리고 지금은 전하지 않습니다.”

한다. 나는 또,

“그것도 진(秦)의 불인가요.”

하고 물었더니, 형산은,

“아닙니다. 수의 만보상(萬寶常)은 《악보》 64권을 지어, 8음이 저마다 궁(宮)에서 기조가 되는 법을 함께 말하면서, 줄을 갈고 지주(支柱)를 바꾸어 84조 1백 44율로 변하여 8천 1백 소리에 맞도록 했더니, 당시의 사대부들이 이를 배척하여, 보상은 마침내 굽어죽으면서 격분한 나머지 그 책을 모두 태워 버렸습니다. 명의 가정(嘉靖) 때, 태복승(太僕丞) 장악(張鶴)이 지은 《악서》에는, 첫째로 대성악도보(大晟樂圖譜)라 하여 거문고 종류로부터 이하 여러 악기들의 보(譜)를 하나씩 지었고, 둘째로 《고아심담(古雅心談)》을 지었으며, 같은 시대에 요주 동지(遼州同知) 요문찰(姚文察)이 저작한 악서로서 《사성도해(四聲圖解)》·《악기보설(樂記補說)》·《율례신서보주(律呂新書補注)》·《흥악요론(興樂要論)》 등이 있었고, 그 후에도 《율례정의(律呂精義)》·《오음정의(五音正義)》·《악학대성지결(樂學大成旨訣)》 등과 같

은 책은 모두 성기(聲器)의 도수(度數)를 강론한 것입니다. 금보(琴譜)에는 조현(調鉉) · 농현(弄鉉) · 수법(手法) · 수세(手勢) 등이 있고, 당랑포선(螳螂甫蟬)이니, 평사낙안(平沙落雁)이니, 일간명월(一竿明月)이니, 감군은(感君恩)이니 하는 법은 모두 금사(琴師)의 구결(口訣)입니다.”

한다. 혹정은,

“대개 음악이란 보(譜)가 없을 수도 있으니, 귀신이 통할 만큼 조화가 붙으면 《역경(易經)》 한 부가 곧 악보라 할 수 있을 것이요, 음악이란 것은 비결이 없을 수도 없으니, 사물에 따라서 뜻을 붙여 들이면 우소(虞韶) 한 편도 저절로 천지 사이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글자를 포개어 써서 모두 음악의 비결로 삼았던바, 바람의 습습(習習)함과 비의 처처(淒淒)함과 사슴의 유유(黝黝)함과 새의 영영(嚶嚶)함과 기러기의 옹옹(鼴鼴)함과 여우의 유유(綈綈)함과 저구(睢鳩)의 관관(關關)함과 벌레의 흥흥(薨薨)함과 날개의 숙숙(肅肅)함과 사냥개의 영영(令令)함과 방울의 장장(將將)함과 얼음 뜨는 충충(沖沖)함과 나무 베는 정정(丁丁)함이 모두 인용하여 비결을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다. 나는 또,

“중국의 악성(樂聲)은 한 글자가 한 율이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혹정은,

“아닙니다. 한 글자에도 청탁과 억양의 법이 있고 평(平) · 상(上) · 거(去) · 하(下)의 다름이 있거늘, 하물며 노래란 영언(永言)이요, 영언을 읊는 것이겠습니까.”

한다. 나는,

“공자가 백어(伯魚 공자의 아들 공리(孔鯉))에게 말한 주남(周南) · 소남(召南)을 하였느냐는 것도, 후세에서 논한다면 하루아침에 가히 월 수 있을 것이요, 반드시 어진이에게 물어 볼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자가 읽었느냐고 묻지 않고 했느냐¹¹³고 물었으니, ‘한다’는 것은 음악을 노래한다는 말입니까?”

하였더니, 혹정은,

“선생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것은 먼저 사람들이 하지 못한 말을 하신 것입니다.”

113 주남(周南)……하였느냐 : 《논어》에 나오는 한 절.

옛적의 노래는 후세의 독서나 다름이 없습니다. 상세의 서적은 《역경》·《서경》·《시경》·《예기》에 불과하여 모두 천자의 도읍에 감추어 두었던 것이므로, 공자가 주에 가서 노담(老聃 하(夏)의 후손)에게 예를 물었다는 것도 이 까닭입니다. 비록 공자 같은 성인으로서도 50세에 비로소 《역경》을 읽었다고 하여, 70명 제자들이 한번도 《역경》에 대한 말을 하지 않았고 언제나 시·예를 논함에 불과했는데, 이 것도 모두 입으로 전한 것으로 후세에서 날로 늘어가는 번문(繁文)과는 달라서, 당시에 배운다는 것은 제사지내고 인사하는 동안에 문관(文官)은 깃을 꽂고 무관(武官)은 도끼를 들고, 아침에는 거문고를 타고 저녁에는 노래를 했을 따름입니다. 공자가 말씀하기를, ‘하(夏)의 예를 내가 능히 말할 수 있으나 기(杞 은(殷)의 후손)로써 중험삼기 부족하고 은(殷)의 예를 내가 말할 수 있으나 송(宋)을 중험하기 부족한 것은 문헌이 부족한 탓이다’¹¹⁴ 한 것을 보아, 이런 예절도 흘러온 내력이 입으로 전해온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른바 이미 배운 것을 때로 복습한다는 말도 곧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자가 백어에게 말씀한 다음 장에는 예(禮)라 악이라 일렀지마는, 이 구절도 실상은 제사지내고 노래부르는 것 이외에 예악의 근본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의미를 일깨워 이르는 말투입니다. 관저장(關雎章) 같은 시는 그 시가 된 품이 친절하게 재삼 번복하여 지성에서 우러나오고, 애끓는 동정의 표정이 마음의 덕성과 사람의 도리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은 대체로 가사의 뜻이 그려함이요, 즐거워도 음탕하지 않고 슬퍼도 몸을 상하지 않는 것은 대체로 그 성음이 그러했던 탓입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태사(太師) 지(摯 태사의 이름)가 처음 음악을 지도하게 되자, 관저의 조리 있는 음률이 귀에 출렁출렁 넘친다’¹¹⁵라고 한 것이 이를 두고 말한 것입니다. 후세에는 시를 공부할 때 악기와 노래를 없애고는 네모난 책만 마주 대하여 되었습니다. 이로써 소리와 시가 둘로 갈리고 보면, 주자가 《시경》을 주석(注釋)하면서 정풍(鄭風)·위풍(衛風)과 같은 시를 아주 음탕한 것으로 돌려 버렸으니, 이는 시의 음탕한 뜻만 깨닫고, 음곡은 깨닫지 못한 탓입니다. 남녀 간의 사사로운 즐거움은 남이 알까 두려워하는 바인데, 어찌 길가에서 자

114 하(夏)……탓이다 : 《논어》에 나오는 한 구절.

115 태사(太師)……넘친다 : 《논어》에 나오는 한 구절.

신들의 음탕한 행실을 큰 소리로 나타내겠습니까. 그렇다면, 공자가 안연(顏淵)에게 대답할 제, 왜 정의 시를 멀리하라 하지 않고 다만 정의 소리를 멀리하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만약 정의 소리로써 노래를 부르면, 표매(標梅)니 야균(野麿)이니¹¹⁶ 하는 것도 용당 음탕한 시에 속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소리를 눈으로 감상할 것인가, 귀로 감상할 것인가. 학사나 대부들이 그 근원을 따져 음악을 만드는 원리만 찾아 내려고 헤매다가 드디어 음률을 눈으로 찾게 되었습니다. 중세(中世)의 성인들은 귀로 익히는 데 힘썼으나, 오늘의 선비들은 일조에 이것을 눈으로 배우려 하여, 실지로 아침에는 줄을 타고 저녁에는 노래부르고 하는 데는 아무런 공부도 없이, 소리와 음률은 그만두고 한갓 책만 읽게 되었습니다. 이는 송의 시절에 모든 대유들이 입만 열면 음률을 말하였으나 실상 소리를 감상할 줄 모르고 보니, 도리어 악공들의 웃음거리가 되어 필경에는 고루한 데 그치는 것을 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한다. 나는,

“진 · 한 아래로 옛날 음악을 회복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좋은 시운(時運)이 돌아오더라도 음악을 지을 만한 사람이 나지 못할까요.”

하였더니, 혹정은,

“어찌 그렇겠습니까. 주가 쇠할 때에, 문치의 폐단은 극심해지고 제후(諸侯)들은 강대해져서 서로 다투어 가면서 무력을 승상함에 이르러, 태학관을 비워 놓고 제각기 자리를 깔고 장소를 나누어 기세를 높인 자들은 모두가 모사나 술객이었습니다. 이로부터 백가(百家)의 학설이 종횡잡답하여 저마다 자기 학설을 옳다 하고 있었으니, 그 뜻인즉 필경 인 · 익에 근본을 두고 유교의 학설을 빌려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몸은 학교를 떠나 한갓 분묘하게 되고, 예 · 악은 함부로 입으로 떠들 뿐 몸으로는 익히지 않아, 의례에 관한 모습은 점차 눈앞에서 사라지고, 음악 소리는 날로 귀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잠시라도 몸에서 떨어질 수 없는 실물이 쓸데없는 도구가 되어 다시는 익힐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쓸데없는 학문으로써 이치만 밝히려는 자들의 탓입니다. 이러고 보니, 인정은 문식을 싫어하고 질박한 것

116 표매(標梅)니 야균(野麿)이니 : 《시경》의 장명(章名).

을 생각하며, 화려한 것을 미워하고 실지를 취하고, 사치를 버리고 검소한 것을 송상하며, 번거로운 것을 두고서 간략한 것을 찾게 되어, 천하를 다스린다는 자는 백성들로 하여금 암흑과 어리석은 구덩이로 몰아 넣었으니, 이는 반드시 옛날 성인의 정치의 요령이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 책을 불사르고 선비를 파묻는 짓이 진(秦)에 있어서는 진실로 실책을 면할 수 없었으나, 한(漢)으로 보아서는 그대로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또 유방(劉邦)과 항적(項籍)이 싸우던 사이에는, 천하의 젊은 이들은 도탄 속에 시달리다가 다행히 칼끝에서 벗어나게 되어, 비로소 자기의 총명을 가지고 타고난 천품을 발휘하게 되었으니, 이는 곧 시운이 한번 돌아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를 당하여 형벌이란 세 가지 약법(約法)¹¹⁷에 지나지 않고 보니, 법률이 가혹하지 못하여 자기 공로를 주장하던 장수들이 기둥을 치면서 취해 떠들었으므로, 신하들을 그다지 억제하지 않았던 터이요, 조정의 위에는 소박하고 말을 가벼이 하지 않는 장자들이 많아서 남의 과오를 말하기 부끄러워했으니, 풍속도 그다지 박하지는 않았고, 큰 부호들이 죽고 유리하게 되어 농토는 일정한 주인이 없어졌으즉, 천하의 밭을 비로소 한 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文帝)·경제(景帝) 사이에는 이미 한이 일어난 지 40여 년이 되어 숨을 돌린 때라, 들에는 말을 길러 떼를 이루었고, 창고에는 곡식이 썩을 정도로 쌓이고 보니, 각 지방에는 학교를 세울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학사나 대부들은 박사(博士)의 집에 와서 머리를 숙이게 되매, 넉넉히 교육을 실시할 처지가 되었으니,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한(漢)의 초년에는 책 끼고 다니는 것을 금하는 법률¹¹⁸이 오히려 풀리지 않아 천하의 서적은 모두 정부에 몰려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관리만 믿을 뿐이요, 처사(處士)들은 감히 함부로 정치에 관한 일을 의논하지 못한 까닭이었습니다.”

한다. 나는 웃으면서,

“이것은 단사(段師)가 강(康)을 곤륜(崑崙)으로 보내서 10년을 두고 악기를 만지지 못하게 하여 음악의 본령(本領)을 잊어버리도록 한 것¹¹⁹이군요.”

117 세 가지 약법(約法) : 유방이 관중에 들어왔을 때 진(秦)의 부로들과 세 가지의 조항만을 정하고, 나머지 가혹한 법은 모두 제거하였다.

118 책 끼고……법률 : 진 시황(秦始皇)이 지은 협서율(挾書律).

119 단사(段師)가……한 것 : 출전 미상.

하였더니, 혹정은,

“그렇습니다. 세상에 드문 숙손통(叔孫通)¹²⁰ 같은 이는 아침배 속에 끼어 멀리 배 척당했고, 나이 젊고 총명한 조조(鼂錯) 한 무제 때 신진 정치가)와 가의(賈誼) 등 1 백 10여 명은 눈을 막아 다른 책은 못 보게 해서, 음악으로써 문학을 대신 삼고 노래와 악기로써 행실을 깨우쳐, 멀리는 임금에게, 가까이는 부모에게 수족(手足)을 놀리며 춤을 추어서 섬기게 한 후에, 노(魯)의 두 선비를 사도(司徒)의 벼슬에 임명 하였다면, 반드시 예악을 지을 줄 아는 사람이 없었던 것도 아니며, 또 다시 두 마씨(馬氏)와 같은 이들을 학교에 벌여 둔 것으로 보아, 반드시 찬송의 노래를 지을 줄 아는 사람이 없음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들은 무슨 공을 기록하고 무슨 덕을 찬양할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당·송의 제작(制作)이 전혀 공덕으로 표 현할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한다. 나는,

“두 마씨¹²¹는 그들의 문사(文辭)만 취한 것일까요. 가의나 조조도 또한 두 마에게 견주어 어찌 못하겠습니까.”

하였더니, 혹정은,

“비단 그 문장만 취한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음악과 역학(曆學)이 모두 태사(太史)에게 속하여, 한의 율서(律書)에는 음악을 먼저 말하지 않고 군사를 말했으며, 군사 쓰는 법을 말한 것이 아니라 군사를 쉬게 하는 법을 말했으니, 음악과 군사와는 그 거리가 멀지마는, 그러나 천하가 부유하고 백성이 즐겁게 놀 만하면 이것은 평화로운 근본이니, 대개 음악을 제정할 뜻을 깊이 알았다 할 것입니다.”

한다. 나는,

“한(漢)이 천하를 차지한 때가 그렇게도 성(盛)했던가요.”

하고 물었더니, 혹정은,

“선생은 이 무슨 말씀이시오. 어찌 선생은 그렇게도 한의 왕실을 작게 보시나요. 제 생각으로는 한 고조의 공로는 주 무왕보다 못하지 않을 것이요, 그 덕은 주의

120 숙손통(叔孫通) : 한(漢)의 초기에 국가의 의례를 제정한 유학자. 숙손은 성이요, 통은 이름.

121 두 마씨(馬氏) : 저명한 문학자인 사마상여(司馬相如)와 사마천(司馬遷). 사마는 성. 상여·천은 이름.

왕실에게도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못한 것은 서백(西伯 주 문왕의 봉호)의 세가(世家)가 아니요, 주공 같은 숙부와 소공(召公) 같은 대신과 주(周)와 같은 8 백 년의 천록(天祿)이나 공자 같은 유민(遺民)이 없었을 뿐입니다. 무릇 삼대 때에는 천자가 다스린 땅이 천 리를 넘지 못했고, 천백 제후들이 각각 땅을 나누어 다스리면서 대간(大姦)만 아니면 천자에게 관계가 없었습니다. 천자는 25년에 한 번씩 순수(巡狩)를 하고, 율도(律度)와 양형(量衡)을 옳게 만들 뿐이었고, 큰 역적이나 없으면 자기 처소에서 잠자코 두 손 잡고 아무런 하는 일이 없었으니, 다시 무슨 할 일이 있겠습니까. 상하가 유지하고 강약이 견제되어서, 소위 밭이 백이나 있는 벌레는 죽어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진·한 아래로 영토가 만 리나 되고, 필부(匹夫)와 필부(匹婦)의 기포(饑飽)·한난(寒煖)이 모두 천자의 생각 하나에 달려 있어, 천자가 생각 한번만 잘못 가져도 나라는 흙처럼 무너지고 기와처럼 깨어져서 문지방 없는 문정(門庭)이 되어 버렸습니다. 비록 부견(苻堅)의 강함과 두건덕(竇建德)¹²²의 꾀로도 천하의 절반을 얻었다가 일조에 자기 몸이 잡히게 되니 흥망이 덧없었습니다. 한 치 땅과 한 명의 백성이라도 반드시 천자 하나에 매이게 되었으니, 큰 운수가 아니고는 그 지위(地位)를 길이 누릴 수가 없고, 큰 제도가 아니고는 능히 진압할 수가 없었으니, 이와 같이 쉽고 어려움이 고금의 형세와 달랐습니다. 주가 일어날 때에 백이·숙제의 앞에는 태백(太伯)과 중옹(仲雍)¹²³이 있었고, 백이와 숙제의 뒤에는 관숙(管叔)¹²⁴과 채숙(蔡叔)¹²⁵이 있었는데, 한의 왕실이 일어날 때에도 역시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보면 고제(高帝)는 공로는 컸지만 그 마음이 없었고, 문제(文帝)는 덕행은 있었지만 학문이 없었으며, 무제(武帝)는 의지는 있었지만 식견이 없었습니다. 가석한 일은, 미양궁(未央宮)은 축대도 온전히 쌓지 못하고 지형도 바르지 못한 채, 흙 한 줌 돌 한 덩이도

122 두건덕(竇建德) : 수(隋)의 말기에 하북 지방을 근거하여 장락왕(長樂王)이라 자칭하였다.

123 중옹(仲雍) : 곧 우중(虞仲). 형 태백과 함께 형만(荆蠻)으로 가서 그의 아우 계력에게 임금의 자리를 양보하였다. 계력은 문왕의 아버지.

124 관숙(管叔) : 문왕의 셋째 아들 희선(姬鮮)의 봉호. 주공과 성왕(成王)의 사이를 이간하다가 극형을 당하였다.

125 채숙(蔡叔) : 문왕의 다섯째 아들 희도(姬度)의 봉호. 역시 관숙과 동조하다가 추방을 당했다.

공장이에게 맡기지 않고 함부로 몇 길 되는 흙담을 바삐 쌓아서 3백 년 동안을 우물쭈물 지탱해 왔으니, 비유하건대 시골 늙은이가 보리밥에 오이김치로 입에 맞게 배를 채워서 도무지 흥운사(紅雲社) 유명한 요리집인 듯하다)의 풍미(風味)를 돌아보지도 못한 것과 같습니다. 삼로(三老)¹²⁶ 동공(董公)¹²⁷이 여상(呂尙)보다 더 어질고, 호소(縞素)의 한 격문¹²⁸이 태서(泰誓)¹²⁹보다 나을 것입니다.”

한다. 나는,

“한의 공덕에 대한 선생의 말씀은 지나칩니다. 한 고제는 처음에 백성들을 건지겠다는 마음이, 술에 취하여 함부로 고함치던 김에 아방궁을 보고서 망녕되어 일어날 뜻을 세운 데 불과하니, 이같은 군도(羣盜) 중의 결출을 어찌 주의 덕으로 일어난 데에 비하겠습니까. 만일 사적만을 가지고 공을 의논한다면, 고래로 난세(亂世)의 간웅(姦雄)들이 모두 후세에 할 말이 있겠지만, 천하가 이미 정해지고 보면 비록 한두 가지 표현할 것도 없지는 않으나, 이 또한 때를 따라 이해와 편의를 노린 데 불과한 것이니, 소위 신하로서의 의리로야 무엇이 귀하다 하겠습니까. 항우가 한을 위하여 의제(義帝) 초 회왕(楚懷王) 손심(孫心)을 몰아내어 죽이게 한 것은 하늘이니, 만일 항우로 하여금 이러한 난처한 일을 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한왕(漢王)은 천하를 3분하여 그 둘을 차지하면서도 도리어 머리를 숙이고 숨을 죽이고는 의제의 뜰에 옥(玉)과 비단과 죽고 산 새침승을 조공해야 했습니까.”

하였다더니, 혹정은 크게 웃으면서,

“청하건대 선생은 노여워 마십시오.”

126 삼로(三老) : 한의 제도에 백 리에 한 정(亭)을 두고, 십 정에 한 향(鄉)을 두어서, 향에는 삼로를 두어 교화의 사업을 맡게 하였다.

127 동공(董公) : 삼로의 한 사람으로서, 한 고조가 낙양 신성(新城)에 갔을 때에 서로 만났다. 동은 성이요, 공은 봉호.

128 호소(縞素)의 한 격문 : 호소는 백색의 상복. 한 고제가 항적을 치러 신성으로 출병하였을 때, 동공이 길을 가로막고 명분이 없는 군사를 낼 수 없다고 하매. 고제는 그의 말에 의하여 항적이 의제(義帝)를 죽인 죄를 문책하여, 군사들에게 흰 상복을 입히고 제후들에게 격문을 돌려 항적을 칠 것을 호소하였다.

129 태서(泰誓) : 《서경》의 편명. 주 무왕이 은(殷)을 치러 맹진(孟津)에 이르러서 군사와 제후들에게 서약한 글.

한다. 나는 크게 웃고는,

“저는 원래 노여워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니, 혹정은,

“한왕으로 하여금 의제를 섭겨 복종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선생이 의리를 형식으로 따지는 말씀입니다. 삼대 이상은 불가불 데을 의논해야 할 것이요, 삼대 이하로는 불가불 공을 의논해야 할 것입니다. 천명(天命)의 두터운 바로써 짧고 긴 것을 점칠 수 있을 것이니, 주와 한의 데을 비록 같이 말할 수는 없지만, 만일 어리고 외로운 임금을 속여서 천하를 취한 데 비교한다면 어찌 천양의 차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역대 왕조의 길고 짧은 것은 공덕의 많고 적은 데 달려 있습니다. 위(魏)와 진(晉)의 보복은 진실로 선배들의 의론이 있었지만, 당·송이 천하를 차지한 뒤에 몇 대가 못 되어 왕실이 크게 어지러워져서, 천보(天寶) 이후로는 가위 나라는 나라가 아니요, 임금은 임금이 아니었습니다. 양한(兩漢)을 여기에 비교한다면, 애제(哀帝 유흔(劉欣))·영제(靈帝 유굉(劉宏))로도 오히려 임금의 기율을 잡고 있었으며 강토도 나누어지지 않았으니, 이로써 나라를 얻은 것이 바르고 바르지 못한 데 따라 천명의 두텁고 두텁지 않은 것을 족히 증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의제가 있은 연후에 한(漢)의 공덕이 더욱 빛났으니, 당시에 의제를 받들어 세운 것은 항씨(項氏)¹³⁰의 한때 권도에 불과한 것으로, 마침 거소노인(居巢老人)¹³¹의 졸한 꾀에서 나온 것이 당연합니다. 풍진 속에 갑자기 만든 명분을 초매(草昧)의 영웅에게 의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소복을 입고 성토(聲討)한 것은, 비유하건대 양쪽으로 갈려서 송사를 하는데 서로 억지 탈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가령 한 고제가 수수(灘水)에서 패해 죽었던들, 강목(綱目)에서는 예대로 의제 원년에 한왕 유방이 군사를 일으켜 항우를 치다가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고 썼을 것입니다. 의리를 형식으로 따진다면, 무왕이 미자(微子)¹³²나 기자(箕子)를 받들어 세우고 자기는 물러나 번방에 처하였다면, 그가 은의 순수한 신하로서 해로운 것이 없고, 잠자리에

130 항씨(項氏) : 항량(項梁) · 항적의 숙질.

131 거소노인(居巢老人) : 항적의 모사 범증(范增). 거소는 그가 살고 있던 곳이요, 노인은 그가 나올 때에 벌써 70세가 되었기 때문이다.

132 미자(微子) : 주왕(紂王)의 서형. 미자는 봉호.

서 눈물을 흘려 끝까지 천위(天威)를 두려워한 것은 경시(更始)의 어진 종실이 되는 데 해롭지 않았으리다.¹³³ 청궁(淸宮 위(魏)의 대궐 안채)을 차지하고 거처하는 것은 책망하지 않고, 도리어 죄를 성제(成濟)에 옮겼습니다.¹³⁴ 마음을 가다듬어서 천천히 궁리한다면, 항씨의 집에서 높이는 의제가 한에게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의제를 강상(江湘) 백 리 되는 나라에 봉하고 한의 손님으로 여겼던들, 백 년에 제일 가는 성덕(盛德)으로 해로울 데가 없을 것이니, 의제를 처리함이 어찌 어려울 게 있겠습니까. 또 후세의 군자들은 의론을 세울 때 높은 체하여 한·당을 말하기를 부끄러워해서, 한의 덕을 낮게 여기고 이를 찬송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의 여러 대 임금들은 모두 대를 전해 가면서 효도와 우애를 했고, 사람을 쓸 때는 순량한 관리를 먼저 채용했으며, 백성을 지도하는 데는 농사에 힘쓰도록 장려 하였는데, 이 세 가지는 천하의 근본되는 방침으로서 역대에 드문 바였습니다. 급암(汲黯)의 바른 것이나, 광광(霍光)의 어린 임금을 도운 것이나, 자릉(子陵)의 고상한 것이나, 황현(黃憲 동한의 고사(高士))의 모범될 만한 것이나, 제갈량(諸葛亮)의 올바른 출처라든지, 하간효왕(河間孝王)의 예절을 좋아함과 동평현왕(東平憲王)의 착함을 즐긴 것은, 천하의 원기(元氣)요, 역대의 미치지 못할 바입니다. 무릇 이 여러 가지 사실은 질박하고 정직하고 충성되고 간절하고 참다운 뜻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른바 마음의 덕을 행하고 사랑의 이치를 잊지 않는다는 것이나, 이것이 모두 음악을 만드는 실상으로서, 영가(詠歌)하고 감탄해서 대아(大雅) 같은 음악이 생겨도 부끄러운 빛이 없을 것입니다. 천하의 생령(生靈)들은 한(漢)의 문화에 익어서 오래도록 생각에 남았으므로, 유연(劉淵 오호(五胡)의 하나로 전한(前漢)을 세웠다)은 이를 빌려서 안락공(安樂公)¹³⁵에 이어 종묘를 세웠고, 유유(劉裕 남북조의 송 무제(宋武帝))가 관(關)으로 들어가자 부로(父老) 십릉(十陵 한의 역대

133 경시(更始)……않았으리다 : 경시는 광무제의 죽행으로 앞서 황제를 칭한 희양왕(淮陽王) 유현(劉玄)의 연호. 동한 광무제(光武帝) 유수(劉秀)가. 경시의 부하로 있을 때에 경시가 그의 형 연(纁)을 죽였는데. 유수는 상복을 입지 않고 태연하였으나. 잠자리에 들 때는 그 형을 생각해서 울었다.

134 청궁(淸宮)을……옮겼습니다 : 성제는 위의 신하로서 사마소(司馬昭)에 붙어 위의 마지막 황제 조모(曹髦)를 죽였는데 사마소는 정권을 전횡하여 대궐에 옹거하고서 황제를 죽인 죄를 성제에게 돌렸다.

135 안락공(安樂公) : 촉한(蜀漢)의 후주(後主) 유선(劉禪)이 위(魏)에게 망한 뒤의 봉호.

왕릉)을 설명했고, 유지원(劉知遠 오대 때 한 고조(漢高祖)) · 유엄(劉龜 남한(南漢)의 고조(高祖))들도 오히려 ‘묘금도우(劉)’ 자를 빙자해서 대호(大號)를 세웠으니, 이는 비록 전한(前漢)에 아무런 소용도 없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다른 왕실이 한번에 패해서 망한 것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한다.

이때 해가 이미 저녁때나 되었고, 종일 마신 술이 각기 10여 배(杯)나 되어, 형산은 낮부터 의자 위에서 잠이 깊이 들었고, 혹정은 자주 칼을 빼어 양고기를 베어서 큼직하게 먹으며 자주 나에게도 권하는데, 나는 심히 그 노린내가 싫어서 떡과 과실을 먹을 뿐이었다. 혹정은,

“선생은 제 · 노 같은 큰 나라는 즐기지 않으십니까?”

하기에, 나는 웃으면서,

“큰 나라는 노린내가 나서요.”¹³⁶

하였더니, 혹정은 부끄러운 빛이 있었고, 나 역시 그 촉휘(觸譁)된 것을 깨닫고 즉시 먹으로 지우면서 이내 사과하기를,

“저는 자공(子貢)처럼 사랑하지 않아도, 실정은 왕숙(王肅)과 같습니다.”[제(齊)의 왕숙(王肅)이 처음으로 위(魏)에 들어갔을 때에, 양고기를 먹지 않고 늘 붕어를 반찬으로 하였다. 고조(高祖)가 묻기를, “양고기가 생선국에 비해서 어떠하냐” 했더니, 고려 왕숙은 대답하기를, “양고기는 제 · 노의 큰 나라와 같다면, 생선은 주(邾) · 거(莒)의 작은 나라와 같습니다” 하였다. 팽성왕(彭城王) 협(勰)이 말하기를, “그대가 제 · 노의 큰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주 · 거의 작은 나라를 좋아한다면, 명일에는 주 · 거 요리를 차려 봄세” 하였다. 혹정이 내가 양고기를 먹지 못함을 보고서, 내가 작은 나라에 나서 큰 나라의 맛을 모른다고 놀리려고 한 것인데, 내가 큰 나라는 노린내가 난다고 대답하여 도리어 그들이 기晦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는 무안해하는 기색을 보였다.]

136 큰 나라는……나서요 : 큰 나라를 양고기에 견준 고사도 있었거니와, 큰 나라가 노린내가 난다는 말은, 한족이 북방 호족을 노린내가 난다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청에게 통치를 받는 대국은 노린내가 난다고 풍자하는 의미이다.

하였다. 혹정은,

“고려의 공안(公案 고려에 대한 공문)을 공은 아십니까?”

하고 묻기에, 나는,

“이것은 동파(東坡 소식(蘇軾)의 호)의 《지림(志林)》에 실려 있는가요. 고려가 죄가 없는데 동파가 가장 미워했습니다. 고려 명신에 김부식(金富軾)과 부철(富轍) 부식의 아우(아우)이 있는데, 소(蘇)를 사모하였으므로 그들의 이름을 지었으나, 동파는 이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혹정은,

“자첨(子瞻 소식의 자(字))이 임금에게 올린 글에는, ‘고려가 조공을 드리는 것이 텔끝만큼 있으니, 청하건대 서적을 사가는 것을 허락하지 마옵소서’ 했습니다. 그러나 《책부원귀(冊府元龜)》¹³⁷는 그때 나간 것인데, 귀국에서 널리 인쇄되지 않았는지요.”

한다. 나는,

“동파의 상소는 실언을 면하지 못한 것입니다. 작은 나라가 중국을 사모해서 사간 것을 하필 이해로 따졌을까요.”

하였다. 혹정은,

“그렇습니다. 송의 정화(政和 송 휘종의 연호) 연간에 고려 사신을 올려서 국신(國信 지금의 대사격)으로 삼아 하국(夏國)¹³⁸의 윗자리에 있게 하고, 인반(引伴) · 압반(押伴)¹³⁹을 고쳐서 접송(接送) · 관반(館伴)이라 불렀는바, 고려는 요(遼)를 섬겼다가 금(金)에게 신하 노릇을 했기 때문에 중국의 예의를 많이 저버려서, 송 고종(宋高宗)은 심히 한스러워했습니다. 고려가 조공하던 길은 항상 명주(明州) · 명월(明越)¹⁴⁰ 지방을 경유하므로 공급(供給)에 곤란했고, 중국에서 맞이하는 비용이 여러 만냥으로 계산되어, 회(淮) · 제(淛) 강소 절강(浙江) 지방은 이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137 책부원귀(冊府元龜) : 송의 왕흡약(王欽若) · 양억(楊億) 등이 칙명을 받아서 엮은 것인데, 중국 역대 군왕의 사적을 서술하였다.

138 하국(夏國) : 송의 초기에 조원호(趙元昊)가 세운 나라.

139 인반(引伴) · 압반(押伴) : 둘 다 외국 사신을 인도하는 자.

140 명주(明州) · 명월(明越) : 둘 다 지금 절강성의 해안 지방.

다. 옛날 형남(荊南)의 고계홍(高季興)은 오대(五代) 시절의 절도사(節度使)로서, 당시에 한 개의 고을을 헝거한 자는 그 지방의 폐권을 쥐지 않은 자가 없었지만, 고씨는 이런 비용을 받고자 일부러 자신을 낚추어 외변(外藩)으로 자처했으므로, 당시 사람들은 그를 ‘고무뢰(高無賴)’라고 지목했습니다. 송 나라 시절에 회·제에서도 역시 고려를 ‘고무뢰’라고 불렀으니, 대개 그 비용을 부담하기에 괴로웠던 탓이요, 소(蘇)씨의 다섯 가지 해로움이란 말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사(御史) 호순척(胡舜陟)과 시어(侍御) 오불(吳芾) 등도 모두 이것을 말했으니, 비단 폐단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그 혀실을 탐지하는데, 실상 금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한다. 나는,

“이것은 진실로 원통하고 억울한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을 사모하는 것은, 곧 그 천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21대 역사를 상고해 보건대, 신라와 고려로 국호를 삼은 상하 수천 년 동안에 아직 한번인들 귀국의 국경을 놀라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조선이 한(漢)의 사신을 죽인 것은 곧 위만의 조선이요, 기자의 조선이 아니며, 수(隋)나 당(唐)에 대하여 항거한 자는 곧 고씨(高氏)의 고구려(高句麗)요, 왕씨의 고려가 아닙니다. 중국의 사전(史傳)에는 문득 구(句) 자를 뽑고, 마(馬) 변을 없애서 ‘고려’라고 통칭했으니, 이것은 왕씨가 나라를 세우기 전부터 있었던 이름인데, 앞 뒤가 뒤바뀌고 명실(名實)이 혼돈되었으니 족히 한심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삼국 시대에 신라가 가장 먼저 당을 사모하여, 수로(水路)로 중국을 통하면서 의관과 물을 모두 중국의 제도를 본받아, 가위 이(夷)가 변하여 중화가 되었습니다. 왕제(王制)《예기》의 편명(編命)에는 동방을 ‘이(夷)’라고 불렀는데, 이는 뿌리박는다는 뜻이니, 곧 성품이 어질므로 생물을 좋아해서 만물이 땅에 뿌리박고 자라나는 것을 말한 것으로, 천성이 유순하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려는 신라를 계승하여 5백 년 동안에 비록 왕위를 잇는 데 예닐곱 번 잘못이 없지 않았지만, 그러나 중국을 사모하는 정성은 바뀌지 않아서 몽매간이라도 표현되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좋은 글을 얻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밭들어 읽다시피 하였습니다. 두 의원이 돌아

을 때 가만히 음우(陰雨)의 경계를 가지고 온 일¹⁴¹이 있었는데, 무릇 이 몇 가지 일은 역사에 남김없이 기록되었으니, 이는 곧 중국에 마음을 주고 존화양이(尊華攘夷)의 정성이 지극한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당시 사대부들은 고려의 본심은 알지 못하고, 도리어 이웃 나라의 간첩으로 의심했으니, 또한 원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건염 천자(建炎天子) 건염은 남송 고종의 연호)는 설분에 대한 대의는 잊어버리면서 양응성(楊應誠)의 옹졸한 계책을 쉽게 믿고, 지름길을 빌려서 황제를 업고 도망치려다가¹⁴² 필경 장수 적여문(翟汝文)의 선견대로 맞았으니, [송 고종 2년에 절강로 마보도 총관(浙江路馬步都總管) 양응성(楊應誠)이 상주하기를, “고려를 거쳐 여진까지 가기에는 길이 심히 빠르니, 청하건대 제가 삼한(三韓)에 사신으로 가서 계림(鷄林)과 약속을 맺어 두 황제를 맞아 오겠습니다” 하매, 곧 응성을 임시 형부 상서(刑部尙書)로 삼고 국신사(國信使)로 임하였더니, 절강 장수 적여문(翟汝文)이 말하기를, “만일에 고려가 금인(金人)들과의 관계로 거절을 하거나, 또 이를 기회로 길을 묻는다고 빙자하여 중국의 남방을 엿보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였다. 응성이 고려에 이르자, 과연 적여문의 말과 같이 대답했다고 한다.]¹⁴³ 드디어 약한 나라로 하여금 감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일러, 고려의 공안이 아니라 고려의 원안(冤案)이라 하고 싶습니다. 왕씨는 본래 거란 때문에 통로를 끊기고 중국에 다닐 길이 없어, 비록 들어오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변경(汴京)과의 문화 교류는 앉아서 이룬 것이 아니라, 험한 먼 길을 가리지 않고 뱃길로 만 리를 왕래했으며, 신라가 다니던 옛 자취를 찾아서 무서운 고래와 악어를 밟으며 앞 배가 넘어지면 뒷 배가 잇달아, 만 번도 더 죽을 뻔한 고비를 무릅쓰고 성의를 다했던 것이니, 이것은 작은 나라로서의 떳떳한 직분이요, 어찌 이것을 큰 나라에 대

141 음우(陰雨)의……온 일 : 송 휘종 때에, 고려가 송에 의원을 구하매 황제가 의원 두 명을 보냈는데, 그들이 자국으로 돌아가는 편에, 실상은 고려가 의원을 구함이 아니라, 송은 당시에 거란보다도 오히려 여진을 경계하여야 된다고 비밀의 실정을 보고하게 한 사실이 있었다.

142 지름길을……도망치려다가 : 당시 금에 포로가 된 흠종(欽宗)과 휘종(徽宗) 두 황제를, 몰래 고려를 통해서 구출할 계책을 세웠다.

143 송 고종……한다 : 이 원주는 모든 본에 다 이 편의 끝에 있었으나, 여기에다 옮기는 것이 옳을 듯하다.

하여 잇속을 노리는 짓으로 보겠습니까. 변변하지 못한 토산물품이야 천자의 뜰에 갖출 수 있는 것이 못 되지만, 그래도 옛날을 회상하면 인사 차리는 범절을 어김없이 하여 누르고 붉은 꾸러미를 보에 싸서 보내니, 이나마 중국을 사모하는 정성인데, 어찌 이것을 상국(上國)에 잘 보이려는 수단으로만 보겠습니까. 고려가 비록 나라는 작고 백성은 가난하다 하지만, 기름진 곡식들은 족히 조상께 제사를 모실 만하고, 실과 삼은 족히 제복(祭服)을 갖출 만하며, 산에서 나는 쇠와 바다에서 구운 소금은 남의 나라에 의지하지 않고서도 지낼 수 있으니, 어찌 상국의 재물에 욕심을 내고 천자의 유사(有司)들에게 시끄럽게 했겠습니까. 송의 여러 황제들은, 관곡(館穀)이 허비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멀리 찾아온 수고를 따뜻하게 위로하는 뜻은 다른 나라보다 더했습니다. 오래 전해 온 기자 같은 성인의 가르침이 있다 하여 본래부터 예의의 나라로 불려서 대우가 심히 두터웠으니, 중국의 부유하고 포용력이 큰 것을 볼 수 있는지라, 어찌 사해의 부력을 가지고 한 개 사신의 비용을 아끼겠습니까. 천자의 높음으로 옥백(玉帛)의 모임에 이해를 따지겠습니까. 자첨은 학식이 천단(淺短)해서, 후하게 주고 박하게 받는 뜻을 알지 못하고, 갑자기 조그마한 이익과 다섯 가지 손해를 말하여 장사치들이 장단을 다투는 것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이로써 장사꾼의 도(道)로 사방과 사귀어서 만국의 오는 정을 끊어 버렸으니, 저는 일찍이 소식의 상소문은 당시 조정의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하였다. 혹정은,

“선생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후세에서 의논할 때는 대체로 어긋난 일이라 할 수 있으나, 그 당시를 해아려 볼 때는 매우 심장한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자는 촉당(蜀黨 소식의 당)과 낙당(洛黨 정호(程顥) · 정이(程頤)의 당) 때문에 극도로 자첨을 비방(誹謗)하여, 오히려 공문중(孔文仲)¹⁴⁴이 정자(程子) 흔히 숙정자(叔程子) 정이(程頤)를 가리킨다)를 비방한 것보다도 심해서, 다섯 귀신 중에 괴수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진관(秦觀 촉당의 한 사람. 자는 소유(少游) · 이천(李薦 송의 문학가. 촉당의 한 사람)의 무리를 경솔하고 허탄한 도배로 지목하면서, 남현(南

144 공문중(孔文仲) : 촉당의 한 사람으로, 왕안석(王安石)의 학설을 지지하는 학자.

軒)¹⁴⁵과는 교의가 친하다 하여 장준(張浚)을 추존했으니,¹⁴⁶ 군자가 파당에 가담하지 않는 것 역시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선생은 주자의 정론(定論)을 끼고 소(蘇)를 배척하는 품이 오히려 주자보다도 엄하니, 고려를 위한 감정풀이를 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고는, 이내 크게 웃는다. 나도 웃으면서,

“원통한 것을 호소했다고 하면 그럴 법하지만, 어찌 감정풀이라고야 하겠습니까.” 하였더니, 혹정은,

“애오라지 농담이었습니다. 천고에 공적이 옳은 일이나 공적이 옳지 아니한 일에는 인정이 대동(大同)할 터인즉, 누구로 하여금 권하게 하며 누구로 하여금 막게 하겠습니까.”

한다. 나는 웃으면서,

“주자와 같은 당이라 함은 진실로 감심(甘心)하는 바입니다만, 대면해서 착오를 하시니 아직 지독한 촉당(蜀黨)인데요.”

하였다. 혹정은 크게 웃으면서,

“아닙니다. 아니어요. 민호(民皞)는 주자 문하의 자로(子路)입니다.”

한다. 나는,

“성인의 문장(門牆)에까지 이른 모양이니 불러들이지요.”¹⁴⁷

했더니, 혹정은,

“주자와 같은 당이면 세상에 드문 한아(漢兒)이겠군요. 한아가 문약(文弱)한 것은 주자의 책임에 불과합니다.”

한다. 나는,

“주자가 전고에 의리를 지키는 주인인데, 의리가 이기는 곳에는 천하에서 더 강할 수 없겠거늘, 문약한 것을 무얼 걱정합니까.”

145 남현(南軒) : 주자의 친우인 장식(張栻). 남현은 호, 자는 경부(敬夫).

146 장준(張浚)을 추존했으니 : 주자가 장과 지극히 친한 사이이므로 장준의 행장을 지었는데, 장준은 소인이라는 명을 들었으므로 주자가 그 뒤에 스스로 후회하였다.

147 성인의……불러들이지요 : 자로의 학문이 공자의 방에는 들어오지 못했으나 그 문에까지는 왔다는, 공자의 말을 이용하여 혹정을 조롱하였다.

했더니, 혹정은 ‘세상에 드문 한아’란 구절을 찢어 화로 속에 던지면서,

“일부러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자연히 알게 되겠지요.”

하고는, 혹정은 또 말하기를,

“《홍간록(弘簡錄)》 군서목(群書目)에는 정인지(鄭麟趾)가 지은 《고려사(高麗史)》가 들어 있는데, 선배 고령인(顧寧人 고염무(顧炎武))은 역사가의 문제를 갖추었다고 칭찬했으나, 나는 아직 얻어 보지 못한 것이 한스럽습니다. 무석(無錫) 왕안(王晏)이 초출(鈔出)한 《고려기략(高麗紀略)》에는, 외국의 국가 정통(正統)의 대의를 몰라 보고 고려 건국 초기의 사건에 관계된 연호를 쓰면서 첫머리에 역적 양(梁 오대의 후량(後梁). 주온(朱溫)이 세운 나라)의 가짜 연호를 걸었다고 이것을 배척했습니다.”

한다. 나는,

“고려가 처음 일어난 것은 주량(朱梁)의 정명(貞明) 4년(918)으로서, 중국에는 아직 일통(一統)한 천자가 없었으니, 외국의 연호를 무엇으로 붙이겠습니까.”

하였더니, 혹정은,

“난신(亂臣)과 적자(賊子)가 어느 대인들 없으리오만, 한때나마 거짓으로 나라를 정한 것은 모두 선왕(先王)들을 본뜬 것으로, 주온(朱溫)의 내력은 순전한 도적입니다. 황제의 위를 찬탈(篡奪)한 순서로 황제의 정통으로 떠받든 자는 홀로 사마광(司馬光) 한 사람뿐입니다. 공명(孔明 제갈량(諸葛亮)의 자)의 광명정대한 식견으로써 유 예주(劉豫州 유비(劉備)가 일찍이 예주목(豫州牧)이 되었다)를 제실(帝室)의 후손이라 했으나, 당시 견문의 확실한 것을 어찌 후세에서 도보(圖譜)만 따지는 데 비할 수 있겠습니까. 후세에 역사를 짓는 자는, 공명의 말을 믿지 않고 어디에서 대의를 취하였던가요. 구(寇)¹⁴⁸란 것은 남몰래 남의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도둑질하는 것을 말함인데, 공명은 제실의 종신(宗臣)으로서 자기 스스로 자기 집에 들어가서 다른 도적을 쫓아 잡으려던 것이니, 천하에 어느 사람이 이것을 잘못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제갈자(諸葛子 제갈량을 높이는 말)를 구(寇)라고 한다면, 천하

148 구(寇) : 사마광이 《자치통감(資治通鑑)》을 지을 때에 조위(曹魏)를 정통으로 하고, 촉한(蜀漢)이 위를 쳤을 때에 그를 침략적인 ‘구(寇)’라 하였다.

의 문헌으로부터 의(義) 자를 모두 깎아 버려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의 말을 한 번 씹어 보자면, ‘소열(昭烈 유비)의 묘호’은 비록 중산정왕(中山靖王 유승(劉勝))의 후손이라 이르지만이라고 했는데, ‘비록 이르지만’이란 말은 더구나 사람으로 하여금 기가 막하게 합니다. ‘비록 이르지만’이란 말은 도청도설(塗聽途說)의 믿을 수 없는 말을 이름인데, 누가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극온이나 그런 말을 했겠습니다. 이변(李昇)¹⁴⁹은 본래 권신의 가짜 아들로서, 교묘하게 양(楊 양행밀(楊行密)) · 서(徐 서온(徐溫))의 기업(基業)을 빼앗고, 그 뜻을 얻은 후에는 또 찬탈한 자취가 부끄러워서 죽은 의부(義父)를 배반하고 조상을 문황(文皇)¹⁵⁰에게 의탁시켰으니, 천하의 이씨가 비단 농서(隴西)뿐이 아닐 터인데 널 앞에서 왕조를 계승한다고 했습니다. 막길렬(邈佶烈)¹⁵¹도 이와 같은 자입니다. 그(사마광(司馬光))는 곧 역적 양(梁)에게 정통을 내주면서 당당한 제실의 후손(유비(劉備))에게 비하였으니, 무슨 배짱으로 주씨(朱氏 주온(朱溫))로 당을 대신하여 온 사방이 산산이 흩어지게 했으며, 주사(朱邪)¹⁵²가 변경(汴京)에 들어온 것을 신(新 왕망(王莽)의 나라)에 비교하여 국운이 끊어졌다고 한탄했겠습니까. 강목(綱目)에 연대를 쓴 예는 비록 대단히 정당한 자리에 섰다 할 수 있으나, 아직도 익도(益都 산동성 청주(青州)) 종상서(鍾尚書)[이름은 우정(羽正)이다.]가 그 권형(權衡)을 얻은 것만 같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정통론(正統論) 중에는, 준열하게도 사마광 · 구양수의 잘못된 이론을 배척하면서 삼대와 한 · 당 · 송을 정통이라 하였습니다. 바르고도 통일을 못한 자는 동주군(東周君 주(周)의 말주로서 혜왕(惠王)의 아들)과 촉한(蜀漢)의 소열제, 진의 원제(元帝 사마예(司馬睿)), 송의 고종이요, 통일은 했지만 바르지 못한 자는 진시황 · 진무제(晉武帝 사마요(司馬曜)) · 수문제(隋文帝) 등이라 하였습니다. 비록

149 이변(李昇) : 당의 말년 사람으로서, 처음에는 오왕(吳王) 양행밀(楊行密)에게 양자로 들었다가, 뒤에는 후임 오왕이 된 서온(徐溫)에게 양자들어, 서지고(徐知誥)의 이름으로 뒷날 남당(南唐)의 임금이 되었다.

150 문황(文皇) : 당 문종(唐文宗). 이변이 남당을 창건하고 당조(唐朝)를 정통으로 계승한다 하여 성명을 변하였다.

151 막길렬(邈佶烈) : 후당(後唐) 명종(明宗) 이사원(李嗣源)의 별칭. 이극용(李克用)의 양자.

152 주사(朱邪) : 후당 장종(莊宗) 이존우(李存勗)의 본성(本姓).

정통이 아니라 하더라도, 세상을 오랫동안 비워 둘 수는 없고 보니, 역사를 만드는 자는 할 수 없이 제(帝)라고 하였습니다. 조비(曹丕 조위(曹魏)의 문제(文帝))와 왕망(王莽)과 주온(朱溫) 같은 자들은, 이미 의리도 바르지 못하고 형세도 같지 않다고 운운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장주(長洲 강소성에 있다) 송실영(宋實穎)¹⁵³이 양(梁)의 연호를 엄격하게 배척한 논평만 같지 못하니, 그는 왕망에게 ‘신(新)’이란 이름을 붙일 수 없고, 안녹산(安祿山)에게 ‘연(燕)’이란 이름을 붙일 수 없다면, 누가 전충(全忠 주온의 또 다른 이름) 같은 흉악한 역적에게 양의 이름을 줄 것 입니까. 하물며 당시에 진(晉)¹⁵⁴ · 기(岐) · 오(吳) · 촉(蜀) 등의 여러 왕들이 격문을 돌려 당을 회복하고자 하였던들 당의 왕실이 망하지 않았을 것이며, 모두 천우(天祐) 당 애제(哀帝) 때의 연호란 연호를 20년이나 오래도록 붙여 왔으니 당의 왕조는 아직 존속했던 것입니다. 진(晉)은 비록 당이 사성(賜姓)한 나라지만, 그는 제후들 중의 종맹국(宗盟國)으로서 자기 임금의 원수요, 나라의 역적을 자기 손으로 베어서 소탕했은즉,¹⁵⁵ 세상에서 일찍이, “전충(全忠)의 양(梁)이 없었다.” 운운했습니다. 당시 외변(外藩)들은 중국에서 열립한 임금의 진위를 알지 못하고, 혹은 중국을 사모하는 극진한 정성으로나, 또는 자기 나라의 국경을 방위하기 위해서나, 대국과 결탁해서 우리를 진압시키기 위하여 굽실거리면서, 외변으로 자처하고 그 연호를 받드는 것도 이치에 괴이할 것이 없지만, 다만 후세에 역사를 쓰는 자로서 의논한다면, 진위가 밝아지고 득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땅에서 문현들이 이 해마다 압록강을 건너서, 교화는 태사(太師 기자(箕子))를 따르고 학문은 자양(紫陽 주자의 별칭)을 표준하여 ‘예의의 나라’라 일컬어 오는 터에, 천 년의 춘추 대의는 어진 자의 책임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한다. 나는,

“비록 온공(溫公 사마광의 봉호) 같은 어진 이로서도 출척(黜陟)하는 일에는 오히려 이런 과실이 있었거든, 하물며 외국이겠습니까. 저의 나라는 비록 한 집이나 다

153 송실영(宋實穎) : 청 세조(清世祖) 때의 학자. 자는 기정(既庭).

154 진(晉) : 당의 말년에 이극용(李克用)을 봉했던 나라 이름.

155 제후들……소탕했은즉 : 후당 장종(莊宗) 이존우(李存勗)이 양(梁)을 정복하였다.

틈없지만, 오히려 중국에게는 벽을 뚫고 불빛을 빌리며 얼굴을 가린 채 더듬어 찾는 것과 같거든, 하물며 식견이 여기에 이르지 못함이겠습니까. 이제 선생의 양(梁)을 배척하는 의론을 들으니, 모르는 사이에 상쾌해서 망연자실(茫然自失)할 때입니다. 그런즉, 고려사의 연호는 마땅히 어디에 매어야 되겠습니까.”

하였더니, 혹정은,

“이것은 당시의 진(晉) · 기(岐) · 오(吳)의 예로 상고해 보면 정하기 쉬울 것입니다.”

하더니, 드디어 일어나서 탁자 위에 있는 조그만 가죽 상자를 열었다. 형산은 코를 우레처럼 골면서 가끔 머리로 병풍을 건드린다. 혹정은 웃으면서 높은 소리를 질러 읊기를,

“목침십자열(木枕十字裂).”¹⁵⁶

하니, 형산은 코 골ден 것을 즉시 그쳤다가 이내 또 시작한다. 나도 이에 큰 소리로, “목침십자열.”

하였더니, 혹정은 손에 조그만 책을 들고 눈을 크게 뜨더니,

“알아듣는군.”¹⁵⁷

하니, 그것은 내가 능히 한어(漢語)를 안다는 말이다. 작은 책은 과거보는 사람들 이 갖는 역대 기년(紀年)을 적는 책이다. 혹정은 후당(後唐) 장종(莊宗)의 연대를 훑어 본 뒤에, 동광(同光) 원년(923) 갑신(甲申 계미(癸未)의 그릇된 것)으로부터 거꾸로 세어 양(梁)의 균왕(均王 양 말제(末帝)의 봉호) 우정(友貞 균왕의 이름)의 정명(貞明) 4년(918)을 가리켜,

“고려의 건국은 당의 소선제(昭宣帝) 천우(天祐) 15년(918) 무인(戊寅)인 듯합니다. 천우 4년(907)에 전충(全忠)이 황제를 폐하여 제음왕(濟陰王)으로 삼았다가 그 다음에 무진(戊辰)에 죽음을 당했으나, 당(唐)의 정삭(正朔)은 오히려 당시의 제후들에게 쓰인 지 16년이 되었으니, 이것은 역시 공(公)이 건후(乾侯) 하북성(河北省)의

156 목침십자열(木枕十字裂) : 목침이 십(+) 자로 쪼개어진다는 뜻.

157 알아듣는군 : 혹정은 물론 한음으로 읊었겠고, 연암도 역시 한음으로 읊었으므로, 혹정이 알아들음을 칭찬하였다.

지명)에 있다는 뜻입니다.”¹⁵⁸

한다. 나는,

“지금 해내(海內)의 학문으로 주(朱) · 육(陸) 중에서 어느 편을 승상하나요.”

하였더니, 혹정은,

“모두 자양을 존숭합니다. 모신(毛甡)¹⁵⁹과 같은 사람은 글자마다 주자를 반박했지만, 그는 천성이 왕법(王法)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주자를 반박하는 것이 옳은 데는 적고 억지가 많았는데, 그 옳다는 것도 반드시 유문(儒門)에 공이 있는 것이 아니요, 그의 억지는 도리어 세도(世道)에 해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죽이려 하는 자가 도리어 지기(知己)가 되고, 때리지 않으면 정을 알지 못한다 하여, 조사(祖師)를 욕하는 것은 도리어 그 근본을 사랑하는 것으로, 모(毛)가 주자를 반박한 것은 비록 공신(功臣)으로 자처하지만, 때리면 피를 보는데야 누가 그의 사랑을 믿어 주겠습니까. 주자의 문생들은 이웃을 맷었으므로, 마땅히 부득불 바삐 임안부(臨安府 남송의 수도)로 가서 한 소장(訴狀)을 내니, 포염라(包閻羅)¹⁶⁰는 곡직(曲直)을 불문하고 모신을 잡아다가 먼저 죽비(竹籠) 30대를 때렸으나, 모신은 참고 이내 얼굴 한 번 찡그리지 않으며 자꾸만 더 때리라고 소리쳤습니다. 포공(包公)은 크게 노해서 다시 건장한 자들을 불러 더 사납게 때렸으나, 모신은 마침내 항복하지 않았습니다.¹⁶¹ 모신은 평생에 자기를 알고, 자기를 죄줄 점이 모두 주자를 공박한 데 있다는 것을 자인(自認)했습니다.¹⁶² 주자는 홀로 춘추에만 손을 대지 않았으니, 이는 통달한 사람이나, 보망(補亡)¹⁶³ 한 장으로 인하여 소아배(小兒輩)의 허다한 말썽

158 공(公)이……뜻입니다 : 전국 때 제 소공(齊昭公)이 왕의 자리를 쫓겨나와 전후에 있을 때에도 연호는 그대로 썼다. 《춘추(春秋)》에 나오는 고사.

159 모신(毛甡) : 모기령(毛奇齡). 신은 본명(本名). 본자는 초청(初晴). 고친 자는 대가(大可).

160 포염라(包閻羅) : 송 인종(宋仁宗)의 공정한 신하 포증(包拯)이 죽어서 염라왕이 되었다 한다.

161 포공(包公)은……않았습니다 : 이상의 서술은 실제로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가정적으로 소설체로 써서 모기령을 조롱한 말들이었다.

162 모신은……자인(自認)했습니다 : 공자가 일찍이, “나를 알아 줄 자도 《춘추》요, 나를 죄줄 자도 《춘추》라” 한 말씀을 암암리에 빌렸다.

163 보망(補亡) : 주자가 《대학(大學)》 중에 한 장이 누락되었다 해서, 스스로 한 장을 지어서 보충하였다.

이 되었고, 소서(小序)¹⁶⁴를 모두 깎아 버려서 독한 노권(老拳)의 맛을 본 셈입니다.
《참동계(參同契)》¹⁶⁵ 주(註)에……”[날이 저물어 파해 일어서느라고 끝을 맷지 못했다.]

164 소서(小序) : 복상(卜商)이 지었다는 《시경(詩經)》의 해제인데, 주자가 모두 깎아 버렸다.

165 참동계(參同契) : 위백양(魏伯陽)이 지은 도가서(道家書)인데, 주자가 자기의 별호와 성명을 고쳐서 공동도사(空洞道士) 추기(鄒祈)라 하여 고이(考異)를 지었다.

지은이 소개 | 박지원 朴趾源 (1737~1805)

본관 반남(潘南), 호는 연암(燕巖). 한양의 명문가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다방면의 학문을 익혔다. 30세부터 흥대용과 사귀고 서양의 신학문을 접했으며, 젊은 시절에는 정치현실을 혐오해 재야의 선비로서 경륜을 쌓는 데 매진했다. 1780년(정조 4년), 삼종형인 박명원이 청나라에 갈 때 동행했다. 당시에 남긴 기행문 《열하일기(熱河日記)》를 통해 청의 실용적 문물을 소개하고 조선의 전반적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후 박제가 등과 이른바 북학파(北學派)의 영수로서 이용후생(利用厚生)을 강조하는 학풍을 일으켜 후학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기발한 문체를 구사하여 《허생전(許生傳)》《호질(虎叱)》《양반전(兩班傳)》 등 빼어난 한문소설을 저술, 지도층의 타락상을 고발하고 보다 진취적인 인간상을 제시했다. 저서에 《연암집(燕巖集)》 《과농소초(課農小抄)》 외 다수가 있다.

옮긴이 소개 | 이기원 李家源 (1917~2000)

한문학자·국문학자. 경북 안동(安東) 출생으로 퇴계 이황의 14대손이다. 호는 연민(淵民). 명문전문을 마치고 성균관대 국문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연암 소설을 주제로 성균관대 국문과 1호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성균관대·연세대 교수로 오랫동안 강단에 섰다. 한국학 분야에 독보적인 업적을 남겼으며 특히 연암 박지원 연구에 천착, 《열하일기》 원본 등 3만 여점의 국학 자료를 단국대에 기증하기도 했다. 저서로는 《중국문학사조사》 《연암소설연구》 《한국 한문학사》, 역서로는 《삼국유사 신역》 《금오신화 역주》 《구운몽 역주》 등이 있다.

열하일기 | 1

©사단법인 올재

발행 | 2014년 2월 15일

펴낸이 | 홍정우

기획 · 편집 | 이상민 김지훈

표지제작 | 강병인

편집디자인 | 황인정

인쇄 · 제작 | (주)헤럴드

펴낸곳 | 사단법인 올재

출판등록 | 2011년 11월 4일 제300-2011-188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157-78

전화 | 02-720-8278

팩스 | 02-773-0250

홈페이지 | www.olje.or.kr

ISBN | 978-89-97876-25-9

*표지 제호 저작권은 캘리그라퍼 강병인 님께 있습니다.